



사업단 국제지역학회  
IAAS

# 2022

## 국제지역학회 국제학술회의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대안 모색 :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합

일시

2022. 11. 25. 금 13:00 ~ 18:10

장소

제주한라대학교 금호세계교육관 A동

주관

국제지역학회

공동주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인문도시 사업단

일반공동연구 사업단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원

한미얀마연구회

배재대학교 소수민족연구소

후원

경희대학교

한국연구재단

제주한라대학교



사단  
법인 국제지역학회  
IAAS

# 2022

## 국제지역학회 국제학술회의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대안 모색 :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합

일시

2022. 11. 25. 금 13:00 ~ 18:10

장소

제주한라대학교 금호세계교육관 A동

주관

국제지역학회

공동주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인문도시 사업단

일반공동연구 사업단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원

한미얀마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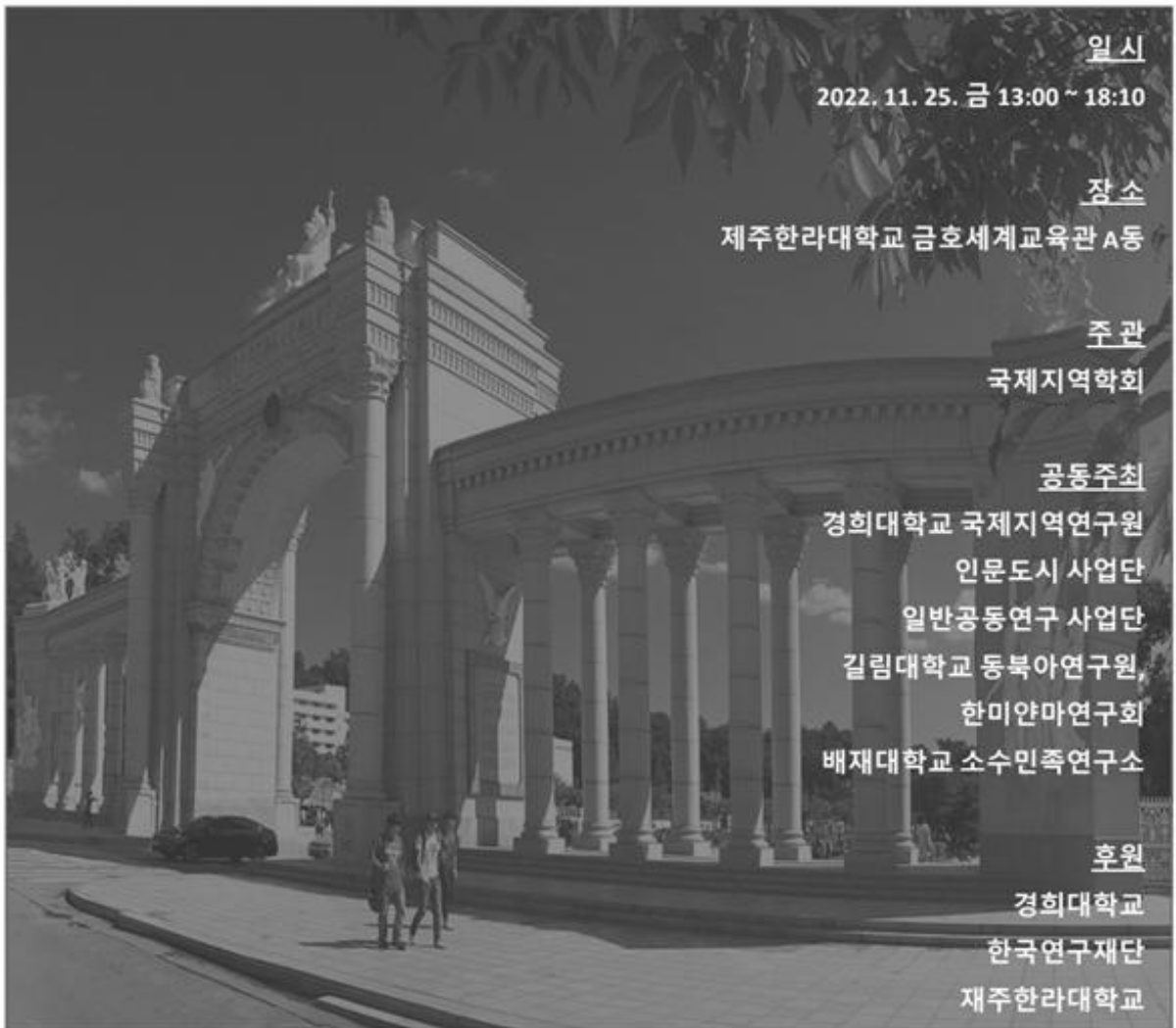
배재대학교 소수민족연구소

후원

경희대학교

한국연구재단

제주한라대학교



## 2022 국제지역학회 국제학술회의

# Contents

프로그램 .....	1p
초청의 글 .....	6p
세션 1: 새로운 국제 정세와 동북아 협력 방안: 신성장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전망 (ZOOM) .....	7p
国际经济秩序变化下的中国经济安全战略与中韩关系 .....	8p
张慧智 (길림대학교)	
东北亚地区防扩散态势分析 .....	11p
王箫轲 (길림대학교)	
通过东北三省外国投资环境分析韩国与中国的合作方案 .....	13p
김이슬 (하얼빈이공대학교)	
中美竞争与中韩供应链合作 .....	31p
金香丹 (길림대학교)	
环境规则对全球价值链的影响：基于RCEP, EU, ASEAN和NAFTA的研究 .....	36p
여지춘 (경희대학교)	
中韩经贸合作现状与展望 .....	52p
玄春姬 (길림대학교)	
中国互联网医疗服务特性对消费者使用意图影响 .....	59p
马静妍 (군산대학교) · 강태원 (군산대학교)	
低碳经济和中韩合作 .....	74p
김옥 (건국대학교)	
大学生感知创业支持对其创业意愿的影响 .....	93p
XueXiaojuan (황화이대학교) · 김현철 (군산대학교)	

<b>세션 2: 지속가능한 투어리즘과 지역의 발전</b> .....	105p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농촌 치유관광 활성화 방안 .....	106p
김정현 (경희대학교)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관광과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 탐색 : 일본의	123p
지역창생 정책과 강원 양양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미옥 (한양대학교/Locus Company)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음식축제 활성화 방안 .....	138p
박희경 (경희대학교)	
 <b>세션 3: ESG와 공급망 전략</b> .....	158p
ESG 경영 프레임의 기초지자체 적용 가능성 .....	159p
이정현 (명지대학교)	
기업규모에 따른 국내기업의 ESG활동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164p
김승현 (경희대학교)	
아세안 GVC 위치에 관한 연구: 미-중 참여 중심으로 .....	216p
전곤 (경희대학교)	
기술혁신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	228p
이의영 (군산대학교)	
 <b>세션 4: 미얀마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b> .....	245p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한 ESG 연구동향 분석 .....	246p
이가은 (광운대학교)	
글로벌 금융시장과 한-중-일 환율 가격 발견 효과 연구 .....	p
김웅열 (한미얀마연구회)	
미얀마 IPRs 이해 .....	p
배홍균 (상지대학교)	
 <b>세션 5: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로컬리티</b> .....	257p
로컬의 인문학적 실천과 지역발전 : 로컬크리에이터 사례를 중심으로 .....	258p
정수희 (덕성여자대학교) · 이병민 (건국대학교)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x-minute city'논의 .....	274p
허동숙(공주교육대학교)	



시민 중심의 성남형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	287p
채지민(상화개발&연구소)	
<b>세션 6: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와 지역의 발전</b> .....	303p
머신러닝을 활용한 하향취업의 결정요인 분석 .....	304p
신범철 (경기대학교)	
The relationship between uncertainty and inventory turnaround time: The moderating effect of star employee .....	322p
강한솔 (고려대학교)	
Perceived severity of and vulnerability to COVID-19 and consumers'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	332p
박수훈 (동양미래대학교)	
Legal Compliance of Chinese Viewers and Opportunism of Online Video Platforms .....	363p
이상준 (연세대학교)	
<b>세션 7: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사례: 제도와 성과</b> .....	368p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사례: 제도와 성과 .....	369p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b>세션 8: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미얀마 협력 방안</b> .....	395p
인공지능과 표준화 .....	396p
강신원 (한미안마연구회)	
A study on the health-related situation in Myanmar - Focusing on the financing situation - .....	409p
권오성 (전주교육대학교)	
탈세계화 시대 통상외교 전략방향에 관한 연구: 가치기반 통상외교 .....	416p
박현용 (덕성여자대학교)	
<b>세션 9: 러시아 북극 원주민</b> .....	426p
신냉전에 따른 북극에서의 협력: 도전과 전망 .....	427p
배규성 (경희대학교)	
러시아 북극 원주민과 지속가능한 발전: 추코트카 자치구를 중심으로 .....	433p
바딤 슬랩첸코 (경희대학교)	
러시아 에스키모의 축제 .....	445p
카파루쉬끼나 디아나 (배재대학교 소수민족연구소)	

## 2022 국제지역학회 국제학술회의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대안 모색 :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합

일 시: 2022. 11. 25. 금 13:00 ~ 18:10

장 소: 제주한라대학교 금호세계교육관 A동

주 관: 국제지역학회

공동주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인문도시 사업단, 일반공동연구 사업단,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원, 한미안마연구회, 배재대학교 소수민족연구소

후 원: 경희대학교, 한국연구재단, 제주한라대학교

13:00~13:30	등록		
13:30~13:45	개회식	개회사: 김준업(국제지역학회 회장, 경희대학교 교수) 사 회: 임상현(국제지역학회 사무국장, 경희대학교 교수)	금호세계교육관 A동 503호
13:45~14:00	기념촬영 및 Coffee Break		
14:00~18:10	세션 1 새로운 국제 정세와 동북아 협력 방안: 신성장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전망 (ZOOM)		금호세계교육관 A동 609호 (14:00~18:10)
	세션 2 지속가능한 투어리즘과 지역의 발전		금호세계교육관 A동 503호 (14:00~16:00)
	세션 3 ESG와 공급망 전략		금호세계교육관 A동 506호 (14:00~16:00)
	세션 4 미얀마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금호세계교육관 A동 505호 (14:00~18:10)
	세션 5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로컬리티		금호세계교육관 A동 503호 (16:10~18:10)
	세션 6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와 지역의 발전		금호세계교육관 A동 506호 (16:10~18:10)
	세션 7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의 사례: 제도와 성과		금호세계교육관 A동 507호 (14:00~16:00)
	세션 8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미얀마 협력 방안		금호세계교육관 A동 505호 (16:10~18:10)
	세션 9 러시아 북극 원주민		금호세계교육관 A동 507호 (16:10~18:10)
	Coffee Break (16:00~16:10)		
18:10~	폐회 및 만찬		만찬장

\* 세션 1의 zoom 링크

<https://zoom.us/j/91865081047?pwd=c29zbDhnMnJ3R05iMnZaMTNFemp5QT09>

회의 ID: 918 6508 1047 암호: 0000

## 세션 1 새로운 국제 정서와 동북아 협력 방안 : 신성장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전망

좌장: 주재우(경희대), 김현철(군산대), 장혜지(길림대)

발표 1	14:00~18:10	国际经济秩序变化下的中国经济安全战略与中韩关系	
		발표 张慧智(길림대학교)	토론 徐博(길림대학교)
발표 2		东北亚地区防扩散态势分析	
		발표 王箫柯(길림대학교)	토론 巴殿君(길림대학교)
발표 3		通过东北三省外国投资环境分析韩国与中国的合作方案	
		발표 김이슬(하얼빈이공대)	토론 강태원(군산대학교)
발표 4		中美竞争与中韩供应链合作	
		발표 金香丹(길림대학교)	토론 张慧智(길림대학교)
발표 5		环境规则对全球价值链的影响：基于RCEP, EU, ASEAN和NAFTA的研究	
		발표 여지준(경희대학교)	토론 王箫柯(길림대학교)
발표 6		中韩经贸合作现状与展望	
		발표 玄春姬(길림대학교)	토론 朴英爱(길림대학교)
발표 7		中国互联网医疗服务特性对消费者使用意图影响	
		발표 강태원(군산대학교), 马静妍(군산대학교)	토론 김욱(건국대학교)
발표 8		低碳经济和中韩合作	
		발표 김욱(건국대학교)	토론 玄春姬(길림대학교)
발표 9		大学生感知创业支持对其创业意愿的影响	
		발표 xuexiaojuan(황화이대학교), 김현철(군산대학교)	토론 金香丹(길림대학교)

## 세션 2 지속가능한 투어리즘과 지역의 발전

좌장: 황조혜(경희대학교)

발표 1	14:00~16:00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농촌 치유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 김정현(경희대학교)
발표 2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관광과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 탐색 : 일본의 지역창생 정책과 강원 양양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한미옥 (한양대학교/Locus Company)
발표 3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음식축제 활성화 방안
		발표 박희경(경희대학교)
종합 토론		토론 최충범(세종대학교)

## 세션 3 ESG와 공급망 전략

좌장: 최영준(경희대학교)

발표 1	14:00~16:00	ESG 경영 프레임의 기초지자체 적용 가능성
		발표 이정현(명지대학교)      토론 신호정(고려대학교)
발표 2		기업규모에 따른 국내기업의 ESG활동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발표 김승현(경희대학교)      토론 신범철(경기대학교)
발표 3		아세안 GVC 위치에 관한 연구: 미-중 참여 중심으로
		발표 전곤(경희대학교)      토론 이의영(군산대학교)
발표4		기술혁신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발표 이의영(군산대학교)      토론 김준엽(경희대학교)

## 세션 4 미얀마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좌장: 강신원(한미얀마연구회)

발표 1	14:00~18:10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한ESG연구동향 분석
		발표 이가은(광운대학교)      토론 한송수(한미얀마연구회)
발표 2		글로벌 금융시장과 한-중-일 환율 가격 발견 효과 연구
		발표 김용열(한미얀마연구회)      토론 권오성(전주교육대학교)
발표 3		미얀마IPRs이해
		발표 배홍균(상지대학교)      토론 이가은(광운대학교)



## 세션 5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로컬리티

좌장: 이병민(건국대학교)

발표 1	14:00~16:00	로컬의 인문학적 실천과 지역발전 : 로컬크리에이터 사례를 중심으로	
		<b>발표</b> 정수희(덕성여자대학교) 이병민(건국대학교)	<b>토론</b> 지상헌(경희대학교)
발표 2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x-minute city' 논의	
		<b>발표</b> 허동숙(공주교육대학교)	<b>토론</b> 이종호(경상국립대학교)
발표 3		시민 중심의 성남형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b>발표</b> 채지민(상화개발&연구소)	<b>토론</b> 이원호(성신여자대학교)

## 세션 6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와 지역의 발전

좌장: 신호정(고려대학교)

발표 1	16:10~18:10	머신러닝을 활용한 하향취업의 결정요인 분석	
		<b>발표</b> 신범철(경기대학교)	<b>토론</b> 이의영(군산대학교)
발표 2		The relationship between uncertainty and inventory turnaround time: The moderating effect of star employee	
		<b>발표</b> 강한솔(고려대학교)	<b>토론</b> 이종호(경상국립대학교)
발표 3		Perceived severity of and vulnerability to COVID-19 and consumers'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b>발표</b> 박수훈(동양미래대학교)	<b>토론</b> 이종호(경상국립대학교)
발표 4		Legal Compliance of Chinese Viewers and Opportunism of Online Video Platforms	
		<b>발표</b> 이상준(연세대학교)	<b>토론</b> 이종호(경상국립대학교)

## 세션 7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사례 : 제도와 성과

좌장: 신의경(제주한라대학교)

발표	14:00~16:00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사례: 제도와 성과	
		<b>발표</b> 고동원(성균관대학교)	<b>토론</b> 김봉(제주한라대학교), 서용구(숙명여자대학교), 김두한(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미래사업처장)

## 세션 8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미얀마 협력 방안

좌장: 한승수(한미얀마연구회))

발표 1	16:10~18:10	인공지능과 표준화	
		발표 강신원(한미얀마연구회)	토론 박현용(덕성여자대학교)
A study on the health-related situation in Myanmar - Focusing on the financing situation -			
발표 권오성(전주교육대학교)		토론 강신원(한미얀마연구회)	
탈세계화 시대 통상외교 전략방향에 관한 연구: 가치기반 통상외교			
발표 3		발표 박현용(덕성여자대학교)	토론 김웅열(한미얀마연구회)

## 세션 9 러시아 북극 원주민

좌장: 김태진(배재대학교 소수민족연구소)

발표 1	16:10~18:10	신냉전에 따른 북극에서의 협력: 도전과 전망	
		발표 배규성(경희대학교)	토론 류상철(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발표 2		러시아 북극 원주민과 지속가능한 발전: 추코트카 자치구를 중심으로	
		발표 바딤 슬랩첸코(경희대학교)	토론 이경희(배재대학교 소수민족연구소)
발표 3		러시아 에스키모의 축제	
		발표 카파루쉬끼나 디아나 (배재대학교 소수민족연구소)	토론 김석희(경희대학교)



## 초 청 의 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동북아지역의 발전과 초광역 협력체제가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현재 국제지역학회가 주최하고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인문도시사업단과 일반공동연구사업단이 주관하며 한국연구재단과 경희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후원으로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 모색 -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2022년도 국제지역학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중국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원, 한-미얀마 연구회, 배재대학교 소수민족연구소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 9개 세션에 약 30편이 넘는 논문발표, 사회 및 토론을 맡아주시는 모든 학자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번 학술대회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과 전 지구적 소통이라는 목표아래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영역을 아우르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투어리즘과 지역의 발전, ESG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도시 사례 등 다양한 주제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적 접근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과 창조적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사회, 국가, 지구적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인문학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학술대회를 통하여 학자분들의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후속연구와 실천이 축적된다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안을 함께 마련하여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학술대회를 후원해 주신 연구재단과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세션 1**

**새로운 국제 정서와 동북아 협력 방안: 신성장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전망**

# 未来国际经济秩序展望、中国的经济安全观与中韩关系

张慧智教授(吉林大学朝鲜韩国研究所)

## 一、国际经济秩序加速变化

当今世界正在面临百年未有之大变局。中美战略、新冠肺炎疫情以及俄乌冲突等历史性大事件相互叠加，加速了全球价值链重构，世界金融和大宗商品价格出现前所未有的超级波动，高通胀压力持续，美联储加息使各国货币政策协调难度加大，全球经济面临衰退，国际经济秩序加速调整。

1. 全球价值链加速重构，各主要国家从经济安全角度重新定位经济收益和全球布局，使产业链和供应链进行收缩。新冠疫情的爆发与全球蔓延过程中，很多国家启动了“中国+”的战略模式和产业链战略，这不是简单的去中国化，而是要建立相应的备胎，使全球垂直单一的价值链变成多元的，增加供应链的弹性、韧性和多元性。俄乌冲突后美国等西方国家的对俄制裁则进一步加速了供应链断裂和重构，加快了经济全球化向区域化、本土化方向发展的进程。

2. 能源和大宗商品价格上涨，国际金融市场动荡，使国际经济秩序从以美国主导的全球化向多边平行体系并存的全球化演进。美欧等大规模对俄制裁迫使包括中国在内的多国开始认真研究应对西方制裁的方法。特别是美西方国家将俄罗斯排除SWIFT体系，美国冻结俄罗斯央行美元储备的行径，将迫使世界各国思考美元及SWIFT支付体系的可靠性。此举警示诸多国家需要加快构建自主可控的国际支付结算体系，以保护自身利益。中国主张继续推动全球化，对资源进行全球有效配置。集团化和平行市场会增加贸易和投资便利化成本，不利于人类社会福祉的提高。因此，这种平行体系不符合中国的发展利益，但难以改变当前这一趋势。

3. 自由主义国际秩序走向衰落，自由民主体制走下神坛，西方代议体制治理失灵问题日益严峻，合法性基础动摇，人类历史回归政治文明多元并举的常态。英国脱欧、美国“退群”以及西方社会保护主义、民族主义、民粹主义与逆全球化思潮大行其道，表明“自由主义国家”对现行“自由国际秩序”也感到不满，开始自我怀疑自由主义的秩序理念或者放弃相应的外交战略。世界经济重心快速向亚洲转移，新兴经济体开始全面参与国际社会规则与标准制定。

## 二、中国的经济安全观

随着中美战略竞争加剧，经济民族主义升级，全球经济增长动力不足，国际多边协调机制崩溃，世界主要国家越来越重视本国的经济安全。中国对经济安全的认知、理解和判断一定程度上体现了中国与世界相互融合的过程，由此逐渐形成了中国的经济安全观。

改革开放之前，中国经济安全重点是建立自力更生、独立完整的工业体系和国民经济体系。改革开放之后中国虽然加强了与世界经济的联系，但直到1990年代末，尤其是1997年亚洲金融危机才使中国对经济安全的重视提升到国家层面。2001年加入WTO后，中国经济与世界经济紧密联系在一起，外部经济风险凸显，国内外经济风险因素相互交织，中国关于经济安全的概念范围也突破了国界，向着全球化视野进行拓展。

1. 2001-2010年，中国的经济安全观主要表现为“适应经济全球化，抓住产业转移的重大机遇，优化资源配置，拓展发展空间”。这一阶段，中国政府专注于经济建设、积累自身实力，以适应性参与的方式与外部世界展开互动。在维护经济安全方面，中国高度重视维护产业安全，引导外资发挥

积极作用，防范不利影响，较少涉及对外部世界的触动或要求。同期，美国的经济安全目标包括维护和拓展自由市场，提高美国的经济竞争力，掌握国际经济规则制定权，保障美国在全球范围的领导地位。可见，中美两国各自的经济安全理念和内涵虽有不同，但至少在形式和举措上存在颇多相向、一致或契合之处，从而为中国创造了良好的外部环境。

2. 2010-2020年，中国虽然注意到世界处于变革期及其可能带来的影响和冲击，但参与经济全球化的积极性、主动性有明显提升，重点目标是“构建互利共赢、多元平衡、安全高效的开放型经济新体制”。这一阶段，中国意识到经济发展对发达国家市场、资本与技术等资源的依赖导致中国对外依存度与脆弱性过高等问题。在保障经济安全的方式上，继续深化改革、完善自身的同时，更加重视战略性，加强与周边国家和发展中国家关系，重视区域合作，通过推动国际经济规则体系“改制”与“创制”并举，力图调整和改变既有规则架构中不尽合理的内容，突破其对本国与其他发展中国家的约束和局限，解决本国在国际经济体系中地位与实力不相匹配的问题。一带一路倡议、亚投行、亚信峰会、金砖国家峰会等均是这一阶段提出的举措。此阶段，中国经济快速增长引发美国担忧，对中国的政策中提防、针对、压制的成分明显增多，相继出台了“亚太再平衡”、TPP、中美贸易竞争等政策，使中国经济安全的外部环境恶化。

3. 2020 年之后，百年大变局下，世界进入动荡变革期，中国遇到的很多问题是中长期的，必须从持久战的角度加以认识，因此，中国的“十四五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提出了加快形成以国内大循环为主体、国内国际双循环相互促进的新发展格局，统筹经济发展与经济安全。未来一段时期，中国最需要防范的外部经济风险大致可以分为两类：一是国际经济体系的稳定性和有序性在民族主义、民粹主义等力量冲击下遭到削弱和动摇；二是全球经济事务的某些关键领域出现去中国化的倾向，如在国际经济规则的磋商与制定、全球价值链高端环节的进入、新技术标准的形成等方面。

针对美国联合西方国家打造排华性的经济联盟体系，阻挠中国发展，与中国展开长期竞争的态势，中国未来将以“防范化解各类风险隐患，积极应对外部环境变化带来的冲击挑战”为要务，一方面，立足于国内，“办好自己的事，提高发展质量，提高国际竞争力，增强国家综合实力和抵御风险能力”；另一方面，坚持构建安全高效的开放型经济体系，实施更大范围、更宽领域、更深层次对外开放，促进更高质量的发展。在此过程中，中国还需要构筑与更高水平开放相匹配的监管和风险防控体系，有效管控风险，切实维护本国经济安全。

### 三、中韩关系的未来

百年未有之大变局的重大变化，就是新兴市场国家和发展中国家群体性崛起，从根本上改变了自工业革命以来西方国家在国际政治经济格局中长期占据主导地位的局面。新崛起的国家群体中，最重要的就是中国和韩国。韩国凭借其经济位居世界前十、军力位居世界前六的实力跻身发达国家行列，其积极参与全球治理及新国际秩序构建，在世界舞台发挥重要作用，由中等强国发展成为世界大国的信心和意愿愈发强烈。

中韩建交30年来，虽然在政治外交、经贸合作、人文交流等多个领域都实现了跨越式发展，但在国际经济秩序变革期，两国关系也面临着一系列挑战。自尹锡悦政府上任后，紧随美国的步伐，在经济安全、军事安全、意识形态等多个领域加入美国主导的以遏制中国为目标的联盟体系，特别是在经济上要全方位实现“去中国化”，使两国经济关系滑向地缘经济竞争的风险加大。

尽管如此，中国仍致力于维护好、巩固好、发展好与韩国的关系，从战略高度重视中韩关系，努力推进两国关系行稳致远。但如果韩国政府仅根据价值观划分利益集团，不顾及东北亚地区各国政治体制不同的现实，放弃务实主义外交传统和柔性外交战略，那么中韩关系可能出现重大调整。

随着世界政治经济格局的演变，中美战略博弈带来的地缘政治经济环境变化，以及韩国新政府外交安全政策倾向带来的不确定因素，使中韩关系遭到严峻考验。但中韩关系没有退路。为建设面向未来的高水平新型中韩关系，两国需要正视当前在各领域面临的重大挑战，有效管控双方分歧；通过首脑会晤和高层互访、地方政府交流与公共外交等多种方式促进两国国民相互理解，相互包容；超越理念与体制的差异性，携手克服“新冷战”思潮的负面影响，创造中韩关系的“自治空间”。中韩还应在相互尊重核心利益的基础上，共同致力于维护朝鲜半岛与东北亚地区的和平发展，形成相互补充的利益共同体；开辟更广阔的合作空间，在RCEP等多边框架下深化双边战略合作，共同勾画中韩关系新发展蓝图。

# 东北亚地区防扩散态势分析

王箫轲(吉林大学东北亚研究中心)

防扩散是指“通过劝阻、阻断敏感技术、材料和专业知 识，来保证大规模杀伤性武器不被扩散”，防扩散的对象包括“大规模杀伤性武器（核生化）、其运载系统和相关材料、技术”等。因此，防扩散问题所考量的不仅仅是核生化武器，还包括核生化武器的运载工具（主要是导弹），以及相关的材料、技术等。如果从这个角度看的话，东北亚地区面临的防扩散态势相当严峻。

## 一、朝鲜核导技术的纵向扩散

2021年1月，朝鲜正式宣布停止冻结核与导弹试验，重新恢复了洲际导弹的试验，还进行了频率空前的短程导弹试验。到2021年9月，朝鲜颁布了《核武力政策法令》，公布使用核武器的原则和方式。随后，朝鲜又进行了长达两周的战术核武器演练。朝鲜导弹试射的地点覆盖全国，并罕见地出动了上百架次的战机，意在宣示其具有多种方式的二次核打击能力。这也说明，朝鲜基本具备了战术核弹头小型化的技术。据美韩情报部门估计，朝鲜的战术核弹头能够控制在600公斤左右，弹径控制在60-80厘米之内，其现有的多种型号中短程导弹都可以搭载，空军米格-29和轰-5也可以挂载相应的核航弹。

从近三年来朝鲜的导弹技术发展来看，其洲际导弹的多弹头技术取得了新的进展。最新的火星17导弹虽然继续采用液体发动机，但采用了3级发动机技术，比火星15射程更远、载重量更大，极可能具备了搭载多枚核弹头的能 力，这意味着更强的突防能力。在短程弹道技术方面，朝鲜取得的技术突破更加明显。朝鲜版的“伊斯坎德尔”KN-23技术更加成熟，射程也有所提高，甚至具备了弹头末端机动能力。朝版“陆军战术导弹”（ATACMS）KN-24、超大型火箭炮KN-25也都展示了可靠的性能。这三款导弹均使用固体发动机，具备良好的机动能力。此外，朝鲜还试验了高超音速导弹和远程巡航导弹。这些都表明，朝鲜的核技术与导弹技术在持续发展，目前东北亚各国面临的已经不是朝鲜拥核与弃核的问题，而是核裁军与避免核战争的问题。

## 二、韩日核与导弹技术的扩散

韩国在文在寅政府时期加强了“自主国防”的建设，并成功使美国解除了对韩国导弹射程的限制。韩国的玄武系列导弹也取得了突破性进展，实质上已经具备了研发中程弹道导弹的能力，已经部署的玄武2B和正在研发的玄武2C的射程都能达到800公里甚至更远。尹锡悦政府还宣布将增加弹道导弹的数量，积极发展新型陆基中程弹道导弹、空射巡航导弹，研发核潜艇也别提上日程。尹锡悦政府还一度寻求与美国实现核共享，在拜登政府明确拒绝后转而寻求美国在韩循环部署战略资产。韩国重启了与美国的联合军演，并开展了美日韩反导演习，三国反导系统的数据链联通和情报共享机制得到演练，反导系统的实质性融合不断取得进展。在韩国的主动示好下，韩日就应对朝鲜核威胁开展战略协作达成共识，并同意恢复军事情报交流协定的正常运转。

日本同样在寻求核共享与中程导弹方面表现了浓厚的兴趣。日本前首相安倍晋三声称美国在日本部署核武器的话题不能成为禁忌；右翼在野党日本维新会还向日外务省提交相关建议书，要求就



“核共享”展开讨论。日本政府一面表示仍坚持“不拥有、不制造、不运进核武器”的“无核三原则”，一面却宣称日本党派和国民可以讨论“核共享”问题。日本防卫省在2023年财政预算中要求开始量产改进型“12型地对舰导弹”，射程约1000公里，并开始量产一种难以拦截的“海岛防御高速滑翔导弹”。与此同时，日本正在采购美国射程达到2400公里的战斧式巡航导弹。另外，拜登政府还诱导和施压岸田政府配合美军，在日本西南诸岛部署中程弹道导弹部队。

### 三、东北亚防扩散问题的根源

东北亚地区防扩散局势变得更加严峻，不仅仅是朝鲜的核导开发，韩日的中导开发、美国的中导技术转让或直接部署，以及韩日谋求核潜艇等都成为了防扩散关注的议题。而之所以产生这些问题，根本原因在于东北亚地区在上一场冷战尚未完全结束时，又面临着一场新冷战的挑战，国家间的安全互信始终没能建立起来。

在20世纪90年代，朝鲜核问题初漏端倪的时候，美朝通过日内瓦《框架协议》达成了对核导问题的管控。但随着小布什政府改变对朝政策，朝鲜加速了核导研发。进入21世纪以后，美国历届政府在朝鲜半岛防扩散的重点都在于防止朝鲜将核导技术扩散至其他国家或组织，并阻止更先进的核导技术流入朝鲜。但事实证明，这种做法并没有阻止朝鲜核导技术的纵向扩散，即技术的持续进步。而朝鲜核导技术的开发确实是韩日强化军备、美国加强前沿部署的重要理由，也是加剧地区核导扩散的一个原因。

随着美国把大国竞争尤其是与中国竞争列为国家安全的重心，其对华军事部署成为东北亚地区防扩散形势紧张的主要原因。2021年9月，美国、英国和澳大利亚三国宣布建立“三边安全伙伴关系”（AUKUS），美国与英国承诺向澳大利亚转让核潜艇技术，此举成为东北亚地区掀起新一波核扩散的浪潮，韩国和日本纷纷开始讨论从美国获得核潜艇技术的可能。美英此举也使得朝鲜更加笃信自己拥核的正当性。与此同时，美国持续推动的亚太地区反导网络也开始延伸到东北亚地区，以THAAD入韩为标志，美国构建地区反导系统、巩固其战略优势的意图更加明显。不仅如此，美国还开始着手在亚太地区推进部署中程弹道，意图在攻防两端同时占据绝对的优势。美国取消了对韩国导弹射程的限制，向日本出售战斧导弹，并有可能向两国提供导弹开发的相关技术。

从发展趋势来看，东北地区防扩散问题的重点正在转移，大国竞争的优先性恐怕要超过地区热点问题的管控。朝鲜核导问题与美国的延伸威慑、韩日的中导部署等问题会更加密切地联系起来，议题的复杂性会进一步增加。在美国看来，朝鲜核导的威胁远远不如“中国核力量和常规武装力量对其全球战略优势的挑战”。但在中国看来，自身的核力量与美国并不在一个数量级上，因此不愿参与美俄之间的核军控谈判。事实上，美国正在发起与俄罗斯和中国两场不同性质的新冷战。美俄之间的新冷战仅在规模上与美苏冷战不同，而中美之间的新冷战还没有发展到美苏对抗的那种程度。因此，中美之间的核军控谈判应该“另起炉灶”，致力于“有管控的战略竞争”，以更审慎的态度对待可能引发对抗的军事部署。进而在此基础上，寻求地区性的核裁军与军备控制，逐步消解朝鲜的核导威胁及韩日两国的核导扩散冲动。

# 通过东北三省外国投资环境分析 韩国与中国的合作方案

김이슬(Kim Eisel, 金露水) / 하얼빈이공대학교(哈尔滨理工大学)

## 目录

- 01 绪言
- 02 理论背景与先行研究
- 03 向东北三省投资环境分析
- 04 韩国与中国的合作方案
- 05 结论

## 绪言

### 韩国对中国的FDI

- 韩国对中国的FDI开始于1990年，投资金额于当年超过了 2,200万美元，2021年，超过66亿美元(到2021年累计824亿美元)。
- 对中国投资比重

		对中国	对东北三省地区	东部沿海地区	对中部地区	对西部内陆地区
投资 金额 (一百万 美元)	全体 (~2022年1分期)	86,653	<b>10,749 (12.4%)</b>	65,497 (75.6%)	2,796 (3.2%)	6,726 (7.7%)
	2021年	6,679	<b>1,713 (25.7%)</b>	4219 (63.2%)	94 (1.4%)	497 (7.4%)
	2022年1分期	4,262	<b>3,238 (75.6%)</b>	9.78 (23%)	4 (0.1%)	3.3 (0.07%)

\* 不包括自治区和特别行政区



### 向东北三省投资优势

- 推进东北地区经济促进政策：“东北振兴”政策的推进，与这些政策的“长吉图开发计划”的推进。
- 东北三省与韩国，朝鲜，日本，俄罗斯，蒙古国等邻国交流的地理优势。
- 东北三省通过‘一带一路’六大经济走廊的‘中-蒙-俄’经济走廊，担当与俄罗斯、蒙古国等远东地区进行联系与交流的重要角色。

- 东北三省因最近几年阿里巴巴、腾讯、京东、万达等企业向东北三省的大规模投资等，成为新的投资地区。
  - ‘국내외에서 중국의 오랜 산업 기지 랴오닝에 대한 대규모 투자 급증’ (연합뉴스 2018.8.31. 자)
  - ‘중국 러스트벨트’ 동북 3성, IT 기업들이 되살린다’ (경향신문 2019.7.21. 자)
  - ‘中동북3성, '투자 불모지'서 '투자 활성화'로’ (아주경제 2019.7.25. 자)
- 向中国流入的FDI增加，由中国商务部发表的外国人投资负面清单减少等情况。
- 向东北三省投资时，可以利用东北三省的开发机会，以东北三省为据点，利用已经构筑的交通基础设施和物流系统进军邻近地区的市场。

- 通过促进东北三省投资，不仅对韩国、接收FDI的东北三省地区经济有促进效果，对属于欠发达地区的东北三省的投资也会促进地区均衡开发，成为韩国和中国新经济合作的契机。
- 到目前为止，对中国的FDI决定因素分析研究中，针对中国所有城市的研究多于针对特定地区的研究。但是，根据选择地区的不同，选址性质和条件也多种多样，因此也有必要对此进行充分考虑(김은희·유승훈, 2019)。
- 本文不是以中国全体城市为对象的分析为基础，而是以各地区分析的必要性为基础，根据促进对东北三省投资的必要性和东北三省的投资潜力，分析东北三省的投资环境对FDI流入的影响。

## 理论背景与先行研究

### □ FDI 决定因素

- J. H. Dunning 的折衷理论 ( eclectic theory ) 主张，决定 FDI 的三个最基本的要素分别是所有权优势 ( Ownership specific advantage )、区位优势 ( Location specific advantage ) 和市场内部化优势 ( Internalisation specific advantage )。
- 其中，“区位优势”包括“投入品与市场的空间分散”、“投入品价格、质量生产率”、“运输、通信成本”、“政府干预”、“进口限制、税收优惠、投资诱因、投资环境、政治稳定性”、“经济底层结构、社会间接资本发展程度”、“语言、文化、国民性的异质感”以及“研发、生产、营销等的经济性”等。

### □ 投资接收国的投资决定因素

Franklin R. Root(1994)	一般的政治稳定性、当地政府对外商投资的政策、其他政府政策及法律因素、宏观经济环境 ( 国民生产总值 ( GNP ) 的规模及增长率、人口规模及增长率、人均国民收入的规模及增长率、收入分配、通货膨胀率、工业、农业、服务的产业构成比、运输及通信系统、政府财政政策及货币政策、价格控制、当地资本可用性和费用、劳资关系、关税同盟及是否加入自由贸易区等 )、对外支付关系 ( 国际收支、外汇状态及债务限制、外汇状况、外汇汇款行为等 )。
신상헌(2011)	生产 ( 原材料获取、生产效率、产品寿命周期延长、原材料、工人道德、当地管理者的效用 )、技术 ( 追求知识、熟练工人、工艺技术、知识产权保护、所有权和控制 )、财务 ( 信用、税收优惠、汇款自由、劳动费用、收益率 )、增长 ( 市场扩大、增长目的、市场规模、潜在市场占有率、母公司规模 )、经营环境 ( 政治稳定、贸易政策、国有化、基层结构、文化适应度 )、其他 ( 顾客满意度、内部化等 )。
남영호(2017)	宏观环境 ( 政治、经济、社会、环境、文化、科学技术 )、产业环境 ( 顾客、产品、技术、资源、竞争 )

### □ 关于中国 FDI 环境的先行研究

박기만(2006)	社会文化变量比政治、法律变量更有影响力，市场特征因素中市场潜力、国家间同质性、竞争特征等有显著影响力，所有权因素中生产、研发、营销能力有显著影响力。
任晓洁(2014)	庞大的市场规模、良好的基础设施建设、人力资本、自然资源和法规政策是 FDI 流入中国的主要决定因素。
김은희·유승훈 (2019)	分析 2009 年至 2015 年韩国企业进军中国 20 个省市的选址决定因素，包括地区市场规模 ( 人均 GRDP )、劳动费用 ( 各地区私营企业的平均工资 )、劳动质量 ( 高中生数 )、社会基础设施 ( 对固定资产的总投资金额 )、企业集成水平 ( 私营企业数 )、技术水平 ( R&D 费用 )。FDI 在中国选址时，倾向于选择市场规模大、工资水平低、劳动质量水平优秀的地区。
송옥·백유진·박영렬 (2019)	针对 1996 年至 2015 年中国拥有 100 万名以上人口的 160 个城市，分析市场规模 ( 总人口 )、集成度 ( 固定资产投资额 )、企业所得税税率 ( 外国企业所得税 )、基础设施发展水平 ( 铺路长度、总供水量、总耗电量 ) 等投资环境对不同时期 FDI 流入的影响。
곽지영(2018)	对本国与当地国税率差异、本国加权平均关税税率、GDP、工资水平、与本国的距离、技术差异、文化差异、投资年份进行分析。当地国关税税率高于本国关税税率时，向该国流入的 FDI 减少

#### □ 关于东北三省FDI环境的先行研究

张慧智(2005)	东北地区投资流入的区位优势因素有与俄罗斯、蒙古国、朝鲜、韩国、日本邻近的地理位置及便利的交通、物流基础设施、丰富的资源、工业基础设备、东北地区教育体系导致的高劳动水平人力资源、市场规模增长潜力和东北振兴带动FDI政策的改善。
姜硕·刘玉梅(2006)	以GDP、国有工业产量比重、第三产业产量比重、区域进出口总额、社会消费品零售额、劳动生产率、交通密集、邮政和电话业务量、政策作为投资环境的随机变量，分析1995~2003年东北地区FDI环境。 GDP、进出口总额、社会消费品零售额、交通密集、邮政和电话业务量对FDI有正向影响。
박상수·두현(2011)	为了分析2006~2008年东北三省的投资环境，分析GRDP增长率、物价上涨率、工业生产及工业生产单位发电量、工业企业经济效益、人均劳动产值、各地区工资水平及上涨率以及各省的特性。

#### □ 理论背景与先行研究整理

通过以上研究，共同确认了包括“市场规模(GDP及GRDP)”、“劳动费用(工资)”、“基础设施发展水平”、“进出口总额”、“企业集成度”、“工业相关因素”、“政策、法律因素”、“技术水平(R&D费用)”在内的因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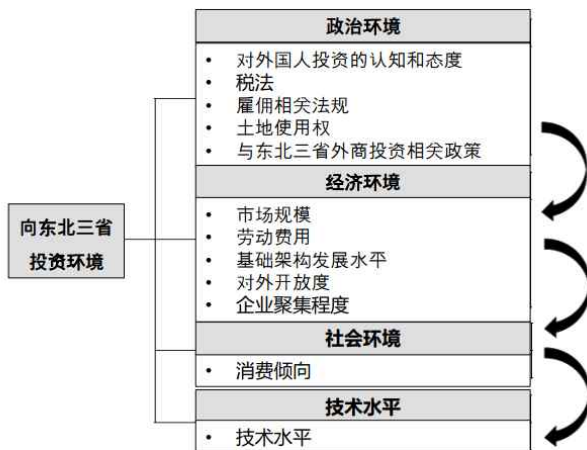
## □ 关于东北三省FDI环境存在问题的先行研究

정환우(2006)	人口密度低, 东北地区大城市不如沿海主要城市承担研发、信息导向作用, 中心城市均位于辽宁, 区域内城市间有机联系不完善, 国有企业占比大, 竞争创新驱动低, 辽宁发展潜力与黑龙江、吉林发展潜力差距较大。
姜硕·刘玉梅(2006)	国有企业比重高、第三产业比重低、基础设施及通讯设备水平较低。
최현승(2011)	资源型城市主导产业落后、国有企业设备陈旧、国有企业债务负担加重、失业问题、非国有企业经济发展滞后。
沈万根(2013)	向东北三省流入的FDI规模较小, 东北三省FDI投资渠道不多, 投资向制造业集中, FDI在辽宁与黑龙江、吉林之间的不平衡。
刘春阳·马岩峰(2017)	东北小范围区域实际达到的FDI金额规模和FDI金额增长速度较慢, 科技和增值领域投入较低(偏重制造业), 发展和产业结构缺乏可转换性。
KIEP(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报道资料	以资源、重工业为主的国有企业为主的经济结构, 对市场变化的敏感度不足; 与其他地区相比, 经济规模较小, 服务业不发达, 大规模投资不足等经济活力不足; 金融服务水平低, 对民营企业金融供给不足; 各级地方政府政策高随意性、可变性, 政策执行简化; 标准化、透明度不足, 对外开放程度低, 地方政府对外资企业缺乏制度、系统政策支持。

共同指出“与沿海主要城市相比, 经济规模小”、“向东北三省流入的FDI规模小”、“辽宁省与黑龙江省、吉林省之间的发展潜力和FDI规模差距”、“以国有企业为中心的经济结构”。

## 东北三省投资环境分析

### □ 分析程序



所有组织在各种政治体制下通过政治体系运营 (남영호, 2017)。

一个国家的经济、文化、教育等社会整体运营也是通过政策及政治体系来运营的, 因此在本文中优先分析政治环境。

其次分析与东北三省投资的企业经营活动有直接关系的经济环境、社会环境和技术环境。

## □ 政治环境分析

### ■ 对外国人投资的认知和态度

领导人讲话	中华人民共和国主席习近平在第四届中国国际进口博览会主旨演讲中指出(2021.1)	“中国扩大高水平开放的决心不会变，同世界分享发展机遇的决心不会变，推动经济全球化朝着更加开放、包容、普惠、平衡、共赢方向发展的决心不会变。”
	国务院总理李克强在政府工作报告中指出(2022.3)	“扩大高水平对外开放，推动外贸外资平稳发展。充分利用两个市场两种资源，不断拓展对外经贸合作，以高水平开放促进深层次改革、推动高质量发展”
规划	“十四五”商务发展规划	构建对外开放新格局，提高利用外资水平和对外合作水平等。
	“十四五”利用外资发展规划	促进对外开放，完善利用外资结构，强化开放平台功能，提高促进外商投资的服务水平，完善外商投资管理系统，优化外商投资环境等。
法律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	明确规定实施“准入前国民待遇+负面清单”管理制度，加强投资促进和保护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实施条例	具体体现外商投资法规定的主要法律制度
	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2020年版)	符合《外商投资鼓励产业目录》所列领域条件时，征税等优惠(2022年版发布时预计奖励范围将进一步扩大)
	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	积极推动外企投资，有效防范中国国家安全风险，对外企投资安全审查(股权审查、国防和国家安全相关领域限制投资等)。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1年版)	缩短现有的外国人投资负面清单(全国及自由贸易示范地区负面清单分别为31个和27个，分别减少6.1%和10%)。
	优化营商环境条例	放宽市场准入门槛，降低企业进入中国国内市场的门槛，深化投资便利化改革

### ■ 税法

企业	内容	税率
居民企业	居民企业是指依法在中国境内成立，或者依照外国(地区)法律成立但实际管理机构在中国境内的企业。	居民企业来源于中国境内、境外的所得，法定税率为 25%。
非居民企业	非居民企业在中国境内设立机构、场所的，应当就其所设机构、场所取得的来源于中国境内的所得，以及发生在中国境外但与其所设机构、场所有实际联系的所得，缴纳企业所得税。	法定税率为 25%
	非居民企业在中国境内未设立机构、场所的，或者设立机构、场所但取得的所得与其所设机构、场所没有实际联系的时候	应当就其来源于中国境内的所得，缴纳企业所得税，减按 10% 征收(如适用的税收协定税率更低或有免税规定，依照协定的规定执行)。

根据商务部外商投资指南，在《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中列出的领域符合条件时，可享受法人所得税15%的减免优惠。

■ 雇佣相关法规

工作合同	非正规职的雇佣比率不能超过10%，雇佣合同根据期限分为定期限制劳动、非定期劳动、执行特定任务	
	3个月至1年以下合同	实习期不得超过1个月
	1年至3年以下合同	实习期不得超过2个月
	3年以上合同制劳动合同或不定期劳动合同	实习期不得超过6个月
工作时间	实行每天8小时、每周40小时的标准工作时间制	
	以标准工作日为基准的加班费	按正常工资150%计算
	以休息日（主要是周六、周日）为基准的加班费	按正常工资200%计算
	以公众假期为基准的加班费	按正常工资300%计算
休假制度	法定带薪公休日（元旦（1天）、春节（3天）、清明节（1天）、劳动节（1天）、端午节（1天）、中秋节（1天）、国庆节（3天）婚假、产假等	
	连续工作12个月以上的人员可以带薪年假。累计工作时间1年至10年以下每年5天，10年至20年以下每年10天，20年以上每年15天	
社会保险	外商投资企业及所属劳动者缴纳基础年金保险、基础医疗保险、工伤保险、失业保险、生育养老保险费	

外商投资企业在华雇佣劳动者应当遵守《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等法律法规规定。

■ 土地使用权

第一章	总则	<b>第三条</b>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的公司、企业、其他组织和个人，除法律另有规定者外，均可依照本条例的规定取得土地使用权，进行土地开发、利用、经营。
第二章	土地使用权出让	<b>第十二条</b> 土地使用权出让最高年限按下列用途确定：(一)居住用地七十年；(二)工业用地五十年；(三)教育、科技、文化、卫生、体育用地五十年；(四)商业、旅游、娱乐用地四十年；(五)综合或者其他用地五十年。
第六章	土地使用权终止	<b>第三十九条</b> 土地使用权因土地使用权出让合同规定的使用年限届满、提前收回及土地灭失等原因而终止。 <b>第四十一条</b> 土地使用权期满后，土地使用者可以申请续期。 <b>第四十二条</b> 国家对土地使用者依法取得的土地使用权不提前收回。在特殊情况下，根据社会公共利益的需要，国家可以依照法律程序提前收回，并根据土地使用者已使用的年限和开发、利用土地的实际情况给予相应的补偿。
第七章	划拨土地使用权	<b>第四十七条</b> 对划拨土地使用权，市、县人民政府根据城市建设发展需要和城市规划的要求，可以无偿收回，并可依照本条例的规定予以出让。 无偿收回划拨土地使用权时，对其地上建筑物、其他附着物，市、县人民政府应当根据实际情况给予适当补偿。
第八章	附则	地使用者应当依照国家税收法规的规定纳税。

■ 东北三省外商投资相关政策

辽宁省	辽宁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对接国际高水平经贸规则，推进对外贸易和投资便利化。落实外商投资准入前国民待遇加负面清单管理制度，加强国际贸易“单一窗口”建设和应用推广，降低进出口环节合规成本。建设口岸大通关系统，优化完善通关便利化制度流程，简化申报手续，提高口岸通关效率。
吉林省	吉林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全面落实外商投资准入前国民待遇加负面清单管理制度，简化外商投资设立及变更程序。完善 外商投资促进、保护、管理等配套制度安排，推行外商投资企业 商务备案与企业登记 “一口办理”。实施外商投资信息报告制度， 建立和完善重点外商投资企业联系制度。
黑龙江省	黑龙江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强力推进招商引资。落实外商投资准入前国民待遇加负面清单管理制度，提升外商投资促进服务水平，支持外商投资城市燃气、油气勘探等领域，积极吸引外商直接投资。完善招商引资机制，出台安商护商政策，强化全要素服务保障。绘制产业链全景图谱，通过招商引资加快补链强链延链，构建产业生态。创新招商方式，大力推行以商招商、资本招商、中介招商、基金招商、云端招商，持续磁吸国内外企业家“争过山海关”，不断扩大引资规模，提升招商质量。

□ 政治环境分析结果

分析结果表明，中国及东北三省有扩大对外开放的意志，对鼓励外商投资、保护和支援投资、简化程序等促进外商投资有积极友好的认识 and 态度，以及符合政府投资条件时，对税率和土地使用也有优惠政策。



## □ 经济环境，社会环境与技术环境分析

- 为了分析东北三省的经济、社会、技术投资环境，参考FDI选址决定因素相关理论和先行研究和FDI对中国及东北三省环境分析先行研究，选定适合东北三省投资环境的因素。

## □ 提出假设

“市场规模”是与销售额直接相关的因素，使用能够体现购买力的“人均GRP”对市场规模提出以下假设。

**假设1：东北三省城市的市场规模将对FDI流入产生正（+）的影响。**

“劳动费用”是影响FDI投资的传统因素之一。东北三省需要大量劳动要素投入的劳动密集产业进入企业的可能性较大，因此使用“平均工资”对劳动费用提出了以下假设。

**假设2：东北三省城市的劳动费用将对FDI流入产生负（-）影响。**

- “基础设施发展水平”除了企业的运营外，还提供了在当地执行经营活动的可能性，无需额外负担。  
对此，原材料及产品等货物运输时使用高速公路，因此可以通过“公路货运量”确认基础设施发展水平。
- 另外，东北三省是以丰富的资源为基础发展起来的，与其他地区相比，资源比较丰富，可以通过“液化石油气供气总量”来确认城市的基础设施发展水平。
- 但由于没有使用这两个因素的先行研究，因此无法预测这两个因素是否会对FDI流入产生积极影响，  
因此我们将使用“公路货运量”和“液化石油气供气总量”来考察基础设施发达水平是否会对FDI流入产生影响，并提出以下假设。

**假设3：东北三省城市基础设施发展水平将影响FDI流入。**

“对外开放度”是指当地对其他国家的开放程度，可以通过“进出口总额”来确认这一点。  
由此提出以下假设：

**假设4：东北三省城市对外开放度将对FDI流入产生正（+）影响。**

东北三省是中国工业化的先导地区，位于东北三省城市的“工业企业数量”可以确认“企业聚集程度”，因此对企业聚集水平提出以下假设。

**假设5：东北三省城市的企业聚集水平将对FDI流入产生正（+）的影响。**



社会环境是影响社会或社会成员行为的因素。价值观、生活方式、社会成员的需求、传统或习俗等。“消费倾向”也会对FDI流入产生影响。可以看出消费倾向的指标是“社会消费品零售总额”。

**假设6：东北三省城市的消费倾向将对FDI流入产生正（+）的影响。**

在分析“技术水平”对FDI流入影响的先行研究中，有研究认为，在FDI流入方面，技术水平值得注意，也有研究认为不值得注意。认为地方一般公共预算支出中的‘科学技术支出’可以确认技术水平。

**假设7：东北三省城市的技术水平将对FDI流入产生影响。**

## □ 经济环境，社会环境和技术环境的分析

### ■ 样本的构成

现在是东北振兴计划的十四五时期(2021~2025年)，所以为了通过东北振兴十三五时期(2016年~2020年)东北振兴的资料分析，确认东北三省的环境因素是否会对到达东北三省当地的FDI金额产生影响，将分析时间定为2016年至2020年。

收集这一时期东北三省所有市（34个地级市）的FDI数据。

省	城市	个
辽宁省	沈阳市, 大连市, 鞍山市, 抚顺市, 本溪市, 丹东市, 锦州市, 营口市, 阜新市, 辽阳市, 盘锦市, 铁岭市, 朝阳市, 葫芦岛市	14
吉林省	长春市, 吉林市, 四平市, 辽源市, 通化市, 白山市, 松原市, 白城市	8
黑龙江省	哈尔滨市, 齐齐哈尔市, 鸡西市, 鹤岗市, 双鸭山市, 大庆市, 伊春市, 佳木斯市, 七台河市, 牡丹江市, 黑河市, 绥化市	12
总计		34

## ■ 要素の構成

区分	要素	구성	単位	资料来源
因变量	FDI流入	当年实际使用外资金额	万元	中国城市统计年鉴, 辽宁统计年鉴, 吉林统计年鉴, 黑龙江统计年鉴
自变量	市场规模	人均 GRP	元	中国城市统计年鉴
	劳动费用	职工人均年平均工资	元	中国城市统计年鉴
	基础架构发展水平	公路货运量	万吨	中国城市统计年鉴
		液化石油气供气总量	万吨	中国城市统计年鉴
	对外开放度	进出口总额	万元	中国城市统计年鉴, 辽宁统计年鉴, 吉林统计年鉴, 黑龙江统计年鉴
	企业聚集程度	工业企业数	个	中国城市统计年鉴
	消费倾向	社会消费品零售总额	万元	中国城市统计年鉴
	技术水平	科学技术支出	万元	中国城市统计年鉴

变量之间存在统计上有意义的关系，如独立变量的相关表。为了验证独立变量之间多重共线性的可能性，对方差膨胀系数（VIF）进行了调查，结果显示VIF值均在10以下，认为变量之间多重共线性问题并不严重。

区分	人均 GRP	平均工资	公路货运量	液化石油气供气总量	进出口总额	工业企业数	社会消费品零售总额	科学技术支出
人均 GRP	1							
平均工资	.500*	1						
公路货运量	.456*	.344*	1					
液化石油气供气总量	.462*	.440*	.546*	1				
进出口总额	.607*	.549*	.610*	.897*	1			
工业企业数	.620*	.530*	.651*	.657*	.690*	1		
社会消费品零售总额	.590*	.521*	.583*	.540*	.581*	.895*	1	
科学技术支出	.549*	.583*	.599*	.794*	.784*	.875*	.836*	1

\*p<0.05

自变量	非标准化系数		标准化系数	t	p	共线性统计	
	B	标准误差	β			公差	VIF
(常数)	60280.752	36545.403		1.649	.101		
人均 GRP	.201	.355	.048	.566	.572	.475	2.107
平均工资	-1.433	.600	-.190	-2.387	.018	.551	1.816
公路货运量	-3.819	1.248	-.253	-3.060	.003	.510	1.962
液化石油气供气总量	-.149	.258	-.091	-.579	.564	.142	7.045
进出口总额	.005	.002	.355	2.163	.032	.129	7.749
工业企业数	68.911	35.885	.311	1.920	.057	.133	7.523
社会消费品零售总额	.007	.001	.742	4.952	.000	.155	6.461
科学技术支出	-.589	.293	-.353	-2.008	.047	.113	8.876

通过‘模型1(经济的环境)’, ‘模型2(社会的环境)’, ‘模型3(技术的环境)’, 验证独立变量对FDI流入的影响, 如下所示:

模型		非标准化系数		标准化系数	t	p	共线性统计	
		B	标准误差	$\beta$			公差	VIF
1	(常数)	38609.152	36871.048		1.047	.297		
	人均 GRP	.533	.372	.129	1.433	.154	.500	1.999
	平均工资	-1.303	.623	-.173	-2.094	<b>.038</b>	.593	1.687
	公路货运量	-3.465	1.341	-.229	-2.583	<b>.011</b>	.511	1.955
	液化石油气供气总量	-.394	.252	-.239	-1.560	.121	.172	5.828
	进出口总额	.004	.002	.268	1.527	.129	.131	7.658
	工业企业数	165.967	23.499	.748	7.063	<b>.000</b>	.359	2.784
2	(常数)	78678.933	35756.246		2.200	.029		
	人均 GRP	.336	.352	.081	.955	.341	.492	2.031
	平均工资	-1.701	.591	-.225	-2.877	<b>.005</b>	.580	1.725
	公路货运量	-3.744	1.261	-.248	-2.970	<b>.004</b>	.510	1.960
	液化石油气供气总量	-.364	.237	-.221	-1.535	.127	.171	5.833
	进出口总额	.005	.002	.336	2.027	<b>.045</b>	.130	7.722
	工业企业数	46.922	34.538	.211	1.359	.176	.147	6.822
3	社会消费品零售总额	.006	.001	.614	4.480	<b>.000</b>	.189	5.286
	(常数)	60280.752	36545.403		1.649	.101		
	人均 GRP	.201	.355	.048	.566	.572	.475	2.107
	平均工资	-1.433	.600	-.190	-2.387	<b>.018</b>	.551	1.816
	公路货运量	-3.819	1.248	-.253	-3.060	<b>.003</b>	.510	1.962
	液化石油气供气总量	-.149	.258	-.091	-.579	.564	.142	7.045
	进出口总额	.005	.002	.355	2.163	<b>.032</b>	.129	7.749
	工业企业数	68.911	35.885	.311	1.920	.057	.133	7.523
	社会消费品零售总额	.007	.001	.742	4.952	<b>.000</b>	.155	6.461
	科学技术支出	-.589	.293	-.353	-2.008	<b>.047</b>	.113	8.876

1. 可以确认“市场规模”的东北三省城市的“人均GRP”没有留意。与之前的研究不同, 还包括COVID-19发生期间, 东北三省的经济规模偏小, 因此得出了这样的结果。
2. 可以确认“劳动成本”的“平均工资”受所有模型中注意的财富 ( - ) 的影响。
3. 可以确认“基础设施发展水平”的“公路货运量”和“液化石油气供气总量”的分析结果显示, “公路货运量”受FDI ( - ) 的影响, FDI从所有模型流入东北三省城市。相反, 不注意“液化石油气供气总量”。
4. 可以确认“对外开放度”的“进出口总额”在模型1中没有注意, 但在模型2和模型3中有注意的正 ( + ) 的影响。
5. 模型2和模型3中没有注意到“企业聚集水平”的“工业企业数”, 但模型1中有注意的正 ( + ) 的影响。从观察经济环境的模型1中有显著正 ( + ) 的影响来看, 对流入东北三省城市的FDI有积极影响。
6. 可以确认“消费倾向”的“社会消费品零售总额”, 如模型2和模型3所示, 受流入东北三省城市的FDI留意限定 ( + ) 的影响。
7. 可以确认“技术水平”的“科学技术支出”受FDI从模型3流入东北三省城市的显著影响 ( - ) 。

## □ 东北三省投资风险分析

### ■ 经济规模比较小

东北三省地区生产总值及中国国内比重趋势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累计
东北三省	45,378	50,477	54,715	57,469	57,816	52,410	54,256	56,752	50,249	51,125	530,647
中国	487,940	538,580	592,963	643,563	688,858	746,395	832,036	919,281	986,515	1,010,986	7,447,117
比重	9.3%	9.4%	9.2%	8.9%	8.3%	7%	6.5%	6.2%	5.1%	5.1%	7.1%

-2011年至2020年，东北三省的地区生产总值在增加，但在中国国内的比重逐渐减少。

-东北三省2011年至2020年期间，中国国内累计比重约7.1%，东北三省占中国国内8.2%的面积和中国总人口的7%，经济规模不算小。

-2020年为准，中国国内比重约5.1%，目前东北三省经济规模偏小。

-2011年开始，东北三省的减少趋势也不容忽视。

### ■ FDI 规模比较小

向东北三省的FDI总额、FDI企业数量及在中国的比重趋势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累计
FDI总额 (亿美元)	东北三省	2,102	2,317	2,378	2,559	2,641	2,772	3,885	4,672	5,131	6,551	35,008
	中国	29,931	32,610	35,176	37,977	45,390	51,240	68,992	77,738	88,400	136,437	603,891
	比重	7%	7.1%	6.8%	6.7%	5.8%	5.4%	5.6%	6%	5.8%	4.8%	6%
FDI企业 (个)	东北三省	27,917	27,297	26,524	26,477	26,331	25,029	25,371	26,074	25,410	26,784	263,214
	中国	446,487	440,609	445,962	460,699	481,179	505,151	539,345	593,276	627,223	635,402	5175,333
	比重	6.3%	6.2%	5.9%	5.7%	5.5%	5%	4.7%	4.4%	4%	4.2%	5%

《中国统计年鉴》2012年版至2021年版

以2020年为准，FDI总额和外资企业数量分别占中国国内的4.8%和4.2%，持续下降趋势，这是投资东北三省时应该考虑的问题。



■ 辽宁省-吉林省-黑龙江省之间的发展可能性及FDI规模差异

各省FDI总额和外商投资企业数及东北3省内比重趋势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累计
FDI 总额 (亿美元)	辽宁省	1,660	1,856	1,832	1,986	2,066	2,133	3,159	3,755	4,028	4,157	26,632
		<b>79%</b>	<b>80.1%</b>	<b>77%</b>	<b>77.6%</b>	<b>78.2%</b>	<b>77%</b>	<b>81.3%</b>	<b>80.4%</b>	<b>78.5%</b>	<b>63.5%</b>	<b>76.1%</b>
	吉林省	233	239	318	333	352	356	389	490	643	708	4,061
		<b>11.1%</b>	<b>10.3%</b>	<b>13.40%</b>	<b>13%</b>	<b>13.30%</b>	<b>12.8%</b>	<b>10%</b>	<b>10.5%</b>	<b>12.5%</b>	<b>10.8%</b>	<b>11.6%</b>
	黑龙江省	209	222	228	240	223	283	337	427	460	1,686	4,315
		<b>9.9%</b>	<b>9.6%</b>	<b>9.6%</b>	<b>9.4%</b>	<b>8.5%</b>	<b>10.2%</b>	<b>8.7%</b>	<b>9.1%</b>	<b>9%</b>	<b>25.7%</b>	<b>12.3%</b>
外商投资企业 (个)	辽宁省	18,164	17,960	17,250	17,091	17,745	16,949	16,883	17,028	15,996	16,257	171,323
		<b>65.1%</b>	<b>65.8%</b>	<b>65%</b>	<b>64.6%</b>	<b>67.4%</b>	<b>67.7%</b>	<b>66.6%</b>	<b>65.3%</b>	<b>63%</b>	<b>60.7%</b>	<b>65.1%</b>
	吉林省	4,327	4,298	4,350	4,370	4,437	3,853	4,044	4,018	4,118	4,249	42,064
		<b>15.5%</b>	<b>15.7%</b>	<b>16.4%</b>	<b>16.5%</b>	<b>16.8%</b>	<b>15.4%</b>	<b>15.9%</b>	<b>15.4%</b>	<b>16.2%</b>	<b>15.9%</b>	<b>16%</b>
	黑龙江省	5,426	5,039	4,924	5,016	4,149	4,227	4,444	5,028	5,296	6,278	49,827
		<b>19.4%</b>	<b>18.5%</b>	<b>18.6%</b>	<b>18.9%</b>	<b>15.8%</b>	<b>16.9%</b>	<b>17.5%</b>	<b>19.3%</b>	<b>20.8%</b>	<b>23.4%</b>	<b>18.9%</b>

《中国统计年鉴》2012年版至2021年版

2011年至2020年，东北三省的FDI确认偏重辽宁省。FDI总额和外国投资企业数均呈减少趋势，辽宁省所占比重超过60%，这也是东北三省投资时需要考虑的问题之一。

■ 以国有企业为中心

东北三省工业部门国有企业和私营企业比重比较

		中国	东北三省	辽宁省	吉林省	黑龙江省
企业类型的 企业数量 (个)	国有企业	22072	1583	731	338	514
		<b>5.5%</b>	<b>10.8%</b>	<b>9.4%</b>	<b>11.1%</b>	<b>13.4%</b>
	私营企业	286430	8783	4647	1835	2301
		<b>71.7%</b>	<b>60%</b>	<b>59.9%</b>	<b>60.3%</b>	<b>60%</b>
资产总额 (亿元)	国有企业	500461	40511.1	20244.8	9822.6	10443.7
		<b>38.4%</b>	<b>52.3%</b>	<b>47.2%</b>	<b>56.8%</b>	<b>60.6%</b>
	私营企业	345022.8	15275.3	9633.2	2747.4	2894.7
		<b>26.5%</b>	<b>19.7%</b>	<b>22.4%</b>	<b>15.9%</b>	<b>16.8%</b>
销售额比重 (亿元)	国有企业	279606.8	26089.6	13109.5	8264.8	4715.3
		<b>25.8%</b>	<b>48.5%</b>	<b>42.7%</b>	<b>62.5%</b>	<b>47.6%</b>
	私营企业	413564	12592.3	8308.6	1962.8	2320.9
		<b>38.2%</b>	<b>23.4%</b>	<b>27.1%</b>	<b>14.8%</b>	<b>23.5%</b>

《中国统计年鉴》2021年版

- 截至2020年，国有工业企业数量少于民营工业企业数量。东北三省的国有工业企业占整个工业企业的比重与中国整体相比，相差近2倍。
- 在资产总额和销售额比重上，国有工业企业数量少于民营工业企业，但在整体工业企业中占很大比重，与中国整体相比，东北三省的国有工业企业资产总额和销售额总额在整体工业企业中占很大比重。

## 韩国与中国的合作方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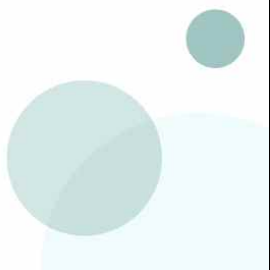
因素	主要项目	东北振兴“十三五”时期(2016-2020)	机会	威胁
地域	立地	-	- 与韩国, 朝鲜, 日本, 俄罗斯, 蒙古国等邻国交流的地理优势。 - “一带一路”六大经济走廊的“中-蒙-俄”经济走廊	-
外商投资	全世界向东北三省投资	-投资下滑 -中国国内比重下降	- 东北三省最近因阿里巴巴、腾讯、京东、万达等企业向东北三省的大规模投资等, 成为新的投资地区。	-规模小 -偏向辽宁省
	韩国向东北三省投资	投资金额与新投资企业数减小	- 从2021年开始增加投资。 -2022年第一季度东北三省投资金额占对华投资金额76%。	2021年至2022年第一季度有显著增长, 但也可能是暂时的。
政治	对外商投资的认识和态度	对外国投资友好	对外国投资友好	到目前为止, 我们是友好的, 但可以改变。
	税法	税率减免优惠	税率减免优惠	到目前为止, 我们有一些优势, 但可能会发生变化。
	雇佣相关法规	遵守中国雇佣法规	-	与当地企业相比, 外商投资企业所属劳动者的社会保险数量更多
	土地使用权	遵守《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在外商投资鼓励产业目录中提出的领域, 符合条件时, 土地集约的可以优先提供土地。	国家对土地使用者依法取得的土地使用权不提前收回。
	东北三省外商投资相关政策	有扩大对外开放的意志, 对鼓励外商投资、保护和支援投资、简化程序等促进外商投资有友好的认识 and 态度, 以及符合政府投资条件时, 对税率和土地使用也有优惠事项	外商投资优惠、保护	到目前为止, 我们有友好的情况, 但我们可以改变。
经济	市场规模	东北三省生产总值减少及在中国的比重减少	- 最近中国大企业投资消息有望刺激地区经济 - 以东北振兴政策期待地区发展	-规模小 -持续减少
	劳动费用	东北三省的职员平均工资低于中国全体员工的平均工资。	降低劳动费用	-
	基础架构发展水平	高速公路货运量、石油供应量对FDI流入没有显著影响	利用现有的基础设施与东北三省和邻近国家进行交流	-
	对外开放度	进出口活动活跃	- 进出口活动活跃 - 对外开放友好政策和认识	-
	企业聚集程度	通过工业企业数量确认FDI流入有显著影响。	可以通过工业企业的相互联系产生上升效应。	以国有企业为中心
社会	消费倾向	通过社会消费的商品零售额确认FDI流入有显著影响	-	-
技术	技术水平	通过科技支持确认FDI流入有显著影响	-	-

## 韩国与中国的合作方案

- 作为东北三省, 外商投资企业在与地理上相邻的国家交流方面有优势, 由于平均工资较低, 有节省劳动费用的优势。此外, 还有机会利用东北振兴政策或最近形成的大企业投资、对外国企业的友好认识和优惠政策、已经建立的基础设施。但目前存在对外商企业的优惠政策, 但也有可能发生变化的威胁, 也有可能根据国家的社会、公益需要撤回土地使用权的威胁。另外, 东北三省存在经济规模和FDI规模小、以国有企业为中心的弱点。
- 韩国企业向东北三省投资时, 可以利用东北三省的地理优势、节省劳动费、对外国企业的优惠事项, 还可以通过利用以东北三省为据点已经构建的基础设施, 进军相邻地区的市场。另外, 通过东北三省工业企业的聚集, 可以通过相互联系产生上升效应
- 另外, 通过韩国企业向东北三省的投资, 东北三省当地的就业和生产增加, 国际收支改善, 对外开放扩大, 技术转移带来的生产性效应, 投资增加带来的经济增长效应。这将有助于作为接受国的中国促进地区均衡发展。

## 结论

- 对政治环境的分析结果显示，中国及东北三省对外企投资具有扩大对外开放，鼓励、保护、支援、简化程序等友好的认知及态度。
- 对东北三省的经济、社会、技术投资环境进行分析，结果表明，劳动成本、基础设施发展水平、对外开放程度、企业集聚水平、消费倾向、技术水平对流入东北三省的FDI有显著影响。
- 对东北三省的投资风险分析表明，目前东北三省的经济规模和FDI规模较小，且FDI偏重于辽宁，存在以国有企业为中心的问题。

- 由于中国国土面积大，认识到有必要根据地区分析选址环境，应分别通过东北三省的政治、经济、社会、技术环境等方面来分析投资环境。
  - 由于未能探索东北三省的产业环境及进军东北三省的企业特性等,以及自变量缺乏多样化，实验结果有一定的局限性。在此后的研究中，如果能够更着眼于分析东北三省的产业环境及进军东北三省的企业特性，就能得出更有意义的结果。
- 



# 中美竞争与中韩供应链合作

金香丹<sup>1)</sup>(吉林大学东北亚研究院)

## 一、中美竞争格局下韩国的经济安全政策调整动向

美国对华战略竞争聚焦关键产业、核心技术，对中国乃至与中、美保持紧密联系的上下游国家都带来了巨大风险与挑战。拜登政府排他性合作机制建设，对韩国等伙伴体系政策空间形成进一步约束。

(1) 拜登政府“印太经济框架”中强调的“弹性、安全的供应链”，表面上致力于推进各方合作，提高半导体产业供应链韧性，实质在于强化美国对印太供应链的控制能力及核心地位，在关键产业和技术领域打造将中国排除在外的供应链联盟，核心依然是“美国优先”，而非致力于地区供应链稳定与安全。一旦中美竞争烈度加强，一系列联盟就会成为对华制裁的组成部分，进一步限制韩国政策空间。

(2) 美国建立半导体联盟(SIAC)、Chip4等“议题”主导的排他性合作框架，旨在将最关键、最具产业控制力的供应链环节限定在一定的地理范围内，而划定这一范围的依据来自于美国对相关国家的关系定位。在重塑关键产业供应链进程中，是否与美国政策同步成为其伙伴国获得技术输出许可、实现稳定生产的“前提条件”，导致韩国的产业、供应链政策与相关标准日益受美国政策走向的影响。

受此影响，韩国对外合作越来越注重经济安保问题，供应链合作亦呈现调整的趋势。如何有效防范大国竞争所带来的供应链断裂风险，同时应对产业竞争压力，确保优势产业技术代差，巩固在尖端半导体等战略性产业上的全球竞争力，成为韩国对外经济合作关注的重点。

(1) 韩国审视国际产业合作的视角已由效率与获益为主，调整为“保障安全基础下的兼顾效率”。高技术与战略性产业供应链突出“安全”，强调技术保护与降低对外依赖，其选取合作伙伴标准日益向美国靠拢，而在一般性供求协调方面着力维护“效率”，注重供应链多元化。

■ 2022年5月21日，韩美联合宣言强调两国在发挥各自比较优势基础上，加强在尖端半导体、环保电动车电池、人工智能、量子技术、生物技术、智能机器人等核心技术保护合作。同时，两国表示将加强针对核心技术加强投资审查与出口限制等领域合作。这表明韩国的投资审查与出口限制相关技术标准将向美国靠拢。

■ 2021年12月，韩国产业通商资源部公布“技术保护战略”，提出扩大“国家核心技术”范畴、构建核心技术企业与从业人员数据库，强化技术企业并购审查等为主要内容的政策框架，其核心在于防范韩国的领先技术被其他国家窃取。

(2) 对外合作注重维护“技术代差”，对华开展“选择性合作”

韩国新政府注重与美日欧等高新技术强国开展合作，以是否具有共同“价值观”作为韩国选定高技术领域合作对象的标准，致力于确保深度参与美国主导的供应链合作框架，并希望在其中占据重要地位。与此同时，韩国旨在“非敏感”、“非战略性”产业领域，持续发展与中国的供应链合作，而在在数字技术、移动通信、先进半导体等尖端科技领域调整与中国的供应链合作。这将极大限制中韩产业链、供应链合作深度，未来是否会在一些尖端技术、关键产业上对华限供，甚至断供，其政策取

1) 金香丹，吉林大学东北亚研究院 副教授。

向将对中韩供应链稳定产生重要影响。

(3) 调整对华供应链依赖, 加强对美国、东南亚、澳大利亚等地区投资。

如图1所示, 中国在韩国对外投资中的重要性有所弱化。韩国对华直接投资占其对外直接投资总额的比重由2000-2007年的27.6%降低至2008-2018年的11.5%, 疫情冲击以来的2019-2021年期间进一步减少至8.6%。尽管韩国对华投资额稳步增长, 但随着韩国扩大对美国与东南亚地区投资, 中国的份额逐渐减少。2008-2018年期间, 韩国对美国直接投资占其对外投资总额的23.7%, 较2000-2007年期间的18.9%增加了4.7%, 2019年以来进一步增加至29.6%, 2021年韩国对美国直接投资275.9亿美元, 达到新高点。韩国自2010年以来持续扩大对东南亚地区的直接投资, 2008-2018年期间东盟占韩国对外直接投资的13.9%, 较2000-2007年期间增加了2.2个百分点, 其中印度尼西亚、马来西亚、越南等地区成为韩国企业青睐的地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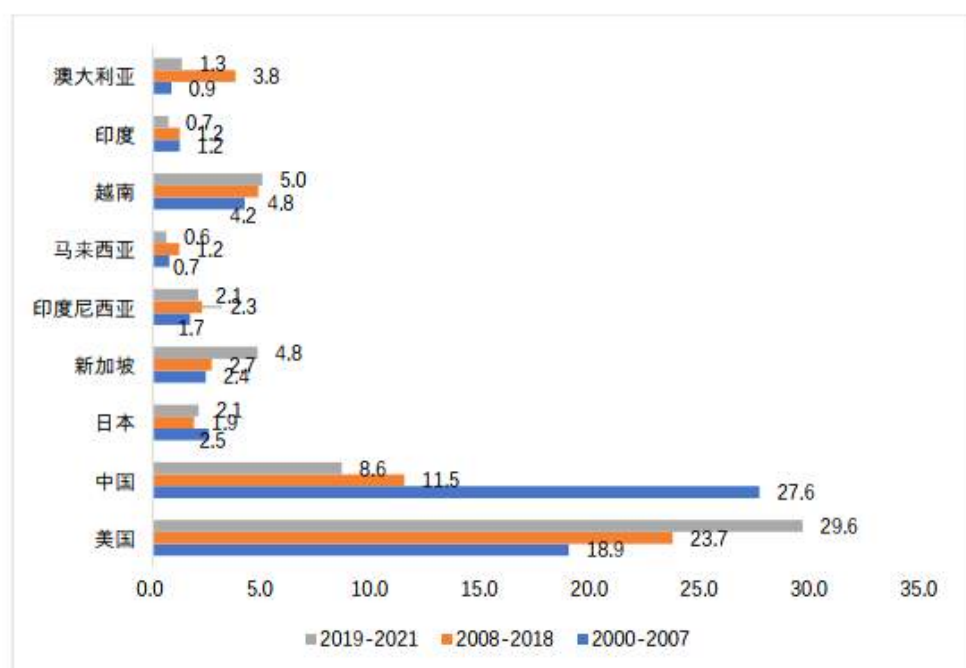


图1 韩国对主要经济体对外投资趋势 (%)

## 二、中韩产业竞争与供应链合作关系

当前中韩经济合作呈现两方面趋势同时加强。一是, 部分产业领域的竞争关系有所加强, 特别是在中等技术密集型产业领域, 中国的出口竞争力与中间产品自给水平显著提升。二是, 中韩深入参与全球价值链, 产业向下游依赖加强, 供应链联系更趋紧密。纵观二者的发展趋势, 后者(供应链依赖)态势更加迅猛, 一旦合作结构为外力所破, 将对中韩经济关系带来巨大冲击。而韩国在ICT、机械装备、机动车等其主导产业领域依然对华保持显著优势, 中韩合作依然具有较强的共赢空间。

### (1) 中韩产业竞争关系

中韩产品技术分工逐渐由垂直分红型向水平竞争型方向发展, 加剧了两国的产业竞争。对韩国来说, 中国既是重要的海外市场和全球供应链的一环, 同时也是技术和地缘经济的竞争者。



图2 2000年中韩基于增加值的RCA指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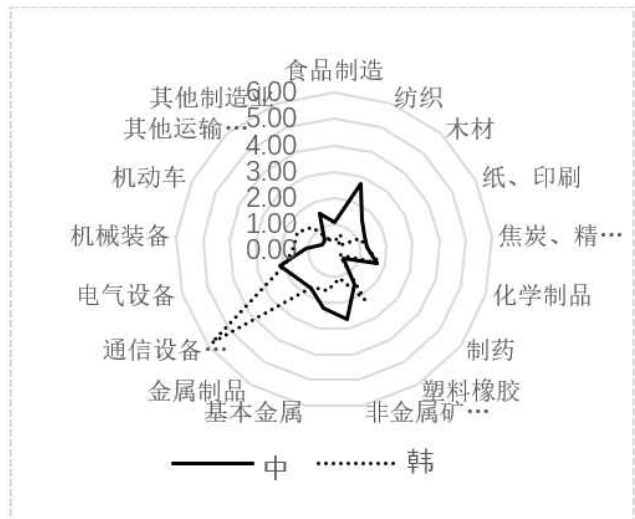


图3 2018年中韩基于增加值的RCA指数

数据来源：UIBE-GVC index数据库，OECDICIO 2021。

## (2) 中韩供应链合作关系

表1 中韩形成较高生产依赖的制造业产品

韩国相关产品对中国增加值投入的依赖					中国相关产品对韩国增加值投入的依赖				
产业	2005	2010	2015	2018	产业	2005	2010	2015	2018
纺织品、皮革及相关制品	17.8	22.7	31.2	28.4	计算机、电子和电气设备	13.6	13.1	17.1	18.8
计算机、电子和电气设备	11.1	16.9	25.4	25.5	机械设备	7.4	5.7	9.1	9.5
机械设备	9.7	13.4	19.9	20.5	运输设备	5.7	6.5	7.8	8.6
运输设备	10.2	14.6	20.8	20.6	化学与化学制品	6.8	5.5	7.3	5.8

注：表中数据表示韩国相关产品对外出口隐含的国外增加值来自于中国的比例

数据来源：OECD TIVA 数据库计算

表2 主要经济体在韩国半导体进出口市场中的份额（单位：%）

出口	2007	2010	2015	2018	2019	进口	2007	2010	2015	2018	2019
中国	24.3	34.4	44.3	40.7	40	中国	12	17.4	24.9	26.7	33.2
晶圆	23.6	34.2	44.5	40.6	39.2	晶圆	14.6	21.7	29.9	36.7	40.1
设备	36.5	48.8	48.5	51.9	61.1	设备	0.3	1.2	2.3	1.1	3.5
材料与零部件	39.3	32	33.7	32.7	35.6	材料与零部件	7.1	12.7	18.7	9	9.4
美国	8.5	7.3	5.6	5.5	6.8	美国	19.1	16.3	12.8	12.9	10.9
日本	11.3	6.6	3	1.3	1.5	日本	24.6	19.8	14.1	18	14
中国台湾	13.5	9.4	5.4	5.2	4.8	中国台湾	13.6	17.5	24.2	17.5	17.5
越南	0.1	0.2	4.8	8.9	11.4	越南	0	0.1	0.5	1.1	1.5

资料来源：김계환, 양주영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우리의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2020-14:73 (金奎焕、杨朱英：《全球价值链重构与韩国的应对》，产业研究院报告，2020年，第73页。)

### 三、中韩供应链合作瓶颈与突破

韩国产业利益高度聚焦在存储芯片、逻辑芯片、显示器等高技术制造部门，韩国认为，一旦在尖端芯片等战略性产业失去竞争优势，将在国际竞争中处于极其不利的地位。同时，韩国国内也普遍认为只有保持对华技术优势、确保产业竞争力，才能促使中国将韩国定位为获取全球技术突破的“桥梁”，实现自身产业利益最大化。因此，韩国在对华合作上日益注重“技术代差”。然而，尹熙悦政府维护韩国对华技术“代差”诉求与美国阻断中国技术升级的目标存在结构性差异。对美国而言，阻断中国获取高新技术，特别是尖端半导体等关键战略产业技术是其在经济领域维持对华竞争优势的关键所在。对韩国而言，中国经济规模及消费能力持续增长，扩大在华市场份额依然具有吸引力。对韩国企业而言，加强与美国的技术合作，稳定对华技术“代差”并不意味着阻断与中国的高技术产品贸易与投资合作，只有充分利用中国本土强大的制造能力，并将相关产品销售到中国，才会使韩国的技术“代差”与利润形成良性互动。因此，韩国需要结合实际利益采取政策，一味追随美国对技术保护的范围界定，不利于韩国自身利益。尹锡悦政府对外合作政策日益凸显价值分歧，破坏了中韩合作基础，不利于两国合作的深化发展。

表 4 主要地区在芯片领域的全球市场份额（2019 年）

	类别	美国	韩国	日本	欧洲	中国台湾	中国大陆
产业链环节	EDA 软件	75%	0%	0%	25%	0%	0%
	设备	40%	2%	29%	22%	0%	1%
	材料	15%	0%	52%	15%	0%	0%
	晶圆代工	11%	8%	1%	0%	70%	10%
	封装测试	15%	5%	0%	12%	44%	20%
	微处理器	98%	0%	0%	1%	0%	0%
	存储器	29%	59%	8%	0%	4%	1%
芯片终端产品	逻辑芯片	54%	17%	3%	5%	21%	2%
	模拟芯片	60%	2%	11%	19%	4%	3%
	无线通讯芯片	69%	2%	11%	13%	3%	5%
	微控制器	30%	2%	22%	44%	1%	3%
	传感器	19%	0%	25%	48%	0%	8%

资料来源：赵可金、郎昆. 中美竞争下的供应链安全研究[J]. 东北亚论坛，2022

年第 2 期。

实际上，在芯片产业上，中韩都不具备绝对控制力量（见表4），美国掌控设计与设备，日本有原材料和设备，欧洲在设计、设备、材料上均具备较强影响力，中国尽管没有关键技术环节的优势，但具有庞大的需求，能够从需求侧影响产业链。韩国在先进芯片制造领域具有优势，但较为聚焦在存储芯片上。美国对外政策一向是反对搭便车，这一趋势自特朗普政府以来表现得更加鲜明。拒绝进一步开放本土市场已成为美国两党共识，拜登政府的“印太经济框架”“半导体联盟”“CHIP4”均不涉及进一步市场开放，合作议题呈现较强的约束性。经济合作有自身发展的逻辑，无法持续提供收益的合作很难持续保持动力。在中美间保持平衡、灵活应对，维护并持续发展中韩供应链合作，有利于韩国提升政策自主性，维护产业竞争优势。

对中国而言，技术赶超的前提是确保持续深化国际合作，韩国是中国深化经济技术合作的重要伙伴。无论韩国外交路线变化与否，中韩之间仍然存在着广泛的重要利益，供应链利益是重要组成部分。韩国已深入参与全球价值链分工，无法像美国一样追求供应链的绝对安全，而在打造“稳定且相对安全”的供应链体系过程中，离不开与中国的合作。与此同时，中韩合作应该快速适应中国制造结构升级和消费需求扩大的变化。对于中韩产业、技术竞争问题，随着中国市场规模的持续扩大，中韩合作的增长空间亦会随之增长，可以有效抵消竞争对韩国带来的利益损失，而两国产业的总体升级对巩固东亚生产网络与产业优势具有积极意义。

## 环境规则对全球价值链的影响:基于RCEP, EU, ASEAN 和NAFTA的研究

*Advisor: Prof. Youngjun Choi*

*Speaker: Zhichun Yu*

## 目录



I. 研究背景

IV. 模型和数据

II. 文献综述

V. 实证结果

III. 理论研究和假说

VI. 结论和讨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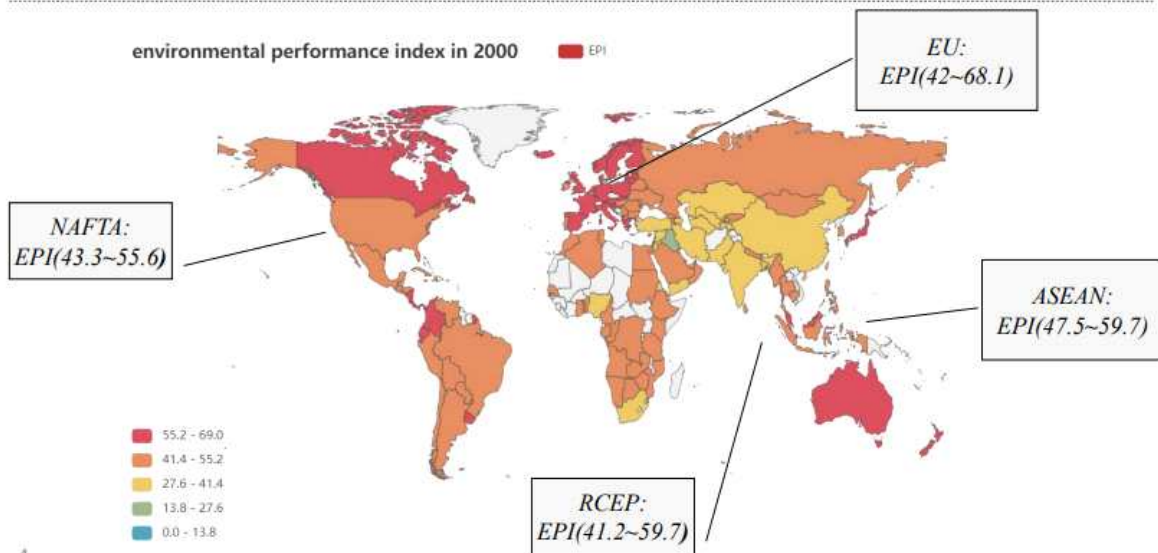


# Part 1. 研究背景

## 1.1 研究背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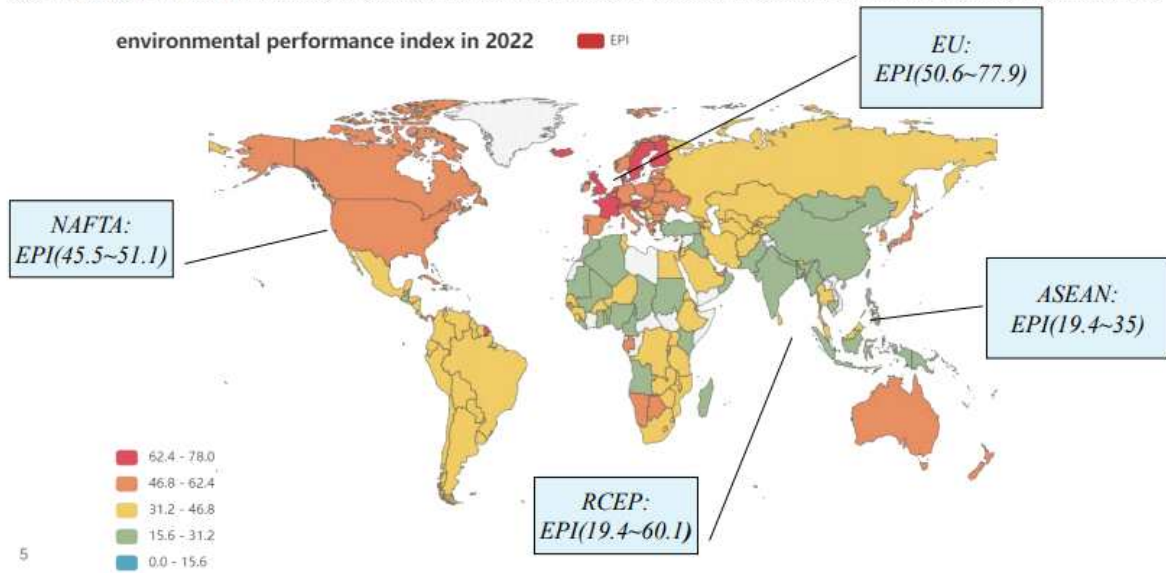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in 2000

EPI



\* This picture is made by python software, and the data comes from [YCELP](#) and [CIESIN](#).

## 1.1 研究背景



\* This picture is made by python software, and the data comes from YCELP and CIESIN.

## 1.2 研究背景

- 随着经济发展与环境污染的矛盾日益突出，许多国家越来越重视环境质量。政府积极采取相应措施和政策，减少国际贸易对环境污染的影响。发达国家比发展中国家更倾向于采取严格的环境法规。与要素禀赋一样，不同的环境标准也会影响一个国家的贸易模式和国际竞争力 (Cenjie Liu and Rui Xie, 2015)。
- 发达经济体通过外包和中间产品贸易将污染过程转移到环境法规相对宽松的经济体。不同强度的环境法规对污染过程的转移和中间产品的贸易具有重要影响 (Hongbing Li and Chunming Zhao, 2013)。
- 随着国际分工的不断细化，发展中国家以低附加值、低技术加工环节嵌入全球价值链的生产环节，高污染的加工生产活动必然会污染环境 (Cenjie Liu and Rui Xie, 2015)。

## 1.3 研究目的

### ● 先行研究存在的问题:

1. 大多数先行研究关注于单个经济体或者企业层面的研究, 很少从区域组织的角度分析环境规则对全球价值链的影响。
2. 大多数的先行研究的结论与污染天堂假说或者波特假说相一致, 并且揭露了环境规则和GVC之间的线性关系, 那么二者是否存在非线性关系呢?
3. 环境规则指标测算多样化, 目前没有统一的衡量标准。

### ● 本研究的目的:

1. 本研究比较了环境规则对全球价值链的直接和空间溢出效应, 从而为国际贸易和生态环境保护相协调发展提出建设性的建议。

## 1.4 边际贡献

### ● 本文的研究问题:

1. 比较RCEP, EU, ASEAN和NAFTA的环境规则对全球价值链的影响。
2. 环境规制能否通过技术、产业结构和规模效应对全球价值链参与产生空间溢出效应?

### ● 本研究的边际贡献:

1. 本研究并不是关注于单个经济体或者企业, 而是比较 RCEP, EU, ASEAN 和 NAFTA等组织。
2. 本研究采纳空间杜宾模型 (SDM) 分析环境规则通过技术, 产业结构和规模技术手段对全球价值链参与度产生的空间溢出效应, 从而为协调本国以及邻国的经济发展和环境问题提出建设性的政策建议。

## Part 2. 文献综述

### 2.1 文献综述

- 首先, 环境规则相关研究:

学术界用来衡量环境法规的标准很多, 主要包括检查次数(Laplante and Rilstone, 1996), 污染税(Dasgupta et al., 2001), 能源强度指标(Tu and Chen, 2019), 水泥制造总能耗与水泥总产量的比值(Tu and Chen, 2019), 工业污染治理完成投资占工业增加值的比重(Liu and Yang, 2019), 污染减排与控制支出(PACE) (Rubashkina et al., 2015), 城镇工业二氧化硫排放标准百分比 (Zhou et al., 2021) 和环境绩效指数(EPI) (Feix et al., 2008; Chakrabortya and Mukherjeeb, 2013; Chung and Seong, 2013; Adeel-Farooq et al., 2018; Li et al., 2022). 目前还没有统一的衡量指标。

## 2.2 文献综述

### ● 其次, 全球价值链相关研究:

1. 全球价值链的概念是由 *Krugman (1995)* 引入的, 它指的是由专门从事特定生产过程的国家形成的联系, 从而形成一个国际供应网络。
2. *Koopman* 等人基于贸易增加值法计算了全球价值链在一个国家出口总额中的嵌入性 (*Koopman et al., 2010 & 2014*). 王等人采用世界投入产出表分解全球价值链在世界多个层面的参与 (*Wang et al., 2013 & 2017*).
3. 有学者指出, GDP 增长、GVC 参与滞后、外商直接投资、金融业发展、服务业在 GDP 中的比重和高新技术产品在出口中的比重是影响 GVC 参与度的最重要因素 (*Amador and Cabral, 2016; Grodzicki and Geodecki, 2016; Kersan-Skabić, 2019; Wang et al., 2019; Xu et al., 2020; Cai et al., 2020*).

## 2.3 文献综述

### ● 第三, 环境规则和全球价值链的关系:

- 波特假说认为, 适当的环境规制会激发企业的技术创新, 从而覆盖环境规制成本, 提高产品的国际竞争力, 增加对全球价值链的参与度 (*Porter and Van der Linde, 1995; Johnstone et al., 2010; Stefan et al., 2013*).
- 污染者天堂假说认为, 严格的环境法规导致高成本, 不利于改善全球价值链的分工 (*Copeland and Taylor, 1994; Levinson and Taylor, 2008; Blackman et al., 2010*).



## Part 3.

# 理论研究和假说

### 3.1 理论研究和假说

#### ● 理论 1

波特假说认为, 适当的环境规制会激发企业的技术创新, 从而覆盖环境规制成本, 提高产品的国际竞争力, 增加对全球价值链的参与度 (Porter and Van der Linde, 1995; Johnstone et al., 2010; Stefan et al., 2013).

#### ● 理论 2

污染者天堂假说认为, 严格的环境法规导致高成本, 不利于改善全球价值链的分工 (Copeland and Taylor, 1994; Levinson and Taylor, 2008; Blackman et al., 2010).

#### ● 基于理论1 和 2, 本研究创建了如下假说.

- 环境法规与全球价值链参与之间存在非线性关系。

## 3.2 理论研究和假说

### ● 理论3

环境法规在三个维度影响全球价值链。

- a) 在技术层面, 波特动态创新机制认为, 当加大技术创新投入和提高生产力所带来的净利润大于遵守环保法规的成本时, 企业会主动进行技术创新, 从而产生“创新补偿效应” (Porter and Van der Linde, 1995; Lanoie et al., 2008; Johnstone et al., 2010).
- b) 在生产成本方面, 严格的环境法规通过增加密集型产业的生产成本、减少贸易量、降低污染密集型产业的比较优势来影响贸易模式和全球价值链参与, 这与污染天堂假说一致 (Copeland and Taylor, 1999, 1994; Levinson and Taylor, 2008; Blackman et al., 2010).
- c) 在产业结构方面, 环境规制将污染密集型产业转变为清洁型产业, 优化产业结构, 增加对价值链的参与度 (Ozawa, 1979; Liu Cenjie, Xie Rui, 2015; Li et al., 2022).

### ● 基于理论3, 本研究创建了如下假说。

- 环境规制可以通过技术、产业结构和规模效应对全球价值链参与产生空间溢出效应。

## Part 4. 模型和数据

## 4.1 模型

$$\ln GVC_{(fpar)it} = \varphi_0 + \varphi_1 \ln EPI_{it} + \varphi_2 EPI_{it}^2 + \varphi_3 \ln Z_{it} + \delta_i + \gamma_t + \varepsilon_{it} \quad (1.1)$$

$$\ln GVC_{(bpar)it} = \varphi_0 + \varphi_1 \ln EPI_{it} + \varphi_2 EPI_{it}^2 + \varphi_3 \ln Z_{it} + \delta_i + \gamma_t + \varepsilon_{it} \quad (1.2)$$

$$\begin{aligned} \ln GVC_{(fpar)it} = & \rho_1 \sum_{j=1}^{62} W_{ij} \ln GVC_{(fpar)jt} + \vartheta_0 + \vartheta_1 \ln EPI_{it} + \vartheta_2 \ln Z_{it} + \vartheta_3 (\ln EPI_{it} * \ln SCALE_{it}) + \\ & \vartheta_4 (\ln EPI_{it} * \ln TECH_{it}) + \vartheta_5 (\ln EPI_{it} * \ln STRU_{it}) + \mu_1 \sum_{j=1}^{62} W_{ij} \ln EPI_{jt} + \mu_2 \sum_{j=1}^{62} W_{ij} \ln Z_{jt} + \\ & \mu_3 \sum_{j=1}^{62} W_{ij} (\ln EPI_{jt} * \ln SCALE_{jt}) + \mu_4 \sum_{j=1}^{62} W_{ij} (\ln EPI_{jt} * \ln TECH_{jt}) + \mu_5 \sum_{j=1}^{62} W_{ij} (\ln EPI_{jt} * \ln STRU_{jt}) + \varepsilon_{it} \end{aligned} \quad (1.3)$$

$$\begin{aligned} \ln GVC_{(bpar)it} = & \rho_2 \sum_{j=1}^{62} W_{ij} \ln GVC_{(bpar)jt} + \sigma_0 + \sigma_1 \ln EPI_{it} + \sigma_2 \ln Z_{it} + \sigma_3 (\ln EPI_{it} * \ln SCALE_{it}) + \\ & \sigma_4 (\ln EPI_{it} * \ln TECH_{it}) + \sigma_5 (\ln EPI_{it} * \ln STRU_{it}) + \omega_1 \sum_{j=1}^{62} W_{ij} \ln EPI_{jt} + \omega_2 \sum_{j=1}^{62} W_{ij} \ln Z_{jt} + \\ & \omega_3 \sum_{j=1}^{62} W_{ij} (\ln EPI_{jt} * \ln SCALE_{jt}) + \omega_4 \sum_{j=1}^{62} W_{ij} (\ln EPI_{jt} * \ln TECH_{jt}) + \omega_5 \sum_{j=1}^{62} W_{ij} (\ln EPI_{jt} * \ln STRU_{jt}) + \varepsilon_{it} \end{aligned} \quad (1.4)$$

## 4.1 模型

$$\ln GVC_{(fpar)it} = \varphi_0 + \varphi_1 \ln EPI_{it} + \varphi_2 EPI_{it}^2 + \varphi_3 \ln Z_{it} + \delta_i + \gamma_t + \varepsilon_{it} \quad (1.1)$$

$$\ln GVC_{(bpar)it} = \varphi_0 + \varphi_1 \ln EPI_{it} + \varphi_2 EPI_{it}^2 + \varphi_3 \ln Z_{it} + \delta_i + \gamma_t + \varepsilon_{it} \quad (1.2)$$

$$\begin{aligned} \ln GVC_{(fpar)it} = & \rho_1 \sum_{j=1}^{62} W_{ij} \ln GVC_{(fpar)jt} + \vartheta_0 + \vartheta_1 \ln EPI_{it} + \vartheta_2 \ln Z_{it} + \vartheta_3 (\ln EPI_{it} * \ln SCALE_{it}) + \\ & \vartheta_4 (\ln EPI_{it} * \ln TECH_{it}) + \vartheta_5 (\ln EPI_{it} * \ln STRU_{it}) + \mu_1 \sum_{j=1}^{62} W_{ij} \ln EPI_{jt} + \mu_2 \sum_{j=1}^{62} W_{ij} \ln Z_{jt} + \\ & \mu_3 \sum_{j=1}^{62} W_{ij} (\ln EPI_{jt} * \ln SCALE_{jt}) + \mu_4 \sum_{j=1}^{62} W_{ij} (\ln EPI_{jt} * \ln TECH_{jt}) + \mu_5 \sum_{j=1}^{62} W_{ij} (\ln EPI_{jt} * \ln STRU_{jt}) + \varepsilon_{it} \end{aligned} \quad (1.3)$$

$$\begin{aligned} \ln GVC_{(bpar)it} = & \rho_2 \sum_{j=1}^{62} W_{ij} \ln GVC_{(bpar)jt} + \sigma_0 + \sigma_1 \ln EPI_{it} + \sigma_2 \ln Z_{it} + \sigma_3 (\ln EPI_{it} * \ln SCALE_{it}) + \\ & \sigma_4 (\ln EPI_{it} * \ln TECH_{it}) + \sigma_5 (\ln EPI_{it} * \ln STRU_{it}) + \omega_1 \sum_{j=1}^{62} W_{ij} \ln EPI_{jt} + \omega_2 \sum_{j=1}^{62} W_{ij} \ln Z_{jt} + \\ & \omega_3 \sum_{j=1}^{62} W_{ij} (\ln EPI_{jt} * \ln SCALE_{jt}) + \omega_4 \sum_{j=1}^{62} W_{ij} (\ln EPI_{jt} * \ln TECH_{jt}) + \omega_5 \sum_{j=1}^{62} W_{ij} (\ln EPI_{jt} * \ln STRU_{jt}) + \varepsilon_{it} \end{aligned} \quad (1.4)$$

## 4.3 描述性统计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Variable meaning	Obs	Mean	Std. Dev.	Min	Max
<i>GVC fpar</i>	Forward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s	1178	6.80e-07	1.54e-07	2.50e-07	1.10e-06
<i>GVC bpar</i>	Backward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s	1178	2.32e-07	1.04e-07	2.94e-08	7.13e-07
<i>EPI</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1178	61.313	11.879	30.57	90.68
<i>Exports</i>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current US\$)	1178	2.422e+11	3.777e+11	1.821e+09	2.656e+12
<i>Imports</i>	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current US\$)	1178	2.555e+11	4.193e+11	2.149e+09	3.130e+12
<i>GFC</i>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current US\$)	1178	2.454e+11	6.050e+11	6.306e+08	5.953e+12
<i>HUM</i>	School enrollment, tertiary (% gross)	1178	55.113	23.449	2.38	142.852
<i>FDI</i>	Foreign investment as a percentage of GDP	1178	7.49	26.604	-57.532	449.083
<i>R&amp;D</i>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 of GDP)	1178	1.336	.99	.042	4.797
<i>SCALE</i>	GDP (current US\$)	1178	9.060e+11	2.231e+12	3.654e+09	2.053e+13
<i>TECH</i>	Pollution emissions per unit of industrial output (Bao et al.,2011; Qian et al.,2022)	1178	.245	.133	.062	.837
<i>STRU</i>	Manufacturing, value added (% of GDP) (Bao et al.,2011; Qian et al.,2022)	1178	15.705	5.498	3.887	34.904

## 4.3 描述性统计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Variable meaning	Obs	Mean	Std. Dev.	Min	Max
<i>GVC fpar</i>	Forward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s	1178	6.80e-07	1.54e-07	2.50e-07	1.10e-06
<i>GVC bpar</i>	Backward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s	1178	2.32e-07	1.04e-07	2.94e-08	7.13e-07
<i>EPI</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1178	61.313	11.879	30.57	90.68
<i>Exports</i>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current US\$)	1178	2.422e+11	3.777e+11	1.821e+09	2.656e+12
<i>Imports</i>	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current US\$)	1178	2.555e+11	4.193e+11	2.149e+09	3.130e+12
<i>GFC</i>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current US\$)	1178	2.454e+11	6.050e+11	6.306e+08	5.953e+12
<i>HUM</i>	School enrollment, tertiary (% gross)	1178	55.113	23.449	2.38	142.852
<i>FDI</i>	Foreign investment as a percentage of GDP	1178	7.49	26.604	-57.532	449.083
<i>R&amp;D</i>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 of GDP)	1178	1.336	.99	.042	4.797
<i>SCALE</i>	GDP (current US\$)	1178	9.060e+11	2.231e+12	3.654e+09	2.053e+13
<i>TECH</i>	Pollution emissions per unit of industrial output (Bao et al.,2011; Qian et al.,2022)	1178	.245	.133	.062	.837
<i>STRU</i>	Manufacturing, value added (% of GDP) (Bao et al.,2011; Qian et al.,2022)	1178	15.705	5.498	3.887	34.904

# Part 5. 实证结果

## 5.1 基准回归

Table 3.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EPI on GVC in NAFTA and ASEAN

	NAFTA				ASEAN			
	GVC <sub>fgpac</sub>		GVC <sub>bgpac</sub>		GVC <sub>fgpac</sub>		GVC <sub>bgpac</sub>	
	POLS	FE	POLS	FE	POLS	FE	POLS	FE
LnEPI	0.759 (0.392)	0.785 (0.773)	-3.258 (3.122)	-2.017 (2.846)	-2.298 (1.694)	-3.863*** (1.250)	-8.548* (4.259)	-8.468** (4.268)
LnEPI <sup>2</sup>	-0.094 (0.047)	-0.096 (0.092)	0.379 (0.373)	0.227 (0.339)	0.297 (0.208)	0.488*** (0.155)	1.121* (0.550)	1.100** (0.529)
LnExports	0.103 (0.037)	0.037 (0.047)	-0.508 (0.189)	-0.282 (0.173)	-0.332** (0.129)	-0.542*** (0.059)	-1.706*** (0.230)	-0.389* (0.202)
LnImports	-0.320** (0.051)	-0.276*** (0.054)	1.639** (0.295)	1.488*** (0.198)	-0.196 (0.112)	-0.029 (0.077)	1.974*** (0.291)	0.130 (0.263)
LnGFC	0.184*** (0.018)	0.126*** (0.040)	-0.503* (0.129)	-0.337** (0.147)	0.028 (0.066)	-0.148*** (0.033)	-1.109*** (0.275)	-0.362*** (0.114)
LnHUM	0.083*** (0.013)	0.066* (0.033)	-0.459** (0.092)	-0.493*** (0.123)	-0.035 (0.057)	-0.096*** (0.026)	-0.084 (0.138)	0.165* (0.089)
FDI	-0.000 (0.001)	-0.000 (0.001)	0.002 (0.005)	0.001 (0.004)	0.001 (0.003)	0.002 (0.002)	0.003 (0.007)	-0.017** (0.007)
R&D	-0.011 (0.007)	-0.003 (0.022)	-0.007 (0.067)	-0.091 (0.083)	0.056 (0.061)	0.069** (0.029)	0.242 (0.190)	-0.448*** (0.099)
LnSCALE	0.033 (0.013)	0.162** (0.065)	-0.660 (0.262)	-1.026*** (0.238)	0.474*** (0.089)	0.789*** (0.035)	0.979*** (0.179)	0.893*** (0.120)
LnTECH	0.095*** (0.005)	0.106*** (0.031)	-0.056 (0.117)	-0.157 (0.115)	0.238** (0.074)	0.103*** (0.038)	0.552** (0.164)	0.396*** (0.130)
LnSTRU	0.024 (0.009)	0.101*** (0.035)	-0.124* (0.042)	-0.293** (0.127)	-0.166 (0.094)	0.247*** (0.062)	0.572 (0.549)	1.081*** (0.212)
_cons	-15.927*** (0.611)	-17.662*** (1.626)	-4.779 (4.589)	-2.722 (5.984)	-8.485* (3.788)	-9.191*** (2.536)	-4.656 (8.355)	-9.087 (8.661)
$\delta_t$		YES		YES		YES		YES
$\mu_i$		YES		YES		YES		YES
N	57	57	57	57	152	152	152	152
r <sup>2</sup>	0.990	0.861	0.996	0.851	0.945	0.869	0.764	0.547
F	-	24.195	-	22.303	-	80.186	-	14.581
p	-	0.000	-	0.000	-	0.000	-	0.000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05$ , \*\*  $p < 0.01$ , \*\*\*  $p < 0.001$ ;  $\delta_t$  and  $\mu_i$  represent time and individual fixation, respectively.



## 5.1 基准回归

Table 4.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EPI on GVC in EU and RCEP

	EU		GVC_hpar		RCEP		GVC_hpar	
	GVC_fpar	FE	GVC_fpar	FE	GVC_fpar	FE	GVC_fpar	FE
	POLS		POLS		POLS		POLS	
LnEPI	0.949 (1.495)	1.269** (0.589)	0.767 (5.629)	4.716*** (1.285)	-0.555 (2.060)	-3.582*** (0.865)	-8.508* (4.050)	-6.116** (2.963)
LnEPI <sup>2</sup>	-0.103 (0.174)	-0.150*** (0.070)	-0.085 (0.664)	-0.566*** (0.152)	0.074 (0.252)	0.450*** (0.106)	1.044* (0.507)	0.808** (0.363)
LnExports	0.003 (0.062)	-0.060* (0.031)	-0.091 (0.260)	-0.219*** (0.068)	-0.167 (0.118)	-0.483*** (0.047)	-1.319*** (0.238)	-0.635*** (0.160)
LnImports	-0.502*** (0.068)	-0.400*** (0.035)	0.635** (0.299)	0.837*** (0.076)	-0.236* (0.121)	0.024 (0.051)	1.851*** (0.253)	0.926*** (0.175)
LnGFC	0.091*** (0.021)	0.041*** (0.017)	-0.141 (0.161)	-0.088** (0.038)	0.043 (0.074)	-0.181*** (0.024)	-1.092*** (0.184)	-0.689*** (0.081)
LnHUM	0.012 (0.026)	-0.028** (0.012)	-0.114 (0.090)	0.146*** (0.026)	-0.013 (0.032)	-0.065*** (0.019)	0.091 (0.116)	-0.000 (0.066)
FDI	0.001*** (0.001)	0.001*** (0.000)	-0.000 (0.002)	0.001 (0.000)	-0.005 (0.004)	0.001 (0.002)	-0.005 (0.008)	-0.011** (0.005)
R&D	-0.005 (0.010)	-0.002 (0.007)	0.029 (0.046)	0.014 (0.016)	-0.016 (0.018)	0.029* (0.015)	0.025 (0.066)	-0.209*** (0.053)
LnSCALE	0.382*** (0.023)	0.400*** (0.032)	-0.380** (0.170)	-0.573*** (0.069)	0.304*** (0.070)	0.701*** (0.028)	0.590*** (0.161)	0.743*** (0.097)
LnTECH	0.001 (0.024)	-0.102*** (0.017)	0.098 (0.087)	0.046 (0.038)	0.076 (0.052)	0.132*** (0.032)	0.373*** (0.105)	0.600*** (0.108)
LnSTRU	0.050* (0.026)	0.146*** (0.016)	0.068 (0.114)	-0.032 (0.036)	-0.084* (0.043)	0.143*** (0.044)	0.604*** (0.145)	0.764*** (0.149)
_cons	-16.224*** (3.164)	-17.207*** (1.250)	-16.914 (11.837)	-24.038*** (2.726)	-11.558*** (4.360)	-9.324*** (1.752)	-1.401 (8.421)	-14.664*** (6.000)
$\delta_i$		YES		YES		YES		YES
$\mu_j$		YES		YES		YES		YES
N	513	513	513	513	247	247	247	247
r <sup>2</sup>	0.935	0.769	0.577	0.527	0.917	0.815	0.742	0.435
F	306.120	143.524	8.691	48.071	2058.684	89.578	419.662	15.609
P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05$ , \*\*  $p < 0.01$ , \*\*\*  $p < 0.001$ ;  $\delta_i$  and  $\mu_j$  represent time and individual fixation, respectively.

## 5.2 稳健性检验

Table 5.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EPI on GVC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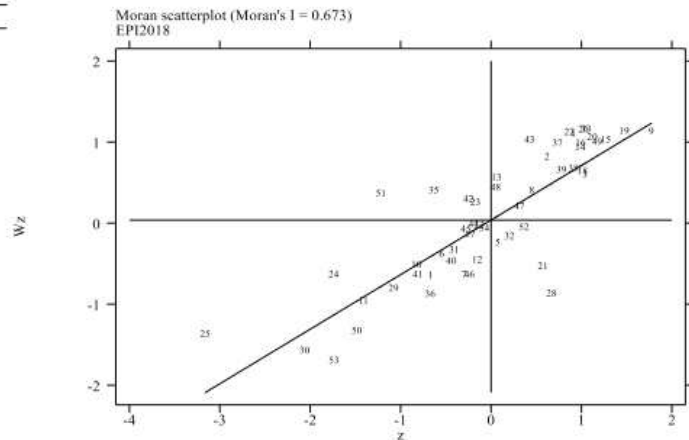
	Developed countries		GVC_hpar		Developing countries		GVC_hpar	
	GVC_fpar	FE	GVC_fpar	FE	GVC_fpar	FE	GVC_fpar	FE
	POLS		POLS		POLS		POLS	
LnEPI	-3.246 (2.214)	2.198*** (0.753)	-8.527 (8.312)	3.623** (1.621)	0.192 (1.511)	-1.124*** (0.425)	-8.645 (5.222)	-5.948*** (1.367)
LnEPI <sup>2</sup>	0.383 (0.259)	-0.253*** (0.089)	0.990 (0.977)	-0.443** (0.191)	-0.017 (0.189)	0.141*** (0.053)	1.097 (0.651)	0.751*** (0.172)
LnExports	0.147*** (0.048)	-0.090*** (0.026)	-0.049 (0.204)	-0.189*** (0.057)	0.086 (0.077)	-0.101*** (0.023)	-1.189*** (0.292)	-0.116 (0.073)
LnImports	-0.608*** (0.067)	-0.277*** (0.026)	0.675*** (0.201)	0.914*** (0.056)	-0.522*** (0.076)	-0.294*** (0.028)	1.859*** (0.248)	0.501*** (0.091)
LnGFC	0.127*** (0.031)	0.038** (0.018)	-0.124 (0.170)	-0.131*** (0.038)	0.221*** (0.044)	-0.058*** (0.017)	-1.106*** (0.161)	-0.410*** (0.056)
LnHUM	0.057* (0.029)	-0.012 (0.013)	-0.090 (0.092)	0.117*** (0.028)	-0.008 (0.025)	-0.009 (0.012)	-0.090 (0.080)	0.079* (0.040)
FDI	0.001* (0.000)	0.000 (0.000)	-0.002 (0.002)	0.001* (0.000)	-0.003* (0.002)	0.001** (0.001)	0.004 (0.006)	0.000 (0.002)
R&D	-0.019*** (0.008)	-0.005 (0.006)	0.030 (0.034)	-0.011 (0.012)	-0.039 (0.043)	-0.008 (0.016)	-0.040 (0.097)	-0.234*** (0.052)
LnSCALE	0.308*** (0.034)	0.311*** (0.030)	-0.509** (0.196)	-0.651*** (0.065)	0.168*** (0.037)	0.487*** (0.019)	0.514*** (0.164)	0.189*** (0.061)
LnTECH	-0.022 (0.021)	-0.023 (0.016)	0.045 (0.079)	0.023 (0.034)	0.053 (0.034)	0.036* (0.021)	0.155 (0.094)	0.372*** (0.067)
LnSTRU	-0.008 (0.029)	0.113*** (0.016)	0.161* (0.089)	-0.032 (0.034)	-0.045 (0.061)	0.105*** (0.025)	0.489** (0.220)	0.137* (0.082)
_cons	-7.146 (4.697)	-19.095*** (1.545)	3.592 (17.683)	-21.094*** (3.325)	-13.319*** (3.117)	-13.485*** (0.834)	-2.273 (10.546)	-8.129*** (2.682)
$\delta_i$		YES		YES		YES		YES
$\mu_j$		YES		YES		YES		YES
N	646	646	646	646	532	532	532	532
r <sup>2</sup>	0.919	0.705	0.708	0.591	0.871	0.686	0.650	0.269
F	74.713	130.356	14.913	78.827	253.676	97.689	20.890	16.459
p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05$ , \*\*  $p < 0.01$ , \*\*\*  $p < 0.001$ ;  $\delta_i$  and  $\mu_j$  represent time and individual fixation, respectively.

### 5.3.1 基于全局空间自相关测度的EPI 莫兰指数

Variables	I	z	p-value*
EPI2000	0.474	3.893	0.000
EPI2001	0.476	3.913	0.000
EPI2002	0.463	3.822	0.000
EPI2003	0.472	3.884	0.000
EPI2004	0.484	3.981	0.000
EPI2005	0.483	3.983	0.000
EPI2006	0.478	3.948	0.000
EPI2007	0.490	4.040	0.000
EPI2008	0.486	4.018	0.000
EPI2009	0.485	4.006	0.000
EPI2010	0.482	3.987	0.000
EPI2011	0.482	3.988	0.000
EPI2012	0.482	3.988	0.000
EPI2013	0.593	4.810	0.000
EPI2014	0.586	4.734	0.000
EPI2015	0.642	5.218	0.000
EPI2016	0.653	5.366	0.000
EPI2017	0.678	5.547	0.000
EPI2018	0.673	5.484	0.000

Note: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1$ , \*\*  $p < 0.05$ , \*\*\*  $p < 0.01$ ; \*I-tail test



23

### 5.2.3 EPI 对 GVC 前向参与的空间溢出效应

Spatial spillover effects of EPI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on GVC forward participation

Y~GVC_fpar	Developed countries (SDM)			Developing countries (SDM)		
	(1) distcap	(2) distw	(3) distwces	(4) distcap	(5) distw	(6) distwces
<b>Main effects</b>						
LnEPI	-1.1681*** (0.1822)	-1.1757*** (0.1833)	-1.1787*** (0.1830)	-2.3609*** (0.1418)	-2.3768*** (0.1407)	-2.3689*** (0.1401)
LnEPI*LnSCALE	0.0443*** (0.0068)	0.0446*** (0.0068)	0.0448*** (0.0068)	0.0892*** (0.0049)	0.0897*** (0.0049)	0.0894*** (0.0049)
LnEPI*LnTECH	-0.0127*** (0.0047)	-0.0123*** (0.0047)	-0.0122*** (0.0047)	-0.0034 (0.0054)	-0.0034 (0.0054)	-0.0032 (0.0054)
LnEPI*LnSTRU	0.0270*** (0.0039)	0.0272*** (0.0039)	0.0272*** (0.0039)	-0.0016 (0.0068)	0.0008 (0.0068)	0.0006 (0.0067)
<b>Direct effects</b>						
LnEPI	-1.1693*** (0.1842)	-1.1744*** (0.1850)	-1.1763*** (0.1847)	-2.2799*** (0.1471)	-2.2937*** (0.1521)	-2.2917*** (0.1528)
LnEPI*LnSCALE	0.0443*** (0.0069)	0.0446*** (0.0069)	0.0448*** (0.0069)	0.0863*** (0.0052)	0.0867*** (0.0053)	0.0866*** (0.0054)
LnEPI*LnTECH	-0.0115*** (0.0044)	-0.0111*** (0.0044)	-0.0110*** (0.0044)	0.0008 (0.0057)	-0.0001 (0.0056)	-0.0001 (0.0056)
LnEPI*LnSTRU	0.0261*** (0.0039)	0.0262*** (0.0039)	0.0263*** (0.0039)	-0.0002 (0.0066)	0.0008 (0.0065)	0.0007 (0.0065)
<b>Indirect effects</b>						
LnEPI	0.6826 (1.6349)	0.3806 (1.5985)	0.2750 (1.5911)	-5.6181** (2.8392)	-6.8000** (3.0437)	-6.8906** (3.0636)
LnEPI*LnSCALE	-0.0259 (0.0601)	-0.0162 (0.0585)	-0.0117 (0.0583)	0.2022** (0.1003)	0.2405** (0.1066)	0.2439** (0.1074)
LnEPI*LnTECH	-0.0866 (0.0606)	-0.0896 (0.0610)	-0.0869 (0.0600)	-0.2736* (0.1397)	-0.2507* (0.1409)	-0.2547* (0.1415)
LnEPI*LnSTRU	0.1074 (0.0685)	0.1093 (0.0691)	0.1072 (0.0682)	-0.0965 (0.1125)	-0.0059 (0.1197)	-0.0087 (0.1199)
N	646	646	646	532	532	532
r <sup>2</sup>	0.6611	0.6653	0.6562	0.2407	0.3516	0.3476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05$ , \*\*  $p < 0.01$ , \*\*\*  $p < 0.001$ ; Both time and individual are fixed.

Table 6. Spatial spillover effects of EPI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on GVC forward participation

## 5.2.4 EPI 对 GVC 前向参与的空间溢出效应

Spatial spillover effects of EPI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on GVC backward participation

$Y = GVC\_bpar$ $Wt$	<u>Developed countries (SDM)</u>			<u>Developing countries (SDM)</u>		
	(7) <i>distcap</i>	(8) <i>distw</i>	(9) <i>distwces</i>	(10) <i>distcap</i>	(11) <i>distw</i>	(12) <i>distwces</i>
<b>Main effects</b>						
<i>LnEPI</i>	3.1009*** (0.3859)	3.1165*** (0.3877)	3.1159*** (0.3874)	-0.4049 (0.4326)	-0.3502 (0.4282)	-0.3570 (0.4260)
<i>LnEPI*LnSCALE</i>	-0.1237*** (0.0144)	-0.1244*** (0.0145)	-0.1243*** (0.0144)	0.0077 (0.0150)	0.0056 (0.0149)	0.0059 (0.0148)
<i>LnEPI*LnTECH</i>	-0.0155 (0.0099)	-0.0159 (0.0099)	-0.0154 (0.0099)	0.0588*** (0.0164)	0.0566*** (0.0163)	0.0570*** (0.0163)
<i>LnEPI*LnSTRU</i>	0.0125 (0.0082)	0.0127 (0.0083)	0.0128 (0.0083)	0.0342* (0.0207)	0.0373* (0.0206)	0.0373* (0.0205)
<b>Direct effects</b>						
<i>LnEPI</i>	3.1015*** (0.3926)	3.1173*** (0.3945)	3.1169*** (0.3942)	-0.3688 (0.4202)	-0.2782 (0.4174)	-0.2869 (0.4177)
<i>LnEPI*LnSCALE</i>	-0.1237*** (0.0147)	-0.1244*** (0.0148)	-0.1243*** (0.0147)	0.0066 (0.0146)	0.0033 (0.0145)	0.0037 (0.0145)
<i>LnEPI*LnTECH</i>	-0.0135 (0.0100)	-0.0139 (0.0101)	-0.0135 (0.0100)	0.0525*** (0.0161)	0.0504*** (0.0159)	0.0508*** (0.0160)
<i>LnEPI*LnSTRU</i>	0.0138 (0.0087)	0.0139 (0.0087)	0.0141 (0.0087)	0.0274 (0.0201)	0.0282 (0.0202)	0.0281 (0.0203)
<b>Indirect effects</b>						
<i>LnEPI</i>	1.6945 (3.7955)	1.7589 (3.7428)	1.6944 (3.7169)	-1.6056 (7.1019)	-3.8895 (6.8695)	-4.0176 (6.8695)
<i>LnEPI*LnSCALE</i>	-0.1099 (0.1411)	-0.1140 (0.1387)	-0.1093 (0.1378)	0.0291 (0.2503)	0.1050 (0.2400)	0.1078 (0.2400)
<i>LnEPI*LnTECH</i>	-0.3373** (0.1667)	-0.3552** (0.1719)	-0.3364** (0.1673)	0.5115 (0.3739)	0.4663 (0.3623)	0.5011 (0.3628)
<i>LnEPI*LnSTRU</i>	-0.2927* (0.1580)	-0.3008* (0.1626)	-0.2921* (0.1597)	0.4590 (0.3501)	0.5775 (0.3634)	0.6213* (0.3652)
<i>N</i>	646	646	646	532	532	532
<i>r<sup>2</sup></i>	0.3787	0.3712	0.3723	0.0659	0.0538	0.0483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05$ , \*\*  $p < 0.01$ , \*\*\*  $p < 0.001$ ; Both time and individual are fixed.

Table 7. Spatial spillover effects of EPI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on GVC backward participation

## Part 6. 结论与讨论

## 6.1 结论

- 欧盟EPI与GVC之间呈“n”型曲线，而东盟和RCEP的EPI与GVC关系呈“u”型曲线。环境规制对全球价值链的前向和后向参与的影响在北美自由贸易协定组织中不显著。
- 环境规则越严格，GVC 在欧盟、东盟和 RCEP 中的前向参与度就越低。环境监管越严格，全球价值链在欧盟、东盟和RCEP中的后向参与度越高。
- 发展中国家通过技术创新影响周边国家的全球价值链前向参与，进而影响其自身的全球价值链前向参与。
- 发达国家的环境规制通过经济规模或技术创新影响其全球价值链的后向参与。只有技术创新才能对发展中国家产生影响。

## 6.2 政策建议

- 由于环境规制越严格，发达国家和发展中国家在全球价值链中的后向参与度越高，政府需要制定符合国情需要的相对严格的环境规制，从而提高后向参与度 在全球价值链中的地位。
- 由于发达国家可以通过经济规模和技术创新影响EPI在全球价值链中的前向和后向参与，发达国家可以发展规模经济，加大技术研发投入，提高其对全球价值链的参与度。
- 发展中国家的技术创新不仅在空间上影响邻国，而且反过来影响其自身的 GVC 后向参与。因此，发展中国家可以继续加大研发投入，通过技术创新间接提高GVC参与度。

### 6.3 局限性和讨论

- 本研究的局限性在于，首先，GVC的数据目前只更新到2018年，所以目前比较难获得2019年到2022年的发展趋势。此外，目前环境规制尚无统一的研究标准，本研究仅采用EPI指标作为衡量指标，难免存在一定的局限性。
- 环境规制不仅影响国家层面参与全球价值链，也影响行业层面和企业层面参与全球价值链。因此，后续研究将围绕行业和企业层面进行更细致的研究。

# Thank you



# 中韩经贸合作现状与展望

玄春姬(吉林大学东北亚研究院副教授)<sup>1)</sup>

## 一、中韩经贸合作发展沿革

中韩建交三十年以来，中韩经贸合作经历了三个阶段，分别为：起步阶段、快速发展阶段、成熟稳定阶段<sup>2)</sup>。



图1.中韩贸易的发展过程与相互依赖度走势

资料来源：韩国银行（2022）

### 1. 起步阶段：中韩建交到中国加入世贸组织之前

这一期间中韩两国根据两国的产业互补性，加快产业合作，中韩两国的相互依赖度快速增加，主要贸易产品是用于加工贸易的中间品，如电子零部件、钢铁、纤维、合成树脂、橡胶等。

### 2. 快速发展阶段：2002年中国加入世贸组织到2014年

这一阶段主要特征有韩国对华依赖度持续上升，韩国向中国主要出口加工贸易和投资结核性中间品，主要贸易产品有汽车零部件、手机零部件、半导体、合成树脂等。

### 3. 从2015年至今

随着中国的发展，这一阶段中韩两国产业竞争加剧，韩国对中国的投资主要目的以满足内需为主，主要出口产品也是化学原材料、半导体等，同时随着我国制造业技术的发展，韩国对中国的半成品的进口递增，对华半成品依赖度也增加。

1) 吉林大学东北亚研究院副教授，Email：cjsxuan@jlu.edu.cn

2) 현상백, 양평섭, 정지현 and 문지영 (2022). 한·중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오늘의 세계경제, KIEP.

## 二、 中韩贸易的特征

### 1. 中韩贸易是韩国贸易收支的最大来源，但贸易收支集中在半导体

韩国对华贸易一直是顺差，1993年到2021年韩国对华贸易总顺差累计达到7063亿美元，其中，中间品贸易顺差更是累计达到7915.2亿美元。而韩国这一期间贸易累计顺差总共是8219亿美元。韩国对华贸易中顺差最大的一直是中间品，而中间品贸易2018年顺差达到历史最高值，实现了635亿美元。而2018年韩国贸易顺差总额为697亿美元(8542其中内存(HK编码8542)顺差为342亿美元，通过香港的顺差为307亿美元，共计649亿美元)。由此可见，中国是韩国贸易收支的最大来源国，几乎与韩国总的贸易收支持平。

### 2. 我国内需逐渐成为韩国出口最终去向

更重要的是，这些出口的最终目的是满足我国的内需。从韩国出口到中国的中间品占出口的79.6%(2021年)，而这些中间品中超过四分之三是以满足我国内需为目的，再出口用少于四分之一。我国已经从中间品加工的世界工厂逐渐变成提供最终需求的世界市场。由此可知，我国不仅在直接贸易向是韩国的主要对象国，从最终需求上也是韩国的最主要的贸易对象国之一，因此我国的内需也成为韩国出口的主要影响因子。

这一点也体现在韩国对华直接投资的目的的变化。近些年韩国对华直接投资中占比最大的是“**进入本地市场**”，而不是“促进出口”或者“利用廉价劳动力”等，在2018年韩国对华投资中七成以上投资其目的是“进入本地市场”，而在疫情期间的2021年这一比重更是高达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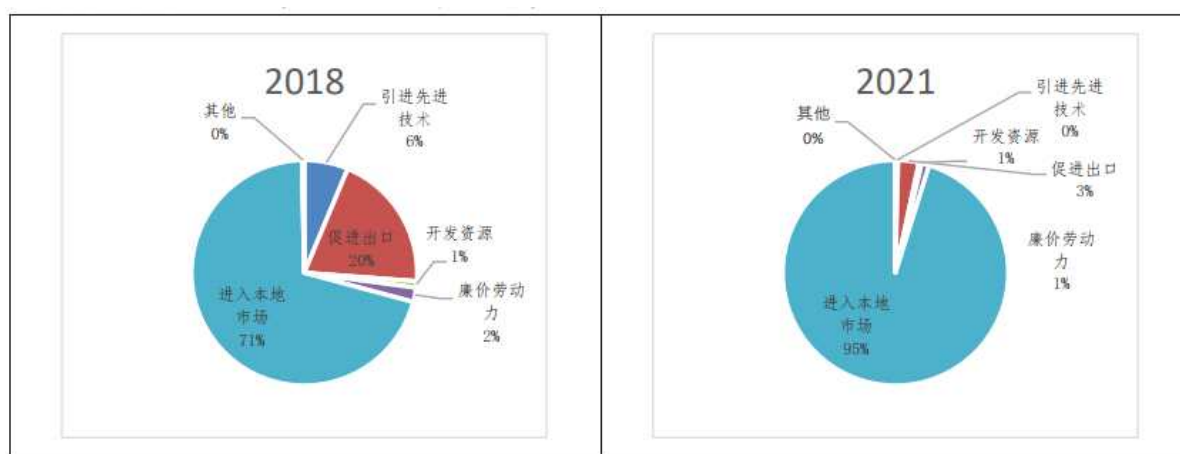


图2. 韩国对中国FDI的投资目的  
数据来源：韩国进出口银行，由笔者整理

而根据大韩商工会议所8月份的一份报告，韩国5-7月份对华贸易逆差其中一个重要原因就是上季度中国因为疫情导致消费萎缩导致韩国的家电等消费品对华出口减少。中国的消费已经成为韩国出口的主要最终去向。

### 3. 技术水平拉进，竞争与合作相伴

从显性比较优势指数上可看出，中国与韩国在高技术产业群平分秋色。韩国在半导体、显示器、电池等产业具有很强的优势，中国在显示器、电脑、手机、家电等产业具有很强的优势。

表2显示中韩两国出口显性比较优势指数（RCA）。显性比较优势指数高于2.5说明该产业具有非常强的优势，在1.25~2.5区间说明该产业具有较强的优势，若该指数小于0.8说明该产业出口竞争力比较弱。在中高技术产业群中，中国在电子零部件、电器、其他运输设备等产业具有优势，韩国在石油化学、电子零部件、特殊机械、汽车等具有相对较强的优势。在中低技术产业群中，中国在塑料、玻璃、陶瓷、金属等产业优势相对较强。韩国则在造船具有很强的竞争力、钢铁和石油精炼优势也相对较强。在低技术产业区群中，中国的优势非常明显，在纤维、服装等产业具有非常强的优势，在皮革鞋履、家具等产业具有相对的优势。

表1. 中韩产业比较优势

		韩国	中国
高技术产业群		1.40	1.41
	医药	0.30	0.21
	半导体	3.55	1.28
	显示器	3.41	3.49
	电脑	0.10	2.85
	通讯机器	1.10	2.74
	家电	1.68	2.57
	精密仪器	0.86	0.68
	电池	3.35	1.96
	航空航天	0.27	0.11
中高技术产业群		1.33	0.81
	石油化学	2.05	0.75
	精密化学	1.14	0.52
	其他电子零件	1.97	1.57
	电器	0.81	1.48
	一般机械	0.99	1.17
	特殊机械	1.46	0.72
	汽车	1.42	0.33
	铁道	0.79	0.64
	其他运输装备	0.14	2.06
中低技术产业群		1.29	0.91
	石油精炼	1.46	0.33
	橡胶	0.88	0.96
	塑料	1.15	1.60
	玻璃	0.94	1.72
	陶瓷	0.24	2.72
	水泥	0.42	1.10
	其他非金属矿物	0.59	1.43
	钢铁	2.22	0.87
	非铁金属	0.62	0.26
	铸造	1.02	0.32
	组装金属	0.91	1.64
	造船	5.70	1.31
低技术产业群		0.30	1.39
	饮料食品	0.21	0.31
	烟草	0.82	0.13
	纤维	0.95	3.20
	服装	0.17	2.31
	皮革鞋履	0.16	1.95
	木材	0.02	0.73

造纸	0.44	0.69
印刷	0.34	0.69
家具	0.17	2.44
其他制造业	0.22	2.27

数据来源：ITANS

总而言之，中国在中低和低技术产业具有优势，但在中高技术产业群上跟韩国竞争较少，只有在电子零件行业呈现出竞争趋势。高技术产业群中，中国在显示器产业与韩国平分秋色，电脑、手机、家电等领域中国的显性优势比较明显。

#### 4. 重要战略物资上构建稳定的供应链

中韩两国企业在重要战略物资上构建了稳定的供应链。根据韩国贸易协会报告,2021年1~9月，韩国进口的产品种类共计12586个，其中对特定国家依赖度高于80%的产品种类占3941个（31.3%），而其中对华进口依赖度超过80%的产品高达1850个，（其次是美国503个、日本438个。），而这是中韩两国企业根据市场环境作出的最有选择。

根据笔者对韩国中韩贸易数据计算日韩对华贸易依赖度超过85%的产品个数（以HS6为编码为准），韩国对华进口依赖度高出85%的产品有602个，对华出口依赖度高出85%的产品有191个。其中，对华出口依赖度高的产品主要集中在纺织品、机器、贱金属、化工等产业；对华进口依赖度高的产品主要集中在纺织类、化工、机器等产业。可见，中韩两国在以上产业上形成了稳定坚固的供应链合作关系，是企业根据市场环境作出的经营决策导致的结果。而随着RCEP的生效，这些领域的合作将会大受鼓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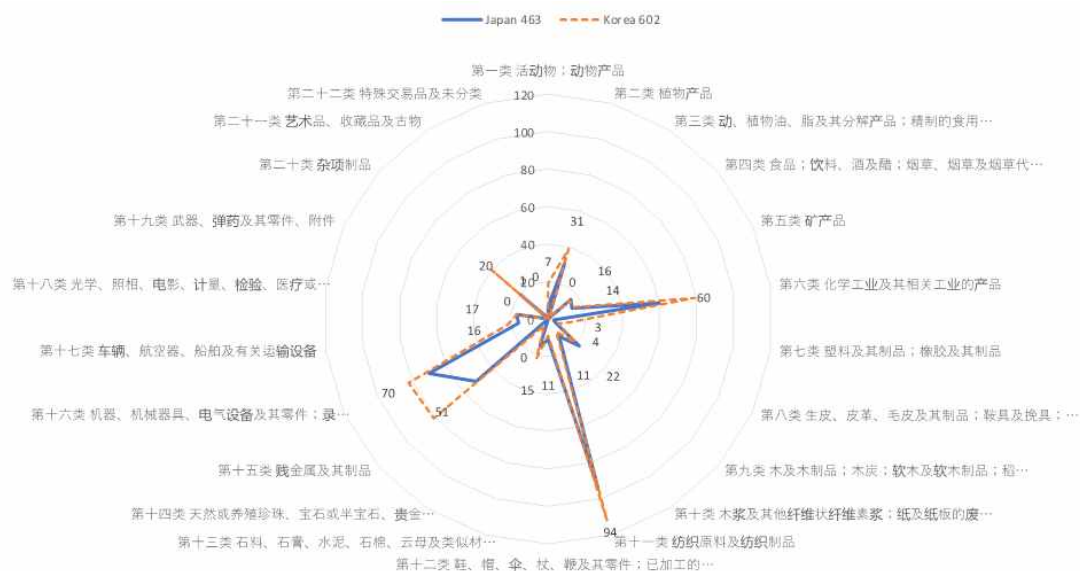


图3. 韩国对华进口高依赖度产品个数  
数据来源：韩国贸易协会，由作者整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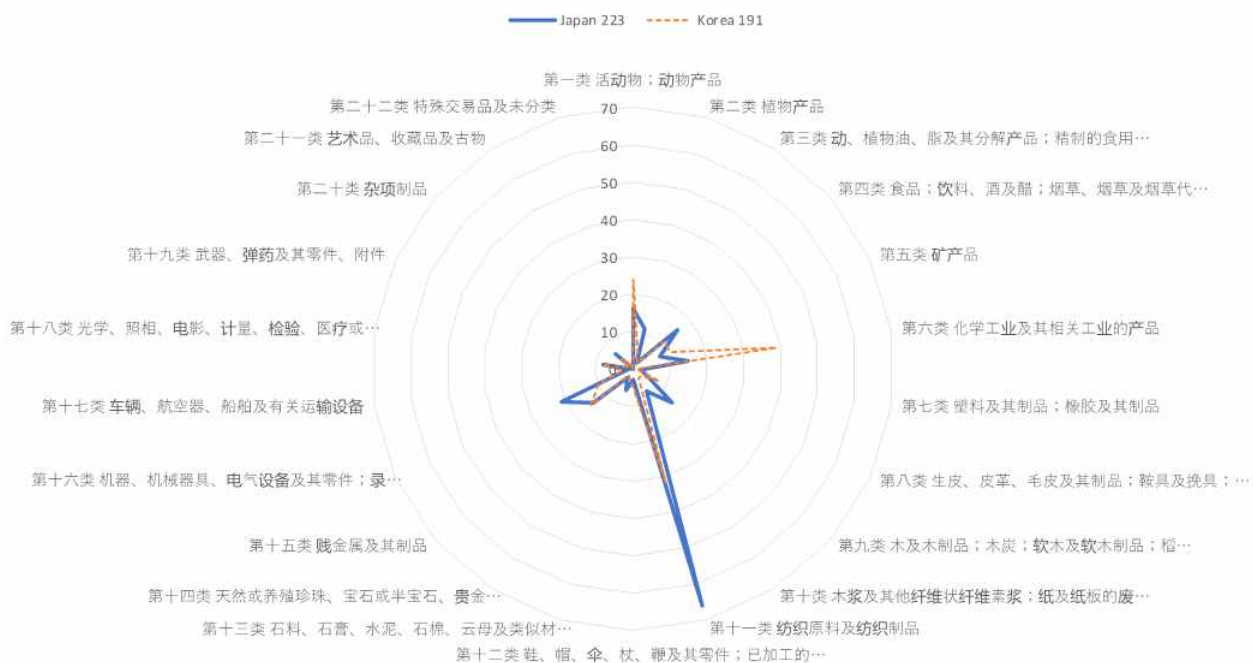


图4. 韩国对华进口高依赖度产品个数  
数据来源：韩国贸易协会，由作者整理

中国政府也为稳定供应链安全作出贡献，如，去年中国政府从10月15日对尿素等化肥的出口增设了海关监管条件，由此引发韩国国内车用尿素短缺。11月9日韩国提出要求从速进行对出口韩国尿素的检验工作的要求，我国政府也重视韩国尿素出口，一直稳定向韩国供应尿素，维护了供应链的稳定。

### 三、 中韩经贸合作展望

#### 1. 中韩贸易合作将更加密切。

随着RCEP的生效，中国产品的价格优势会更加凸显，中低端产品供应链以中国为中心重塑，企业基于市场条件调整供应链，中韩两国的供应链会进一步稳固。LCD为例，2022年韩国从中国的进口12.9亿美元，前年同期对比增加3倍。手提电脑韩国2022年上半年对华出口为400万美元，但从中国进口19.3亿美元，前年同期对比增加3倍。韩国从我国的锂电池进口也在上半年达到11.7亿美元，远远超过了2021年的5.6亿美元（全年）。中高端领域竞争会存在，但更多合作的机会。医药、精密仪器、半导体等领域中韩两国还是有很多合作空间。

#### 2. 中韩金融合作有望增加

作为东北亚地区的主要国家，中韩两国有必要合作构建亚洲地区金融安全网。经历了亚洲金融危机之后，中韩两国通过签署中韩货币互换协议、共同推进清迈倡议多边化协议（CMIM），已经在稳定东北亚国家汇率市场等方面取得了一些成效。在全球金融危机期间中韩两国签署1800亿元对38亿韩元

在共同应对美联储加息等外部冲击时，中韩可以抱团取暖。从2022年以来美联储持续加息，导致全球主要国家汇率暴涨，自2022年以来截止到2022年9月底，韩国美元兑韩元汇率从1190涨到1430（贬值20%），人民币汇率从7.0931（贬值11%）。韩国外汇储备从一月份的4360.28亿美元减少到4116.97亿美元（减少5.6%），中国大陆外汇储备从32216.32亿美元减少到30548.81亿美元（减

少5.1%)。美联储不顾其他国家继续加息的可能性逐渐增加的情况下，中韩两国需要加强合作，扩大货币互换等措施，共同应对这一外部冲击。

### 3. 我国内需会成为韩国企业下一轮增长的引力

韩国大企业持续对中国进行投资说明中国的内需对韩国也是一个机会。随着中国国民的收入水平提高，对高端消费品需求会增加。除了产品，中韩之间的服务贸易也随着疫情缓解而迅速增加。如果中韩FTA第二阶段协商继续进行并取得成果，韩国的医疗、医药等服务业有望在中国市场找到下一轮增长的动力。



# 中国互联网医疗服务特性 对消费者使用意图影响

Impact of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Medical Services on consumers' usage intentions in China

国立群山大学 国际物流学科  
马婧妍，姜泰元

## contents

- 01 Introduction
- 02 Theoretical Background
- 03 Research Model
- 04 Data Analysis
- 05 Conclusion

- Internet Medical Review
- Internet medical policy
- Internet medical market

part

01

## Internet Medical Review



## 国家层面远程医疗政策部分汇总

2014年	关于推进医疗机构远程医疗服务的意见
2014年	远程医疗信息系统建设技术指南
2016年	远程信息系统基本功能规范
2018年	关于促进“互联网+医疗健康”发展的意见
2018年	远程医疗服务管理规范（试行）
2018年	互联网诊疗管理办法（试行）
2018年	互联网医院管理办法（试行）
2019年	关于完善“互联网+”医疗服务价格和医保支付政策的指导意见
2020年	关于加强信息化支撑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工作的通知
2020年	关于在疫情防控中做好互联网诊疗咨询服务工作的通知
2020年	关于推进新冠肺炎疫情防控期间开展“互联网+”医保服务的指导意见
2020年	关于积极推进“互联网+”医疗服务医保支付工作的指导意见
2020年	关于深入推进“互联网+医疗健康”“五个一”服务行动的通知
2021年	关于互联网诊疗监管细则（征求意见稿）公开征求意见的公告
2022年	“十四五”国民健康规划
2022年	互联网诊疗监管细则（试行）

## Internet Medical Market

2020年  
中国互联网医疗市场规模达  
3426.4亿(RMB)  
2025年  
预计市场规模约4943亿(RMB)

截至2022年7月  
中国互联网医疗行业投资事件  
1129起

时间	融资方	金额 (亿)
2022.07.05	普瑞眼科	12.59 (RMB)
2022.07.04	微医	10 (RMB)
2022.06.21	深研生物	1 (RMB)
2022.03.25	简单心理	1 (RMB)
2021.06.23	领健	1 (USD)
2021.06.15	药师帮	2.7 (USD)
2021.06.11	有来医生	2 (RMB)
2021.06.08	叮当快药	2.2 (USD)
2021.03.16	阿康健康	2 (RMB)
2021.02.25	微医	4 (USD)
2021.02.09	妙手医生	30 (RMB)

资料来源：网络社电子商务研究中心、智研咨询



2019年中国医院数量及就诊人次



## Medical Resources

- 中国优质医疗资源多集中于一线城市，互联网医疗有助于公平分配。
- “看病贵，看病难”是长期话题，互联网医疗具备可达性、便利性和成本效益。
- 大量“轻”症患者涌入等级医院就诊，基层医疗机构资源闲置。互联网医疗有效减少资源浪费。

## Aging Population

老龄化增速导致中国慢性病患病率居高不下(糖尿病、冠心病、老慢支、脑血管疾病等)。远程医疗辅助患者进行慢病管理。

中国65岁以上老龄人数(亿人)及占比(%)



数据来源：联合国《世界人口展望2019》，IQVIA艾昆纬数据分析



### 中产阶级人群对互联网医疗服务需求增加

- 高压，快节奏生活方式带来亚健康人群的增加。
- 营养过剩导致三高和各种慢性病高发。
- 消费水平提升，健康保健消费增多。
- 重视疾病早期筛查干预，精准医疗和定制化服务。
- 对高品质医疗服务的需求大量增加。
- 医疗旅游与其他健康支持服务需求趋于多样化。



### Current Status of Internet Medical

- 截至2022年6月，中国在线医疗用户规模达3亿，较2021年12月增长196万，占全体网民的28.5%。
- 截至2021年6月，中国互联网医院1600余家，超7700家二级以上医院提供线上服务，县（区、市）覆盖率达到90%以上。
- 互联网医疗平台数稳定增长，资本渐趋头部项目。

人民日报海外版 [http://www.gov.cn/xinwen/2022/03/11/content\\_5678414.htm](http://www.gov.cn/xinwen/2022/03/11/content_5678414.htm)



## Internet Medical Application Model



## Internet Medical Users

用户使用互联网医疗平台的前三大原因:

- 获取健康知识, 62.2%.
- 网络购药, 52.3%.
- 在线问诊, 50.0%.



来源: 亿欧智库根据2021年1000份调研数据自行整理绘制。



### 新冠疫催化互联网医疗发展

疫情期间全国超过10家互联网医疗平台推出在线问诊专区。

200多家公立医院开展新冠肺炎免费互联网诊疗或线上咨询。

阿里健康在线义诊平台上线4天内，访问量达到160万人次。

平安好医生平台访问量，达11.1亿人次，App新注册用户增长10倍。(截至2020.02.11)

微医互联网总医院全国访问量超过1.2亿人次，累计提供了147.5万 余例咨询 (截至2022.0.29)

.....

## III Theoretical background

- Characteristics of Telemedicine services
- Customer satisfaction
- Consumer intention to use
- Doctor's online word of mouth

part

02



## Telemedicine Service



**远程医疗(TM):** 使用电子信息技术来支持和促进远程临床医疗保健, 患者和专业健康相关教育, 公共卫生与健康管理。

- **有用性:** 医疗保健专业人员使用数字技术提供服务, 包括疾病监测、筛查和诊断, 慢性病管理, 远程手术, 远程护理, 远程教育和远程会诊等。
- **效率性:** 远程医疗最常见的优势是更好的可达性、便利性和成本效益。
- **安全性:** 确保健康信息完整、准确的传送至指定对象, 保证医疗信息和患者隐私的安全。

Hossain, C. A., Mohamed, M. A., Zishan, M., Rahman, S., Ahasan, R., & Sharun, S. M. (2022). Enhancing the security of E-Health services in Bangladesh using blockchain techn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14(3), pp.1179-1185.

Kisicki, A., Becker, S., Chapin, M., Gustafson, D. H., Hartler, B. J., Jacobson, N., ... & Molitor, T. (2022). Behavioral Healthcare Organizations' Experiences Related to Use of Telehealth as a Result of the COVID-19 Pandemic: An Exploratory Study.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22(1), pp. 18.

## Doctor's online word of mouth

- 网络口碑(e-WOM)指互联网上的口碑交流。患者通过医疗服务质量, 医生服务态度, 价格等综合评估, 得出行为意向。



## Customer satisfaction

- 汇总消费者对个别特征或属性的满意度的总结陈述。

## Consumer intention to use

- 从计划行为理论出发, 个体态度、感知行为和感知规范可以作为预测行为意图的重要因素, 而行为意图又与执行行为相关。

Maddox, R. N. (1976). *Measuring consumer satisfac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pp. 179-211.

Ruswanti, E., Eff, A., & Kusumawati, M. (2020). Word of mouth, trust satisfaction and effect of repurchase intention to Batavia hospital in west Jakarta, Indonesia. *Management Science Letters*, 10(2), pp.265-270.



- Research Hypothesis
- Research Model
- Variable Measurement

part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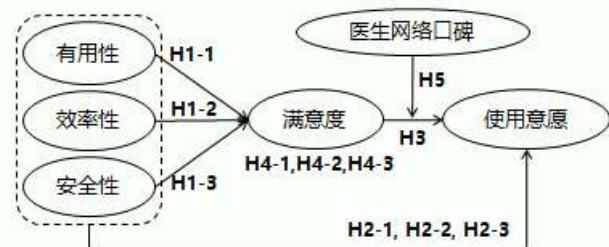


## Research Model

Basic Theoretical Model:

DeLone and McLean is Success Mode (**DMSM**)

远程医疗服务特性



DeLone, W. H., & McLean, E. R. (2002). Information systems success revisited. In *Proceedings of the 35th Annual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IEEE. 2956-2976.

## Variable Measurement

Likert Scale: 5

Respondent: Chinese consumers who have used telemedicine services

Time: 2022.6.10-2022.7.10

Valid Questionnaires: 292

变量	问项	问项出处
远程医疗服务的有用性	1、我能够通过远程医疗有效的表达自己 2、我可以通过远程医疗和医生交谈 3、远程医疗改善了我获得医疗保健的机会	Sequeira et al., (2022) Hajesmaeel et al., (2021)
远程医疗服务的效率性	1、远程医疗节省了我的就医时间 2、远程医疗提高了我的就医效率 3、远程医疗让我感到就医的便捷	卫艳利 等, (2018) Kisicki et al., (2020)
远程医疗服务的安全性	1、远程医疗系统是安全的 2、关于疾病的隐私没有被旁人看到 3、信息传输是准确的	Orrange et al., (2021) Sequeira et al., (2022)
消费者满意度	1、我对远程医疗服务感到满意 2、远程医疗就诊过程感到舒适 3、远程医疗是值得信赖的医疗服务手段 4、远程医疗的医疗服务很好	翟运开 等, (2020) Layfield et al., (2020)
消费者使用意愿	1、我会继续使用远程医疗 2、远程医疗是可接受的健康服务方式 3、我对未来远程医疗感兴趣	Hajesmaeel-Gohari & Bahaadinbeigy, (2021) 何惠倩 等, (2021)
医生网络口碑	1、影响我对产品的认知 2、影响我对产品的态度 3、帮助我作出决定	宋盼亭 & 姜泰元, (2020) Iyer & Griffin, (2021)

## Data Analysis

-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is
- Correlation Analysis
- Path Analysis
- Test of Mediating Effect
- Test of Moderator Effect

part

04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 90.2%  
18-45岁
- 84.3%  
每年使用1-2次
- 86.4%  
每次1000元以下

变量	分组	频率	比率(%)	变量	分组	频率	比率(%)
性别	男	135	46.3	疾病的种类 (多选)	心脑血管系统疾病	39	13.3
	女	157	53.7		呼吸系统疾病	53	18.1
年龄	18-25	93	31.9		消化系统疾病	80	27.3
	26-45	170	58.3		内分泌系统疾病	56	19.1
	45-65	27	9.2		皮肤疾病	72	24.6
	65以上	2	0.6		儿科疾病	33	11.3
	一线城市	86	29.4		妇科疾病	38	13.0
生活的城市	二线城市	46	15.7		其他疾病	146	50.0
	三线城市	76	26.0	经常使用的 健康平台 (多选)	各医院线上服务	139	47.6
	四线城市	42	14.3		平安好医生	50	17.1
	五线城市	42	14.3		好大夫	43	14.7
	1-2	246	84.3		微医	24	8.0
每年使用远程 医疗的频率	3-4	24	8.2		丁香医生	74	25.3
	4次及以上	22	7.5		其他	112	38.3
平均每年使用 远程医疗的 开销	1000元以下	252	86.4				
	1000-3000元	29	9.9				
	3000元以上	11	3.7				

N = 292

Variables	Codes	1	2	3	4	5	6	alpha
Usefull	US1	0.267	0.264	0.289	0.701	0.157	0.288	0.873
	US2	0.305	0.266	0.179	0.798	0.158	0.145	
	US3	0.501	0.355	0.173	0.502	0.265	0.178	
Efficiency	EF1	0.246	0.773	0.177	0.274	0.250	0.187	0.924
	EF2	0.268	0.790	0.185	0.209	0.195	0.273	
	EF3	0.273	0.759	0.253	0.226	0.183	0.245	
Security	SE1	0.784	0.223	0.153	0.263	0.191	0.193	0.890
	SE2	0.822	0.212	0.204	0.154	0.167	0.140	
	SE3	0.750	0.222	0.292	0.232	0.078	0.178	
Satisfied	SA1	0.462	0.329	0.552	0.248	0.149	0.395	0.949
	SA2	0.456	0.328	0.541	0.336	0.162	0.299	
	SA3	0.494	0.215	0.635	0.247	0.184	0.298	
	SA4	0.437	0.298	0.597	0.238	0.232	0.283	
Willing	WI1	0.305	0.330	0.271	0.325	0.246	0.625	0.909
	WI2	0.371	0.331	0.260	0.321	0.318	0.594	
	WI3	0.202	0.376	0.261	0.155	0.325	0.683	
Internet	MO1	0.181	0.224	0.059	0.118	0.832	0.271	0.859
Word of	MO2	0.171	0.301	0.504	0.228	0.605	0.202	
Mouth	MO3	0.195	0.179	0.580	0.209	0.636	0.099	
Eigen Value(Rotated)		3.703	3.092	2.586	2.332	2.190	2.144	
Explained Variance(%)		19.490	16.276	13.612	12.274	11.524	11.282	
Cumulative Variance(%)		19.490	35.766	49.377	61.651	73.175	84.457	

KMO=0.959, Bartlett=5525.135, Sig=0.000, df=171

## Reliability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PSS26.0

Cronbach's  $\alpha > 0.8$

KMO > 0.6

Bartlett: sig=0.000

Factor Loading > 0.4

Cumulative Variance(%)=84.457

CR > 0.7

AVE > 0.5

Std. > 0.7

Chi-square /DF  
(1~3)

GFI,AGFI,TLI,CFI  
> 0.9

SRMR, RMSEA  
> 0.08

AMOS24.0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Variables	Codes	Unstd.	S.E.	T-value	P	Std.	SMC	C.R.	AVE
	US1	1				0.829	0.687		
Usefull	US2	1.007	0.062	16.242	***	0.813	0.661	0.869	0.688
	US3	1.046	0.061	17.210	***	0.846	0.716		
	EF1	1				0.884	0.781		
Efficiency	EF2	1.080	0.048	22.701	***	0.909	0.826	0.924	0.802
	EF3	1.033	0.047	21.907	***	0.893	0.797		
	SE1	1				0.867	0.752		
Security	SE2	1.097	0.059	18.710	***	0.853	0.728	0.891	0.732
	SE3	1.013	0.055	18.445	***	0.846	0.716		
	SA1	1				0.927	0.859		
Satisfied	SA2	1.017	0.038	26.873	***	0.908	0.824	0.949	0.823
	SA3	1.038	0.040	26.145	***	0.900	0.810		
	SA4	0.993	0.039	25.583	***	0.894	0.799		
	WI1	1				0.885	0.783		
Willing	WI2	1.021	0.042	24.057	***	0.927	0.859	0.913	0.777
	WI3	1.025	0.054	19.134	***	0.830	0.689		

CMIN=180.125, DF=94, CMIN /DF=1.916, GFI=0.934, AGFI=0.904, TLI=0.977, CFI=0.982, RMSEA=0.056, SRMR=0.0242

## Correlation Analysis

SPSS26.0: Pearson

Variables	M	SD	1	2	3	4	5	6
Usefull	3.903	0.728	1					
Efficiency	4.063	0.709	.734**	1				
Security	3.772	0.757	.735**	.644**	1			
Satisfied	3.869	0.681	.790**	.739**	.803**	1		
Willingness	4.004	0.660	.759**	.785**	.687**	.818**	1	
Internet Word of Mouth	3.916	0.636	.642**	.655**	.563**	.728**	.748**	1

Note:\*P < 0.05, \*\*P < 0.01 and \*\*\*P < 0.000



## Path Analysis

Hypothesis	Path	Standardized Estimate	S.E.	C.R.	P	Results
H1-1	SAT<---USE	0.321	0.098	3.219	0.001	Supported
H1-2	SAT<---EFF	0.201	0.065	3.085	0.002	Supported
H1-3	SAT<---SEC	0.460	0.072	6.047	***	Supported
H2-1	WIL<---USE	0.236	0.099	2.227	0.026	Supported
H2-2	WIL<---EFF	0.320	0.064	4.69	***	Supported
H2-3	WIL<---SEC	-0.074	0.08	-0.834	0.404	Not Supported
H3	WIL<---SAT	0.490	0.092	5.014	***	Supported

CMIN=180.125,DF=94,CMIN/DF=1.916,GFI=0.934,AGFI=0.904,TLI=0.977, CFI=0.982, RMSEA=0.056, SRMR=0.0242

Path Analysis: AMOS24.0



SPSS 26.0 : Sobe Z Test

## Test of Mediating Effect

Variables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Usefull	.687***	.272***	.415***
Efficiency	.730***	.369***	.360***
Security	.598***	.073	.525***

Note:\*P < 0.05, \*\*P < 0.01 and \*\*\*P < 0.000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eta$	t	$\beta$	t	$\beta$	t
Satisfied	0.818	24.190	0.581	12.776	0.612	3.241
Internet Word of Mouth			0.325	7.136	0.352	2.100
Satisfied $\times$ Internet Word of Mouth					-0.053	-0.166
R <sup>2</sup>	0.669		0.718		0.718	
Adjust R <sup>2</sup>	0.667		0.716		0.715	
$\Delta$ R <sup>2</sup>	0.669		0.050		0.000	
$\Delta$ F	0.000		0.000		0.868	

## Test of Moderator Effect

SPSS 26.0: Regression Analysis

## Conclusion

- Research Result
- Implications Research
- Limitations

part

05

## Implications Research

- **远程诊疗服务:** 提高信息通讯技术服务质量, 提升画面、音频清晰度, 加强虚拟现实(VR), 5G技术等。为消费者提供更加优质的诊疗体验。
- **智能保健市场:** 充分利用尖端科技: 大数据、人工智能、云计算等, 为医疗服务领域开发更多平台功能板块及智能电子产品。
- **中国制度环境:** 加快医联体发展, 推进医疗信息化, 促进互联网医院开展, 实现医疗资源公平、均匀分配。监管部门需严格监督, 健全法律。
- **医疗市场环境:** 向信息化, 智慧化, 智能化方向发展。未来服务将围绕消费者需求而展开, 切身考虑消费者感受将有助于正确把握市场动向。

### Limitations

加入保健服务提供者的态度, 将对远程医疗的认可度有更加全面的理解。



# THANK.YOU

Impact of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medical services on consumers' usage intentions in China

国立群山大学 国际物流学科  
发表者: 马婧妍, 姜泰元

2022 국제지역연구원-길림대학교 공동학술회의

Low-carbon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 저탄소 경제와 한중협력 低碳经济发展与中韩合作

2022년 11월 25일 제주 济州

한국建国大学 김욱 교수 金旭教授

### 发表内容

Part.1 韩国新能源发展趋势

Part.2 中国新能源发展趋势

Part.3 中韩协作发展与韩国“新万金型”绿色新政

Part.4 韩新政府出台下，打造中韩合作的几点建议

## Part.1

# 韩国新能源发展趋势



## 1. 政策演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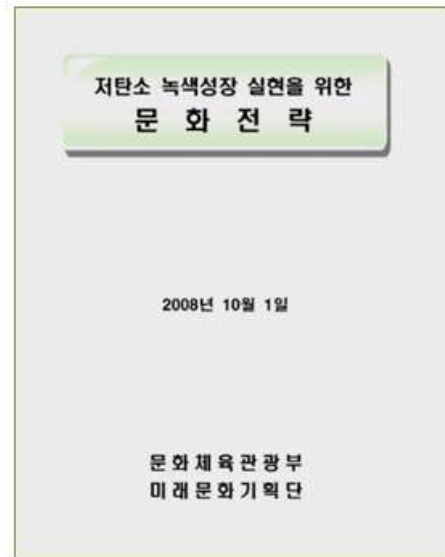
1987年12月, 《替代能源开发促进法》  
1997年, 《第一期新能源和可再生能源基本计划》  
2003年, 《第二期新能源和可再生能源基本计划》  
2008年, 《低碳绿色增长战略》  
2010年, 《低碳绿色增长基本法》  
2016年, 《第一次应对气候变化基本计划》  
2019年, 《2030年国家温室气体减排路线图》  
2020年, 《绿色新政》  
2020年, 《2050碳中和促进战略》  
2021年, 《碳中和技术创新推进战略》

韩国将“绿色增长”作为经济增长的引擎。2008年制定了《低碳绿色增长战略》，提出“以绿色技术和清洁能源创造新的增长力和就业机会的发展新模式”；此后，与韩国“绿色增长”战略相关的政策和措施相继出台，如《国家能源基本计划》《气候变化应对综合基本计划》《绿色能源产业发展战略》《绿色增长国家战略及五年计划》等。2020年7月，韩国宣布了“绿色新政”计划，从2020年到2025年，政府将投资73.4万亿韩元，以支持绿色基础设施、新能源及可再生能源、绿色交通、绿色产业和碳捕集利用和封存等绿色技术的发展，加快向绿色低碳社会的转型。2020年12月，韩国政府公布《2050碳中和促进战略》，提出加快能源转型，发展新可再生能源等绿色技术，旨在到2050年实现碳中和。为推动韩国2050年实现碳中和，韩国于2021年3月发布了《碳中和技术创新推进战略》，该战略确定了实现碳中和的十项关键技术，包括太阳能和风能、氢、生物能源、CCUS等绿色技术。

## 2. 文在寅政府的新能源政策

### (1) 能源转型

2008年，为了应对气候危机和寻求新的经济增长动力实现可持续发展，韩国政府首次正式提出并开始实施“低碳绿色增长战略”，由此奠定了韩国低碳绿色增长的国家发展远景的基础，该战略在提高清洁能源比例、绿色住宅、绿色汽车等方面都提出了初步构想。



## 2. 文在寅政府的新能源政策

### (1) 能源转型

同时，每五年将发布一次绿色增长计划，根据国家发展情况及时评估政策效果并调整发展目标。从能源消费结构来看，韩国对可再生能源发展速度要求逐年增高，2017年文在寅政府上台后，核能在第二次计划中发展速度放缓并在最新的计划中被淘汰。

	第一个五年计划 <sup>①</sup>	第二个五年计划 <sup>②</sup>	第三个五年计划 <sup>③</sup>
计划时间	2009-2013	2014-2018	2019-2023
碳排放 (与 BAU 相比)	到 2020 年减排 30%	到 2018 年减排 19.1%	到 2030 年减排 37% 与 2015 年相比减少 22.3%
可再生能 源占一次 消费比例	2030 年达到 11%	2020 年达到 5.2% 2025 年达到 7.5% 2035 年达到 11%	2040 年达到 30-35%
核能	到 2030 年新建 10 座 140 万 KW 级核电站 提高核电在一次能源比重由 2007 年的 36%—59%	到 2035 年将核电比重调至 22%—29%	到 2030 年将核电比重下降到 12%以内 2083 年前彻底取消核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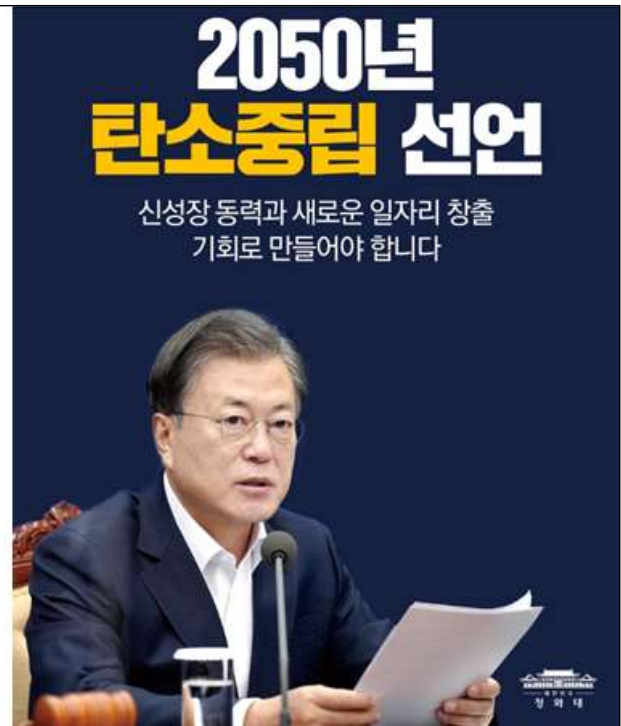


## 2. 文在寅政府的新能源政策

### (2) 能源转型目标

2020年12月，韩国宣布《2050碳中和宣言》，将其落实到相关职能部门，并提出了具体措施。对产业转型与能源转型相结合的发展路线做出规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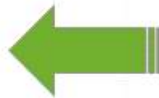
- 长期低碳发展战略 (LEDS)
- 碳中和3+1战略



## 2. 文在寅政府的新能源政策

### (2) 能源转型目标

- 长期低碳发展战略 (LEDS)
- 在2050年实现碳中和的愿景下，主要有五个发展方向：
  - 扩大清洁电能和氢气的使用
  - 通过数字技术创新提高能源效率
  - 促进未来脱碳技术的开发和商业化；
  - 通过循环经济促进可持续的工业创新；
  - 增强森林、潮滩和湿地等自然生态系统的碳吸收功能。



### · DIRECTION ·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확대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탄소 제거 등 미래기술의 상용화

순환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탄소 흡수 수단 강화

국가 전반의 녹색 전환을 위한  
정책, 사회, 기술 혁신 방향을 제시함

## 2. 文在寅政府的新能源政策

### (2) 能源转型目标

#### ● 长期低碳发展战略 (LEDS)

- 在能源部门，通过将化石燃料发电为中心的供电系统向可再生能源和绿色氢能转型，并积极利用二氧化碳捕集 (CCUS) 技术，推动实现电力部门的碳中和。
- 在工业领域，开发可替代焦炭和石脑油的新技术，例如减氢钢铁和生物塑料，以从根本上减少钢铁和石化等能源密集型产业所排放的温室气体。利用信息通信等第四产业技术，提高工厂和工业园区等能源密集型设施的能效，提高可再生原料的再利用率和产品的可持续性，转换结构实现经济循环。
- 在运输领域，扩大清洁能源（电力和氢）驱动的运输份额，并通过管理对自动驾驶汽车和使用数字技术的运输需求，建立运输领域的碳中和基础。
- 在建筑领域，促进建筑物中的可再生能源供应，以实现建筑物能源的自给自足，最大程度地提高建筑物的能源效率，通过电力和氢能源技术降低对城市燃气的依赖。
- 在农畜领域，促进建立生态友好型农渔产业体系以及主要生态轴的森林恢复。
- 建立相关制度政策，如碳交易中的排放权交易制度，税收和征费制度以及绿色金融等手段。

## 2. 文在寅政府的新能源政策

### (2) 能源转型目标

#### ● 碳中和3+1战略

- 经济结构低碳化
- 构建新兴低碳产业生态圈
- 建成公平公正的低碳社会



- 强化碳中和的制度基础

### 그럼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은?

2020년 6월부터 시행

핵심전략 : 2050 탄소중립, 3+1전략

첫번째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두번째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세번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네번째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 2. 文在寅政府的新能源政策

### (2) 能源转型目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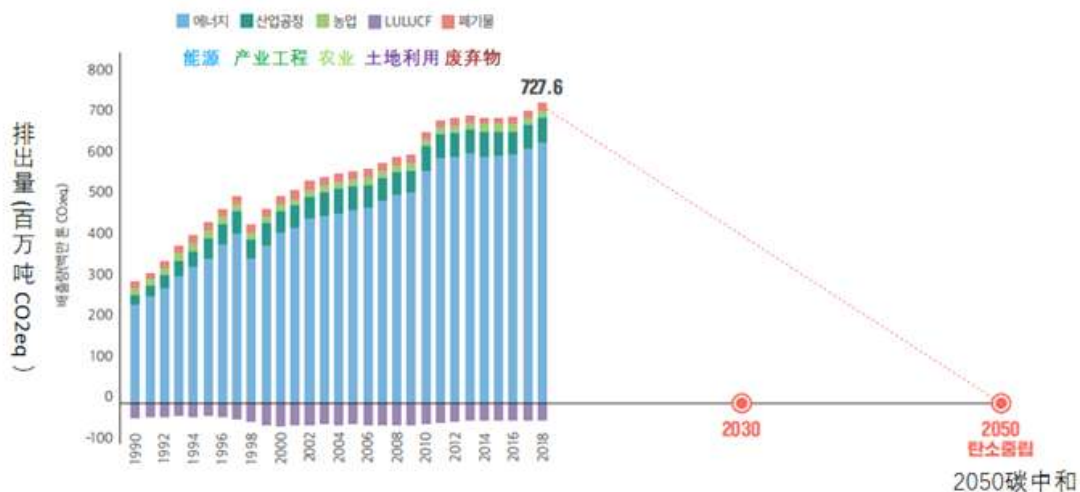
#### ● 碳中和3+1战略

- **经济结构的低碳化**，主要是推动减少化石燃料使用，提升可再生能源的应用。确保可再生能源充分输送，减少耗损。导入分散性能源供给体系，实现各地区能源的自主供给。同时，推动产业结构向低碳转变，促进电动汽车和氢能源动力汽车的推广，增加绿色植被面积，推广新建建筑低碳化，灵活提高现存建筑的环保程度，在国土规划层面推动低碳化。
- **构建新兴低碳产业生态圈**，首先，培育新兴低碳产业，例如新一代环保汽车电池、氢能源产业等，并抢占低碳半导体市场先机。其次，培育一批具备碳捕捉技术的企业，育成绿色服务产业，提高能源利用率并建成温室气体分析、管理体系。再次，设立11处试点，放宽法规，培育一批低碳领域的初创企业和独角兽企业。最后，构建可持续的生产消费体系，划定各产业对可再生能源的利用率标准，丰富产品的环保信息标识，提高对可回收垃圾的利用率。
- **建成公平公正的低碳社会**，保护弱势产业和阶层，实现以地区为中心的碳中和，提高国民对碳中和社会的认识
- **强化碳中和制度基础**，一是完善相关财政制度；二是打造“绿色金融”，对环保产业和向低碳产业转变的传统产业提供资金支持，并引导民间资本进入绿色产业，加强监管；三是加强对新兴低碳技术的扶持力度。

## 2. 文在寅政府的新能源政策

### (2) 能源转型目标

韩国2050碳中和目标实现假想路径





## 2. 文在寅政府的新能源政策

### (3) “去核电”政策

2017年当选韩国总统的文在寅上台后宣布，他领导的新一届政府将终止所有建设新核电站的计划，也不再批准延期运行现有核电站，摒弃以核能为中心的能源政策，迈向一个无核时代。彻底废止所有正在进行的核反应堆建设计划。放弃开发核能，显示韩国能源政策重大转向。

零核电，成为守护安全的总统



## 2. 文在寅政府的新能源政策

### (3) “去核电”政策

“去核电”政策将可再生能源技术与产业摆在了重要位置，倒逼政府大力提高发展可再生能源产业的力度，成为韩国调整能源结构乃至经济结构的重要契机。为此，2017年12月，韩国制定了中长期可再生能源发展计划《再生能源2030实施计划》，目标是到2030年将可再生能源发电比重提升至 20%。该计划的主要措施包括：普及分散式小型太阳能和风能发电站，进一步推广家庭用太阳能发电站；进一步完善可再生能源电力价格损失补偿制度，要求大型电力公司无条件购买小型及个人太阳能发电站的盈余电量，保证发电站 20 年的收益；要求大型电力公司与区域内的居民共享利益，以补偿发电机组占地带来的利益损失等。



### 3. 尹锡悦政府的新能源政策

#### 促进可再生能源和核能协调的碳中和

重启新韩蔚核电站3号、4号机组建设，运行中的核电站等继续运行，将核电作为基础电源的比例保持在30%范围内  
通过加强韩美原子能同盟及出口核电站创造10万个工作岗位

- 1) 构建核出口组织，促进外交与产业、技术、金融等核电出口体系
- 2) 将韩美原子能合作关系提升为原子能同盟
- 3) 到2030年为止，与美国共同承揽以东欧和中东为中心的新核电站10个以上，创造10万个工作岗位。

#### 新一代技术核电及核氢技术开发

- 1) 推进革新型小型模块核电站、微型模块核电站(MMR)等新一代技术核电站的开发
- 2) 为尽快验证固有小型模块核电站并完成商用化，提供财政支援
- 3) 将无碳核电作为清洁制氢的关键手段，支持核氢技术发展

#### 推进与国民一起进行的核能政策

- 1) 设定国民能够切身感受到核电站安全性的安全目标，确保有效的安全机制
- 2) 以科学技术和信息为基础，充分听取国民意见，推进能源及核能政策
- 3) 综合考虑人口、产业、能源、国土环境等特点，制定碳中和计划

#### 核电站的逆向理念 通过振兴地球村的核护理产业，确保全球安全和高附加值工作，促进经济发展

- 1) 为了让韩国年轻人了解世界上最好的核电技术，每所大学都设立全球核电护理课程，进行强化培训。
- 2) 通过成立政府支持的核护理国有企业培养专业人才，组建核护理专组，向全球派遣核护理组

#### 2022年4月电价上调将全面取消

尹锡烈取消4月电价上调计划，在新冠病毒期间努力不上调电价。

#### 根据科学和常识制定供电计划

- 1) 调查破坏电力供应体系的脱核电和太阳能腐败等问题
- 2) 建立基于公平和常识的供电计划，而不是意识形态和阵营理论

### 3. 尹锡悦政府的新能源政策

随着提出建设核电站最强国家的公约的尹锡烈当选为第20届总统，文在寅政府的脱核电政策全面废除。尹锡悦政府2022年5月初发表的国政方向，仍继承“2030年减排40%”目标不变。目前核电约占韩国国内总发电量的27%。尹锡悦还承诺通过开展反应堆重启、新建和延寿等工作，将核电的能源占比提高到30%，并在2030年前出口10座核电厂。

#### 윤석열 당선인 원자력발전 주요공약 및 수혜주

공약	수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탈원전 정책 폐기</li> <li>원자력 발전 비중 30~35%로 확대</li> <li>원전 수명연장 통한 탄소중립</li> <li>신한울 3,4 호기 건설 재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두산중공업</li> <li>일진파워</li> <li>우리기술</li> <li>보성파워텍</li> <li>한국전력</li> <li>한전KPS</li> <li>한전기술 등</li> </ul>





#### 4. 韩国政府恢复核电发展可能性

- 韩国开发研究院2021年的报告指出，若要实现2030年温室气体减排40%、2050年碳中和的目标，预计GDP到2030年将每年下滑0.7个百分点、到2050年每年下滑0.5个百分点。也就是说，碳中和是韩国与国际社会的约定，必须继续推进。但为了避免加重国民负担、造成经济损失，有必要对政策进行合理调整，废除脱核电政策是其中的一个选项。韩国总统职务交接委表示，文在寅政府破坏了“技术中立”原则，实施以脱核电为前提的政策，新政府将打破脱核电这一禁区，将所有有助于碳中和的技术放到桌面上，实施负责任的政策，这意味着核电占比将被扩大。
- 韩国国内针对2021年能源短缺目前形成的共识是要坚持摒弃传统的粗放式高碳发展模式，但要逐步减少煤炭产量，在加强碳减排设施投资的同时，应考虑到韩国的可再生能源潜力不足以大幅度支撑韩国的电力需求的现实。另外，韩国国会预算政策处的一份报告显示，根据政府“去煤炭火力发电站”以及“去核电站”政策，截至2031年将有29个发电设备被关闭，那么至少需要装机容量为1.12万兆瓦的新型发电设备。因此，对于“去核电”这一禁令在今后一段时期很有可能被松绑。
- 2011年，日本核事故后，世界经历了一段去核电化热潮，但通过几年的实践，一些国家开始重新审视核电的意义。法国总统马克龙上台后，将法国“到2025年核电比重由75% 减少到 50%”的目标延长至2030年；德国总理默克尔认为，德国的“去核电”政策是一项政治判断，是极左势力意志的体现，是一个大的失误；日本也有政府人士表示，日本的“去核电”是错误的决定，应重新考虑。韩国是继上述国家后，又一个尝试“去核电”的国家，短期内不会为其产业发展带来大的障碍，但无疑会削弱韩国核电产业地位和国际竞争力。

## Part.2

# 中国新能源发展趋势



## 1. 政策演变

1995 年,《1996-2010 新能源和可再生能源发展纲要》  
2000 年,《2000—2015 年新能源和可再生能源产业发展规划要点》  
2007 年,《可再生能源中长期发展规划》  
2011年,《“十二五”节能减排综合性工作方案》  
2014年,《能源发展战略行动计划(2014—2020)》  
2016年,《能源技术革命创新行动计划(2016—2030)》  
2019年,《关于构建市场导向的绿色技术创新体系的指导意见》  
2021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 2035 年远景目标纲要》  
2021年10月,国务院印发《2030年前碳达峰行动方案》  
2022年1至2月,中央国家部委先后发布了《“十四五”节能减排综合工作方案》《关于印发促进工业经济平稳增长的若干政策的通知》和《促进绿色消费实施方案》等文件

中国的绿色技术主要集中在节能环保、清洁生产、清洁能源、生态环境、基础设施绿色升级和绿色服务等六大领域。党的十九大报告指出“构建市场 导向的绿色技术创新体系,发展绿色金融,壮大节能环保产业、清洁生产产业、清洁能源产业”。中央“十四五”规划中提出要推动能源清洁低碳安全高效利用,深入推进工业、建筑、交通等领域低碳转型,建议在2035年目标中提出“广泛形成绿色生产生活方式,碳排放达峰后稳中有降”,在战略任务中提出“降低碳排放强度,支持有条件的地方率先达到碳排放峰值,制定二〇三〇年前碳排放达峰行动方案”。

## 2. 能源转型

### (1) “双碳”目标



在2020年第七十五届联合国大会上,国家主席习近平提出“中国将提高国家自主贡献力度,采取更加有力的政策和措施,二氧化碳排放力争于2030年前达到峰值,努力争取2060年前实现碳中和”。这一自主贡献目标,将碳达峰目标融入中国经济社会和生态环境协同高质量发展过程中,对实现中国现代化建设新征程具有深远意义。中国是发展中国家,煤炭和石油消费占一次能源消费比例高于全球平均水平,碳排放主要源于总量居高难下的能源消费。其中,煤炭、石油消费是碳排放最主要来源,这种能源消费结构决定了中国“双碳”目标的实现从根本上还是要靠能源低碳化转型。2020年,中国煤炭和石油能源消费占一次能源消费总量的比重为 75.7%,超出全球平均水平 17.3%。中国全部二氧化碳排放量约有88%来自能源燃烧。中国若要实现碳达峰目标主要依靠减排,首当其冲应通过能源转型实现减排。

## 2. 能源转型

### (2) 能源转型目标实施

核电是目前唯一可大规模替代煤电的基荷并具备一定负荷跟踪能力的电源，是保障国家能源安全、构建以新能源为主体的新型电力系统的有效选择，有利于提高电网运行的稳定性和安全性。

六个方面的政策助力：一是更大力度推动风电规模化发展。二是更大力度推进风电技术进步和产业升级。三是更大力度健全完善风电产业政策。四是更大力度促进风电消纳。五是更大力度推动规划政策协同。六是更大力度推动体制机制创新。

改变过去主要依靠基地式大发展的路径，重点转向户用分布式发展，形成大规模集中利用与分布式生产、就地消纳有机结合。分布式能源具有利用效率高、环境负面影响小、提高能源供应可靠性和经济效益好等特点。



通过风光水火储多能有效结合、发挥各类电源优势，取长补短、紧密互动，不但能够为新能源提供调峰调压电源，提升新能源发电消纳能力，增加新能源应用比重，缓解“弃风、弃光、弃水”等问题，亦有利于降低火电等传统能源高污染、高耗能的程度，为优化能源结构、降低环境污染提供助力。

“十四五”时期，中国将不断完善光伏行业配套支持政策，继续完善可再生能源消纳权重考核制度和绿证交易制度，推动平价时代光伏定价政策出台，做好与电力市场的衔接。

## Part.3

## 中韩协作发展与“新万金型”绿色新政





## 1.韩中协力发展可能性

2021年4月23日全球领导人气候峰会：40国领导人承诺减排，中韩领导人也共同出席参加；

- ❖ 中国国家主席习近平承诺，中国力争2030年前实现碳达峰、2060年前实现碳中和。
- ❖ 韩国总统文在寅宣布，实现2050碳中和加强气候行动，韩国面向海外新建火力发电站提供的金融援助将就此中断。



## 1.韩中协力发展可能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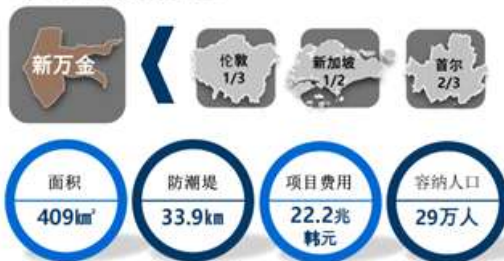
## 2.韩中新万金合作



## 2.韩中新万金合作



与世界主要城市面积对比





## 2.韩中新万金合作

2022年7月“新万金国家产业园区(5、6工区)”指定为韩国国内首个“智能绿色国家示范产业园区



- “智能绿色产业园区”是将新产业园区建设为未来产业园区的项目，最大限度减少使用能源、扩大再生能源供应、构建企业生产支援基础设施、建设舒适的定居条件等。
- 新万金智能绿色产业园区计划到2040年在25%减少温室气的同时，将产业园区建设成为能源自立产业园区、RE100(100%的再生能源作为产业园区的使用能源供应和消费)产业园区。
- 计划适用于产业园区的新产业及新技术是通过收集、运用、监控能源数据来提高能源自立率的能源综合平台和旨在完善新再生能源间歇性特性和变动性而以储能装置(ESS)为基础独立运营电力和能源的微电网(独立电网)。
- 另外，为了实现煤炭火力发电站的无碳燃料转换，计划利用燃烧后也不排放二氧化碳的氨混合燃烧，促进温室气体减排和环保热能供应。
- 为了通过实时收集和监控产业园区内各种信息而及时感知危险状况并快速对应，计划构建以数字孪生为基础的智能制造安全系统、无人机管制等。

## 2.韩中新万金合作

### 中国东营光伏新万金投资合作



2015年，东营光伏太阳能有限公司投资3000多亿韩元，在新万金打造太阳能集成制造设施，创下迄今为止中国企业在韩投资的最高纪录。该项投资为当地创造300多个就业岗位。

对于东营光伏太阳能有限公司来说，中国太阳能企业正在出口美国、欧洲等地时遭遇报复关税(retaliatory duty)等障碍，但在新万金地区，这一问题可得到妥善解决，因此决定在此进行投资。

## 2.韩中新万金合作

### 中韩合资高科技原材料生产企业投资合作

2021年, SC及JPoly两家公司各投资125亿韩元和340亿韩元, 用于在新万金国家工业园购地并建厂。此次投资可以促进外国直接投资(FDI)和地区企业之间的相互合作; 通过创造就业岗位, 激活地区经济; 通过不断扩大的进出口物流, 促进群山港和新万金新港的利用率; 为新万金增添新的活力, 成为新万金韩中产业园吸引中国企业的引擎



## 2.韩中新万金合作

### 2022年 厦门钨业与新万金合作

#### 新万金引入中国战略材料生产企业

- 引入中国最高信用等级的高新技术国企, 30日签订投资协议
- 投资金额共计1,100万美元, 于明年上半年着手建设氧化钨生产工厂

12月30日, 新万金开发与厦门钨业签署投资协议, 决定兴建工厂生产制造硬质合金所需的原材料—氧化钨\*

\*韩国矿物资源公社所储备的10种矿物资源(钨, 稀土, 铌, 钽, 铈, 钨, 钼, 锆, 铪, 镨, 钕)之一

厦门钨业\*是一家在上海证券交易所上市的高新技术国有企业, 拥有中国最高信用等级(AAA)。去年6月通过新万金入驻审查, 将成为首个在新万金进行独立投资的中国企业。

\*厦门钨业: 销售额 27.87亿美元(20年), 资本金 2.0663亿美元  
总资产 36.6925亿美元, 员工 14, 131名

据悉, 厦门钨业本次在韩投资不仅是为满足韩国客户的市场需求, 也是为巩固海外市场占有率所做出的前瞻性抉择。

特别是选择新万金进行投资, 是因为扶持政策及补贴有利于扩张业务, 并且也是考虑到快速搭建的核心基础设施, 中韩产业园的发展前景等因素, 做出的决定。

新万金开发厅期待本次投资能够有效拉动外国直接投资(FDI)、提高地区经济活力, 增加进出口物流量, 促进群山港及新万金新港的利用, 为新万金地区增添新活力。

同时, 在新万金产业园内直接生产此前对中国进口依赖度较高的氧化钨, 不仅有利于保障战略资源, 还能在提高原材料、配件、设备产业的国家竞争力方面作出巨大贡献。

### 3.韩中新万金合作

#### 新万金韩中产业园区吸引韩中合资企业投资

有望吸引中国企业, 为构建二次电池原材料供应链做出贡献



9月29日, 新万金开发与韩中合资成立的(株)SE Materials签订了二次电池原材料氢氧化锂等锂化合物生产工厂建设投资协议。

氢氧化锂/碳酸锂: 电池正极材料、电解质、负极材料等核心原材料

(株)SE Materials于今年9月20日通过了新万金韩中产业园区入驻审查, 计划投资450亿韩元(2亿2330万人民币), 年内开工建设电池材料用锂化合物生产工厂, 并于明年9月竣工。

投资领域	投资金额	投资面积	投资地点	聘用规模	施工期间
二次电池用 锂化合物	450亿韩元 (2亿2330万 人民币)	22,195㎡(租赁)	产业园区第二工区	85名	'22.10. ~ '23.9.

### 3. 韩国“新万金型”绿色新政

#### 智能绿色产业园

##### 智能绿色产业园

- 再生能源发电园区和产业园相连接、打造引领绿色新政及全球趋势的企业环境
- 以新万金生产的再生能源为主要能源的绿色产业园, 积极支援环保企业

##### 智能Grid

- 在新万金产业园区内构建智能型电网, ESS 及综合管制中心, 打造引领RE100的产业园区
- 利用再生能源发电优势, 转变成为引领RE100企业及四次产业革命的新产业园

##### 环保氢能源Cluster

- 利用3GW再生能源制造环保氢能源, 并把其作为氢经济增长的
- 将新万金作为绿色氢能核心发展中心, 建设以再生能源及绿色氢能为主要能源的绿色产业集群, 建立全球绿色氢能供应链





## 2. 韩国“新万金型”绿色新政

### 绿色交通

- ✓ 打造研究·生产·实践良性循环的交通集群
  - 构建新万金防潮堤等实际道路上无人驾驶车辆的基础设施
  - 建立无人驾驶管制及研发的支援中心
  - 构建新万金交通支援枢纽，行驶试验台(Test Bed)等相关设施(~ 2022年)
- ✓ 打造新万金四次产业革命基地
  - 打造国内最大规模的生产电动车，无人机，地效翼船，无人潜水艇的交通复合型产业基地
- ✓ 正在构建强小研究开发特区等无管制特区
  - 被指定为绿色汽车无管制特区(2019. 11)
  - 被指定为强小研究开发特区等(2020. 7)

#### 群山型电动车产业工作岗位模式

- 打造电动车Cluster, 计划到2022年生产17万7,000辆, 投资4,122亿韩元, 创造1,902个就业岗位
- 参与企业: MYOUNGSHIN, 新万金财团, EDISON MOTORS, DAECHEUNG MOTORS, MPS KOREA等4家中坚企业及5家配件企业



## 3. 韩国“新万金型”绿色新政

### 新万金的竞争力

- 中央行政机构-新万金开发厅直接管辖的经济特区，确保其稳定性和可靠性
- 韩国‘绿色新政’中心地
- 新万金特别法提供针对性的行政支援
  - 税收减免，一站式审批服务

### 政府支援

- 反应国政课题: 加速推进新万金项目
  - ① 为公共主导填筑，成立新万金开发公社
  - ② 提前建成国际机场·新港等物流交通网
- 打造全球最先进的再生能源Cluster
  - 世界最大规模的3GW再生能源发电项目



【新万金东西道路开通】



【新万金再生能源愿景发布仪式】



【新万金陆地光伏发电项目开工仪式】

### 3. 韩国“新万金型”绿色新政



#### 针对性行政支援



##### 与56个国家签署FTA及综合保税区

- 新万金产业园1,2工区被指定为综合保税区
- 关税减免和进口关税暂缓, 进口物品的保管期无限

##### 中央政府的针对性行政支援

- 根据绿色汽车无管制特区, 强小研究开发特区, 能源产业融合复合特区指定提供各种奖励

##### 产业基础雄厚

- 周边有群长国家产业园与12个产业园(区内有16,000家生产企业)
- 丰厚的高级人力资源及产学研合作(10所大学, 10家专业高效, 11所研究开发机构)



#### 投资奖励



##### 低廉的出售及租赁价格

- 出售: 151,249韩元(USD126/m<sup>2</sup>)
- 租赁: 土地资产价的1%(USD1/m<sup>2</sup>/年), 最长可租100年

##### 税收支援

- 法人税(企业所得税): 创业或新建企业5年减100% + 2年减50%
- 关税: 5年减100%
- 地方税(购置税, 财产税等): 15年减100%

##### 政府补贴

- 新增驱动力产业, 高附加值产业: FDI(直接投资)的40%以内
- 地方投资补贴: 超过10(20)亿韩元的投资金额的10(5)% 以内(最高130亿韩元)
- 大规模投资补贴: 超过10(20)亿韩元的投资金额的10(5)%以内(最高400亿韩元)
- 雇佣和教育培训补贴: 雇佣(150万韩元/月) + 教育培训补贴(100万韩元/月)

## Part.4. 韩新政府出台下, 打造中韩合作的几点建议

第一、韩国新政府除了恢复启动“核能”以外, 其他新能源政策基本上仍然继承了文在寅政府时期的大政方针, 中韩两国合作方向仍能够保持一惯性, 潜力很大。

第二、关注韩国新万金等“绿色新政”背景下等新能源、新产业等领域的发展模式和变化。目前, 很多韩国“回流”国内企业、跨国企业陆续在入驻当中。

第三、探讨对接中韩(长春)国际合作示范区等中方中韩产业园与新万金的合作。目前, 中资企业来韩国投资尚还在起步阶段。而广东省更尚处于初级摸索阶段。在RCEP背景下, 可在新能源、新材料、电动汽车、旅游、文化等诸多领域可探讨合作。

第四、中韩两国政府继续合作担当“碳中和”重要国际话语权, 应目光可放在2050~2060年更长远, 为解决好人类命运共同体的环保棘手问题做出应尽努力贡献。



**Thank you**

2022

# 大学生感知创业支持环境对创业意愿的影响研究

Xue Xiao-Juan · HyunChul Cho · Hyun Chul Kim  
Huanghuai University · Kunsan National University

**摘 要:** 中国是典型的关系导向型社会, 作为一种隐性的制度规则对社会活动的影响不容忽视。

因此, 构建一个具有亚洲文化背景的创业支持环境模型是后续研究的基础。本研究试图建立创业支持环境模型 (PESC) 并开发一个测量工具, 然后检验其对创业意愿的作用机制, 这对于拓展创业意愿的研究有着明显的理论和实证意义。本文采用问卷调查的方式获取了来自全国6个行政地区不同大学2407名学生的数据。采用SPSS 26.0对数据进行描述性分析和探索性分析, 采用Amos 23.0进行验证性因子分析。感知创业支持环境 (PESC) 的问卷由五个纬度 (整体感知、社会文化支持、金融支持、教育支持和基础设施支持) 和四个层面 (政府、当地社区、大学和关系网络) 组成。创业意向的问卷包括3个纬度: 创业动机、创业决心和行为倾向。验证性因子分析结果表明, 所有路径系数均达到0.01的显着性水平, 因子载荷系数均在0.70以上。同时, PESC变量对创业意向的多元回归分析表明, 教育支持、整体感知、社会文化支持、金融支持和基础设施支持是创业意愿的重要预测因子, 且对创业意愿的解释量为34%, 非标准回归系数B分别为 0.28、0.23、0.14、0.11、0.06。

**关键词:** 创业意愿; 关系文化; 感知创业支持环境

## 1. 引言

“创业意愿”最早由Bird (1988) 提出, 他认为, 创业意愿是一种引导创业者追求某一特定目标进而投入大量时间、精力和行动的一种心理状态, 所有外界因素必须通过形成意愿来影响创业行为。由于个体创业行为时间的不确定性使得创业研究变得困难, 创业意愿一直被认为是创业行为的最佳预测指标 (Krueger & Brazeal, 1994; Katz, 1992; Lüthje & Franke, 2003)。

本质上, 创业作为一种职业选择, 肯定会受到内在因素 (例如人格特质) 和环境因素 (例如社会规范) 的双重影响 (Jokisaari & Nurmi, 2005; Huuskonen, 1989)。这两组因素共同决定了个人进行创造性冒险行为的意愿。然而, 内在因素与个体的稳定性有关, 在解释创业研究中更复杂的问题时存在无法克服的问题。因此, 对社会政治和经济环境的研究对企业家精神的成长具有重要的社会和经济意义 (Gnyawali D. R. & Fogel D. S., 1994; Austin J. et al., 2006; 蔡莉等, 2005)。

国外学者在创业环境方面已积累了丰富的研究成果, 其中, 最具影响力的创业环境模型有两个: 一是五维度模型。由Devi R.Gnyawail和Daniel S.Fogel于1994年提出。该模型认为创业环境由创业和管理技能、社会经济条件、政府政策和工作程序、资金支持以及对创业的非资金支持五个维度组成。并且这几个纬度并非相互独立, 而是作为一个整体相互影响。二是GEM模型。该模型侧重于新兴创业公司。它从九个方面界定了影响新兴创业公司生存和发展的环境因素, 并揭示了创业活动对国家经济增长的机制。这两种模型被国内许多学者引用。

虽然学术界普遍认同若干环境要素对创业发展的重要性, 但仍有一些问题需要注意。第一, 现有模型对创业环境的概括不够全面, 无法完整、真实的反映影响创业者的各类环境要素。第二, 现有的理论模型更多的是基于西方研究基础上的研究成果, 跨文化研究表明, 一些中国文化因素可能会阻碍创业行为, 但没有明确指出任何此类因素。基于此, 本研究旨在构建一个本土化的创业环境模型, 进而系统研究环境要素对大学生创业意愿的影响机制。

## 2. 理论基础

虽然有许多方法可以描述企业家必须面对的创业环境，但学者们普遍认为，主流研究方法依然是研究创业环境的维度结构 (Lenz & Engledow, 1986; Smircich & Stubbart, 1985)，并相信创业环境是一个多维概念 (Lawrence & Lorsch, 1967; Child, 1972; Duncan, 1972)。鉴于此，本研究也采用这种思路。我们在构建创业环境模型时主要考虑两个方面。其一，我们试图将现有文献中验证过的主要外部因素包括在内。其二，也是最重要的，我们试图开发一个简约的模型框架，能够充分体现中国创业环境的丰富性和异质性，以便进行系统研究。

回顾有关创业环境的文献，学者们大多提到以下几个纬度，即：(1) 政府政策支持。它主要是通过提供与开办新企业相关的政策来鼓励创业活动，特别是在使企业家没有过度负担方面。在中国这样的人情社会，遵循现行的关系战略将获得外部利益相关者的更大支持，并降低进入新市场的风险 (Uzo & Mair, 2014)。(2) 教育支持。创业意愿的“前因”研究最多的便是创业教育 (e.g., Bae et al., 2014; Martin et al., 2013; Piperopoulos & Dimov, 2015)。创业教育旨在提高大学生将创业作为职业选择的意愿，也为学生提供创业所需的技能 (Fretschner & Lampe, 2019; Ireland et al., 2003; Souitaris et al., 2007)。事实证明，成功的企业家可以通过接受教育和短期培训获得提升 (McClelland & Winter, 1969)。(3) 金融支持。创业者需要金融支持至少出于以下三个目的之一：分散初始风险、积累启动资金以及为增长和扩张提供资金。当社会融资环境越好、融资渠道多元化时，创业者创业的信心就会越大，进而实施创业行为 (郑宝华, 陆玉梅, 2016)。(4) 社会文化支持。如果一个地区的地域文化对创业者持肯定态度，公众也能够接受创业带来的收入差距，这将有助于创业者感知创业机会，产生创业动力，最终转化为创业行为 (张玉利等, 2004)。

毋庸置疑，以上提到的创业环境各维度都会促进大学生创业行为的实施。目前我国正处于从投资拉动向创新驱动转变的关键时期，传统驱动力日益式微，新型环境因素值得被重视。比如，基础设施支持能在很大程度上带来创新性就业，催生出国民经济系统的结构性变化。因为企业家特别需要市场研究、商业计划、商业贷款等方面的帮助。一些间接研究表明，基础设施可以影响个人创业。例如，叶文平等(2018)发现，交通基础设施投资每增加1%，将带来平均0.1%的就业增加。其中创业比例也存在同比例增长趋势。一些学者还对基础设施如何影响创业行为进行了研究。首先，良好的基础设施可能会改变个体认知和风险偏好等，从而影响个人的创业意愿和创业动力 (Astebro et al., 2014; Lindquist et al., 2015)。其次，优质的基础设施将提高信息流通效率，促使创业项目更快落地，同时创业市场更大、创业机会也会增加(刘冲等, 2020)。最后，良好的基础设施将节省企业运营成本，改善创业环境，最终提高创业成功概率 (Wang, 2012)。因此，本研究引进基础设施支持作为核心要素，并探索其对大学生创业意愿的影响机制。

此外，少有研究考虑到中国的关系文化在商业实践和创新活动中的影响机制。中国形成了独特的关系文化和根深蒂固的“关系社会”(费孝通, 2002)，这得益于儒家思想的长期影响。这种以人际关系为基础的社会交往深深植根于经济活动中。甚至，Peng和Luo (2000)认为，即使在制度环境和要素市场发展不完善的情况下，转型期中国经济仍能保持持续高速增长，一个重要的原因就是企业家的个人关系网络形成了资源获取和交换的渠道。关系文化在西方可能并不典型，这也成为中国区别于一般发达国家的重要制度情境。基于此，本研究试图建立一个中国本土化的创业环境模型，将关系文化嵌入到模型量表中。

综上所述，本研究结合国内外相关理论和研究成果，嵌入中国特有文化视角，试图构建大学生

创业支持环境模型。我们将创业支持环境分为五个纬度：整体感知、社会文化支持、金融支持、教育支持和基础设施支持。创业意愿是个体对现实创业环境支持力度感知的结果。我们将其命名为感知创业支持环境（PESC），用于测量大学生对创业支持环境的满意度。

### 3. 研究方法

毫无疑问，大学生创业是在大学、政府、社区和关系网络的共同影响下，结合自己的能力、知识结构和创业技能进行的。其中，所在大学提供基础设施和理论支持，也可以为创业实践提供专业指导和真正的创业机会；地方政府将通过提供与创业过程相关的政策来鼓励创业活动，特别是在让创业者免于过度负担方面。已有研究表明，政府层面的战略可以为企业带来市场准入、融资便利、税收优惠、财政补贴等一系列资源（Chizema et al., 2015; 余明桂等, 2010）；社区和关系网络可以为大学生创业营造良好的氛围和提供资源。尤其是像中国这样的亚洲国家，形成了独特的关系文化和根深蒂固的“关系社会”，这在当前的中国商业实践中很常见，也很关键。本研究主要通过受试者的主观认知来衡量创业环境中的多种纬度，每个纬度用四组基本的自我感知来测量：（a）与当地政府提供的相关服务的感知，以及（b）与当地社区提供的相关服务的感知，（c）与所在大学提供的相关服务的感知，以及（d）与关系网络提供的相关服务的感知。这四组自我感知共同反映了个人对创业支持环境的满意度以及他们致力于参与创业活动的可能性。各个变量的测量均采用李克特5点量表（1表示非常不同意，5表示非常同意）。

在问卷正式定稿与调查之前，首先在中国六个行政地区的6所大学中进行了预调查。为确保问卷的质量，预调查以课堂活动的形式进行。每个地区平均发放150份问卷。共有749名大学生完成了调查，回答率为80.1%。筛选出回复不规范的问卷后，剩余有效问卷600份。基于研究需要，以六个行政地区的多所大学作为样本选择范围，开展正式调研。为确保回收率和样本质量，只有填写完整的电子问卷才能成功提交。总计发放3000多份问卷，有效问卷2407份。

### 4. 研究结果

#### 4.1描述性分析

2022年1月11日-2022年3月15日面向六个行政地区的多所高校进行了正式问卷调查。每个地区发放大约500份问卷，剔除无效问卷后，共回收有效问卷2407份。通过SPSS26.0对被调查者的性别、年龄、专业、家人有无创业、创业地意愿及所在地区进行了描述性分析，结果见表1。

根据样本的描述性分析表可以看出：从性别来看，女性受访者（58.9%，n=1417）多于男性参与者（41.1%，n=990）；从年龄来看，20岁以下占比最大，68.6%（n=1651），其次是21-25岁（n=695，28.9%），26-30岁排名第三（n=43，1.8%），年龄在30岁以上占到了0.7%（n=18）。从按专业来看，理工科49.6%（n=1195），经管类10.8%（n=260），人文社科类13.1%（n=314），医药类9.7%（n=233），其它16.8%（n=405）。从“父母或亲戚是否创业”来看，只有12.6%（n=303）的参与者表示“是”，87.4%（n=2104）的参与者表示“否”。从“你更愿意去哪里创业”来看，“我的家乡”占比最大（n=1005，41.8%），其次是“东部沿海等经济发达地区”（n=787），32.7%，“大学所在城市”排名第三（n=319，13.2%），8.6%（n=207）选择“其他”，只有3.7%（n=89）选择“西部地区”。本研究尽量平衡各地区之间的问卷数量，最终每个地区平均有400份有效问卷。

表 1: 正式样本数据的描述性分析 (N=2407)

变量	分组	频率(N)	百分比(%)
性别	男	990	41.1
	女	1417	58.9
年龄	<20	1651	68.6
	21-25	695	28.9
	26-30	43	1.8
	>31	18	0.7
专业	理工类	1195	49.6
	经管类	260	10.8
	人文社科类	314	13.1
	医药类	233	9.7
	其他	405	16.8
父母亲戚是否创办企业	是	303	12.6
	否	2104	87.4
如果创业, 您会首选哪里	自己家乡	1005	41.8
	东部沿海等经济发达地区	787	32.7
	西部地区	89	3.7
	就读大学所在的城市	319	13.2
	其他	207	8.6
就读大学所在的城市属于	华北地区	431	17.9
	东北地区	368	15.3
	华东地区	404	16.8
	中南地区	392	16.3
	西南地区	422	17.5
	西北地区	390	16.2



#### 4.2 信度和效度检验

使用SPSS26.0软件对问卷量表进行信度分析，总体量表的Cronbach's  $\alpha$ 系数值达0.936，PESC子因子对应量表的Cronbach's  $\alpha$ 系数值均大于0.8，说明本研究使用的问卷信度良好。此外，整体量表的KMO值为0.954，并且其Sig.值通过了显著性检验，说明量表的各题项之间具有一定的相关程度，可用来测量同一个变量，并可通过主成分分析进行降维处理。本研究采用旋转主成分分析法得到的结果如表2所示。所有项目如预期落入对应的5个子维度中，每个子维度的因子负荷均大于0.5。此外，提取的五个因子的累积方差贡献率为66.970%，表明五个因子具有解释力和代表性。

表 2: 探索性因子分析

变量	编码	因子载荷矩阵					Cronbach's $\alpha$
		主成分					
		1	2	3	4	5	
整体感知 (GS)	XA1	0.017	0.053	0.027	0.892	0.035	0.922
	XA2	0.06	0.084	0.047	0.857	0.078	
	XA3	0.036	0.005	0.034	0.922	0.022	
	XA4	0.052	0.052	0.02	0.914	-0.018	
社会文化支持 (SS)	XB1	0.014	-0.042	0.032	0.087	0.828	0.854
	XB2	-0.051	-0.011	0.009	-0.026	0.807	
	XB3	-0.014	-0.039	0.013	0.01	0.812	
	XB4	0.018	-0.006	-0.014	0.044	0.88	

金融支持 (FS)	XC11	-0.001	0.731	0.334	-0.012	-0.015	0.961
	XC12	0.001	0.725	0.226	-0.018	-0.02	
	XC13	-0.003	0.765	0.27	0.037	-0.014	
	XC14	-0.034	0.778	0.271	0.032	-0.036	
	XC21	0.013	0.78	0.2	-0.01	-0.027	
	XC22	-0.034	0.789	0.219	0.007	0.021	
	XC23	-0.034	0.807	0.236	-0.011	-0.018	
	XC24	0.006	0.747	0.258	0.02	-0.028	
	XC31	0.044	0.696	0.301	0.052	-0.037	
	XC32	0.031	0.778	0.224	0.036	0.021	
	XC33	-0.01	0.746	0.298	0.036	-0.018	
	XC34	-0.032	0.779	0.26	0.027	-0.015	
	XC41	0.011	0.734	0.264	0.002	0.034	
	XC42	0.006	0.768	0.171	0.007	-0.011	
	XC43	0.013	0.696	0.27	0.06	0.001	
	XC44	-0.005	0.7	0.253	0.075	-0.009	
教育支持 (ES)	XD11	0.018	0.223	0.747	-0.008	0.024	0.959
	XD12	0.025	0.209	0.775	0.008	0.029	
	XD13	0.027	0.295	0.749	0.01	-0.005	
	XD14	-0.027	0.24	0.791	0.007	0.093	
	XD21	0.015	0.267	0.737	0.04	-0.021	
	XD22	-0.02	0.216	0.744	0.019	0.001	
	XD23	0.014	0.212	0.771	-0.004	-0.015	
	XD24	-0.04	0.319	0.719	0.008	-0.016	
	XD31	0.022	0.265	0.743	-0.013	-0.06	

基础设施支持 (IS)	XD32	-0.013	0.235	0.734	0.025	0.047	0.972
	XD33	-0.01	0.255	0.71	0.02	-0.05	
	XD34	-0.049	0.277	0.715	0.024	-0.03	
	XD41	-0.018	0.231	0.748	0.028	0.024	
	XD42	-0.014	0.255	0.799	0.047	0.028	
	XD43	-0.018	0.26	0.716	-0.005	0.01	
	XD44	-0.037	0.215	0.752	0.021	0.002	
	XE11	0.726	0.063	0.019	0.036	0.038	
	XE12	0.781	0.039	0.009	0.012	0.045	
	XE13	0.8	-0.006	0.027	0.038	0	
	XE14	0.763	-0.004	-0.039	0.053	-0.019	
	XE21	0.868	0.013	-0.01	-0.013	-0.01	
	XE22	0.852	0.024	-0.013	0.011	-0.01	
	XE23	0.861	0.007	-0.041	-0.008	-0.021	
	XE24	0.881	-0.01	0	0.03	-0.018	
	XE31	0.882	-0.005	0.005	0.019	-0.002	
	XE32	0.892	0.005	-0.018	0.03	-0.002	
	XE33	0.838	-0.053	-0.006	0.011	0	
	XE34	0.859	-0.006	0.013	0.012	-0.05	
	XE41	0.863	-0.027	-0.01	-0.011	-0.021	
	XE42	0.879	-0.015	-0.005	-0.009	-0.019	
	XE43	0.86	-0.05	-0.03	-0.032	-0.017	
	XE44	0.828	-0.014	-0.017	0.047	0.04	
可解释方差		20.26%	18.00%	17.85%	5.83%	5.03%	
累积方差		20.26%	38.25%	56.11%	61.94%	66.97%	

### 4.3验证性因子分析

使用AMOS 23.0对正式调研样本数据进行验证性因子分析，结果如图1所示。可以看出，一阶验证性因子分析中所有的路径系数都是标准化的回归系数，均通过了显著性检验，最低的因子负荷量为0.70，这表明测量变量很好地反映了被测量变量。模型的基本适配度指标理想，GFI(.970)、CFI(.989)、NFI(.986)、TLI(.987)和IFI(.989)的值均大于0.9，所有简约拟合度均大于0.9指数(PGFI=.762; PNFI=.856; PCFI=.859) 大于0.5，符合适配标准。此外，整体感知(GS)、社会文化支持(SS)、金融支持(FS)、教育支持(ES)、基础设施支持(IS)的二阶因子系数均较高，分别为0.74、0.74、0.70、0.72和0.72。表明这五个变量可以在更高阶上聚集为一个变量，也就是说它们共同测量一个潜在变量-感知创业支持(PE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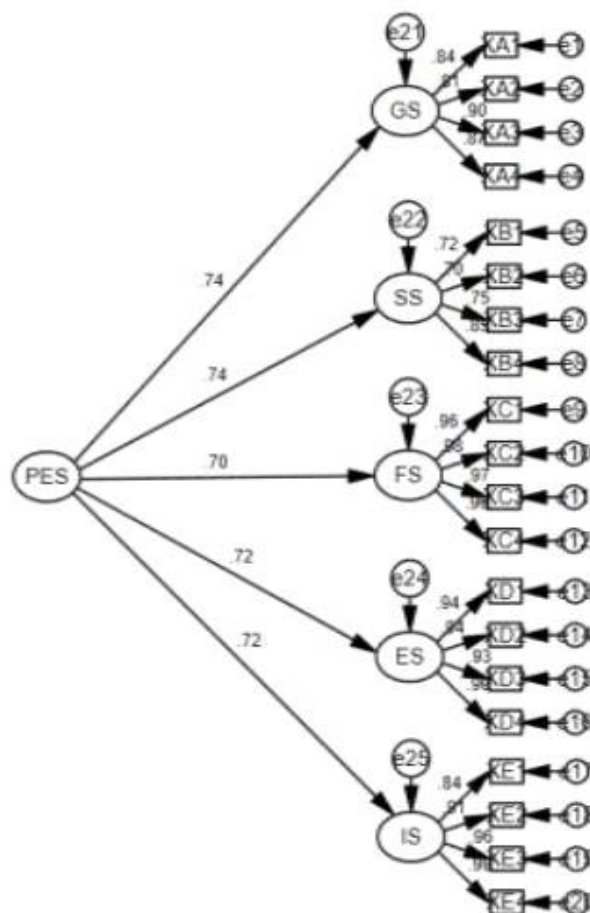


图 1: PESC 模型的一阶及二阶验证性因子分析路径图

## 4.4回归分析

为探究大学生的感知创业支持环境与创业意愿的关系，以创业意愿为因变量，PESC的5个维度为预测因子，进行多元回归分析，结果如表3所示。五个子维度对创业意愿的回归系数均为正数，sig.值小于0.05。R<sup>2</sup>为0.34，表明PESC五个维度能够解释34%的创业意愿的变异。正如预期的那样，感知创业支持环境对创业意愿有显著的正向影响，所有PESC的子变量均显著正向预测创业意愿，且教育支持、整体感知、社会文化支持、金融支持和基础设施支持的非标准回归系数B分别为0.28、0.23、0.14、0.11、0.06。EI = 0.23\*GS + 0.14\*SS + 0.11\*FS + 0.28\*ES + 0.06\* IS + 0.22。

表 3: 回归分析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VIF	R Square	Adjusted R Square
	B	Std. Error	Beta					
1 (constant)	0.22	0.11	-	1.97	0.049*	-		
XA	0.23	0.02	0.26	12.03	0.000**	1.70	0.34	0.339
XB	0.14	0.02	0.13	6.17	0.000**	1.63		
XC	0.11	0.02	0.11	5.13	0.000**	1.64		
XD	0.28	0.03	0.18	8.49	0.000**	1.67		
XE	0.06	0.02	0.06	2.80	0.005**	1.69		

Dependent Variable: EI

Durbin-Watson:1.589

\*P<0.05 \*\*P<0.01

## 5. 结论与启示

### 5.1主要结论

本研究在国内外创业环境模型和创业意愿研究的基础上，构建了中国本土化的大学生创业支持环境模型，并验证了其对创业意愿的影响机制。为了证实模型的有效性，本文采用问卷调研的形式，对六个行政地区的多所高校在校大学生进行了随机调查，经过一系列分析和检验，相关研究结论如下：

(1) PESC模型的一阶及二阶验证性因子分析结果显示，创业环境潜变量对五维度观察变量的影



响路径系数显著，具有较好的解释度，说明本研究构建的模型与实际调研数据具有较好的适配性。

(2) 以创业环境5个纬度为自变量、以创业意愿作为因变量进行回归分析的结果显示，回归模型整体的解释度为34%，且各纬度的系数均为正数，通过显著性检验。说明改善创业环境各维度均有助于提升大学生的创业意愿。

## 5.2 研究启示

基于上述分析，本研究认为在中国经济转型升级的大背景下，要实现大学生创业率的提升，可以从以下几个方面努力：首先，优化创业支持体系。具体地说，一是科学精准的改善创业环境。可根据PESC得分来判断所在地区创业环境的优劣及待提升纬度，各子纬度共同构成创业环境的有机整体，齐头并进方能最大程度的提升创业率。二是保证创业支持环境的稳定性和持久性。有必要建立对创业意愿的合理预期，避免急功近利的教育观和政绩观。三是有必要在创业环境中构建完善的评价机制。在评价创业支持环境有效性时，应注意结果评价、过程评价和综合评价的互动，通过科学评价机制促进创业环境的优化。

值得注意的是，作为制度环境中的一种非正式系统，关系文化可以潜在地影响市场主体的价值规范和价值取向。企业作为理性的经济实体，更可能参与“关系活动”以便与同一组织领域内的其他企业保持一致。从这个意义上说，关系文化也可能对创新行为产生不利影响。主要原因是关系文化容易诱导企业建立非市场竞争策略，即通过寻租来提高企业绩效，而不是通过市场化的创新行为获得可持续的竞争力（周婷婷、郭焱，2020）。反过来，企业将在寻租活动中投入比以往更多的关系成本。在尚未形成正式制度环境的中国，企业在创新战略过程中需要在自主创新能力的提升与外部关系网络的支持之间寻求平衡。因此，高层管理人员必须建立强大的创新氛围，以促进创新行为并减轻关系导向的负面影响。更要在全社会形成鼓励大学生创业的良好文化氛围。简单的说，不仅要为大学生提供必要的创业资金支持和人际关系支持，还要为他们提供各种有用的创业信息，帮助他们做出科学的选择，从而推动他们的创业活动向前发展。

## 参考文献

蔡莉,王旭,李雪灵. 科技型企业创生要素的系统分析[J].科研管理,2005,26(2):29-34.

刘冲,吴群锋,刘青.交通基础设施、市场可达性与企业生产率——基于竞争和资源配置的视角[J].经济研究,2020,55(07):140-158.

叶文平,李新春,陈强远.流动人口对城市创业活跃度的影响:机制与证据[J].经济研究,2018,53(06):157-170.

张玉利,李乾文,陈寒松.创业管理理论的最新评述及研究趋势[J].预测,2004(04):20-25+32.

郑宝华,陆玉梅.农业科技园区创业环境对创业者创业行为的影响研究[J].农业技术经济,2016(11):115-122.

余明桂,回雅甫,潘红波.政治联系、寻租与地方政府财政补贴有效性[J].经济研究,2010,45(03):65-77.

周婷婷,郭岩.关系文化、信贷资源与大数据公司创新效率[J].科研管理,2020,41(02):210-219.

Astebro, T. H., R. N. Herz, and R. A. Weber, 2014, "Seeking the Roots of Entrepreneurship: Insights from Behavioral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8(3),49-69.

Austin J., Stevenson H. & Skillern J. W. (2006). Social and commercial entrepreneurship: same, different or both?.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0(1), 1-22.

Bae T. J., Qian Shanshan, Miao Chao & Fiet J. O.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 meta-analytic review.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8(2), 217-254.

Bird B. (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Child, J. (1972). Organizational structure, environment and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ic choice. *Sociology*, 6(1), 1-22.

Chizema, A., Kamuriwo, D. S. & Shinozawa, Y. (2015). Women on corporate boards around the world: Triggers and barriers. *Leadership Quarterly*, 26(6), 1051-1065.

Duncan, R. B. (1972).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environments and perceived environmental uncertaint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7(3), 313-327.

Fretschner M. & Lampe H. W. (2019). Detecting hidden sorting and alignment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7(4), 1712-1737.

Gnyawali D. R. & Fogel D. S. (1994). Environments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ey dimension and research implic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2), 5-21.

Huuskonen A. (1989). High-resolution observations of the collision frequency and temperatures with the EISCAT UHF radar. *Planetary and Space Science*, 37(2), 211-221.

Ireland R. D., Hitt M. A. & Sirmon D. G. (2003). A model of strategic entrepreneurship: The construct and its dimensions. *Journal of Management*, 29(6), 963-989.

Jokisaari, M., & Nurmi, Jari-Erik. (2005). Company matters: Goal-related social capital in the transition to working lif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3), 413-428.

Katz, J. A. (1992). A psychosocial cognitive model of employment status choi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7(1), 29-37.

Krueger, N. F., & Brazeal, D. V. (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104.

Lawrence P. R. & Lorsch J.W. (1967).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in complex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2(1), 1-47.

Lenz R. T. & Engledow J. L. (1986). Environmental analysis: The applicability of current theo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7(4), 329-346

Lindquist, M. J. , J. Sol , and M. Van Praag , (2015) , Why Do Entrepreneurial Parents Have Entrepreneurial Children?. *Journal of Labor Economics*, 33( 2), 269-296 .

Lüthje, C., & Franke, N. (2003). The 'making' of an entrepreneur: testing a model of entrepreneurial intent among engineering students at MIT. *R & D Management*, 33(2), 135-147.

McClelland D. C. & Winter D.G. (1969). *Motivating economic achievement*. New York: Free Press ;

London : Collier-Macmillan.

Martin, A.J., Nejad, H.G., Colmar, S., & Liem, G.A.D. (2013). Adaptability: How students' responses to uncertainty and novelty predict their academic and non-academic outcom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5(3), 728-746.

Peng, M. W. & Luo, Y. (2000). Managerial ties and firm performance in a transition economy: The nature of a micro-macro link.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3), 486-501.

Piperopoulos, P. & Dimov, D. (2015). Burst bubbles or build steam?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3(4). 970 - 985.

Smircich S. & Stubbart C. (1985). Strategic management in an enacted world.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4), 724-736.

Souitaris, V., Zerbini, S. & Al-Laham, A. (2007). Do entrepreneurship programmes rais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The effect of learning, inspiration and resourc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2(4), 566-591.

Uzo U. & Mair J. (2014). Source and patterns of organizational defiance of formal institutions: Insights from Nollywood, the Nigerian Movie Industry.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8(1), 56-74.

Wang, S., 2012, "Credit Constraints, Job Mobility and Entrepreneurship: Evidence from a Property Reform in China",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4(2), 532-551.

## 세션 2

### 지속가능한 투어리즘과 지역의 발전



#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농촌 치유관광 활성화 방안

2022. 11. 25

김정현



## 목차

---

- I. 지역소멸의 현황과 과제
  - I. 왜 지역소멸인가
  - II. 인구 감소와 빠른 고령화
  - III. 정부의 지역소멸 방지 대책
- II. 지역소멸 방지와 치유산업 추진
  - I. 치유농업의 대두
  - II. 국내 치유농업 추진 상황
  - III. 치유농업과 치유관광의 연계
- III. 농촌치유관광 발전 방안
  - I. 치유농업과 연계강화
  - II. 농촌치유관광 관련 법적, 제도적 기반 확충
  - III. 농촌 치유관광 연구개발 강화
  - IV. 농촌 치유관광의 사업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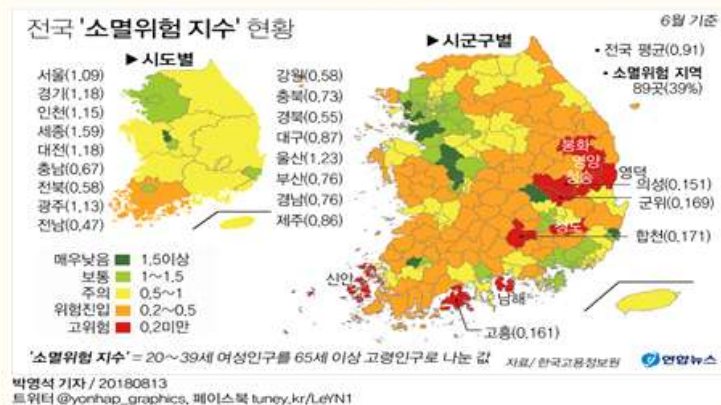
# I. 지역소멸의 현황과 과제



3

## 지금 왜 지역소멸인가?

- 지역 소멸의 현황
  - 전국 228개 시군구의 42%인 105곳이 소멸 위험 지역(2020.5 기준)
  - 105곳 중 97곳이 비수도권 지역이며 대부분 농촌 지역임
  - 2022.3월 기준, 소멸 위험 지역은 113곳으로 전체의 49.6%



4

## 지역소멸의 현황

- 지방경제의 쇠퇴, 균형 발전 저해, 국가 위기
    - 지역 교육, 지방 대학, 지역 산업, 지역주거, 복지 등 지방 경제의 총체적 붕괴
    -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함
- ➡ 그간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수많은 정책의 효과가 나지 않음, 새로운 접근이 필요

5

## 인구 감소와 빠른 고령화

-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기점으로 감소
  - 총인구는 5173만 8천명으로 전년대비 0.2% 감소
-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이 14% 초과), 2025년 초고령(20% 초과) 사회진입 전망
  - 2022.5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7.5%, 8월 기준 901만 8000명,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전망
  -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 기간이 가장 빠름
- 복지비용의 증가, 노인성 질병, 노인성 건강 비용 증가
  - 복지예산:(2020) 16조 6천억→(2067) 91조 9천 억 추정,
  - 국가전체 예산 대비, 보건복지부 예산; 2022년 97.4조원(16%)
  - 보건, 복지, 고용 합계 시; 216조원(전체 예산의 36%), 2023년 국회 제출 예산은 226조원 6천 억원
- 경제침체는 물론, 기대와 희망도 없어지는 대한 민국

국 가	도달 연도			소요 연수	
	고령화 사회 (7%)	고령 사회 (14%)	초고령 사회 (20%)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한 국	2000	2017	2025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미 국	1942	2015	2036	73	21
독 일	1932	1972	2009	40	37
프 랑 스	1864	1979	2018	115	39

출처: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2021

6

## 정부의 지역소멸 방지 대책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자료: 국무조정실

국민께 드리는 약속	21	22	23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정 과제 (1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li> <li>•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li> <li>•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li> <li>•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li> <li>•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li> <li>• 지역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li> <li>•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li> <li>•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li> </ul>

7

## 지방 소멸 대응 패러다임 전환

- 관계인구의 정책범위 제안
  - 관계인구는 해당 지역에 정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가, 업무, 사회적 기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당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 가능
  - 인구특별법상의 생활인구 관련 규정에서 주민등록상의 주민과 외국인을 제외한 체류주민의 개념을 활용하여 정책범위 설계 가능
- 관계인구의 개념
  - 지방에 제2의 거주지를 선택한 사람이라는 좁은 개념부터, 미래는 관계의 시대라고 규명하여 지역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는 넓은 개념까지 다양한 정의
- 한국의 도시 거주민 관계인구 세부유형

구분	비율	내용
방문형 (비경제활동)	69.4%	주로 여가 및 휴양 등 비경제활동 목적형 방문
방문형 (경제활동)	13.9%	일자리, 사업, 영농 등 경제활동 목적형 방문
거주/이주형	16.7%	지역 이주 목적이나 두 지역 거주 목적으로 방문

출처: 농촌진흥청, 2022

8

## 지방 소멸 대응 패러다임 전환

- 지방 소멸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 정책융합, 장소기반 통합적 접근변화
- 지방 소멸 대응 정책목표와 추진 전략
  - 3대 목표: 활력있는 지역+ 동등한 삶의 질 + 자립적인 지역
  - 5대 전략
    - 1) 전 생애에 걸친 건강하고 품격있는 생활실천
    - 2) 개성있는 매력 공간 창출로 생활인구 확보와 유출억제
    - 3) 지역자원 기반 생산소득및 좋은 일자리 창출
    - 4) 지역간 교류협력으로 상생과 공존의 사회문화 확산
    - 5)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 역량과 실증 기반 강화
- 지역 주도의 계획 수립, 포괄적 재정지원, 불합리한 규제개선

출처: 국토연구원, 2022.2

9

## 지역 균형발전 관련 2023 정부예산(안)

-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위한 기금 확대 편성
  -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22년 7,500억 → '23년 정부안 10,000억)
  - 작은 섬 공도 방지 사업(신규 35억)
-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기업의 지방 신규투자 지원, 산업단지의
  - 디지털화·친환경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지역혁신 클러스터육성 관련 지원( 875억 원 → 929억 원)
  - 지역투자촉진 (1,881억 원 → 1,998억원)
  - 산업단지 디지털화·친환경화( 1,689억 원 → 1,702억 원).
- 지역의 고유한 경관·생태계 매력을 확산
  - 야간관광 활성화(34억 원, +20억)
  - 섬 관광 활성화(52억 원, 신규)
  - 공연예술 지원(156억 원, + 69억)

출처: 국토연구원, 2022.2

10



## 지역 균형발전 관련 2023 정부예산(안)

- 정주여건 개선 지원
  -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 60개소, 444억 원으로 신규 착수)
  -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농촌공간 정비; 45개소에서 85개소, 415억 원 증액)
  - 청년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대상 확대( 기존 2,000명에서 4,000명)
  - 스마트팜·주택·농지 패키지 지원 (1000억 원 추가로 투입)
- 산업·문화·교육 등 분야별 지역특화 성장거점 조성 and 경쟁력 강화
  - 디지털 혁신거점(2개소, 44억 원 신규)
  - 연구산업 진흥단지(2개소, 50억 원 신규)
  - 지역혁신 메가 프로젝트(5개 권역, 77억 원 신규)
  - 관광거점도시(+92억원)
  - 문화도시(+90억 원) 육성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6→8개 지역)
  - 캠퍼스 혁신파크(7→9개교) 등 중점 지원 등

출처: 국토연구원, 2022.2

11



## II. 지역소멸 방지와 치유산업 추진



12



## 치유농업의 대두

- 농업적 측면의 치유농업 대두 배경
  - 농업정책의 중점 변화, 농촌 융복합산업의 확대, 탈도시 욕구 증진 등 다양한 원인
-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 65세 이상 인구비중; (20) 15.7% → (25) 20.3% → (60). 43.9%,
  - 인구소멸 위험지역;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2%(20.5 기준)
- 코로나 19로 국민적 관심이 스트레스나 우울감 해소, 건강 등으로 이동
  - 사회적 비용 증가(만성 환경성 질환 진료비 28조원,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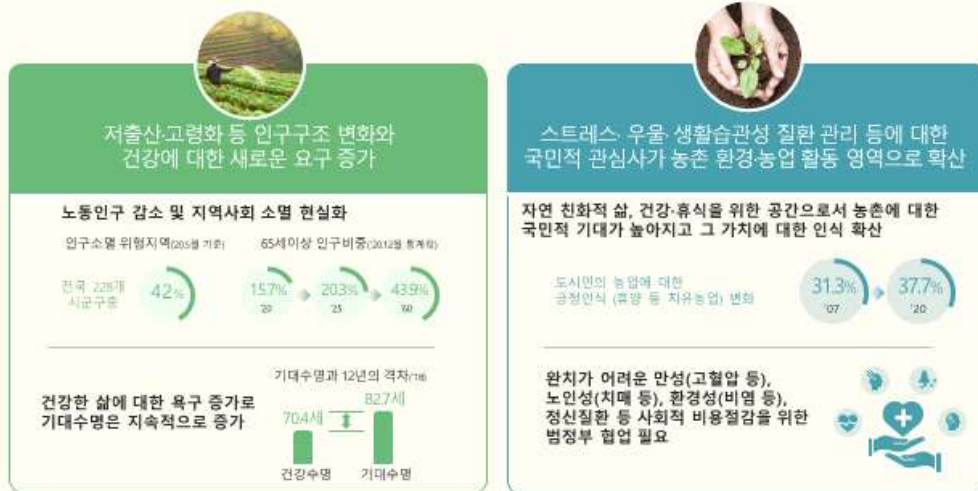
13

## 치유농업의 대두

-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생활 패턴으로 “힐링”이 대두되어 각광을 받음
  - 생활전반에 ‘치유’ 개념이 도입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며, 은퇴자나 귀농·귀촌 중심의 농업이 치유농업(agro-healing)으로 중심이 이동
  - ‘치유 농업’은 원예치료를 중심으로 중세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나 최근 다양한 형태로 발전됨  
(‘치유’는 ‘치료’와는 다른 개념으로 정리)
- 치유농업은 원예, 동물 사육, 농촌 문화 관광 자원 활용으로 농업농촌분야 새로운 일 자리 창출과 관광 수요증대로 이어짐
  - 치유음식, 치유관광, 웰니스 등과 연계되어 새로운 수요와 산업을 창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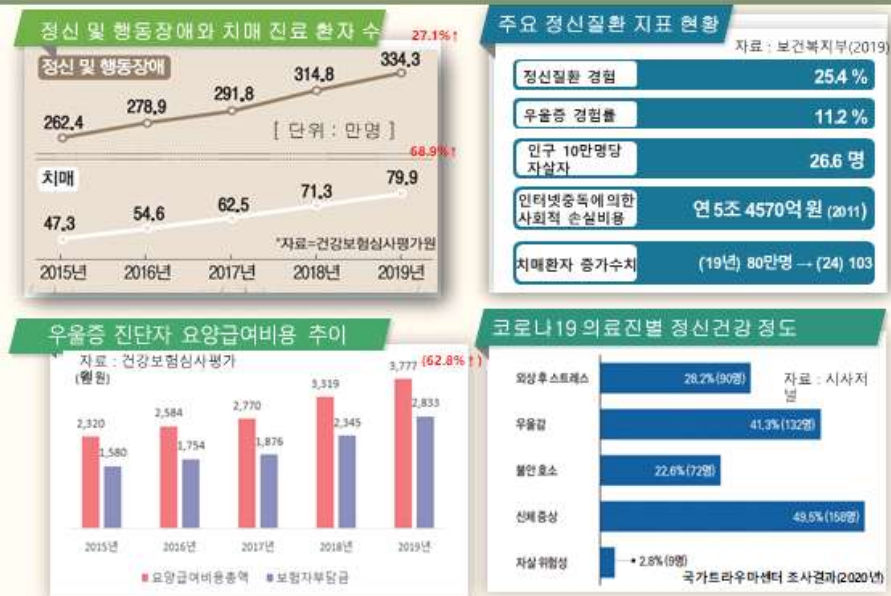
14

## 건강과 인구측면의 치유농업 배경 (농촌진흥청)



15

## 심리정서적 정신질환자 증가 현황(농촌진흥청)



16

## 치유농업의 개념, 범위, 국내외 법령 규정

- (법 제2조, 정의)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산업
-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에서는 'Care farming, 또는 Green care'로 통용되고 있으며, 농업 기반을 강조하기 위한 'care farming'도 사용됨
  - 국가에 따라서는 social farming, green care farming, farming for health 등으로 사용
  - 전통 농업에 대한 도전(Negative impact conventional agriculture, disconnection citizens and food, quality and access to food, health inequalities in cities, Jan Hassink WUR, 2022.10.5 농진청 기술 포럼자료)
- 치유농업의 범위는 채소와 꽃 등 식물 뿐만 아니라 가축·곤충 기르기, 농촌 환경과 농촌 문화자원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함
- 치유의 대상은 의료적·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더 건 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모두가 치유농업의 대상임(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도 필요)

17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제1조(목적)** 치유 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함

### 제2조(정의)

- 치유농업: 국민의 건강회복·유지·증진을 위해 농업 농촌 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 포함)
- 치유농업서비스: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
- 치유농업사: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자격을 취득한 자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종합계획(5년), 시행계획(매년) 수립

- \* 현황 및 전망, 연구개발육성 방향·목표, 중장기 및 투자계획, 인력양성, 산업간 연계 등

### 제8조(연구개발·보급) 정책·제도 자원 시설 프로그램 등 치유 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과 효과 검증 연구 및 기술의 사업화 연구 등

### 제11조(치유농업사 자격취득 등)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교육을 이수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합격

### 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치유농업사 양성을 위해 1)지방농촌진흥기관, 2) 대학 또는 대학부설기관 등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18



## 국내 치유산업 추진 상황

- 농촌진흥청(치유농업)
  - 농촌진흥청 추진 상황은 4개 분야: 1) 연구개발, 2) 성과확산 3) 기반 구축 4) 부처간 협력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약칭, 치유농업법, 2021.3.25)
  - 치유농업사 양성 기관 지정(2021.5.20), 자격시험 고시(2021.7.26)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 산림청(산림치유); 치유의 숲 조성(37개, 2021 기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754개) 등
  - 산림문화휴양기반 계획(2008-17), 산림치유활성화 추진 계획(2012-17), 산림복지진흥 계획(2018-22) 등 중장기 계획 등 추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005),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2015) 제정 등
  - 치유의 숲 조성(67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754건) 등
- 해양수산부(해양치유)
  -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2020.2), 해양치유관리단 운영(2021.7)
  - 해양치유, 생태체험, 해양경관, 레저복합형, 스포츠재활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웰니스관광), 보건복지부(통합의학) 관련 정책 추진

19

##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 추진 방향



20

## 치유농업과 농촌치유관광의 연계

- 그동안의 관광 정책에 대한 평가
  - 관광에 대한 국민인식 증가 등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함
  - 관광객수는 지속증가하여 한국의 관광 경쟁력은 높아짐(2007(42위) – 2019( 16 위))
  - 방한 관광 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2019년 방한 외래 관광 객은 1750만으로 최고수준)
  -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은 2870만명으로 세계6위
-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나 사회 트렌드에 부응하지 못함
  - 동남아, 중국 등 특정 국가, 도심 쇼핑 위주
  - 코로나 19등 질병 등 돌발 상황 대응 미흡
- 농촌관광을 농가소득 증대, 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 소멸대응책과 연계 필요

21

## 농촌 치유관광 정책 방향과 과제

- 농촌공간과 농촌관광에 대한 인식변화
  - 농촌은 농산물 생산공간에서 국민의 오락, 관광, 여가, 휴식공간으로 변화
  - 농촌 관광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농촌관광은 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 지역 소멸 방지에 기여
- 농촌관광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
  - 고령화, 1인가구 증대, 생활 관광객 및 외래관광객 확대 등 사회변화에 부응
  - Farm wedding, Petconomy 등 사회 및 소비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는 관광 상품 개발
  - '내가 주인공인 여행', '쉼과 치유를 찾는 여행' 등 맞춤형 관광 상품개발 등
- 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
  - 건강과 안전 중시,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 보존,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 농업과 농촌과 문화와 관광이 공존하는 관광 콘텐츠 개발로 신성장동력으로 전환

22



## 농촌 치유관광의 핵심요소

- 농촌 치유관광의 회복 환경 요소
  - 환경적 요소
    - 일탈성 (벗어남): 도시의 삶, 일상에서 벗어남 ·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지냄 · 조용하게 휴식
    - 매력성: 농촌성을 느낄 수 있는 풍경, 시골길, 음식, 주민, 시골의 정서와 분위기를 경험
    - 범위성: 건물 창밖을 통해 보이는 야외의 자연환경 · 아담하지만 자연적인 농촌의 공간
    - 적합성: 자연 속에서 느끼고 싶은 환경에 대한 감수성 · 피로를 풀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보내고자 하는 내면적 동기와 부합하는 활동
  - 활동적 요소
    - 치유성: 다양한 치유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치유적 속성을 가짐
    - 여가성: 관광 동반자들과 함께 치유를 경험하고 여가를 보내면서 관광으로서의 즐거움 나눔

23



## III. 농촌치유관광 발전 방안



24

## 치유농업과의 연계 강화

- 국민인식변화, 새로운 관광 정책 추진 필요
  - 도시민의 탈 도시 수요증가, 귀농 귀촌 증가, 특색있는 경험과 매력있는 관광 상품선호등
  - 코로나 19 이후 방한 외래 관광 객은 252만명으로 전년대비 85.6% 감소(역대 최저수준)
- 치유농업 대두, (농촌)치유관광 시대에 부응한 새로운 농촌관광 추진
  - 2020년 '관광과 농촌 개발의 해'지정(UN 세계관광기구,WTO)
  - 농식품부(10대 유망 산업으로 농촌 융복합, 관광 산업)등의 유기적 협력 미흡
  - 농촌 관광의 만족도 저하(농진청); 2011(80.6)- 2016(79.6)- 2018(69.5)
  - 특색있는 관광 상품 개발 미흡, 농촌 공간의 인식 변화와 농촌의 다원적 기능 미인식

25

## 치유농업과의 연계 강화

- 농촌치유관광은 치유농업과 융복합,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 기대
  - 우리나라 농촌, 산촌, 어촌이 주요 치유 관광 지역임
    - 자연환경(산, 강, 바다), 4계절 변화, 건강 음식 등 한국 농산어촌이 경쟁력을 가짐
    - 명상과 힐링 등 새로운 분야에서 코로나 19 이후 한국이 경쟁력이 높음
    - 농촌 치유관광은 도농 공간 거점 공간의 역할 기대
- 치유관광 중요성을 공감하고 고용 증대, 미래산업으로 육성필요
  - 치유관광을 신 산업으로 연계발전,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농촌소멸 대비
- 치유관광은 새로운 수요창출과 글로벌 산업화 가능성 높음
  -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대두됨
  - 농촌 환경과 문화자원, 농촌 관광 자원의 개발과 관광 콘텐츠와의 연계강화
  - 폐교 등 빈 공간을 활용, 저비용 고 효율의 사업화 가능

26

## 농촌치유관광 관련 법적, 제도적 기반 확충

- 치유관광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적인 기반 확충
  - 문화체육관광부; (가칭) 치유관광 산업법 제정 추진(국정 과제)
  - 관광관련 법령에 '치유관광' 정의와 범위를 반영하고 새로운 관광 정책을 추진
  - 농촌 진흥청(농식품부)은 기 제정된 '치유농업법'으로 확장 기반 마련
- 새로운 치유관광 정책 개발 필요
  - 자연, 음식, 쇼핑 문화 중심의 종전 관광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치유관광' 상품 개발 필요
  - '관광 치유(Healing tourism) 이론 개발, 효과검증, 사업화 추진 등
- 유사, 중복 분야 조정 등 관련 부서간 유기적 협조필요

27

## 농촌치유관광 관련 법적, 제도적 기반 확충

- 치유관광 관련 예산과 조직, 기능의 확충
- 문광부 예산의 확대; (2020) 6.4조 → (2021) 6.8조 → (2022) 7.3조
  - 전년 대비 증가율; (2020) 9.4% → (2021) 5.9% → (2022) 7.8%
  - 2023 문광부 주요예산(안)과 분야; 6조7076억원
    - 1)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 뒷받침; 2조 2255억원
    - 2) 공정하고 차별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1조 3947억원
    - 3) 세계인과 함께하는 K-Culture; 8957억원
- 농촌 진흥청의 치유농업 관련 조직과 기능의 확충
  - 상설 정규조직으로 구성(치유농업추진단), 종합정보망 구축, 치유농장 품질인증 강화 등
  - 치유정책 협의체 구성(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방부등)과 건강, 보험, 복지관련 법령 연계
  -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직속의 회의로 격상

28

## 농촌 치유관광 관련 연구개발 강화

- 인문사회학적 연구 뒷받침 필요
  - 한국 농촌 경제연구원, 한국문화관광진흥원 등의 역할 증대
  - 공동 연구와 예산 증대, 전문가 확충 등 필요
  - 농촌 진흥청의 농작물, 재배, 동물, 곤충 등 자연과학적 연구와 병행
  - 국정 과제(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 환경 조성) 연계 추진
- 연구 콘텐츠의 다양화와 평가방법 개선
  - 동식물, 곤충, 농촌 환경 문화 치유자원 지속 발굴
  - 의과학적 측정 지표개발(보건 복지부등 협조)
  - 스마트 치유관광 관련 연구개발 및 과학적 효과검증
  - 치유만족도 중심의 측정 지표 개선과 고도화 등 과학적 측정 지표 개발

29

##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중점

### 자원발굴·특성분석



자원발굴

#### 식물, 동물, 곤충 등 치유자원 발굴 및 융·복합화 (26·34중)

- (식물) 스트레스 관리, 생활리듬, 숙면 관련 등 치유목적별 기능성 자원발굴
- (동물) 치유도우미 동물 확대, 동물복지 고려한 스트레스 완화조건 설정
- (곤충) 국내 곤충 중 형태·생태생리적 특이형질 보유 종, 오감 자극 자원 탐색
- (환경·문화) 지역 특화 치유 요소 활용 및 농촌·해양산림자원 융·복합화 연구
- (음식) 건강증진, 생활습관병 예방·개선을 위한 치유음식 및 식단 개발



특성분석  
및 DB화

#### 치유농업 자원의 특성 및 활용 가능성 분석

- 자원의 형태학적(초장, 초목 등), 생리화학적(유효성분, 효능 등) 특성분석
- 자원의 생육과정, 농작업, 지역성, 체험적 특성
- 자원의 대상별 접근성, 목적 적합성 및 유효성 분석

30



## 농촌 치유관광의 사업화 추진

- 신뢰할 수 있는 치유농장의 시설관리와 사업화 기반 구축
  - 현재 치유농업시설은 234개소로 추가확대 및 국민 신뢰제고 필요
  - 네덜란드는 인구 1721만명에 치유농장 1300개소.
  - 치유농업이 관광 사업화 되기 위한 사업화 기반 구축
- 열악한 치유관광 농장의 수익 구조개선
  - 치유농장 인증제, 품질관리, 평가 등
- 의료복지제도와 연계한 치유관광 사업화
  - 보험제도 연계, 창업 지원 시스템, 복지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방안 마련

31

## 농촌 치유관광의 사업화 추진

- 분야별 역할 담당: 치유관광의 산업화, 제도화 기반 구축
  - 산업계: 치유관광 비즈니스 모델 구축
  - 학계: 치유관광 교육모델 개발, 미래 치유관광 인재 양성
  - 국회: 입법화, 제도적 장치와 기반구축, 예산지원 등
  - 교육부서: 지방 대학 살리기, 지방 인재 육성 등 타부처 정책과 연계
  - 정부(총리실 등)에서는 통합 조정, 지역 소멸 보완대책 추진, 주도적 운영과 총괄
  - 문화체육관광부: 새로운 치유관광 비즈니스 모델, 치유관광 전략회의 구성 운영
  - 보건 복지부: 보험 연계 치유관광 프로그램 개발
  -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치유농업과 치유관광 연계, 지역 소멸 대응 등

32



감사합니다



#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관광과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 탐색

- 일본의 지역창생 정책과 강원 양양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

LOCUS  
더로커스컴퍼니

## CONTENTS

01

들어가며

02

사례연구\_일본

03

사례연구\_양양군

04

관광과 지역성장의  
선순환구조 탐색

## 01 들어가며

### 1) 저출산 및 지방 인구소멸 현황

#### ● 저출산 현황

- 1983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2.1명 이하)이 35년 이상 지속
- 2002년 이후 초저출산 현상(합계 출산율 1.3명 이하로 진입) 현재까지 지속
- 특히 2015년 이후 저출생 기조가 악화로, 2019년 기준 합계출산율 0.92명,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 0.84명,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 0.81명** 기록
- OECD 회원국 38개국 중 가장 낮고, 세계 198개국 중 198위로 최하위  
→ '세계 유일한 합계 출산율 1명 미만' 인 국가
-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 1.61명(2019년 기준)
- **2020년부터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것) 발생

####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 지속

#### 연간 출생아 추이 (단위: 명)



## 01 들어가며

### 1) 저출산 및 지방 인구소멸 현황

#### ● 수도권 집중 심화

- 2019년 12월 기준, 수도권 인구(2592만 5799명)가 비수도권 인구(2592만 4062명)를 1,737명으로 첫 추월
-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이 가속화. 그 추세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음 →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1% 차지(2020년)
- 지역별로는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하면서 부산·대구 등 일부 광역시도 20년 간 인구가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지역 간 인구격차(TL3)는 네 번째로 높고 인구감소지역 비율도 19.6%로 OECD 평균(10.7%)을 상회하는 수준임

#### 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

#### 수도권·비수도권 총인구 추이 (단위: 만명)



※ 비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 2020년 6월 29일 기준 추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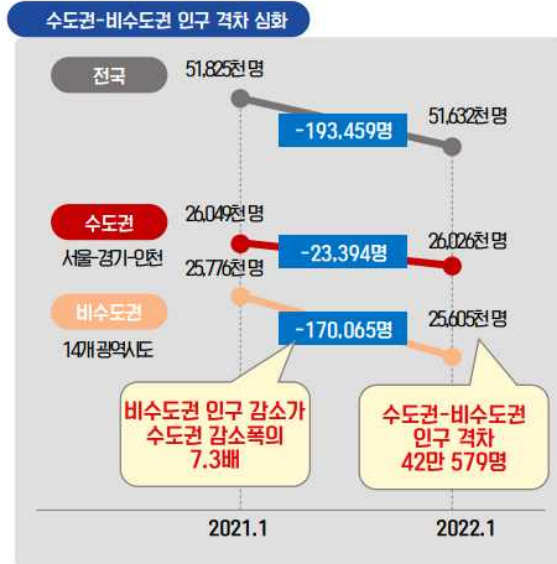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01 들어가며

### 1) 저출산 및 지방 인구소멸 현황

#### ● 수도권 집중 심화

- 2021년 부터 국내 전체 인구가 소폭 감소한 가운데 인구감소는 비수도권에 집중
- 2022년 1월 기준, 5163만 2473명으로 지난해 1월(5182만 5932명)과 비교해 19만 3000여명 감소
- 수도권은 2만3394명 감소 대비, 비수도권은 수도권의 약 7.3배인 17만65명 감소
- 현재까지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격차는 더욱 심화
- 2022년 1월 기준, 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
- 수도권 인구는, 2020년 2593만 9996명 → 2021년 2604만 9920명 (10만 9924명 증가)
- 수도권 인구가 증가한 기간 동안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격차는 42만 579명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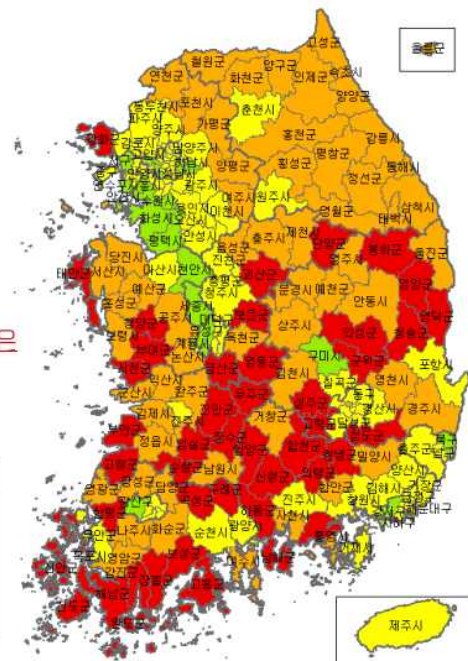
## 01 들어가며

### 1) 저출산 및 지방 인구소멸 현황

#### ● 지역 소멸 위험

- 지역의 소멸위험지수란, 20~39세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
- 소멸위험지수 값이 1.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지역은 인구학적인 쇠퇴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음을 의미함
- 소멸위험지수 값이 0.5 미만일 경우, 소멸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 한국고용정보원(2022)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49.6%) 수준**

명칭	소멸위험지수	
소멸 저위험	1.5 이상	
정상지역	1.0 ~ 1.5 미만	
소멸주의	0.5 ~ 1.0 미만	
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진입	0.2 ~ 0.5 미만
	소멸 고위험	0.2 미만



\*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2021),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례와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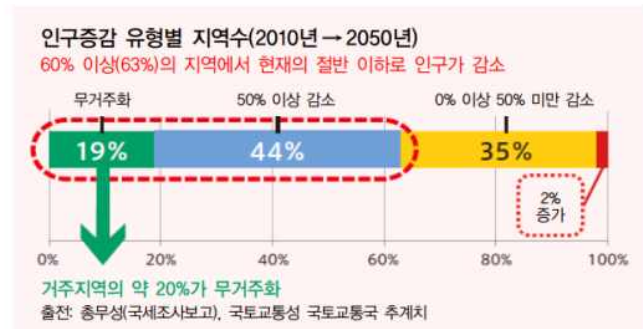


## 02 저출산 및 인구소멸 대응 사례\_ 일본

### 1) 현황 및 정부 대응 정책

#### ● 배경

- 일본 인구는 2008년 1억 2,808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약 20만 명의 인구가 감소
- 인구감소로 인해 2050년까지 일본의 1,727개 시구정촌 가운데 896개가 소멸
- 사람이 살지 않는 무거주지역이 거주지역의 약 19%에 이를 것으로 전망(2014)



※ 출처: 차미숙(2016)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지역공간구조 재편방안, 국토정책, 555

## 02 저출산 및 인구소멸 대응 사례\_ 일본

### 1) 현황 및 정부 대응 정책

#### ● 일본 정부의 대응 정책

-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력 확보를 위해, 2014년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법” 제정
- 삼기 법을 근간으로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을 위한 2060년까지의 비전 및 정책 방향 제시,
- 하위 계획으로 5개년 간 목표, 시책, 기본방향 수립



※ 출처: 이기배(2017), 일본의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정책의 체계 및 방향성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30-4, 81-104



## 02 저출산 및 인구소멸 대응 사례\_ 일본

### 1) 현황 및 정부 대응 정책

마을·사람·일 창생 종합전략 주요 시책		
기본목표	정책패키지	주요시책
지역경제고용전력의 기회·실시체계 정비	지역특성·과제를 추출하는 '지역경제분석시스템' 개발	· 젊은 층 고용대책 추진, '정사원상한가속 프로젝트' 추진
	지역 특·업·학·산·촌 연계 종합전략 추진조직 정비	· '소자회사화대책방안' 연계 젊은·임산·출산·육아 각단계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소자화대책 추진
	지역 기반서비스사업주체 검토·제도 정비	
	· 포괄적 창업 지원 · 지역의 중핵기업 지원 · 신사업·신산업과 고용을 창출하는 지역이노베이션 추진 · 외국기업의 지방 직접투자 촉진 · 산업·금융 일체의 종합지원체계 정비 · 사업승인의 원활화, 사업재생, 경영개선 지원 등	
지방의 안정된 고용 창출	ICT 등 이활용에 의한 지역 활성화	· ICT 이활용에 의한 지역 활성화 · 이상가상, 가상현실에 관한 데이터 이활용 촉진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업종 별단위)	·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무가치기 형성 · 농림수산업의 성장산업화 · 관광자원의 인텔리, 로컬 크루즈관광 추진 ·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스포츠 등에 의한 지역활성화 · 분산형 에너지 추진
지방으로 인재유입, 지방에서의 인재육성, 지방의 고용대책	· 젊은 인재 등의 유입 및 육성·정착 지원 · '프로페셔널 인재'의 지방 유입 · 지역의 여성 활력 지원 · 신규 혁신·취업자 종합적 지원 · 대학·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 등의 지역수요 대응 인재육성 지원 · 젊은 층, 고령자, 장애자가 활약할 수 있는 사회 실현	
	지방이주 촉진	· 지방이주 희망자 지원제 · 지방거주 본격 추진 · 일본판 CCRC 검토 · '지역활성화 협력대'와 '고령 활동대'의 통합 확충
지방으로의 사람 흐름을 창출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 기업 등의 지방채용·취업 확대	·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 등 · 정부 관계 기관의 지방 이전 · 원격근무 (세틀라이트 오피스, 텔레워크 촉진)
	지방대학 등 창생 5개년 전략	· 지식 거점으로서의 지방대학 강화 플랜 · 지역학생 정착 촉진 플랜 · 지역인재 육성플랜

**+** '로컬 아베노믹스' 시행  
(지역 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중점 지원)

## 02 저출산 및 인구소멸 대응 사례\_ 일본

### 2) 관계인구의 등장과 대응 정책

#### ● 관계인구의 개념 등장

- 2016년, 현장 활동가(타카하시 히로유키)의 저널리즘적 제언과 아다니시현과 같은 지자체의 인구대책 속에서 '관계인구'의 개념이 처음 등장
-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반드시 지역에 정주민구를 늘릴 필요는 없다는 발상**
- 단순히 숫자로서 지역의 인구보다는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관점**
- 2017년, 농학자 '오다기리 토쿠미'에 의하여 관계인구를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 이론화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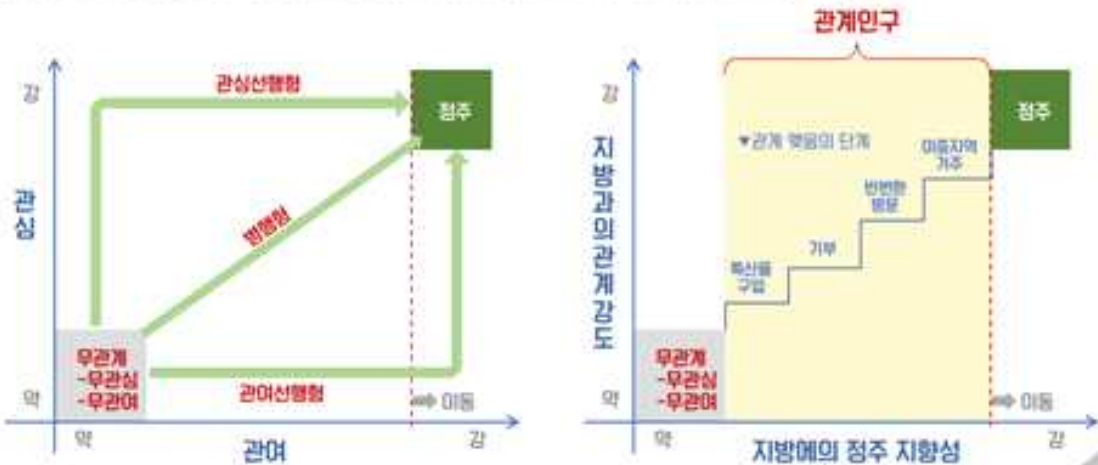
※ 출처 : 류영진(2020),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의 등장과 의미, 그리고 비판적 검토, 지역사회학, 21, 15-30

## 02 저출산 및 인구소멸 대응 사례\_ 일본

### 2) 관계인구의 등장과 대응 정책

#### ● 관계인구의 정의

- **관심과 관여라는 두 가지 축 설정**
- 완전한 무관심과 정주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인구층을 설정
- 관계인구의 층위는 매우 다양하고 그 층위 각각이 나름대로 지역에 기여하는 역할을 가짐



## 02 저출산 및 인구소멸 대응 사례\_ 일본

### 2) 관계인구의 등장과 대응 정책

#### ● 일본의 관계인구 정책

- 현재 일본에서 '관계인구' 개념은 지역활성화, 인구대책의 중요한 키워드로 취급
- 2018년, '관계인구의 창출을 위하여' 보고서 발표
- **정주인과 외부인이라는 이분법 탈피**
- 관계 인구의 다양한 층위를 상정함으로써 지역 정책의 다양성 제공
- 지역의 인구문제의 양이 아닌 질적 문제로 전환
- 지역에 호의를 가지고 있는 지역 외의 인재와의 지속적이고 복층적인 네트워크의 형성과 지역에 공헌하는 인재들의 지역과의 관계 지속이 중요  
→ **관계인구를 지역의 인재로 인식**
- 관계인구는 변화된 젊은 세대의 관심사와 가치관 등의 의식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부합한다는 의미를 가짐
  - \*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인들의 삶에 대한 가치관 전반의 큰 전환.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전향 회귀 가속화



출처: 국토교통부(2018. 9)

## 02 저출산 및 인구소멸 대응 사례\_ 일본

## 2) 관계인구의 등장과 대응 정책

● 대표사례\_ 고향세(후루사토 납세) 제도

- 자신이 지지하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의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
- 2017년 3조 6천억 원 이상의 기부금 기록하는 등 성공작 시행
- 반면, 지자체들의 기부금 확보 경쟁 심화, 기부자들이 답례품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 증가
- 지역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답례품과의 교환이 목적이 되는 부작용 발생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로 제한 규제 시행)
- 국내의 '고향사랑 기부제'의 모델이 된 사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03 관광을 통한 인구 유입 사례\_강원 양양군

### 1) 양양군 현황

● 양양군, '어촌'에서 '서핑의 성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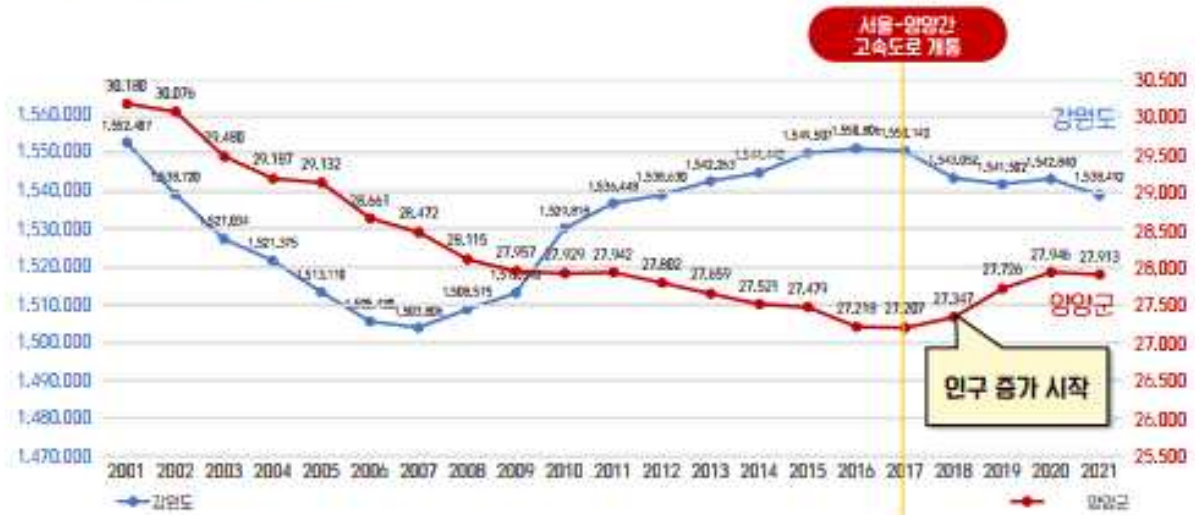
\* 출처 : 한국관광공사(2021). Feel the Rhythm of Korea - 김흥8연단



### 03 관광을 통한 인구 유입 사례\_강원 양양군

#### 1) 양양군 현황

#### ● 양양군 인구 변화 추이



### 03 관광을 통한 인구 유입 사례\_강원 양양군

#### 1) 양양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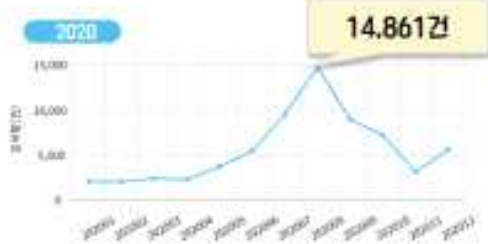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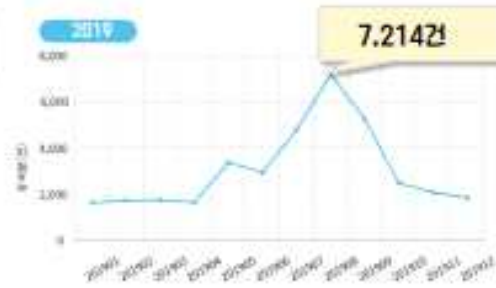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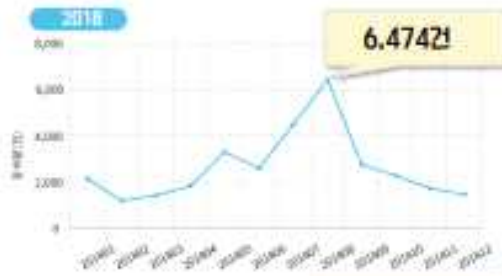
#### ● 양양군 관광객 수 추이



### 03 관광을 통한 인구 유입 사례\_강원 양양군

### 1) 망양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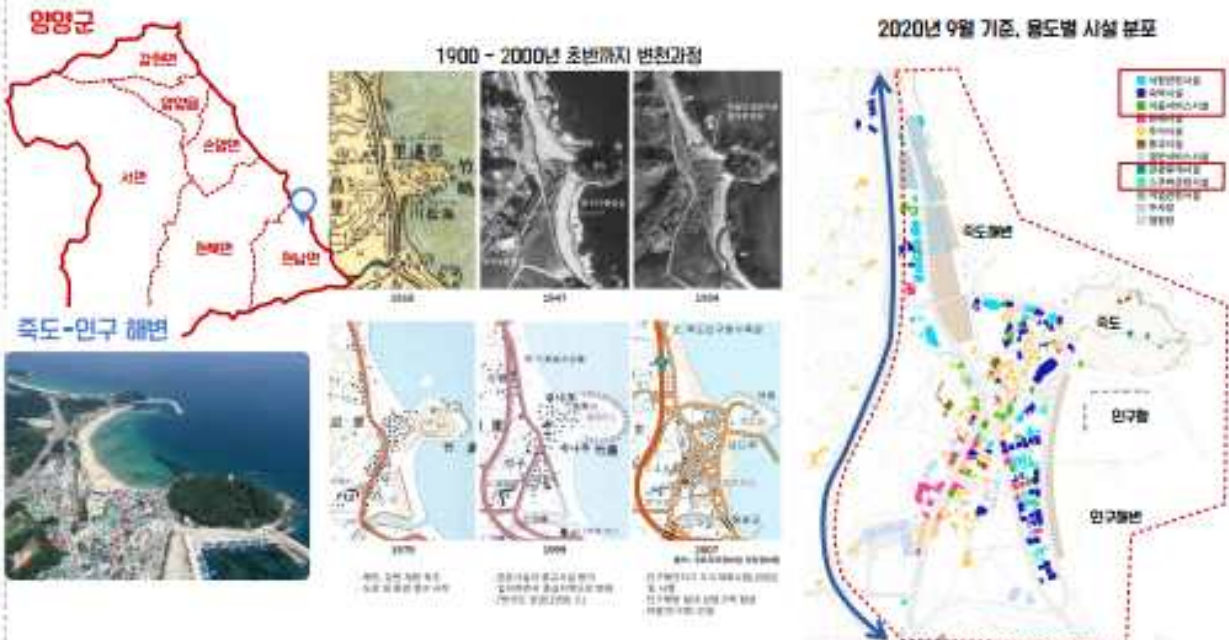
● **양양군 SNS 언급량**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SNS 언급량주요 국내 소비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서베이 해당 지역별 다른 관찰 관련 언급량 통계

### 03 관광을 통한 인구 유입 사례\_강원 양양군

## 2) 양양군의 변화 과정\*



●출처: 김경태(2021). *압박 자재 사용관리에 따른 결핵예방과 복성태 관련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03 관광을 통한 인구 유입 사례\_강원 양양군

#### 2 양양군의 변화 과정



### 03 관광을 통한 인구 유입 사례\_강원 양양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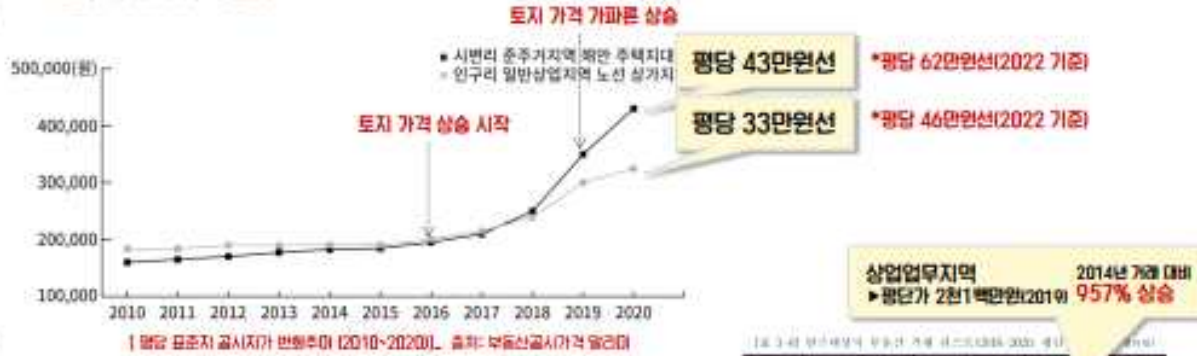
#### 2 양양군의 변화 과정



### 03 관광을 통한 인구 유입 사례\_강원 양양군

#### 2) 양양군의 변화 과정

##### ■ 인구리 토지 가격 변화



[표 3-4] 양양대형지 부동산 거래 실적(2019. 2020. 2021. 기준)

구분	종류	건수	면적(㎡)	가격(억 원)	가격(㎡당)	비고
상업업무지역	상업업무지역	20	1,200.0	2,100.0	1,750.0	957% 상승
	상업업무지역	10	600.0	1,050.0	1,750.0	
주거지역	주거지역	10	1,200.0	1,050.0	875.0	
	주거지역	10	1,200.0	1,050.0	875.0	
주거지역	주거지역	10	1,200.0	1,050.0	875.0	
	주거지역	10	1,200.0	1,050.0	875.0	
주거지역	주거지역	10	1,200.0	1,050.0	875.0	
	주거지역	10	1,200.0	1,050.0	875.0	
주거지역	주거지역	10	1,200.0	1,050.0	875.0	
	주거지역	10	1,200.0	1,050.0	875.0	

### 03 관광을 통한 인구 유입 사례\_강원 양양군

#### 3) 신규 이주민과 지역주민의 인식 비교

##### ● 신규 이주민의 인식\*

인터뷰 대상	성별	연령	출생 지역	양양 거주 기간
Interview 1	남성	30대	서울	1년
Interview 2	여성	40대	서울	1년
Interview 3	남성	50대	서울	1년
Interview 4	여성	60대	서울	1년
Interview 5	남성	70대	서울	1년



##### ✓ 정착의 계기

- 수도권과 가까운 거리, 서울-양양 고속도로로 인해 부산 재주를 이용했던 서민 인구 유입이 쉬울 것이라는 판단, 휴양에 대한 기존 인식이 없다는 점, 서민에 유리한 양질의 파도와 자연환경, 개발되지 않은 소박한 마을 풍경, 기존에 없던 정착할 수 있는 환경 등이 작용
- 관광지로 유명해진 이후 파도계 상업화되면서 서민 보다는 파티패를 등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이주 증가

##### ✓ 이주민 간 공동체 조직

- 서민관광지로 주목을 받자 서민문화발전과 서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 유입된 서민들이 스스로 자체 공동체 모임 조직 → 강원서민연합회 설립
- 양양서민페스티벌 개최, 비차별적인 행사 등을 진행하고 주체적으로 자치세이 할 수 있는 조직 구축

##### ✓ 원주민과의 협력 노력

- 정착 초기 마을 원주민과 적극적으로 교류 및 융화함으로써 정착 노력
- 마을 행사 참여, 이벤트 개최, 봉사활동, 지역 청소년 교육 등
- 원주민과의 신뢰 관계 형성을 통해 이주에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 가능



\*출처: 김정은(2021), 양양 지역 서민관광에 따른 정주여건과 특성화 관련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03 관광을 통한 인구 유입 사례\_강원 양양군

#### 3) 신규 이주민과 지역주민의 인식 비교

##### ● 신규 이주민의 인식

양양도 해운도	지역	이주 동기/이유	이주 시기	이주 인원
양양도 해운도	양양도 해운도	양양도 해운도	양양도 해운도	양양도 해운도
양양도 해운도	양양도 해운도	양양도 해운도	양양도 해운도	양양도 해운도
양양도 해운도	양양도 해운도	양양도 해운도	양양도 해운도	양양도 해운도
양양도 해운도	양양도 해운도	양양도 해운도	양양도 해운도	양양도 해운도
양양도 해운도	양양도 해운도	양양도 해운도	양양도 해운도	양양도 해운도



##### ✓ 행정의 적극적 지원 및 증대

- 정착 초기, 지역비리대안팀의 중재 역할 매우 중요. 정착인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필요 사항을 지자체에 잘 전달하고 조율하는 장구이자 사고 역할 수행으로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됨
- 상장하는 지역 관광 시장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프라 및 시설 지원 효과적

##### ✓ 관광 목적지로써 규모 확대

- 가파른 산 및 상설시설 확대. 캠핑과 서핑의 수요지 효과 등으로 지역 방문객(관광객)의 유형 다양화
- 마을 간부터 대형 호텔까지 유입할 수 있는 방문객 확대

##### ✓ 공동체적 활동 축소 및 이주민과 원주민 간의 관계 형성 한계

-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경쟁 심화로 기존 공동체 또한 기존 마을 공동체와의 소통 또는 참여 활동 감소
- 관광객과 마을 주민 간의 마을 및 공동체 발생

##### ✓ 젠트리피케이션과 자발적 이탈 발생

- 지역의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아이 양육 문제, 주거 문제 등으로 정착 1세대들의 이탈 발생
- 최초의 정착인들이 개발 가속화로 생계유지 어려워 부정적 문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필요



### 03 관광을 통한 인구 유입 사례\_강원 양양군

#### 3) 신규 이주민과 지역주민의 인식 비교

##### ● 지역 주민의 인식\*

Table 3 Characteristics of settlement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	10	10	10	10
2	10	10	10	10
3	10	10	10	10
4	10	10	10	10
5	10	10	10	10
6	10	10	10	10
7	10	10	10	10
8	10	10	10	10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0	10	10	10
12	10	10	10	10
13	10	10	10	10
14	10	10	10	10



##### \* '지역 발전'에 대한 양가적 인식

##### ✓ 마을 발전을 위한 유입한 기회

- 개발 초기 경제적 이익의 증가와 가파른 산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관광객들이 지역 발전의 유입한 기회**라는 인식
- 자자세가 적극적인 지역 개발 정책을 펼치면서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마을이 활성화됨
- 특히 고령화된 지역에서 관광개발로 인해 젊은 세대 유입이 늘어나면서 마을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실감
- 관광객들로 마을 자체가 상승하고 실용적인 수익 창출이 나타남(관광 및 판매업 등)



##### ✓ 기존 원주민의 이주와 공동체적 장소성의 상실

- 개발이 본격 진행되면서 신규 유입층이 기존 원주민이 하던 숙박 및 요식업 등에 진출하자 기존 원주민들이 장광에서 밀려나 수익이 감소하는 상황 발생. 즉 기존 상권이 신규 상권에서 밀려나고 대대적
- 새로 조성되는 시설들은 주로 관광객 대상의 시설들이라 실제로 기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시설이 부족
- 마을의 변화, 특히 부동산 가격 및 물가가 높아지면서 아예 자취를 하지 못하는 기존 원주민들이 마을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 → 기존 원주민들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이주 발생
- 마을 주민들 간의 공동체 공간이 사라지고 추억이 장소가 사라지는 등 고유한 마을의 장소성 상실 발생

\* 출처: 김현중, 권순영(2019), 노년층 스포츠관광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지역발전의 양가적 의미, 한국지역학회지, 58(4), 113-126.



## 03 관광을 통한 인구 유입 사례\_강원 양양군

## 3) 신규 미주민과 지역주민의 인식 비교

## • 지역 주민의 인식

Table 3.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구분	성별	연령	직업	주거형태
1	남	35	농업	단독주택
2	남	35	농업	단독주택
3	남	35	농업	단독주택
4	남	35	농업	단독주택
5	남	35	농업	단독주택
6	남	35	농업	단독주택
7	남	35	농업	단독주택
8	남	35	농업	단독주택
9	남	35	농업	단독주택
10	남	35	농업	단독주택
11	남	35	농업	단독주택
12	남	35	농업	단독주택
13	남	35	농업	단독주택
14	남	35	농업	단독주택



## '인구 유입'에 대한 양가적 인식

## ✓ 인구 유입으로 지역의 지속가능성 증대

- 관광개발로 인해 외지인의 유입 증가
- 지역 내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인구 유입은 지역 내 노동력의 확보와 경제를 활로에 기여
- 즉, 지역 인구 문제는 지역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관광 개발로 인한 신규 인구 유입은 지역 소멸을 막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



## ✓ 이주민과 원주민간의 공동체 형성 미흡

- 기존 마을 내 농어업에 필요한 신규 노동력이 확보된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주로 서점 등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이주민들이 정착함으로써 실제 기존 마을 산업과 공동체에 직접적인 기여 부족
- 공동체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기존 원주민과 재민주적 가치관을 가진 외지인 간의 생활양식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발생
- 인구 증가에는 긍정적이지 않으나 기존 마을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 기존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에 소홀한 지역 공동체 미흡

“...(중략)이분들이 우리 마을에 사는 자지, 그들은 진짜 지역주민은 아니니까.”

## 04 관광과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 탐색

## • 지방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관광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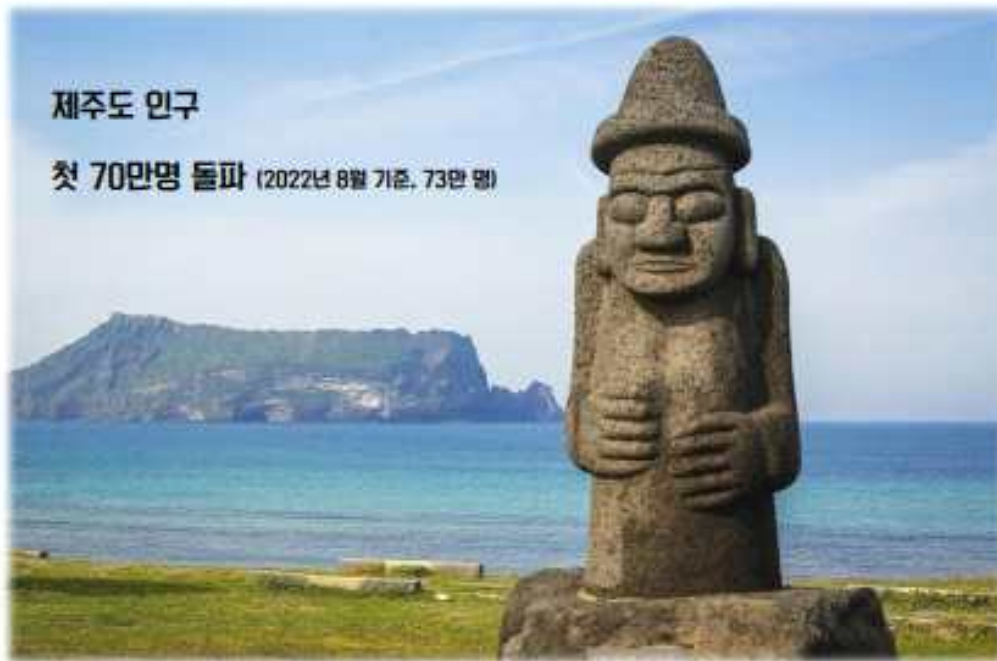
- 한국관광공사(2022년 6월)는 인구감소지역 대상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비 감소액에 대한 관광대체 소비규모 분석 결과 발표

## ◇ 분석 방법

- 한국관광 데이터랩 구축을 통해 수집한 2개 신용카드사(BC, 신한)의 개인 소비데이터 + 공공데이터(한국은행, 통계청, 국민여행조사) 통합 분석
  - ① 지자체 주민 1인당 총 소비액(지역 내 소비액 + 지역 외 소비액) 추정 산출
  - ② 인구감소지역 인구 1인 감소에 따라 소실되는 지역 내 소비액의 관광 대체 소비 목표를 국민여행조사의 숙박 및 당일 관광객을 기준으로 도출
- 인구감소 1명의 소비액과 대체를 위해 도시 규모에 따라, 1년 간 숙박여행객 18명 + 당일 여행객 55명 ~ 숙박객 6명 + 당일 여행객 14명 규모 까지 필요
- 해당 분석결과는 지자체의 '관광을 통한 인구감소 해법 찾기'의 타당성 제시



## 04 관광과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 탐색



## 04 관광과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 탐색

• 관광과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는?





“ 관광 = 지역 성장의 마중물 ”

감사합니다



#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음식축제 활성화 방안

박희경\*, 전수진\*\*, 황조혜\*\*\*

경희대학교 조리외식경영학과 박사과정\*,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원 박사과정\*\*,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교수\*\*\*

## 논문요약

음식축제는 지역의 차별화된 정체성과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시켜 줄 수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지역브랜딩은 경제, 사회문화, 교육 분야로 파급효과를 일으켜 지역발전을 가능하게 해준다. 본 연구는 한국 음식축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음식축제의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음식축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컨셉이 명확하고 차별성이 존재하는 해외 음식축제 사례를 전통과 음식문화 기반(옥토버페스트, 토마티나, 망통 레몬축제), 세계수도 기반(테이스트 오브 파리, 테이스트 오브 런던, 마드리드 퓨전), 지역주민참여 기반(메구로 구민 축제, 모찌츠키 축제), 특산물 기반(시모노세키 복어축제, 골웨이 굴축제)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지속가능한 음식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친화적인 축제를 기획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포용적인 축제여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이 축제의 주체가 되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음식을 매개로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힐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음식을 통해 치유와 웰니스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유의 주제를 찾고 위와 같은 요건을 포함하여 차별적 정체성을 주는 음식축제를 개발해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지역발전, 음식축제, 지속가능성, 지역이미지, 지역브랜딩

## I. 서론

음식은 관광지의 매력도와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음식은 특정 지역과 문화를 표현하며 이는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목적지를 차별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Lee & Arcodia, 2011). 따라서 지역마다 고유의 음식문화나 식재료를 다룬 다양한 형태의 음식축제가 지역음식의 상품화를 위해 도입되고 있다(Ahn & Kim, 2009).

음식축제는 해산물, 육류, 채소, 특별한 요리 또는 와인, 맥주를 중심으로 구축된 축제로 전 세계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Blichfeldt & Halkier, 2014).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축제는 총 844개였고, 2022년에는 총 944개로 약 12%가 증가하였다. 그 중 특산물로 구분된 음식 테마 축제는 254개가 계획되었다. 그러나 특산물로 구분된 축제 외에도 일반축제에서도 음식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음식을 포함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2022). 하지만 단순히 음식이 포함된 축제를 음식 축제로 분류할 수는 없다. 음식축제는 지역 특산물이 무엇인지를 조명하는 음식을 기반으로 하

거나 음식을 주제로 한 활동과 프로그램이 있는 음식 테마 축제이다(Everett & Aitchison, 2007; Lee & Arcodia, 2011). 예를 들어, 해외의 대표 음식축제는 옥토버페스트, 토마티나, 테이스트 오브 파리 등이 있고,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축제는 제주 푸드앤와인페스티벌, 전주 비빔밥축제, 남도 음식문화큰잔치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음식을 테마로 한 축제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까? 음식축제는 지역의 관광개발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향토음식과 지역의 명소를 홍보하기 위해 효과적이며 이는 긍정적인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브랜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음식축제의 프로그램이 독특하거나 재밌으면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향후 축제에 재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음식축제가 기존의 지역 브랜드와 일치하지 않거나 관광 목적으로만 사용되거나 축제 프로그램에 차별성이 없다면 사람들은 축제를 지루하게 생각하여 지역브랜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Arcodia, 2011). 한국의 경우, 전통적인 축제는 지역주민들이 축제를 주도했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나 근래에는 지자체에서 축제를 주도하게 되면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비교적 소극적으로 변하였다. 실제로 많은 축제는 지역의 고유성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만들어졌고, 축제의 수와 규모만 대형화하여 부작용이 생겼다(부숙진, 200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한국 음식축제의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음식축제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음식축제는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음식축제는 지역 특산물과 식재료를 사용하여 지역농가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어 1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이러한 지역 특산물과 식재료를 사용한 식품제조 및 판매와 문화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2·3차 산업에도 기여한다. 나아가 1·2·3차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6차 산업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외 음식축제 사례를 통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음식축제에 관한 통합적인 연구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음식축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음식축제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한국 음식축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식축제의 역할과 지역브랜딩을 위한 음식축제를 알아보고, 한국 음식축제에 대한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해외 음식축제의 사례를 분석하여 각 음식축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분석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음식축제의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음식축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음식축제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지역발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및 지속가능하고 글로벌한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음식축제의 역할과 현황

### 1. 음식축제의 의미와 역할

축제를 나타내는 단어인 페스티벌(festival)은 라틴어 ‘Festus’의 종교적인 의미와

‘Ferien’의 일을 쉬는 날의 의미가 합쳐져 ‘일을 하지 않고 종교적인 의식에 들어가는 날’의 뜻을 가진다. 한국의 축제란 단어도 ‘경사스러운 날’과 ‘제사 드리는 날’의 합성어로 ‘축하하여 별이는 큰 규모의 행사’라고 정의한다. 이처럼 축제의 본 의미는 종교적 제의에서 출발했으나 현대의 축제는 놀이나 여가의 의미가 더해져 지역의 모든 상징적 문화행위를 담고 있다(김창수 외 2016). 특히 지역축제는 전통, 매력도, 개최지 이미지, 홍보적인 측면에서 개최지의 중대한 파급효과와 경쟁력을 가지는 이벤트이다(Getz, 1991). 따라서 축제는 지역발전의 공유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짧은 시간 내에 방문객들에게 전달하고, 지역의 이미지와 실태를 표현하는 무대이다(안혜원·이민규, 2009).

음식은 한나라의 문화로서 관광시장의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농촌지역의 주요 관심 분야이기도 하다. 음식이나 식품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관광지의 매력성도 높여준다(Handszuh, 2000; Lee & Arcodia, 2011). 이에 음식축제는 관광객들에게 현지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여가, 사교, 문화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지역관광발전에 도움을 준다(Bruwer, 2002; Nicholson & Pearce, 2001). 음식축제가 가지는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식축제의 주제와 성격이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방문객이나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이성희, 2010). 축제 안에는 엔터테인먼트적인 프로그램(음악, 공연, 불꽃놀이)과 교육적인 프로그램(쿠킹쇼, 워크숍) 등이 있고, 어린이를 위한 체험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Wan & Chan, 2013). 특히 음식축제는 유명 셰프의 시연을 관찰하면서 요리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사용한 식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Organ et al., 2015).

둘째, 음식축제를 통해 지역이미지와 지역브랜드를 형성할 수 있다. 음식축제에 방문한 방문객들은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체험하고, 학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지역음식이나 축제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이는 향후 지역에 재방문과 추천의도로 이어질 수 있다(Axelsen & Swan, 2010). 따라서 음식축제는 지역의 식문화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하는 요소이다(이성희, 2010).

셋째, 음식축제는 지역 특산물, 음식, 가공식품 등을 상품화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Axelsen & Swan, 2010). 음식축제 방문객들은 지역특산음식을 구매하는 것에 가치를 느끼고 좋아하며 향후 축제기간이 아니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나타났다(손선미, 2015). 이는 지역의 산업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고,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또한, 음식축제를 통해 타 업종과의 교류가 가능해져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될 기회도 제공한다(이성희, 2010).

넷째, 음식축제는 대부분 건강에 해로운 음식보다는 건강에 좋은 음식, 특히 유기농과 같은 식품의 소비를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어(Guptill & Wilkins, 2002) 이는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생산방법을 보존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에 기여할 수 있다(O’Sullivan & Jackson, 2002). 어린이들에게는 음식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향후 음식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추억과 경험을 제공한다(Coakley, 2003). 따라서 음식축제를 경험한 소비자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더 나은 지역 생산 식품을 소비할 수 있다.

다섯째, 음식축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한다. 지역주민들은 음식축제가 자신의 지역에서 열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그 결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게 한다(이성희, 2010).

여섯째, 음식축제는 친구, 연인, 동료, 가족과 함께하며 사교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음식축제 방문객의 대부분은 혼자가 아닌 동반인과 함께 축제를 방문했고, 이는 사교적인 방문객에게는 가장 중요한 축제의 혜택이다(Meretse et al., 2016).

위와 같은 음식축제의 역할을 경제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교육적 효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으로는 방문객의 지출효과와 소득효과 및 고용효과가 발생한다(Getz, 1991). 음식축제 방문객들은 축제에 대한 직접 지출, 숙박비, 교통비, 식비, 특산품 구매 등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또한, 지역음식이 타 업종과의 교류가 가능해져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될 기회로도 활용되고, 고용창출효과도 유발한다. 사회문화적 효과로는 음식축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을 가지게 되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지역 또는 국가간 상호협력을 통해 문화교류를 활성화한다. 또한, 음식축제는 지역의 식문화적 이미지를 고양시켜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한다. 교육적 효과로는 음식축제의 주제나 성격이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방문객이나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미래의 잠재적인 문화인을 육성하는 효과도 있다(이성희, 2010).

이와 같이 음식축제는 문화관광 시장의 중요한 부분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음식축제를 통해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브랜드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브랜딩을 위한 음식축제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 2. 지역브랜딩을 위한 음식축제

장소는 구체적인 사물들로 구성된 총체성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지역성과 연관되고, 구체적인 사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장소에 특성과 분위기를 부여한다(김창수 외, 2016). 또한, 장소는 인간의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인 동시에 인간이 경험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적인 대상이다. 그러나 장소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인위적으로 형성되거나 변화될 수도 있다. 모든 장소가 고유한 장소성을 가질 수 없고, 특히 소도시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장소성이 낮을 수 있어 지역개발에서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축제를 통해 잠재된 장소성을 일깨워 내거나 아예 새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하였다(백선희, 2005). 이에 장소를 마케팅하는 것은 현재 또는 잠재적인 주민·투자자·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모호성이 높았던 특정 장소의 이미지를 새로운 특색 있는 이미지로 구성하여 특정 장소를 가꾸고 이를 홍보하는 것이다(김창수 외, 2016). 따라서 장소의 속성과 경쟁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한 후 장소마케팅에 적용하여야 한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타 지역과의 차별화와 경쟁적 우위에 서기 위한 전략으로 브랜드를 개발한다. 이는 브랜드 개념을 장소 또는 공간 개념과 연계시켜 관광이나 지역개발영역에서 다루고 있다(김창수 외, 2016). 따라서 장소브랜딩은 관광객, 방문자, 투자자, 거주자, 자원 등의 사이에서 자신을 위치시키기 위한 도시, 지역, 국가, 관광지의 노력을 의미한다(Avraham & Ketter, 2008). 즉, 국가브랜드는 여러 하위 지역브랜드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어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도 강력하고 긍정적인 브랜딩 구축을 해야 한다(Crockett & Wood, 1999).

지역브랜딩의 핵심은 지역브랜드 이미지 형성으로(Qu, Kim & Im, 2011) 마케터는 해당 지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해야한다(Boo et al., 2009). 즉, 지역브랜딩을

위해서는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따라 하기 쉽지 않은 독특함이 있어야 한다(Buhalis, 2000). 이에 음식은 긴 역사 속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어 온 민족 특유의 문화적 유산으로 각 나라와 지역의 문화를 대변할 수 있고 관광객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다(이영주, 2008; 김장호, 2012). 즉, 음식은 국가브랜드 및 이미지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문화콘텐츠이다(UNWTO, 2012). 결국 음식으로 지역을 브랜딩하는 목적은 관광객이 목적지의 음식 이미지로 인해 의도적으로 그 지역을 방문하게 만드는 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식하는 것이다(Yang et al., 2020). 따라서 음식축제는 지역의 관광개발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해당 지역의 브랜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 뮌헨 옥토버페스트, 프랑스 망통 레몬축제, 횡성 한우축제, 임실 치즈축제, 영덕 대게축제 등은 지역특산물축제로 특산물로 지역이미지를 홍보한 지역브랜딩의 좋은 예시이다.

그러나 기존의 관광지 브랜드와 일치하지 않거나 관광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일부 음식축제 또는 소규모 축제는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축제의 지속성, 방문객 수, 정부 지원 및 후원, 언론 보도와 같은 조건이 수행되어야 지역브랜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Lee & Arcodia, 2011). 그렇기 때문에 음식축제는 지역 관광개발 및 지역이미지 형성을 위한 지역만의 테마를 제공하여 지역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뿐만 아니라 음식관광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한다(Smith et al., 2010). 그러므로 한국 음식축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음식축제가 개최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 3. 한국 음식축제의 현황

문화부의 음식관광 관련 정책은 1999년부터 시작되었고, 2004년부터는 전통음식 관광상품화를 추진하고, 2009년부터는 외래관광객을 위한 음식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농림축산식품부, 2014). 정부의 음식관련 정책들은 주로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추진해오고 있다. 음식관광상품개발, 음식축제 및 조리경연대회 등은 문화관광국에서 우수음식점지정 및 운영, 음식위생지원, 지역음식축제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향토음식자원화 사업 및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중심의 정책은 농림축산식품국에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음식은 지역관광자원 중 하나로 농촌관광이나 일반관광 정책과 연계된 정책이나 사업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이에 음식관광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 관광두레는 지역주민들이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관광산업체를 창업하고 경영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으며(한국관광공사), 외국인 대상 한식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매년 진행하며 한국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한식진흥원). 지자체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외식정보 플랫폼을 조성하여 음식점의 정보와 다국어 메뉴판 번역 지원 등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경상남도, 부산, 서울 등에서 레드테이블과 협업하여 스마트 음식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2). 또한, 부산은 글로벌 미식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UNWTO와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마케팅 전략 수립과 현업 전문가로 구성된 미식관광도시 컨설팅 위원단을 구성, 미식페스티벌 개최 등을 기획하고 있다(부산제일경제, 2022). 또한,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으로 로컬푸드 및 공간 브랜드 그리고 로컬 활성화 거리 지정을 통해 골목 경제 활성화 투자 연계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부산광역시, 2022). 이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음식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음식축제는 음식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음식축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사계절 내내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연기·취소되었던 지역축제들이 대면으로 개최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의 축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5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1995년 이전 축제는 191개에 불과했고 199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축제가 생기기 시작하여 938개로 크게 증가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이후 많아진 축제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996년을 시작으로 10년 주기로 한국지역축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 자료에 의하면, 개최된 지역축제 수는 1,214개이며 총 예산은 2,914억원, 총 방문객은 1억 3,125명으로 집계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개최 월은 9월~10월인 가을에 가장 많았으며 축제 개최 목적은 문화예술향유, 주민화합, 지역상품판매, 전통민속보존, 관광이벤트 순으로 나타났다. 축제 소재는 자연경관·관광지 및 지역명소, 특산물·농수산물·식품·약재, 문화예술 순으로 많았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2022년 계획된 정부지원 축제는 총 944개이며 그 중 특산물로 구분된 축제는 254개이다. 그러나 이는 2일 이상 개최되는 축제만 대상으로 조사하여 하루만 진행되는 소규모 축제는 제외되었고, 문화예술, 주민화합, 문화관광으로 분류된 축제에서도 음식이나 음료를 콘텐츠로 하는 축제가 있어 결과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음식축제가 개최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축제 3가지를 소개하자면, 첫째,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미식축제로 해외 및 국내 유명 셰프들도 참여하는 축제이다. 2022년에 7회를 맞이하며 제주도의 식재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한국의 맛과 멋을 선보인다. 둘째, ‘전주비빔밥축제’는 향토음식을 소재로 하여 전주한옥마을에서 비빔밥을 통해 한국문화를 잘 보여주는 축제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다. 마지막으로, 남도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축제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남도음식의 명인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1994년에 처음 개최하여 2022년에는 28회째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진행되는 다양한 수천 개의 축제 중에 잘 알려진 축제는 그 중 소수에 불과하며, 무분별한 축제 개최로 인해 여러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축제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축제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성은 낮다고 하였다. 중복적인 주제의 지역축제를 유치·개최하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의 축제 적자가 급증하였고, 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이장욱, 2019).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 행사·축제 15,240여 건 중 1천만원의 미만의 수익을 낸 축제는 6,850건(44.9%)으로 상당수를 차지하며, 이는 낭비성이 크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10대 분야 중 행사·축제를 선정하였고, 축제의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축제예산총액한도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행사와 축제를 운용하고, 민간위원회가 행사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통해 당초 행사·축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 행사·축제는 통폐합할 수 있는 제도이다(행정안전부, 2016).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한국 축제들의 콘텐츠는 큰 차이 없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차별성이 떨어진다. 즉, 유사한 콘텐츠 및 축제의 주제와 부합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방문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축제의 개최 취지는 삶의

질 향상, 문화 향유 증진, 공동체 의식 고취, 전통문화 계승,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체성이 모호한 전시성 행사로 보여진다(서은아·김영재, 2022). 특히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이 아닌 성공한 축제를 벤치마킹하여 그대로 따라 하여 개최하는 축제는 경쟁력 있는 축제를 구축하기 어렵다. 또한, 축제 참가자 수로 축제의 성공이라고 착각하거나 지역 경제 파급효과에만 집중한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있어 방문객의 만족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매일신문, 2022). 따라서 지역문화의 본질적인 의미를 도출하고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을 강조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그 지역만이 가지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사건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면서 현 시대에 부여하는 의미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강현식·최규환, 2020).

둘째, 한국 축제들은 대부분 공공기관의 주도로 운영되어 민간,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참여가 부족하다.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 축제를 기획하고 담당하는데 이는 공무원의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내부 축제 전문 인력의 양성이 어렵고, 시장이나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축제의 성격이나 예산 규모가 달라져 지속가능한 축제로 이어지지 않는다. 전체 축제 중 기관 예산이 포함된 축제는 96.4%로 대부분 기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이며, 민간주도형 축제는 3.3%에 불과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따라서 기관 주도가 아닌 민간,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한다(서은아·김영재, 2022). 특히 음식관광분야 축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민 주도로 축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축제의 주인은 지역주민이라는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편익이 커질수록 주민참여를 유인할 수 있다고 하였고, 주민들이 어려움 없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여 축제 개최 이후에도 주민들과 함께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김동한, 2018). 일본의 경우, 마츠리는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살린 축제로 지역 청년회 또는 지역 상공회의소가 주도하여 만든다(김춘식·남지호, 2012). 또한, 지역별로 의상, 소품 등을 특색있게 준비하고 마츠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다. 이는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주일한국대사관, 2015).

셋째, 한국 축제들은 기획력이 약하고, 지역별로 급증하는 축제 수에 대한 관리 부재가 지역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킨다(이장욱, 2019). 이는 축제의 품질에 문제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축제 방문객들에게 시각적, 감성적, 행동적 자극을 줄 수 있고,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 축제의 성공적인 사례로 세계 주요 와인 페스티벌인 보르도 와인축제(Bordeaux Fête le Vin)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 음악 축제인 잇!브뤼셀(eat! BRUSSELS)과 협업하여 브뤼셀의 식문화와 보르도 와인을 한 장소에서 맛볼 수 있다. 홍콩 와인앤다인페스티벌도 와인 생산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르도 와인 페스티벌과 협력을 통해 큰 음식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최인섭·정강환, 2016). 즉, 음식축제라고 해당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음식이나 음료만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닌 축제의 요소로 부족한 부분을 다른 곳과 협업하여 더 풍요로운 축제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과 국가의 강점을 협력한 축제 상품을 기획하여 진행한다면 글로벌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관광산업의 혁신 생태계 강화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환경 조성 및 다양한 주체 간 협업 요소 강화를 통해 타 산업분야와의 융복합화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R&D를 통한 혁신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지난

10년간 정부의 R&D 과제 중 외식분야는 0.2%에 불과하며(농림축산식품부, 2022), 관광기업의 연구개발 활동도 미미한 수준으로 외식 및 관광분야에 대한 R&D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음식축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한국 축제들의 환경적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보니 쓰레기양이 증가하고, 무분별한 일회용기 사용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2022년 한강달빛야시장은 4만~5만명의 사람이 몰리는 축제인데 행사장에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분리수거 장소는 단 두 곳 뿐이었다. 쓰레기를 버리는 데만 10~15분 줄을 서서 기다리다보니 쓰레기를 아무 곳이나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생겼다. 보통 반포공원 쓰레기가 1주일에 5~6톤 정도 나왔는데 야시장 개최 하루만에 8톤의 쓰레기가 나왔다(조선일보, 2022). 이는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친환경 축제를 위한 계획과 환경문제 대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한국의 음식축제는 지역의 경제발전만을 위해 산발적으로 축제를 실시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지역축제의 개발과 운영이 미흡하다(이성희, 2010). 따라서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한 음식축제를 만들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해외 음식축제를 전통과 음식문화 기반, 세계수도 기반, 지역주민참여 기반, 특산물 기반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 III. 해외 음식축제 사례분석

#### 1. 전통과 음식문화 기반 음식축제 사례

##### (1)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

옥토버페스트는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맥주축제이다. 독일 뮌헨 테레지엔 비제에서 매년 9월 말~ 10월 초에 개최되며 매년 600~700만명이 방문한다. 축제기간 16일 동안 맥주 소비량은 1리터짜리 550만잔에 달하고, 축제의 경제적 효과는 약 1조원에 달한다. 옥토버페스트는 1810년 바이에른 왕세자 루트비히의 결혼식 축하행사로 열렸던 승마대회에서 유래되었다. 옥토버페스트의 축제장은 126만평의 면적으로 14개의 맥주회사가 대형천막을 치고 뮌헨 전통양조장의 맥주만 판매한다. 축제의 볼거리로는 전통의상을 입은 종업원들이 맥주를 서빙하고, 전통의상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민속음악에 맞춰 퍼레이드를 연출한다. 이외에도 아이들을 위한 회전목마, 대관람차 등의 놀이동산 시설과 축제장 곳곳에 기념품, 간식 등을 파는 상점들이 있다. 또한, 1991년부터 친환경 규제를 실시하여 일회용 그릇과 컵 및 포크와 나이프 사용 금지, 캔 음료 판매 전면 금지 등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200년 넘게 축제를 지속할 수 있었던 옥토버페스트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보면, 첫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이면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높은 축제이다. 방문객의 10%는 타국에서 온 사람이며, 90%가 독일 내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둘째, 주최측은 장소만 제공해주고 각 맥주회사가 알아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이로 인해 주최측은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축제를 운영할 수 있다. 셋째, 입주업체의 선정은 공개성과 증명성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



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업체순으로 선정한다. 투명한 선정방법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주최측과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 줄여준다. 넷째, 친환경적 축제를 위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쓰레기 배출량이 무려 40%나 감소하였다. 다섯째, 뮌헨시 행정당국에서는 행사장 임대를 통해 이익을 남기기보다 임대료를 낮추어 주려고 노력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맥주를 즐길 수 있게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방문하고 시 전체에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전략이다(김춘식·남지호, 2012).

## (2) 토마티나(Tomatina)

토마티나는 스페인의 작은 마을인 부놀(Bunol) 지방에서 열리는 토마토축제이다. 1945년 부놀에서 열린 민속축제에서 젊은이들이 부패한 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길거리 좌판에 있는 과일 채소를 던지면서 싸움을 벌였고, 다음 해에 집에서 토마토를 가지고 나와 토마토를 던지며 싸운 게 유래되어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에는 토마토를 던지며 즐기는 축제로 발전하였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토마토 파이트는 정오에 시작하여 1~2시간동안 서로에게 토마토를 던지면서 싸움을 즐긴다.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토마토 파이트도 따로 진행된다. 2015년 기준 거의 145,000kg의 토마토가 축제에 사용되면서 일각에선 토마토 낭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토마티나에서 사용하는 토마토는 품질이 낮아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다. 또한, 2002년 관광청사무국에서 국제 관심 축제로 선정하면서 관광객들이 더 몰리게 되었고, 2013년부터는 유료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로 제한하여 축제를 이어가고 있다.

토마티나도 옥토버페스트처럼 전통과 문화가 담긴 음식축제로 자리 잡았고, 작은 마을이지만 40,000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정도의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다. 이에 토마티나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보면, 첫째, 토마토라는 주제가 독특하고, 토마토의 강한 빨간 컬러와 비주얼로 인해 축제의 상징성이 뚜렷하다. 둘째, 매년 약속한 날짜(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와 시간에 시작하는 순환성 축제로 관람객들은 미리 계획할 수 있다. 셋째, 시위문화를 축제로 승화하였다. 토마티나는 계획된 축제가 아닌 주민들에 의해 시작된 축제인 만큼 철저하게 축제를 즐기려는 데 목적이 있다. 토마토를 서로에게 던지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신나게 놀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놀이로 연결했다는 점이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류정아 외, 2003).

## (3) 망통 레몬축제(La Fête du Citron)

망통은 프랑스 니스에서 동쪽으로 28km 떨어져 있는 해안도시로 자연적 조건으로 인해 예로부터 달콤한 오렌지와 강렬한 신맛을 내는 레몬으로 유명하다. 망통의 레몬축제의 유래는 1895년에 호텔업주들이 비수기인 겨울철에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카니발 퍼레이드를 벌였고, 1929년에는 한 숙박업자가 리비에라 호텔 정원에 꽃과 레몬 전시를 제안했고 이는 호응을 얻어 이듬해에도 이어지면서 축제가 발전하게 되었다. 매년 2월에 개최되는 망통 레몬축제는 레몬과 오렌지로 조형물을 만들어 전시하고, 퍼레이드를 벌이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지역 특산물 축제로, 축제에는 주민의 10배에 해당하는 30만명이 방문한다. 망통 레몬축제는 매년 축제의 주제를 어린이들도 좋아하는 동화로 정하면서 동화 속 모습을 레몬과 오렌지로 구조물을 만들

어 전시한다. 축제 퍼레이드는 금빛 과일행렬로 해안도로를 따라 오렌지와 레몬으로 만든 조형물을 트럭에 싣고 행진하며 낮뿐만 아니라 야간 퍼레이드도 진행한다. 축제측은 조형물 전시회의 입장료와 거리 퍼레이드의 입장료를 징수하며 재정수입을 극대화한다. 축제에 사용되는 과일들은 망가지거나 상하게 되면 수시로 교체해주며 축제가 끝나면 상태가 좋은 과일은 판매되어지고 나머지는 잼이나 시럽 등 가공식품을 만드는 곳에 팔린다. 또한, 니스 카니발축제와 같은 시기에 개최하여 카니발축제를 구경 온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망통도 찾아온다.

망통 레몬축제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보면, 첫째, 훌륭한 아이디어, 지역의 특산물, 상징성의 조화를 잘 이루었기 때문이다. 방문객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독특한 컨셉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레몬의 노란색 이미지, 상큼한 느낌, 지중해 정원의 향내 등을 연상시켜 축제 이미지를 만들었다. 둘째, 동화 속 재미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이를 시각화했기 때문에 누구나 축제의 스토리텔링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휴양지라 지리적 위치가 좋고, 인접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축제를 개최하여 이는 서로 연결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다(김춘식·남지호, 2012).

## 2. 세계수도 기반 음식축제 사례

### (1) 테이스트 오브 파리(Taste of Paris)

테이스트 오브 파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미식 페스티벌이다. 에펠탑을 마주보고 있는 장소에서 열리는 축제로 파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유명한 셰프들의 팝업레스토랑을 운영하여 미쉐린 레스토랑과 유명한 레스토랑의 음식을 한 공간에서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축제 프로그램으로는 셰프가 선보이는 라이브 쿠킹쇼, 셰프 워크샵, 컨퍼런스, 마스터 클래스 등이 있다. 고메 마켓(Gourmet Market)에서는 프랑스 전역의 훌륭한 식재료인 캐비어, 보타르가, 올리브 오일, 와인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즉, 테이스트 오브 파리는 미식의 나라답게 프랑스 식재료들을 주로 사용하여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프렌치 요리를 선보인다.

테이스트 오브 파리의 특징은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 근처에서 축제가 개최되어 파리의 상징성을 나타낸다. 프랑스의 유명 셰프들의 요리를 맛보며 그들과 소통할 수 있고, 다양한 프랑스 지역의 식재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방문객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고급 음식을 즐길 수 있고, 음식뿐만 아니라 디저트, 와인도 모두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다.

### (2) 테이스트 오브 런던(Taste of London)

테이스트 오브 런던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미식 페스티벌이다. 이 곳 역시 유명한 셰프들이 초청되어 진행되는 팝업 레스토랑에는 이탈리아, 중식, 일식, 인도식 등 다양한 세계요리를 맛볼 수 있다. 축제 프로그램으로는 싱글들이 모여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며 데이트 매이트를 찾는 파티와 같이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숯불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는 특별 부스, 스무디 클래스, 칵테일 클래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테이스트 오브 런던의 특징은 영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고 다양한 세계 요리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다. 테이스트 오브 파리와 비슷한 테마의 음식축제이지만 두 지역축

제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영국은 영국만의 로컬 음식 이미지가 강하지 않아,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을 포함하여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프랑스는 프렌치 요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테이스트 오브 런던의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사교적인 문화 프로그램이 많은 반면, 테이스트 오브 파리는 음식을 중심으로 한 미식 프로그램이 많은 편이다.

### (3) 마드리드 퓨전(Madrid Fusion)

미식의 나라로 알려진 스페인의 마드리드 지역에서도 매년 마드리드 퓨전이라는 미식축제가 개최된다. 마드리드 퓨전은 매년 주빈국을 선정해 그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데, 대표적으로 멕시코(2006년), 일본(2007년), 중국(2008년), 호주(2010년), 싱가포르(2011년), 한국(2012년, 2015년)이 주빈국으로 참여하였다. 한국은 2012년에 이어 2015년에도 초청되었으며 한국의 발효음식과 사찰음식 등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자리를 가졌다. 마드리드 퓨전은 하루에 50개가 넘는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유명 셰프들의 쿠킹쇼를 통해 세계적인 셰프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의 요리철학과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와인 워크샵과 와인 테이스팅 룸에서는 빈야드, 와인 트렌드, 새로운 페어링방법 등을 강연하기도 한다. 또한, 창작 요리대회도 개최되고, 축제 기간에 같이 열리는 드링크쇼도 구경할 수 있어 볼거리가 더욱 풍부하다.

마드리드 퓨전에서는 식재료와 조리법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분자요리, 특수요리)와 음식 트렌드를 접할 수 있다. 스페인은 적극적으로 요리에 새로운 시도를 적용하여 요리 트렌드를 이끌어 가고 있어 다른 미식축제와 외식박람회보다 영향력이 크다. 테이스트 오브 파리와 런던의 음식축제와 다른 점은 매년 주빈국을 선정하여 그 나라의 음식문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세계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3. 지역주민참여 기반 음식축제 사례

### (1) 메구로 구민축제(目黒区民まつり)

일본 축제인 마츠리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일본 도쿄 메구로 구에서는 쇼와 52년(1977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가을에 메구로 구민축제를 개최한다. 구민축제답게 구민으로 조직된 실행위원회가 축제를 담당하고 구로부터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실행위원회는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구내상가, 청소년위원회, 스포츠 추진위원회, 학교 PTA, 청년회의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되어 있다. 메구로 구민축제의 주 이벤트는 메구로의 산마(꽁치)축제이다. 자매 도시인 미야기현 게센누마시로부터 보내진 신선한 5,000마리의 태평양 꽁치를 숯불구이로 맛보기 위해 약 30,000명 이상의 방문객들로 인파가 몰린다. 좋은 점은 꽁치구이를 무료로 제공되는데 이는 사전신청으로 교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 특산물전을 통해 전국 각지의 특산물들을 전시 판매하고, 어린이 광장에는 거대 골판지 미로와 같은 어린이가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퍼포먼스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한, 재해지 부흥 지원이벤트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한 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벤트로 재해지역의 부흥지원을 목적으로 동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한 특산물전을 운영하며

산직송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메구로 구민축제의 특징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축제를 기획·운영하며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축제 후에는 평가를 통해 축제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주도형 공동체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메구로 축제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2) 모찌츠키 축제(餅つき)

일본 곳곳에서 새해가 되면 떡(모찌)을 만드는 모찌츠키 축제가 열린다. 일본 요요기 하치만구에서는 1968년부터 새해 축하 행사로 모찌츠키를 이어오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 베인브리지 아일랜드에서는 일본계 미국인 커뮤니티(BIJAC)에서 모찌츠키 축제를 열어 일본 문화와 전통을 미국인들과 공유한다. 모찌츠키는 사원, 신사 등에서 지역주민들이 모여 만드는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 전통축제이다. 예로부터 모찌츠키는 이웃들과의 지역 공동체를 끈끈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의례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모찌츠키 축제에 참여한다. 일본에서 떡은 축하와 행운의 의미가 담긴 특별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밤새 불린 찹쌀을 찹통에 넣고 찢은 다음 찢은 찹쌀을 절구에 넣고 나무 망치로 찹쌀을 부드럽고 윤기가 날 때까지 치대준다. 한 사람은 망치를 휘두르고 한 사람은 찹쌀을 돌리기 때문에 이들의 힘이 잘 맞아야 맛있는 떡을 만들 수 있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떡 만들기에 참여하고, 만든 떡을 같이 나눠먹으며 축제를 즐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연대감을 느끼고 친목을 쌓을 수 있다.

모찌츠키 축제의 특징은 지역주민들이 모여 새해를 축하하는 지역축제로써 함께 떡을 만들며 활기 넘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전통을 계승한다. 따라서 메구로 구민축제와 모찌츠키 축제와 같은 대부분의 일본 지역 음식축제는 관주도가 아닌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어 지속가능한 축제라고 보여진다.

## 4. 특산물 기반 음식축제 사례

### (1) 시모노세키 복어축제(下関ふくの日まつり)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는 일본의 복어수도로 여겨지며 2월 9일을 복어의 날에 제정해 복어 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복어는 일본어로 푸구(후쿠)라고 하는데 이는 행운을 뜻하는 말과 같다. 복어축제는 복어와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기회와 추첨을 통해 호화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복권 그리고 100엔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거대한 복어 전골요리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복어를 관찰할 수 있는 코너도 있어 아이들에게 교육 목적으로도 매력적인 축제이다. 16세기에는 푸구를 먹는 것이 불법이었지만, 야마구치현 출신인 이토 히로부미의 명령으로 인해 시모노세키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복어를 잡아 대접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시모노세키는 복어 가공에서 일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어를 전문으로 하는 해도마리 시장이 있다. 이곳에서 제대로 손질된 복어만이 시모노세키의 브랜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모노세키 복어축제의 특징으로 복어는 겨울에 제철이지만 시모노세키에서는 일년내내 즐길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대표 복어 산지라는 인지도를 높여주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제로 산지 특산물을 맛보기 위해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많다. 즉, 복어로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이 미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2) 골웨이 굴축제(Galway International Oyster & Seafood Festival)

골웨이 국제 굴 & 해산물축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굴축제이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아일랜드의 축제이다. 1987년에는 AA Travel Guide에서 유럽의 최고의 축제 7개 중 한 개로 선정되었고, 2000년에는 선데이 타임즈(sunday times)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12가지 쇼 중 하나' 라고 하였다. 이 축제는 195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골웨이의 풍성한 굴 수확을 기념하기 위해 9월 마지막 주말에 개최되며 매년 5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300만개 이상의 굴을 소비하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은 굴까기 세계챔피언십으로 전 세계에 굴까기를 잘하는 참가자들이 모여 챔피언의 타이틀을 갖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평가는 굴을 까는 속도와 기술 그리고 마지막 플레이팅까지의 점수를 합산하여 챔피언을 선정한다. 이 외에 오프닝나이트는 축제 첫날을 알리는 저녁파티로 신선한 골웨이의 굴과 해산물을 맛보며 음악과 함께 춤추며 축제를 즐긴다. 페일 비아 나 마라는 가족을 위한 행사로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와 유명 셰프들과 함께하는 요리 시연 수업도 진행된다. 축제 프로그램은 유료와 무료로 구성되어 있어 유료인 경우 음료나 굴, 해산물 음식이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거리 퍼레이드도 진행하고, 해산물 산책로를 조성하여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즐길거리가 많은 지역특산물 축제이다. 아일랜드 골웨이 굴축제도 일본 시모노세키의 복어 축제와 같이 지역의 특산물의 특징을 살려 지역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형성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 IV. 결론 및 시사점

### 1.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음식축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음식축제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한국 음식축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음식축제의 역할과 지역브랜딩을 위한 음식축제를 살펴보고, 한국 음식축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해외 음식축제를 4가지(전통과 음식문화 기반, 세계수도 기반, 지역주민참여 기반, 특산물 기반)로 분류하여 각각에 맞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음식축제의 요건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음식축제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음식을 테마로 한 축제가 늘어나고 축제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해외 음식축제를 살펴보면, 전통과 음식문화 기반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스페인의 토마티나, 그리고 프랑스의 망통 레몬축제가 있다. 옥토버페스트는 200년 넘는 역사와 함께 지역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축제로 내국인의



참여가 높고, 친환경 규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토마티나는 스페인의 작은 소도시에서 열리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축제로 토마토의 빨간 색깔과 시각적 매력으로 축제의 상징성이 뚜렷하고, 옷을 버려가면서도 신나게 축제를 즐긴다는 점이 매력적인 축제이다. 망통 레몬축제는 지역특산물인 레몬과 오렌지로 큰 조형물을 만들어 전시, 퍼레이드 하는 축제로 독특한 아이디어로 방문객의 흥미와 관심을 갖게 만들어 지역의 상징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각 나라의 수도에서 열리는 음식축제는 테이스트 오브 파리, 테이스트 오브 런던, 마드리드 퓨전이 있다. 테이스트 오브 파리는 에펠탑을 마주보고 있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미식 축제로 프랑스의 유명한 셰프들의 프렌치 요리를 맛보고 즐길 수 있으며, 고메 마켓을 통해 프랑스 전역의 좋은 식재료들을 접할 수 있다. 테이스트 오브 런던은 런던에서 열리는 미식 축제로 다양한 세계요리를 맛보고 경험하며 사교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를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다. 마드리드 퓨전은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미식 축제로 세계적인 셰프들과의 소통과 새로운 요리 트렌드를 접할 수 있다. 매년 주빈국을 선정하여 그 나라의 음식문화도 소개되면서 전 세계적인 요리 트렌드를 선도하는 음식축제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국 축제들은 대부분 정부와 지자체의 주도로 주최 및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이 화합하여 개최하는 축제의 본질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 축제 마츠리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메구로 구민축제는 메구로 구민으로 이뤄진 실행위원회가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축제가 끝난 후에도 축제를 평가하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서 오랫동안 지역문화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는 축제로 발전하였다. 모찌츠키 축제도 주민들이 주도하여 만드는 지역축제로 같이 떡을 만들면서 지역주민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어 오랫동안 전통을 유지해오고 있다.

지역 음식축제는 대부분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면서 그 지역의 이미지를 만들고 인지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일본의 시모노세키는 복어산지로 유명하며 복어의 날을 제정해 축제를 열고 있다. 다양하고 신선한 복어요리를 맛볼 수 있어 산지 특산물을 맛보기 위해 찾아오는 방문객이 많다. 아일랜드 골웨이도 대표적인 굴산지로 신선한 굴을 먹기 위해 찾아오는 방문객이 많고, 굴 까기 챔피언십 같은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복어, 굴과 같이 지역 특산물의 특징을 살린 축제는 지역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형성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의 음식축제들은 축제의 컨셉이 명확하고 그 축제만이 가지는 차별성이 존재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타국의 음식축제를 참고하여 한국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변형, 각색하여 한국화한 음식축제를 만들어야 하며, 마드리드 퓨전과 같이 글로벌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변국의 참가 및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주제를 찾아 축제를 개발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음식관광 및 축제의 역할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과 방향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였다. 지자체 내에서도 음식과 관련된 제품개발과 각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증제도와 협회 설립을 통해 거버넌스 구성에 노력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음식축제에 관한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부산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과 같이 지역축제 및 행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 2. 시사점

### (1) 지속가능한 음식축제 활성화 방안

해외 유명 음식축제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음식축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지속가능한 음식축제의 요건으로 E(environment), S(social), G(governance)와 더불어 E(economic), E(experience), H(health)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후변화 문제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environment)친화적인 음식축제는 지속가능하다. 수많은 축제를 통해 대량의 쓰레기와 이산화탄소,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깨닫고 친환경적인 축제를 기획해야 한다. 옥토버페스트처럼 친환경 규제를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고 방문객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최근 한국축제에서도 환경문제를 인식하여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2022년 축제에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ESG실천 비전을 내세웠다. 버려지기 쉬운 리플렛이나 포스터 인쇄물을 지양하고 대신 축제 정보가 담긴 모바일 안내서를 제공하며 입점 부스도 최대한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면서 다회용 그릇과 친환경 소재 용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이처럼 환경적인 이슈와 동행하며 친환경적인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누구나 축제에 참여가능한 포용적이고 사회(social)적인 음식축제는 지속가능하다. 최근 관광 정책 기조에 따르면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국민 관광기본권' 시대로 누구나 관광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하다. 특히 장애인 무장벽 축제와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축제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포용적 축제도 많이 이뤄져야 한다. 옥토버페스트는 맥주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갖춰 가족단위 방문객도 많으며, 망통 레몬축제는 친근한 주제를 설정하여 조형물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학습성을 제공하며,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준다. 또한, 테이스트 오브 런던의 사교적인 프로그램은 방문객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제공한다. 따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음식축제를 방문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이 축제의 주체가 되어 주최측과 상호협력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은 음식축제를 지속가능하게 한다. 메구로 구민축제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위원회가 조직되고 이는 지역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애착심을 가지게 되면서 지속적인 축제 발전을 이끌어 내고 있다. 모찌츠키 축제도 지역주민들에 의해 일본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처럼 지역축제의 거버넌스는 지역축제 추진위원회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상호작용하여 축제의 기획단계부터 준비, 실행, 평가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하는 체제라고 하였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즉,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한다(김영재, 2022). 따라서 주민들의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실질적이고 능동적 참여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지역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경제(economic) 활성화를 확보할 수 있는 음식축제는 지속가능하다. 음식축제를 통해 발생하는 방문객의 지출과 문화축제에 대한 투자는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효과, 고용효과, 연관 산업 파급효과 등을 유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한다(이성희, 2010). 특히 지역의 농수산물 축제는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생산방법을 보존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에 기여할 수 있다(O'Sullivan & Jackson, 2002). 시모노세키 북어축

제, 골웨이 굴축제처럼 그 지역만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특산물축제와 테이스트 오브 파리의 고메 마켓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한국의 경우, 청주시는 2019년 청원생명축제를 통해 청원의 친환경 농특산물을 소개하는 축제를 개최하였고, 관람객들에게 친환경 농업에 관한 사전지식을 제공하면 해당 지역 농특산물에 대해 우수함을 인식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성보현 외, 2020). 각 지자체에서 지역의 농특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어 음식축제에서 적극적으로 특산물을 판매하지 않아도 축제를 통해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음식축제는 독특한 아이디어, 차별화된 컨셉, 특산물을 활용한 획기적인 제품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축제 관련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하며 콘텐츠 크리에이터, 셰프 콜라보레이션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음식을 매개로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experience)을 제공하는 음식축제는 지속가능하다. 토마티나에서는 토마토파이트로 마드리드 퓨전, 테이스트 오브 파리, 테이스트 오브 런던, 마드리드 퓨전에서는 셰프들과 함께하는 쿠킹클래스, 워크샵 등의 프로그램은 방문객에게 체험적 요소를 제공한다. 한국 음식축제인 광주김치축제를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음식축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음식관광지를 선택할 때 음식의 어떤 사항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음식문화체험(52.7%), 향토음식(37.2%)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김장호, 2012). 홍성군에서 개최하는 광천토굴새우젓김축제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음식축제체험과 특산음식체험 모두 태도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관람객들은 축제의 체험을 통해 지역특산 음식을 구매하는 것에 가치를 느끼고 좋아하며 향후 구매할 의사가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나타났다(손선미, 2015). 따라서 방문객은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음식축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여섯째,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에 대한 건강성(health)이 더 중요시됨에 따라 치유와 웰니스(wellness)를 충족할 수 있는 음식축제는 지속가능하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피트니스(fitness)의 개념을 포함하는 단어로 육체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웰니스 문화가 떠오르면서 건강한 음식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여 여행객들에게 웰니스 음식관광을 촉진시키고 있다(성연, 2015). 마드리드 퓨전에서 한국은 2012년 초청국에 이어 2015년도에도 초청되어 한국의 슬로우푸드인 발효음식과 사찰음식을 홍보하며 현지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최근 한국 음식축제에서도 웰니스를 인식하여 경북의 2022년 참 웰니스 페스티벌에서는 약식동원 요리경연대회가 개최되며 음식 치유, 명상, 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며 건강한 음식으로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축제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측면의 음식축제 활성화 방안은 첫째, 차별화된 식재료, 음식문화, 역사성 등의 소재로 음식축제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단순히 정보전달에 스토리보다는 인물, 배경, 사건의 구조로 스토리를 전달하면 더욱 효과적이고 음식의 영양학적 기능을 강조하는 스토리도 필요하다(황조혜·김선아, 2018). 둘째, 장소가 주는 상징을 활용해야 한다. 망통 레몬축제, 시모노세키 복어축제는 레몬, 복어가 주산지라는 장소의 특성을 축제 스토리와 결합시켜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상징물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소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3. 연구의 한계점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가지며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에 의해 몇 개의 해외 음식축제를 선정하여 분석한 연구로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축제를 대표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같은 음식축제여도 해마다 축제 프로그램과 위치, 일정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본 연구에서 분석하여 작성한 내용은 대표적인 프로그램과 2022년 축제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슷한 테마를 가진 예를 들어 국내 와인축제, 해외 와인축제를 방문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축제에 대한 국가별 인식 및 만족도 차이 조사를 진행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강현식·최규환 (2020). “지역축제 브랜드 자산이 지역축제 태도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스토리텔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외식산업학회지. 제16권 제1호, pp. 127-141.
- 김동한 (2018). “지역축제 주민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축제 전문가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관광레저학회. 제32권 제8호, pp.89-109.
- 김장호 (2012). “음식관광축제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지역의 음식관광 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조리학회지. 제18권 제5호, pp. 129-145.
- 김창수·박미수·이희성·박종진·노경희·허성란·신현식·박준범·하진영 (2016). 「지역축제 제 2판」. 도서출판 대왕사.
- 김춘식·남지호 (2012) 「세계축제경영」. 도서출판 김영사.
- 류정아·오정숙·김용호·신자영·김정하·이기철·김면·최보근·이현식 (2003). 「유럽의 축제문화」. 도서출판 연세대학교 출판부.
- 백선희 (2005), 「장소성과 장소마케팅」. 도서출판 한국학술정보[주].
- 부숙진 (2008). “축제개최 지역주민의 축제효과요인 인식이 축제참여도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보령시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3호, pp. 567-588.
- 서은아·김영재 (2022).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연구: 강남패션페스티벌 사례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제44권 제1호, pp. 467-488.
- 손선미 (2015). “음식축제 체험이 지역특산음식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벤트컨벤션연구. 제11권 제2호, pp. 19-33.
- 안혜원·이민규 (2010). “지역축제 활성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호 제6권, pp. 378-385.
- 이성희 (2010). “향토음식축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식공간연구. 제5권 제1호, pp. 65-81.
- 이영주 (2008). “강원도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1-13, 강원도
- 이장욱 (2019).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지역축제 운용 주요 개선방향”. 자치발전, 2019(10), pp. 22-30.
- 최인섭·정강환 (2016). “와인축제 방문객 분석 및 축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대전 푸드&와인

- 페스티벌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제16권 제3호, pp. 129-135.
- 황조혜·김선아 (2018). 「푸드마케팅」. 도서출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Ahn, K. and Kim, J.(2009). “The relations among motivation of festival attendance, satisfaction and revisit“. *Int. J. Tour. Hosp. Res.* 2009, 24, pp. 283-300.
- Avraham, E. and Ketter, E. (2008). “Media Strategies for Marketing Places in Crisis“ .Oxford: Butterworth-Heine- mann.
- Axelsen, M. and Swan, T. (2010). “Designing festival experiences to influence visitor perceptions: The case of a wine and food festival“.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49 No. 4, pp. 436-450.
- Blichfeldt, B. and Halkier, H. (2014). “Mussels, tourism and community development: A case study of place branding through food festivals in rural north jutland, denmark“.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 22 No. 8, pp. 1587-1603.
- Boo, S., Busser, J., and Baloglu, S. (2009). “A model of customer-based brand equity and its application to multiple destinations“. *Tourism Management*. Vol.30 No. 2, pp. 219-231.
- Bruwer, J (2002). “Wine and Food Events: A Golden Opportunity to Learn More about Wine Consumers.”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Wine Industry Journal*. Vol. 17 No.3, pp. 92-99.
- Buhalis, D. (2000). “Marketing the competitive destination of the future“. *Tourism Management*, Vol. 21 No.1, pp. 97-116.
- Coakley, A. (2003). “Food or ‘virtual’ food? the construction of children’s food in a global ec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Vol. 27 No.4, pp. 335-340.
- Crockett, S. and Wood, L. J. (1999). “Brand Western Australia: A totally integrated approach to destination branding“.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Vol.5 No.3, pp. 276-289.
- Everett S and Aitchison C. (2007). “Food tourism and the regeneration of regional identity in Cornwall: an exploratory case study. In *Festivals and Events: Culture and Identity in Leisure*“, Sport and Tourism, Aitchison C, Pritchard A (eds). LSA: Eastbourne; pp. 167-192.
- Getz, D. (1991). “Festival, Special Events, and Tourism“,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Guptill, A. and Wilkins, J. (2002). “Buying into the food system: trends in food retailing in the US and implications for local foods“.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Vol. 19 No. 1, pp. 39-51.
- Handsuh, H. (2000). “Local food in tourism policie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ocal Food and Tourism, Larnaka, Cyprus.
- Lee, I., Arcodia, C., and Lee, T. J. (2012). “Benefits of visiting a multicultural festival: The case of south korea“. *Tourism Management*, Vol. 33 No. 2, pp. 334-340.
- Meretse, A. R., Mykletun, R. J., and Einarsen, K. (2016). “Participants’ benefits from visiting a food festival – the case of the stavanger food festival (gladmatfestivalen)“. *Scandinavia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Vol. 16 No. 2, pp. 208-224.
- Nicholson, R. E., and Pearce, D. G. (2001). “Why do people attend events: A comparative analysis of visitor motivations at four south island events“.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39 No. 4, pp. 449-460.



- O'Sullivan, D., and Jackson, M. (2002). "Festival tourism: A contributor to sustainable local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Vol. 10 No. 4, pp. 325-342.
- Organ, K., Koenig-Lewis, N., Palmer, A., and Probert, J. (2015). "Festivals as agents for behaviour change: A study of food festival engagement and subsequent food choices". *Tourism Management*, Vol. 48, pp. 84-99.
- Qu, H., Kim, L. H., and Im, H. H. (2011). "A model of destination branding: Integrating the concepts of the branding and destination image". *Tourism Management*. Vol.32 No. 3, pp. 465-476.
- Smith, S., Costello, C., and Muenchen, R. A. (2010). "Influence of push and pull motivations on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s within a culinary tourism event". *Journal of Quality Assurance in Hospitality & Tourism*. Vol. 11 No. 1, pp. 17-35.
- Wan, Y. and Chan, S. (2013). "Factors that affect the levels of tourists' satisfaction and loyalty towards food festivals: A case study of macau".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15, No.3, pp. 226-240.
- Yang, F. X., Wong, I. A., Tan, X. S., and Wu, D. C. W. (2020). "The role of food festivals in branding culinary destinations".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34, 100671.

#### [기타]

- "Global Report on Food Tourism" . UNWTO, 2012
-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 . 농림축산식품부, 2022
- "향토음식자원을 활용한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농림축산식품부, 2014
-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방향"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 "문화융합형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생활문화자원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 "글로벌미식관광도시로의 부산, 발전방향 모색" . 부산제일경제. 2022년 9월 14일
-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를 소개합니다. 스마트 음식관광 OTA 레드테이블입니다" . 행정안전부. 2022년 10월 18일
- "부산시, 부산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본격 육성한다!" . 부산광역시, 2022년 5월 12일
- "지역축제 개최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19
- "지역축제 개최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22
- "한국지역축제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4
- "지자체 축제 행사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 행정안전부, 2016
- "성과주의식 축제는 그만." 매일신문. 2022년 9월 29일.
- "일본의 지역축제 활성화 요인과 향후과제." 주일한국대사관, 2015
- "한주 쓰레기가 하루에 쏟아져 축제장 몸살." 조선일보. 2022년 9월 26일
- "지자체가 그 많은 축제를 만든 까닭," 시사IN. 2021년 11월 26일
- 옥토버페스트. <https://www.oktoberfest.de/en>. (2022년 9월 29일 검색)
- 토마티나. [tomatofestivalspain.com](http://tomatofestivalspain.com). (2022년 9월 30일 검색)
- 망통레몬축제. <https://www.fete-du-citron.com/>. (2022년 9월 30일 검색)
- 테이스트오브파리. <https://paris.tastefestivals.com/en/>. (2022년 9월 14일 검색)

테이스트오브런던. <https://london.tastefestivals.com/>. (2022년 9월 13일 검색)

마드리드퓨전. <https://www.madridfusion.net/en>. (2022년 9월 13일 검색)

골웨이굴해산물축제. <https://www.galwayoysterfestival.com/>. (2022년 9월 29일 검색)

메구로구민축제. <https://www.city.meguro.tokyo.jp/event/moyooshi/kuminmatsuri.html>. (2022년 9월 20일 검색)

시모노세키복어축제. <https://en.japantravel.com/yamaguchi/shimonoseki-fugu-festival/66990>. (2022년 9월 29일 검색)

모찌. <https://en.wikipedia.org/wiki/Mochi>. (2022년 10월 27일 검색)

요요기 하치만구 모찌츠키 축제. <https://www.timeout.com/tokyo/things-to-do/yoyogi-hachimangu-mochitsuki-festival>. (2022년 10월 27일)

베인브릿지 아일랜드 모찌츠키축제. <https://bijac.org/>. (2022년 10월 27일)

## Strategies for Sustainable Food Festivals Vitalizing Regional Development

Food festival can serve a critical platform for establishing a regional identity and forming a regional image. This study has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food festivals in Korea and conducted case studies of food festivals overseas in order to provide strategies for sustainable food festivals that can contribute to regional development. Overseas food festivals have clear and differentiating concepts. Accordingly, the cases of overseas food festivals ar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tradition and food culture(Oktobefest, Tomatina, Menton Lemon Festival), the world capital(Taste of Paris, Taste of London, Madrid Fusion),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Meguro Residents' Festival, Mochitsuki Festival) and specialty food products(Shimonoseki Fugu Festival, Galway Oyster Festival). Th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sustainable food festivals in Korea are derived as follows: Sustainable food festivals should be environmentally friendly, inclusive of anyone, local residents driven, economically beneficial by creating high added value, experience stimulating the five senses through food, and satisfying needs for healing and wellness. Furthermore, regional food festivals can be promoted by storytelling delivering differentiating concepts and themes representing a region's unique identity.

Keywords: Regional development, Food festival, Sustainability, Regional image, Regional branding

## 세션 3

### ESG와 공급망 전략

# ESG 경영 프레임워크의 기초지자체 적용 가능성

이정현  
(명지대 경영학과)

## ESG 평가/경영을 바라보는 시선

유행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ESG 논의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새로움은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무엇?



## 공공기관 사회적가치/ESG 평가 경험의 교훈

### ❖ 구성

-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가치/ESG 평가를 몇년간 시행
- 체크리스트 방식의 사회적가치 기반 평가
- 평가 가중치는 과도하게 높았으며, 기관별 변별력이 적어, 평가의 실질적 효과가 미흡

### ❖ 고민거리

- 기관 특성에 맞는 기관 고유의 지속가능 발전전략의 수립과 집행 능력 및 준비 정도를 평가해야 함
- 획일적 평가 방식으로 인해 기관 고유의 시스템 정착 노력을 오히려 저해
- ESG(essential/strategic)보다 큰 범주로서의 social value

### ❖ 지자체 ESG 평가에의 시사점

- 체크리스트 방식의 평가에 머물지 않도록
- 중장기적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 공감대 기반 고유한 평가체계를 확립, 실행해야

3

## 민간기업 사회적가치/ESG 평가 경험

### ❖ 구성

- Black Rock 등 투자자로부터의 강한 압력이 기업을 움직임
- 투자 유치 및 대주주 요구에 대한 반응(지난주 삼성전자의 RE100 가입 표명 및 재생에너지 사용 중장기 목표 설정의 예)의 분명한 목적이 존재

### ❖ 과제

- 기업 내부로부터의 변화 노력(CSR/CSV)이라기보다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므로, 외부 환경 변화 차원에서의 소극적 대응
- 탄소배출 등 기업 간 차이에 대응하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부정적 산출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
- 탄소배출 관련 Scope1/2/3에 대응되는 지자체별 경제활동 싸이클의 검토 필요

### ❖ 지자체 ESG 평가에의 시사점

- 투자자 압력에 필적할만한 지자체 대상 ESG 평가 압박의 요인은 무엇?
- 무수히 많은 주체(주민/기업/NGO 등)들의 동적 상호작용을 어떻게 포착?

4



## 지자체 대상 ESG 적용의 문제

### ❖ 주요 이슈

-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수익성 제고 목적의 ESG 프레임워크를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 지자체 간의 시장 경쟁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대상 ESG가 어떤 의미?
- 주민 이외의 지자체 이해관계자 집단 식별 및 반영의 정치적 어려움
- 지자체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자체장과 의회로 인한 G 지배구조 이슈 성립 어려움

### ❖ 지자체 대상 ESG 평가의 목적과 활용 방안

- 지자체 대상 : 광역지자체 ? 또는 기초 지자체 ? 기초 중에서도 시/군/구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 자치구/행정구 구분의 어려움. 현행 지자체 행정체계를 수용하는 전제하에서의 생 각방식
- 광역지자체 자료는 사실상 주민의 관점에서의 의미가 없음
-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기초지자체보다 더 작은 단위의 접근이 필요. 생활공간으로 접근할 경우 지자체의 공간적 범위가 다양함
- 목적은 결국 ?

5

## 지자체 주민 참여형 ESG 문제

### ❖ 지표 설정의 원칙

- 지자체 차원의 고유의 지표 발굴은 매우 장기 소요
- 통계청과 서울시 등 기존 지자체 관련 통계 활용을 통한 접근성 제고와 비교가능성 및 자료 신뢰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 보편적 접근? 특수적 접근?
- E/S/G의 축약형 지표 설계가 유효? 아니면, 환경/교육/의료/주거 등 여러 영역별 지표 설계가 유효?

### ❖ 지자체 주민 참여 지표의 빈곤

- 주민참여예산의 정도 역시 서울시 정책 변경에 의해 출렁거림
- 주민자치와 참여 관련 기초지자체 차원 활용가능한 데이터가 거의 없음
- 지자체장과 구/시 의회는 자체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라는 점을 인정하는 순간 주민의 의사에 기반한 행정 진행을 모니터링하기가 어려워짐
- 지자체 선거 참여율 등을 검토하는 수준.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하는가? 지역 사회적 자원을 보여주는 데이터는 무엇인가?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영향지표 등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지자체(장)의 노력을 보여주는 투입지표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려는 관의 경향

6

## 지자체/공공기관 ESG 적용 해외 경험

### ❖ 토론토

-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가치/ESG 평가를 몇년간 시행
- 체크리스트 방식의 사회적가치 기반 평가
- 평가 가중치는 과도하게 높았으며, 기관별 변별력이 적어, 평가의 실질적 효과가 미흡

### ❖ NUA

- 자료 참조

### ❖ ISO 18091:2019

- ISO 9001: 2015(품질경영시스템)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국제표준

7.

## ISO 18091 : 2019 시사점

### ❖ 주요 내용

- ISO 9001: 2015(품질경영시스템)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국제표준
- 1) 좋은 정부를 위한 제도적 발전, 2) 지속가능 경제발전, 3) 포용사회 발전, 4) 지속가능 환경발전의 4개 주제에 대한 39개 평가지표로 구성
- "local governments have a mission to enable the development of a socially responsible and sustainable local community"
- 고객중시, 리더십,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 프로세스 접근법, 개선, 증거기반 의사결정, 관계관리 등 품질경영 원칙

### ❖ 여러 기준 고려

- 기관 특성에 맞는 기관 고유의 지속가능 발전전략의 수립과 집행 능력 및 준비 정도를 평가해야 함
- 획일적 평가 방식으로 인해 기관 고유의 시스템 정착 노력을 오히려 저해
- ESG(essential/strategic)보다 큰 범주로서의 social value

8.

## OO형 E+ESG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 구성

- 기존 국내 지자체 대상 ESG 평가 시도의 예
- 민간기업 대상 ESG 프레임만이 아니라 경제(Economy)를 추가한 <E+ESG> 프레임워크
- 지자체 차원에서의 경제와 ESG의 융합 관리를 위한 노력의 일환
- 투자 대상 기업 선정을 위한 ESG가 아니라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자체를 위한 ESG

### ❖ 구성

- 주민 대상 설문조사 : 현 수준 평가 및 중요도 평가, 부문별 가중치 부여
- 지역내 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
- OO구 관련 기관 대상 인터뷰

### ❖ 한계

-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괄 미흡, E+ESG 4개 부문별 불균형

# 기업규모에 따른 국내기업의 ESG활동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승현(경희대학교)

## < 목 차 >

ABSTRACT .....	VI
I. 서 문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II. 이론적배경 .....	4
제1절 ESG 의 역사 및 배경 .....	4
제2절 ESG 와 정보공시 .....	6
제3절 ESG 현황과 리스크 .....	8
제4절 ESG 와 환경규제 .....	10
III. 선행연구 .....	
제1절 ESG 와 경영성과 .....	11
제2절 ESG 와 기업규모 .....	14
제3절 ESG 와 매출성과 .....	16
IV. 연구가설 .....	
제1절 ESG 활동과 장기적성과 .....	17
제2절 ESG 활동과 단기적성과 .....	18



제3절 ESG 활동과 매출성과	19
V.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20
제1절 자료의 수집	20
제2절 연구모형	23
VI. 연구결과	26
제1절 기초통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26
제2절 기업의 ESG 활동과 장기적가치와의 관계	29
제3절 기업의 ESG 활동과 단기적가치와의 관계	33
제4절 기업의 ESG 활동과 매출성과와의 관계	36
제5절 환경규제와 기업의 ESG 활동의 상호작용효과 추가분석	39
VII. 결론	41
제1절 연구의 시사점	42
제2절 연구의 한계점	44
참고문헌	46



## 〈표 차 례〉

〈표 2-1〉 ESG 경영의 중요성 .....	5
〈표 2-2〉 ESG 평가체계 구성요소 .....	7
〈표 2-3〉 ESG 리스크 예시 .....	10
〈표 5-1〉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기준 .....	21
〈표 5-2〉 기관별 ESG 등급 분포도 .....	22
〈표 5-3〉 변수 설명 및 데이터 출처 .....	25
〈표 6-1〉 기초통계분석 .....	27
〈표 6-2〉 기업규모별 기초통계분석 .....	28
〈표 6-3〉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	29
〈표 6-4〉 ESG 활동과 장기기업가치와의 관계 .....	32
〈표 6-5〉 ESG 활동과 단기기업가치와의 관계 .....	34
〈표 6-6〉 ESG 활동과 매출성과와의 관계 .....	37
〈표 6-7〉 환경규제와 기업의 ESG 활동의 상호작용효과 .....	40

## 〈그 림 차 례〉

〈그림 2-1〉 ESG 투자 자산 규모 .....	9
-----------------------------	---

## <ABSTRACT>

### Effects of ESG activities on corporate performance according to company size

By Seung Hyun Kim

Master of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Advised by Dr. YoungJun Choi

In the past, social responsibility (CSR), ethical management, and sustainable management were recommended at the level of voluntary activities, but as the field has shifted to ESG activities, various regulatory and mandatory policies related to ESG are being promoted worldwide. While the importance of ESG is being emphasized, ESG activities of companies are no longer recommended but are becoming essential activities for companies to consider. In this study, the average value of the ESG evaluation scores of the two institutions were used to examine whether domestic companies ESG activities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long and short-term performance and sales performance and find out if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size of compan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everal facts were confirmed. First, Large and medium-sized companies were found to be more active in ESG activities than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Second, E-related activities of large companies were confirmed to be affected by environmental regulations. Finally, the efforts of domestic companies that could positively affect short-term value and sales performance seems to be insignificant.

Key words: ESG, ESG scores, Environmental regulations, long and short-term performance

## I. 서 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기후변화, 코로나19, 전쟁, 환율상승 등 기업 입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대응할 경영방법으로 지속가능 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평가하는데 비 재무적 요소(CSR, 윤리경영, ESG)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기업의 윤리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기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업의 가치를 재무적 지표의 중점을 두어 판단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기업의 비 재무적 성과는 기업경영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있다. 이중 기업의 비 재무적 지표인 ESG는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 평가 및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 능력을 판단할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는 ESG 정보공시 기관들과 공조하여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있고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엄격한 친환경 기준에 따라 ESG 우수기업에 정책적 혜택을 주겠다고 선언하였다(박순애, 신은혜, 2021). 또한 투자자들의 비 재무적 지표에 대한 관점 변화, 친환경적 생산 및 소비, 윤리적인 경영에 대한 관심, UN을 비롯한 공적 기관에서 시작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캠페인 확대에 따른 결과로 ESG의 중요성이 강조됨과 동시에 ESG투자는 더 이상 권고 수준의 경영이 아닌 불가피하고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경영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활동이란 기업 활동에 친환경적 활동, 사회적 책임을 수반한 경영, 지배구조의 개선 등 투명한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가능(Sustainability)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뜻이며 투자자들이 기업을 파악할 수 있는 비 재무적 기업성과지표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기관 및 한국의 국민연금 등 다양한 기관들이 ESG점수를 고려한 투자에 동참하고 있으며 ESG를 반영하지



않는 기업은 대출을 제한하고 각종 투자 유치의 영향을 받으며, 소비자들 또한 ESG가 우수한 기업들을 선호함에 따라 소비자의 결정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ESG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ESG 활동 중 특히 환경(Environmental)과 관련된 논의와 제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들의 친환경적 행보들이 주목받고 있다. 세계 기업 중 65% 이상의 기업이 ESG 중에서도 환경 부문의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환경 관련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의 지속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인사이트코리아, 2022).

현재 전세계 300개가 넘는 기관에서 기업의 ESG 활동을 점수로 환산하여 발표하는 ESG 정보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ESG 정보공시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평가하는 기관 별로 관련 정보의 공시내용 및 평가모형체계가 상이하여 상호 비교가능성 및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ESG 경영의 본래 목적과는 반대로 평가 비용의 부담과 ESG활동 중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들도 존재한다. 또한, ESG 경영을 도입한 일부 기업 중 실제 ESG 경영 수준보다 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높게 부풀려서 공시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이나 불리한 정보들을 지나치게 축소해서 공시하는 브라운워싱(brownwashing)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ESG 경영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현행 ESG 정보공시가 지닌 문제점과 실제 ESG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그리고 기업의 정보 발표 간의 발생하는 예로는 ESG 정보가 지닌 비재무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ESG의 비 재무적 특성과 기업의 재무적 특성 간의 실질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ESG 활동과 기업성과에 대한 기존연구에서는 다양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ESG 활동이 기업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과(김범석과 민재형, 2016; 장승욱과 김용현, 2013; 임옥빈, 2019; 정무권과 김영린, 2022 등), ESG 활동 혹은 비재무적인 성과가 기업성과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존재하고(Jensen,

2001; Brammer et al, 2005 등), 기업성과와는 무관하다는 연구들 또한 존재한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ESG 활동과 기업성과와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표본기간, 표본대상, 샘플 그리고 방법론 등의 차이로 인하여 다양한 결론들이 도출되었다. 아직까지 ESG 경영을 실천한 기업들의 역사가 짧고, 모든 기업에 대한 ESG 정보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점수를 발표하는 기관들은 모두 다른 평가모형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연구결과가 모두 다르게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ESG를 하나의 활동으로 인지하여 분석한 결과들이 많고, ESG 점수 공시내용 및 수준이 모두 상이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기존 연구들은 한가지 기관에서만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ESG 점수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할 수 있고,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적 성과인 매출과 관련된 연구는 적은 실정이다. 기업규모별로 분류하여 진행한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으로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하여 관련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참고하여 필자는 기업의 비재무적 관점과 재무적 관점의 관계를 보완하고 확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환경과 관련된 제재들이 증가하고,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환경규제가 기업의 ESG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기업의 비 재무적 성과인 ESG 활동이 기업의 장기 경영성과(Tobin Q, ROA) 그리고 기업매출성과(ROS)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최근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KOSPI에 상장된 국내기업 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KRX ESG포털(MSCI)에서 수집한 ESG 점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각각의 ESG 활동들이 장기기업가치(Tobin Q)와 단기수익률(ROA), 매출성과(ROS)에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ESG의 활동은 환경규제에 영향과 관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환경규제와 ESG간 상호작용변수를 사용하여 환



경규제가 ESG와 기업의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배경

### 제1절 ESG의 역사 및 배경

2006년 UN의 책임투자원칙(PRI)이 발표되어 ESG라는 개념과 용어가 공론화되기 전까지 기업의 비 재무적 성과는 '기업의 윤리적 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또는 '지속가능경영(sustainability)'이라는 개념으로 논의되어왔다. 유럽에서 산업혁명 이후 윤리경영에 대한 철학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1960년대부터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1980년대에는 기업별로 "기업윤리 헌장"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기업이 사회를 구성하고 대표하는 주요 행위자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진다는 시각이 강해지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 UN 정상회의에서 인류 차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선언한 지속가능경영(Sustainability)을 각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입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CSR) 이행을 위한 협약,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기업지배구조의 개편 등을 통해 주주와 이사회 책임, 사외이사의 조건, 부패방지 등 다양한 기준들이 제시되었다. 2010년에는 사회적책임(CSR)과 관련한 국제표준치인 ISO260000을 발표함으로써 기업의 CSR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확산을 추진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국내기업에 맞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기업의 윤리적인 경영이 강조되었다.

과거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책임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재무적인 요소에 더 중점을 맞추어 경영을 실천하여 왔다. 하지만 UN의 책임투자원칙(PRI) 등장 이후 금융투자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 비 재무적 요소에 해당하는 ESG를 강조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각각의 E(Environmental), S(Social), G(Governance)를 포함하는 6가지 책임투자원칙을

실행하고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책임투자원칙 체계를 형성하였다. UN의 책임투자원칙(PRI)의 투자기관은 매년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이행 수준별 등급(A+~E, 총 6단계)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 이하의 기관들은 서명 기관에서 배제한다(UN PRI Report, 2021).

<표 2-1>은 ESG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 ESG 관련 각종 규제강화 특히 환경과 관련된 규제의 강화와, 스튜어드십 강화를 통한 투자자의 ESG 요구가 증대되고, 기업평가와 신용평가에 ESG를 반영하고 있으며 고객의 ESG 요구가 증가하면서 세계적인 동향이 ESG 활동에 많은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기업입장에서는 외면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1> ESG 경영의 중요성

ESG 규제강화	투자자의 ESG 요구증대	기업평가에 ESG 반영	고객의 ESG 요구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ESG 정보 공시 의무 강화</li> <li>• 2050년 탄소배출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한 탄소감축 규제 강화 및 기업의 준수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도모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강화</li> <li>•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의 책임투자 및 ESG 투자 전략활용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ESG 요소를 신용평가에 적극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망 관리와 협력업체 선정의 주요 요소로 ESG 부각</li> <li>• MZ세대의 ESG 요구증대</li> </ul>

출처 : KRX ESG 포털 보고서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전 세계적으로 ESG 정보공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ESG 정보공시 의무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가별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80%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ESG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KPMG Survey of Sustainability, 2020).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기준 114개사(누적발간 101개사, 최초발간 13개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표준협회, 2020). 'ESG 정보 공개 가이드선스'를 바탕으로 코스피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ESG 의무공시가 점차 적용될 예정이며, ESG의 중요성은 국내에서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2021).

## 제2절 ESG와 정보공시

현재 국내 기업들은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ESG 공시기준은 재무공시에 있어 IFRS나 GAAP와 같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관계로 기업별로 다양한 관점과 방식에 기반한 ESG 정보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다(한국표준협회(지속가능성지수), 2021).

ESG 공시기준으로 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 주관하는 GRI Standards가 존재한다. GRI Standards의 목적은 모든 기업의 경제, 사회, 환경적 성과에 대한 보고의 정형성과 비교가능성을 재무보고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다. GRI외에도 블룸버그와 록펠러 재단 등이 설립한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에서는 2018년 77개의 세부 산업별로 ESG 정보공개 지표를 제시하였고(SASB, 2019), 2020년 9월에는 ESG 공시 표준을 정하는 5개의 주요 기관인 GRI, SASB, CDSB(Climate Disclosure Standards), IIRC(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CDP(Carbon Disclosure Project)가 협업하여 ESG 정보공시의 글로벌 표준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였다(CDP, CDSB, GRI, IIRC, SASB, 2020). 아직 대다수 국가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ESG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권고 수준의 단계에 있지만, 일부 국가는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David and Margrit, 2021).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ESG 정보공시의 단계적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다. 1단계는 ESG 정보공개를 위한 지침 마련, 2단계는 202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상장사에 대한 ESG 의무공시 적용, 3단계는 2030년 이후 코스피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ESG 의무공시가 적용될 예정이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2021).

ESG 점수의 세부평가요소들은 제공 기관 별로 산출 방법과 평가모형 체계는 각

각 상이하지만 크게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며 <표2-2>와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항목들을 살펴보면 환경요소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및 공해물질 배출량 저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급망 관리, 신재생 전원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평가 등이 환경요인 항목에 포함된다. 즉 배출량은 배출 규모에 비하여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환경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평가된다. 사회의 평가 요소에는 인권, 평등, 제품의 품질,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등 여러 요소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의 평가요소로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논의되었던 주제인 CSR전략, 기업의 투명성, 주주의 권리, 배당금 등이 존재한다.

<표 2-2> ESG 평가체계 구성요소

환경	천연자원	물, 에너지, 친환경 포장재, 친환경 supply chain
	배출	탄소배출, 자원낭비, 환경다양성
	혁신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수익, R&D and 설비투자(CapEx)
사회	커뮤니티	기업문화, 지속가능한 소비, 노동권행, 공정운영권행
	인권	인권
	제품 책임	마케팅, 제품 품질,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노동자	다양성과 포용, 경력개발 및 훈련, 근로 조건, 보건 및 안전
지배 구조	CSR 전략	ESG 정보공시 투명성
	경영진	구조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이사회 운영), 배당금, 감사
	주주	주주 권리, 주주 총회

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RX ESG 포털, MSCI 평가체계를 활용하여 필자작성

현재 ESG 점수는 전 세계적으로 300개가 넘는 기관에서 다양하게 발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해외 발표 기관은 Thomson Reuters(Refinitive ESG scores), S&P500 ESG Ratings, MSCI ESG Ratings, Bloomberg등이 존재하고, 국내 기관으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ESG Evaluation), 서스틴베스트(ESG value), KRX한국거래소(KRX 포털) 등이 있다. 이러한 기관에서 발표하는 ESG 점수는 기업에서



공개하는 정보 및 보고서와 인터뷰 등을 통해 산출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기관 별로 점수 산출 방식이 다르고 구성요소 별 가중치도 다 상이하기 때문에 아직은 기관별로 발표되는 ESG 점수 간 비교가능성과 정보의 완전성이 보장된다 보기에는 어렵다(고병국 등, 2022).

현행 ESG 등급평가 방식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대기업 편중효과, 평가방법의 단순화, 국가별 편차 등으로 인한 낮은 신뢰성 등의 문제점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다. 대기업 편중효과란 공시자료 준비에 많은 자원 투입이 가능한 대기업일수록 높은 등급 받는 경향을 말한다. 평가방법의 단순화는 지표의 표준화에 따른 개별기업의 위험요인 반영의 한계를 지닌다는 뜻이며, 국가별 편차는 공시제도가 발달된 국가일수록 정보수집이 용이해 등급 편차가 발생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정형화되지 않은 비재무적 데이터의 편향적 활용 가능성이 존재하여 낮은 신뢰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즉, 사회, 문화, 경제적 배경이 다른 해외의 상황을 바탕으로 한 해외평가사 기준의 일방적 인용보다는 각 나라의 상황에 부합하면서 공시자료 외에 다른 평가 기준을 포함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 제3절 ESG 현황과 리스크

최근 국내 ESG의 동향을 살펴보면 공적 연기금의 ESG 투자 의무화와 같은 ESG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입법 조치가 활발히 추진되고, 기업의 ESG리스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SG투자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 조치의 대표적 사례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한 해당 기금의 ESG 투자 규정을 들 수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15년 ESG 투자 규정을 도입한 후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었고, 2025년까지 ESG 관련 투자 비중을 50%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국민연금, 2020).

이처럼 세계적으로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산운 영업계에서도 ESG 관련 펀드를 활발히 출시하고 있다. 국내 ESG 채권 발행액은 2018년 1.3조에서 2021년 26.8조로 증가하여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



서 설정된 ESG 펀드 순자산 규모는 2021년 기준 2.7조원으로 아직 시장 규모는 미미한 편이지만, 최근 3년간 연평균 77% 이상의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추후 더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다(지속가능발전소, 2021).

<그림 2-1> ESG 투자 자산 규모



출처 : KRX ESG 포털을 활용하여 편자 작성

적극적인 ESG 투자와 펀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ESG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국내 ESG평가기관중 하나인 지속가능발전소는 ESG 리스크 점수로 기업의 수준을 판단하여 ESG 점수를 하향시키는 기준치를 가지고 있다. ESG 리스크는 4~5점 심각한수준, 3~3.9 매우 높음, 2~2.9 높음, 1~1.9보통, 0~0.9 낮음이라는 평가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각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표 2-3>은 ESG 리스크가 증가되는 대표적인 예시들을 제시하고 있다. 2022년 기준 ESG 사건사고 311건 발생 중 211건은 사회, 86건은 지배구조, 4건은 환경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소비자문제 69건, 불공정 관행 52건, 근무환경 47건, 사업장 안전보건 위반 18건 등이 존재한다.

〈표 2-3〉 ESG 리스크 예시

기업의 ESG 리스크 증가 예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실가스 배출량 증가</li> <li>6가크롬 기준치 초과</li> <li>질소탱크 폭발</li> <li>탄소배출량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 노동자 사망 사고</li> <li>근무환경 문제</li> <li>직원부당해고</li> <li>파업</li> <li>제품불량(소비자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진 주주제안권 차단</li> <li>재벌총수 고액연봉</li> <li>주주평등 원칙 위반</li> <li>세무조사 및 횡령</li> </ul>

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RX ESG 포털, MSCI 평가체제를 활용하여 편자작성

#### 제4절 ESG와 환경규제

지구 온난화,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이슈들은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며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환경 보호에 대한 당위성도 새롭지 않다. 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현재 세계는 심각하게 대응과 규제 강화를 바라보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려는 일종의 선의 외에도,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일부 선진국들은 에너지 전환 자체를 통해 새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접근하고 있고, 환경규제의 강화를 통해 선진국 내 기업들과 신흥국가 내 후발 기업들 사이에 기술적 진입 장벽을 만들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근거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환경규제는 점차 강화되는 상황이다.

더불어 환경규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계기 중 하나는, 새로운 기후 체제의 출범이다. 기존국제사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근거였던 교토의 정서가 만료되고 파리협정이 대체하면서, 과거 동조 현상을 보여왔던, 친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기업가치가 유가와 뚜렷한 차별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현재 각국에서 탄소 중립의 목표와 계획을 발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감축 목표 등 친환경과 관련된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

였고,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파리협정에 복귀함으로써 개별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과거보다 더욱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목표가 높아지면서 환경규제 또한 강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세계의 동향에 발 맞춰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ESG 활동 중에서도 최근 환경과 관련된 기업의 친환경 책임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이러한 환경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 혹은 기업들은 환경규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ESG 활동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여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KPMG Survey of Sustainability, 2020).

### III. 선행연구

#### 제1절 ESG와 경영성과

ESG 활동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연구들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은 윤리와 기업의 통합, 기관과 사회적 기관의 통합, 이해관계자와 주주의 이해 통합 등을 통해 기업의 비 재무적 활동이 벌금이나 조세부과와 같은 비용을 절감시킨다고 주장한다. 반면 ESG가 운영 효율성에 기여하거나 직원들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등의 영향을 통해 경영성과에 기여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박순애, 신은혜, 2021). ESG 활동은 재무제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기업의 비 재무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친환경적 활동, 지배구조의 개선, 윤리경영 등을 통해 혁신, 인적 자본, 명성, 문화와 같은 자산이 형성되고 이러한 자산을 매개로 기업가치가 증대된다고 주장한다(Hanson, 2013).

김은경(2013)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과 자본시장에서의 재무성과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진환과 연경화(2012)는 윤리경영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과 기업지배구조가 이들 사이에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윤리경영은 기업성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윤리경영을 더 잘 수행하는 기업들이 더 좋은 경제적 성과를 거둔다고 주장하였고, 기업지배구조가 윤리경영과 기업성과사이에 조절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기업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이 윤리경영의 실천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성파도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승옥과 김용현(2013)은 ESG 점수가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의 기업들을 더미변수로 구분하고, 두 그룹 간 초과 주식수익률, 초과 영업수익률, 기업의 장기적 가치(Tobin Q)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높은 ESG 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낮은 등급을 받은 기업들보다 주식수익률이 대체로 높았으며, 영업수익률과 Tobin Q에서는 월등히 높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강원(2020)은 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과 경영성과 간에 관계에서 정의 관계가 있다 주장하였고, 조성택(2017)은 환경성과와 경영성과 간의 정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오상희와 이승태(2019)는 ESG 점수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사회적책임, 환경경영 각각의 세부항목 모두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임옥빈(2019)은 ESG 점수가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선화 등(2009)의 연구는 환경성과(Environmental)와 기업성파에는 양방향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걸 밝힘으로써, 환경관련 경영활동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생산성 좋은 기업이 환경경영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적인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여유자원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즉, 재무상태가 좋은 기업일수록 활용 가능한 자원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수행이 더 원활하다는 뜻이다.

반면, ESG, CSR과 같은 비 재무적 성과가 재무적성과와 부의 관계를 갖는다는 결과를 주장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Jensen(2001)은 기업이 사회적 공헌(CSR)을 활발하게 활동할 수 록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무성파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장승옥, 김용현(2013)은 ESG 경영은 단기적 기업성파에는 효과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성파 및 경쟁력에 기여한다고 주장

하였다.

비용차원에서 비 재무적성과는 재무적성과와 역행한다는 신자유주의적(정부 개입 배제) 입장도 존재한다(Hassel, 2005). Brammer et al(2005)는 신자유주의 경제학파의 대리인이론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기업의 ESG를 위한 노력은 많은 비용을 수반하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저하시킨다는 주장이다. 과거부터 기업의 지배구조 관점인 대리인이론이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은 주주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주주의 가치를 저해하는 ESG 활동 및 CSR 활동은 주주의 이익에 반대하는 부정적인 행위로 간주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장성준, 최동범(2022)은 ESG 활동과 대리인문제에 대하여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대리인 문제로 인해 ESG 활동 중 ES등급의 상승과 기업가치의 훼손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경영진이 사적 효용을 추구하거나 비효율적인 투자를 단행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 E와S등급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주 및 기업 가치의 제고에는 부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업의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공헌(CSR)활동은 기업의 재무적성과와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들 또한 존재한다. 예를 들어, ESG에 대한 본질적 의미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지 않아서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거나(Statman, 2000), 비용-편익 측면에서 ESG에 의한 혜택과 손해는 제로섬(zero-sum)관계에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Godfrey and Hatch(2007)은 이질적인 산업군이 포함된 연구자료, 사회적 공헌도를 측정하는 항목(CSR factors)의 불일치, 횡단면 또는 매우 짧은 시계열자료의 사용 등의 원인으로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활동은 기업의 재무적성과와 무관하며 측정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Sun et al(2019)은 기업의 CSR과 기업성장에 관계는 U자형 형태로 사회공헌이 어느 단계까지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증가시켜주지만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과도한 자원을 할당하여 다른 투자 기회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ESG와 경영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 제2절 ESG와 기업규모

기업의 규모가 기업의 재무적 또는 비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근거는 흔히 자원주의적 관점(Resource-based Theory)에서 대규모 기업이 많은 자원을 가졌기 때문이라 주장한다(Chen and Metcalf, 1980; Barney, 1991; Gooding and Wagner 3, 1985). 즉 기업의 규모는 기업이 보유한 자원의 정도를 반영하고, 기업입장에서 보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기술이나 인력, 조직, 생산 체계 등을 통해 경영의 우위를 가진다는 주장이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고(Meznar et al., 1995), 자원 우위를 점하여, 경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들 또한 존재한다(Naver et al., 1990).

Lopez-Perez et al.(2017)은 규모가 큰 기업들이 이윤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기업 본래의 목적 외에도 기업 이미지 개선 및 가치 상승을 위해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을 사용하여 규모가 작은 기업들보다 여러 방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한다. Drempetic et al.(2020)은 회사의 크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ESG 점수 또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ESG 점수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보고서, 그리고 인터뷰 등으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정보공개에 할애하는 시간과 비용이 적고 비 재무적 활동 보다는 본래의 업무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라 해석될 수 있다. 또한 Dunne et al.(2019)은 ESG 공시를 적절하게 하는 기업들의 경우 부채 비용이 줄어드는 경향을 발견하였고, 특히 기업의 크기가 대규모일수록 그 경향성이 증가함을 밝혀냈다. 따라서 ESG에 대한 정보공시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킨다면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자본조달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오덕교 등(2013)의 연구는 대기업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보다 ESG 점수가 높으며, 지배구조 측면에서 그 영향이 강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Halme et al., (2014): Sen et al., (2013): Cassells et al., (2011)의 주장에 따르면 규모가 작은 기업이 단순하고 보다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기업성과 창출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나아가,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효과적인 경영성으로 연계될 수 있으며 실증사례도 존재한다.

박순애, 신은혜(2021)는 ESG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비 재무적 ESG 성과를 위한 기업의 노력과 재무상태, 단기 기업가치, 장기 기업가치의 3가지 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별로 재무상태가 좋은 기업과 좋지 않은 기업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중견기업의 ESG 성과 노력이 재무상태와 장기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지만,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기업가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한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중견기업만큼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ESG성치가 좋은 중소기업이 재무상태도 좋다는 점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즉 중소기업과 같이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ESG 활동을 위한 노력에 할애할 시간이나 여력이 없고, 영업활동 및 본업을 통해 존속하는 것 자체가 목표이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외의 요소에 투자 및 주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대기업은 ESG 성과향상을 위해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착되어 있고 가용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ESG 노력의 여하가 재무적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종합적으로, 기업의 규모는 비 재무적성과와 재무적성과와의 관계와 관련된 연구 외에도 다양한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사용됨과 동시에(이원석, 문준호, 2017)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 활동과 같은 비 재무적성과와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



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Brammer et al., 2006; 박순애, 신은혜, 2021) 추정할 수 있다.

### 제3절 ESG와 매출성과

Freeman(1984)이 주장한 이해관계자이론에 따르면, 경영자들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어, 주주, 채권자, 고객, 종업원, 지역사회 등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CSR 활동은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구성원과 소비자들이 기업에 가지는 충성심도 증진시킨다(Lantos, 2001). 즉 기업이 CSR 활동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 혹은 마찰을 최소화하고,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확고한 평판(Reputation) 및 충성도(Loyalty)를 높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충성도가 높아진 고객들은 더 많은 수요와 더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마음이 생기고(Navarro, 1988), 충성도가 높아진 직원들은 더 낮은 임금을 수용하면서도 더 높은 생산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Greening and Turban, 2000). 정성준, 최동범(2022)은 ESG 활동 중 ES등급 상승 및 기업 가치 훼손 요인을 분석하던 중 ES등급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매출(Sales)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경향으로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고객)들은 이제 기업의 가격과 품질만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해당 기업이 친환경 경영을 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자신의 소비 결정에 반영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일즈포스(2021)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이 위기 중 직원과 고객을 대하는 방식, 환경적 참여, 인종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조치, 지역사회 참여 등을 요인을 삼았으며, 젊은 층인 MZ세대 일수록 더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결과를 종합했을 때, 결국 기업의 매출성과와 이어지는 이해관계자는 대표적으로 소비자(고객)와 노동자(직원)가 존재하며, 기업성과와의 관계에서 비재

무적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배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을 때 몇 가지 시사점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장기기업가치를 측정할 지표로 Tobin Q를, 단기기업가치를 측정할 지표로 ROA 및 ROE가 다수 사용되었고,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연구들은 ROS변수를 통해 해당 년도 말에 재무제표에서 표기되는 매출상승률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위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ESG를 각각의 활동이 아닌 하나의 활동으로 인지하여 분석한 결과가 많고, 기업의 실질적인 이득인 매출성과와 관련된 연구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ESG 활동 중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환경규제와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기업을 규모, 산업별로 분류하여 진행한 연구 또한 미미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까지 고려하여 분석을 하여 정부의 ESG관련 정책에 기여함과 동시에 기업입장에서 ESG 활동과 관련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V. 연구가설

##### 제1절 ESG 활동과 장기적성과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업의 ESG 활동과 장기적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Servaes and Tamayo(2012); 장승욱, 김용현(2013); 박순애, 신은혜(2021); 고병국(2022)등 여러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장기적가치를 측정할 지표로 Tobin Q를 사용하여 기업의 ESG 활동은 재무적성과와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오상희(2019), 민재형(2014)등의 연구들도 기업의 CSR 활동과 재무적성과와의 관계에서 정의 상관관계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반면, Jensen(2001); Brammer et al(2005), 장성준, 최동범(2022)의 연구는 기업의 CSR 활동은 기업의 장기적가치에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ESG 활동은 기업성과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연구 결과들도 대거 존재한다



(Statman, 2000; Godfrey and Hatch, 2007).

이와 같이 상반된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만 기업의 ESG 활동과 경영성과는 장기적관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지배적이다. 즉 ESG 활동을 통해 기업의 관리자 및 노동자와의 이해관계가 어느정도 형성되고, 기업의 좋은 이미지 및 평판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활동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흘러야 기업의 재무적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규모가 기업의 활동과 성과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Chen and Metcalf, 1980; 오덕교 등, 2013; Brammer et al., 2012; Lopez-perez et al., 2017), 기업성과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여 ESG 활동과 기업의 장기적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고, 기업규모별로 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가설 1: 국내기업의 ESG 활동은 기업의 장기적가치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국내기업의 ESG 활동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기업의 장기적가치에 주는 영향이 상이할 것이다.

## 제2절 ESG 활동과 단기적성과

기업의 ESG 활동과 단기적성과 간의 관계 또한 다양한 의견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ESG 활동과 단기가치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들로는 임옥빈(2019), 박순애, 신은혜(2020) 등이 존재하며, Jensen(2001), 장승욱, 김용현(2013)등은 기업이 CSR 및 ESG 활동과 같은 비 재무적 활동을 활발하게 할수록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여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악영향을 미친다 주장하였다. 또한 장성준(2022)는 ESG 체계가 취약한 기업의 ESG 활동은 대리인문제를 유발하여 기업의 단기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

시하였다. 이와 같이 ESG 활동과 기업의 단기적성과와의 관계에서도 다양한 결과들이 존재하지만 단기적성과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지배적이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단기적성과에서도 마찬가지로 ESG 활동과 기업의 단기적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고, 기업 규모별로 분석하여 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가설 2: 국내기업의 ESG 활동은 기업의 단기적가치와 부(-)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국내기업의 ESG 활동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기업의 단기적가치에 주는 영향이 상이할 것이다.

### 제3절 ESG 활동과 매출성과

기업의 ESG 활동과 매출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 기업의 CSR 활동과 매출성과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 기업의 이미지 등과 관련된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Navarro(1988), Greening and Turban(2000), 김선화, 이계원(2013)은 기업의 CSR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결과를 종합하면 기업의 CSR 활동은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매출액증가 및 수익성향상 등을 통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장지인, 최현섭(2010), 고성천, 박래수(2011), 서인덕, 배성현(2011)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면, 고객의 인식을 주목할 수 있다. 높은 사회적 성과를 가진 기업은 기업에 대한 평판이나 브랜드 등과 같은 좋은 인식을 형성하게 되어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게 되고, 사회적 성과가 높은 기업은 조직구성원에 대한 근로환경이나 노동환경 개선에 힘쓰게 되고 종업원의 동기부여와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기업의 매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정성준, 최동범(2022)은 기업의 ESG 활동과 대리인문제를 연구하던 중 기업의 ES 등급의 상승은 매출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업의 ESG 활동 및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들이 소비자 및 노동자의 충성도 및 브랜드 평판을 증가시켜 기업의 매출성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국내기업의 ESG 활동은 기업의 매출성파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1: 국내기업의 ESG 활동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기업의 매출성파에 주는 영향이 상이할 것이다.

## V.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 제1절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재무변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제공하는 기업 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필자가 직접 수집하였고, ESG 평가등급 데이터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KRX거래소(ESG 포털, MSCI 점수)에서 추출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ESG 평가등급은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표본은 두 가지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모형이나 가중치 그리고 등급 체계가 가장 유사한 기업지배구조원의 점수와 KRX 거래소(ESG 포털, MSCI 점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등급은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ESG 평가 가운데 상당히 체계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평가 지표로 알려져 있고, 기존 논문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된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오덕교 등, 2013; 황진수 등, 2016; 오상희 등, 2019; 박순애 등, 2021).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모형 체계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분류하여, 각 요소 간 세부 평가항목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2022년 현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평가는 S, A+, A, B+, B, C, D로 총 7단계로 분류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기간은 2011년부터 2018년까

지이며 표본 기간 동안 S등급을 받은 기업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총 6단계의 평가등급을 사용한다.

<표 5-1>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기준

등급체계	등급의 의미
S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업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체계를 매우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ESG 리스크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여지가 매우 적음
A+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업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ESG 리스크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여지가 상당히 적음
A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업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체계를 적절히 갖추고 있으며 ESG 리스크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여지가 적음
B+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업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하며, ESG 리스크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여지가 다소 있음
B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업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며, ESG 리스크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여지가 있음
C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업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ESG 리스크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여지가 큼
D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업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체계를 거의 갖추지 못하며, ESG 리스크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의 현실화가 우려됨

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RX 한국거래소 ESG 포털에서는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의 평가 등급을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300개가 넘는 ESG평가 기준이 존재하는데 그 중, 글로벌 ESG 지수 개발에 선도적이고 대중적인 평가사는 바로 MSCI ESG 점수로 평가받고 있다. MSCI ESG 지수는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 및 발표하는 지수로, 글로벌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지표이자 최초의 국제 벤치마크이다. MSCI ESG 지수를 따르는 전 세계 펀드 규모는 약 3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만큼 기관에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2,800개가 넘는 기업의 점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대기업 및 일부 중견, 중소기업의 점수까지 제공하고 있다. MSCI ESG의 평가모형은 10대 주요 분야, 35개 이슈에 근거하여 ESG 모범규준, ESG 리스크 등을 판단하여 기업의 ESG 성과를 평가한다. MSCI ESG 지수



또한 AAA, AA, A, BBB, BB, B, CCC 7단계로 ESG 등급체계를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AA등급을 제외한 AA~CCC 까지의 ESG 등급을 수치화 하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점수와 합산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여 사용하였다. 각 기관별 등급 분포는 <표 5-2>와 같다.

<표 5-2> 기관별 ESG 등급 분포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RX ESG포털(MSCI 점수)								
평가등급	ESG		E		S		G		평가등급	ESG		E		S		G	
	N	%	N	%	N	%	N	%		N	%	N	%	N	%	N	%
A+	32	2.1%	35	2.3%	102	6.8%	38	2.5%	A+	30	2.0%	88	5.8%	79	5.2%	55	3.7%
A	241	16.0%	154	10.2%	340	22.6%	310	20.6%	A	280	18.6%	263	17.5%	234	15.5%	232	15.4%
B+	322	21.4%	350	23.3%	248	16.5%	315	20.9%	B+	292	19.4%	359	23.9%	290	19.3%	245	16.3%
B	375	24.9%	692	46.0%	264	17.5%	323	21.5%	B	353	23.5%	618	41.1%	253	16.8%	361	24.0%
C	519	34.5%	248	16.5%	530	35.2%	509	33.8%	C	509	33.8%	142	9.4%	620	41.2%	580	38.5%
D	16	1.1%	26	1.7%	21	1.4%	10	0.7%	D	41	2.7%	35	2.3%	29	1.9%	32	2.1%
합계	1505	100%	1505	100%	1505	100%	1505	100%	합계	1505	100%	1505	100%	1505	100%	1505	100%

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RX ESG 포털을 활용하여 평가가 계산

표본기간은 2011년부터 코로나 이전인 2018년까지이며 KOSPI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선정하였다.

- ① 2010 회계연도부터 2018 회계연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 상장법인
- ②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자료가 이용 가능한 기업
- ③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KRX ESG 포털에서 ESG 점수 활용이 가능한 기업
- ④ 샘플기간동안 업종 및 회계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기업

KOSPI에 상장된 기업 중 대기업(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에서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한 기업)과 중견기업(5천억원 이상 10조원 미만), 그리고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구분되며,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고, 자산규모 5천억원 미만)을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를 분류하였다. 위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업들을 분류한결과 36개의 대기업, 73개의 중견기업, 36개의 중소기업으로 총 145개 기업을 본 연구의 표본으로 사용한다.

분류된 기업을 바탕으로 기업의 ESG 활동이 장기기업가치(Tobin Q)와 단기적가치(ROA), 매출성과(ROS)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도출된 결과들이 환경규제와 상호관계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업규모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기간은 2010년부터 코로나 이전인 2018까지이며,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측정할 성과지표로 Tobin Q, 단기 수익성을 측정할 지표로는 ROA를, 매출성과 지표로는 ROS를 사용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ESG 점수는 각 기관 별로 점수 산출 다 상이하기 때문에 아직은 기관별로 발표되는 ESG 점수 간 비교가능성과 정보의 신뢰성 및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ESG 점수의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제공하는 ESG 점수와, KRX거래소에서 제공하는(ESG 포털, MSCI 점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여 사용하였고, ESG 점수를 사용할 수 없는 국내기업과 위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들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 제2절 연구모형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요 관심사는 기업의 ESG 활동이 국내기업의 장기적가치, 단기적가치, 매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이후 기업규모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기업의 장기적가치를 대표하는 종속변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많이 인용된 Tobin Q를 사용한다. Tobin Q는 다음 식과 같이 기업의 시장 가치와 장부가치의 비율로, 보통 1.05이상의 값이 도출되면 기업이 높은 장기

적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Tobin\ Q = \frac{(\text{자기자본의 시장가치} + \text{부채의 장부가치})}{\text{자산의 장부가치}}$$

기업의 ESG 활동이 단기적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ROA(Return on assets)를 사용한다. ROA는 총자산을 사용하여 얼마나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한 비율(당기순이익/총자산)이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단기적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되었다. 마지막 종속변수인 ROS는 매출액 순이익률로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의 비율로 기업의 매출성과를 측정하는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독립변수는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한 ESG 점수(통합점수)이지만 그 하위 세부 항목들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지수들도 각각의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세부활동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떤 부분에서 더 높은 기업가치 및 매출성과를 제고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TQ_{ijt} = \beta_0 + \beta_1 ESG_{ijt} + \beta_2 ROA_{ijt} + \beta_3 FL_{ijt} + \beta_4 AT_{ijt} + \beta_5 \ln\_FS_{ijt} \dots\dots\dots (1) \\ + \beta_6 CR_{ijt} + \beta_7 \ln\_AGE_{ij} + \beta_8 ER_{ij} + \varepsilon$$

$$ROA_{ijt} = \beta_0 + \beta_1 ESG_{ijt} + \beta_2 FL_{ijt} + \beta_3 \ln\_FS_{ijt} + \beta_4 AT_{ijt} + \beta_5 CR_{ijt} \dots\dots\dots (2) \\ + \beta_6 \ln\_AGE_{ij} + \beta_8 ER_{ij} + \varepsilon$$

$$ROS_{ijt} = \beta_0 + \beta_1 ESG_{ijt} + \beta_2 FL_{ijt} + \beta_3 \ln\_FS_{ijt} + \beta_4 AT_{ijt} + \beta_5 CR_{ijt} \dots\dots\dots (3) \\ + \beta_6 \ln\_AGE_{ij} + \beta_8 ER_{ij} + \varepsilon$$



〈표 5-3〉 변수 설명 및 데이터 출처

변수	변수 설명	데이터 출처
Tobin Q	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자기자본의 시장가치 + 부채의 장부가치)/자산의 장부가치	한국거래소(KRX),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ESG	ESG 평가 점수(환경, 사회, 지배구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RX 한국거래소(ESG 포털)
ROA	기업의 단기수익률(당기순이익/총 자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ROS	매출액 순이익률(순이익/매출액)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FL	기업의 부채비율(총 부채/총 자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T	기업의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 자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FS	기업 규모(기업의 연말 자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CR	기업의 현금흐름(현금&현금성자산/총 자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GE	기업의 업력(상장연도-설립연도)	한국거래소(KRX),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ER	환경규제 영향을 받는 기업이면 1 아니면 0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기업가치 및 매출액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는 기본적인 재무적 성과와 연관이 있는 기업의 부채비율(FL), 자산회전율(AT), 기업규모(FS), 현금흐름(CR), 기업 업력(AGE)을 사용하였다. 또한 환경규제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환경규제 변수를 더미변수로 사용한다. 환경규제를 받는 기업이 기업의 장기적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기업의 ESG 활동에서 E(환



경)의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규제 변수는 선행연구를 준용하여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환경오염시설 투자액을 바탕으로 환경규제에 영향을 받는 기업과 기업을 받지 않는 기업으로 분류하여 더미변수를 만들어 사용하였다(김종호 등, 2012; 김태영 등, 2017).

## VI. 연구결과

분석모형 선택을 위해 각 모형 별로 Breusch-Pagan 라그랑지 승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형1과 모형3은 귀무가설인 등분산을 기각( $P=0.000$ )하였고, 모형2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오차항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형1과 모형3에 Pesaran's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모형1과 모형3에는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형태로 확인되어 비효율적 추정량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의 문제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FGLS(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을 선택하였다.

모형2는 Breusch-Pagan 라그랑지 승수 검정 실시 결과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아( $p=0.235$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Hausman test 결과 P값이 0.01보다( $p=0.000$ ) 작게 도출되어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고정효과 모형이 적합하다 판단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ESG 변수와 ESG 하위 항목들인 E, S, G 변수들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변수를 따로 분류한 후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토 결과 변수들의 분산팽창요인(VIF)이 ESG에서는 평균 1.280, 하위 항목들(E, S, G)에서는 1.540이 도출되었다. 다중공선성 검정 결과 Wasserman and Kutner(1990)가 제시한 다중공선성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분산팽창요인(VIF)은 1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제1절 기초통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표<6-1> 과 표<6-2>는 각각 전체 기업에 대한 기초통계량과 기업 규모별 기초통계량을 나타낸다. 표본 전체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ESG 통합 등급의 평균값은 3.249, 환경 부문의 평균값은 3.341, 사회 부문의 평균값은 3.399, 지배구조 부문의 평균값은 3.382로, 표본 내 국내기업은 평균적으로 ESG 하위 항목들이 ESG 통합점수보다 공시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Tobin Q의 평균값은 0.810으로 높은 장기적가치를 지니는 기준치인 1.05보다 낮게 나타났고, 단기적성과를 대변하는 ROA의 경우 0.03(3%)으로 표본 내 국내기업은 평균 3% 수준의 단기수익률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출성과를 나타내는 매출액 순이익률은 평균 -0.003(-0.3%)의 값이 나와 평균적으로 매출액에 있어 적자를 보는 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6-1> 기초통계분석

변수	관측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TQ	1,152	0.810	0.982	0.028	9.261
ROA	1,152	0.030	0.153	-1.515	3.364
ROS	1,152	-0.003	0.953	-24.058	7.519
ESG	1,152	3.249	1.305	1.000	6.000
E	1,152	3.341	1.087	1.000	6.000
S	1,152	3.399	1.487	1.000	6.000
G	1,152	3.382	1.358	1.000	6.000
FL	1,152	0.449	0.264	0.003	5.674
AT	1,152	0.899	0.660	0.011	10.680
ln_FS	1,152	14.344	1.899	10.315	19.205
CR	1,152	0.051	0.059	9.770	0.850
ln_AGE	1,152	3.697	0.521	1.946	4.615
ER	1,152	0.756	0.430	0.000	1.000

기업규모별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ESG 통합 등급 평균은 4.444, 환경 4.181, 사회 4.628, 지배구조 4.514로 사회와 지배구조의 점수가 환경 점수의 비해 높게 나타났다. 중견기업의 경우 ESG 통합등급의 평균은 3.260, 환경



3.368, 사회 3.477, 지배구조 3.479로 중견기업 역시 환경과 사회의 점수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ESG 통합등급 평균은 2.031, 환경 2.448, 사회 2.014, 지배구조 2.076으로 환경 부분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친환경적 활동, 사회적 활동, 그리고 지배구조의 체계가 대기업, 중견기업에 비해 비교적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더 활발한 ESG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SG 통합 점수 기준으로 각 기업 규모별로 4.44, 3.260, 2.031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간 ESG 활동에 확연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2> 기업규모별 기초통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변수	관측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변수	관측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변수	관측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TQ	288	0.720	0.068	0.057	0.948	TQ	576	0.942	1.152	0.028	9.261	TQ	288	0.634	0.395	0.043	6.544
ROA	288	0.040	0.021	-0.222	0.703	ROA	576	0.041	0.197	-1.515	3.364	ROA	288	0.001	0.104	-0.564	0.943
ROS	288	-0.003	0.979	-12.519	1.285	ROS	576	0.004	1.206	-24.056	7.519	ROS	288	-0.017	0.225	-2.458	0.948
ESG	288	4.444	1.070	2.000	6.000	ESG	576	3.260	1.190	1.000	6.000	ESG	288	2.031	0.338	1.000	6.000
E	288	4.181	1.070	1.000	6.000	E	576	3.368	0.929	1.000	6.000	E	288	2.448	0.900	1.000	6.000
S	288	4.628	1.084	2.000	6.000	S	576	3.477	1.418	1.000	6.000	S	288	2.014	0.449	1.000	6.000
G	288	4.514	1.062	2.000	6.000	G	576	3.469	1.227	1.000	6.000	G	288	2.076	0.488	1.000	6.000
FL	288	0.456	0.207	0.025	0.992	FL	576	0.487	0.307	0.000	5.674	FL	288	0.364	0.195	0.005	0.811
AT	288	0.837	0.737	0.070	10.680	AT	576	0.909	0.543	0.001	3.068	AT	288	0.941	0.776	0.014	5.065
ln_FS	288	16.706	0.786	14.680	18.205	ln_FS	576	14.273	0.978	12.183	15.987	ln_FS	288	11.924	0.671	10.315	13.590
CR	288	0.063	0.049	0.000	0.336	CR	576	0.044	0.313	0.710	0.854	CR	288	0.066	0.080	0.770	0.850
ln_AGE	288	3.671	0.580	1.946	4.443	ln_AGE	576	3.880	0.354	2.197	4.543	ln_AGE	288	3.797	0.351	2.633	4.615
ER	288	0.750	0.434	0.000	1.000	ER	576	0.762	0.428	0.000	1.000	ER	288	0.750	0.434	0.000	1.000

본 실증분석에 앞서 <표 8>과 같이 피어슨 상관관계 검토를 수행하였다. 피어슨 상관관계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의 장기적가치를 측정하는 종속변수인 Tobin Q는 ESG통합 등급과 그 하위 항목들인 환경(E), 사회(S)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고 기업의 단기수익률을 나타내는 ROA와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ESG 활동과 단기수익률이 국내기업의 장기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기업의 매출성과를 나타내는 변수인 ROS와는 하위 항목 중 환경(E), 사회(S)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기업의 단기적성과를 나타내는 변수인 ROA와는 유의하지 않은 관계가 나타났다. 피어슨 분석은 타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조건의 단순 상관관계로 사전 검토 자료로만 사용하고, 통제변수를 고려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3〉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TQ	ROA	ROE	ESG	E	S	G	FL	AT	ln_FS	CR	ln_AGE	ER
TQ	1.000												
ROA	0.215*** (0.000)	1.000											
ROS	0.088*** (0.00028)	0.312*** (0.00000)	1.000										
ESG	0.073** (0.0138)	0.035 (0.2285)	0.039 (0.1822)	1.000									
E	0.097*** (0.0010)	0.049 (0.0935)	0.062** (0.0340)	0.750*** (0.000)	1.000								
S	0.086*** (0.0034)	0.043 (0.1366)	0.0894** (0.0185)	0.856*** (0.0000)	0.575*** (0.0000)	1.000							
G	-0.032 (0.2801)	0.050 (0.0970)	-0.033 (0.2667)	0.788*** (0.0000)	0.499*** (0.0000)	0.698*** (0.0000)	1.000						
FL	-0.107*** (0.0003)	-0.176*** (0.0000)	-0.128*** (0.0000)	0.110*** (0.0002)	0.059** (0.0467)	0.104*** (0.0004)	0.175*** (0.0000)	1.000					
AT	0.019 (0.5175)	-0.001 (0.9681)	0.038 (0.1908)	-0.072** (0.0139)	-0.023 (0.4384)	-0.021 (0.4860)	-0.103*** (0.0005)	0.153*** (0.0000)	1.000				
ln_FS	-0.005* (0.0635)	0.083*** (0.0047)	-0.007 (0.8011)	0.670*** (0.0000)	0.571*** (0.0000)	0.650*** (0.0000)	0.688*** (0.0000)	0.146*** (0.0000)	-0.057* (0.0518)	1.000			
CR	0.263*** (0.0000)	0.041 (0.1643)	0.042 (0.1514)	-0.010 (0.7321)	-0.026 (0.3862)	-0.017 (0.5681)	-0.045 (0.1242)	0.131*** (0.0000)	0.006 (0.8508)	-0.165*** (0.0000)	1.000		
ln_AGE	-0.147*** (0.0000)	0.019 (0.5162)	0.025 (0.3943)	-0.147*** (0.0000)	-0.144*** (0.0000)	-0.115*** (0.0001)	-0.138*** (0.0000)	0.066** (0.0260)	-0.000 (0.9890)	-0.059** (0.0445)	0.022 (0.4519)	1.000	
ER	-0.090*** (0.0022)	0.012 (0.6768)	-0.015 (0.6208)	0.084*** (0.0045)	-0.034 (0.2526)	0.078*** (0.0082)	0.145*** (0.0000)	0.000 (0.9995)	0.012 (0.6800)	0.033 (0.2659)	-0.116*** (0.0001)	0.062** (0.0345)	1.000

## 제2절 기업의 ESG 활동과 장기적가치와의 관계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ESG 활동은 기업의 장기적가치에 유의수준 1%로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나타났으며, ESG활동이 기업의 장기적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오상희 등, 2019; 정무권 등, 2022; 고병국 등, 2022)들의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으며 ESG활동이 활발한 기업일수록 기업의 장기적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ESG를 구성하는 하위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G(지배구조)를 제외한 E(환경), S(사회) 활동은 각각 5%, 1% 유의수준에서 기업의 장기적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도출되었다. 따라서 활발한 친환경활동과 사회적책임경영(CSR)활동을 통해 높은 ESG 점수를 받은 기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높은 기업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기업 규모 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ESG 통합점수는 오직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만 장기기업가치와 유의수준 5%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도출되었고 중소기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ESG 활동이 중소기업에 비해 활발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비교적 자원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충분한 자원을 바탕으로 ESG에 더 많은 투자 및 활동을 하고 있다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ESG 하위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오직 대기업의 E(환경)활동에서만 유의수준 1%로 정(+)의 관계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의 S(사회), G(지배구조) 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도출되었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박혜진, 2020)에서 제시한 것처럼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 동향을 중요시하는 대기업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국가별 친환경 정책 로드맵”을 살펴보면 이미 국제적으로 미국(파리협약, 국제 기후 대응 주도), 유럽(EU 그린딜), 중국(탄소중립2060), 일본(탄소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등 많은 선진국들의 규제 및 정책들이 발표되고 환경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해관계자 중 투자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입장에서 친환경적 기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태정림, 2021). 이러한 배경을 고려했을 때, 중견, 중소기업에 비해 가용자원이 충분하고 체계가 어느정도 구축되어 있는 대기업은 ESG활동 중 환경적인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활동이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대기업들의 활발한 친환경적 정책들이 장기기업성가에 어느정도 효과를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들 중 ROA는 대기업의 장기적가치와는 양(+)의 관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전체기업을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은 단기적인 수익률(ROA)이 높을수록 기업의 장기적 관점의 자산가치가 높아진다는 일반적인 재무이론과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기업의 부채비율을 나타내는 FL은 모든 기업에서 유의수준 1%로 부(-)의 관계가 도출되었다.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다고 해서 단순히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업의 부채비율은 기업의 파산 위험도 및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장기적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기업입장에서 부채비율이 높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의 변동가능성과 같은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장기적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의 자산회전율을 나타내는 AT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산회전율이 높을수록 기업에 긍정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재무이론인데, 자산회전율이 낮으면 그만큼 기업의 자산이 묶여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이는 기회비용을 발생시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즉 자산회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장기적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재무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기업의 크기를 나타내는 ln\_FS를 보면 모든 기업에서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크기를 대변하는 변수인 자산규모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장기 기업가치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표본은 ESG점수가 공시된 기업을 대상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자산규모가 높은 기업들이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표본으로 사용된 기업들은 자본 집약적이며 적당한 수준의 대규모 시설을 보유하기 때문에 이미 수확 체감(decreasing returns to scale)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현금흐름을 보여주는 CR은 모든 기업규모에서 장기적가치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업의 현금흐름이 좋으면 그만큼 기업이 활발한 환



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매출액 및 신용등급이 높아져 기업의 장기적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환경규제에 대리변수인 ER은 모두 유의한 관계가 도출되었지만 대기업에서만 정(+)의 관계가 도출되었다. 이는 대기업에서 환경규제에 영향을 받는 기업일수록 기업의 장기적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결과는 대기업 중 환경규제를 받는 기업일수록 규제에 잘 맞춰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관심변수 중 하나인 E의 결과가 장기적가치의 정(+)의 영향을 준다고 도출된 결과를 확인했을 때, 환경규제를 받으면 대기업의 E(환경) 활동이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서는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이 장기적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왔고, 이는 재무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표 6-4>기업의 ESG 활동과 장기기업가치와의 분석결과

전체기업						대기업					
종속변수 : Tobin Q						종속변수 : Tobin Q					
FGLS						FGLS					
	1	2	3	4	5		1	2	3	4	5
ESG	0.048*** (5.15)					ESG	0.021** (2.28)				
E		0.023** (2.11)	0.039*** (3.82)			E		0.032*** (2.82)	0.028** (2.46)		
S		0.044*** (4.49)		0.047*** (5.73)		S		0.002 (0.13)		0.003 (0.26)	
G		-0.001 (-0.10)			0.002 (0.24)	G		-0.003 (-0.21)			0.004 (0.25)
BDA	0.853*** (6.53)	0.867*** (6.75)	0.863*** (6.57)	0.859*** (6.61)	0.915*** (7.03)	BDA	5.801*** (14.35)	5.423*** (12.40)	5.672*** (13.22)	5.951*** (14.07)	5.696*** (13.25)
FL	-0.696*** (-12.72)	-0.689*** (-12.37)	-0.696*** (-12.68)	-0.679*** (-12.42)	-0.687*** (-12.41)	FL	-0.795*** (-10.16)	-0.814*** (-8.99)	-0.764*** (-8.15)	-0.764*** (-9.01)	-0.829*** (-9.78)
AT	0.056*** (3.57)	0.052*** (3.34)	0.054*** (3.40)	0.054*** (3.54)	0.061*** (3.92)	AT	0.048*** (3.16)	0.049*** (3.22)	0.046*** (3.05)	0.049*** (3.24)	0.048*** (3.18)
ln_FS	-0.020*** (-3.14)	-0.027*** (-3.85)	-0.015** (-2.12)	-0.023*** (-3.75)	-0.019** (-2.42)	ln_FS	-0.209*** (-8.50)	-0.213*** (-7.88)	-0.200*** (-7.96)	-0.208*** (-8.29)	-0.222*** (-8.28)
CR	2.384*** (8.69)	2.359*** (8.67)	2.547*** (9.52)	2.413*** (8.78)	2.386*** (8.84)	CR	1.523*** (2.87)	1.445*** (2.63)	1.451*** (2.73)	1.395*** (2.56)	1.672*** (3.05)
ln_AGE	-0.266*** (-5.25)	-0.125*** (-5.40)	-0.116*** (-5.01)	-0.135*** (-5.94)	-0.121*** (-5.21)	ln_AGE	-0.199*** (-10.23)	-0.196*** (-7.77)	-0.194*** (-8.92)	-0.187*** (-8.99)	-0.196*** (-9.00)
ER	-0.073*** (-2.70)	-0.064*** (-2.30)	-0.061** (-1.96)	-0.075*** (-2.76)	-0.072*** (-2.63)	ER	0.084** (2.46)	0.076** (2.16)	0.096*** (2.74)	0.081** (2.37)	0.087** (2.53)
Obs	1152	1152	1152	1152	1152	Obs	288	288	288	288	288
_cons	1.370*** (11.68)	1.417*** (11.48)	1.232*** (10.41)	1.463*** (12.51)	1.310*** (10.46)	_cons	4.756*** (10.91)	4.964*** (10.69)	4.552*** (10.10)	4.723*** (10.69)	5.044*** (11.21)

중견기업						중소기업					
종속변수: Tobin Q						종속변수: Tobin Q					
PGLS						PGLS					
*p < .10 **p < .05 ***p < .01						*p < .10 **p < .05 ***p < .01					
	1	2	3	4	5		1	2	3	4	5
ESG	0.029** (2.29)					ESG	-0.037 (-1.08)				
E		0.007 (0.41)	0.017 (1.08)			E		-0.009 (-0.72)	-0.008 (-0.69)		
S		0.007 (0.55)		0.012 (0.85)		S		0.007 (0.45)		0.008 (0.55)	
G		0.003 (0.18)			0.018 (1.12)	G		-0.005 (-0.21)			-0.004 (-0.20)
ROA	0.392*** (2.67)	0.397*** (2.65)	0.400*** (2.68)	0.397*** (2.70)	0.407*** (2.76)	ROA	0.022 (0.12)	0.102 (0.53)	0.056 (0.30)	0.106 (0.58)	0.047 (0.26)
FL	-1.028*** (-11.66)	-1.033 (-11.38)	-0.997*** (-11.21)	-1.005*** (-11.51)	-1.007*** (-11.64)	FL	-0.550*** (-7.85)	-0.564*** (-7.89)	-0.559*** (-7.85)	-0.557*** (-8.03)	-0.556*** (-7.98)
AT	0.242*** (6.14)	0.236*** (5.95)	0.236*** (5.95)	0.236*** (6.01)	0.236*** (6.05)	AT	-0.003 (-0.13)	-0.010 (-0.39)	-0.006 (-0.24)	-0.004 (-0.17)	-0.001 (-0.03)
ln_FS	-0.083*** (-2.69)	-0.042** (-2.09)	-0.054** (-2.25)	-0.048** (-2.15)	-0.039** (-2.01)	ln_FS	-0.220*** (-5.62)	-0.209*** (-5.36)	-0.202*** (-5.25)	-0.221*** (-5.78)	-0.217*** (-5.59)
CR	3.902*** (8.22)	3.987*** (8.26)	3.973*** (8.28)	4.052*** (8.60)	3.941*** (8.31)	CR	1.077*** (4.17)	1.106*** (4.43)	1.193*** (4.90)	1.015*** (3.90)	1.088*** (4.24)
ln_AGE	-0.101*** (-3.28)	-0.107*** (-3.26)	-0.098*** (-3.07)	-0.105*** (-3.39)	-0.113*** (-3.64)	ln_AGE	-0.101** (-2.08)	-0.094* (-1.84)	-0.088* (-1.75)	-0.110 (-2.34)	-0.106** (-2.23)
ER	-0.104*** (-2.73)	-0.138*** (-3.17)	-0.090** (-2.34)	-0.100*** (-2.61)	-0.134*** (-3.12)	ER	-0.049* (-1.89)	-0.050* (-1.77)	-0.046* (-1.59)	-0.048* (-1.90)	-0.045* (-1.76)
Obs	576	576	576	576	576	Obs	288	288	288	288	288
_cons	1.571*** (5.17)	1.762*** (5.30)	1.531*** (5.05)	1.575*** (5.09)	1.761*** (5.55)	_cons	3.711*** (9.05)	3.451*** (8.62)	3.476*** (8.66)	3.559*** (8.98)	3.634*** (9.04)

### 제3절 기업의 ESG 활동과 단기적가치와의 관계

기업의 단기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기업의 단기성과의 대리변수인 ROA의 결과를 보면 기업의 단기적가치는 모든 기업규모에 있어서 ESG활동 뿐만 아니라 하위 항목들(E, S, G)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고 각각의 변수들을 세부적으로 확인한 결과에서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김윤경, 2020; 고병국 등, 2022)를 뒷받침하는 결과임과 동시에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기업의 ESG활동은 기업의 단기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내기업의 ESG활동은 단기적성과에 유의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표 6-5> 기업의 ESG 활동과 단기기업가치와의 분석결과

전체기업						대기업					
종속변수: ROA						종속변수: ROA					
FE *** p < .01 ** p < .05 * p < .10						FE *** p < .01 ** p < .05 * p < .10					
	1	2	3	4	5		1	2	3	4	5
ESG	-0.004 (-0.58)					ESG	-0.001 (-0.21)				
E		0.007 (0.96)	0.006 (0.87)			E		0.003 (0.49)	0.004 (0.85)		
S		-0.005 (-0.90)		-0.004 (-0.71)		S		-0.001 (-0.01)		-0.002 (-0.42)	
G		0.003 (0.48)			0.002 (0.28)	G		-0.002 (-0.35)			-0.002 (-0.33)
FL	-0.155*** (-5.88)	-0.158*** (-5.96)	-0.156*** (-5.91)	-0.156*** (-5.91)	-0.156*** (-5.89)	FL	-0.156*** (-2.78)	-0.157*** (-2.81)	-0.162*** (-2.90)	-0.157*** (-2.80)	-0.153*** (-2.76)
AT	-0.012 (-0.97)	-0.012 (-0.98)	-0.012 (-0.95)	-0.012 (-0.98)	-0.011 (-0.92)	AT	0.001 (0.06)	0.002 (0.08)	0.002 (0.09)	0.001 (0.07)	0.001 (0.05)
ln_FS	-0.117*** (-5.38)	-0.118*** (-5.39)	-0.118*** (-5.43)	-0.117*** (-5.40)	-0.119*** (-5.43)	ln_FS	-0.041** (-2.10)	-0.040** (-2.03)	-0.041** (-2.06)	-0.041** (-2.10)	-0.042*** (-2.18)
CR	0.315*** (3.19)	0.316*** (3.20)	0.315*** (3.19)	0.315*** (3.19)	0.314*** (3.18)	CR	-0.195 (-1.31)	-0.18 (-1.21)	-0.203 (-1.36)	-0.192 (-1.29)	-0.176 (-1.19)
ln_AGE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ln_AGE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ER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ER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bs	1152	1152	1152	1152	1152	Obs	288	288	288	288	288
R2	0.058	0.059	0.058	0.058	0.057	R2	0.0563	0.0755	0.0589	0.0568	0.0736
_cons	1.859*** (5.41)	1.823*** (5.28)	1.835*** (5.32)	1.851*** (5.38)	1.857*** (5.40)	_cons	0.815** (2.45)	0.819** (2.44)	0.751** (2.24)	0.815** (2.47)	0.866*** (2.64)

중견기업						중소기업					
종속변수: ROA						종속변수: ROA					
FE $^{*}p < .10; ** p < .05; *** p < .01$						FE $^{*}p < .10; ** p < .05; *** p < .01$					
	1	2	3	4	5		1	2	3	4	5
ESG	-0.004 (-0.36)					ESG	-0.002 (-0.32)				
E		0.016 (1.24)	0.016 (1.23)			E		-0.001 (-0.28)	-0.001 (-0.36)		
S		-0.008 (-0.83)		-0.005 (-0.55)		S		-0.004 (-0.63)		-0.002 (-0.38)	
G		0.012 (1.03)			0.01 (0.91)	G		0.001 (0.12)			-0.001 (-0.21)
FL	-0.257*** (-5.56)	-0.265*** (-5.69)	-0.258*** (-5.59)	-0.259*** (-5.58)	-0.259*** (-5.60)	FL	-0.120*** (-8.84)	-0.122*** (-8.30)	-0.121*** (-8.59)	-0.118*** (-8.83)	-0.121*** (-8.75)
AT	-0.092** (-2.23)	-0.095** (-2.28)	-0.095** (-2.30)	-0.093** (-2.25)	-0.087*** (-2.11)	AT	-0.047*** (-9.56)	-0.048*** (-8.93)	-0.047*** (-9.47)	-0.046*** (-9.46)	-0.048*** (-9.53)
ln_FS	-0.191*** (-5.02)	-0.199*** (-5.19)	-0.197*** (-5.19)	-0.191*** (-5.03)	-0.198*** (-5.19)	ln_FS	0.027*** (4.79)	0.028*** (4.76)	0.027*** (4.84)	0.027*** (4.73)	0.027*** (4.82)
CR	1.123*** (4.19)	1.123*** (4.20)	1.114*** (4.18)	1.125*** (4.21)	1.111*** (4.16)	CR	0.094*** (2.76)	0.087** (2.38)	0.093*** (2.72)	0.095*** (2.74)	0.090** (2.55)
ln_AGE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ln_AGE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ER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ER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bs	576	576	576	576	576	Obs	288	288	288	288	288
R2	0.1069	0.112	0.1094	0.1072	0.1082	R2	0.1119	0.1263	0.1233	0.1235	0.1101
_cons	3.088*** (5.25)	3.109*** (5.29)	3.098*** (5.28)	3.086*** (5.25)	3.128*** (5.32)	_cons	-0.458*** (-6.85)	-0.470*** (-6.91)	-0.464*** (-7.13)	-0.463*** (-7.02)	-0.468*** (-7.01)

통제변수들 중 부채비율 FL은 기업의 장기적가치에서 도출된 결론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업규모에서 유의수준 1%의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6-4>에서 도출된 결과와 같은 이유로 부채비율이 존재할 경우 금융비용의 발생하므로 기업의 단기적가치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ROA의 분모인 총 자산 규모가 동일한 조건에서 분자인 당기순이익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단기적 가치가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AT는 자산회전율을 나타내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도출되었고, 대기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동일한 매출 규모에 비하여 자산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자산회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

다고 주장하는 선행연구(고병국 등, 2022)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기업의 크기를 나타내는  $\ln\_FS$ 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부(-)의 상관관계가 도출되었고, 중소기업은 정(+)의 상관관계가 도출되었다. 이는 규모가 크고 보유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이미 수확체감(decreasing returns to scale)이 발생하는 상태라는 기업의 장기적가치의 결과 <표 6-4>를 재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단기가치가 상승한다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단기적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 재무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기업의 현금흐름은 대기업의 단기적가치와는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가 나왔고, 중견 중소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다. 이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자산대비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한 기업이 많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 제 4 절 기업의 ESG 활동과 매출성과와의 관계

매출성과의 대리변수인 ROS 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ESG 활동과 매출성과에는 유의성이 없다고 도출되었다. ROS 는 기업의 매출이익률을 보여주는 변수인데 기업의 ESG 활동은 매출이익률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기업의 ESG 활동은 기업의 단기적가치보다 기업의 장기적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표본기간이 짧고 ESG 의 역사가 별로 깊지 않은 국내기업들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업의 매출이익률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6> 기업의 ESG 활동과 매출성과와의 관계

전체기업						대기업					
종속변수: ROS						종속변수: ROS					
FGLS						FGLS					
	1	2	3	4	5		1	2	3	4	5
ESG	0.005 (0.69)					ESG	0.003 (0.43)				
E		0.005 (0.87)	0.005 (0.88)			E		0.009 (0.93)	0.01 (1.20)		
S		0.004 (0.75)		0.005 (0.79)		S		0.009 (0.84)		0.006 (0.78)	
G		-0.005 (-0.78)			-0.004 (-0.66)	G		-0.008 (-0.91)			-0.007 (-0.89)
FL	-0.259*** (-12.54)	-0.230*** (-9.39)	-0.245*** (-11.08)	-0.239*** (-10.43)	-0.238*** (-12.51)	FL	-0.387*** (-5.64)	-0.303*** (-4.28)	-0.273*** (-3.80)	-0.419*** (-6.10)	-0.381*** (-5.68)
AT	0.063*** (8.94)	0.057*** (7.14)	0.064*** (9.42)	0.061*** (7.98)	0.06*** (10.02)	AT	0.069*** (7.52)	0.069*** (7.44)	0.058*** (7.20)	0.062*** (6.76)	0.068*** (7.22)
ln_FS	0.009*** (2.90)	0.010*** (2.99)	0.010*** (4.50)	0.007*** (2.70)	0.015*** (6.41)	ln_FS	0.045*** (3.52)	0.050*** (4.25)	0.052*** (4.89)	0.055*** (5.05)	0.054*** (4.98)
CR	0.152** (2.11)	0.099* (1.52)	0.151** (1.99)	0.148* (1.86)	0.307*** (4.93)	CR	0.385*** (4.82)	0.339*** (4.23)	0.346*** (4.53)	0.346*** (4.54)	0.311*** (4.01)
ln_AGE	0.008 (1.23)	0.008 (1.08)	0.007 (1.05)	0.010 (1.31)	0.013* (2.34)	ln_AGE	0.053** (2.32)	0.046** (2.13)	0.033 (1.44)	0.064*** (2.92)	0.052** (2.29)
ER	-0.018** (-2.62)	-0.01 (-1.19)	-0.013* (-1.87)	-0.012 (-1.27)	-0.002 (-0.38)	ER	-0.047* (-1.67)	-0.045* (-1.58)	-0.046* (-1.63)	-0.058** (-2.03)	-0.055** (-2.04)
Obs	1152	1152	1152	1152	1152	Obs	288	288	288	288	288
_cons	-0.127** (-2.86)	-0.116** (-2.32)	-0.106** (-2.67)	-0.115** (-2.18)	-0.172** (-3.88)	_cons	-0.169** (-1.35)	-0.156** (-1.28)	-0.146** (-1.19)	-0.178** (1.85)	-0.124** (-1.13)



중견기업						중소기업					
종속변수: ROS						종속변수: ROS					
FGLS						FGLS					
	1	2	3	4	5		1	2	3	4	5
ESG	0.084 (1.25)					ESG	-0.007 (-0.78)				
E		-0.005 (-0.41)	0.002 (0.27)			E		-0.008 (-1.03)	-0.009 (-1.51)		
S		0.013 (1.51)		0.013 (1.52)		S		-0.003 (-0.24)		0.004 (0.26)	
G		0.001 (0.07)			0.005 (0.75)	G		0.005 (0.50)			0.002 (0.26)
FL	-0.239*** (-5.03)	-0.237*** (-4.31)	-0.227*** (-4.95)	-0.256*** (-4.93)	-0.251*** (-6.24)	FL	-0.207*** (-7.01)	-0.207*** (-6.74)	-0.205*** (-7.22)	-0.196*** (-6.84)	-0.199*** (-6.74)
AT	0.053*** (3.92)	0.050*** (3.29)	0.048*** (3.68)	0.054*** (3.53)	0.050*** (4.86)	AT	0.072*** (6.63)	0.076*** (6.78)	0.074*** (7.58)	0.073*** (6.85)	0.077*** (6.97)
ln_FS	0.032*** (2.85)	0.033*** (2.96)	0.035*** (3.05)	0.040*** (3.41)	0.039*** (3.32)	ln_FS	0.039*** (3.99)	0.038*** (3.65)	0.040*** (4.16)	0.037*** (3.69)	0.037*** (3.76)
CR	0.453*** (2.32)	0.412** (1.82)	0.541*** (2.71)	0.439*** (2.22)	0.723*** (3.92)	CR	0.109* (1.91)	0.083 (1.43)	0.101* (1.87)	0.105* (1.89)	0.106* (1.85)
ln_AGE	-0.013 (-0.93)	-0.002 (-0.11)	-0.010 (-0.74)	-0.018 (-1.14)	-0.006 (-0.54)	ln_AGE	0.056*** (3.33)	0.060*** (3.41)	0.059*** (3.59)	0.056*** (3.28)	0.058*** (3.48)
ER	-0.011 (-0.60)	-0.014 (-0.61)	-0.017 (-0.92)	-0.008 (-0.40)	-0.026 (-1.56)	ER	-0.005 (-0.37)	-0.008 (-0.57)	-0.01 (-0.78)	-0.005 (-0.46)	-0.009 (-0.72)
Obs	576	576	576	576	576	Obs	288	288	288	288	288
_cons	0.416*** (2.24)	0.427*** (2.56)	0.437*** (2.78)	0.480*** (2.98)	0.425*** (2.71)	_cons	-0.658*** (-5.83)	-0.658*** (-5.78)	-0.669*** (-6.31)	-0.656*** (-5.89)	-0.660*** (-5.95)

통계변수 중 부채비율 FL 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고 금융비용의 발생으로 인해 모든 기업 규모에서 매출성파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매출성과와 자산회전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도출되었다. 자산회전율이 높아지면 동일한 자산규모 하에 매출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이경우에 당기순이익 또한 높아지므로 기업의 매출상승률(ROS)이 높아지는 것은 타당하다. 기업의 크기와 매출성과와의 관계에서는 모든 기업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도출되었다. 이는 기업이 클수록 기업의 매출성파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재무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환경규제와 매출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가 도출되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환경규제가 매출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규제에 받을 정도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대기업을 매출성과와 부의 상관관계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대기업 중 환경규제를 적용 받는 기업은 비용의 지출로 인해 기업의 매출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제 5 절 환경규제와 기업의 ESG 활동의 상호작용효과 추가분석

기업의 ESG 활동과 기업의 재무적성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장기적가치와의 관계에서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ESG 활동 중 E(환경) 활동의 유의미한 결과가 환경규제의 영향을 받는지 검증하기 위해 환경규제와 ESG 활동의 상호작용변수를 사용하여 기업의 장기적가치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분석에 대한 상호작용효과 모형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TQ_{ijt} = \beta_0 + \beta_1 ESG_{ijt} + \beta_2 (ESG_{ijt} * ER_{ij}) + \beta_3 ROA_{ijt} + \beta_4 FL_{ijt} + \beta_5 AT_{ijt} + \beta_6 \ln FS_{ijt} + \beta_7 CR_{ijt} + \beta_8 \ln AGE_{ij} + \beta_9 ER_{ij} + \varepsilon \quad (4)$$

전체기업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상호작용변수에서 10% 유의수준으로 유의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나왔다. 하지만 ESG 각각의 요소를 세부적으로 봤을 때, 모두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환경규제의 영향을 받는 기업과 받지 않는 기업과 관계없이 환경규제가 기업의 ESG 활동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을 규모별로 분류하여 결과를 살펴보면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대기업의 결과를 보면 오직 환경부문에서 1% 유의수준으로 정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대기업 중 환경규제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더 많은 E(환경)의 활동을 통해 기업의



장기적가치를 제고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환경규제가 이루어졌을 때 활동을 하는 것은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아닌 환경과 관련된 규제 혹은 탄소중립,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등 변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ESG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7> 환경규제와 기업의 ESG 활동의 상호작용효과

전체기업					대기업				
종속변수: Tobin Q					종속변수: Tobin Q				
FGLS					FGLS				
	1	2	3	4		1	2	3	4
ESG	0.038* (1.81)				ESG	0.061** (2.18)			
E		0.054* (1.93)			E		0.069** (2.31)		
S			0.013 (0.76)		S			0.001 (0.04)	
G				0.012 (0.74)	G				-0.058 (-0.92)
ESG*ER	0.055* (1.94)				ESG*ER	0.022 (0.68)			
E*ER		0.029 (0.72)			E*ER		0.180*** (3.86)		
S*ER			0.012 (0.71)		S*ER			0.013 (0.36)	
G*ER				0.007 (0.41)	G*ER				0.086 (1.32)
ROA	0.872*** (6.72)	0.859*** (6.45)	0.889*** (6.83)	0.938*** (7.25)	ROA	5.787*** (14.22)	5.788*** (14.35)	5.959*** (14.71)	5.649*** (13.99)
FL	-0.669*** (-12.06)	-0.702*** (-12.82)	-0.612*** (-11.01)	-0.614*** (-10.86)	FL	-0.795*** (-9.97)	-0.762*** (-9.40)	-0.774*** (-9.67)	-0.806*** (-9.17)
AT	0.055*** (3.45)	0.055*** (3.57)	0.051*** (3.24)	0.059*** (3.67)	AT	0.044*** (3.08)	0.045*** (3.11)	0.044*** (3.09)	0.045*** (3.15)
ln_FS	-0.018*** (-2.86)	-0.014** (-2.38)	-0.022*** (-3.29)	-0.023*** (-3.31)	ln_FS	-0.211*** (-8.49)	-0.209*** (-8.50)	-0.203*** (-8.19)	-0.196*** (-9.17)
CR	2.313*** (8.31)	2.585*** (9.71)	2.344*** (8.45)	2.300*** (8.28)	CR	1.437*** (2.68)	1.916*** (3.88)	1.493*** (2.74)	1.173** (2.19)
ln_AGE	-0.110*** (-4.75)	-0.119*** (-5.18)	-0.119*** (-5.10)	-0.116*** (-4.86)	ln_AGE	-0.199*** (-10.05)	-0.198*** (-10.57)	-0.202*** (-10.83)	-0.183*** (-8.60)
ER	-0.155** (-2.11)	-0.034 (-0.34)	-0.363*** (-4.94)	-0.383*** (-4.72)	ER	0.218* (1.71)	0.295** (2.19)	0.002 (0.01)	0.059 (0.55)
Obs	1152	1152	1152	1152	Obs	288	288	288	288
_cons	1.357*** (10.30)	1.223*** (8.35)	1.570*** (11.38)	1.478*** (10.22)	_cons	4.707*** (10.69)	5.514*** (12.11)	4.751*** (10.41)	4.902*** (9.35)

중견기업					중소기업				
종속변수: Tobin Q					종속변수: Tobin Q				
FGLS					FGLS				
	1	2	3	4		1	2	3	4
ESG	0.021 (0.56)				ESG	-0.012 (-0.09)			
E		0.002 (0.05)			E		-0.074 (-1.26)		
S			0.032 (0.94)		S			0.054 (0.97)	
G				0.009 (0.26)	G				0.063 (0.61)
ESG*ER	0.012 (0.30)				ESG*ER	-0.028 (-0.20)			
E*ER		0.021 (0.40)			E*ER		0.04 (0.66)		
S*ER			0.024 (0.45)		S*ER			0.022 (0.30)	
G*ER				0.037 (0.60)	G*ER				0.07 (0.66)
ROA	0.430*** (2.75)	0.416*** (2.68)	0.461*** (2.71)	0.473*** (3.10)	ROA	0.024 (0.04)	0.084 (0.46)	0.114 (0.62)	0.045 (0.25)
PL	-1.001*** (-11.09)	-1.008*** (-11.17)	-0.933*** (-9.68)	-0.953*** (-10.77)	PL	-0.552*** (-7.87)	-0.534*** (-7.25)	-0.556*** (-7.90)	-0.556*** (-8.00)
AT	0.230*** (5.69)	0.239*** (5.96)	0.223*** (5.59)	0.242*** (6.06)	AT	-0.001 (-0.05)	-0.001 (-0.05)	-0.005 (-0.17)	-0.001 (-0.02)
ln_PS	-0.023** (-1.21)	-0.024** (-1.33)	-0.025** (-1.27)	-0.047** (-2.22)	ln_PS	-0.214*** (-5.48)	-0.206*** (-5.25)	-0.223*** (-5.78)	-0.213*** (-5.46)
CR	3.982*** (8.01)	3.960*** (8.24)	4.074*** (7.89)	4.129*** (8.44)	CR	1.041*** (3.94)	1.223*** (4.83)	1.023*** (3.95)	1.056*** (4.02)
ln_AGE	-0.086*** (-2.64)	-0.098*** (-3.06)	-0.069** (-2.02)	-0.091*** (-2.87)	ln_AGE	-0.106** (-2.23)	-0.086* (-1.67)	-0.109** (-2.32)	-0.110** (-2.30)
ER	-0.142 (-1.10)	-0.162 (-0.87)	-0.121 (-0.82)	-0.170 (-0.93)	ER	0.105 (0.38)	0.049 (0.28)	0.004 (0.03)	0.188 (0.87)
Obs	1152	1152	1152	1152	Obs	288	288	288	288
_cons	1.472*** (4.51)	1.600*** (4.55)	1.557*** (4.61)	1.913*** (5.39)	_cons	3.606*** (7.29)	3.571*** (8.46)	3.600*** (8.58)	3.468*** (7.76)

## VII. 결 론

KOSPI 상장 기업들 중 기업규모 별로 분류하여 총145개의 기업(대36, 중견73, 중소36)을 대상으로 ESG 경영이 기업성과와 매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기업성과는 기업의 장기 자산가치를 측정하는 Tobin' s Q와 기업의 단기 자산가치를 측정하는 ROA, 매출상승률을 나타내는 ROS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고 환경규제와 ESG 활동의 상호작용변수를 사용하였다. 기업별 ESG



점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KRX ESG 포털의 MSCI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내어 사용하였고 세부 구성항목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각각 나누어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기업을 기업 규모별로 나누어 분석했다는 점과, ESG 점수를 제공하는 두 기관의 점수를 합산하여 ESG 활동의 대용치로 사용했다는 점에 기존 연구와 차별이 된다. 또한 기업의 가치와 더불어 실질적인 이득인 매출성과와의 관계 또한 살펴봄으로써 ESG 활동이 기업의 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하게 해석하였다. 더불어 환경규제가 대기업의 ESG 활동 중 E와 상호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데 의미가 있다. 앞에서 제시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제1절 연구의 시사점

첫째, 국내기업의 ESG 활동과 기업의 장기적가치(Tobin's Q)와의 관계를 기업 규모별로 분석해본 결과, 기존연구와 유사하게 ESG 활동은 기업의 장기적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기업규모별로 분석했을 때 중소기업은 제외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만 부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이 도출되었다. 이는 비교적 가용 가능한 자원과 ESG 전담 부서와 같은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더 활발한 ESG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ESG 활동 및 정보공시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들의 의무화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존재한다. 즉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국가적 정책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제도 등을 통해 비교적 자산이 적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국내기업의 ESG 활동과 기업의 단기적가치(ROA)와의 관계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본 결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ESG 활동이 모두 기업의 단기적가치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구성항목인 E(환경), S(사회), G(지배구

조)를 각각 분석해 보아도 단기적가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기업의 ESG 활동은 단기적으로 기업가치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기업의 ESG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이 더 많은 비용지출을 유발하고 (Jensen,2001; 김윤경, 2020; 고병국 등, 2022), 비용-편익 측면에서 ESG에 의한 혜택과 손해는 제로섬(zero-sum) 관계라고 주장하는(Godfrey, 2017) 기존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즉 단기적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기업의 노력 중 친환경정책, 사회공헌활동(CSR), 지배구조개편 등에 대한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기업입장에서 단기적 성과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ESG 활동의 방향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국내기업의 ESG 활동과 기업의 매출성과(ROS)와의 관계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본 결과,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매출성과는 ESG 활동과는 유의하지 않은 관계가 도출되었다. 이는 국내기업의 ESG 활동은 매출성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해석할 수 있다. 또한 ESG의 역사가 짧고 표본 수가 적은 본 연구의 한계점과 연결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ESG 활동과 환경규제 간의 상호작용변수를 사용하여 ESG 활동이 기업의 장기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살펴본 결과, 대기업 중 환경규제를 받는 기업들은 더 많은 ESG 활동을 통해 기업의 장기적가치를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규제가 이루어졌을 때 더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기업들의 자율적참여가 아닌 규제 혹은 변화하는 동향에 맞춰서 E(환경)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환경 부분에서의 규제 뿐만 아니라 사회 및 지배구조 부분에서도 적절한 규제를 바탕으로 ESG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대기업이 중견, 기업 중소기업에 비해 더 많은 ESG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었고, 단기적가치와 매출성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ESG 활



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기업의 경우 ESG와 관련된 체계와 자원은 충분하지만, 아직까지 단기적 기업성과와 연결된 정도의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ESG 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및 시간들에 대한 부담과 자원 부족의 문제로 대기업의 비해 원활한 ESG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차원에서 단기적 재무성과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수단과 기업 규모 별 맞춤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SG 정보공시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각 기업들은 단순히 기관들의 ESG 평가에 대응하여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건전한 지배구조의 개편, 사회적책임, 친환경정책과 더불어 기업의 비전과 목표, 전략 등 경영체계 전반에서 ESG 맞춤 재설계 작업을 통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연구의 한계점은 ESG 정보공시 기관에서 제공하는 ESG 점수를 활용하여 분석을 하다 보니 ESG 점수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과 제공되는 기간(2011~2018)외의 기업들은 표본으로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용한 표본의 수가 적고 분석 기간이 짧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지적인 ESG 점수가 기업의 ESG 경영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아직 존재한다. 비록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두 기관의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지만 ESG 정보공시 체계를 통합하거나 단일화된 정보공시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ESG 점수의 정확성 및 일관성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ESG 활동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ESG 점수 뿐만 아니라 기업의 ESG 리스크 관리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ESG 점수와

ESG 리스크는 기업의 ESG 활동에 있어서 상호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한계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ESG 리스크까지 고려하여 분석한다면 좀 더 발전된 연구가 이루어 질것이다.

추후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중견, 중소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및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등의 공시를 통해 각 ESG지표가 기업의 어떤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고, 기관에서 더 많은 기업을 공시대상으로 포함한다면 보다 많은 표본기업데이터를 기반으로 높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민재형, 김범석. (2015). 기업의 ESG 노력과 재무성과의 선후행 관계.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2707-2719.
- 강원, 정무권. (2020). ESG 활동의 효과와 기업의 재무적 특성. 한국증권학회지, 49(5), 681-707.
- 박혜진 (2020). "국내 ESG 펀드의 현황 및 특징 분석", 이슈보고서 20-28 자본시장연구원
- 문성주, 이영균. (2020).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 34(2), 119-139.
- 박순애, 신은혜. (2021). "대 · 중소 및 중견 기업의 ESG 성과와 재무가치 간의 상관관계 분석", 환경정책, 29(4), 151-199.
- 오훈석, 최국현. (2011). "기업지배구조가 재무적 경영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 지배구조등급의 분석을 통한 실증검증", 기업경영연구, 18(2), 41-65.
- 정무권, 김영린. (2022). "ESG 활동과 혁신의 상호작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증권학회지, 51(4), 471-498.
- 신상이, 박종일. (2022). "ESG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증거", 경영학연구, 51(4), 1005-1047.
- 정성준, 최동범. (2022). "ESG 경영과 대리인 문제", 한국증권학회지, 51(4), 417-445.
- 이현상, 성영국, 임학송, 홍승표. (2022). "ESG 성과에 따른 변동성 특성과 위험 예측 성과 분석", 아태경상저널, 14(2), 3-24.
- 정운태, 안영규. (2022). "기업의 ESG 활동과 정보공시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e-비즈니스연구, 23(3), 255-273.
- 고병국, 이규환, 윤용범, 박수진. (2022).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가 발전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신재생에너지, 18(2), 60-72.
- 장근배. (2022). "ESG에 대한 회계적 및 성경적 관점의 고찰 - E를 중심으로 -", 로고스경영연구, 20(2), 1-24.

- 손하늬. (2022). “기업벤처캐피탈(CVC) 투자와 투자기업 혁신 성과 간의 관계: ESG 리스크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7(2), 195-205.
- 정현아, 유순미. (2021). “ESG경영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36(6), 119-144.
- 김윤경. (2020). “기업 비재무정보(ESG) 공시가 재무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규제연구, 29(1), 35-59.
- 태정림. (2021)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21(2), 135-164.
- 이희라, 백혜원. (2021).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8(2), 33-57.
- 한진환, 연경화. (2012). 윤리경영과 기업성과간 기업지배구조의 조절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0(2), 133-140.
- 조성표, 손수훈. (2009).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의 관련성. 경영연구, 24(4), 121-156.
- 오상희, 이승태. (2019). ESG 평가요소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전산회계연구, 17(2), 205-223.
- 엄승섭, 김현도, 김동순. (2021).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36(6), 169-187.
- 이정은, 김연수. (2017). 완충제로써의 CSR 보고서. 경영학연구, 46(5), 1343-1365.
- 이현상, 송종희, 홍승표. (2021).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가 위험에 미치는 영향 : VaR와 ESG 평가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34(5), 1207-1226.
- KRX ESG포털. (2020). “ESG 관련 동향”, <https://esg.krx.co.kr/contents/04/04010000/ESG04010000.jsp>
- Pesaran, M.H., 2004, “General diagnostic tests for cross section dependence in panels”, IZA Discussion Paper No. 1240.
- Wooldridge, J.M., 2010,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MA: MIT press, Cambridge.
- Henri, S., and Ane. T (2012) “The Impa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Firm Value: The Role of Customer Awareness, Management Science,

59(5), 1045-1061

KPMG Survey of Sustainability, (2020)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20/11/the-time-has-come-survey-of-sustainability-reporting.html>

REFINITIV, "ESG Scores" , <https://www.refinitiv.com/en/sustainable-finance/esg-scores>. (Accessed in September 5, 2022)

Godfrey, P. C., and Hatch, N.W., 2007, "Research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 agenda for the 21st century" , J. Bus. Ethics, 70(1), 87-98

Brammer, S. and Millington, A. (2006) "Corporate Reputation and Philanthropy—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Ethics, 61, 29-44

Lopez-Perez, Iguacel Melero, and F Javier Sese., 2017, "Manag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ts impact on Firm Value in the SME Context: Does size matter?"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26(7), 985-999

Samuel Drempetic and Bernhard Zwergel., 2020, "The influence of Firm Size on the ESG Score: Corporate Sustainability Ratings Under Review." Journal of Business Ethics, 167(1), 333-360



2022.03.25

국제지역학회 2022년 학술대회

## 아세안 GVCs 위치에 관한 연구: 미-중 참여 중심으로

전곤/Tian Kun, 인령/Yin Ling

경희대학교

박사과정



### 서론

#### 1. 연구 배경

- COVID-19 발생 기간 동안 소수의 필수 물품 공급망의 혼란과 주요 의료 제품의 부족은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s)을 통한 국가 간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고 세계화의 비용과 이점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최근 논의는 생산의 국제적 분열과 관련된 위험과 불안정성을 강조한다. (OECD, 2021)
- COVID-19, 글로벌 무역 분쟁과 같은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GVC는 아세안(ASEAN)의 중요한 성장 전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충격은 GVC를 변형시켜 GVC를 더욱 지역화하고 다각화를 촉진하며 탄력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최전선에 두었다. 새로운 GVC 성장은 ASEAN 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에 지속적인 회복 성장을 가져올 것이며 ASEAN은 이러한 새로운 추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Satvinder Singh, 2022)





### 이론적 배경

#### 1.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s)

- 기업은 주로 한 국가에서 상품을 만들곤 했다. 오늘날, 단일 완제품은 종종 여러 국가에서 제조 및 조립의 결과이며, 프로세스의 각 단계는 최종 제품에 가치를 더한다.
- GVC를 통해 국가는 제품뿐만 아니라 기술도 교환하고 상품 제조를 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은 GVC의 수출만큼 중요하다.
- GVC는 생산 단계와 여러 해외에 있는 주요 구성 요소의 선도 기업 및 공급업체의 기술을 통합한다. 기술의 국가 간, 기업 간 흐름은 GVC의 주요 특징이다.
- 국가가 GVC에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GVC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World Bank)



### 이론적 배경

#### 2. 부가 가치(VA: Value Added)

- 부가 가치는 특정 산업에서 운영되는 기업부터 최종 고객에게 가치 있는 제품(즉, 재화 또는 서비스)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의 과정이다. Porter의 가치 사슬에서 인바운드 물류, 운영, 아웃바운드 물류, 마케팅 및 판매, 서비스는 기본 활동으로 분류된다. 기타 활동에는 조달, 인적 자원 관리, 기술 개발 및 인프라가 포함된다. (Michael Porter, 1985)
- 산업 간 가치 사슬은 원자재에서 시작하여 운송된 제품(공급망이라고도 함)으로 끝나는 재화(및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세스의 표현이다. 모든 부가가치의 합계는 총 가치를 산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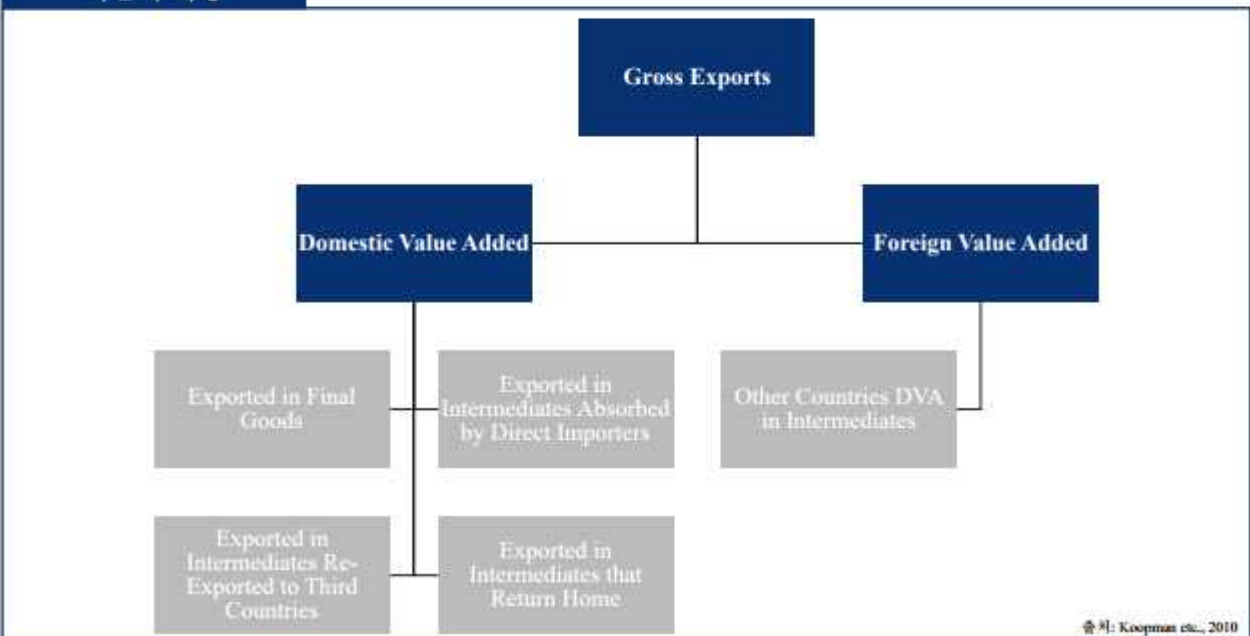
## 이론적 배경

### 3. 국내 부가가치(DVA: Domestic Value Added)와 해외 부가가치(FVA: Foreign Value Added)

- 국내 부가가치(DVA: Domestic Value Added)는 총 생산가격과 구매자 가격의 중간 소비의 차이로 간단히 정의되면 수출용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때 부가가치를 추정한 것이다. 파트너 경제로 수출된 중간재(재화 또는 서비스)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를 다른 제품으로 구현되는 제3 경제로 재수출한다. 이는 GVC에서 발생하는 다중 부가가치 교환을 나타내며 "Forward GVC 참여"에 해당한다.(WTO)
- 해외 부가가치(FVA: Foreign Value Added)는 수출할 중간 또는 최종 상품(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된 투입물의 부가가치에 해당한다. "Backward GVC 참여"에 해당한다. (WTO)



## 이론적 배경



출처: Koopman et al., 2010



#### 이론적 배경

#### 4. 전방(Backward) 참여와 후방(Forward) 참여

- GVC 전방(Backward) 참여는 총 수출에 대한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FVA)"을 나타낸다. 이는 수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중간재를 수입하는 GVC의 "구매자" 관점 또는 소싱 측면이다. (WTO)
- GVC 후방(Forward) 참여는 총 수출에 대한 "제3 경제로 보내진 국내 부가가치(DVA)"에 해당한다. 공급망을 통한 수출을 위해 제3 경제로 보내진 투입물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를 포착한다. 이는 GVC 참여의 "판매자" 관점 또는 공급 측면이다. (WTO)



#### 이론적 배경

#### 5. GVC 위치(Position) 지수와 참여(Participation) 지수

- 국가 수준에서 분할을 사용하여 국가가 특정 부문에서 GVC의 업 스트림 또는 다운 스트림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수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GVC에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별도의 지수를 구성할 수도 있다.
- 한 국가의 위치(즉, 업 스트림 또는 다운 스트림)를 파악하는 지수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해당 부문의 중간재 수출과 동일한 부문에서 해당 국가의 수입 중간재 사용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Koopman etc., 2010)
- GVC 위치 지수

$$GVC_{POSITION_{ik}} = \ln \left( 1 + \frac{DVA_{ik}}{E_{ik}} \right) - \ln \left( 1 + \frac{FVA_{ik}}{E_{ik}} \right)$$

### 이론적 배경

- 두 국가는 GVC 참여 정도가 매우 다르지만 주어진 부문에서 동일한 GVC 위치 지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 지수는 해당 국가 부문에 대한 GVC의 중요성을 요약하는 다른 지수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Koopman etc., 2010)
- GVC 참여 지수

$$GVC_{PARTICIPATION_{ik}} = \frac{DVA_{ik}}{E_{ik}} + \frac{FVA_{ik}}{E_{ik}}$$

### DATA

t: Time

• 1995~2018

#### i: Home Country

- ASEAN
- BRN: Brunei Darussalam
- KHM: Cambodia
- IDN: Indonesia
- LAO: Lao People's Democratic Rep.
- MYS: Malaysia
- MMR: Myanmar
- PHL: Philippines
- SGP: Singapore
- THA: Thailand
- WNM: Viet Nam
- CHN: China (People's Republic of)
- USA: United States

#### j: Partner Country

- World
- CHN: China (People's Republic of)
- USA: United States
- ASEAN

#### k: Industry

- Total
- D01T03: Agriculture, hunting, forestry and fishing
- D05T09: Mining and quarrying
- D10T33: Manufacturing
- D35T39: Electricity, gas, water supply, sewerage, waste and remediation activities
- D41T43: Construction
- D45T82: Total Business Sector Services
- D84T98: Public admin, education, health and other personal services

Source: OECD-TiVA,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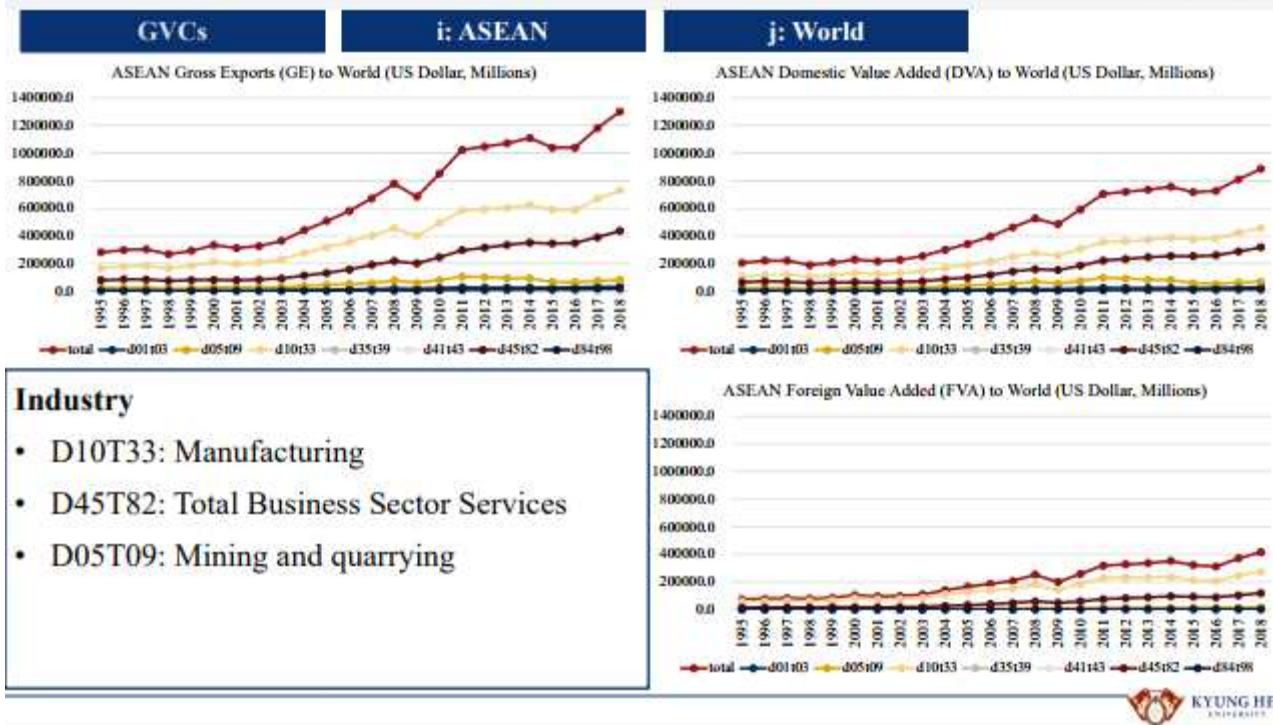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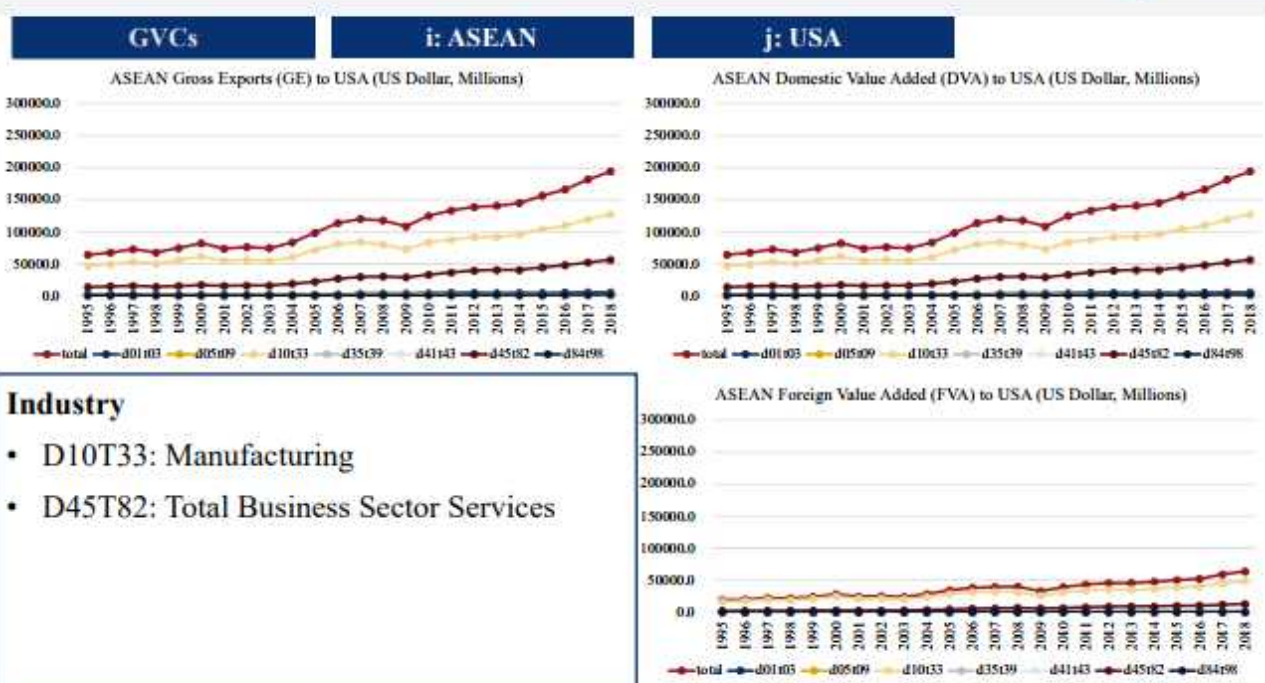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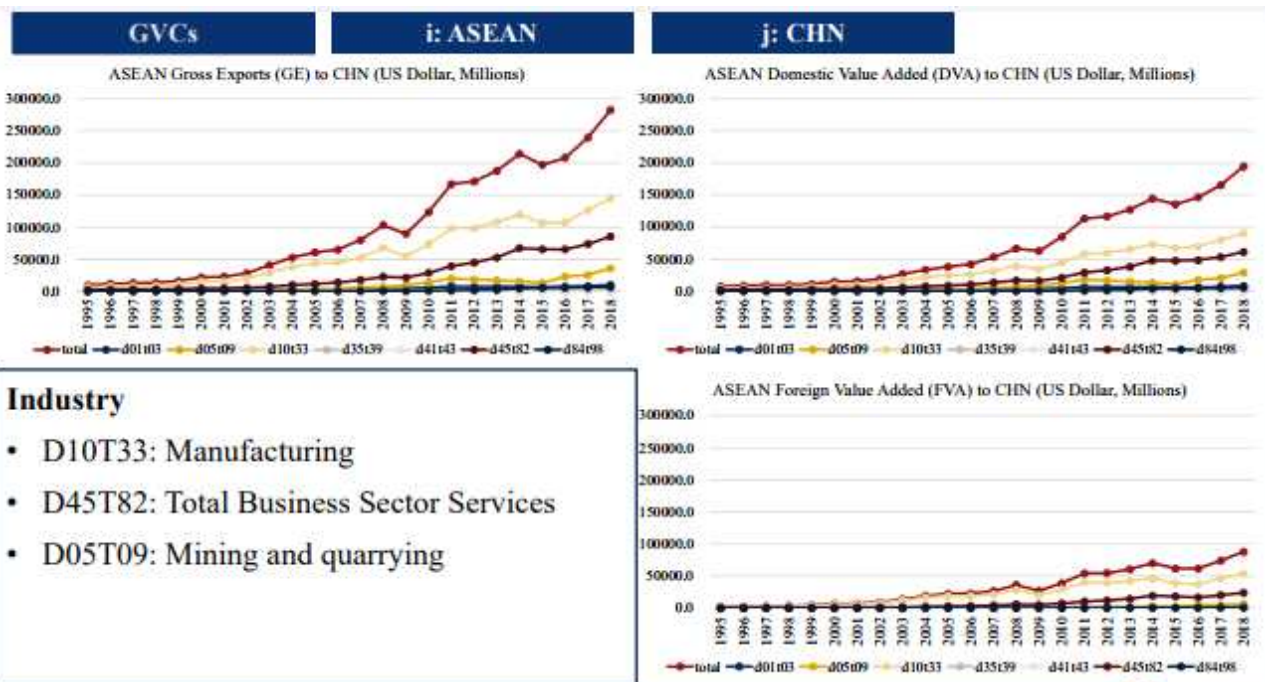
## DATA



$$GVCs_{POSITION_{ijk}} = \ln \left( 1 + \frac{DVA_{ijk}}{GE_{ijk}} \right) - \ln \left( 1 + \frac{FVA_{ijk}}{GE_{ijk}}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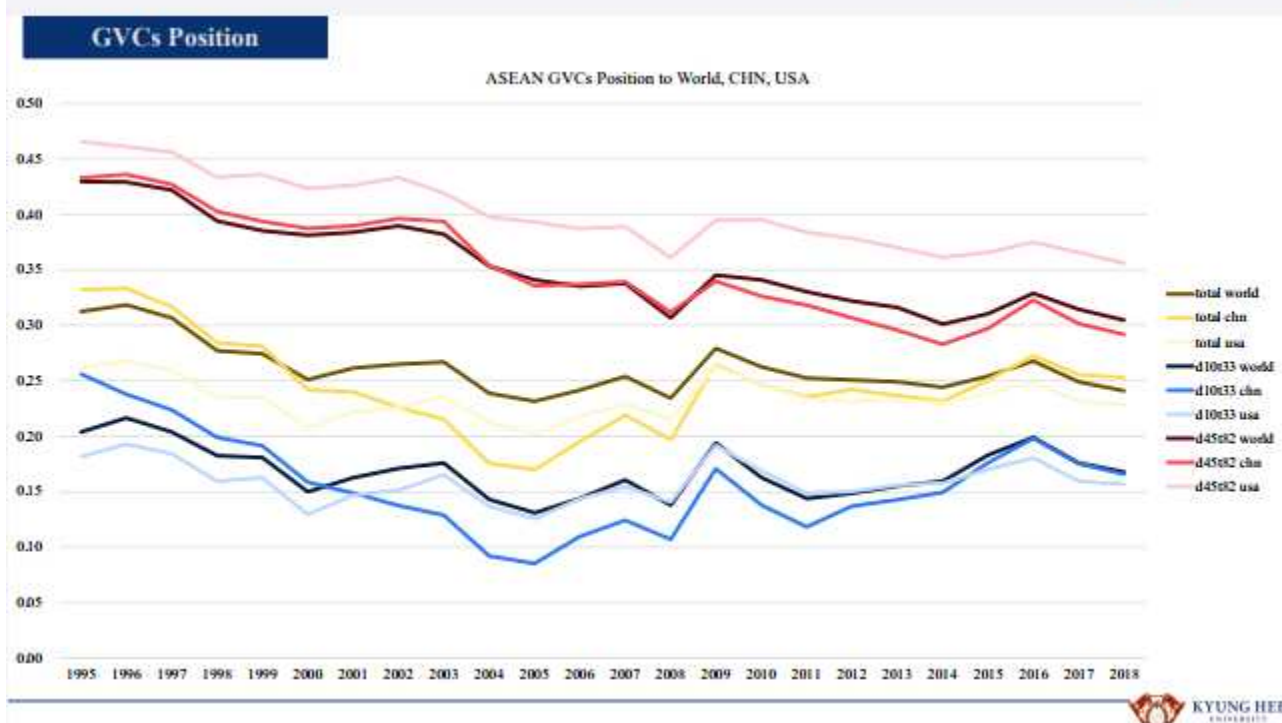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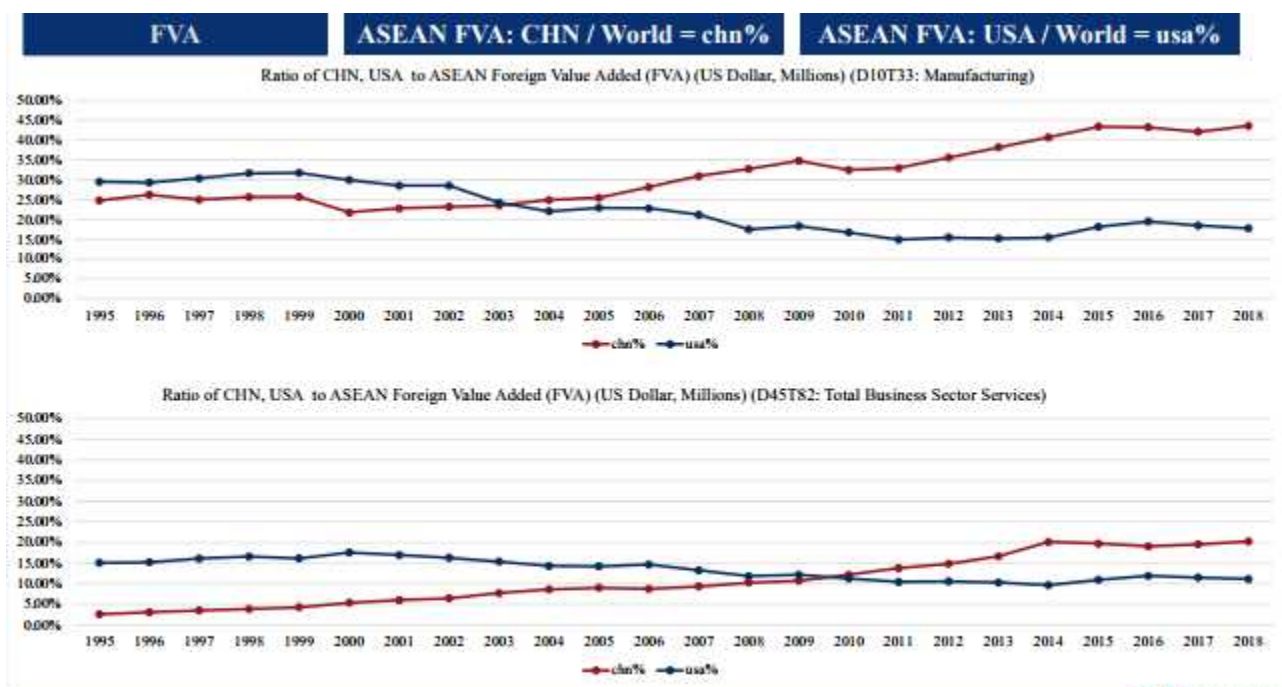
$$GVCs_{PARTICIPATION_{ijk}} = \frac{DVA_{ijk}}{GE_{ijk}} + \frac{FVA_{ijk}}{GE_{ijk}}$$













## GVCs Position

$$GVCs_{POSITION_{ijk}} = \ln \left( 1 + \frac{DVA_{ijk}}{GE_{ijk}} \right) - \ln \left( 1 + \frac{FVA_{ijk}}{GE_{ijk}} \right)$$

### GVCs Position Up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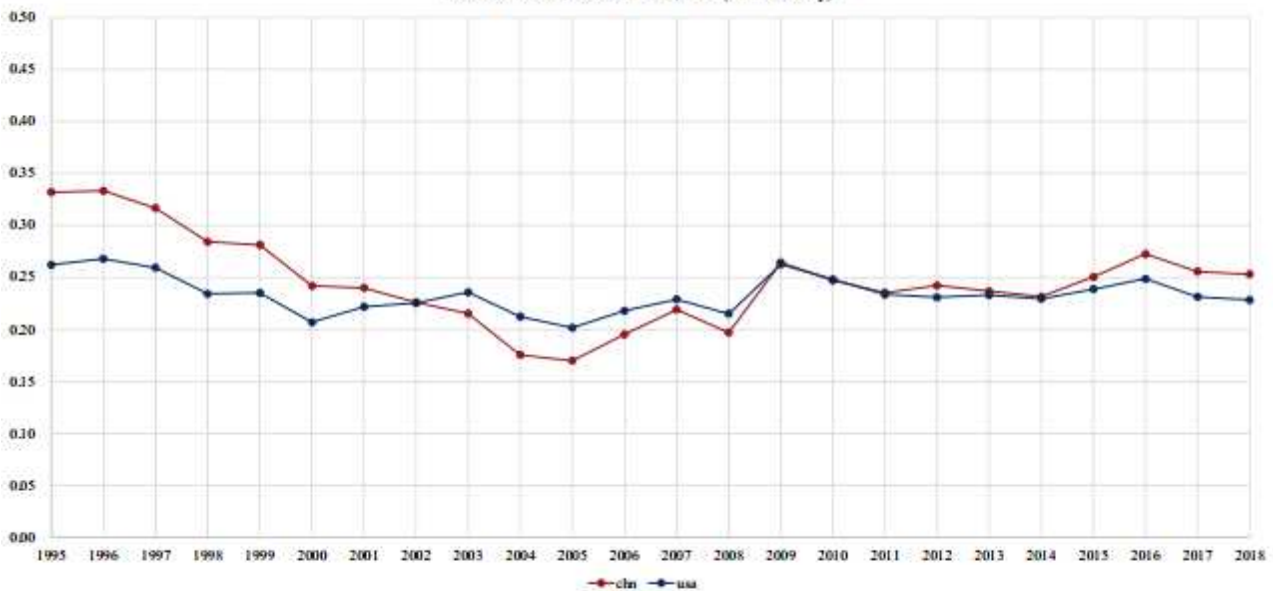
- $DVA > FVA$
- $GVCs\ Position > 0$
- ' + '
- Providing raw materials
- Providing manufactured intermediates

### GVCs Position Downstream:

- $DVA < FVA$
- $GVCs\ Position < 0$
- ' - '
- Produce final goo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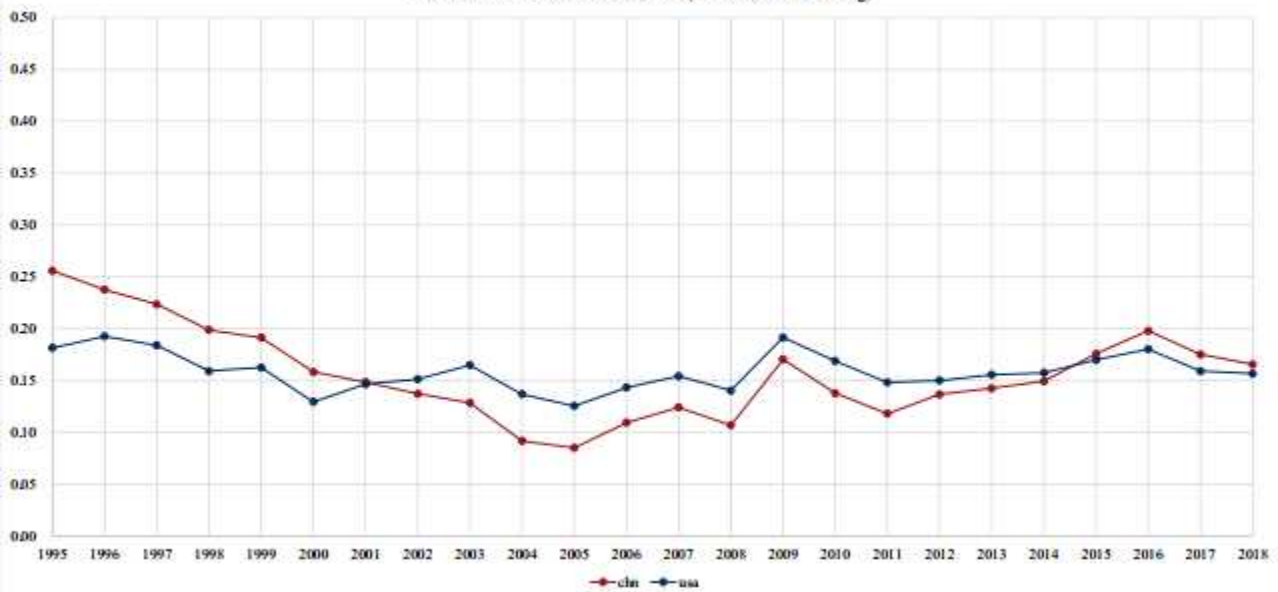
## GVCs Position

ASEAN GVCs Position to CHN, USA (Total Indu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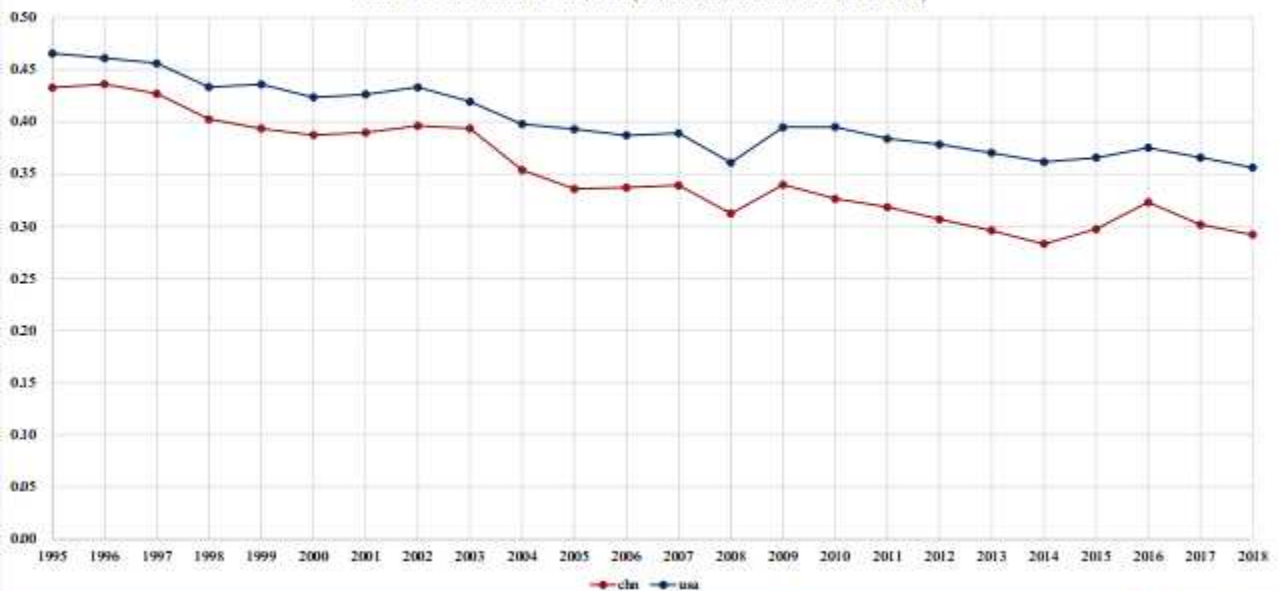
## GVCs Position

ASEAN GVCs Position to CHN, USA (D10T33: Manufacturing)



## GVCs Position

ASEAN GVCs Position to CHN, USA (D45T82: Total Business Sector Services)



### Conclusion

- ASEAN's export is growing in 2009 in Manufacturing and Services, the reason why the financial crisis affects supply chains.
- ASEAN's export growth in CHINA is more obvious than USA.
- ASEAN's export is more dependent on China by 2010.
- But ASEAN's export is more dependent import foreign intermediates to CHINA.
- ASEAN is Upstream and providing raw materials or manufactured intermediates is declining.
- And ASEAN produces Final Services more than Manufacturing.

### Next

- Decompose Manufacturing Industry and ASEAN countries for analysis and then find out the influencing factors that affect GVCs in ASEAN.



2022.11.25

국제지역학회 2022년 학술대회

감사합니다.



# 기술혁신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신 범 철\*  
이 의 영\*\*

##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분석모형과 추정방법 |
| II. 기술혁신 장애요인에 관한<br>선행연구 검토 | IV. 자료 및 실증결과   |
|                              | V. 결론           |

## | 논문요약 |

이 논문은 기업의 유형별 R&D 혁신 활동, 기업규모와 기업 형태와 같은 기업의 성격, 유형별 기술혁신 보호와 기술협력 등의 요인이 어떻게 혁신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달리 이 논문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16년과 2018년의 기술혁신 설문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다변량 프로빗 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우선 기술혁신 장애, 즉 자금조달 부족, 기업역량 부족, 시장요인 세 개 변수 모형에서 오차항 간 상관계수가 모두 통계적 양의 부호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자금조달 부족, 기업역량 부족, 시장요인 등의 장애요인은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보완적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장애요인 변수를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추정할 경우, 편의적 결과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혁신 확대를 위한 동기부여와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효율성 확대뿐만 아니라 혁신장애의 제거가 정부 개입의 일환으로 실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기술혁신 활동이 장애요인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달리 나타났다. 내부 R&D 활동과 공동연구개발 활동은 자금조달 장애와 시장 불확실성 인식의 중요성을 확대하는 반면, 기업역량 문제의 중요성 인식은 모든 R&D 활동이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1 저자,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mail: [bccin@kyonggi.ac.kr](mailto:bccin@kyonggi.ac.kr)

\*\* 교신저자, 군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mail: [eylee@kunsan.ac.kr](mailto:eylee@kunsan.ac.kr)



종합해보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제, 시장요인 및 기업역량 부족의 장애를 극복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업 또는 기관과의 기술협력의 확대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이 자금조달 문제를 완화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협력과 기술혁신 법적 보호에 대한 정부 지원은 기업역량 부족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기술수준별로 보면 하이텍 산업에 정책지원은 시장요인과 기업역량 부족의 장애요인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제어: 기술혁신 장애, 다변량 프로빗 모델, 최우추정량, 상관분석

## I. 서론

세계는 지금 기술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기업 간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기업과 산업, 나아가서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서 기술혁신이 핵심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혁신장애를 극복하는 혁신투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성장의 핵심 요소인 기술혁신 활동은 여러 가지 장애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는 그 결정요인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고 혁신 장애요인의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형편이다(Hidalgo and D'Alvano, 2014). 기술혁신의 장애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기업의 혁신 문화를 조성하고 관리자와 정책수립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 결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술혁신에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 경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의 장애요인에 미치는 요인과 장애요인의 상호 관계성에 관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2016년과 2018년 제조업체 기술혁신 설문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혁신 장애요인 중, 특히 자금 부족, 기업역량 부족, 시장요인의 상호 의존성과 기업의 성격과 기업의 R&D 활동 등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가 주요 관심 사안이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기술혁신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요인을 강화하는 기업전략과 정책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논문은 기술혁신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과 정책지원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 연구가 의미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이다. 우선, 유럽의 CIS(Community Innovation Survey) 자료를 기반한 대부분의 연구가 기술혁신의 결정요인 또는 기술혁신 장애가 혁신성과 효과에 집중하고 기술혁신 장애요인의 결정요인과 그 상관관계를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기술혁신 요인 간 잠재적 상호보완성이 무시되면 편의적 결과가 유발될 수 있다(Carboni, 2013). 이러한 편의를 완화하기 위해 이 연구는 유형별 기술혁신 장애요인 간 상관관계를 허용하는 다변량 프로빗 모형을 추정하여 사용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연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다변량 프로빗(multivariate probit) 모형을 MLE(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법으로 추정하여 분석한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는 장애요인 간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2단계 추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박규호, 2013). 1단계에서는 장애요인을 종속변수로 결정요인에 회귀한 다음, 2단계에서 잔차를 이용하여 이들 변수 간 피어슨 상관계수를 계산하여 장애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1단계에서 모형설정과 추정 방법에 따라 장애요인 간 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또한 피어슨 상관계수는 대등한 2개 확률변수 간 관계를 나타낼 수 있지만 3 변수 이상의 관계를 동시에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STEPI의 2회, 즉 2016년과 2018년 KIS(Korean Innovation Survey) 자료를 통합하여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통합은 자료의 폭을 확대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 II. 기술혁신 장애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기술혁신에서 장애요인의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는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혁신 장애의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기술혁신 장애가 혁신 성향 또는 R&D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연구로 Baldwin and Lin (2002), Galia and Legros(2004), Immariono et al.(2009)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의 대표적인 연구로 Mohnen and Roeller(2005), Savignac(2008), Manscusi and Vezzulli(2010) 등을 들 수 있다.

전자의 선행연구 관점은 혁신 장애를 기술혁신 활동의 현시적 장애로 해석한다. 기술혁신 활동의 참여가 혁신 장애의 곤란성에 기업의 중요성 인식을 확대하지만 이러한 장애요인이 실질적인 장애요인이 되지 못하며 성공적인 혁신기업이 되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유럽의 CIS를 기반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는 혁신장애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집중하고 기술혁신 장애요인의 결정요인과 그 상관관계를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하였다. 기업의 혁신 장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에 집중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기업의 R&D 활동과 여타의 혁신 활동의 참여가 높을수록 혁신 장애의 중요성을 더 크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컨대, Baldwin and Lin(2002)은 혁신기업과 비혁신기업, 혹은 첨단기술 도입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혁신 장애의 경험을 비교하고 혁신기업과 첨단기술 도입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혁신 장애를 더 경험한다는 것을 밝혔다.

혁신기업의 장애인식은 느리지만 혁신 활동의 참여를 방해하지 않는다. Baldwin and Lin (2002)은 혁신 성향 혹은 연구개발집중도와 혁신 장애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최소한 CIS 자료에 의해 측정된 혁신 장애는 기술혁신 혹은 첨단기술 도입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떻게 기업의 성공적으로 이러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혁신 장애요인이 기업성과, 예컨대 기술혁신의 성과(김재영 외, 2017;신범철, 2021), 기업의 생산성 효과(Coed et al., 2015)에 관한 연구는 다수가 존재하지만, 기술혁신 장애요인에 미치는 요인과 상호 관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다(이성기, 2008; 박규호, 2013). 이는 대부분의 연구가 기술혁신 장애가 외부적으로 주어지고 외생적 변수라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범철(2021)은 기술혁신 성과와 장애요인은 양방향 인과성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달리 기술혁신 장애요인이 외생변수가 아니라 내생변수라는 것이다.

이성기(2008)는 기술혁신 과정에서 겪게 되는 기술적 불확실성, 과도한 혁신비용, 적합한 내부 인력 부족, 시장수요의 불확실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자체연구개발 활동, 공동연구 활동, 외부와의 협력적 연구활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로 독립적으로 보이는 기술혁신 장애요인이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서로 독립적이고 대등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두 변수 간 상관관계수로 상호연관성을 분석한다는 한계에서 벗어나 기술혁신 장애요인의 외적 영향을 제거하여 장애요인 상호 관계의 편의성을 축소하였다는 데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이 논문은 7개 변수 다변량프로빗 모형을 MLE 방법으로 추정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또한 추정결과에서 대부분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 신뢰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는 달리 박규호(2013)는 2단계 추정방법으로 32개 장애요인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 각각의 장애요인을 종속변수로 기업규모와 연구개발집약도를 독립변수로 추정하여 잔차

를 구한 다음 2단계에서 잔차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장애요인 간 상호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각 장애요인의 잔차가 전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장애요인이 서로 독립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OLS 추정량을 구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요인의 상호 의존성을 무시하였다는 점에서 추정 상 편의적 결과를 유발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 Ⅲ. 분석모형과 추정방법

#### 1. 분석모형 설정

이 연구는 기술혁신 장애요인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begin{aligned} dBar_{kt}^* = & \beta_0 + \beta_1 dRDact_{kt} + \beta_2 \ln(Size)_{kt} + \beta_3 \ln(Age)_{kt} + \beta_4 dEXP_{kt} + \beta_5 dCoop_{kt} \\ & + \beta_6 \ln(RDW)_{kt} + \beta_7 dIntFin_{kt} + \beta_8 dOwn + \beta_9 dGroup_{kt} + \beta_{10} dLegal_{kt} \\ & + \beta_{11} dStra_{kt} + \sum_j \lambda_{kj} dTech_{kj} + \epsilon_{kt} \end{aligned}$$

$$dBar_{kt} = 1(dBar_{kt}^* > 0) \quad (1)$$

여기서  $dBar_{k,t}^*$ 는  $t$ 기  $k$ 기업의 유형별 혁신 장애요인이고  $dRDact_{k,t}$ 는 유형별 기술혁신 활동 여부,  $SIZE$ 는 기업규모,  $Age$ 는 업력,  $dEXP_{k,t}$ 은 전년도 수출 여부,  $RDW$ 는 연구개발 전담인력 비율,  $dIntFin$ 는 회사 자체 자금조달 여부,  $dOwn$ 은 독립회사 여부,  $dGroup$ 은 국내 그룹사 소속 계열사 여부,  $dLegal$ 은 기술혁신의 법률적 보호 여부,  $dStra$ 는 기술혁신에 대한 전략적 보호 여부,  $dTech_{k,j}$ 는 산업별 기술 수준을 나타낸다.

우선 종속변수로서 장애요인은 여러 방식에 따라 분류되는데, 외부요인 혹은 외생적 장애요인은 자원과 지식을 외부로부터 획득하였을 때 발생한다. 이 외부요인은 특허와 인증 정책, 정부 지원 부족, 해외 무역정책과 경쟁 등이 포함된다. 다른 한편 내부 장애요인은 적절한 인력 부족, 관료주의, R&D 설계와 검증 및 여타 기술적 문제, 자금조달 문제, 그리고 위험으로서 혁신인식, 혁신 비용 조정의 곤란성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크게 자금조달 부족, 기업역량 부족, 시장요인 등 세 개의 장애요인으로 구분하여 상호보완성을 3변량 프로빗 모형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둘째, 기술혁신의 장애요인은 기술혁신 활동의 유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내부 및 외부 R&D 활동과 공동연구개발 활동이 증가할수록 장애요인이 확대될 수 있다.

셋째 기업규모(Size)는 기술혁신 장애 인식을 완화할 수 있다(박규호, 2013). 이는 규모가 클수록 외부 자금조달이 쉽고 내부자금 역시 규모에 따라 확대됨에 따라 자금의 유동성 제한에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는 규모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대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넷째 기업의 업력(Age)은 기술혁신 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기업당 혁신의 숫



자가 클수록, 즉 젊은 기업일수록 기술혁신에 더 적극적일 것이다(Keppler, 1996). 따라서 기업의 업력이 증가하면 기술혁신 장애는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기업 업력이 누적된 지식과 경험을 나타낸다고 본다면 오히려 기업의 업력이 클수록 기술혁신 장애는 완화될 수 있다(Galande et al., 2003).

다음으로 고인적자원과 종업원의 고숙련은 기술 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숙련 근로자들이 비숙련 근로자에 비해 복잡한 기술을 다루기 쉽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는데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전문연구인력의 비율(RDW)이나 고인적자본 확대는 기술혁신 장애를 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 유입을 통해 혁신 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혁신 협력(dCoop), 기술혁신 보호 방법으로 법률적 방법과 전략적 방법을 포함할 것이다.

기업은 이윤극대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기술혁신 장애를 동시에 결정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기술혁신 장애 간 잠재적 상호보완성이 무시될 때 편의적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Veugelers and Cassiman, 2005; Belderbos et al., 2004; Carboni, 2013). 이러한 유형별 기술혁신 장애요인 간 체계적 상관관계를 허용하는 다변량 프로빗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위 (1)식은 다음의 행렬방식의 모형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다.

$$Y_{km} = \begin{cases} 1 & \text{if } dBar_{km}^* > 0, \\ 0, & \text{otherwise} \end{cases} \quad (k=1,2,\dots,n; m=1,2,3)$$

$$dBar_{km}^* = \beta_{km}X_{km} + \epsilon_{km} \quad (2)$$

여기서  $k=1,2,\dots,n$ 는 표본 수,  $dBar_{km}^*$ 은  $k$ 기업의 자금 부족, 기업역량 부족, 시장요인의 장애요인과,  $X_m$ 는  $m$ 번째 유형의 장애요인 모형(즉, (1) 식)에서 변수 벡터,  $\beta_{km}$ 은 절편을 포함한 모수 벡터,  $\epsilon_{km}$ 은 관측되지 않는  $m$ 번째 기술혁신 장애 모형의 확률오차항  $\epsilon_{km} \sim N(0, \Sigma)$ 은 평균이 0, 공분산행렬이  $\Sigma$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기술혁신 장애 유형으로 자금 부족, 기업역량 부족, 시장요인과 같은 혁신 장애요인을 고려할 경우, 확률오차 간 공분산행렬은 다음과 같이 대각원소가 1이고 비대각원소는 좌우대칭, 즉  $\rho_{km} = \rho_{mk}$ 이다.

$$\Sigma = \begin{bmatrix} 1, & \rho_{12}, & \rho_{13} \\ \rho_{21}, & 1, & \rho_{23} \\ \rho_{31}, & \rho_{32}, & 1 \end{bmatrix} \quad (3)$$

여기서  $\rho_{km}$ 는 관측되지 않는  $m$ 번째 유형별 기술혁신 장애의 오차항 간 상관계수이고 이 상관계수가 0이라면 각각의 프로빗 모형을 분리 추정할 수 있다. 아니라면, 프로빗 모형의 분리 추정은 편의적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빗 모형과 다변량 프로빗의 선택은 상관계수의 유의성 검정에서 결정될 수 있다.

위 (2) 식의 3변량 프로빗 모형에서  $k$ 개의 독립된 표본에 대한 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는 다음과 같다.

$$L = \sum_{k=i}^N w_i \log(\Phi_3(\mu_k; \Omega))$$

여기서  $w_i$ 는  $k$ 개 표본에 대한 가중치이고  $\Phi_3(\cdot)$ 는 3변량 표준정규분포 함수,  $\mu_k$ 는 다음과 같다.

$$\mu_k = (J_{k1}\beta_1'X_{k1}, J_{k2}\beta_2'X_{k2}, J_{k3}\beta_3'X_{k3})\text{이다.}$$

여기서  $J_{km} = 2Y_{km} \forall m = 1, 2, 3$ 이다.

위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본 논문은 3개의 기술혁신 장애요인 모형을 Roodman(2009)이 제시한 CMP(Conditional Mixed Process Programme)의 ML(Maximum Likelihood) 추정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할 것이다.<sup>1)</sup>

## IV. 자료 및 실증결과

### 1. 자료

자금조달과 R&D 투자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2016년(2013-2015년)과 2018년(2015-2017년), 두 회기의 제조업 혁신활동 조사자료를 통합하여 활용하였고 이 자료는 [표 1]에 정돈되어 있다. 이 자료를 보면 우선, 이 연구는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종사자 수, 국내외 경쟁력 지표, R&D 투자, 기술혁신 여부, 기업 간의 R&D협력 여부 등의 자료 등을 사용할 것이다.

둘째, 종속변수로 장애요인이며 이 KCIS 자료에서 설문조사의 장애요인에 관해서는 11개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 크게 자금조달 부족, 기업역량 부족, 시장요인 등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표본선정 편의를 완화하기 위해, 3년 이전에 수행한 혁신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혁신 불필요, 혁신에 대한 수요부족으로 혁신 불필요, 시장의 경쟁 압력이 낮아 혁신 불필요한 기본은 제외하였고 또한 R&D 지출이 0 혹은 결측값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전체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별로 서로 다른 혁신성과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표 2]에 정리되어있는 기술 수준에 의한 OECD 산업분류에 따라 하이텍업종과 중간하이텍업종, 中기술업종, 低기술업종 등 4개 산업에 속한 기업으로 나누어 각각의 가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다.<sup>2)</sup>

1) CML 추정방법을 적용한 대표적인 연구로 Lopez(2008)를 참고.

2) 기술업종에 대한 OECD 분류는 R&D투자 비중을 기준으로 4개의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신범철(2010) 참조.

<표 1> 사용변수와 정의

변수명	변수	정의
dcost	자금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귀사나 소속그룹) 자금 부족</li> <li>기업 외부(외부 용자 또는 민간 펀드 등) 자금 부족</li> <li>정부 지원(교부금 또는 보조금) 획득의 어려움</li> <li>과다한 혁신비용</li> </ul>
dfcap	기업역량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신을 위한 우수 인력 부족</li> <li>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li> <li>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li> <li>혁신을 위한 협력파트너의 부재</li> <li>혁신 도입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부재</li> </ul>
dmktf	시장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 경쟁이 너무 심해서 혁신활동을 수행할 여력이 없음</li> <li>혁신 제품/아이디어에 대한 시장수요 불확실</li> </ul>
dintrdact	내부 연구활동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업체의 내부 R&amp;D 활동 여부</li> </ul>
dextrdact	외부 연구활동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업체의 외부 R&amp;D 활동 여부</li> </ul>
djointrd	공동연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업체의 내부 R&amp;D 활동과 동일한 목적으로 타기업 또는 타기관과 외주계약을 통해 수행한 연구 활동</li> </ul>
lw	종사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도별 종사자 수(로그값)</li> </ul>
lage	기업 업력	(2017-기업설립연도)(로그값)
down	독립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업체의 독립기업 여부</li> </ul>
dgroup	국내그룹 계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업체의 국내 그룹사 소속 여부</li> </ul>
dmne	해외그룹계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업체의 해외 그룹사 소속 여부</li> </ul>
dcoop	기술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 3년간 외부 기관과의 기술협력 여부</li> </ul>
dexport	수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업체의 전년도 수출 여부</li> </ul>
prdworker	연구인력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 3년 동안 상시 종사자 중 연구개발 전담인력 비율</li> </ul>
dintfin	회사 자체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업체의 혁신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 자체자금 조달 인지 여부</li> </ul>
dTec	기술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ECD 기술수준별 산업분류</li> </ul>

<표 2> OECD기준에 의한 기술 수준별 분류

분류명	해당 산업
하이텍업종(hitech)	의약품(21), 컴퓨터·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26), 의료, 정밀광학 및 시계(27)
중간하이텍업종(mhitech)	화합물 및 화학제품(20, 의약품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27), 기타 전기 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28), 자동차 및 트레일러(30), 철도 및 기타운송장비(31, 항공기 제외)
중기술업종(mlowtech)	코코스·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19), 비금속광물제품(23), 고무 및 플라스틱(22), 제1차금속(24), 기타 운송 및 장비(31)
저기술업종(lowtech)	음·식료품(10 & 11), 담배(12), 섬유제품(13),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14), 가죽가방 및 신발(15), 목재 및 나무제품(16),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17),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가구 및 기타제조업(32),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33)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산업분류 코드임.

<표 3>은 이 논문에 사용된 변수의 기본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2016년과 2018년 자료를 통합한 전체 표본기업 수는 7,484개이고 이 중 R&D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수는 7,252개이다. 연구개발 전담인력 비율(prdworker)은 11개의 결측치가 발생하였다.

<표 3> 기초통계

변수	전체 표본			R&D 활동>0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dcost	7,484	0.376	0.484	0.377	0.485
dfcap	7,484	0.327	0.469	0.322	0.467
dmktf	7,484	0.187	0.390	0.187	0.390
dintrdact	7,484	0.410	0.492	0.396	0.489
dextrdact	7,484	0.057	0.232	0.053	0.225
djointrd	7,484	0.081	0.273	0.076	0.265
lw	7,478	3.751	1.063	3.738	1.058
lage	7,478	2.738	0.590	2.735	0.591
down	7,484	0.944	0.229	0.945	0.229
dgroup	7,484	0.047	0.211	0.046	0.210
dmne	7,484	0.008	0.091	0.008	0.091
dcoop	7,484	0.100	0.300	0.094	0.292
dexport	7,484	0.284	0.451	0.277	0.448
prdworker	7,473	0.071	0.108	0.070	0.108
dlegal	7,484	0.194	0.395	0.190	0.393
dstra	7,484	0.206	0.404	0.204	0.403
dintfin	7,484	0.368	0.482	0.356	0.479
hitech	7,484	0.137	0.343	0.137	0.344
mhitech	7,484	0.359	0.480	0.358	0.479
mlowtech	7,484	0.210	0.407	0.211	0.408
lowtech	7,484	0.195	0.397	0.194	0.395

둘째, 기업의 기술혁신 장애요인은 자금조달 문제가 37.6%, 기업의 역량 부족이 32.7%,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한 장애 문제가 18.7%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문제가 장애요인 중 가장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혁신 활동 유형으로 내부 R&D 활동은 4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외부 R&D 활동 5.7%, 공동 R&D 8.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형태는 독립기업, 국내그룹 계열사, 해외그룹 계열사 등 구분되는바, 독립기업의 형태가 94.4%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설명변수는 기술협력이 평균 10%, 기술혁신의 법적보호 19.4%, 전략적 보호 방법을 선택한 기업 비중은 20.6%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산업에서 하이텍산업은 13.7%, 중간 하이텍산업은 35.9%, 중기술산업은 21%, 저기술산업은 19.5%로 중간하이텍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는 모든 항목의 자금조달 문제(dcost), 내부 자금조달 부족(davail), 혁신을 위한 우수인력 부족(dlqp),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우수인력 부족(dlinf), 모든 항목의 기업역량 부족(dfcap), 두 항목 시장요인 문제(dmktf) 등 기술혁신 장애요인 간 피어슨 상관계수를 제시하고 있다.<sup>3)</sup>

이 결과를 보면, 각각 두 변수 간 상관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자금조달과 기업역량 부족의 상관계수, 시장요인과 기업역량 장애요인 간 상관계수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장애요인의 상관관계를 무시하고 독립적으로 추정할 경우, 편의적 결과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피어슨 상관관계는 대등 관계를 갖는 두 개의 확률변수 간 상관관계를 의미하는바, 세 개 이상의 상관관계를 유추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표 4> 장애요인 간 상관계수

	dcost	davail	dlqp	dlinf	dfcap
davail	0.850*				
dlqp	0.535*	0.559*			
dlinf	0.564*	0.562*	0.716*		
dfcap	0.659*	0.583*	0.744*	0.819*	
dmktf	0.462*	0.445*	0.507*	0.496*	0.498*

주) \*는 각각 5% 유의수준을 나타냄.

## 2. 추정결과

[표 5]는 전체 표본을 활용하여 3변량 프로빗 모형인 (2)식을 MLE에 의해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추정결과를 보면, 우선 자금조달 부족, 기업역량 부족, 시장요인 등 3변수 오차항 간 상관계수가 모두 통계적 양의 부호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요인 변수를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추정할 경우, 편의적 결과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금조달 부족, 기업역량 부족, 시장요인 등의 장애요인은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보완적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상기(2008)와 박규호(2013)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기술혁신 확대를 위한 동기부여와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효율성 확대뿐만 아니라 혁신장애의 제거가 정부 개입의 일환으로 실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기술혁신 활동이 장애요인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달리 나타났다. 내부 R&D 활동과 공동연구개발 활동은 자금조달 장애와 시장 불확실성 인식의 중요성을 확대하는 반면, 기업역량 문제의 중요성 인식은 모든 R&D 활동이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규모에 추정계수는 자금조달 부족과 기업역량 부족의 중요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음의 부호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시장 불확실성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기업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자금조달 부족과 기업역량 부족과 같은 혁신장애의 중요성 인식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의미이다. 이 결과는 박규호(2013)의 결과와 부합한다.

3) 장애요인의 정의에 관해서는 <표 1> 참조.

<표 5> 기술혁신 장애의 결정요인: 전체 표본

변수	자금조달 부족	시장요인	기업역량 부족
dintrdact	0.463*** (0.049)	0.115** (0.054)	0.260*** (0.049)
dextrdact	0.084 (0.074)	0.117 (0.082)	0.218*** (0.074)
djointrd	0.333*** (0.074)	0.295*** (0.081)	0.265*** (0.074)
lw	-0.092*** (0.017)	-0.093*** (0.019)	-0.011 (0.017)
lage	-0.030 (0.027)	0.007 (0.030)	-0.012 (0.027)
down	0.475*** (0.182)	-0.058 (0.185)	0.116 (0.175)
dgroup	0.299 (0.194)	-0.132 (0.200)	-0.010 (0.187)
dcoop	-0.157** (0.066)	-0.164** (0.073)	-0.238*** (0.066)
dexport	0.009 (0.037)	0.030 (0.041)	-0.005 (0.037)
prdworker	0.342** (0.159)	0.224 (0.177)	0.137 (0.160)
dlegal	-0.170*** (0.041)	-0.212*** (0.047)	-0.137*** (0.041)
dstra	0.273*** (0.040)	0.268*** (0.044)	0.422*** (0.040)
dintfin	-0.089** (0.045)	0.122** (0.050)	0.201*** (0.045)
hitech	0.162*** (0.063)	-0.188** (0.073)	-0.201*** (0.065)
mwhitech	0.076 (0.054)	0.110* (0.061)	0.028 (0.055)
mlowtech	0.199*** (0.058)	0.156** (0.065)	0.111* (0.060)
lowtech	0.071 (0.058)	0.051 (0.066)	0.122** (0.059)
$\rho_{12}$	0.506*** (0.023)		
$\rho_{13}$	0.634*** (0.022)		
$\rho_{23}$	0.646*** (0.024)		
$\chi^2$	792.965		
표본수	7,473		

주)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나타냄.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넷째, 기업의 업력은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업력이 크다고 해서 혁신 장애 반드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젊은 기업일수록 혹은 신생기업일수록 혁신 장애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그 외 기업의 속성 변수로 독립기업 여부와 국내 그룹 계열사 여부에 대한 추정계수는 1개의 경우만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독립기업의 여부가 자금조달 부족 인식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기업이 국내그룹 계열사 또는 해외그룹 계열사보다는 장애요인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기술협력 여부(dcoop)의 추정계수는 모든 경우 음의 부호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술혁신 협력을 통한 정보 유입이 혁신 장애를 완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바,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의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기술협력이 혁신 기술의 정보 유입으로 혁신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신범철(2021)의 결과와 부합한다.

다음으로 기술혁신의 보호 방법으로 법적 보호와 전략적 보호에 대한 추정계수는 모든 장애요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만 전자는 음으로 부호로 후자는 양의 부호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혁신에 법적 보호는 확실한 전유성 확보로 장애요인의 인식을 낮추지만, 전략적 보호는 상대적으로 불확실이 높아 장애요인의 인식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술 수준이 장애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이텍 여부의 추정계수는 모든 장애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자금조달 부족 경우는 음의 부호로, 시장요인과 기업역량 부족은 양의 부호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간저기술에 추정계수는 자금조달과 시장요인의 추정계수는 유의하고 저기술에 대한 추정계수는 기업역량 부족의 장애요인 하나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5]는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변량 프로빗 모형을 MLE에 의해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앞의 결과와 추정계수의 크기는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몇 개의 경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회사 자체 자금조달 여부에 대한 추정계수는 앞의 경우와 달리, 시장요인과 기업역량 부족의 경우 양의 부호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회사 자체 자금의 조달에도 불구하고 시장요인과 기업역량 부족으로 인한 장애요인의 중요성은 여전히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결과와 달리 중기술산업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기술업종에 속한 연구개발 투자 중소기업은 기업역량 부족이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제, 시장요인 및 기업역량 부족의 장애를 극복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업과 기관과의 기술협력 확대를 지원하는 정책은 자금조달 문제를 완화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협력과 기술혁신 법적 보호에 대한 정부 지원은 기업역량 부족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기술수준별로 보면 하이텍 산업에 정책지원은 시장요인과 기업역량 부족의 장애요인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 6> 기술혁신 장애의 결정요인: 연구개발 투자 기업

변수	자금조달 부족	시장요인	기업역량 부족
dintrdact	0.468*** (0.050)	0.092* (0.056)	0.215*** (0.051)
dextrdact	0.109 (0.077)	0.108 (0.085)	0.252*** (0.076)
djointrd	0.320*** (0.077)	0.290*** (0.084)	0.264*** (0.077)
lw	-0.087*** (0.017)	-0.093*** (0.019)	-0.013 (0.017)
lage	-0.028 (0.027)	0.002 (0.031)	-0.021 (0.028)
down	0.479*** (0.184)	-0.070 (0.186)	0.139 (0.177)
dgroup	0.313 (0.196)	-0.117 (0.202)	0.035 (0.191)
dcoop	-0.189*** (0.069)	-0.187** (0.076)	-0.260*** (0.069)
dexport	0.017 (0.038)	0.054 (0.042)	-0.014 (0.038)
prdworker	0.328** (0.161)	0.290 (0.179)	0.151 (0.163)
dlegal	-0.177*** (0.042)	-0.214*** (0.048)	-0.105** (0.042)
dstra	0.244*** (0.041)	0.257*** (0.045)	0.449*** (0.041)
dintfin	-0.055 (0.046)	0.150*** (0.051)	0.217*** (0.046)
hitech	0.194*** (0.064)	-0.184** (0.074)	-0.196*** (0.066)
mhightech	0.095* (0.055)	0.115* (0.061)	0.044 (0.056)
mlowtech	0.228*** (0.059)	0.172*** (0.066)	0.142** (0.060)
lowtech	0.104* (0.059)	0.074 (0.067)	0.135** (0.060)
$\rho_{12}$	0.498*** (0.024)		
$\rho_{13}$	0.645*** (0.022)		
$\rho_{23}$	0.654*** (0.025)		
$\chi^2$	764.241		
표본수	7,241		

주)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나타냄.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 V. 결론

이 논문은 기업의 유형별 R&D 혁신 활동, 기업규모와 기업 형태와 같은 기업의 성격, 유형별 기술혁신 보호와 기술협력 등의 요인이 어떻게 혁신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달리 이 논문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16년과 2018년의 기술혁신 설문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다변량 프로빗 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우선 기술혁신 장애, 즉 자금조달 부족, 기업역량 부족, 시장요인 세 개 변수 모형에서 오차항 간 상관계수가 모두 통계적 양의 부호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자금조달 부족, 기업역량 부족, 시장요인 등의 장애요인은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보완적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장애요인 변수를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추정할 경우, 편의적 결과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혁신 확대를 위한 동기부여와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효율성 확대뿐만 아니라 혁신장애의 제거가 정부 개입의 일환으로 실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기술혁신 활동이 장애요인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달리 나타났다. 내부 R&D 활동과 공동연구개발 활동은 자금조달 장애와 시장 불확실성 인식의 중요성을 확대하는 반면, 기업역량 문제의 중요성 인식은 모든 R&D 활동이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규모는 혁신 장애의 중요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기술혁신의 장애요인을 작게 느낀다는 의미이다. 한편 기업업력은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업력이 크다고 해서 혁신 장애 반드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젊은 기업일수록 혹은 신생기업일수록 혁신 장애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기술 수준이 장애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이텍 여부의 추정계수는 모든 장애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자금조달 부족 경우는 음의 부호로, 시장요인과 기업역량 부족은 양의 부호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간저기술에 추정계수는 자금조달과 시장요인의 추정계수는 유의하고 저기술에 대한 추정계수는 기업역량 부족의 장애요인 하나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제, 시장요인 및 기업역량 부족의 장애를 극복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업 또는 기관과의 기술협력의 확대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이 자금조달 문제를 완화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협력과 기술혁신 법적 보호에 대한 정부 지원은 기업역량 부족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기술수준별로 보면 하이텍 산업에 정책지원은 시장요인과 기업역량 부족의 장애요인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박규호(2011), “우리나라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발전연구』 제19권 제2호, pp. 2-21.
- 서규원·이창양 (2004), “한국기업의 기술혁신 애로요인과 그 중요성 분석”, 『기술혁신연구』 제12권 제1호, pp. 115-134.
- 신범철(2018), “기술혁신활동과 수출성장에 대한 실증분석,” 『생산성논집』, 제32권 제1호, pp. 3-23.
- 신범철(2021), “혁신장애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아태경상저널』, 13권 제2호, pp. 3-30.
- 이성기(2008), 「다변량 프로빗모형을 이용한 혁신과정의 장애요인과 기업의 기술확보전략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제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Baldwin, J., and Z. Lin(2002), “Impediments to Advanced Technology Adoption for Canadian Manufacturers.” *Research Policy* 31, pp. 1 - 18.
- Blanchard, Pierre, Jean-Pierre Huiban, Antonio Musolesi, and Patrick Sevestre. 2013.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Assessing the Impact of Obstacles to Innovation.”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22 (9), pp. 679 - 710.
- Bougheas, S.(2004), “Internal vs External Financing of R&D,” *Small Business Economics* 22(1), pp. 11 - 17.
- Canepa, A., and P. Stoneman(2008), “Financial Constraints to Innovation in the UK, pp. Evidence from CIS2 and CIS3,” *Oxford Economic Papers* 60, pp. 711 - 730.
- Cin, Beom C., Y. Kim and N. Vonortas(2017), “The Impact of Public R&D Subsidy on Small Firm Productivity; Evidence from Korean SMEs,” *Small Business Economics*, 48(2), pp. 345-360.
- Coad, Alex and Rao Rekha(2008), “Innovation and Firm Growth in High-tech Sectors, pp. A Quantile Regression Approach.” *Research Policy* 37(4), pp. 633 - 648.
- Crepon, Bruno, Emmanuel Duguet, and Jacques Mairesse(1998), “Research, Innovation and Productivity; An Econometric Analysis at the Firm Level,” *Economics of Innovation and New Technology* 7(2), pp. 115 - 158.
- D’Este, Pablo, Simona Iammarino, Maria Savona, and Nick von Tunzelmann. 2008. “What Hampers Innovation? Evidence from UK CIS4.” SPRU Electronic Working Paper Series (SWPS), No. 168, February.
- Galia, F., and D. Legros, 2004, Complementarities between obstacles to innovation: Evidence from France, *Research Policy* 33, 1185-1199.
- Garcia-Quevedo, J., G. Pellegrino and M. Savona(2017), “Reviving Demand-pull Perspectives; The Effect of Demand Uncertainty and Stagnancy on R&D Strategy,”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41(4), pp. 1097-1122.
- Griliches, Zvi(1979), “Issues in Assessing the Contribu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o Productivity Growth,”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10(1), pp. 92 - 116.
- Hadjimanolis, Athanasios(1999), “Barriers to Innovation for SMEs in a Small Less Developed Country (Cyprus),” *Technovation* 19, pp. 561-570.
- Hall, Bronwyn H.(2002), “The Financing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18(1), pp. 35 - 51.
- Hottenrott, Hanna, and Bettina Peters(2011), “Innovative Capability and Financing Constraints for Innovation, pp. More Money, More Innova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4 (4), pp. 1126 - 1142.
- Madeira, M., J. Carvalho, J. Moreira, F. Duarte, and F. Filho(2017), “Barriers to Innovation and the Innovative Performance of Portuguese Firms,” *Journal of Business*, 9(1), pp. 2-22.
- Mancusi, Maria Luisa, and Andrea Vezzulli(2010), “R&D, Innovation, and Liquidity Constraints,” KITeS Working Papers 30/2010, Bocconi University.
- Mancusi, Maria Luisa, and Andrea Vezzulli(2014), “R&D and Credit Rationing in SMEs,” *Economic Inquiry* 52 (3), pp. 1153 - 1172.

- Mohnen, P., and L.-H.Röller, 2005, Complementarities in innovation policy, *European Economic Review* 49, 1431-1450.
- Pellegrino, Gabriele, and Maria Savona(2013), "Is Money All? Financing Versus Knowledge and Demand Constraints to Innovation," UNU-MERIT Working Paper Series 029.
- Savignac, Frédérique. 2008. "Impact of Financial Constraints on Innovation, pp. What Can Be Learned from a Direct Measure?" *Economics of Innovation and New Technology* 17 (6), pp. 553 - 569.
- Segarra, Agustí, Jose Garcia-Quevedo, and Mercedes Teruel-Carrizosa(2008), "Barriers to Innovation and Public Policy in Catalonia,"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4 (4), pp. 431 - 451.
- Segarra-Blasco, Agustí(2010), "Innovation and Productivity in Manufacturing and Service Firms in Catalonia: A Regional Approach," *Economics of Innovation and New Technology*, 19(3), pp. 233-258.
- Tiwari, Amaresh, Pierre Mohnen, Franz Palm, and Sybrand Schim van der Loeff(2008), "Financial Constraint and R&D Investment: Evidence from CIS," In *Determinants of Innovative Behaviours, A Firm's Internal Practice and Its External Environments*, edited by A. Kleinknecht, C. Van Beers, and R. Verbug, pp. 217 - 242. London, Palgrave Macmillan.
- Wooldridge, J. M.(2010)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Cambridge, MA: MIT Press.

## A Study on Innovation Barriers

**Beom Cheol Cin**

(Division of Economics, Kyonggi University)

**Eui Young Lee**

(Department of Economics, Kyonggi University)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correlations among innovation barriers and their determinants, using data basis merging 2016 and 2018 Korea's Innovation Survey data implemented by STEPI. Our empirical results, first, show that the null hypothesis that innovation barriers are not related each other. statistically rejected. In estimation of the multivariate probit model, all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innovation barriers such as the cost of innovation projects, lack of firm capability and market conditions a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ch means that ignoring the potential interrelation of innovation barriers can lead to biased results. This implies that government should provide incentive and financial support to promote innovation activities for expansion of market efficiencies and reduction of innovation barriers.

Second,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effects of R&D activities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s of innovation barriers. Internal R&D and joint R&D activities positively affect all types of innovation barriers but external R&D activities only affect the lack of firm capacity significantly.

Finally,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R&D cooperation and legal protection for innovation have negative effects on innovation barriers. These suggest that government policies are needed for promotion of innovation activities to overcome innovation barriers. In particular, government needs to support SMEs to reduce innovation barriers through the promotion of R&D cooperation with other firms or research institutes and through the expansion of R&D investment.

▪ Key words : Innovation Barriers, Multivariate Probit, Conditional Mixed Process Program, Correlation Analysis.



## 세션 4

### 미얀마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 Analysis of major research trends in ESG using topic modeling

| Jiaen Li (Kwangwoon University)



## Contents

- I. Introduction
- II. Literature review
- III. Method and data
- IV. Text mining results
- V. Conclusion

- With the global spread of COVID-19, addressing environmental and social challenges has become a global call-to-action as every region pursues its vision for sustainable business models.
- There are two big reasons behind the recent boom i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 the outbreak of coronavirus and the start of the Joe Biden administration.
  - With the emergence of Covid-19 and with issues like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still remaining as challenges, more companies are facing public pressure to lower their impact on environment and contribute to social good.
  - The Joe Biden administration is another driving force. As the Biden administration is keen to make climate change a major theme of his presidency, it has been boosting people's interest in ESG funds.
- Countries around the world continue to promote the coordinated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in accordance with the ESG principle.
  - Increasing awareness of sustainable performance has raised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and social activities combined with governance issues.
- Accordingly, considerable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topics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activities.

3

- This study analyze the literature related to ESG research as the research object and presents the status, hot topics, and trends of ESG research.
- Keywords abstract the core points of research in the fields. To review and summarize ESG research trends, I collect the abstracts related to ESG studies from the Science Citation Index (SCI(E)) level journal published in 'Web of Science' with LDA-based topic modeling.
- Based on the results of systematic research trend analysis, this paper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ESG research. Also contributes to presenting directions and roadmaps for future academic research and ESG activities.

4

- The literature on ESG topics are tied more closely to CSR and highly fragmented.
  - For example, responsible outcomes can be attributable to **ethical leadership** (Nejati, Salamzadeh, & Loke, 2019), **economics conditions** (Campbell, 2007), media coverage (Zyglidopoulos, et al., 2012) and the professionalisation of ESG experts (DiMaggio, & Powell, 1983). Vashchenko (2017) documented pressure on **CSR decision making** from a number of external factors (such as **economic climate**, **competitors' CSR policies**, **investors' CSR concerns**, **business education and scientific publications**,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recommendations and regulations**, **international CSR guide-lines**). Despite the impressively wide range of drivers, the most dominant theme is about how corporate management and strategy drives CSR.
  - Moreover, ESG outcomes are influenced by **firm size** (Drempetic, Klein, & Zwergel, 2020), **auditing** (Del Giudice, & Rigamonti, 2020), **strategy choices** (Galbreath, 2013), **board composition** (Birindelli, Dell'Atti, Iannuzzi, & Savioli, 2018), **stock exchange innovation** (Bizoumi, Lazaridis, & Stamou, 2019), **investors** (Innis, & Kunz, 2020; Kölbel, Heeb, Paetzold, & Busch, 2020) and whether the company belongs to an **industry** which is more sensitive to ESG issues (Garcia, Mendes-Da-Silva, & Orsato, 2017).
- However, the collection of findings are incomplete, disorganized, and tied more closely to CSR issues. So, does not easily lead to coherent insights on how to achieve better ESG results.

5

- Topic modeling is a technique for analyzing the main topics in a document. Among them,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based topic modeling is a method that identifies the subject of a paper based on the Dirichlet probability distribution and allows you to know the contents of each topic (Park Young-wook, Jung Sang-yeop, 2021).
- Topic modeling allows us to understand the context of documents (Kwon Hye-jin, Jeon Jae-kyun, 2020). It automates them because it takes a lot of time and money when humans directly review the entire large amount of documents (Kim Sun-joo, Park Dae-young, & Kim Byung-soo, 2021).
- Centrality refers to the degree to which the word is centered in the network structure (Kwak Ki-young 2016) and is divided into degree centrality, between centrality, and closeness centrality (Freeman, 2005).
- Centrality analysis can identify keywords from the centrality index derived by period (Borgatti et al., 2002; Knoke & Yang, 2019; Park Joon-seok et al., 2016), and topic modeling can find abstract topics of the document and hidden semantic structures (Kim Kyung-sik, 2021).

6



- To examine research trends analysis of the abstract of the literature using Python program conduct the text-mining. They are frequency analysis, topic modeling, and centrality analysis.
- Tokenization separates natural language into morpheme units and removal of disused words. Before analysis, the context must conduct preprocessing process through tokenization and remove stopwords to extract the important words (Fig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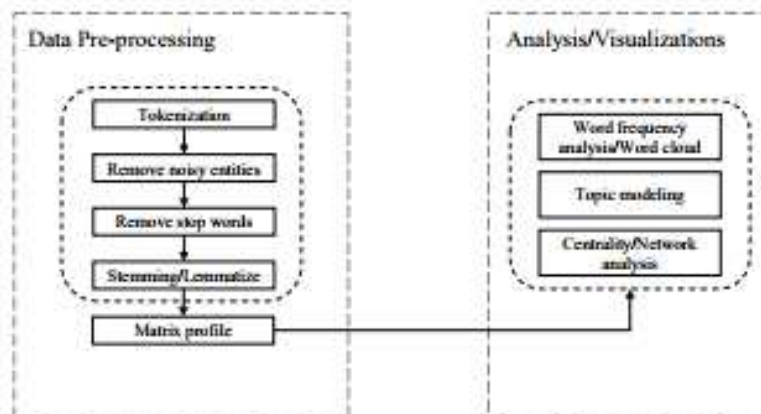


Fig 3-1. Overview of the proposed framework

7

- The 346 papers searched in this study was obtained from the Web of Science (WOS) database.
- The search showed that the related research on ESG began in 2013.
  - The ESG principle has been developed for 17 years following its formal proposal in 2004.
  - In addition, since ESG is derived from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 Therefore, early-time research expands the CSR principle for explaining the ESG definition.
- Until 2017, there have little number of related works. Related research showed a rapid increase from 2018, and the number of papers doubled yearly until October 2022 (Fig 3.2).
-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from 2013 to 2017 as one period and from 2018 to 2022 analyze each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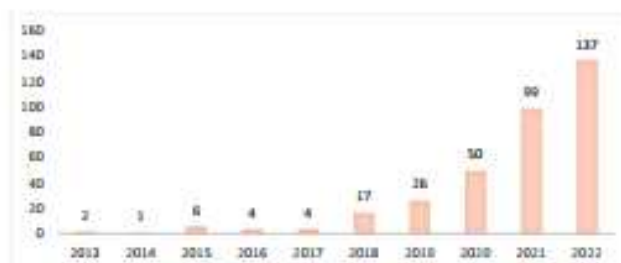


Fig 3-2. Number of related works, 2013-2022

8

## 4.1 Word frequency analysis result

III. Text mining results

Table 4-1 . Word frequency of the keywords

Year	Keyword	Frequency	Keyword	Frequency	Keyword	Frequency	Keyword	Frequency
2013 ~ 2017년	esg	44	country	20	risk	17	sci	12
	performance	33	social	19	governance	16	different	12
	environmental	30	sustainability	18	csr	16	data	12
	company	30	corporate	17	investor	15	also	11
	firm	21	index	17	score	14	relationship	11
2018년	esg	41	social	27	corporate	17	sector	15
	firm	38	investment	25	market	16	sustainable	13
	value	38	health	23	sustainability	15	model	13
	csr	29	company	22	governance	15	rat	13
	performance	27	financial	18	environmental	15	relationship	10
2019년	esg	68	firm	28	governance	23	responsible	20
	financial	60	fund	26	corporate	22	development	18
	performance	46	investment	25	social	22	portfolio	18
	sustainability	38	company	24	sustainable	21	factor	18
	risk	30	market	23	environmental	20	also	17

9

## 4.1 Word frequency analysis result

III. Text mining results

Table 4-2 . Word frequency of the keywords (continue)

Year	Keyword	Frequency	Keyword	Frequency	Keyword	Frequency	Keyword	Frequency
2020년	esg	142	financial	54	governance	44	value	34
	sustainability	106	company	50	report	39	csr	34
	firm	104	score	49	sustainable	36	market	30
	performance	102	social	47	relationship	35	investment	30
	corporate	61	environmental	44	factor	34	return	29
2021년	esg	334	financial	97	sustainability	78	analysis	54
	performance	159	social	93	sustainable	77	value	53
	firm	145	environmental	90	rat	70	score	52
	corporate	104	governance	81	investment	67	risk	51
	company	100	disclosure	79	relationship	57	investor	51
2022년	esg	581	environmental	139	disclosure	97	score	87
	performance	267	social	135	model	97	relationship	86
	firm	198	corporate	129	investment	94	sustainability	85
	company	190	sustainable	101	governance	90	data	84
	financial	151	green	100	market	89	development	83

10

Fig 4-1 . Word cloud of the keywords



11

## 4.2 Topic modeling result

Table 4-3. Topic modeling results (2013 ~ 2017)

No	Topic	Keywords	Documents
1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company, csr, risk, index, performance, result, firm, use, social	6
2	Sustainable reporting tools (strs)	performance, sustainability, country, corporate, project, governance, stakeholder, strs	4
3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environmental, sri, company, score, performance, policy, social, firm, impact	4
4	Investment decision	investor, preference, environmental, decision, consider, country, use, corporate, responsible	3

Table 4-4. Topic modeling results (2018)

No	Topic	Keywords	Documents
1	SDG target	company, sdgs, target, map, value, indicator, corporate, csr, information, target, sustainable	6
2	Firm activity	firm, csr, value, ownership, activity, market, rat, relationship, sustainability, board	6
3	Health investment	investment, health, value, company, design, market, global, sustainable, model, framework	5

12



## 4.2 Topic modeling result

III. Text mining results

Table 4-5. Topic modeling results (2019)

No	Topic	Keywords	Documents
1	Investment portfolio	investment, portfolio, fund, performance, responsible, decision, data, company	4
2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ustainability, industry, comparability, corporate, firm, value, behavior	7
3	Financial performance	financial, performance, risk, sustainability, score, investment, factor, system, model	10
4	ESG score(index)	index, rat, firm, market, score, disclosure, sustainable, report, level	5

Table 4-6. Topic modeling results (2020)

No	Topic	Keywords	Documents
1	Investment risk management	investment, risk, management, initiative, sustainable, relationship, factor, indicator	12
2	Firm transparency	transparency, firm, innovation, entrepreneurship, sustainability, corporate, earn, development, gender	4
3	Sustainable report	financial, report, firm, sustainability, performance, score, value, environmental, relationship, information	18
4	Stock (fund) return	index, csr, stock, report, governance, return, corporate, exchange	16

13

## 4.2 Topic modeling result

III. Text mining results

Table 4-7. Topic modeling results (2021)

No	Topic	Keywords	Documents
1	Sustainable growth	risk, industry, growth, rat, sustainable, country social, environmental, governance	14
2	Financial performance	performance, financial, social, environmental, governance, score, relationship, sustainable, factor	42
3	ESG disclosure (rating)	firm, management, investor, corporate, financial, disclosure, rat, social, fund, sustainable	28
4	Environmental investment	environmental, emission, value, governance, energy, carbon, sector, sustainability, capital	15

Table 4-8. Topic modeling results (2022)

No	Topic	Keywords	Documents
1	Financial performance	financial, performance, company, disclosure, relationship, social,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63
2	ESG performance	performance, company, data, supply, chain, enterprise, csr, model, investment, rat, score	24
3	Environment investment	investment, performance, value, energy, market, model, firm, stock, sustainable	16
4	Green innovation	enterprise, model, technology, green, carbon, innovation, sustainable, low, investor, promote	14
5	Firm performance (value)	fund, market, index, firm, performance, sustainability, credence, value, financial, social, covid	12
6	Stakeholder theory	corporate, stakeholder, activity, environmental, business, employee, well, ownership, management	8

14



- The results show that ESG, corporate responsibility, sustainability, and socio-environmental governance are used as synonyms. In addition, since ESG is derived from CSR, ESG and CSR are two terms that can be used interchangeably (Garcia et al., 2017). Therefore, the “topic” includes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corporate responsibility, sustainability, and socio-environmental governance.
- Form the result that they mainly focus on the importance of ESG metrics in 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global health investment, and sustainable report. From this we can know that the underlying socioeconomic, market and SRI factors driving ESG topics during the period of 2013-2018.
- Form 2019, the influence of the ESG score on measuring corporate sustainability performance and factor. And then discuss significance of the ESG portfolio in investment and the importance and role of ESG factors in the financial decision-making process.
- From 2020, with the emergence of Covid-19 and with issues like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still remaining as challenges, more companies are facing public pressure to lower their impact on environment and contribute to social good, and be perceived as treating their workers well and employ more transparent practices.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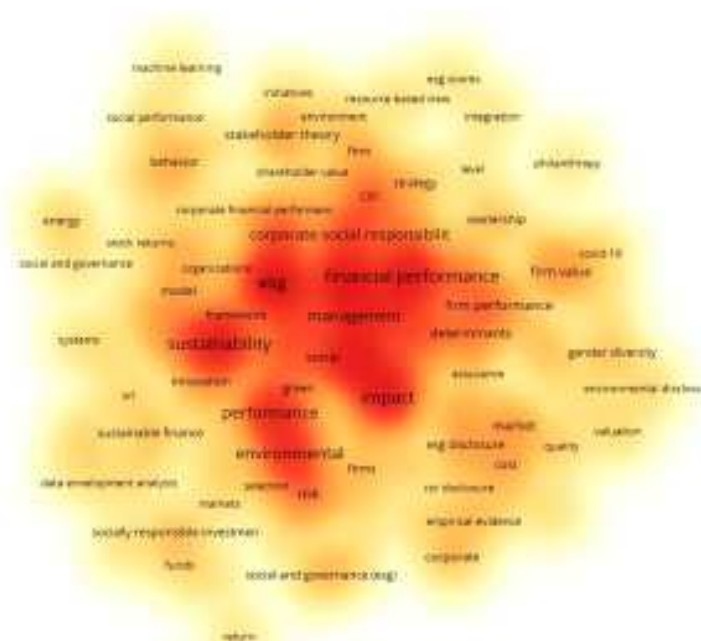


Fig 4-2 . Centrality keywords (Density visualization)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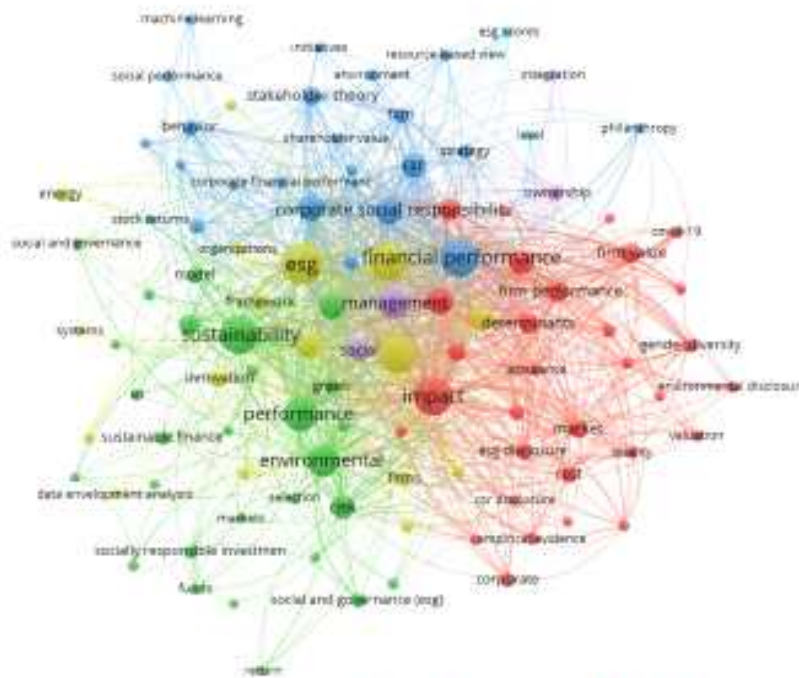


Fig 4-3 . Keywords network by cluster (Cluster = 6)(Network visualization)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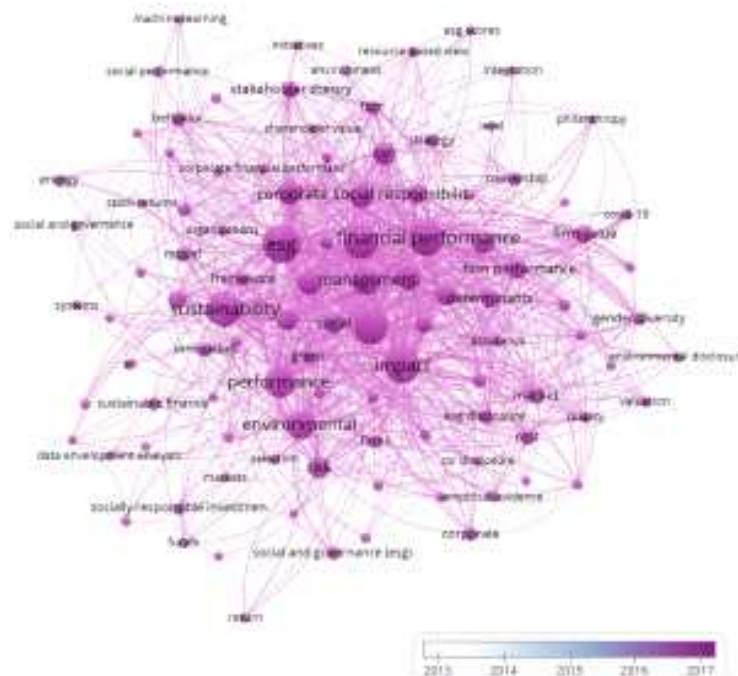


Fig 4-4 . Keywords network analysis (2013 - 2017) (Overlay visualization)

18



19

- 10

21

### III. Text mining results





## 세션 5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로컬리티

## 로컬의 인문학적 실천과 지역발전 - 로컬크리에이터 사례를 중심으로1)

정수희(명성여대) · 이병민(전국대)

### 1. 서론

뉴노멀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회구조 전반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의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저성장 고착화, 가계, 기업/가계 간 소득 격차 확대, 양극화 심화 등 뉴노멀의 쇼크와 함께 ‘인구절벽’ 쇼크와 ‘지방소멸’에 이르기까지 확장되며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급격한 기술의 발전의 맥락에 놓여있다. 한편으로, 기존의 가치들이 전복되고 새로운 사회기준과 가치에 대한 고민들이 증가하며 인문학적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융합적인 성격이 강조되면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크리스티안 마두스베르그는 ‘인문학(humanities)이야말로 새롭게 상상하는 법과 창의성의 원천을 강조하고 있다(마두스베르그, 2017)’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관해 민감한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문화적 지식과 인간적 경험에 대한 해석을 활용’해야 하며, 환경이 변화하는 시기에는 인간성의 감정적, 심지어 본능적 맥락과 재접속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인문학적 미덕’은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과 사회, 지역 등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측된다. 인간이 선물로서 주어진 대지와 땅에서의 삶(la vie sur terre est donné à l’homme)의 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실존적 지평인 땅과 대지, 궁극적으로 자연과 되돌릴 수 없이 유리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김동운, 2019). 인문학자들의 논의는 코로나 등 계량과 기술 발전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등의 흐름 속에서 인간성에 대한 숙고와 이를 증진할 새로운 사회질서에 대한 성찰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백중현, 2017).

한편으로, 장기화된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전환시켰다. 특히, 상생의 공간으로서 지역(local)과 중소도시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를 제공했다. 예기치 못하게 맞이한 코로나19는 언택트 시대의 도래를 촉진했다. 원거리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일상생활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ontact), 오프라인 공간에서 킴으로(hometact), 도시 및 중심가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localtact) 변화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전의 주변으로 인식되었던 지역에서의 삶의 재인식은 소외된 환경으로서의 지방이 아닌 지역자산을 토대로 ‘자랑스러우며,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로컬로서 지방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 중소도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김학주, 2020). 인터넷과 SNS 등으로 변화해가는 환경 속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확장되고 지역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재해석되면서 다른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이 연구는 2021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원으로 진행된 <문화기반 중소도시 발전전략 : 로컬크리에이터의 역할을 중심으로>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자들의 학술적 견해를 더해 작성된 발표문임을 밝힙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지역의 문화 주체로서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사람들이다. 정부의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명칭이 알려지게 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학술적 정의는 모호하다. 기존 정책 연구에서는 실무적인 필요와 유연한 정책 접근을 시도한다는 명목 하에 이를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부 등에서는 지역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의 개념과 범위를 모호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학계간 연계를 통해 로컬크리에이터-지역사회-대학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와 지역 생태계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경제적 관점에서 골목상권의 주역으로서 한정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으며, 창조도시, 도시경제의 시각에서 이들을 이해하다 보니, 상권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다. 이는 국내 실정에 맞지 않거나,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거나, 지역성과 문화가 배제된 로컬크리에이터 연구의 한계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기존 연구 대부분이 로컬크리에이터의 대표적인 활동무대를 지역의 골목상권으로 국한해 이해함으로써 지역 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분야와 도시 스케일로의 확장 가능성은 제한된 측면이 있다. 이에, 로컬크리에이터의 핵심종인 청년집단과 지역주민의 연계를 통해 지역과 지역문화가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관점에서 지역 기반 포괄적 시각에서의 장기연구가 부재한 상황이기도 하다.

본 발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문학적 연구시각에 기반을 둔 실제적인 지역의 발전전략을 ‘로컬’의 의미 전환과 연관 지어 모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와 함께 뉴노멀에서 주장하는 실천인문학의 시각에서 보다 실천적인 방향으로 인문학적 성찰의 결과들이 지역 발전의 측면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

## 2. 새로운 ‘로컬’의 부상과 그 특징

### 1)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

지역은 세계 내 존재(In-der-Welt-Sein)이며 현존재인 인간이 주위 세계(Umwelt)와의 관계 안에서 상호작용을 벌이는 곳이다(강학순, 2011). 공간으로서 로컬에 대한 사유는 로컬에 사는 인간(Homo localitus)의 존재론적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경험 공간으로서 로컬은 인간이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터이며 다양한 관계가 맺어지는 곳이다. 또한, 다양성이 발현하는 ‘과정의 공간’이며 이 과정을 통해 사회-정치-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기든스는 현대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국지적 일상과 장소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은 상실, 일상적 삶이 훨씬 더 확장된 시공간의 범위에서 교환되고 연계되었다고 지적한다. 구조적 속성에 의해서 규정되는 행위들은 반복성과 정규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며, 상호작용의 반복성을 통해 시공간은 관례화(routinization)된다. 기든스는 이러한 다양한 양식의 상호작용의 일어나는 공간 범역이 있는 물리적 환경을 ‘로케일’(locale, Giddens, 1984, p. 374)이라고 명명했다. 즉, 로케일은 행위주체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시공과 연결되며 발생하는 장소이다. 그 범위는 가정의 방, 거리, 공장, 도시, 국가 등 상당히 신축적으로 나타난다. 기든스는 이러한 구조와 행위자를 연결해 주는 사회 네트워크가 공간상에 뿌리를 내리는 양상을 지역화(regionalization)라고 개념화했다. 지역화는 사회적 삶이 상호작용하면서 시공



간 상에 공현전(co-presence)하게 하는 연속성 공간의 관례화와 원격화를 통해서 사회적 행위가 장소에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구역화(zoning)의 양식, 구조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지역의 개념은 폐쇄적이고 수동적이며 지역 내부에 국한된 인간-환경 관계에만 주목했다. 그러나 새로운 ‘지역’ 개념은 사회적 행위에 의해 지속적으로 형성, 변화하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정의한다. 지역은 지역성을 형성, 유지, 변형시키는 살아 있는 실체이다. 장소성, 네트워크, 스케일, 새방화(glocalization), 정체성(identity) 등이 새로운 지역의 개념을 설명하는 주요 원리이다. 지역은 유무형의 경계를 가진 공간과 기억의 장소이자, 법, 권력 등 제도적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며, 개인과 집단 간의 이념적, 물질적 복합체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관계망들은 지역을 토대로 연계, 권력, 중층성, 의미화 등을 통해 장소와 영역 등으로 변모한다.([그림11])

[그림 1] 지역과 장소, 네트워크의 관계



출처: 노영순·이상열, 2018.

근대성으로 대표되는 주요 특성들은 국가-중앙, 중심성 등을 강조하면서 지역 내지 지방을 주변적이고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이는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분법적 공간 분리를 유발시켰다. 이와 함께 글로벌화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은 지역의 위기의식을 불러왔다. 더 이상 상대적 의미로서의 주변의 지역이 아닌 소위 ‘로컬’로서 자신의 독자성과 역동성을 강조해야 했고, 이에 시대적 역할과 의미에 대한 탐구가 요구되었다(부산대학교, 2009).

## 2) 로컬과 로컬의 장소

### 로컬에 대한 제주목

최근, ‘로컬’은 대세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로컬담론이 이어지고 있고, 로컬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제안되고 있다. 현시대 로컬에 대한 열광은 기존의 지역위기에 대한 대안이자 탈출구로서 인식되고 있다. 지방과 지역이 아닌 ‘로컬’로서의 가능성과 경쟁력에 목도되어 있다.

이러한 실재적 흐름과는 별도로 연구자들이 지방 혹은 지역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소위 ‘로컬’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단어들이 갖는 한계와 이미 수직적으로 담론화 되어 있는 상황 때문이다(부산대학교, 2009). 인문학적으로는 ‘로컬’은 보다 실존적인 의미를 담고 외래어 수준에서 더 나아가 주민들과 밀착된 관계를 형성이 가능해져서 장소와 토지라는 실물적 의미, 입장이라는 정신적 의미,



계급이라는 사회적 의미 등을 두루 포용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임성원, 2019). 이때,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 중앙을 대신해 쓰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하는 사람들의 능동적, 적극적인 활동이 담길 수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지방(로컬)은 수직관계의 용어로서 서울 중심으로 지방을 재단하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때 순수한 지방의 지역성은 간과되어 왔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오래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대상으로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 속에서 생산보다는 향유에, 내·외부 고객의 만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위축된 지역으로서의 ‘지방’이 아닌 능동적 라이프 스타일이 강조되는 ‘로컬’이 강조되고 있다. 낙후되고 오래된 것이 아닌 유지되고 이어져온 것, 뒤쳐진 것이 아닌 지켜온 삶의 양식으로서 ‘로컬’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로컬’이외의 시각에 인문학적 관점이 더해진다면, 단순한 대체적 외래어의 수준이 아닌 보다 실존적인 개념이자 더 나아가 주민들과 밀착된 관계 형성이 가능해진다. 장소와 토지라는 실물적 의미, 입장이라는 정신적 의미, 계급이라는 사회적 의미 등을 두루 포용하게 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임성원, 2019). 이때, 로컬은 단편적인 공간적 의미, 중앙을 대신해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하는 사람들의 능동적, 적극적인 활동을 담는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로 전환된다. 그들의 활동은 로컬이 가진 고유의 속성으로서 로컬리티를 재구성하는 기반이 된다.

### 로컬에서의 좋은 장소 만들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의 로컬리티 변화에서 중요한 전제는 좋은 장소의 여부이다. 즉, 장소의 품질에 대한 문제이다. 좋은 장소로의 발전 가능성은 로컬리티와 연계하며 문화와 지역의 역사를 기반으로 장소성의 특징을 차별적으로 나타낸다. 장소의 품질은 다양한 지역의 속성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가시적인 결과물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관계성을 통해서도 결정된다.

이때, 장소의 속성을 결정하는 접근성, 개방성과 다공성(porosity) 강화를 통한 혁신의 개방성과 가시성, 고품질의 견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linger) 공간창출, 다양성을 위한 용도의 다양화(거주 포함), 동 유니크한 공간의 차별화, 공공공간의 가치 향상 등 다양한 장소적 특징 등은 지역과 관계된 인문학적 가치와 매칭된다. 이 중, 다공성(多孔性)은 원래 공학과 건축학에서 고체의 표면이나 내부에 작은 구멍(기공)이 많이 있는 상태 또는 물질을 조성하는 분자와 분자 사이에 틈이 있는 성질을 이르는 개념이다. 벤야민의 시각을 빌어 이 개념을 지역에 대한 인문학적 시각으로 적용해본다면, 지역의 질적 특징을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스티로폼이나 현무암 등에서 다공성 물질은 구멍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같은 부피인 다른 물질보다 더 가벼운 이점이 있고, 공기 등의 소품이 원활하다. 건축에서는 다공성을 바람의 들고남과 개방성의 차원에서 주목한다. 벤야민은 현상 사이의 명확한 경계가 모호하여 하나의 사물 안으로 다른 사물이 침투하거나 새로운 것과 낡은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등이 혼용되거나 복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해석한다. 이러한 인문학적 다공성의 의미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시간성과 일상성을 내포하는 특징과 연결된다(길르크, 2005). 지역 구조와 주체의 개방성, 다양성의 특징과 잇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물리적 밀도 근접성이 커뮤니티 연계의 핵심요소로 작용하는데, 고품질의 빌딩, 인프라, 공공공간은 연계 플랫폼

을 형성하는 잠재력을 제공하게 된다. 연계와 공유가 전제되는 공공혁신홀, 혁신센터는 연계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커뮤니티에 의해 형성되는 통합된 공공공간이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는 장소의 품질을 제고하고, 다른 지역들과 구분되는 차별성의 근거가 된다.

위드 코로나 시대인 지금 이러한 특징은 더욱 빛을 발한다. 이동성, 모빌리티의 한계로 지역 내에서의 활동의 밀도가 더욱 강해지게 되며 장소기반의 전략은 강화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기업과 시민의 근접성을 강화시키는 밀도와 혼합용도의 증진, 다양한 연구자와 작업장의 물리적 인접 입지(co-locating), 핵심적인 기술의 공동장비 구비와 이용 접근성 강화, 핵심빌딩(앵커시설)과 연구 활동의 연계강화, 핫스팟 노드(여러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의 건설 등을 통해 장소의 품질을 제고하게 된다. 디지털 환경과 위드코로나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지고, 유기적인 상호작용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기제가 된다. 이와 같은 장소 기반의 전략은, 기업과 시민의 근접성을 강화시키는 밀도와 혼합용도의 증진, 다양한 연구자와 작업장의 물리적 인접 입지(co-locating), 핵심적인 기술의 공동장비 구비와 이용 접근성 강화, 앵커 시설과 활동의 연계강화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혁신공간은 장소와 로컬크리에이터 등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시적/비가시적 환경과의 연계를 통해 차별적인 맥락을 만들어내고, 장소의 품질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림 2] 장소의 품질과  
지역의 역력에 따른 차별성



출처: Esmaeilpoorarabi, N., etc, 2018, p.159 참조하여 수정

실제, 최근 들어 로컬과 연결된 장소의 품질과 관련하여 작은 지역이 가진 가능성에 주목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대도시 중심의 표준화된 사고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전환이 같은 맥락에서 이어진다. 그동안 성장 중심의 대도시의 발전과 도시의 확장은 도시의 외형을 강화했지만, 이와 동시에 시민적 무관심과 공동체적 붕괴로 이어졌다. 서로 간의 밀접한 관련성, 헌신, 신뢰, 상호성 등은 간과되어 왔다. 최근 가치관의 변화는 성장 중심 사회에서 발생한 인문학적 가치의 붕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로 협업의 태도와 공동체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규모의 불경계를 극복하고, 인문학적 고찰과 재구성성을 통한 협업역량의 강조와 가치회복을 위해 지역 차원의 인문학적 연구가 필요함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김희복·김희주, 2019).



이 과정에서 로컬은 동질화된 공간이 아닌 다양성과 차이의 공간으로 로컬 단위의 정체성과 차별성이 강조되고, 글로벌 패러다임 속에서 새로운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대도시의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구조를 선포하는 주변으로서의 로컬이 아닌, 로컬 자체로서 존재하는 중심주체로서의 로컬의 성장이다. 가치관의 전환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서 로컬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로컬의 주민과 방문객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압축적인 공간의 형태와 지속가능성, 활력 증진과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공공간의 확보 등 휴먼스케일의 유지이다(Jan Gehl, 2010). 이는 도시의 정체성, 공동체 의식, 전체 주민을 아우르는 시각 등이 관련되며, 규모의 문제로만 국한하지 않는다. 로컬리티라는 특성과 연관해서 생각해본다면, 창의인력 관련 문화기반 지역의 경쟁력은 무형자원의 가용, 다양한 지역, 주체들과의 협업, 비교우위에서 경쟁우위로의 변화, 자원의 분배, 유기적 시스템 관리의 유연성, 비대면 시대 가변적인 플랫폼의 확보 등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도시 공간이 추구해야 할 비덕 중 하나가 삶의 안정성이라면, 그것은 바로 과거와 현재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뿌리를 내린 경험적 공간에서만 가능하며, 이는 ‘골목’이라는 인문학적 공간의 키워드와 연결된다(김동윤, 2013). 골목으로 상징되는 공간은 과거와 현재의 경험이 존재하며, 추억과 기억, 흔적이 나타나는 곳이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던 공동체적 삶이 드러나는 곳이다(허준영·이병민, 2017). 골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획일화, 대형화, 보편화로 특성화되는 모더니즘에의 반발로 나타난다. 또한, 관련된 문화를 향유하는 이들의 사적인 공간의 확보, 이야기들을 만들고, 보유하고 싶은 욕망이 골목이라는 ‘장소성’으로 구현된다는 의견도 있다(이종수, 2011). 이는 골목이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사이에 연속성을 허락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이찬규, 2011). 즉, 골목은 새로운 로컬에서 지향하는 개인과 우리가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의 공간으로 대변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공을 이룬 도시들은 도시 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관용적이며 상대적으로 자유분방한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고도의 미래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지만 넓고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도시들은 장기적으로 도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새로운 도시주체로서 창조계급의 부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양적으로 지칭되는 도시의 지표들이 아니라, 고유한 특성으로 대표되는 질적 요소들이다.

창조도시 정책에 있어 경제성장을 염두에 채직한 환경개선에 집중하게 된다면, 창조적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창조산업보다는 카페나 공원과 같은 소비공간이 발전하면서, 공공지출을 왜곡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Oakley, 2009). 결국 창조경제라는 담론을 통한 도시개발 정책과 관련 프로젝트들이 주는 부작용은, 경제적, 사회적인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면서, 소수의 엘리트 구성원의 시장을 독식하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성장 모델은 재능 있는 예술가들의 발굴과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의 산출은 가능할지는 모르나, 창조도시 정책의 진정한 대상이 되어야 하는 시민을 위한 도시재생과는 관련성이 적게 된다(Stern and Seifert, 2008, 2010).

도시성장의 동력은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유형의 노동력의 일방적 축적이 아니라, 서로 연관된 산업들과 서비스 활동의 네트워크로서의 도시의 복합적인 생산구조에서 발현한다(Scott, 2008). 아무리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들이 지역에 거주하고 또한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이나 도시가 창조의 장이



되지 못하면 인재와 도시는 합일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지 못한다. 현대의 도시는 일상적 노동과 삶에서 연대, 사회성, 유대 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창조적 인재의 유입만큼이나 인문학적인 지역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창조성, 학습, 혁신, 사회적 유대, 문화적 표현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것은 현대 도시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적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Scott, 2010).

### 3) 호모 로컬리투스 : 로컬을 생각하는 사람들

#### 로컬크리에이터의 등장

로컬리티 연구가 로컬의 물리적 장소성과 관련된 것이든, 사회적 공간의 맥락과 관련된 것이든, 로컬과 로컬리티에 대한 철학적, 본질적 사유와 반성은 결국 로컬에 사는 인간(Homo localitus)의 존재적 본원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전근대 사회에서의 지역성은 영토에 기반한 장소귀속성, 혈연, 지연 등을 중심으로 결속성을 가지며, 주어진 지역성을 수동적으로 부여받았다. 하지만 현대에는 탈영토적, 이산적, 초국가적 특성이 나타난다. 지역의 경계를 넘나들고, 시공간을 변형하는 유목적인 요소, 초지역적인 장소성 발현 등이 특징이 드러난다. 아파두라이(A. Appadurai)는 글로벌화를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며 탈구적인(disjunctive) 질서의 산출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A.Appadurai, 2004: 60). 즉, 글로벌화는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종류의 세계적 흐름들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탈구이며, 이러한 탈구들 속에서 혹은 그것을 통해 창출되는 불확실한 정경들, 그 위에서 벌어지는 “동일성과 차이의 무한히 다양화된 상호 경쟁의 산물” 이라고 정의한 것이다(A.Appadurai, 2004: 79). 이런 상황에서의 로컬은 객관적이고도 무가치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없고, 인터넷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탈영토화 되는 특징을 갖는다. 때문에, 안정적이었던 기존의 로컬이 지속적으로 침식, 내파되면서 생겨나는 상실의 가능성을 장소정체성 즉, ‘로컬리티’를 통해 의도적으로 이식해야 되는 책임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지역을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사회적 공간으로 이해하고, 물리적 이동뿐만 아니라, 사람, 혁신, 자본, 권력 등이 이동하는 동적인 공간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비단 학술적 영역에서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실제적 적용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로컬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지역인력의 등장이 놓여 있다.

‘로컬크리에이터’라는 용어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알려진 단어이다. 중기부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들을 통해 지역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펼치려는 창의적인 창업가 정도를 뜻하는 용어로 일반화되어 알려졌다. 이에 앞의 개념화를 토대로 해서 정책적 정의로서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로 정의한다(중소기업벤처부, 2021). 이때, 유·무형의 특색 있는 지역 자원에 창업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함으로써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며, 세부적으로는 총 7가지 유형(스마트관광, 자연친화활동, 로컬푸드, 지역기반제조, 디지털문화체험, 지역가치, 거점브랜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와 청년문제를 동시에 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면에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매년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한편, 모종린 등은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김혁주, 2020).

- 
- 로컬 문화와 가치를 창조하는 크리에이터
  - 지역성과 결합된 자신만의 콘텐츠로 가치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의 주체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로컬 체인지메이커(Local Changemaker)와는 달리 지역의 자원과 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자로 창업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함
  - 굿독상권 등 지역 시장에서 지역 자원, 문화, 커뮤니티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소성공인
- 

이 밖에, 최근 다양한 연구포럼 및 세미나, 정책과제 등을 통해 로컬크리에이터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와 관련해서도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의 매개자로서 로컬크리에이터 연구가 나타나기도 하고(권지은, 2021), 문화예술교육의 측면에서 바라본 로컬크리에이터의 가능성을 분석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이송하, 2020).

이들 연구와 사업의 성과를 종합해 살펴보면,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에 적합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주체 정도로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들은 경제적 성공만 있고 재미와 가치가 없는 삶을 거부하고, 자기답게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유목민적 기질을 가지고 다른 공동체와 조우하며, 상대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성과 남은 동질성을 증폭시킨다. 즉, 차별화되고 희소성 있는 로컬의 가치를 발견하는 주체이다. 이들은 느슨한 네트워크(weak tie)를 형성하고, 콘텐츠를 확장하고 상호작용하며, 유연성을 가지고 로컬 브랜딩을 한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자원과 문화, 커뮤니티를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창의적인 지역혁신가이다. 오래된 것을 전통있는 유산으로 변화시키며 사람들이 외면한 것을 감각 있는 리브랜딩으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는 사람이다. 로컬에서 자신의 꿈을 찾고, 로컬의 숨은 가치를 찾아내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사람. 로컬 커뮤니티에서 관계를 만들고 수평적 관계를 선호하고, 남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권지은, 2021).

근간에 지방소멸, 켄데믹 등으로 인한 지역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며 국내 연구자들 역시 로컬 크리에이터의 개념에 주목하며 2020년 이후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때, 전술한 바와 같이 모종린의 주장을 필두로 한 경제학, 특히 지역경제학적 관점에서 로컬크리에이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주목할 수 있다. 이는 지역활성화의 관점에서 청년유입의 도구로서 로컬의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정책적 접근을 자극하였고, 이에 대한 확장 개념으로 관련 연구도 또한 활발히 증가하고 있다.

### 혁신의 주체로서 로컬크리에이터

이러한 개념의 등장은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경제·사회·문화 및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지역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며, 특히 각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 제도, 네트워크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배경이 있었음을 주목할 수 있다(Cabus, 2001). 특히 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물리적 근접성과 더불어 사회적 관습이나 이해관계, 문화와 같은 가치의 공유가 요구되고 있다(Bathelt et al., 2004;



Gertler 1995). 또한 사회·문화·정치·금융·산업 환경 등과 같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성은 혁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목할 수 있다(Wagner and Sternberg, 2004).

이들은 사업 과정에서 지역성을 강조하고, 지역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와 공통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나주봉, 2012). 다만,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주체가 주민공동체를 비롯한 지역공동체인 반면,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의 지원대상은 개인, 법인, 예비창업자 등 제한이 없고, 사업의 목적물 또한 지역과 관련된 유·무형의 제품과 서비스 전체를 포함하고 있기에 그 범위가 더욱 포괄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중소기업벤처부·창업진흥원, 2020).

창조산업과 로컬크리에이터라는 연관성을 살펴보면, 창의적 인재의 역량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 대상이 되는 산업부문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창조산업과의 유사성 또한 존재한다. 이원빈 외(2019: 84)는 “창조적 인재들이 자유롭게 역량을 발휘하며 도시의 문화예술적 기반과 창조적 잠재성을 개발해 성장의 동력을 끌어내는 도시가 창조도시라면 로컬크리에이터는 창조도시의 주역”이라 설명하며 이들이 종사하는 골목산업과 문화·창조산업을 아울러 ‘창의인재기반산업’이라 지칭한 바 있다. 다만, 보다 폭넓은 담론의 연구를 위해 이와 같은 개념 규정, 특히 이원빈 외(2019)에서 ‘골목산업’으로 정의된 10개 업종(독립서점, 베이커리, 카페, 브루어리, 제스트하우스, 갤러리, 패션, 코워킹 스페이스, 공방)은 그 분류와 의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한편으로는 혁신공간과 주체에 관한 연구들도 로컬크리에이터와 논의에 포함된다. 최근 혁신공간 논의에서는 도시를 비롯한 도시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정미애·김형주, 2017), 이들 논의와 연결하여 혁신주체로서 로컬크리에이터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첨단기술 관련 연구소, 대기업, 창업기업 및 지원기관, 생활편의시설과 같은 경제적 자산, 협력과 소통을 위한 공간과 같은 물리적 자산, 혁신주체 간 관계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자산을 갖추고 있는 공간이 새로운 유형의 혁신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의 변화는 복합적인 시각으로 기존의 자원들을 연결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창조적 집단의 가능성에 주목한다(Katz and Wagner, 2014). 로컬크리에이터는 이와 같은 혁신공간 논의에서 지역자산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혁신의 주체이자, 지역의 혁신환경을 구체화하는 창조적 인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과 생태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스마트전문화와의 연계성 또한 주목된다.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스마트전문화(smart specialization)는 로컬크리에이터가 향후 나아갈 방향성과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스마트전문화는 장소기반(place-based) 지역개발전략으로, 지역의 특성과 기술 역량에서 비롯된 경쟁우위를 강조하고, 지역산업의 연관 다양성(related variety)에 주목하여 신산업 발굴 기회를 탐색함과 동시에 글로벌 개방형 네트워크상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제활동에 집중하는 전략이다(del Castillo et al., 2012).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는 대학, 연구센터, 공공부문, 모험 자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혁신주체가 지역의 잠재력을 탐색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업가적 발견과정(entrepreneurial discovery process)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역대학 등을 고려하는 정책과제의 기획에도 의미가 크다(이종호·이철우, 2016).



지역의 발전경로는 지역의 행위자, 네트워크, 제도적 특성에 기인한 혁신시스템의 차별화(differentiation) 정도 그리고 지역산업의 특화 및 다각화된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이 가능하므로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도시에서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Foray, 2014). 실제,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지역이 경쟁력을 갖춘 부문과 문화의 융합을 통한 콘텐츠 융합형 생태계 구축, 스마트 콘텐츠 비즈니스와 같은 예술의 산업화 및 산업의 문화화 등의 발전경로를 구상할 수 있다. 특히 시장, 정부, 로컬크리에이터와 문화적 요소의 결합을 통해 창의적 인재 육성, 문화콘텐츠 관련 창업 및 기업 성장요건 조성 및 강화, 문화콘텐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전략에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자본 증진을 통한 지역재생 및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은 최근에 더욱 부각되는 추세이다(허동숙·이병민, 2019).

### 3. 로컬을 실천하는 사람들 : 로컬크리에이터의 사례

살펴본 바와 같이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적 맥락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지역에 관계된 젊은 세대들이다. 이들은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대도시를 떠나 다양한 지역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중기부 등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이 지속되며, 흥미로운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사업의 계기, 운영주체, 지역과의 관계의 깊이, 사업의 목표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제주, 군간, 강원 사례들을 로컬크리에이터와 관련된 종합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제주 <해녀의 부업>

제주도 <해녀의 부업>은 제주를 대표하는 해녀문화를 바탕으로 한다. 해녀 공간과 해녀 콘텐츠, 로컬 푸드(해산물)를 묶어 융복합체제를 시행함과 함께 주체로서의 해녀들의 스토리텔링을 최대한 살리고 전통성을 보전하며, 해산물의 가치를 전달하려 한 점이 인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관광적인 요소 이전에 지역의 이야기와 인물이 상품으로서의 음식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최근 2호점을 오픈했다.

<해녀의 부업>은 2019년 3월 제주 구좌읍 중달리에 방치됐던 오래된 어관장을 공연장 전 식당으로 개조하여 제주 해녀의 삶 등을 주제로 연극공연과 식사를 제공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탄생했다. 사전예약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연극, 해녀와의 대화, 식사 등이 진행된다. 2021년 하반기에는 실감형 콘텐츠와 소규모 코스요리로 특화한 2호점을 제주 북촌리에 오픈했다. 현재, 주말과 평일 일부 중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1회당 본질은 50명 내외, 북촌점은 14명 내외로 제한된 인원을 사전예약을 통해 신청 받아 진행한다. 프로그램별 구성과 소요시간 등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의 해녀문화에 근거하여 해녀의 삶과 음식을 소재로 콘텐츠가 운영되고 있다.

<해녀의 부업> 뿐 아니라 로컬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들은 이처럼 지역과의 관계성에 근거한다. 지역과의 이야기, 기억, 지역이기에 가능한 여러 경험들을 통해 단순한 상품의 소비가 아닌 지역에서의 가치 있는 소비를 유도한다. 그것은 공간성에 기반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에 의해 그 지역이 가진 고유의 분위기로 형성되며, 차별성을 갖는다.



[그림 3-1] <해녀의 부엌> 공연 및 식사모습



출처: 해녀의 부엌 홈페이지  
http://haenyeokitchen.com

[그림 3-2] <해녀의 부엌> 북촌점 공연모습



출처: 연구진 촬영

<해녀의 부엌>은 2022년 2월 현재 총 22명의 직원이 고용된 기업으로 성장했다. 전체 직원 중 절반인 11명이 지역인력이다. 나머지 11명은 오디션 등으로 선발한 젊은 예술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인력 중 대부분은 실제 해녀들이다. 새로운 일거리를 통한 소득의 증대와 함께 외부인들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의 활력이 생겼다. 평균 70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던 마을에 젊은 예술가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관광지와는 거리가 먼 전형적인 어촌마을에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머지 11명에 해당하는 청년예술가들은 대부분 외지로부터 유입되었다. <해녀의 부엌>은 코로나로 인해 설자리가 없는 연극배우들의 무대가 되었으며, 예술을 통한 비즈니스의 경험의 장으로서 인식되며 젊은 예술가와 전문인력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의 사례는 인문가치가 콘텐츠로 완성될 어떠한 발전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실제, 문화유산으로서의 ‘해녀’라는 콘텐츠가 지역의 유희공간과 결합하고, 공연이라는 체험요소를 더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하는 먹거리까지 이어지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모두 잡은 사례이다. 이는 지역발전이라는 자부심과 브랜드 제고에까지 연계되면서, 문화 기반의 로컬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 군산 <영화다운 프로젝트>

군산의 경우, 지역/민관협업형 로컬크리에이터의 대표적 사례이다.<sup>2)</sup> 도시의 낙후된 공간이었던 군산 영화시장 공간거점을 중심으로 한 지역관리사업(Area Management)과 로컬크리에이터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 사례이다. 이러한 기획은 지역에서 지역민이 스스로 운영하는 지역관리회사 설립과 인력양성, 지역정착 목적 등이 지자체의 의도와 적절히 합치한 결과이다. 지자체의 경우 유희공간 등 인프라와 공간을 제공하고, 민간에서는 민간기획자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정한 성과를 창출해 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민간과 지자체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 참여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유희공간 등을 중심으로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의 관리 및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이 구성되어 다수의 실험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는 군산이라는 중소도

2) 군산의 사례는 연구진의 현장조사 및 (주)지방의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다.



시 수준에서 맞춤형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기존의 다른 지역들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민간 운영자를 모집하는 방식과 다르게 기획 초기부터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군산 영화타운 프로젝트 사업의 목표 및 지향점은 3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는 동네만들기-동네 연결하기-동네 경영하기이다. 이러한 3가지 방향성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행위로 구분된다. 첫째, 동네만들기의 경우는 (1) 자산 확보 및 임대차 업무: 자산운용 및 관리, 공간운영관리 (2) 운영기반 사항 관리: 임차인에게 영업공간 제공, 센터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임대조건 조정 등의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며, 순차적으로 자산과 공간의 확보, 임대조건 등 현실적인 사항을 체크하는 과정이다. 둘째, 동네 연결하기의 경우는 (1) 지역 전체 및 개별 점포 마케팅: 브랜딩, 지속적 홍보, 이벤트 진행 (2) 이해관계자 설정 및 협업: 지역의 소상공인과 로컬크리에이터 연결, 외부자원과 지역을 연결하는 과정으로 준비시기를 거쳐서 네트워킹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이다. 셋째, 동네 경영하기는 본격적인 관리의 단계로 들어서는 것이며, (1) 투자 및 공공지원 유치: 민간투자 유치, 공공지원사업 (2) 공공재 관리: 공공 공용공간 시설 유지보수, 청소 및 방역, 치안 유지, 갈등관리 등이 해당된다.

실제 지역의 지명에서도 이미지를 따서 ‘영원히 조화로운 마을’ 영화타운, 영화동, 영화시장 프로젝트를 추진한 점은 지역의 통시적인 기억을 인정하고, 역사적인 자산을 보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문학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두고 실제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부동산 관리(Area Management)와 젊은 인재들이 수월되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획자 그룹(Local Creator) 훈련을 동시 추진한 점도 의미가 있다. 이때, Active Local Camp 형식으로 선발된 5팀의 정주를 염두에 둔 영화타운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그림 4-1] ㈜지방의 사업구조 및 목표



출처: (주)지방 제공

[그림 4-2] <DIT Festa> 현장



출처: (주)지방 제공

우선, 쇠락한 전통시장 등의 문화적 재생 통한 새로운 골목, 마을 브랜딩을 통해 과거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새로운 의미의 ‘영화타운’을 만들어 냈다. 이를 통해 개별 소규모 점포를 유치하는 한편 온·오프라인홍보를 통한 지역의 자생력 확보에 기여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과정을 지향하고 있다. 실제 광장조성, 인테리어, 가로정비 등 통한 공간 디자인 개선은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측면도 크고, 만족도를 증진시켜 주민의 삶과 괴리되지 않는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수동적 이벤트/축제 기획 운영에서 나아가 로컬크리에이터, 메이커 등 전문 기획가가 참여함으로써, 마을 축제로 확장하면서도 자급자족 DIT 라이프스타일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때의 전문가들과 전문 컨설팅 그룹의 존재는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되는데, 운영자, 상인, 관광객, 손님 등 구조의 조화 유도 및 지역 공동체 마련의 기반 마련한다는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차별적인 요소가 된다. 이를 통해 단순 여행객 대상 사업 추진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람, 경험의 연계를 통한 지역성의 축적(locality)이 가능해지면서 인문학적 의미를 크게 한다.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내용이지만, 실제 전문가 내지 적극적인 로컬크리에이터는 상인회 총무를 자임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적으로 지역에 동화되며, 단계적으로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에 기폭제가 된다.

군산의 사례와 같이 국책사업과 전문가의 매칭 등 프로젝트를 통해 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기반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시도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의 인문학적 맥락과 문화를 이해하는 수준에서의 접근의 중요성과 골목재생 및 콘텐츠로서의 중소도시 발전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했을 때 성공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중기부 로컬크리에이터사업 경우 단일 기획자 지원이 주가 되었던 반면, 군산 경우 로컬브랜드 제고와 기획자 양성에 더하여 지역의 매개자 역할 담당 및 지원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이 어우러졌다는 점이 의미를 갖는다.

### 강원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도는 정보부의 지원조직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이 특색 있게 운영되고 있어 주목된다.<sup>3)</sup> 실제로 강원도는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내에서 지역성이 강조된 여러 성공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으로서 강원도의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 위해서는 여러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강원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을 활용한 아이템과 콘텐츠의 기획자 발굴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지역 한정적 사업, 예를 들어 산이나 바다를 들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과 밀착된 콘텐츠의 강조가 지역과 개인이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이는 한편으로는 관광이나, 농산물 등 특정분야로 로컬크리에이터가 쏠리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실제 '20년 말 기준으로 150만 명이 약간 넘는 강원도 인구에 비해 여름철 관광객이 2-300만 명에서 많게는 500만 명이 넘는 상황을 살펴보자면, 지역의 여건과 한계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례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데, 주로 지역의 문화유산과 음식, 관광, 숙박업 등이 대표성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

실제 강원도 경우 취직을 하지 않고, 창업을 하는 비율이 5% 이하로 나타나는데, 이는 창업가의 상당 수가 다른 곳에 취직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기초 기술을 습득하고 창업하는 경우도 많고, 수도권으로 일정 기간 이후 이전하는 등 경로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유형별 발전 가능성을 지역에서 어떻게 포용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대학생들의 창업 경우에도 다양한 지원과 인프라 등이 지원되는 강원대 등 관내 대학의 지원프로그램 등이 많지만, 창업 이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 내 인력이 뿌리내릴 수 있는 생태계의 지원과 유기

3) 강원도의 사례는 강원창조경제센터 관계자 및 강원지역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구성했다.



적인 산학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up>4)</sup> 개인은 성공할 수 있지만, 지역의 환경과 문화, 연관 효과 등을 고려하면 지역은 오히려 쇠퇴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지역에 잔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전(移轉)의 유혹을 느끼는 입체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중요하다.

또한, 지역이 갖고 있는 일종의 패배의식도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예를 들자면, 창업의 경우에도 성공한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지역에 남는다는 생각 등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역에서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북돋는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한 이유이다. 기획자들 뿐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있어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기획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고 분위기를 조성함에 따라, 투자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앙에서 추진되는 혁신도시 등이 사업도 실제적으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로컬크리에이터를 통해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인문학적으로 고민되어야 하는 숙제와 연결된다. 실제, 강원도는 산업화 시대의 물썬이었지만,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움에 따라 지역발전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MZ세대의 탈물질주의, 개인주의, 취향 기반의 라이프 스타일, '나답게 살래' 라고 하는 취향소비의 특성 등이 맞물려지는 것이다. 이들 세대가 정체성을 찾아나가고 드러내는 것인데, 취향이 율리고 공명하는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표 1] 국내외 유형별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사례 및 시사점

구분	제주도 (스토라-콘텐츠)	군산 (역사-재생)	강원도 (가치-지원)
사례대상	'해녀의 부업' 프로젝트	영화타운/전통시장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배경	중기부 로컬크리에이터사업 선정 및 고향연고	지역의 재생	강원도 청년 창업지원, 중기부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모델 확산
주요 사업내용	해녀공간+콘텐츠+로컬푸드+음복합(공연) 체험 등	에어리어매니지먼트 지역콘텐츠 관리	로컬크리에이터지원+로컬벤처 지원사업(단계별)
주요 대상	해녀(지역주민)+방문객(관광객 및 문화향유 희망자)	지역주민/관광객, 청년 기획자	지역 내외 문화분야 창업희망자
특징	지역이야기의 발굴 및 관광상품화 지역관계 맺기	민관 협력주도 (PPP) 민간과 공동의 결합 민간청년기획자 유입을 위한 지원사업 및 도시생태계 조성	로컬크리에이터의모범적모델 ->지역벤처마킹
로컬크리에이터의 의미	지역 특유의 인문가치기회 반영 지역발전 공헌자부심	로컬전통의 보존과 재해 지역 내 창업가, 기획자, 관리자	지역문화, 자연유산, 농산물, 유휴공간 등 활용(가치변형)
주요 성과	22명 해녀(주민) 공연 로컬브랜드 제고	지역재생 성과, 관광자원화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마을만들기 및 일자리 창출	인문가치 제고 매출과 고용증가 지역 브랜드 제공 등

4) "강원대 내의 창업시설은 총칭남 등이 관심이 많고, 많은 돈이 유입되지만, 학생들이 학내에서 창업을 하고, 지원사업을 받고, 지역성을 반영한 게임 등을 만들어도 어느 순간 서울에서 투자를 받으면, 하루 아침에 옮겨가버리고 만다" (강원대 Y교수, '21, 12, 16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 4. 나오는 글

### 로컬크리에이터의 인문학적 의미

지금의 시대는 경제적으로는 뉴노멀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저성장과 경제적 불확실성의 심화, 사회 불평등의 증대, 불공정 경제 구조로 인한 불안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혁신적 경제모델이 필요한 시절이다. 또한, 문화적으로는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국민이 휴식과 여가가 있는 삶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자유와 창의성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창의수준을 제고하고, 문화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여,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적응력을 높여야 하는 시기이다(노영순, 2017).

최근의 로컬에 대한 재이해 흐름과 로컬크리에이터의 등장은 추상적이고 한정적으로 여겨져 온 특정 지역의 자원들을 ‘도시콘텐츠’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를 매력적인 도시의 새로운 콘텐츠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전문가의 출현을 단순히 문화기획자 내지, 소상공인, 혹은 예술가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이는 로컬크리에이터라는 시각으로 지역의 문화를 바탕으로 인문학적 의미를 최대한 융합적으로 살리려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 실제 걷고 기록하며 도시의 매력을 발견하고, 도시의 곳곳을 연결하여 도시가 ‘문화’라는 브랜드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로컬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sup>5)</sup> 이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구성하는 ‘로컬’의 의미가 창조적인 기획자로서의 ‘크리에이터’보다 강렬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된다. 어쩌면 인문학적으로 전주기적인 삶의 영역에서 지역의 콘텐츠를 기획한다는 점에서 소위 ‘라이프스타일/라이프사이클 크리에이터’라고 부를 것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는 도시의 일상 공간으로서 골목이 주는 인문학적 의미를 최대한 살렸다는 점에서 강조할 수 있다. 작은 동네에서 중소도시에서 이르기까지 콘텐츠로서의 도시를 발견하고 연결하는 데 주목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적용 및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이를 통해 사람들이 좀 더 쉽고 감각적으로 도시를 이해하고 소비할 수 있는 도시의 문화적 소비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로컬크리에이터라는 개인적인 기획과 성향, 특징이 기업의 활동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매개 조직이 전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문화와 인문학 기반 기획 컨설팅 분야에 전문화된 인력과 조직이 태동됨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성, 로컬리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콘텐츠의 IP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실용적인 사업모델에 적용하여 창의성을 결과로 충분히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해보자면, 지역에서 상업적인 성공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유기적인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을 기획, 성공하면서, 공공의 지원에서 독립된 자발적인 민간 중심 기업으로서의 성장가능성이 나타났고, 실제 공공예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지역에서의 자립성을 높이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성장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 실천하는 로컬을 기대하며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인식되는 ‘로컬’은 잠재력의 공간이다. 규정되고 만들어진 기존의 중심을 벗어난 새로운 나와 우리의 공간으로서 로컬은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로컬이 아닌 지

5) 어반플레이 홍주석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역으로서 바라볼 때 이 공간은 소멸직전에 놓인 생명력이 다한 대상일 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러한 불편한 진실이 이들 공간을 지역이 아닌 로컬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명칭으로 부르며 하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로컬은 우리에게 꽤 그럴듯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차별화된 지역자원과 지역고유의 문화는 로컬을 한정짓는 경계가 아닌 로컬의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낙후됨과 뒤처짐의 공간으로서 인식되었던 로컬의 공간들은 가치와 선택된 관계의 장소로서 그 의미가 재해석되고 있다. 즉, 좋은 품질을 가진 장소로서 로컬을 재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공간을 찾아 들어가 로컬을 더욱 로컬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이제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연결해 갈 것인가, 또한 더욱 다양한 ‘로컬’이라는 장소를 어떻게 확산시켜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로컬의 가치와 의미가 실제적인 우리의 일상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부과된 실천인문학의 과제이다. 지금의 로컬이 갖는 속성과 이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실제적인 로컬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생적 구조를 갖춘 청년문화의 형성, 이들의 활동의 장으로서 실제적인 창조의 장 마련 등이 종합적인 시각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전환된 지역의 맥락에서 이들 문제가 충실하게 논의되고 발현될 때, 로컬은 지속적인 실천의 장으로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x-minute city' 논의

공주교육대학교

허 동 숙

## 목차

### 01 도입

다핵분산도시 전략의 대두  
안 이달고(Ane Hidalgo) 파리시장의  
정책공약

### 02 다핵분산도시에 관한 이론

다중심성의 도시공간  
15분 도시 모델

### 03 국내·외 사례

X-minute city?  
국내·외 사례

### 04 시사점

시사점  
생각해 볼 이슈

## 도입

### 공간의 분산 경향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 Post-COVID Living & Paris Agreement
- 자동차의존형 도시와 커뮤니티 파편화를 가져왔던 그간의 도시계획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전환
- 포스트코로나(위드코로나) 시대의 더 나은 적주성(livability)과 도시의 생태·사회·경제적 회복력(resilience)에 초점을 둔 도시 만들기가 진행 중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도시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도시는 보다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의 실행과 근린(동네, neighborhood)의 역할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관점 전환
- 근린은 필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주목(Pozoukidou and Zoi, 2021)

## 도입

### 생태성 회복과 탄소중립도시 구현

- Zoning 개발 중심에서 토지이용의 혼합을 추구하는 직주근접 방식의 개발 지향
- 대중교통접근성 강화,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
  - 도보 및 자전거 이용에 편리한 도로체계 구축
  - 시내중심부 도보화 및 주요 도로를 제외한 시내의 자동차 운행속도 제한, 교통량 통제
- 개인교통수단의 공공/공용 시스템화
- 서비스 접근성 개선
  -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한 근거리 서비스 강화

## 도입



출처: Deloitte, 2021, Urban future with a purpose, p. 16.

## 도입

### 도시 미래의 12가지 트렌드

- #1. 공공 공간에 대한 그린 인프라 투자/계획
- #2. 스마트 의료 생태계, 커뮤니티 기반 돌봄 환경
- #3. 15분도시(다핵분산형 도시모델)\*\*
- #4. 모빌리티: 지능형, 지속가능성, 서비스화
- #5. 포용적 서비스와 계획
- #6. 디지털 혁신 생태계
- #7. 순환 경제와 로컬에서 생산하기(도시농업)
- #8.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빌딩, 인프라
- #9. 시민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 #10. AI를 이용한 도시 운영관리
- #11. 사이버보안과 프라이버시의 중요성
- #12. AI를 이용한 감시 및 예측 치안(잠재적 범죄활동 식별)



출처: Deloitte, 2021, Urban future with a purpose.



## ❖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의 정책공약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

2014년 4월부터 파리시장 역임, 2020년 재선에 성공  
사회당 소속으로 여권신장에 기여, 노동법 및  
남녀평등과 사회관계 분야 전문

정책공약은 "생태(Ecologie)"를 중심으로 평등, 연대성,  
근거리서비스(15분도시)에 기반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 공약 슬로건은 "모두의 파리(Paris en commun)"로, 모든 공약을 아우르는 핵심 메시지는 친환경과 생태

### 정책공약

- 도보와 자전거로 통행하는 푸른 도시 파리
- 연대(solidarité)의 도시
- 모두가 평등한 파리를 위한 약속
- 15분 도시(La ville du quart d'heure) 파리



출처: <https://www.paris.fr/pages/anne-hidalgo-2252>;  
[www.time.com](https://www.time.com)

## 다중심성(Polycentricity)의 도시공간

-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하며 규범적인 도시개발 방향(Fujita & Ogawa, 1982; Meijers, 2008; Li & Liu, 2018)
- 도시 분포의 규칙성, 계층성 및 상호연계성에 초점을 둔 접근
  - 예) 서울-수도권 다핵연계형 광역공간구조 구상(이주열·김인희, 2009)
- 도시 기능의 효율적 계획에 관한 접근
  - 대중교통망의 구축 및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고밀도의 집중 개발을 추구하고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을 장려
  - 다핵 분산이 기존의 도심 상권의 쇠퇴를 유도하는 형태는 아니며, 기존 도심은 더욱 고차활동에 집중(Halbert, 2004)
- 단일 도시중심지로 집중함에 따라 발생하는 "집적 불경제 효과"를 줄이고, 단일 도시중심지 내에서 창출되던 집적경제효과의 감소분을 중심지들 간 공유를 통해 보완하는 구조

## 다중심성(Polycentricity)의 도시공간

- 토지이용과 같은 물리적 속성만이 아니라, 공동체(커뮤니티)와 근린(동네)과 같은 비물리적 속성도 포괄(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2004: 8). 즉, 사람들 사이의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
- 페리(Clarence A. Perry)의 근린주구이론
  -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근린 내 편의성과 쾌적성을 확보하는 것이 단지 설계의 핵심
  - ✓ 자동차 교통을 주거지 내에서 배제하기 위해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수퍼블록을 제안
  - ✓ 블록 내부는 자동차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커뮤니티에 초등학교를 배치, 주거지와 초등학교를 녹도로 연결하여 자동차와 보행자를 분리
-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뉴어바니즘(New Urbanism), 압축도시(Compact City), 어반 빌리지(Urban Village) 등의 이론 관련
- 대중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고밀도의 복합적 토지이용과 보행친화적인 가로망 및 도시설계를 통해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의 이용과 보행을 유도

## 다중심성(Polycentricity)의 도시공간

- 생활권 또는 근린(neighborhood) 중심성
  - 근린은 제한된 물리적 크기, 명확한 구분, 특정한 중심이 있어 일상적 욕구를 비교적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단위
  - 이동 비용이 적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역,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 대중교통체계 구상 등에 초점
- 관계·가치 지향적 접근 추구
  - 지역 내 취약지역 및 소외계층에 대한 고려, 일정 시간/거리 단위에서 서비스 공급의 적정성·완비, 녹지공간의 형평적 배분

## 다중심성(Polycentricity)의 도시공간

- (기존)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업무 기능의 분담, 도시·주변 지역의 연계를 통한 대도시권 발전전략 차원으로 다중심의 도시 구상이 논의되었으나,  
(최근) 다핵 분산 논의는 생활권 개념과 유사하며 각 생활권 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 정비와 서비스 공급을 강조
  - 공급보다는 수요 및 거주자의 근접성, 커뮤니티 소속감 및 생태적 관점 지향
  -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한시적 도시 서비스(예. 미로형 공원, 자전거도로, 팝업스토어 등) 시행
    - ✓ 도시 재건을 위해 다양한 경제적 수단의 구제책도 중요하겠지만 근접성에 기반하여 시민의 니즈에 집중하는 정책도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경험적 결과

## 15분 도시 모델

- 카를로스 모레노(C. Moreno)의 15분 도시 모델
- Chrono-urbanism “도시의 새로운 리듬”
  - 시간에 쫓기는 삶이 아닌 여유있고 느긋한 도시, 자전거와 보행자 친화적인 도로
- Chronotopia “One building, multiple uses”
  - 사무실, 학교, 공공공간을 일과 후/주말에 주민 복지와 여가를 위해 다른 용도로 활용
-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상호작용, 시민의 참여 증진, 모든 기본적인 서비스로의 근접성  
→ 장소에 대한 애착과 연결감 증진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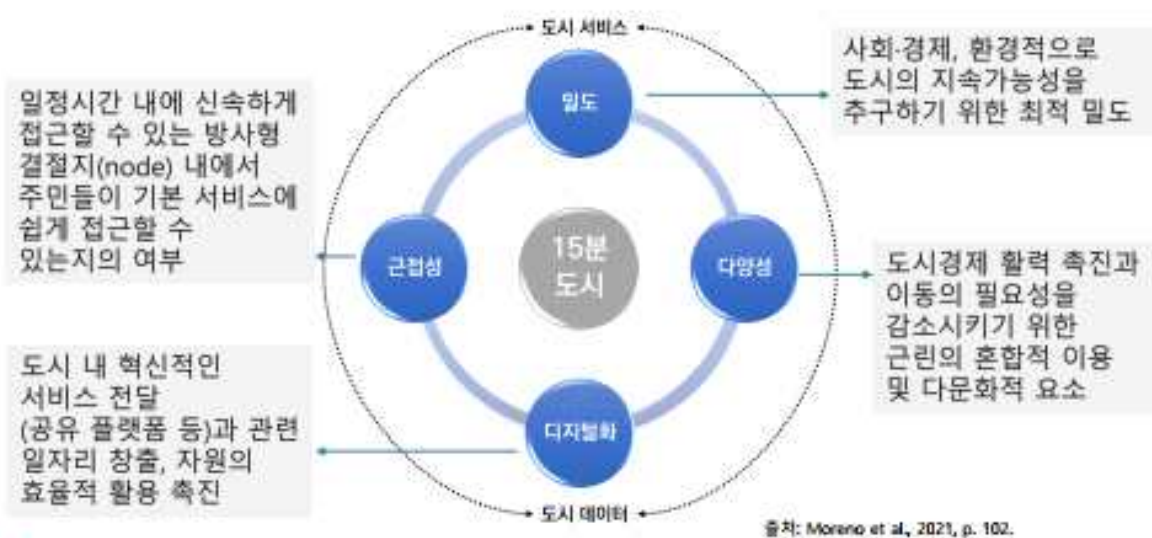
## 15분 도시 모델

- 카를로스 모레노(C. Moreno)의 15분 도시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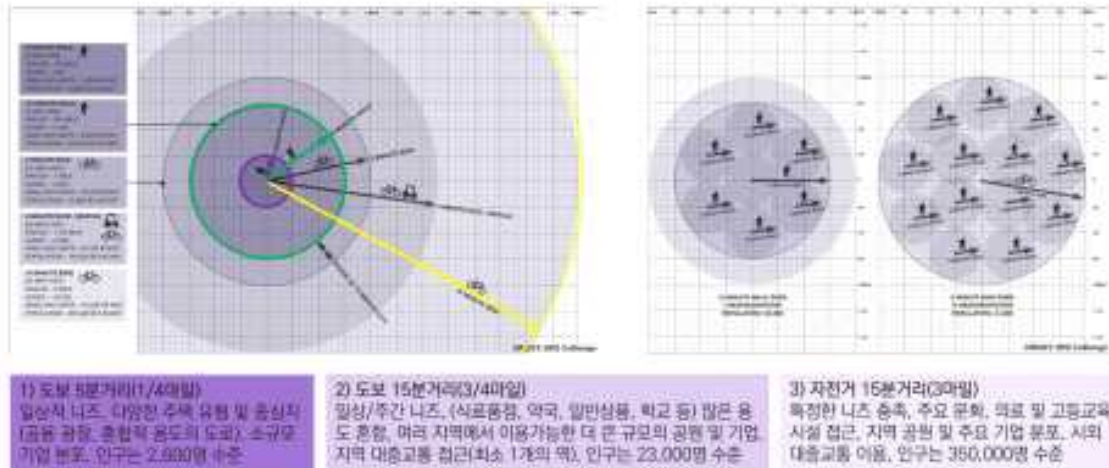
## 15분 도시 모델

- 카를로스 모레노(C. Moreno)의 15분 도시 모델





## 15분 도시 모델



출처: <https://www.cnu.org/publicsquare/2021/02/08/defining-15-minute-city>

## X-minute city?



## 다핵분산형 도시 사례:15분 도시 파리

- 도시를 15분 생활권으로 새롭게 조직, 집에서 도보(자전거)로 15분 이내에 각종 생활편의시설 및 녹색공간을 접하고, 주민 간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파리시내 20개 지구의 시설을 균형 있게 배분하되 로컬 단위의 기초 생활서비스 충족, 혼합 및 유연한 용도의 도시경관 조성

공주교대 허동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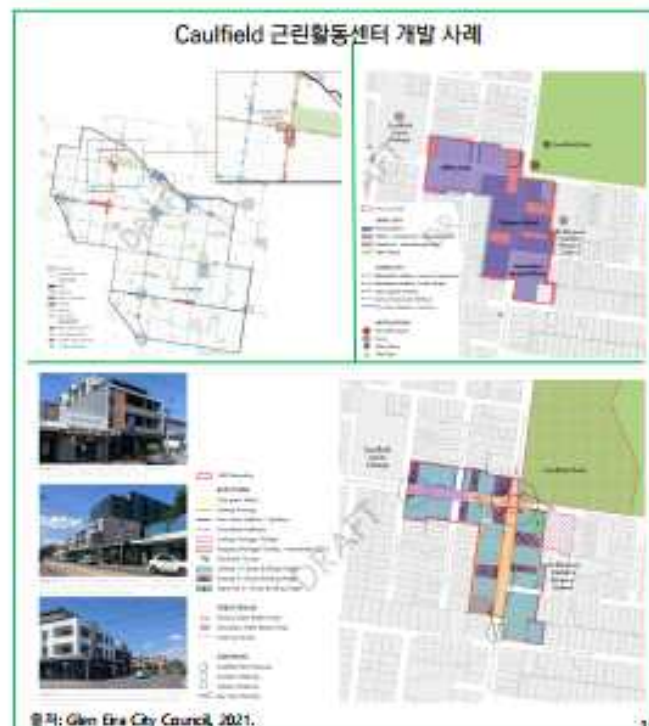


17

## 다핵분산형 도시 사례:호주 멜버른의 20분 도시

- 플랜 멜버른 2017-2050
- 도보, 자전거 또는 로컬 대중교통을 통해 20분 이동범위 내에서 일상적 니즈 충족, 건강과 웰빙 증진, 교통비용 및 혼잡 감소, 차량 탄소배출 감소 목적(Plan Melbourne, 2017)
  - 저밀도 구역 개발 지양, 다양한 용도의 혼합 개발 추진
  - 근린활동센터 계획, 특화거리, 사회적 상호작용과 커뮤니티 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

공주교대 허동숙



18



## 다핵분산형 도시 사례:스페인 슈퍼블록 모델

-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자를 위해 400m x 400m 블록 내의 도로망을 수정하는 슈퍼블록 시스템 도입
  - 슈퍼블록 내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동행이 우선권을 갖게 되며, 차선 감소 및 시속 10km/h로 제한 (O'Sullivan, 2020)
- 개인 차량의 이용률 감소, 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전환
- 소음과 열섬을 감소시키고, 레저와 지역사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양질의 공공공간 조성



## 다핵분산형 도시 사례:스웨덴 1분 도시 실험

- 스웨덴 스톡홀름 "Street Moves" 프로젝트
- 국가혁신기구(Vinnova)와 디자인 싱크탱크 ArkDes 가 계획
- 각 거리 설계는 지역주민들과 협의 결정
- 스톡홀름 프로젝트에 대해 약 70% 긍정적 (322명 조사), 각 대상지 주변의 거리 이동이 400% 가량 증가(The Guardian, 202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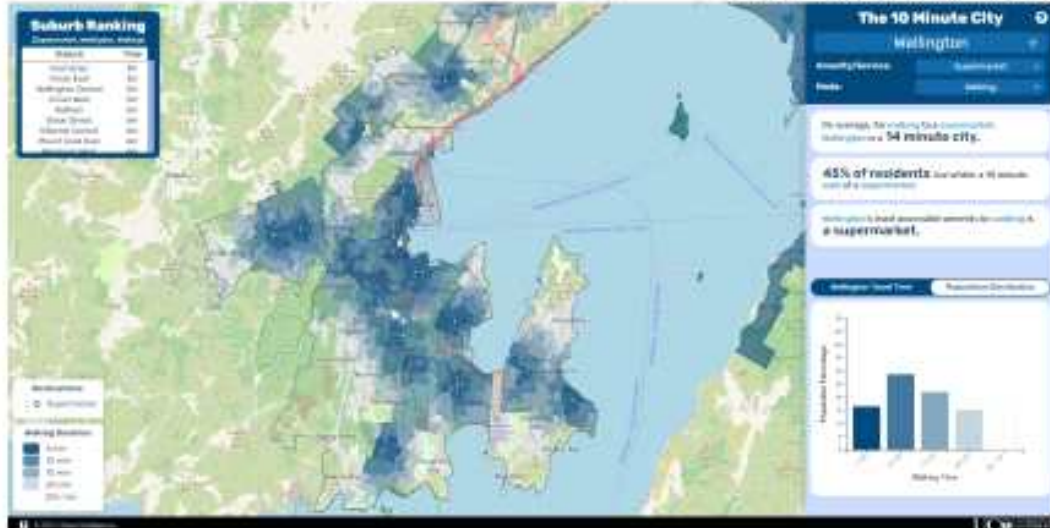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1/feb/08/how-sweden-is-taking-back-parking-spaces-to-improve-urban-living>



## 다핵분산형 도시 사례: 10분 도시 뉴질랜드

- 교육, 보건, 녹지공간/레크리에이션, 식료품, 기타 필수 서비스로의 접근성 파악
- 미래의 개발에 관한 결정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출처: <https://projects.urbanintelligence.co.nz/>



공주교대 이동숙

21

## 다핵분산형 도시 사례: 2030서울생활권계획

- 서울 전역을 5개 권역생활권(대생활권), 각 권역을 116개 지역생활권(소생활권)으로 세분화
-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이슈별 계획과 공간관리지침 등을 확정(2018.03.08.)
  - ✓ 7개 이슈: 도시공간, 산업·일자리, 주거정비, 교통, 환경·안전, 역사·문화·관광, 복지·교육
- 시설 공급 중심의 생활인프라 계획에 가까워 서비스 취약지역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으나 지역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송혜승·엄선용, 2021)

2030서울물류



2030서울생활권 계획



출처: 서울정보소통공간 홈페이지

공주교대 이동숙

22



## 시사점

- x-minute city 논의는 도시마다 구체적인 시간은 다르지만, 도시 디자인 사고와 능동적 교통수단을 통한 이웃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핵심 원칙이 유사
  - 자동차 중심 접근방식에서 초근접성(hyper-proximity)에 초점을 맞춘 접근
  - 개발과 경쟁 위주의 도시에서 **공동체 연대와 협력으로의 도시 패러다임의 전환**
    - ✓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도시 회복과 재건을 고려하며, 15분 도시모델은 평등주의적 관점을 통해 도시의 경제적 반등을 가져오는 도시 개발 모델로 주목됨(C40 Cities: Mayors' Agenda for a Green and Just Recovery)
- 도시 전체 차원에서 **자원 배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 제공
  - 최적의 자원배분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 도시 모델은 로컬 단위의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토지이용과 교통 계획에 대해 관심

## 시사점

- 도시의 글로벌 연계 강조에서 **로컬 지향의 도시**로의 전환
- 근린 생활권 범위에서 **복합 공간 조성**과 **근거리 서비스의 적정 공급**을 도모하고, 주민의 로컬 지식(local knowledge)을 결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도시의 회복력 증대
  - 교육문화생활 복합시설(예, 동탄중앙이음터), 원격근무·코워킹 스페이스 등은 근린 내 기업의 공동입지와 업무공간의 재배치 실행 가능성
  - 여러 로컬 서비스의 운영 시간과 공간 사용 자체에 대한 유연적/복합적 접근
- **과학기술,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적 사고 구현**
  - ICT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의 에너지 수요, 교통 문제, 주거 및 보건과 같은 서비스의 사회적 불평등 해소, 이와 더불어 주민의 경제적 지위 개선 및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반성적 성찰과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한 인문학과 사회과학적 사고 결합
  - 시민참여를 통한 집합적 프로세스와 상향식 동학

## 생각해 볼 이슈

- x-minute 근린이라고 할 때 'x'를 어떻게 정량화 할 것인가?
- 임계치의 인구(가구)와 시장의 도달 범위를 고려하여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를 유지하는 방안
-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원칙에 기초하여 기능을 재분배하는 문제, 도시 전체 차원에서 자원 배분의 계층적 질서 고려
- 근거리서비스 도시 구현이 모두를 만족시키는가?  
예) Perris(CA)는 거주자의 40%가 모든 편의시설에서 20분 이내에 거주한다는 것은 좋지만, 10%가 넘는 거주자가 75분 이상 떨어진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편의시설 빈곤계층에 속함  
(<https://www.forbes.com/>)
- 도시 전체의 위계질서를 유지하면서 하위 지자체 단위로 권한 및 공공기능을 이양하는 방안
- 특정 지역으로의 높은 접근성과 초근접(hyper-proximity) 중심지의 창출이 자산가치 상승을 유발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야기하거나, 저소득 가구의 주거지가 주변부로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Weng et al., 2019) 등



## 시민 중심의 성남형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상화개발&연구소 대표소장 채 지 민

### Contents

#### I 서론

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II 국내외 공유경제 현황 및 사례 분석

01. 공유경제 개념 및 등장배경
02. 국내외 공유경제 정책과 추진  
현황 분석
03. 국내외 공유경제 분야별 우수  
사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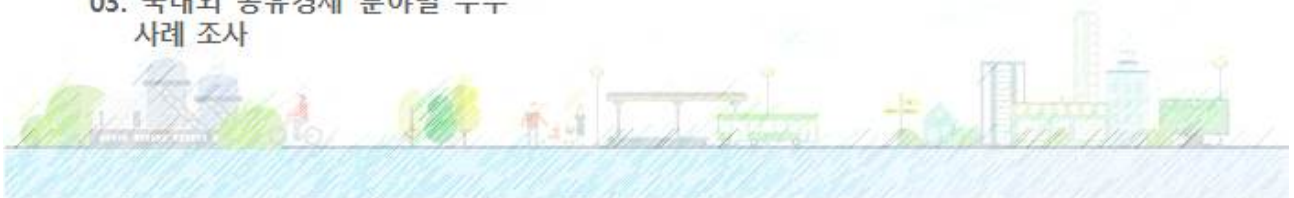
#### III 성남시 공유경제 실태조사

01. 성남시 공유경제 현황 및 특성
02. 성남시민 의견 조사
03. 공유경제 SWOT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IV 시민 중심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01. 성남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향
0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업  
발굴

#### V 결론



## I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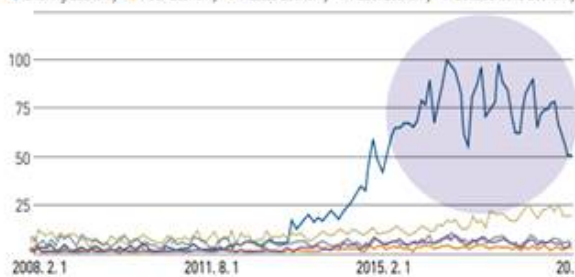
· 초연결·초지능 융합시대인 4차 산업혁명에서 **공유경제**가 새로운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음

· 최근 민간소비 중심에서 지역사회 유희자원의 사회적 활용과 효과적 이용을 통해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도

반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이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및 지원체계의 중요성 강조

● Sharing Economy ● Peer Economy ● Access Economy ● Asset Economy ● Collaborative Economy



출처) google trend



2

## I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 성남시는 경기도 내 공유경제 관련 조례제정이 타 지자체에 비해 일찍 제정되었으나, 시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및 활성화 전략**은 미흡한 상태임

· 또한 지자체별로 공유경제 관련 정책 목적 및 추진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 및 전략의 설정**이 필요한 실정임

· 성남시는 행정 및 민간자원에 대한 낭비를 줄이고, 다양한 시민활동과 경제활동을 유도해 내는 등의 **공유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성남시만의 차별화된 공유경제 활성화 전략 필요

3



## I 서론

### 연구의 필요성

- 정부의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 서비스 정책 추진에 발맞춰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유 사업 추진**이 필요
- 공유문화가 시민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체계적인 실행방안** 마련 필요성 대두
- 공유경제 특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성남형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및 사업 발굴이 필요



성남시  
공유경제 활성화

대상지역



남시민 중심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 성남시 실정에 맞는 공유경제 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4

## I 서론

###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 II 국내외 공유경제 현황 및 사례 분석

### 공유경제의 등장배경

사회적 배경	경제적 배경	기술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적, 합리적 소비</li> <li>• 대안적 소비</li> <li>• 주체적 소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성적 소비</li> <li>• 공유 지향</li> <li>• 장기 저성장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 디지털화</li> <li>• 플랫폼 기술</li> </ul>

### 공유경제의 개념과 특징

- 유무형의 유희자산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타인과 교환 및 공유 이용함으로써 자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제고하는 시스템
- 기존 시장경제 시스템과 대비하여 이용 또는 접근, 가치 극대화, 온라인 플랫폼, 협력적 소비, 자원의 순환적 이용, 친환경성 등의 특징
- 비즈니스적 측면에서는 온라인 기반 개방형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으로 이해되는 경향
- 유사한 개념으로 협업경제, 온디맨드경제, 직경제, 프리랜스경제, 동료경제, 클라우드경제, 플랫폼경제, 디

6

## II 국내외 공유경제 현황분석

### 국내외 공유경제 현황

#### 해외 공유경제 공공부문 선진 사례

##### 영국 : 부동산 협동조합

- 부동산 협동조합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임차인의 형태
- 협동조합 자체가 조합원의 주택을 구매한 다음 다른 협동조합 조합원에게 임대하는 방식의 공유경제 프로그램
- 주택 구입시 주택 소유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 미국 : 지역적 책임성을 통한 공유경제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쓰레기 매립지 전환의 방안으로 퇴비활용
- 퇴비활용을 위해 커뮤니티 구성 조직 및 법안 도입
- 캘리포니아의 healthy soils program



##### 일본 : 스포츠 에이전시 산업의 성장을 위한 공유경제 프로그램

- 스포츠 에이전시 산업의 성장을 위한 공유경제 프로그램
- 지역의 스포츠 지도자와 스포츠 시설 연계를 통한

##### 일본 : 공유생태 프로그램

- 에너지 절약 가전, 에너지 절약 주택, 친환경 저탄소, 물류, 라이프 스타일 등의 중점 5개 분야의 실무 작업그룹을 통해 프로그램 추진
- 이동수단 점유율, 공간 점유율 등의 지구온난화 관련 정책

##### 일본 : 패션렌탈 서비스

- 반품된 패션소품 등을 가나가와 현의 유통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대여해 주는 공유경제 플랫폼
- 월 6,800엔 정액제로 패션소



7

## II 국내외 공유경제 현황분석

### 국내 공유경제 현황

#### 국내 공유경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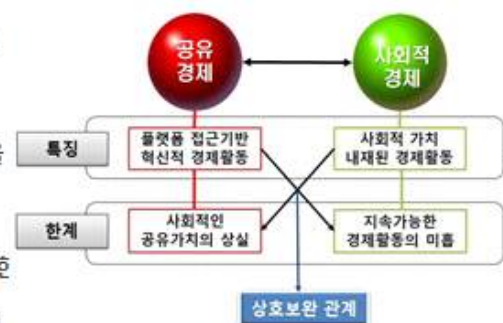
- 공유경제 정책 추진은 **서울시**를 시작으로 광역지자체인 경기, 부산, 광주 지역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에서도 공유경제 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
- 도시형, 농촌형, 도서형** 등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도입 중
- 또한 중앙정부의 틀 안에서 광역지방자치 단위에서는 공유 경제를 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에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 지자체 단위에서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인 조례제정**을 통해 공유경제 정책 추진 및 활성화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 공유경제 조례 지정 및 활성화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



## II 국내외 공유경제 현황 및 사례 분석

### 공유경제와 사회적 경제 그리고 정책추진 필요성

- 공유경제는 공공성, 개방성, 접근성, 양방향성, 확장성, 신뢰성,
- 공유경제와 사회적 경제 모두 사회적 가치를 중시
- 그러나 사회적 경제는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등 경제 시스템을 공유경제는 생산된 자원의 협력적 소비 및 이용을 중시
- 정책의 초점은 플랫폼 기반 수익창출과 시민의 공유자산에 대한 상호작용의 확대 → 도시 내 사회혁신과 지역사회 수요충족에



자료 : 중남연구원(2020), 중남 공유경제의 활성화방안연구



## II 국내외 공유경제 현황분석

### 국내 공유경제 분야별 추진현황



10

## II 국내외 공유경제 현황분석

### 국내외 공유경제 분야별 우수 사례 조사

#### (해외) 유럽의 숙박공유 협동조합



- 페어비앤비 협동조합은 에어비앤비와 달리 2018년 10월 협동조합으로 편입돼 지역주민의 이탈을 막기 위해 '한 주인은 한 주택'만 갖도록 하고, 수익의 15%를 주인과 여행자가 선택한 사회사업에 투자해 지속가능한 여행의 촉진을
- **페어비앤비는 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지역의 협동조합 네트워크와 협력하며,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커뮤니티 가든과 같은 지역 프로젝트에 기부
- 각 거래마다 15%의 수수료를 받고 수익의 50%는 사회사업에 투입되며 나머지 절반은 자금 운영에 사용되는 구조

#### (국내) 숙박공유 '위홈'

- 위홈은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으로 지정.
- 국내에서 내외국인 모두에게 합법적인 공유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
- 서울 지하철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고 경제적인 숙소를 마련
-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내국인 대상으로 도시 민박 허가
- 안심자가격리 숙소 및 장기 외래환자 및 가족을 위



₩KRW 90,000 ₩KRW 269,728



## II 국내외 공유경제 현황분석

### 국내외 공유경제 분야별 우수 사례 조사

#### (해외) 스페인 친환경 에너지 협동조합 '숨 모빌리티'

- 에어비앤비에 대항하여 발생한 수익을 여행지의 커뮤니티를 위해 환원하는 플랫폼협동조합
- 친환경 전기 차량을 공유하는 카 셰어링 서비스
  - 약 1,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서비스를 사용
- 시민들 스스로 운영하는 플랫폼 협동조합 구조이며, 발생한 수익은 플랫폼 운영과 지역사회로 환원
- 상향식 의견수렴과 자원 마련을 통해 확장하는 구조
-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독점되는 것이 아닌, 플랫폼
- 서비스 지역의 확대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조합원에 환원되는 구조



차량 예약 App 사용개요 : Som Mobilitat



#### (국내) 민간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서클'

-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수요응답형 서비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사각지대에 운행
- 11인승 대형승합차를 개조해 만든 '콜 버스' 개념의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로 운전자를 제외하고 최대 10명까지 탑승 가능
- 세종시, 파주 운정신도시, 교하지구 운영 중
- 정 경로형 대중교통과 달리, 차량이 모든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필요한 정류장에만 정차하는 지

#### (국내) 공공형 100원 택시사업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최소 요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 민간기업-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운영
- ICT 기술과 결합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 국민들의 편의와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대표적으로 충청남도 아산시의 '마중택시', 서천군의 '희망택시' 등
- 전국 79개 군에서 공공형 택시 사업 확대

12

## II 국내외 공유경제 현황분석

### 국내외 공유경제 분야별 우수 사례 조사 : 공간

#### (국내) 옥상을 활용한 도심공유정원 '녹노타인워크넷'

- 정원에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비용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서울 도심에 1000m<sup>2</sup> 규모 '공유정원' 조성
- 여러 사람이 모여 재화나 서비스를 나눠 쓰는 공유경제 모델을 환경 서비스에 적용
- 도시에서 쾌적한 환경을 누리고자 하는 수요를 위한 서비스를 시작



녹노타인워크넷 : 명동 건물 옥상정원

#### (국내) 빈집활용을 통한 게스트하우스 '편(m)한 노리터'

-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에 위치한 빈집 3곳을 게스트하우스로 고쳐 평일에는 지역주민들 쉼터, 주말에는 관광객 휴식장소로 제공
- 지역의 다문화 학생을 위한 도서관,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득창출하는 마을카페, 마을 공용창고로 활용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위치한 빈집 개조

13

## II 국내외 공유경제 현황분석

국내외 공유경제 분야별 우수 사례 조사 : 플랫폼

### (해외) 영국 유헤 물류공간 활용 'Stowga'

- ODW(On-Demand Warehousing, 주문형 창고 모델)
- 물류센터나 물류창고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
-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Stowga'는 기존 물류창고 내 남는 공간을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공유하거나 나아가 공간 자체를 사고 파는 플랫폼을 제공



### (국내) 제주도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조업체 등의 물품 보관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에서 사용자와 창고주를 이어주는 창고 공유서비스를 제공
- 도내 제조업체 대부분은 사업장이 협소해 물품 보관 공간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
- 창고주는 유헤창고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사용자는 물품 보관관리의



14

## II 국내외 공유경제 현황분석

국내외 공유경제 분야별 우수 사례 조사 : 디지털전환(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 (해외) 이스라엘 LaZooz 블록체인형 우버

- 2014년 설립된 이스라엘 스타트업으로 블록체인 기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
- 블록체인형 Uber라고도 불리우나 개인차량을 공유
- 교통 혼잡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부의 공정한 분배 원칙
- 우버와 같이 중앙 통제 및 관리되던 시스템에서 벗

### (해외) SOLARCOIN 블록체인형 태양광 서비스

- 업 연결되기 때문에 공개자가 매제되어 운전자와 탑승객 윈-윈 방식
- 전력거래와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구축
- 2014년 NGO 단체에서 만든 블록체인 기반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 개념의 가상화폐
-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의하 이세



### (국내) MVL 파운데이션 모빌리티 서비스

- 2014년 싱가포르에 설립한 블록체인 기반 차량 호출 및 공유 서비스
- 플랫폼 경제의 독점화 및 보완할 수 있는 대안 경제모델
- MVL파운데이션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기록/보관되는 차량의 거래기록, 주행기록, 사고기록, 정비 기록, 운전습관 기록 등의 핵심 정보를 네트워크에 기록하고 운전기사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앞선 문제의 해결과 운전을 통한 직접적 보상, 승객이 운전자를 평가에 참여
- 직접적 보상을 통한 강화, 플랫폼 Lock-in효과



15





### III 성남시 공유경제 실태조사

#### 성남시 공유경제 사업 현황

담당부서	사업내용	비고	담당부서	사업내용	비고
성남시 지역경제과	성남시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 공모		성남시 교통기획과	“성남형 버스 운송경제”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공유 교통 서비스 확대	
성남시 지역경제과	공유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유경제 강좌 참여자 모집		성남시 교통문화체육과	교육나눔운동 지원사업	
성남시 지역경제과	성남시 “공유” 단체·기업, 촉진 사업 공모	3년간 공유성남비 사용권 부여, 최대 1000만원 사업비 지원	성남시 주차지원과	시민과 함께하는 주차나눔 공유사업 비어있는 유휴주차공간을 이웃과 나눠쓰는 주차장 지원	
성남시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채용센터 등 공공복합시설 조성	시는 국토부가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정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734억원 중 100억원을 확보	성남시 스마트도시과	“지능형 교통체계(ITS) 고도화” 사업 스마트 주차공유, 주요 응달형 서클 버스	2025년까지 추진
성남시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보육 공간, 마을공동체 공간, 청년 대상 커뮤니티실, 공유주방, 공동이용시설	2028년 말까지 수정구 추진 1동 2040번지 일원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휠체어, 전동침대 등의 복지용구를 임사이클링해 무상 대여	2021년 중 원구 은행동 제9공영주차장 내에 설치·개소
성남시 지역경제과	성남시 공유경제 포럼		성남시 복지정책과	“함께해요! 우리동네 같이꾸리” 사업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각 2개팀씩, 총 6개팀을 운영	
성남시 지역경제과	찾아가는 공유경제 온라인 릴레이 특강 안내		농업기술센터	1개마을 1개 닷밭 가꾸기	
성남시 지역경제과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사업비 700만원, 최대 35백만원 이내			
성남시 지역경제과	-자원 공유와 협업을 통해 원가절감 및 수익구조 강화 등 성장 촉진				
성남시 지역경제과	공유성남 홈페이지 운영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성남시 교통약자를 위한 “상생형 공공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 플랫폼” 개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국토교통 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확보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성남시 빅데이터 센터 운영 및 성남시데이터거점소 구축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6,000GB의 자율주행 및 CCTV 데이터 총 350만점의 국·공데이터				

### III 성남시 공유경제 실태조사

#### 성남시 공유경제 시민의식 설문조사 개요

- 조사목적 : 공유경제에 대한 인지도·시민의식 조사 및 의견 수렴
- 조사대상 : 성남시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 조사방법 : 공유공간 대면조사 및 온라인 조사(지역/성별 균등 조사)
- 조사기간 : 2022. 8. 7. ~ 8. 11.



구분	내용
연구대상	대면조사 168명, 온라인 유효 표본 112명
공유경제 인지도	- 공유경제 인지 및 인식/경험 - 공유경제의 개인적/경제적 영향
공유경제 서비스 만족도	-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 이유와 만족도 - 공유경제 향후 이용계획
성남시 공유경제 경험 및 평가	- 성남시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 경험 - 공유성남 홈페이지 인지도 및 희망 서비스 - 성남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대한 인식

구분	성별	목표	유효 표본
수원구/중원구	남	35	34
	여	35	69
분당구 (정자동, 판교동 제외)	남	35	35
	여	35	33
분당구 정자, 판교	남	35	23
	여	35	26
합계		210	220

19



### Ⅲ 성남시 공유경제 실태조사

#### 성남시민의 공유경제 인지도

- 공유경제 인지 비율은 45.9%로 낮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개선될 여지가 큼
- 분당 지역의 인지도는 60.3%인데 반해 수정·중원구의 경우 34%에 그쳐 지역별 격차가 존재
- 연령대별로도 공유경제 인지 여부가 큰 차이를 드러냈는데, 18~29세에서 72.1%로 높게 나타났으나, 40세 이상 연령대의 공유경제 인지 비율은 30%대에 머뭄
- 성남시민의 공유경제 경험자 비율은 52.3%로 나타났다으며, 경험한 공유경제 항목은 '물품 공유'가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공유경제의 효용

- 성남시민의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 측면에 집중
- 공유경제에 대한 평가로 62.3%가 '합리적 경제활동'을 선택
- 공유경제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공유경제를 경험한 경우(85.2%)가 그렇지 않은 경우(34.3%) 보다 높게 나타남
- 영향요인은 '불필요한 소비 감소'가 26.3%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아,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용이 재확인됨
- 공유경제 이용 동기에서도 '저렴한 비용'이 51.3%로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이용 의향도 '비용 절감'과 '소득 향상'이 85.4%를 차지함
- 공유경제의 사회적 영향에서 '불필요한 제품 생

20

### Ⅲ 성남시 공유경제 실태조사

#### 공유경제 경험에 대한 평가

- 성남시민의 공유경제 경험 만족도는 긍정적인 응답이 65.2%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
- 불만족 요인으로는 '정보 부족'이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기업과 시차원의 노력이 필요
- 반면 공유경제 서비스 추천 의향은 93%로 높게 나타나 성남시민의 공유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 가능
- 공유경제 추천/비추천 이유는 모두 경제적 측면이 1순위로 꼽혀 공유경제 서비스의 경쟁력이 이용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에 있음이 확인됨

#### 성남시 공유경제(메타버스 플랫폼 - 홍보전략)

- 성남시민의 공유경제 경험자 비율은 52.3%로 나타난 반면, 성남시 내 공유경제 이용 경험자 비율은 18.6%로 크게 하락
- 이는 이용 희망 공유경제 서비스 미스매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분석될 수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홍보 부족을 지목할 수 있음
- 실제로 성남시의 대표적인 공유경제 홍보 채널이라 할 수 있는 '공유성남' 홈페이지 인지도는 17.5%로 낮게 나타남
- 시민들이 공유성남에 기대하는 서비스도 '공유 서비스 소개'가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대한 인식은 공유경제 유경험자와 미경험자 간의 차이가 나

21

### Ⅲ 성남시 공유경제 실태조사

#### 공유경제 SWOT 분석 및 시사점 도출



22

### Ⅳ 시민 중심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공유경제 효과 및 정책 방향\*사회적 효과

- 성남시의 공유경제 시스템 작동을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 성남시민의 공동체성 제고 및 정체성 확립 통한 자부심 고취
- 미래를 대비하는 경기도 및 전국 공유경제 리더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 \*경제.산업적 효과

- 공유경제 연관분야 육성 및 인적, 물적 네트워크의 구축
- 지역 공유경제 및 사회적 경제 관련 주체들의 자부심 고취와 매출 등 부가가치로 인한 지역 활성화
- 관련 공유경제 산업 성장으로 경제적 효과 발생

#### \*문화.환경적 효과

- 일상적 삶의 향유와 자원의 활용 통한 성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 증진
- 국제네트워크 속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을 수용하는 포용도시로서의 시민의 자질 육성
-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한 창의적 미래인재의 취창업 등 기회제공 등 통한 육성 기반 제공

- 공유경제를 통한 **지역문제의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

- 공공에 의한 공유경제 사업모델의 **지속가능성 확보** → 공공자산의 **플랫폼화**를 통한 비용의 사회화 + 다양한 **사업주체**의 참여 + 시민

참여를 통한 창출된 **가치의 공유** 확대

- 공공-기업-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현시적 거버넌스** 기반 사업 기회 및 추진

23



## IV 시민 중심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업 발굴

#### '성남의료비용 공유 커뮤니티' 운영 (가칭)

- 성남시민 대상 비영리 사업으로 '의료비용 공유 커뮤니티' 제안 (가칭, 성남의료비용 공유 커뮤니티-SMSC)
- [배경 및 필요성]**
- 의료 관련 도움 필요시 회원끼리 지원 및 정보공유, 서비스, 네트워크 등 기존 의료보험 등 사각지대 보완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선의 의료결정 지원 정보서비스 제공(과잉진
- [사업내용]**
- 협동조합 형태 운영. 지역별 커뮤니티 회원 비용 납부. 성남 시 매칭 보조 형태(일종의 계). 메타버스 등 연계 확장 통해 성남시 서비스 제안 및 플랫폼의 마련 통한 모바일 /비대면 서비스의 제공. BM 추가 발굴 등 통해 공유경제 모델과 기
- [기대효과]**
- 메타버스 플랫폼 등 활용 관련 기술 발전 및 연관서비스 확장 및 적정기술 관련 기업 등 벤처 창업 및 정보공유 및 서비스 모델 확대. 민-관 네트워크 가능성 제시 예) 중앙대 광명 병원 경우 AI 플랫폼 기업과 자체 플랫폼 개발 및 메타버스 피탈(Metaversepital) 구축. AI분석기술 기반 의료 메타버스 기업 벤처 창업 등

#### (스타트업 사례) 에어비앤비형 병실 도입 (영국)

- 무상의료 실시 영국 경우 고질적인 병실 부족 문제
- '16년 기준 장기입원 40% 증가 및 매년 약 8,000명이 적절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영국 스타트업 'Care Rooms'은 잉글랜드지역 국가의료시스템(NHS England)과 협업체 공유경제형 병실 도입을 제안함.
- 'Care Rooms'의 에어비앤비형 병실은 장기입원환자가 병원 치료 후에 머물며 호스트(Host)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임. 호스트는 인터뷰를 통해 선정되고, 신분 확인과 식품 위생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택 내 빈 방이 병실로 쓰이기 적합한지 현장 검사도 받게 됨.
- 선정된 호스트는 병원 치료를 받고 막 퇴원한 환자들에게 자택의 빈 방을 병실로 제공하고, NHS는 필요할 경우 병실에 의료기기 등을 지원하며, 환자들은 호스트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해당 지역의 담당 의사나 간호사를 호출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음
- 현지 해당 기업은 NHS와 협업체 영국 Essex지역에 기술적인 발전 및 온라인



24

## IV 시민 중심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업 발굴

#### 경기도-성남 GS 공유대학(가칭)

- [배경 및 필요성]**
-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혁신적인 지역생태계 구축
- 성남시 내 전략 및 육성산업과 관련된 지역 인재 부족
- [사업내용]**
- 공유대학을 통한 성남시 내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 수요 인재를 위한 맞춤형 교육시스템 플랫폼 제공
- [기대효과]**
- 지역 기업의 취직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고용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기업, 지역 모두를 위한 상생일자리 조성

공유대학 입학 3-4학년	졸업생
스마트 제조 ICT, SW 반도체 콘텐츠 등 분야	공유대학 학위 수여
공유대학 이론 + 실습(관내 기업)	관내 기업 취업

#### 성공사례 : USG 공유대학(출산·경남 지역혁신 플랫폼)

- 온라인 기반 융합 전공 및 오프라인 실습 및 현장교육 : 6개 융합전공
- 지역 기업 취직의 목표 : 대학의 우수한 자원들을 공유하여 지역 기업체가 원하는 대학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에 취직시키는 것을 목표
- 기술연구개발을 담당하는 5개 핵심분야 교육
- 다양한 학생지원제도 : 혁신인재지원금 지급, USG Pass Pay(대학 간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https://usg.ac.kr/>

25

## IV 시민 중심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업 발굴

#### 성남형 블록체인기반의 공유경제모델 제시

중개기관의 배제로 인해 실시간 직접적 가치 교환 가능  
[배경 및 필요성]

- 기존의 중앙 집중형 구조의 공유경제의 한계를 벗어나 탈 중앙화 된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성남시 공공행정부분 등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혁신을 견인
- 공유경제의 자원의 독점적 소유에서 벗어나 개인 간

[사업내용]

- 수정.중원구는 주차장 공유 부문(30.5% 1순위), 분당구는 차량 및 이동공유 부문(22.1%, 1순위), 판교정자지역은 물품공유(21.4%, 1순위) 부문이 희망을 원하는 공유경제 분야로 나타나 지역별 맞춤형 타겟팅을 통해 블록체인기반의 공유경제

[기대효과]

- 기존 공유경제의 한계를 개인 내 개인 거래를 용이하게 만들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간 및 중간 수수료 등의 금전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 진정한 공유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 (사례) 이스라엘 LaZooz 블록체인형 우버

- 2014년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커뮤니티 소유의 분산형 교통 플랫폼
- 블록체인형 Uber라고도 불리우나 개인차량을 공유
-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자, 사용자, 후원자에게 동등하게 공유 보상 메커니즘 적용
- 교통 혼잡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부의 공정한 분배를 우버와 같이 중앙 통제 및 관리되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블록 체인 기술을 통해 운전자와 탑승객이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중개기관 배제되는 오픈TOL 타스캐



26

## IV 시민 중심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업 발굴

#### '성남 기술창업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

디지털기반 도시관리 혁신모델로서 공공데이터 도시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술창업과 혁신적 도시관리 모색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성남시는 '메타버스 특별시' 선언을 통해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현을 추진 중
- 기술혁명(디지털화)과 문화변동(공유경제와 스타트업)에 의해 촉발된 혁신적 도시관리 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내용]

- 성남시가 관리하는 공공 도시서비스 데이터(인구, 모빌리티, 교통, 복지, 주택 등)를 공공데이터 플랫폼에 공개
- 3~4D 웹 맵 응용 플랫폼을 구현하여 다양한 주체들(도시계획, 전문가, 민간기업 등)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당면한 도시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주거적으로 3D 성남 해커톤을 통해 개발자 참여와 네트워킹을 강화 + 창업지원과 연계하여 기술창업 지원
- 디지털 기반 도시관리 혁신모델의 구현
- 도시공간정책과 기술산업정책의 융합을 통한 창업혁신모델

#### 성공 사례 : Mapgets Application Platform in Oulu

- 공공 및 민간 도시 서비스 공급 활성화와 개인서비스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개방형 가상 플랫폼(3D 도시모델) 구축
-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식, 디지털화와 앱 개발의 활성화
- 시는 자신의 공공 데이터를 기술창업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에 개방하고, 앱 개발자는 이를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서비스와 더 나아가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혁신




27



## IV 결 론

### 연구 시사점

- 성남시 공유자원 현황분석 결과, 회의실, 주차장, 강당 등 **하드웨어 측면의 공유공간이 집중**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주차장 등의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도 창업 및 협업공간, 문화활동을 촉진하는 공간 등의 공유공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남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드웨어 측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과의 연결**이 필요하며, 공간과 연결할 수 있는 공유 촉진 프로그램 도입, 다른 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로 통한 일자리창출, 지역 재생 등의 목적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타 지자체에 비해 '공유성남'이라는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에 따른 **홍보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시민의식조사를 통해 성남시민이 필요한 공유자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필요 
- 성남시 관련 기관과의 **거버넌스 통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운영방안** 마련이 시급함 : **공유경제 생태계 구축**
- 성남시 주부 무처별로 공유관련 사업들의 연계 방안  
(공유경제 핵심부서인 지역경제과와의 연계 가능사업 발굴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방안)
- 성남시 주차나눔공유사업추진 (한국폴리텍대학성남캠퍼스-분당현대벤처빌- 성남시) 등과 같은 **지역연계 협력체계 구축사업 발굴**

28

## IV 결 론

### 성남시 공유경제 조례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 [공유경제 촉진]

-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신용보증 지원 가능 조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

#### [공유경제 지원센터]

- 성남시 조례 11조에 공유경제 연구·분석 및 평가,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주민 교육·홍보 등이 명시되어 있음.

#### [위원회 역할]

- 서울특별시 조례에 “공유경제 제도 개선 자문단 운영”

→ 기존 법·제도와 상충되는 내용을 개선하고, 공유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

->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포괄적인 행정 및 금융 지원 제도가 필요

-> 공유경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조직**

29



**감 사 합 니 다**

## **세션 6**

###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와 지역의 발전**

# 머신러닝을 활용한 하향취업의 결정요인 분석: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sup>1)</sup>

경 윤 영<sup>2)</sup> · 이 영 석<sup>3)</sup> · 이태현<sup>4)</sup> · 신범철<sup>5)</sup>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머신러닝의 랜덤포레스트 기법을 사용하여 하향취업을 예측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분석을 위해 청년 패널조사(YP2007) 5차부터 12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랜덤포레스트 분석에서 인적특성, 직업속성, 구직활동 경험, 자아 존중감 등 84개의 예측인자가 사용되었다. 추정 결과, 정확도, 민감도 및 특이도가 모두 94%, 88%, 98.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 직장만족도, 현 직장 소재, 구직애로, 취업정보경로가 하향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요인인 자아존중감 변수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률효과 로지스틱 회귀결과를 보면 교육수준 기준과 기술수준 기준 하향취업자 모형에서 가구총소득, 직업훈련 경험여부, 회사 규모, 회사 소재지, 월평균 임금, 정규직 여부, 산업 유형, 직업 유형, 자아존중감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하향취업의 확률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기에 청소년기에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및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을 높여야 하는 교육대상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 되어야함을 의미한다.

- 주제어: 하향취업, 자아존중감, 랜덤포레스트

1) 본 논문은 2020년도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2020년10월 6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2) 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졸업(kyyoung0601@gmail.com)

3) 제2저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kkjj066@krivet.re.kr)

4) 제2저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teahyunlee@keis.or.kr)

5) 교신저자,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bccin@kgu.ac.kr)



## I. 서 론

하향취업은 인적자본의 비효율적 활용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하향취업자의 낮은 직무만족도와 높은 임금손실 규모는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생산성 저하, 잦은 이직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인적자본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여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Bender & Heywood, 2006; 진선미·공정식, 2011; 남성일·전재식, 2011; 김종성·이병훈·신재열, 2012; 김기홍, 2018; 한국은행, 2019).

한국은행(2019)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하향취업률<sup>6)</sup>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졸 취업자 중 약 30%가 하향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취업자 대비 하향취업자의 임금손실 규모는 약 36%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향취업자의 적정 취업 전환율은 1년 후 4.6%, 2년 후 8%, 3년 후 11.1%로 나타난다. 즉, 하향취업을 한 취업자들은 손쉽게 적정 취업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향취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어 왔다(Bender & Heywood, 2006; 진선미·공정식, 2011; 남성일·전재식, 2011; 김종성·이병훈·신재열, 2012; 김기홍, 2018; 한국은행, 2019). 인구통계학적 변수, 직업 속성 변수, 취업 준비성과 등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분석되었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고용 가능성 또는 취업 준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Korman, 1976; Ellis, R. A., & Taylor, M. S., 1983; Thunholm, 2004; Salemela-Aro & Nurmi,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존중감은 그동안 하향취업을 설명하는 변수로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향취업의 결정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년 패널조사(YP2007) 5차부터 12차 자료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의 랜덤 포레스트 방법을 활용하여 예측성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머신러닝은 전통적 회귀분석과 달리 설명변수의 외생성과 오차항의 분포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변수에 관한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주관적 변수들도 고려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최필선·민인식, 2018).<sup>7)</sup> 또한, 랜덤포레스트는 설명변수가 많고 설명변수 간 상호작용이 복잡한 자료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예측력과 안정성 또한 높다(Cutler et al, 2007; Strobl et al, 2009). 그렇기에 본 연구는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자아존중감이라는 주관적 변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머신러닝의 랜덤포레스트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하향취업의 이론적 배경과 하향취업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다. III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및 분석방법을 제시한다. IV 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V 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6) 한국은행(2019)에서는 하향취업률을 대졸 취업자 수 대비 하향취업자 수로 정의하였음.

7) 최필선·민인식(2018)은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하여 대졸자의 취업 예측 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주관적 판단 변수를 포함한 모형이 취업 성과와 취업의 질을 더 잘 예측한다고 주장한다.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 1. 하향취업과 자아존중감

하향취업은 노동자의 교육수준과 직무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일자리-학력 불일치(education-job mismatch)는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김기홍, 2018; 한국은행, 2019). 국내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학력의 상향 평준화와 그에 따른 고학력자의 과잉공급 현상<sup>8)</sup>이 나타나면서 하향취업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한국은행, 2019; 조민수·황광훈·오세미, 2014; 김기홍, 2018). 신선미·손유미(2008)는 하향취업을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보았으며, 남성일·전재식(2011)은 하향취업을 노동 공급자의 측면에서 인적자본의 비효율적인 활용 문제로 접근하였다.

국내외의 연구에서 하향취업의 원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었다(Nauze-Fichet & Tomasini, 2002; 김종성·이병훈·신재열, 2012). 주요 이론으로는 인적자본 이론, 직업탐색이론, 신호 이론, 직무 이동 이론, 직무 경쟁이론 등이 있다(Nauze-Fichet & Tomasini, 2002). 박천수(2005)는 직무 경쟁이론을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론으로 보았다. 이유는 하향취업을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인적자본 이론(Freeman, 1976)과 달리 직무 경쟁이론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하향취업을 설명하기 때문이다(Thurow, 1975; 이은수, 2017).

직무 경쟁이론(Thurow, 1975)에 따르면 직무기술은 실제 업무 과정을 통해서만 터득할 수 있으며, 이는 직업훈련과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업훈련 비용이 적게 드는 근로자를 선호하기에 훈련 가능성 및 직무 적응성을 고려하여 구직자를 채용하게 된다. 또한, 특정 시점에서 일자리의 양과 질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구직자들은 정해진 일자리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구직자는 이미 정해진 일자리(직무)에 대해서 임금수준, 복지, 지속 가능성, 발전 가능성, 워라벨(Work Life Balance) 등과 같은 개인의 선호를 바탕으로 일자리의 위계를 정하게 되며,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다른 구직자들과 경쟁하게 된다. 구직자들은 괜찮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자들보다 상대적 역량이 높아야 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무일수록 필요로 하는 역량 수준은 높아지게 된다(박천수, 2005; 이영석·송선훈, 2020). 그렇기에 일자리의 양과 질이 이미 정해져 있는 노동시장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구직자들 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이는 고학력자의 과잉 공급 현상을 불러일으키며 하향취업을 유발하게 된다.

8) 교육부(2009)에 따르면 대학 진학률은 1980년 27.2%에서 2008년 63.5%로 크게 증가하였음(진선미·공정식, 2011, 황남희·정주연, 2011)

한편,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Josephs et al., 1992; Emeler, 2001; Bonanno et al., 2002; Baumeister et al., 2003; Howe et al., 2004).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으로 정의된다(Maslow 1989; 2012, McLeod 2007). 자아존중감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에 형성되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관계적인 요소와 성격적인 요소가 함께 작용하게 된다. 즉, 자아존중감은 영·유아기에서부터 청소년기 사이에 사회 환경에 긴밀하게 영향을 받아 자신에 대한 믿음을 내재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Crocker & Park, 2003; 2004). 또한 한번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쉽게 변하지 않아 개인의 특성들 중 안정적인 성향을 보인다(Caspi et al., 1998; Deaux and Snyder, 2012).

자아존중감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부정적 정서, 대인관계, 학업 성취, 문제해결능력, 진로 결정, 사회성 및 도덕성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가지는 이러한 특성들은 구직자가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서들은 하향취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을 저평가하여 이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Baumeister et al., 2003).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강한 방어기제를 보이며 위험 회피 성향을 띠게 된다(Alves-Martins et al., 2002; Di Paula & Campbell, 2002). 위험회피적인 성향으로 인해 자신의 역량에 대한 낮은 기대감으로 자신의 역량보다 낮은 역량을 요구하는 직무, 직업을 선택하게 해 하향취업으로 이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이 하향취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이다.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 자기 주도학습력, 학업에 대한 효능감, 학습 동기 향상 등 학업과 관련 요인들(박선영, 2003)과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및 직장 적응력과 같은 사회성(조현재, 2017; 이소영·이경순, 2019), 문제해결능력(양혜주, 2013), 진로결정(이문수·박연복, 2019), 도덕성(이난, 2018)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구직자의 채용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인 졸업 시점, 직무적합성, 출신학교, 직업기초능력, 직장적응력, 도덕성/인성 등(채창균·양정승, 2019)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은 우울, 긴장(Arndt & Goldenberg, 2002), 스트레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상태는 취업 과정 동안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하향취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Taylor & Armor, 1996), 장기 미취업자가 되는 등 낮은 취업 성과(Harter, 1993)를 얻게 될 수도 있다.

## 2. 머신러닝 랜덤포레스트 기법

머신러닝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컴퓨터 스스로가 익혀 분석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특정 모델을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prediction) 할 때 주로 사용된

다. 최근 사회과학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연구에 알맞은 머신러닝 모델의 필요성과 변수 선택의 문제가 중요해졌다(Varian, 2014). 국내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예측 모형 중 랜덤포레스트를 사용한 연구로는 유진은(2015), 최필선·민인식(2018), 이은정·조희숙·송영숙(2020) 등이 있다.

전통적인 경제 분석 모델은 모수를 추정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이며 다변량 분석의 경우 독립변수의 외생성, 오차항 분포등과 같은 제약이 있으며 다중공선성이 일어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머신러닝 기법은 전체 모집단 자료와 같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변수의 수가 많은 경우에도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Varian, 2014).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의 경우 마디(node)에서 가지치기(pruning)을 할 때 한 변수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형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랜덤포레스트는 앙상블 기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나무의 불안정성을 개선시킨 모델로 무작위성을 활용하여 부트스트랩 표본을 생성한다. 즉, 무작위로 의사결정나무를 생성, 이를 종합하여 랜덤포레스트 모델을 만드는 것을 통해 의사결정나무의 분류 정확성을 개선, 데이터를 통해 예측 결과가 달라지는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유진은, 2015).

### III. 실증분석

####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청년 패널조사(YP2007)자료를 사용한다. 청년 패널조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청년층의 직업 선택 및 노동시장 이동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패널조사로서 청년층의 취업 형태, 직업이동 과정, 학교생활,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분석방법으로는 머신러닝 기법 중 하나인 랜덤포레스트를 사용하여 하향취업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중요도 지수를 통해 하향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인자를 찾아낸다.

#### 가. 랜덤포레스트

랜덤포레스트는 분류 분석<sup>9)</sup>의 한 종류로 의사결정나무가 발전된 형태의 모델이다. 즉, 랜덤포레스트는 다수의 의사결정나무들로 구성되는 모형이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나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유진은, 2015; 최필선·민인식, 2018). 의사결정나무는 설명변수의 중요도 기준에 따라 가지(branch)를 뺀어 나가는데, 각 마디(node)에서 가지가 나뉘질 때 하나의 변수만을 사용한다(유진은, 2015). 이때 가장 먼저 사용되는 변수는 가지가 나뉘질 때마다 사용되기 때문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중요 변수가 된다. 중요 변수를 선

9) 분류 분석이란 반응 변수와 설명변수로 구성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새로운 관측 값이 주어졌을 때 훈련된 모형을 바탕으로 분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



택하는 방법으로는 지니계수(Gini index) 또는 정보 획득량 등의 불순도 측정 도구가 있는데 (Pal, 2005; 민인식 최필선, 2018), 랜덤포레스트의 경우 불순도 측정도구로 지니계수(Gini index)<sup>10)</sup>를 사용한다.

의사결정나무는 인접한 상위와 하위 노드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비슷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 설명변수들이 여러 개 있을 경우 한 변수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사함에도 전혀 다른 모형이 도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박창이 외, 2013; 최필선·민인식, 2018; Pal, 2005). 반면, 랜덤포레스트의 경우 배깅(bagging, bootstrap aggregating)을 사용하여 설명변수가 많고 그간의 상호작용이 복잡하여도 모형의 예측력이 높고 안정성이 있다. 배깅은 부트스트랩(bootstrap)방법을 적용한 앙상블 기법으로 랜덤포레스트는 학습 단계에서 부트스트랩 기법을 통해 훈련용 데이터를 구성한 후 설명변수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의사결정 나무의 생성을 반복하기 때문에 예측 오차를 줄일 수 있다(Bremian, 1996; Bremian, 2001). 또한 랜덤포레스트에서 제공하는 중요도 지수를 통해 설명변수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유진은, 2015).

## 2. 데이터 및 변수

본 연구는 청년 패널조사(YP2007) 5차부터 12차 자료를 통합 (pooled)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청년 패널은 만 15세에서 2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구직활동, 일자리 경험, 자아존중감, 취업 준비활동 등 다양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기에 다양한 설명변수를 사용하는 랜덤포레스트를 사용하는 것에 이점이 있다. 특히 청년 패널조사를 사용하여 하향취업 여부를 주관적 기준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하향취업 상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조사 당시 학생 혹은 미취업자들이 해당 조사 때 전문 대학이상을 졸업한 임금근로자들이 동일직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을 표본으로 선정, 어떤 요인으로 하향취업이 결정되는지 밝히고자 한다.

### 가. 종속변수

하향취업과 관련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하향취업을 측정하는 다양한 평가 방법들이 개발되었다(Nauze-Fichet & Tomasini, 2002; 오호영, 2005; 신선미·손유미, 2008; 남성일·전재식, 2011; 진선미·공정석, 2011; 김종성·이병훈·신재열, 2012;). 하향취업을 측정하는 방법은 직접적 자기평가·간접적 자기평가와 같은 주관적 측정 방법과, 직무분석 방식·통계적 방식인 객관적 측정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오호영 2005; 남성일·전재식, 2011). 주관적 측정 방법 중 직접적 자기평가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기술·교육·전공 일치도와 자신의 교육 수준의 일치 정도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하향취업을 측정한다. 직접적 자기평가는 조사의 용이성이 크지만 직무 만족도가 설문에 크게 영향을 미쳐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간접적 자기평가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수준을 질문하고 이를

10) 지니계수(Gini index)는  $\sum_{j \neq i} \sum (f(C_i, T)/I) (f(C_j, T)/I)$ 이며  $(f(C_i, T)/I)$ 는 클래스  $C_i$ 에 속한 케이스가 선택될 확률이다(Pal, 2005).

응답자의 교육 수준과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식이다. 간접적 자기평가 방식은 직무 불만족에 따른 결과 왜곡을 줄일 수는 있지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수준은 여전히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객관적 측정 방법 중 직무분석 방식은 직무분석을 통해 직업이 요구하는 교육수준과 실제 교육수준을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직업사전에서 직업별로 제시하는 일반교육수준(GED)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직무분석 방식은 측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객관적 기준을 측정하는 GED가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한편, 통계적 방법은 직업별 교육수준 분포를 분석하여 직무에서 요구되는 교육 수준을 정의한 후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조사의 규모가 큰 경제활동인구조사 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이용하여 표준편차를 고려한 ‘직종별 평균 교육연수’를 직무에서 요구하는 학력으로 정의하여 사용한다(남성일·전재식, 2011).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측정 방법인 직접적 자기평가 방식을 사용하였다. 직접적 자기평가 방식은 직무 불만족과 같이 외부 상황에 영향을 받아 과대 추정되어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모든 직무에 필요한 기술, 교육, 자격요건 등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진선미·공정식, 2011).

종속변수인 하향취업 여부 변수는 하향취업 혹은 적정/상향 취업으로 구성된 이항변수이며 설문지에 제시된 교육수준과 기술 수준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두 종류의 종속변수를 구성하였다. 청년 패널조사의 응답 질문인 현 직장(일자리)의 업무내용과 수준이 자신의 교육 수준(기술 수준)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의 질문에 ‘(1) 수준이 아주 낮다.’, ‘(2) 수준이 낮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0으로 ‘(3) 수준이 적절하다’, ‘(4) 수준이 높다’, ‘(5) 수준이 아주 높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로 코딩하였다.

현 데이터의 종속 변수 비율로 랜덤포레스트를 실행하면 데이터의 계급 불균형이 발생하여 분류 분석을 통해 집단을 정확하게 분류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분류 분석을 진행할 때 랜덤 오버샘플링, 랜덤언더샘플링, SMOTE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의 계급 불균형을 해소한다. 랜덤오버샘플링은 소수 계급의 표본 수를 무작위로 늘리는 것이고, 랜덤언더샘플링은 다수 계급의 표본수를 무작위로 줄이는 방법이다. SMOTE(Chawla et al., 2002)는 기존의 랜덤오버샘플링에서 표본의 중복으로 인해 생기는 과대적합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이다. 소수 계급의 데이터에서 임의의 표본들을 선택하여 표본들 사이에 k 근접 이웃(k nearest neighbors)을 찾아 새로운 표본을 생성한다.

#### 나. 설명변수

먼저, 본 연구의 랜덤포레스트 분석에서는 총 84개의 설명변수를 사용하였다. 랜덤포레스트는 설명변수가 많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복잡해도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유진은, 2015; 민인식·최필선, 2018). 그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랜덤포레스트를 사용하여 가능한 많은 변수들을 포함시켜 하향취업 여부 예측에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랜덤포레스트 분석에 앞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인구통계 및 개인 배경 변수, 직업 속성 변수를 포함하여 설명변수를 구성하였다(신선미·손유미, 2008; 이찬영, 2008; 신선미·민무숙, 2010; 황남희·전주연, 2011; 조세미·황광훈·오세미, 2014). 또한 자아존중감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켜 하향취업 여부 예측에 있어 주요 변수로 선택되는지 살펴보려 하였다. 이와 더불어 직업 선택 시 중요도, 인적자본 변수인 취업 준비 활동, 직업훈련 및 자격과 구직활동 경험 변수(김종성·이병훈·신재열, 2012)들을 포함시켰다.

〈표 1〉 랜덤포레스트에 사용된 설명변수

구분	설명변수
인적특성 및 개인배경 (15개)	성별, 생년, 거주지, 혼인상태, 자녀유무, 부채 유무, 최종학력 아버지직업, 어머니직업,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가 구주 여부, 가계비 생활 부담자, 경제적 지원여부, 가구총소득
직업 속성 (19개)	동일직장 여부, 종사자수, 산업코드, 직업코드, 현 직장 소재지, 근속년수, 종사상지위, 정규직여부, 사회보험 부가급여 수혜여부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 당, 유급휴일), 노조유무, 직업만족도, 월평균 임금, 취업자정보
직업선택 시 중요도(13개)	성취, 이타, 개인지향, 경제적 보상, 인정, 신체활동, 직업안정, 다양성, 심신의 안녕, 타인영향, 지적추구, 애국, 자율
인적자본 변 수: 취업준비 활동 (14개)	학점, 공인영어성적,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컴퓨터자격 증, 직무관련 자격증, 해외경험, 인턴경험, 공모전 경력, 석박사 학위, 봉사경험, 동아리경험, 기타
인적자본 변 수: 직업훈련 및 자격(4개)	직업훈련 참여개수, 자격증 누적 취득 개수, 취업사교육경험여 부, 해외연수 및 유학 경험 여부
구직활동 경 험 (6개)	취업 정보취득경로 1순위, 구직 시 어려운 점, 구직횟수, 최종면 접 횟수, 구직실패 경험, 입직경로
자아존중감 (13개)	(1) 내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하고 생각 한다. (2) 가끔 인생의 실패자라는 생각이 든다. (3) 나는 직장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4)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다. (5) 나는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해결책을 찾 을 수 있다. (6) 나는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7) 나에게 업무가 주어지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8) 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다.

	(9) 나는 매사에 자신감 있게 임한다, (10) 나는 지금의 내 자신이 싫다, (11) 나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16) 나는 내가 처리한 일 가운데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18)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	--

#### IV. 실증분석 결과

##### 1. 예측성과

본 연구는 랜덤포레스트 모델을 활용하여 하향취업 여부를 예측,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개의 종속 변수와 84개의 독립 변수를 사용하였고, 학습 및 성과 평가를 위해 전체 표본의 70%는 훈련데이터로 30%는 검증데이터로 무작위 설정하였다. 또한 예측 모형의 성과 지표로는 정확도, 특이도, 민감도 세 가지 지표를 포함하였다. 정확도는 전체 하향취업 여부 자료 중 실제와 예측이 일치하는 비율이다. 특이도는 반응변수가 1(적정/상향취업자)인 자료 중 정분류된 자료의 비율이고 민감도는 반응변수가 0(하향취업자)인 자료 중 정분류된 자료의 비율이다.

〈표 3〉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정의

테스트 결과 (Prediction)	실제 하향취업의 유무 (Reference)		
	하향취업 (True)	적정/상향취업 (False)	합계
하향취업(True)	TP(True Positive)	FP(False Positive)	TP + FP
적정 / 상향취업 (False)	FN (False Negative)	TN(True Negative)	FN + TN
합계	TP + FN	FP + TN	N= TP + TN + FP + FN

$$\text{정확도(Accuracy)} = (TN + TP) / (TN + TP + FN + FP)$$

$$\text{민감도(Sensitivity)} = TP / (TP + FN)$$

$$\text{특이도(Specificity)} = TN / (TN + FP)$$



## 2. 랜덤포레스트 분석 결과

랜덤포레스트 모델에서는 Breiman(2001)에 따라  $\text{floor}(\sqrt{n_x})$ 개의 설명변수를 채택하였기에 각 마디에 9개의 설명변수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무작위로 선택된 설명변수와 부트스트랩 표본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트리의 수를 500개로 정하였다.

<표 4>의 모형1은 하향취업 여부의 기준을 교육 수준, 모형2는 기술 수준으로 설정한 모형에 대한 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랜덤포레스트로 하향취업 여부를 예측한 결과 모형1의 정확도는 약 93%이고 모형2의 정확도는 약 93%다. 모형1의 민감도는 약 91%로 랜덤포레스트 모형이 실제 하향취업의 경우를 하향취업으로 올바르게 예측한 정도이다. 모형2의 민감도는 약 92%이다. 특이도는 적정/상향 취업자라고 예측한 값 중 실제 적정/상향 취업자의 정도를 나타내며 모형1의 경우 약 96%, 모형2에서는 약 95% 값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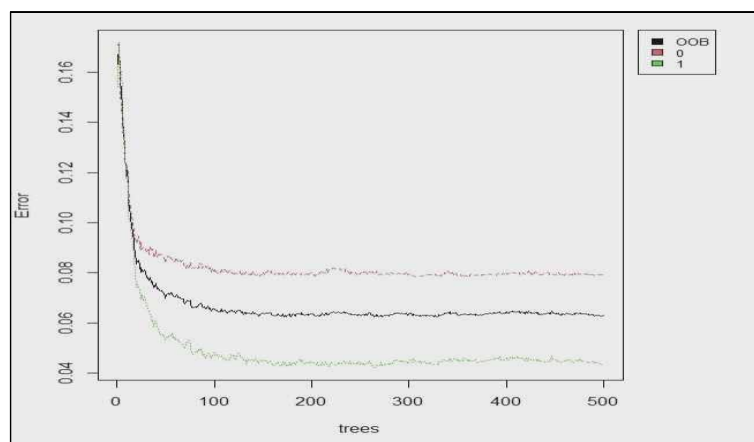
<표 4> 랜덤포레스트 예측성과

	모형1	모형2
정확도(Accuracy)	0.9353	0.9344
민감도(Sensitivity)	0.9149	0.9199
특이도(Specificity)	0.9589	0.9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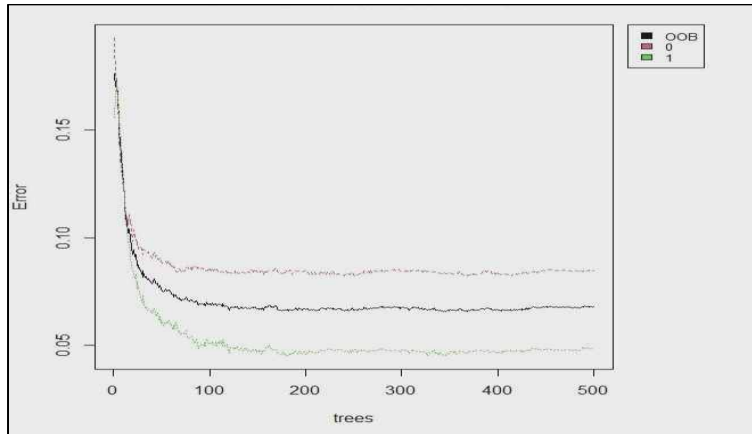
랜덤포레스트의 경우 무작위 결정트리를 어느 정도 생성할 것인지는 연구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 500개의 트리를 생성하도록 설정하였고, 500개의 의사결정나무가 반복하여 생성될 때 오차율이 안정적으로 수렴하는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그림1]과 [그림2]의 랜덤포레스트의 트리 개수에 따른 에러율 변화를 살펴보면 약 100개 이상의 의사결정나무가 생성되면 그 이후부터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500번의 의사결정나무가 반복되는 랜덤포레스트 모형의 오차율은 안정적으로 수렴하였음을 보였다.

[그림 1] 의사결정나무 생성에 따른 교육 수준 기준 하향취업의 에러율 변화



[그림 2]의사결정나무 생성에 따른 직무수준 기준 하향취업의 에러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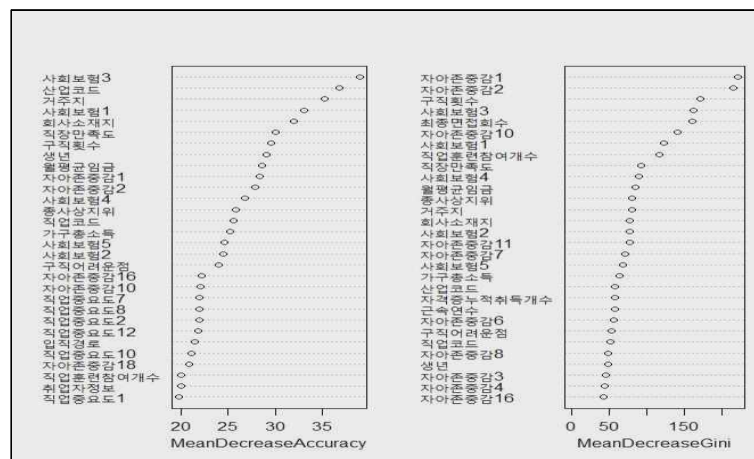
랜덤포레스트의 단점 중 하나는 랜덤포레스트 안에서 수많은 의사결정나무를 생성하기에 예측성과를 내는 반응 변수와 설명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측성과에 대한 설명변수의 중요도를 나타내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첫째, MDG(Mean Decrease Gini)는 랜덤포레스트를 이루는 각각의 의사결정나무의 가지가 생성될 때 선택되는 변수들로 인한 GI 지수(Gini Impurity Index)의 감소량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MDG 값이 높다는 것은 선택된 예측 인자를 가지고 분류를 진행하면 불순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분류가 진행됨을 의미한다. 또한, 불순도가 감소했다는 것은 분류 분석이 잘 진행되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예측 인자의 MDG 값이 높은 변수가 중요 변수인 것이다. 두 번째, MDA(Mean Decrease Accuracy)는 의사결정나무의 정확도를 구한 것과 시행된 의사결정나무에서 선택된 설명변수를 재조합(permutation)하여 의사결정나무를 재구축했을 때 구한 정확도의 차이를 변수별로 평균값을 구한 것이다. 그렇기에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에 큰 영향을 준 설명변수를 제거했을 때 의사결정나무의 정확도의 감소량은 커진다. 따라서 MDA의 값이 커질수록 변수의 중요도가 높아진다(김태진·홍정식·전윤수·박종률·안태욱, 2018; 최필선·민인식, 2018).

[그림 3]은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하향취업 여부를 예측한 모형에서 MDA와 MDG 기준 중요성 지수가 높은 변수 30개를 보여준다. MDA 기준에서 살펴보면 직장 속성인 국민연금(사회보험3), 건강보험(사회보험1), 산업코드, 회사소재지, 직장만족도 등의 변수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주요 변인은 거주지 및 가구총소득과 같은 가족 및 가구 특성이었다. 구직활동 경험 변수에서는 구직 횟수가 주요 변인으로 뽑혔다. 자아존중감 변수들 중에서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하고 생각 한다(자아존중감1), 가끔 인생의 실패자라는 생각이 든다(자아존중감2), 나는 내가 처리한 일 가운데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자아존중감16)과 같은 변수들이 주요 변수로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MDG 기준에서는 월평균임금, 종사상지위, 회사소재지와 같은 직장속성의 변수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하고 생각 한다(자아존중감1), 가끔 인생의 실패자라는 생각이 든다(자아존중감2), 나는 지금의 내 자신이 싫다(자아

존중감10)와 같은 자아존중감 변수들이 변수 중요도의 상위권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직희수, 직업훈련참여개수와같은 구직활동 경험 변수와 국민연금(사회보험3), 건강보험(사회보험1), 직장만족도와 같은 혜택이 중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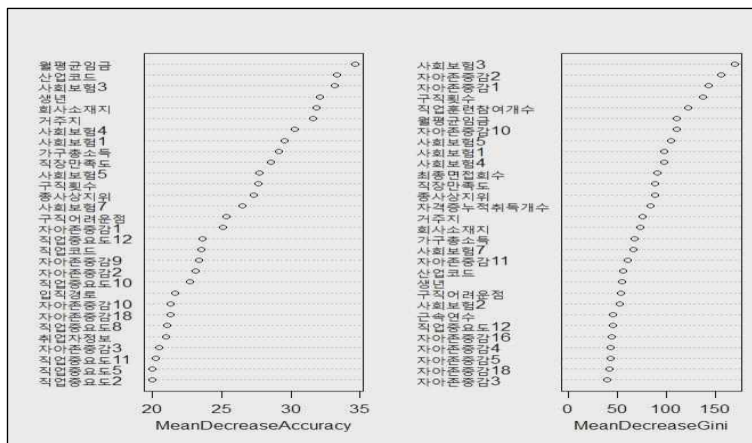
[그림 3] 교육 수준 기준 변수 중요도



[그림 4]는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향취업 여부를 예측한 모형에서 MDA와 MDG 기준 중요성 지수가 높은 30개의 변수를 보여준다. 모형2에서도 월평균임금, 사회보험3과 같은 직장속성이 주요 변수로 채택 되었으며, 거주지, 가구총소득과 같은 인적 속성 변수들이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1, 자아존중감2와 같이 자아존중감 변수들도 주요 변수로 채택되었다. MDA기준에서 살펴보면 월평균 임금, 산업속성, 국민연금(사회보험3), 회사소재지와 같은 직장속성 변수가 주요변수로 채택되었고 거주지, 가구총소득과 같은 개인 배경변수가 주요 변수로 채택되었다. 구직희수와 같은 취업 노력변수도 주요 변수로 채택되었다. 자아존중감 변수의 경우 내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하고 생각 한다(자아존중감1), 나는 매사에 자신감 있게 임한다(자아존중감9), 가끔 인생의 실패자라는 생각이 든다(자아존중감2) 등이 주요 변수로 선택되었다. MDG 기준에서도 직업 속성인 국민연금(사회보험3), 월평균 임금, 퇴직금(사회보험5)과 같은 변수가 주요 변수들 중 상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아존중감 변수도 상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가끔 인생의 실패자라는 생각이 든다(자아존중감2), 내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하고 생각 한다(자아존중감1), 나는 지금의 내 자신이 싫다(자아존중감10) 등의 변수들이 중요도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직희수, 직업훈련참여개수와 같은 취업 노력 변수가 주요 변수로 선택되었다.

[그림3]과 [그림4]를 통해 하향취업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하향취업에 결정요인에 주로 사용된 직업 속성 변수, 개인배경 변수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 변수들과 취업준비도 변수들이 중요 변수로 선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4] 기술 수준 기준 변수 중요도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랜덤포레스트 분석에서는 인적 특성, 개인 배경, 직업 속성, 구직활동 경험, 자아 존중감 등 다양한 변수가 포함된 84개의 예측인자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교육수준 기준 하향취업 모형에서는 정확도가 93.53%, 민감도가 91.49%, 특이도가 95.89%로 나타났으며, 기술 수준 기준 하향취업 모형에서는 정확도가 93.44%, 민감도가 91.99%, 특이도가 95.1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예측 요인들의 중요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개인배경(거주지, 생년, 거주지, 가구 총 소득 등), 직장 속성(산업, 직장 에서 제공되는 사회보험, 월 평균임금, 현 직장 소재지 등)과 취업을 위한 노력 변수(구직 횟수), 자아존중감 변수의 중요도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하향취업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 직무 경쟁이론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일자리의 수와 질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구직자들은 괜찮은 직장을 얻기 위해 경쟁시장에서 보다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상대적 역량을 축적하고자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구직자는 하향취업을 선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하향취업 결정요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 변수와 거주지역, 가구 소득과 같은 개인 배경 변수, 교육 수준, 학점, 대학전공 등 인적자본변수를 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장기간의 구직자 경쟁은 구직자 집단의 역량을 상향평준화하면서 이는 어학점수, 자격증, 직업훈련 여부 등으로 대표되는 구직자의 역량이 노동시장에서 현 시되는 신호(signalling) 효과를 유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아존중감은 하향취업 여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취업준비성과에 영향을 미쳐 하향취업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직접적으로 하향취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랜덤포레스트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의 경우 랜덤포레스트에서 중요도 지수가 높게 나타나 하향취업 여부에 중요 요인임을 확인하였지만



구직자 역량이 하향취업 여부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이 하향취업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실증결과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또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교육 및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가지는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사이에 형성되고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과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는 유년기 시절부터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는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며, 직접적인 교육 대상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 등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한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간접 경로에 관한 분석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자아존중감과 하향취업 사이를 잇는 다양한 조절 변수 및 매개변수 제시가 다소 미흡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노동시장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와 자아존중감과 하향취업 관계에서 조절변수 및 매개변수의 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준영 · 윤정혜(2010), “하향 취업의 지속성: 청년층의 하향 취업 경험이 비하향 취업으로의 이행에 미치는 효과 분석”, 산업노동연구, 16(1), 173-200.
- 김종성 · 이병훈 · 신재열(2012), “청년층 구직활동과 하향취업”, 노동정책연구, 12(2), 51-73.
- 김정우(2015), “청년패널 자료를 활용한 청년층의 노조가입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패널분석”, 산업노동연구, 21(2), 1-34.
- 김기홍(2018), “고학력 청년 신규 취업자의 하향취업”, KLI 패널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 김태진 · 홍정식 · 전운수 · 박종률 · 안태욱(2018), “랜덤포레스트를 이용한 모기업의 하향 거래처 기업의 분류: 자동차 부품산업의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3(1), 1-22.
- 남성일 · 전재식(2011), “하향취업이 직장이동 성향에 미치는 효과”, 노동정책연구, 11(3), 25-51.
- 문선영(2018), 불균형 자료에서 랜덤포레스트에 기반한 분류 방법의 성능비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박천수(2005).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과 대응방안”.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장 동향분석팀 [편]. 『(2005) 한국의 고용구조』. 서울: 중앙고용정보원장 동향분석팀. pp.356-375.
- 송경애(2006), “자아 존중감 및 자기결정 동기가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 · 보육복지연구, 10(3), 177-202.
- 신선미 · 손유미(2008), “대졸 청년층 하향취업의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1(1), 1-21.
- 신선미 · 민무숙(2010), “대졸 청년층 하향취업자의 하향취업 상태 변화 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3(2), 47-66.
- 양혜주(2013), “전문대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연구”, 사고개발, 9(3), 103-118.
- 오삼일 · 강달현(2019), “하향취업의 현황과 특징”, BOK이슈노트, 한국은행.
- 유진은(2015), “랜덤포레스트”, 교육평가연구, 28(2), 427-448.
- 이난(2018),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사회성, 도덕성, 시민성 및 인성의 구조적 관계분석”, 교양교육연구, 12(6), 267-286.
- 이동훈(2019), 기계학습 분류 기법을 활용한 대졸자 취업 예측 모델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이문수 · 박연복(2019), “대졸 초기 취업자의 직장만족도,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과 영향 요인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9), 759-783.
- 이은정 · 조희숙 · 송영수(2020),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한 대졸 신입사원 조기이직 예측 결정요인 탐색”, 기업교육과인재연구, 22(1), 163-193.
- 이소영 · 이경순(2019), “대학생이 지각한 외모만족도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교육문화연구, 25(5), 227-249.
- 이영석 · 송선휘(2020), “고졸 취업자의 지역이동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20(4), 93-116.
- 이찬영(2008),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하향취업 행태”, 직업능력개발연구, 11(3), 49-69.

- 장영은 · 성미영(2017),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6 학년 학업성취에 대한 4 학년 학업성취의 예측: 5 학년 자아존중감 및 학습행동조절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2), 21-37.
- 조민수 · 황광훈 · 오세미(2014), “청년층의 하향 취업 현황과 이동 분석”, 고용이슈, 한국고용정보원.
- 조현재(2017), “대학생의 학습된무기력, 진로적응성, 자아존중감의 구조관계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4(4), 93-109.
- 진선미 · 공정석(2011), “대졸자의 하향취업이 노동시장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3(1), 95-120.
- 채창균 · 김태기(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28(2), 89-107.
- 채창균 · 양정승(2019), “한국의 대기업은 어떤 청년을 선호하는가?”, 직업능력개발연구, 22(3), 99-127.
- 최필선 · 민인식(2018),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대졸자 취업예측 모형”, 직업능력개발연구, 21(1), 31-54.
- 황남희 · 정주연(2011), “대졸청년층의 하향취업: 연령집단 및 하향취업 측정방법에 따른 비교”,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2), 271-292.

- Abernathy, T. J., Massad, L., and Romano-Dwyer, L.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nd self-esteem.”, *Adolescence*, 30(120), 899.
- Arndt, J., and Goldenberg, J. L. (2002). “From threat to sweat: The role of physiological arousal in the motivation to maintain self-esteem.”
- Alves-Martins, M., Peixoto, F., Gouveia-Pereira, M., Amaral, V., and Pedro, I. (2002).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adolescents.”, *Educational psychology*, 22(1), 51-62.
- Bachman, J. G., and O'Malley, P. M. (1977). “Self-esteem in young men: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impact of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attain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6), 365.
- Baumeister, R.F., Dale, K., and Sommer, K.L. (1998). “Freudian defense mechanisms and empirical findings in modern social psychology: Reaction formation, projection, displacement, undoing, isolation, sublimation, and denial.”, *Journal of Personality*, 66, 1081-1124.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and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1), 1-44.
- Bender, K. A., and Heywood, J. S. (2009). “Educational mismatch among Ph. Ds: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In *Science and engineering careers in the United States: An analysis of markets and employmen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29-255.
- Bonanno, G. A., Field, N. P., Kovacevic, A., and Kaltman, S. (2002). “Self-enhancement as a buffer against extreme adversity: Civil war in Bosnia and traumatic loss in the United Sta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2), 184-196.
- Breiman, L.(1996). “Bagging predictors.”, *Machine Learning*, 26, 123~140.
- Breiman, L.(2001). “Random forests.”, *Machine Learning*, 45, 5~32.
- Caspi, A., Wright, B. R. E., Moffitt, T. E., and Silva, P. A. (1998). “Early failure in the labor market: Childhood and adolescent predictors of unemployment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4-451.

- Chawla, N. V., Bowyer, K. W., Hall, L. O., and Kegelmeyer, W. P. (2002). "SMOTE: synthetic minority over-sampling technique." , *Journ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16, 321-357.
- Covington, M. V. (1989). "Self-esteem and failure in school: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s." , *The social importance of self-esteem*, 72-124.
- Crocker, J., and Park, L. E. (2003). "Seeking self-esteem: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protection of self-worth."
- Crocker, J., and Park, L. E. (2004). "The costly pursuit of self-esteem. *Psychological bulletin*" , 130(3), 392.
- Cutler, D. R., Edwards, T. C., Beard, K. H., Cutler, A., Hess, K. T., Gibson, J., & Lawler, J. J. (2007). "Random forests for classification in ecology." , *Ecology*, 88, 2783-2792.
- Demo, D. H., and Savin-Williams, R. C. (1983). "Early adolescent self-esteem as a function of social class: Rosenberg and Pearlin revisited."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4), 763-774.
- Di Paula, A., and Campbell, J. D. (2002). "Self-esteem and persistence in the face of failure."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3), 711.
- Emler, N. (2001). "Self esteem: The costs and causes of low self worth. " , York Publishing Services.
- Freeman, R. (1976). "The overeducated American" .
- Friedman, H. L. (1989). "The health of adolescents: beliefs and behaviour." ,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9(3), 309-315.
- Harter, S. (1993). "Causes and consequences of low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Self-esteem*." , Springer, Boston, MA, 87-116.
- Howe, G. W., Levy, M. L., and Caplan, R. D. (2004). "Job loss and depressive symptoms in couples: common stressors, stress transmission, or relationship disruption?" ,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4), 639.
- Huyse-Gaytandjieva, A., Groot, W., Pavlova, M., and Joling, C. (2015). "Low self-esteem predicts future unemployment." , *Journal of applied economics*, 18(2), 325-346.
- Josephs, R. A., Larrick, R. P., Steele, C. M., and Nisbett, R. E. (1992). "Protecting the self from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risky decisions."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1), 26.
- Lecky, P. (1969). "Self-Consistency: A Theory of Personality. Edited by John FA Taylor and Frederick C. Thorne."
- Pal, M. (2005). "Random forest classifier for remote sensing classification." , *International Journal of Remote Sensing*, 26(1), 217-222.
- Salmela-Aro, K & Nurmi, J.(2007). "Self-esteem during university studies predicts career characteristics 10 years later." ,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0(3), 463-477.
- Strobl, C., Malley, J., & Tutz, G. (2009). "An introduction to recursive partitioning: Rationale, appl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bagging, and random forests." , *Psychological Methods*, 14, 323-348.
- Taylor, S. E., and Armor, D. A. (1996). "Positive illusions and coping with adversity." , *Journal of*



personality, 64(4), 873-898.

Thunholm, P.(2004), “Decision-making style: habit, style or bot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4), 931-944.

Thurow, L. C. (1972). “Education and economic equality.”, The public interest, 28, 66.

Nauze-Fichet, E., Tomasini, M., Hanchane, S., and Verdier, E. (2002). “Diplôme et insertion sur le marché du travail: approches socioprofessionnelle et salariale du déclassement.”



# THE RELATIONSHIP BETWEEN UNCERTAINTY AND INVENTORY TURNAROUND TIME: THE MODERATING EFFECT OF STAR EMPLOYEE

강 한 슬

## CONTENTS

- ① Theoretical Background
- ② Research Design
- ③ Results
- ④ Conclusion



## 1. Theoretical Background

- A great deal of studies has highlighted that considering the human factors is critical in forecasting (Perera et al., 2019) and behavior inventory decisions (Balachandra et al., 2020) as well as in making sustainable organizations (Pfeffer, 2010; Leonard et al., 2004; Mooney, 2004).
- Decision making is often involved in human intervention in the form of expert judgement or adjustment (Syntetos et al., 2016) which includes in an aspect of promotional activities, price adjustments, regulation adjustments, judgement of inventories, government policy, and competitor activities (Flides & Goodwin, 2007).
- Even though academic literature has increasingly noticed a critical importance of studying human factors in inventory management, there is a few research on the impact of employees on inventory.

### Research Question

- (1) Does uncertainty of production planning system, production volume, and customer bargaining power have an influence on inventory turnaround time?
- (2) Do interaction effects between uncertainty and star employee have an influence on inventory turnaround time?
- (3) Are different results derived for each location where the inventory is stored?



## Star employees

Those with disproportionately high and prolonged performance, visibility, and relevant social capital by Call, Nyerg, and Thatcher (2015)

- All three constructs describing star employee are considered whether they are relatively high or low relative to peers and explain that they can become star employee only if they are not one-time success but a continuous reputation.
- Visibility is the extent to which an employee's job performance and reputation are observable (Merton, 1968a) both in and out the organization
- Social capital is the value gained through relationships (Bourdieu, 1986; Coleman, 1988) or the "goodwill" of accessing resources, information, influence, and solidarity by individuals (Adler & Kwon, 2002; Nahapiet & Ghoshal, 1998).



## 2. Research Design

### Measurement of Star employee

- The manager's unit revenue
- The volume of transactions with a particular customer each manager is allocated.
- How many quantities they sell, and how much customer paid for it.
- The volume the manager received orders. Volume variable made of width, thick, and length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 On time delivery  $\Rightarrow$  Planned GI Date and Actual GI Date variables in dataset, which indicates determined date as per delivery scheduling depending upon the customer requested delivery date, actual date on which goods are issued physically, respectively.



### Uncertainty

✓ Production planning system : MTO and MTS

✓ Product volume :

Components	Range
Thickness	16 to 1,400 (mm)
Width	10 to 126 (inch)
Length	200 to 131,233 (mm)

✓ Customer bargaining power :

calculated as the ratio of the customer's market value to the firm's market value (Eshleman & Guo 2014).





### Inventory Turnaround Time

In operations management, the average of inventory holding periods was used to explore the linkages between inventory performance and financial performance (Chen et al., 2005; Han et al., 2013; Udenio et al., 2018).

Sahari, Tinggi, and Kadri (2012) measure inventory efficiency by using inventory holding days. Align with these studies, our study also uses the inventory holding days by using the term 'inventory turnaround time'.



	Variables	Definition
Dependent variable	ln (ITT)	Natural logarithm of Inventory time spent on each location
Independent variables	PPS_MTS	Production planning system MTS = 1; MTO = 0
	ln (Volume)	Natural logarithm of product volume
	ln (CBP)	Natural logarithm of bargaining power of customers
	Location (i = 0, 1, 2, 3)	Location where the inventory is stored i = 0; Factory i = 1; Factory&Warehouse i = 2; Factory&Consignment i = 3; Entire
Moderator	Star1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Star2 (Sales representative)	If they satisfy 4 indicators of 5 indicators, it is marked as 1



## Frequency Analysis of Production Planning System

Production type	Freq.	Percent	Cum.
Make-to-Order (MTO)	82,142	62.4	62.4
Make-to-Stock (MTS)	49,432	37.6	100
Total	131,574	100	

## Frequency analysis of Star employees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Star employee	Non- star employee	Total
N	3 (30%)	7 (70%)	10 (100%)
Transactions	67,234 (51.1%)	64,340 (48.9%)	131,574 (100%)



## After Data Aggregation

## Frequency Analysis of Production Planning System

Production type	Freq.	Percent	Cum.
Make-to-Order (MTO)	15,285	50.82	50.82
Make-to-Stock (MTS)	14,791	49.18	100
Total	30,076	100	

## Frequency analysis of Star employees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Star employee	Non- star employee	Total
N	3 (30%)	7 (70%)	10 (100%)
Transactions	17,852 (59.36%)	12,224 (40.64%)	30,076 (100%)



Table 11. Summary Statistics of Star employees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Variables	N	Mean	Sd	Min	Max	Se
Unit Revenue	17,852	2,183.26	1,086.37	1.80	8,160	8.13
ln (Volume)	17,852	20.11	0.96	16.64	23.46	0.01
ln (CBP)	17,852	15.51	1.21	7.57	17.02	0.01

Table 12. Summary Statistics of Non-star employees

Variables	N	Mean	Sd	Min	Max	Se
Unit Revenue	12,224	1,537.55	939.21	0	7663.60	8.49
ln (Volume)	12,224	19.81	1.08	14.51	23.07	0.01
ln (CBP)	12,224	14.67	1.47	0	17.02	0.01

##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1)	(2)
(1) ln (volume)	1	
(1) ln (CBP)	0.402**	1

\*\*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two-sided)

## All Possibilities of Locations

Locations	Freq.	Percent	Cum.
Factory	18,949	62.58	62.58
Warehouse	107	0.35	62.93
Consignment	32	0.11	63.04
Factory & Warehouse	5,940	19.62	82.66
Warehouse & Consignment	0	0	82.66
Factory & Consignment	5,187	17.13	99.79
Factory & Warehouse & Consignment	3	0	99.79
Nowhere	63	0.21	100
Total	30,281	100	



## Hypothesis

*H1a: When the production planning system is MTS, inventory turnaround time increases.*

*H1b: The increase of product volume decreases inventory turnaround time.*

*H2: The increase of customer bargaining power increases inventory turnaround time*

*H3a: when star employee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duction planning system and inventory turnaround time strengthens or weakens.*

*H3b: when star employee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duct volume and inventory turnaround time strengthens or weakens.*

*H3c: when star employee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stomer bargaining power and inventory turnaround time strengthens or weake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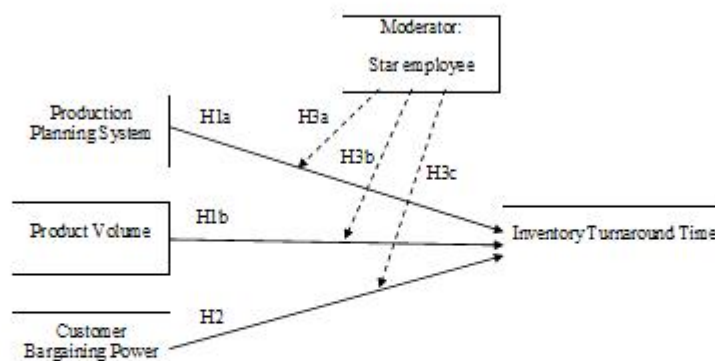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Following Zedeck (1971) model

$$(1) \quad y = \alpha + \beta_1 x + \varepsilon$$

$$(2) \quad y = \alpha + \beta_1 x + \beta_2 z + \varepsilon$$

$$(3) \quad y = \alpha + \beta_1 x + \beta_2 z + \beta_3 xz + \varepsilon$$

$$(1) \quad \ln(ITT) = \beta_0 + \beta_1 PPS\_MTS + \beta_2 \ln(\text{Volume}) + \beta_3 \ln(CBP) + \beta_4 \sum_{i=0}^3 \text{Location}_i + \varepsilon$$

$$(2) \quad \ln(ITT) = \beta_0 + \beta_1 PPS\_MTS + \beta_2 \ln(\text{Volume}) + \beta_3 \ln(CBP) + \beta_4 \sum_{i=0}^3 \text{Location}_i + \beta_5 \text{Moderator}(\text{Star1}, \text{Star2}) + \varepsilon$$

$$(3) \quad \ln(ITT) = \beta_0 + \beta_1 PPS\_MTS + \beta_2 \ln(\text{Volume}) + \beta_3 \ln(CBP) + \beta_4 \sum_{i=0}^3 \text{Location}_i + \beta_5 \text{Moderator}(\text{Star1}, \text{Star2}) + \beta_6 PPS\_MTS * \text{Stars} + \beta_7 \ln(\text{Volume}) * \text{Stars} + \beta_8 \ln(CBP) * \text{Stars} + \varepsilon$$

### 3. Results



Regression results of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DV: ln(Customer Turnaround Time) Location: Factory			DV: Log of Secondary Turnaround Time Location: Factory & Warehouse			DV: Log of Secondary Turnaround Time Location: Factory & Unemployment			DV: Log of Secondary Turnaround Time Location: From Location		
	(1)	(2)	(3)	(1)	(2)	(3)	(1)	(2)	(3)	(1)	(2)	(3)
<i>Intercept</i>	4.51**	4.17**	3.33**	7.98**	7.63**	7.77**	7.91**	6.91**	6.76**	5.60**	4.89**	4.56**
	(0.17)	(0.17)	(0.22)	(0.22)	(0.23)	(0.30)	(0.18)	(0.19)	(1.19)	(0.12)	(0.12)	(0.18)
<i>PPS</i>	1.01**	1.01**	1.11**	0.38**	0.41**	0.53**	NA	NA	NA	1.60**	1.01**	1.01**
	(0.02)	(0.02)	(0.03)	(0.02)	(0.02)	(0.03)				(0.04)	(0.04)	(0.02)
<i>ln(volume)</i>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09**	-0.09	-0.15**	-0.14**	-0.14**
	(0.01)	(0.01)	(0.01)	(0.01)	(0.01)	(0.02)	(0.01)	(0.01)	(0.03)	(0.01)	(0.01)	(0.01)
<i>ln(CBP)</i>	0.10**	0.11**	0.14**	-0.10**	-0.11**	-0.03	-0.09**	-0.07**	-0.16**	0.07**	0.07**	0.09**
	(0.01)	(0.01)	(0.01)	(0.01)	(0.01)	(0.02)	(0.01)	(0.01)	(0.07)	(0.00)	(0.00)	(0.01)
<i>Star1</i>		-0.21**	1.35**		-0.10**	-0.23		0.29**	-1.54**		-0.07**	0.36*
		(0.02)	(0.25)		(0.02)	(0.49)		(0.01)	(1.19)		(0.01)	(0.25)
<i>PPS*Star1</i>			-0.17**			-0.19**			NA			0.03
			(0.04)			(0.04)						(0.03)
<i>ln(volume)*Star1</i>			-0.01*			0.06**			-0.06*			-0.00
			(0.02)			(0.02)			(0.03)			(0.01)
<i>ln(CBP)*Star1</i>			-0.04**			-0.13**			0.29**			-0.04**
			(0.01)			(0.02)			(0.07)			(0.01)
<i>N</i>	19,949	19,949	19,949	5,940	5,940	5,940	5,187	5,187	5,187	10,076	10,076	10,076
<i>R<sup>2</sup></i>	0.18	0.19	0.19	0.11	0.13	0.16	0.06	0.08	0.09	0.22	0.22	0.23
<i>Adj. R<sup>2</sup></i>	0.18	0.19	0.19	0.11	0.13	0.15	0.06	0.08	0.08	0.21	0.22	0.23
<i>F-test</i>	1.382	1.083	626.7	32.3	251.9	193.4	172.2	154.7	97.16	2.745	2.069	1.196



## 4. Conclusion

### Contribution

#### ▪ Theoretical perspective

Contribute to literature on operations management using human factor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ly to measure an influence on inventory turnaround time.

we extend this stream of literature by distinguishing employees into performance, visibility, and related capital rather than finding the impact of the overall personality and style of the employees as previous studies have shown.

#### ▪ Managerial perspective

The findings of this study help companies that produce products in a way of MTO and MTS understand the different impact on inventory holding days regarding to the production planning system.

Further, by identifying factors that positively affect the inventory time at the divided locations specifically, it can be helpful in making decisions to reduce inventory turnaround time.



## 참고문헌

- Abou Elnaga, A., & Imran, A. (2014). The impact of employee empowerment on job satisfaction: theoretical study. *American Journal of Research Communication*, 2(1), 13-26.
- Adler, P. S., & Kwon, S. W. (2002). Social capital: Prospects for a new concep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 17-40.
- Aguinis, H., & O'Boyle, E. Jr. (2014). Star performers in twenty-first century organizations. *Personnel Psychology*, 67, 313-350. <http://dx.doi.org/10.1111/peps.12054>
- Akinci, U., & Meredith, J. R. (2015). Make to forecast: customization with fast delivery. *International Journal of Operations & Production Management*.
- Amihud, Y., & Medonelson, H. (1989). Inventory behaviour and market power: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7(2), 269-280.
- Arreola-Risa, A., & DeCroix, G. A. (1998). Make to order versus make to stock in a production-inventory system with general production times. *IEE Transactions*, 30(8), 705-713.
- Awadh, A. M., & Wan Ismail, W. (2012). The impact of personality traits and employee work related attitudes on employee performance with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the case of Saudi Arabia. *Asian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Sciences*, 1(10), 108-127.
- Azoulay, P., Zivin, J. S. G., & Wang, J. (2010). Superstar extinc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5, 549-589. <http://dx.doi.org/10.1162/qjec.2010.125.2.549>
- Beck, J. W., Beatty, A. S., & Sackett, P. R. (2003). On the distribution of job performance: The role of measurement characteristics in observed departures from normality. *Personnel Psychology*, 56, 531-566.
- Blattberg, R. C., Getz, G., & Thomas, J. S. (2001). 'Customer equity'.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Boston, MA.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pp. 241-258). Westport, CT: Greenwood.
- Call, M. L., Nyberg, A. J., & Thatcher, S. (2015). Stargazing: An integrative conceptual review, theoretical reconciliation, and extension for star employee researc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00(3), 623.
- Chaturvedi, A., Green, P. E., & Carroll, J. D. (2001). K-modes clustering. *Journal of classification*, 18(1), 35-55.
- Chen, H., Frank, M. Z., & Wu, Q. Q. (2005). What actually happened to the inventories of American companies between 1981 and 2000? *Management Science*, 51(7), 1015-1031.
- Chen, X. (2006). Customer satisfaction, customer bargaining power, and financial performanc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Clark, A. M. (1999). Employee preferences for training delivery modes. University of South Alabama.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http://dx.doi.org/10.1086/228948>
- Derouen, C., & Kleiner, B. H. (1994). New developments in employee training. *Work Study*.
- Eroglu, C., & Hoffer, P. (2011). Lean, leaner, too lean? The inventory performance link revisited.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29(4), 356-369.
- Eshleman, J. D., & Gup, P. (2014). The market's use of supplier earnings information to value customers. *Review of Quantitative Finance and Accounting*, 43(2), 405-422.
- Finkelstein, S. (1992). Power in top management teams: Dimensions, measurement, and valid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5, 505-538.
- Gnyawali D. R., Offstein E. H., Lau R. S. (2008). The impact of the CEO pay gap on firm competitive behavior.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33, 453-484.
- Gordon, B. (1992). Are Canadian firms under investing in training? *Canadian Business Economics* 11, 25-33.
- Granovetter, M.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1360-1380. <http://dx.doi.org/10.1086/225449>
- Burt, R. S.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oysberg, B., & Lee, L. E. (2010). Star power: Colleague quality and turnover.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9, 741-765. <http://dx.doi.org/10.1093/icc/dtp049>
- Groysberg, B., Lee, L. E., & Nanda, A. (2008). Can they take it with them? The portability of star knowledge workers' performance. *Management Science*, 54, 1213-1230. <http://dx.doi.org/10.1287/mnsc.1070.0809>
- Han, C., Dong, Y., & Dresner, M. (2013). Emerging market penetration, inventory supply, and financial performance.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22(2), 335-347.
- Hofman, D. (2004). The hierarchy of supply chain metrics: diagnosing your supply chain health. AMR Research Inc.



- Kang, S. C., Oldroyd, J. B., Morris, S. S., & Kim, J. (2018). Reading the stars: Determining human capital's value in the hiring process. *Human Resource Management*, 67(1), 55-64.
- Kehoe, R. R., Lepak, D. P., & Bentley, F. S. (2018). Let's call a star a star: Task performance, external status, and exceptional contributors in organizations. *Journal of Management*, 44(5), 1848-1872.
- Lee, S., & Lee, K. C. (2020). Comparative study of service quality on VIP customer satisfaction in Internet banking: South Korea case. *Sustainability*, 12(16), 6365.
- Mateur, S., & Chevaillat, T. (2018). Customer financing, bargaining power and trade credit uptake. *International Review of Financial Analysis*, 59, 147-162.
- Mather, H. (1988). *Competitive Manufacturing*. Prentice Hall, Salt Lake City, Utah.
- Meredith, J. R. and Shaler, S. M. (2007). *Operations Management for MBAs*, Wiley.
- Michlitsch, J. F. (2000). High performing, loyal employees: the real way to implement strategy. *Strategy & Leadership*.
- Nahapiet, J., & Ghoshal, S. (1998).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 242-266.
- Nassazi, A. (2013). Effects of training on employee performance: Evidence from Uganda.
- Niraj, R., Gupta, M. and Narasimhan, C. (2001) 'Customer profitability in a supply chain', *Journal of Marketing*, Vol.65, July, pp.1-36.
- Nyberg, A. J., Moltemo, T. P., Hale, D., & Lepak, D. P. (2014). Resource Based perspectives on unit level human capital: A review and integration. *Journal of Management*, 40, 316-346. <http://dx.doi.org/10.1177/0149206212468708>
- Oettl, A. (2012). Reconceptualizing stars: Scientist helpfulness and peer performance. *Management Science*, 58(9), 1-29.
- Oldroyd, J. B., & Morris, S. S. (2012). Catching falling stars: A human resource response to social capital's detrimental effect of information overload on star employe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7, 396-418. <http://dx.doi.org/10.5465/amr.2010.0403>
- Paradi, J. C., & Zhu, H. (2013). A survey on bank branch efficiency and performance research with data envelopment analysis. *Omega*, 41(1), 61-79.
- Papescu, A. M., & Bzilek, O. (2007). Extracting product features and opinions from review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text mining* (pp. 9-28). Springer, London.
- Porter, M. E. 1980. *Competitive Strategy*. New York: The Free Press.
- Reichheld, F. F. and Sasser Jr, W. E. (1990) 'Zero defections: Quality comes to services', *Harvard Business Review*, Vol.68, No.5, Sept-Oct, pp. 105-111.
- Reinartz, W. J. and Kumar, V. (2002) 'The mismanagement of customer loyalty', *Harvard Business Review*, Vol.80, No.7, July-Aug, pp. 86-94.
- Rosen, S. (1981). The economics of superstar: Repl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1, 845-858.
- Saleem, A. (2020). Automated inventory management systems and its impact on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in manufacturing firms of Pakistan. *Int J Supply Chain Manag*, 9, 220-231.
- Selbert, S., Kraimer, M., & Liden, R. (2001). A social capital theory of career succe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 219-237. <http://dx.doi.org/10.2307/3069462>
- Siegel P.A., Hambrick D. C. (2005). Pay disparities within top management groups: Evidence of harmful effects on performance of high technology firms. *Organization Science*, 16, 259-274.
- Silver, E. A. (1981). Operations research in inventory management: A review and critique. *Operations Research*, 29(4), 628-645.
- Silver, E.A., Pyke, D.F. and Peterson, R. (1998). *Inventory Management and Production Planning and Scheduling*, 3rd ed., Wiley, Hoboken, NJ.
- Solyali, O., Cordeau, J. F., & Laporte, G. (2016). The impact of modelling on robust inventory management under demand uncertainty. *Management Science*, 62(4), 1188-1201.
- Stoldt, F. H., Alpin, G., Di Mascio, M., & Rodriguez, C. M. T. (2015). Warehouse performance measurement: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Research*, 53(18), 5524-5544.
- Suleiman, M. A., Huo, B., & Ye, Y. (2021). Linking supplier JIT to flexibility performance: the moderating impact of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 empowerment. *Industrial Management & Data Systems*.
- Tan, K. C., Kannan, V. R., & Handfield, R. B. (1998). Supply chain management: supplier performance and firm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urchasing & Materials Management*, 34(3).
- Udenio, M., Hoberg, K., & Fransoo, J. C. (2018). Inventory agility upon demand shocks: Empirical evidence from the financial crisis.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62, 36-43.
- Vollmann, T.W., Berry, W.L., Whybark, D.C. and Jacobs, F.R. (2004). *Manufacturing Planning and Control for Supply Chain Management*, McGraw-Hill/Irwin, New York, NY.
- Holweg, M. and Pil, F.K. (2001). "Successful build to order strategies: start with the customer", *Sloan Management Review*, Vol. 42, Fall, pp. 74-83.
- Zedeck, Sheldon (1971). Problems with the Use of 'Moderator' Variables, *Psychological Bulletin*, 76(October), 295-310.
- Ziukov, S. (2016). A literature review on models of inventory management under uncertainty.



# Perceived Severity of and Vulnerability to COVID-19 and Consumers'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박수훈(동양미래대학교)

## Abstract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remote retail emerged as a feasible option for safe shopping. A significant increase in online and mobile sales has been reported based on secondary data, but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psychological and cognitive factors that systematically affect consumers' behavioral intention of shopping online. This study explores specifically the effects of the perceived severity of and vulnerability to COVID-19 on consumers' intention to use online or mobile shopping. We also included consumers'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as a mediator and subjective norm as a control factor for their intention to shop remotely.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consumer survey and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indicate that perceived severity significantly affects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but does not directly affect online shopping intention. Additionally, the effect of perceived severity on intention to shop online is mediated by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In contrast, perceived vulnerability negatively affects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and remote shopping intention, implying that not all the consumers are willing to shop online even under the threat of COVID-19.

Keywords: perceived severity, perceived vulnerability, self-isolation, online/mobile shopp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1. Introduction

In December 2019, a new respiratory disease called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was detected in Wuhan, China (Xu et al., 2020). Owing to the rapid spread of COVID-19 globall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eclared it a pandemic in March 2020. The spread of the virus has significantly affected people's lives worldwide. As consumers became reluctant to engage in social contact during the pandemic, online retailers' sales escalated significantly (Chang & Meyerhoefer, 2021; Watanabe & Omori, 2020). While consumers spent \$145.47 billion online in the U.S. from July to September 2019, they spent \$199.44 billion during the same period in 2020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20). An increase in online shopp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as been reported in Japan (Watanabe & Omori, 2020) and Taiwan as well (Chang & Meyerhoefer, 2021).

The literature on human behavior during social crises and threats indicates that public healthcare emergencies impact humans' psychological states and lifestyles (Del Valle et al., 2013). These studies have evolved in the fields of psychology and healthcare and aim to comprehend the changes in human behavior with the intent of applying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However,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studies that scrutinize how consumers' perceptions of healthcare emergencies interfere with their choice of retail channels are scant. Specifically, we conjecture that 1) perceived severity of and perceived vulnerability to COVID-19 stimulate consumers' behavioral intention to use remote retail channels; 2) the causal associations between perceived severity and vulnerability and consumers' intention to shop online are mediated by consumers'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and 3) the magnitude of the causal linkages stated above is controlled by the direct effect of subjective norms. Perceived severity refers to an individual's appraisal of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an event whereas

perceived vulnerability is the individual's projection of the likelihood of being affected by the event (Ling et al., 2019). Perceived severity and perceived vulnerability were adopted as latent constructs to represent consumers' overall fear of COVID-19 (e.g., Siddiqi et al., 2022). Subjective norms are the perceived social or organizational pressures indicating whether other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ould or would not support an individual's particular behavior (Rhodes & Courneya, 2003; Schepers & Wetzels, 2007).

To address these research questions, we analyzed consumer survey data collected in the United States using two-stag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perceived severity significantly affects an individual's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but does not directly affect their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In contrast, perceived vulnerability negatively affects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and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is an essential mediator that rationalizes consumers' intention to use remote retail services. We also provide empirical evidence that there is a group of consumers who have become accustomed to the threat of COVID-19, and these consumers may be unwilling to shop online. Our findings can provide new insights into consumer behavior during the pandemic and guidelines for online retailers pertain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emporary merchandising strategies during pandemics.

The remainder of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The next section presents a literature review of human behavior during pandemics and its theoretical foundations. We then elaborate on each construct and develop research models and hypotheses in Section 3. Our research method is described in Section 4, and Section 5 presents the empirical results and their managerial implications. The paper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f it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 2. Literature review

### 2.1 Human behavior during pandemics

Prior to COVID-19, several epidemics such as swine flu, Ebola, SARS, and MERS have occurred, significantly altering human lifestyle in response to these threats (Del Valle et al., 2013). During a pandemic, people tend to implement preventive measures to reduce the risk of infection (Ferguson, 2007; Timpka et al., 2014). Perceived fear of epidemic diseases shows a positive association with behavioral changes, such as more frequent handwashing and surface cleaning, but a lack of public trust in officials has a negative association with behavioral changes (Rubin et al., 2009). Studying human behavior during the outbreak of the Ebola virus disease (EVD), Gamma et al. (2017, 2020) found that social beliefs, general health knowledge, and social norms influence individuals' intentions to perform preventative behaviors.

The recent COVID-19 outbreak has dramatically interrupted the lives of human beings. The WHO recommends three preventive measures: (1) washing hands often with soap, (2) avoiding touching the face, and (3) social isolation (WHO, 2020). Among the suggested measures, isolation is considered the most effective because the virus is transmitted primarily through human-to-human contact. Accordingly, most countries have adopted quarantine measures, including restrictions on movement, limits on social events and gatherings, and the temporary closure of businesses and academic institutions (Anderson et al., 2020; Chinazzi et al., 2020; Farooq et al., 2020).

Isolation during a pandemic can be voluntary. Laato et al. (2020b) calls an individual's voluntary reduction in social contact "self-isolation". An individual's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correlates with their fear of the pandemic (Laato et al., 2020b), and plentiful online information may increase the desire to self-isolate (Farooq et al., 2020). Individual preventive

measures are taken not only to secure personal safety but also to protect others who are more vulnerable (Betsch, 2020). The salience of contagious diseases motivates consumers to self-isolate and increases their relative preference for atypical products because purchasing atypical products lowers the likelihood of being associated with other consumers (Huang & Sengupta, 2020).

Consumer behavior has also changed during the pandemic. Perceived severity and cyberchondria significantly raise consumers'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and encourage them to make unusual and unplanned purchases (Laato et al., 2020b). A notable change in consumer behavior is the increase in online and mobile shopping (Erjavec & Manfreda, 2022; Guthrie et al., 2021). Watanabe and Omori (2020) reported an increase in online consumption in Japan during the pandemic. Chang and Meyerhoefer (2021) found that online food shopping in Taiwan also increased during the pandemic. Galoni et al. (2020) propose that potential exposure to contagious diseases can induce feelings of disgust and fear, which in turn may lead to consumers' avoidance of actual threats and preference for familiar products. Consumers' mixed emotional responses may stem from their desire for comfort during the pandemic. Perceived severity of COVID-19 may cause "conformity consumer behavior", where an individual takes on others' consumption patterns as guidelines for their own preferences (Li et al., 2021).

## **2.2. Theoretical foundation**

To establish hypothesized causalities among the constructs, we adopt two relevant theories: the health belief model (HBM) and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PMT). The purpose of these two theories is to identify the psychological factors that influence behavioral intentions. A group of social psychologists developed the HBM in the early 1950s to understand why people did not accept certain preventive measures or screening tests to detect disease (Rosenstock, 1974). The



HBM deals with the impact of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cognitive factors, such as perceived severity, susceptibility, and benefits. The underlying assumption is that these cognitive factors affect intention to engage in health-promoting behaviors (Rosenstock, 1974). In addition, the model includes internal (e.g., pain) and external (e.g., information from media) cues that promote behavioral intention (Bish & Michie, 2010).

The other theory, PMT, was developed to comprehend human behavior associated with healthcare issues and to provide a rationale for protective behaviors (Rogers, 1975). The main point of PMT is that people's perceived fear significantly affects their intention to engage in protective behaviors. Specifically, an individual's perception of threat and ability to cope influence their behavioral intentions. Perception of threat consists of both perceived severity and vulnerability. In other words, if people consider an event serious and themselves as vulnerable to it, they will interpret this event as a critical threat. One's ability to cope involves building resilience and consists of response efficacy and self-efficacy. Response efficacy refers to individuals' 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recommended health behaviors, whereas self-efficacy refers to the belief that one can perform these recommended behaviors (Bish & Michie, 2010; Susanto et al., 2016).

### **3.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Based on both the HBM and PMT, we employ perceived severity and perceived vulnerability to surrogate consumers' perceived fear, the main driver of our conceptual framework. In general, the literature confirms that perceived severity and vulnerability are critical determinants of health-promoting behaviors during pandemics (Laato et al., 2020a; Farooq et al., 2020; Bish & Michie, 2010). Perceived severity signifies the magnitude of the threat with respect to potential

damage to welfare (Campbell et al., 2020), and it can be measured by scales such as infection rate and mortality of patients with a pre-existing condition (Janz & Becker, 1984; Ling et al., 2019). Perceived severity induces self-protection behaviors. For example, people washed their hands more frequently when swine flu became prevalent (Rubin et al., 2009). Similarly, people were more likely to wear masks when they recognized the severity of SARS and MERS (Lau et al., 2004). In this study, we focus on the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as a preventive measure against perceived severity. As proximal contact with other consumers can increase the risk of infection, individuals may be willing to maintain social distance, reduce social contacts, and avoid visiting and traveling to crowded places. Therefore, we propose the following hypothesis:

**H1a.** *Perceived severit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We extend PMT into the IT acceptance perspective. Chenoweth et al. (2009) reported that PMT could be applied to IT acceptance and showed that perceived severity and vulnerabilit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use anti-spyware software. Similarly, Johnston and Warkentin (2010) showed that perceived severity affects the adoption of information security program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eople tend to avoid infection risks, and technological advances can assist consumers' avoidant behavior. Online and mobile shopping platforms provide remote and contactless shopping environments, reducing unnecessary human encounters. Thus, we propose the following hypothesis:

**H1b.** *Perceived severit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Perceived vulnerability in this study is associated with respondents' subjective judgement about the risk of infection in their daily lives. In practice, certain professions are extensively exposed to contagious diseases because of intrinsic requirements that necessitate human contact.



For example, commuters who regularly use public transportation and service workers who constantly work in public-facing roles are more vulnerable to infection. In this context, perceived vulnerability can manifest in the level of infection risk given that the main source of COVID-19 infection is human contact. The literature proposes that perceived vulnerability influences behavioral intention and may induce protective behavior (Jones & Salathe, 2009), implying that people who are constantly exposed to the virus would avoid unnecessary social contact as a protective behavior. Nonetheless, the causal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vulnerability and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is a genuine empirical question that has not been extensively assessed. Thus, we test the following hypothesis:

**H2a.** *Perceived vulnerabilit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In addition to perceived severity, perceived vulnerability affects acceptance of technology. As previously mentioned, perceived vulnerability affects the usage of anti-spyware software (Chenoweth et al., 2009). Ng et al. (2009) also show that perceived vulnerability significantly affects the adoption of computer security programs. Accordingly, it is reasonable to hypothesize that perceived vulnerability would affect not only the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but also the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us, we propose the following hypothesis:

**H2b.** *Perceived vulnerabilit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Social isolation is the most effective preventive measure for any contagious disease. According to Wilder-Smith and Freedman (2020), there are four types of isolation measures: (1) isolation, (2) quarantine, (3) social distancing, and (4) community containment measures. Isolation is the separation of infected and non-infected people. Quarantine is a temporary

restriction of movement. Social distancing is a measure to reduce interaction between people and maintain a safe degree of separation from others. Finally, community containment is the expansion of social distancing to an entire community, and it is usually enforced by the law. Based on the literature, we define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as an individual's voluntary restriction of social contacts such as canceling social gatherings and travel plans (Laato et al., 2020b).

To comprehend people's use of online and mobile shopping, situational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Avery, 1996; Wolfinbarger & Gilly, 2001). Among the various situational factors, immobility is crucial. According to Avery (1996), people who cannot visit brick-and-mortar stores due to disease or other immobilizing factors usually purchase products onlin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eople's intention to self-isolate led to voluntary movement restrictions. Thus, we propose the following hypothesis:

**H3.**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In the context of technological acceptance, subjective norms show how external pressures affect an individual's usage of specific technologies. In this study, a subjective norm is defined as the impact of pressure from influential people on an individual's intention to use remote retail. The extant literature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subjective norms significantly affect the intention to use various technologies and services. For example, subjective norms affect individuals' intention to use Google Cloud (Lucia-Palacios et al., 2016), food delivery services (Roh & Park, 2019), and mobile payment services (Kapoor et al., 2015). If influential people recommend online or mobile shopp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is recommendation would affect individual consumers' intention to shop online. Therefore, we propose the



following hypothesis:

- H4.** *The subjective norm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Integrating all the research hypotheses, we illustrate research Models A and B in Figures 1 and 2, respectively.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paths and hypotheses is specified in these figures. Notably, the causal linkage between subjective norm and intention to use online or mobile shopping is independent of the paths among the four constructs (perceived severity, perceived vulnerability,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and intention to shop online). This framework indicates that subjective norm plays the role of a control variable for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creating an arborescent network structure for the entir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refore, we adopted a two-stage approach to ensure the technical validity of adding *subjective norm* to Model A. In other words, we conducted a model comparison test, given that Model A is nested in Model B.

*[Figures 1 and 2 near here]*

#### 4. Research method

The final research model (Model B) consists of five latent constructs, each consisting of multiple measurement items. Most of the items were adopted from the literature, while some were original creations developed to reflect the nature of the COVID-19 pandemic. Seven-point Likert scales were used for all survey instruments. The developed instruments were pretested and revised, and the finalized items and their original sources are shown in Appendix A.

An online survey using Amazon Mechanical Turk was conducted to collect data. Data collection was based on a mandatory response survey, so there were few missing values. We

received 592 responses but dropped those that were completed with the same number for most survey questions or that were submitted in less than three minutes. In addition, we filtered responses containing contradictory answers using reversed items. As a result, 447 valid responses remained from the initial 592. The respondents' demographic profiles are summarized in Table 1. About half of the respondents (45%) had used online or mobile shopping for more than a year, and the other 54% had used these platforms for less than a year. IBM SPSS and AMOS program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able 1 near here]**

We conducted a chi-square difference test using the chi-square values ( $\chi^2$ ) and the degrees of freedom ( $df$ ) from Models A and B to determine if one model was significantly superior to the other with respect to model fit and effect size. The  $\chi^2$  and  $df$  of Model A were 276.547 and 96, respectively, while those of Model B were 388.815 and 141, respectively. Therefore, the differences in  $\chi^2$  and  $df$  between the models are 112.268 and 45, respectively. We decided whether the differences were of practical magnitude using Cohen's effect size measure  $w$ , where  $w = \sqrt{\Delta\chi^2 / (N \cdot \Delta df)}$ ,  $\Delta\chi^2$  and  $\Delta df$  are the differences in  $\chi^2$  and  $df$  of the two models, and  $N$  is the sample size. Cohen's effect size ( $w$ ) is estimated to be negligible at 0.075, so we concluded that the fits of the two models do not significantly differ based on Cohen's criteria (1988).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addition of subjective norm to Model A did not impair the level of model fit. In fact, Model B turned out to have better statistics than Model A.

## 5. Analytical results

One of the drawbacks of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is the possibility of common method bias (Chang et al., 2010). Researchers should especially check for common method bias when

the same respondents measure both the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Podsakoff & Organ, 1986). Therefore, Harman's single-factor test was perform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largest variance extracted by one factor was 31.79%, which was less than the recommended value of 50% (Podsakoff & Organ, 1986). Thus, we conclude that common method bias is not a significant problem in this study. The two-step SEM approach was then adopted as recommended by Anderson and Gerbing (1988), and the measurement model was examined to evaluate its validity and reliability. After confirming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measurement model, the structural model was examined to assess its fitness and test the research hypotheses.

### **5.1 Measurement model**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ies were evaluated to secure the overall construct validity. Convergent validity measures whether all items within a factor are correlated with one another, fortifying the construct's unidimensionality, whereas discriminant validity measures whether two factors are statistically different. First, we examined convergent validity and reliability via standardized item loadings,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composite reliability (CR), and Cronbach's alpha. Hair et al. (2010) recommend that factor loadings be higher than 0.5, preferably 0.7 or higher. As shown in Table 2, all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for the measurement model are larger than the threshold value of 0.5, and most of them exceed the preferred value of 0.7. In addition, all AVEs, CRs, and alpha values are greater than 0.5, 0.7, and 0.7, respectively. Overall, these statistics indicate that the measurement model of this study provides an acceptable level of convergent validity and technical reliability (Gefen et al., 2000).

We compared the square roots of the AVEs and factor correlation coefficients to examine discriminant validity. As presented in Table 3, for each factor, the square root of AVE is larger than its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other factors. The results suggest that discriminant validity



is well secured among constructs (Gefen et al., 2000).

**[Tables 2 & 3 near here]**

## **5.2 Structural model**

Table 4 shows the recommended and real values of the fit indices for both the measurement and structural models. Except for the NFI, all other fit indices satisfied the recommended values.

Unlike Model A, the measurement model and Model B satisfied the cut-off criteria for all model fit indices. The improvements in the model fit indices for Model B can be attributed to its larger degrees of freedom and an increase in  $R^2$  owing to the addition of subjective norm. Overall, the listed values of the fit indices suggest that Model B is a solid and dependable model, conforming to the technical standards of SEM (Gefen et al., 2000).

The statistical results of the SEM analysis are summarized in Table 5 and Figure 3. As Table 5 shows, the standardized coefficients for all paths are consistent between Models A and B. The results in Table 4 indicate that all the coefficien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0.05 (i.e.,  $p < 0.05$ ), except the coefficient for H1b. Although the coefficients for H2a and H2b are significant, the coefficient values are negative rather than positive, indicating that a higher level of vulnerability leads to lower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and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The analysis results specifically indicate that H1a (perceived severity and self-isolation), H3 (self-isolation and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and H4 (subjective norm and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are supported in this study. The  $R^2$  values for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and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are 0.54 and 0.55, respectively, as indicated in Figure 3.

**[Tables 4 and 5 near here]**

**[Figure 3 near here]**



Given that the direct effect of perceived severity on the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is insignificant,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causality is mediated through self-isolation (Baron & Kenny, 1986). Thus, we conducted a set of mediation tests, using the Sobel test (Sobel, 1982) and bootstrapping (Preacher & Hayes, 2008), to highlight the role of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as a mediator. The test results are presented in Table 6. As shown in Table 2, both the Sobel and bootstrapping tests confirm that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is a significant mediator between perceived severity and vulnerability and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Table 6 near here]

## 6. Discussion

The results in Table 5 and Figure 3 show how perceived severity and perceived vulnerability affect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and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H1a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everity and the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while H1b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everity and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As expected, we found a positive association ( $\beta = 0.79, p < 0.01$ ) between perceived severity and self-isolation. When consumers consider COVID-19 severe, they tend to self-isolate and regulate their social contact. However, perceived severity was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effect ( $\beta = 0.14, p > 0.05$ ) on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The results indicate that even though people perceive the COVID-19 pandemic as a serious threat, this perception alone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an increase in consumers' remote shopping intention. Instead, when perceived severity accelerates the degree of self-isolation, this increased level of self-isolation can also increase consumers'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In this

context, the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a preventive measure to evade contagious diseases) is an important prerequisite for the use of online and mobile shopping during the pandemic.

By testing H2a and H2b, we investigated how perceived vulnerability affects self-isolation and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respectively. The path coefficients for both hypotheses are significant, but the directions of the association are opposite to those specified in the research hypotheses. Specifically, perceived vulnerability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self-isolation ( $\beta = -0.20^{**}, p < 0.01$ ) and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 $\beta = -0.15^{**}, p < 0.05$ ). These results are counterintuitive, and previous literature provides mixed findings. While some studies support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vulnerability and preventive behaviors (Cummings et al., 1979; McCusker et al., 1989) while others have found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constructs (Becker et al., 1977; Joseph et al., 1987; Langlie, 1977; Rogers & Mewborn, 1976). For instance, Rogers and Mewborn (1976) stated that people do not execute recommended preventive actions because they perceive these actions as ineffective resolutions.

The negative associations found in this study can be attributed to the nature of self-isolation as a preventive measure against COVID-19. For a certain group of consumers, it is challenging to change their pattern of daily life, often determined by their occupation. These consumers must stay in their workplace or conditions that make them highly vulnerable to COVID-19 and may not be able to reduce the magnitude and scope of their exposure to others. For example, commuters who inevitably use public transportation, athletic coaches who need to communicate physically, and doctors and nurses who must perform medical procedures on their patients may judge that self-isolation is not a viable option for them to reduce their risk of infection. These unavoidable vulnerabilities seem to not only lower motivation to self-isolate but



also demotivate consumers from purchasing online.

The test of H3 indicated that self-isolation significantly affects the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According to Avery (1996), movement restrictions due to illness or other immobilizing factors result in online shopping. Likewise, people's movements have been restricted both voluntarily and involuntaril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our findings indicate that degree of self-isolation is indeed a critical determinant of online shopping.

In the test of H4, we investigate the potential association between subjective norm and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mainly because the extensive use of online shopping during the pandemic could be due to herd behavior. As shown in Table 4, however, the addition of subjective norm to Model A does not undermine the significance of the path coefficients, confirming that perceived severity and vulnerability and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are undeniably influential factors in consumers' intention to shop online. These effects can be synergized into the concept that social pressures affect consumers' intentions to engage in online or mobile shopping.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and practice in several ways. First, while most survey items were adapted from previous research, we developed measurement items customized for perceived vulnerability, reflecting the nature of the COVID-19 pandemic. We provided specific situations entailing social contact (e.g., frequent face-to-face communication or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to incorporate the specific risks that may commonly arise during the pandemic.

From a managerial perspective, our findings provide guidelines for both online and offline retailers. First, self-isolation to reduce social contact is strongly associated with consumers' behavioral intentions toward online and mobile shopping. Therefore, online retailers'

promotional efforts should be aimed at professionals who can afford to stay home or work remotely (e.g., home office workers, private educators, financial analysts, etc.) because they have been a rising consumer segment in the remote retail industry during COVID-19. Marketing campaigns through television networks, the Internet, and mobile platforms may be more effective for this segment than billboard advertisements and physical displays on subways or at bus stops. Second,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at not all consumers can self-isolate. The negative associations between perceived vulnerability and self-isolation and between perceived vulnerability and the intention to shop online suggest that consumers can become psychologically immune to certain threats in their daily routines. The results also indicate the possibility that such consumers may be unwilling to change their shopping habits and became less motivated to shop online during the pandemic. Online or mobile retailers are not perfect substitutions for offline retailers and should play the role of complementary service providers. The findings also suggest that from a risk-hedging standpoint, an omni-channel approach is a practical means to contemporary retailing, which is susceptible to various sources of supply chain disruptions, including pandemics. Third, word-of-mouth and social pressure are important triggers for consumers' remote shopping behavior. The survey for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during the peak of COVID-19. Thus, it is reasonable to expect that information dissemination among consumers about positive remote shopping experiences could also be leveraged by negative word-of-mouth on COVID-19. Thus, online and mobile retailers should be cautious about responding to recent changes in consumer behavior because they may be temporary.



## 7. Conclusion

Extant studies indicate that the use of online and mobile shopping has sharply increas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owever, few researchers have focused on the psychological and cognitive factors that systematically affect consumers' behavioral intention of shopping onlin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effects of perceived severity and vulnerability as drivers of the model,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as a mediator, and subjective norm as a control factor. The empirical results provide general evidence that all four constructs influence consumers'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The effect size of causality between perceived severity and vulnerability and intention to use online or mobile devices could be contingent upon the intensity of consumers' self-isolation behavior.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that may open the door for future research. First, the data were collected in the United States, and caution must be exercised when applying our findings to other countries. The degree of perceived fear of COVID-19 may vary among countries. Therefore, future research including samples from multiple countries will strengthen this study's findings. Second, due to the dynamic nature of COVID-19, these research findings may be temporary. Therefore, future studies that use longitudinal data to investigate changes over time could lead to deeper findings. Third, the current study relies on consumers'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perceived severity and perceived vulnerability; however, other hard scales such as vaccination rates may interfere with the outcome of the present study. Investigating these scales may lead to more sophisticated empirical results.

## References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nderson, R. M., Heesterbeek, H., Klinkenberg, D., & Hollingsworth, T. D. 2020. How will country-based mitigation measures influence the course of the COVID-19 epidemic? *Lancet*, 395(10228): 931–934.
- Avery, R. J. 1996. Determinants of search for nondurable goods: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theory.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0(2): 390–40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cker, M. H., Nathanson, C. A., Drachman, R. H., & Kirscht, J. P. 1977. Mothers' health beliefs and children's clinic visits: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Community Health*, 3(2): 125–135.
- Betsch, C. 2020. How behavioural science data helps mitigate the COVID-19 crisis. *Nature Human Behaviour*, 4(5): 438.
- Bish, A., & Michie, S. 2010. Demographic and attitudinal determinants of protective behaviors during a pandemic: A review.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5(4) : 797–824.
- Campbell, M. C., Inman, J. J., Kirmani, A., & Price, L. L. 2020. In times of troubl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onsumers' responses to threa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7(3): 311–326.
- Chang, H. H., & Meyerhoefer, C. D. 2021. COVID-19 and the demand for online food shopping services: Empirical Evidence from Taiwa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103(2): 448–465.
- Chang, S. J., van Witteloostuijn, A., & Eden, L. 2010. From the editors: Common method variance in international business research.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1(2): 178–184.
- Chenoweth, T., Minch, R., & Gattiker, T. 2009. Application of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to adoption of protective technologies. *Proceedings of the 42nd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1-10.
- Chinazzi, M., Davis, J. T., Ajelli, M., Gioannini, C., Litvinova, M., Merler, S., & Vespignani, A. 2020. The effect of travel restrictions on the spread of the 2019 novel coronavirus (COVID-19) outbreak. *Science*, 368(6489): 395-400.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ummings, K. M., Jette, A. M., Brock, B. M., & Haefner, D. P. 1979.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immunization behavior in a swine influenza campaign. *Medical Care*, 17(6): 639-649.
- Del Valle, S. Y., Mniszewski, S. M., & Hyman, J. M. 2013. Modeling the impact of behavior changes on the spread of pandemic influenza. In: Manfredi P., D'Onofrio A. (eds) *Modeling the Interplay Between Human Behavior and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Springer, New York, 59-77.
- Erjavec, J., & Manfreda, A. 2022. Online shopping adoption during COVID-19 and social isolation: Extending the UTAUT model with herd behavior.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65: 102867.
- Farooq, A., Laato, S., & Islam, A. N. 2020. Impact of online information on self-isolation inten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22(5): e19128.
- Ferguson, N. 2007. Capturing human behaviour. *Nature*, 446(7137): 733-733.
- Galoni, C., Carpenter, G. S., & Rao, H. 2020. Afraid and disgusted: consumer choices under the threat of contagious diseas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7(3): 373-392.
- Gamma, A. E., Slekiene, J., von Medeazza, G., Asplund, F., Cardoso, P., & Mosler, H. J. 2017. Contextual and psychosocial factors predicting Ebola prevention behaviours using the RANAS approach to behaviour change in Guinea-Bissau. *BMC Public Health*, 17(1): 446.
- Gamma, A. E., Slekiene, J., & Mosler, H. J. 2020. The impact of various promotional activities on Ebola prevention behaviors and psychosocial factors predicting Ebola prevention behaviors in the Gambia evaluation of Ebola prevention promotions.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6(11): E2020.
- Gefen, D., Straub, D. W., & Boudreau, M. C. 200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regression: Guidelines for research practice.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4(7): 1-70.
- Guthrie, C., Fosso-Wamba, S., & Arnaud, J. B. 2021. Online consumer resilience during a pandemic: An exploratory study of e-commerce behavior before, during and after a COVID-19 lockdown.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61: 102570.
- Hair, J. F., Jr.,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 Huang, Y., & Sengupta, J. 2020. The influence of disease cues on preference for typical versus atypical produc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7(3): 393-411
- Janz, N. K., & Becker, M. H. 1984. The health belief model: A decade later. *Health Education Quarterly*, 11(1): 1-48.
- Johnston, A. C., & Warkentin, M. 2010. Fear appeals and information security behaviors: An empirical study. *MIS Quarterly*, 34(3): 549-566.
- Jones, J. H., & Salathe, M. 2009. Early assessment of anxiety and behavioural response to novel swine-origin influenza A(H1N1). *PLoS One*, 4(12): e8032.
- Joseph, J. G., Montgomey, S. B., Emmons, C. A., Kirscht, J. P., Kessler, R. C., Ostrow, D. G., & Eshleman, S. 1987. Perceived risk of AIDS: Assessing the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consequences in a cohort of gay me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7(3): 231-250.
- Kapoor, K. K., Dwivedi, Y. K., & Williams, M. D. 2015. Examining the role of three sets of innovation attributes for determining adoption of the interbank mobile payment service. *Information Systems Frontiers*, 17(5): 1039-1056.
- Laato, S., Islam, A. N., Islam, M. N., Whelan, E. 2020a. What drives unverified information sharing and cyberchondri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29(3): 288-305.
- Laato, S., Islam, A. N., Farooq, A., & Dhir, A. 2020b. Unusual purchasing behavior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COVID-19 pandemic: The stimulus-organism-response approach.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57: 1-12.
- Langlie, J. K. 1977. Social networks, health beliefs,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8(3): 244-260.
- Lau, J. T., Yang, X., Tsui, H. Y., & Pang, E. 2004. SARS related preventive and risk behaviours practised by Hong Kong-mainland China cross border travellers during the outbreak of the SARS epidemic in Hong Kong.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8(12): 988-996.
- Lee, M. C. 2009. Factors influencing the adoption of internet banking: An integration of TAM and TPB with perceived risk and perceived benefit.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and Applications*, 8(3): 130-141.
- Li, J., Jin, X., Zhao, T., & Ma, T. 2021. Conformity consumer behavior and external threats: An empirical analysis in Chin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AGE Open*, July, 1-16.
- Li, J. B., Yang, A., Dou, K., & Cheung, R. Y. 2020. Self-control moderates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severity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and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the Chinese public.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3): 4820.

Ling, M., Kothe, E. J., & Mullan, B. A. 2019. Predicting intention to receive a seasonal influenza vaccination using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Social Science & Medicine*, 233: 87–92.

Lucia-Palacios, L., Pérez-López, R., & Polo-Redondo, Y. 2016. Enemies of cloud services usage: Inertia and switching costs. *Service Business*, 10(2): 447–467.

McCusker, J., Stoddard, A. M., Zapka, J. G., Zorn, M., & Mayer, K. H. 1989. Predictors of AIDS-preventive behavior among homosexually active men: A longitudinal study. *AIDS*, 3(7): 443–448.

Miri, S. M., Roozbeh, F., Omranirad, A., & Alavian, S. M. 2020. Panic of buying toilet papers: A historical memory or a horrible truth? Systematic review of gastrointestinal manifestations of COVID-19. *Hepatitis Monthly*, 20(3): e102729.

Ng, B. Y., Kankanhalli, A., & Xu, Y. C. 2009. Studying users' computer security behavior: A health belief perspective. *Decision Support Systems*, 46(4): 815–825.

Podsakoff, P. M., & Organ, D. W. 1986. Self-reports in organizational research: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Management*, 12(4): 531–544.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 879–891.

Rhodes, R. E., & Courneya, K. S. 2003. Investigating multiple components of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control: An examin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in the exercise domai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2(1): 129–146.

Rogers, R. W. 1975. A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of fear appeals and attitude change. *Journal of Psychology*, 91(1): 93–114.

Rogers, R. W., & Mewborn, C. R. 1976. Fear appeals and attitude change: Effects of a threat's noxiousness, probability of occurrence, and the efficacy of the coping respon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1): 54–61.

Roh, M., & Park, K. 2019. Adoption of O2O food delivery services in South Korea: The moderating role of moral obligation in meal prepa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7: 262–273.

Rosenstock, I. M. 1974. Historical origins of the health belief model. *Health Education Monographs*, 2(4): 328–335.

Rubin, G. J., Amlôt, R., Page, L., & Wessely, S. 2009. Public perceptions, anxiety, and

- behavioural change in relation to the swine flu outbreak: A cross-sectional telephone survey. *British Medical Journal*, 339: b2651.
- Schepers, J. & Wetzels, M. 2007. A meta-analysis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nvestigating subjective norm and moderation effect. *Information & Management*, 44(1): 90–103.
- Siddiqi, U. I., Akhtar, N., & Islam, T. 2022. Restaurant hygiene attributes and consumers' fear of COVID-19: Does psychological distress matter?.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67: 102972.
-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 Susanto, A., Chang, Y., & Ha, Y. 2016. Determinants of continuance intention to use the smartphone banking services: An extension to the expectation confirmation model. *Industrial Management & Data Systems*, 116(3): 508-525.
- Timpka, T., Spreco, A., Gursky, E., Eriksson, O., Dahlstrom, O., Stromgren, M., & Holm, E. 2014. Intentions to perform non-pharmaceutical protective behaviors during influenza outbreaks in Sweden: A cross-sectional study following a mass vaccination campaign. *PLoS One*, 9(3): e91060.
-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20). *The 3rd Quarter 2020 Retail E-Commerce Sales Report*. <https://www.census.gov/retail/index.html>. Accessed Nov. 15, 2020.
- Van, D., McLaws, M. L., Crimmins, J., MacIntyre, C. R., & Seale, H. 2010. University life and pandemic influenza: Attitudes and intended behaviour of staff and students towards pandemic (H1N1) 2009. *BMC Public Health*, 10(1): 130.
- Watanabe, T., & Omori, Y. 2020. Online consumption during the COVID-19 crisis: Evidence from Japan. *Covid Economics*, 38(16): 218-252.
- Wilder-Smith, A., & Freedman, D. O. 2020. Isolation, quarantine, social distancing and community containment: Pivotal role for old-style public health measures in the novel coronavirus (2019-nCoV) outbreak. *Journal of Travel Medicine*, 27(2): taaa020.
- Wolfenbarger, M., & Gilly, M. C. 2001. Shopping online for freedom, control, and fun.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3(2): 34-55.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WHO coronavirus disease (COVID-19) dashboard*. from <https://covid19.who.int/>. Accessed Oct. 5, 2020 and Nov 15, 2020
- Xu, Z., Shi, L., Wang, Y., Zhang, J., Huang, L., Zhang, C., & Wang, F. S. 2020. Pathological findings of COVID-19 associated with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Lancet Respiratory Medicine*, 8(4): 420-422.

Zhou, T. 2013. An empirical examination of continuance intention of mobile payment services. *Decision Support System*, 54(2): 1085-1091.

## **Ethics declarations**

## **Acknowledgement**

No funding was received for this study.

## **Conflict of interest**

On behalf of all authors, the corresponding author states that there is no conflict of interest.



## **Appendix A. Measurement scales and items**

*Perceived severity (PS)* (adapted from Farooq et al., 2020; Laato et al., 2020a; Li et al., 2020)

- PS<sub>1</sub>: The infection rate of COVID-19 seems to be severe.
- PS<sub>2</sub>: I am concerned with the mortality rate of COVID-19.
- PS<sub>3</sub>: COVID-19 can be a serious threat to someone like me.
- PS<sub>4</sub>: If I catch COVID-19, it will have major consequences on my life.

*Perceived vulnerability (PV)* (adapted from Farooq et al., 2020; Laato et al., 2020a)

- PV<sub>1</sub>: It is difficult to socially distance in my work environment.
- PV<sub>2</sub>: I have been feeling insecur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ecause my work involves human contact and face-to-face communication.
- PV<sub>3</sub>: I am vulnerable to COVID-19 because I work in an open environment (e.g., public places).
- PV<sub>4</sub>: I am uncomfortable because I have been frequently using public transport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PV<sub>5</sub>: I am at risk of catching COVID-19 in my everyday life.

*Self-isolation (SI)* (adapted from Farooq et al., 2020; Laato et al., 2020b; Van et al., 2010)

- SI<sub>1</sub>: I cancelled or postponed plans to meet friends, family, or others due to COVID-19.
- SI<sub>2</sub>: I am hesitant to visit public plac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g., shopping areas, cinemas, restaurants, and sports events).
- SI<sub>3</sub>: I have cancelled or postponed travel plans - domestic and international.

*Subjective norm (SN)* (adapted from Lee, 2009)

- SN<sub>1</sub>: People around me would think that I should use online or mobile shopp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SN<sub>2</sub>: People who influence me think that I should use online or mobile shopp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SN<sub>3</sub>: People around me who have used online or mobile shopp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ave influenced me to consider using them.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IU)* (adapted from Lee, 2009; Susanto et al., 2016; Zhou, 2013)

- IU<sub>1</sub>: I would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to purchase products and services.
- IU<sub>2</sub>: I would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more frequently.
- IU<sub>3</sub>: I intend to continue using online and mobile shopping.
- IU<sub>4</sub>: I would like to discontinue my use of online and mobile shopping (reversed item).



Table 1. Demographic profile of respondents.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
Gender	Male	281	62.9
	Female	166	37.1
Age	20–29	156	34.9
	30–39	181	40.5
	40–49	66	14.8
	Above 49	44	9.8
Marital status	Married	320	71.6
	Single	127	28.4
Household size	Single person	58	13.0
	Two-person	82	18.3
	Three-person	149	33.3
	Four-person or more	158	35.4
Online or mobile shopping experience	Less than a month	109	24.4
	Less than three months	58	13.0
	Less than six months	39	8.7
	Less than a year	36	8.0
	More than a year	201	45.0
	Never	9	0.9
No. of Observations (n)		447	100.0

Table 2. Standardized item loadings, AVE, CR, and Alpha values.

Factor	Item	Standardized loading	AVE	CR	Alpha value
Perceived severity (PS)	PS1	0.69	0.54	0.82	0.82
	PS2	0.78			
	PS3	0.71			
	PS4	0.75			
Perceived vulnerability (PV)	PV1	0.75	0.55	0.86	0.86
	PV2	0.74			
	PV3	0.86			
	PV4	0.69			
	PV5	0.67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SI)	IS1	0.76	0.51	0.76	0.76
	IS2	0.69			
	IS3	0.70			
Subjective norm (SN)	SN1	0.77	0.52	0.76	0.76
	SN2	0.75			
	SN3	0.64			
Intention to use online/mobile shopping (IU)	IU1	0.80	0.51	0.81	0.79
	IU2	0.65			
	IU3	0.74			
	IU4	0.67			

Table 3. Square root of AVE (shown as bold at diagonal) and factor correlation coefficients.

	AVE	PS	PV	SI	SN	IU
PS	0.539	<b>0.734</b>				
PV	0.552	0.405	<b>0.743</b>			
SI	0.511	0.665	0.126	<b>0.715</b>		
SN	0.517	0.564	0.249	0.668	<b>0.719</b>	
IU	0.513	0.437	-0.012	0.667	0.662	<b>0.716</b>

Note: PS = perceived severity, PV = perceived vulnerability, SI =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SN = subjective norm, IU = intention to use online or mobile shopping.

Table 4. Values of fit indices.

Fit indices	$\chi^2/df$	GFI	AGFI	CFI	NFI	NNFI	RMSEA
Recommended	$\leq 3.00$	$\geq 0.90$	$\geq 0.80$	$\geq 0.90$	$\geq 0.90$	$\geq 0.90$	$\leq 0.08$
Measurement model	2.73	0.92	0.89	0.93	0.90	0.92	0.06
Model A	3.02	0.90	0.87	0.91	0.87	0.89	0.07
Model B	2.76	0.91	0.88	0.93	0.90	0.92	0.07

Note:  $\chi^2/df$  is the ratio of chi-square to degrees of freedom, GFI is the Goodness of Fit Index, AGFI is the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CFI is the Comparative Fit Index, NFI is the Normed Fit Index, NNFI is the Non-Normed Fit Index, and RMSEA is the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able 5. Confirmation of hypotheses.

Hypotheses	Path	Std. coefficient		Indication
		Model A	Model B	
H1a	PS → SI	0.80**	0.79**	Supported
H1b	PS → IU	-0.14	-0.14	Not supported
H2a	PV → IU	-0.20**	-0.20**	Reversed
H2b	PV → IU	-0.15*	-0.15*	Reversed
H3	SI → IU	0.57**	0.48**	Supported
H4	SN → IU	N/A	0.51**	Supported

Note: \*,  $p < 0.05$ ; \*\*,  $p < 0.01$ ; n.s. = not significant. PS (perceived severity), PV (perceived vulnerability), SI (propensity for self-isolation), SN (subjective norm), IU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Table 6. Mediation effect test results.

Test	Path	Std. path coefficient	Std. Err	Mediation
Sobel test	PS → IS → IU	0.308**	0.068	Full
	PV → IS → IU	-0.051**	0.018	Partial
Bootstrapping (10,000 iteration)	PS → IS → IU	0.308**	0.097	Full
	PV → IS → IU	-0.051*	0.023	Partial

Note: \*,  $p < 0.05$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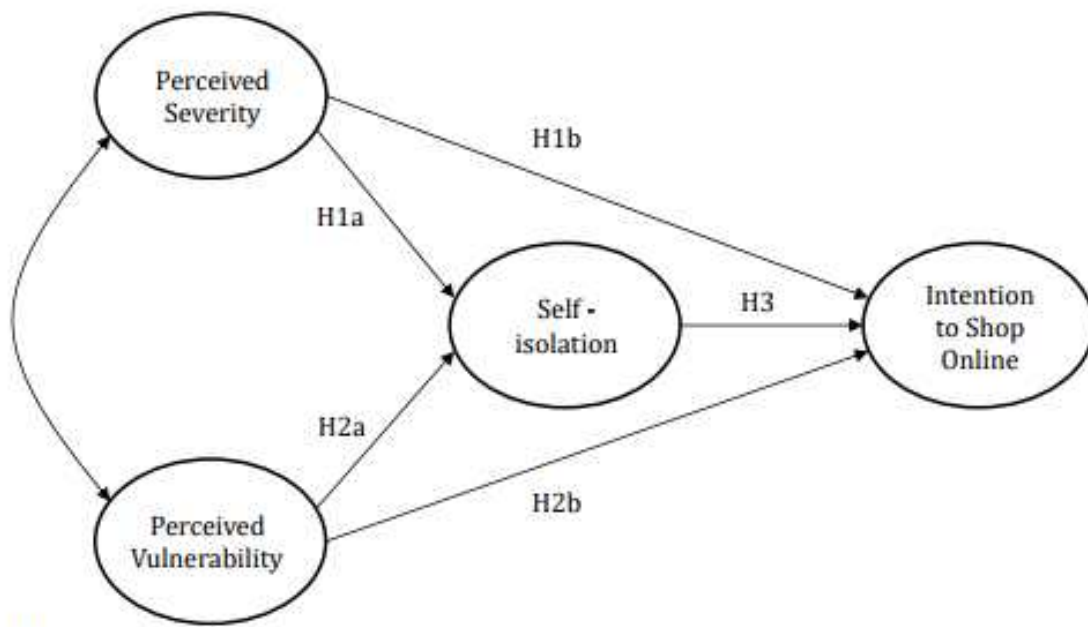


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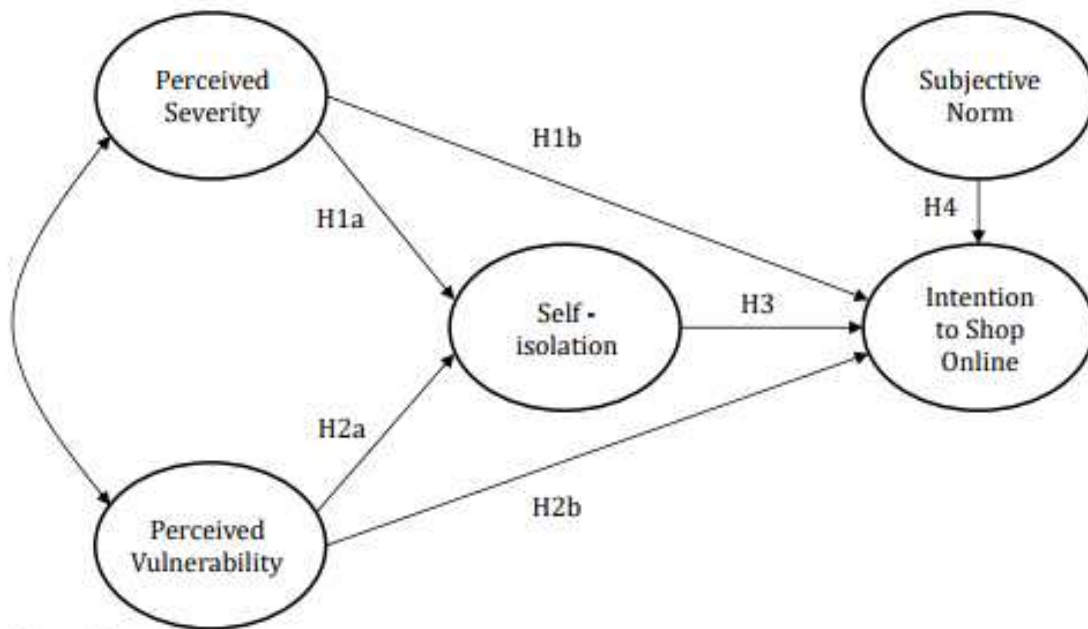


Figur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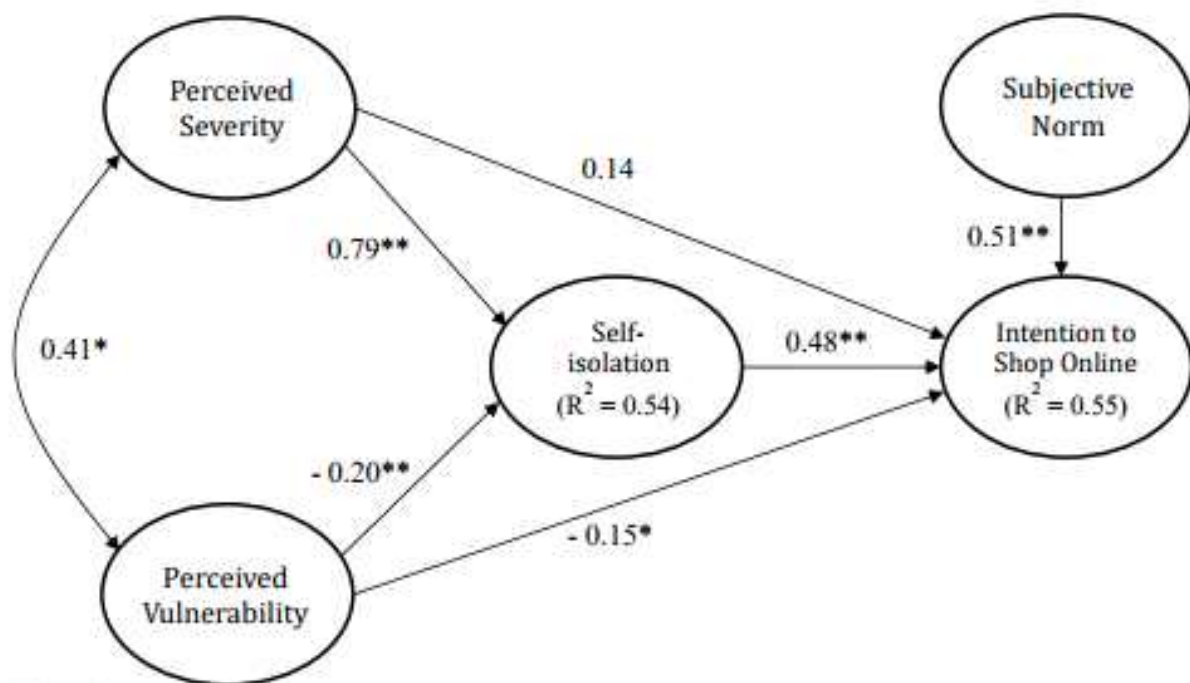


Figure 3  
Note: \*,  $p < 0.05$ ; \*\*,  $p < 0.01$

#### Figure captions

Figure 1. Research framework - Model A.

Figure 2. Research framework - Model B.

Figure 3. Finalized coefficients corresponding to the paths (hypotheses).

# **Legal Compliance of Chinese Viewers and Opportunism of Online Video Platforms**

Hojung Shin, a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

Cheng Hui, a Master Student at Korea University

Sangjoon Lee, an Assistant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 **Motivation**

### **❑ Rapid Development of Online Video Platforms in China**

- 759 million online video users as of June 2019, an increase of 33.91 million within a year
- Estimated Chinese online video industry: 156.6 billion yuan in 2020
- Number of subscribers is also increasing.

### **❑ Low Willingness-to-Pay for Digital Content**

- Illegal uploads without consent
- Inappropriate consumption of digital content

## Motivation

### ❑ Opportunism in Online Video Platfor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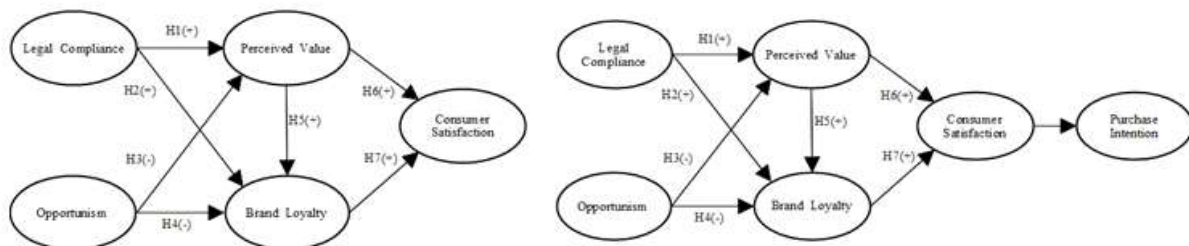
- Initiated premium service for revenue
- Forcing paid-users extra payment
- Automatic payment renewals without reminders lower user satisfaction

### ❑ Motivation of the Study

- Studies on the online VOD industry are scarce, especially on the spectrum of purchase intention on OVPs from the standpoint of piracy and copyright
- We attempt to understand the empirical relationships between legal compliance, opportunism, and purchase intention.

## Hypotheses in SEMs

### ❑ A nested model is developed for reliability and robustness of results.





## Data

### □ Online Survey in China using Tencent Questionnaire in 2020

- Questionnaires to Chinese citizens with bachelor's degrees or above
- The survey participants have experience with OVPs and afford to purchase premium services of Chinese OVPs.
- Online survey links to 750 OVP users and 613 of the users responded to our invitation.
- 530 valid questionnaires were obtained
- Prepared four alternative versions of questionnaires in which the order of survey instruments can be altered while sustaining the main logical flows.
- Conducted a series of pairwise t-tests and foun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st instruments.

## Constructs and Measurement Items

Construct	Item	Measurement	Literature
Legal Compliance	LC1	Watching, downloading, and sharing movies through P2P software is illegal.	Liao, 2019; Lysonski & Durvasula, 2008; Plowman & Goode, 2009; Wang et al., 2013; Weijters et al., 2014
	LC2	I do not download pirated copies of videos.	
	LC3	I do not share movies through P2P software with my friends.	
	LC4	I am willing to advise my friends to watch videos on regular video websites.	
Opportunism	OP1	The video website advertises certain features without offering them.	Chandra, Srivastava & Theng, 2010; Chiou & Shen, 2006; Hsieh, 2012
	OP2	The video website tends to conceal the details of the contract.	
	OP3	Automatic renewal is shown in the small size fonts in the contract.	
	OP4	After purchasing premium service, hidden advertisements still pop up in the videos.	
Perceived Value	PV1	Given the price of premium service, my purchase here seems a good deal.	Chang & Wildt, 1994; Cronin et al., 2000; Kim et al., 2012; Ponte, Carvajal-Trujillo & Escobar-Rodriguez, 2018; Tung, 2004
	PV2	Despite my effort to subscribe to premium service, my purchase here is worthwhile.	
	PV3	I made a right decision to buy premium service.	
	PV4	Premium service on this video website delivers me a substantial value.	
Brand Loyalty	BL1	I am willing to continue to use the video platform for the next few years.	Osaldi & Kubota, 2016; Pai & Tsai, 2011; Porral & Lang, 2015; Shi, Prentice & He, 2014
	BL2	This video platform is my first choice for the premium service.	
	BL3	I am willing to leave positive comments about the video platform service.	
	BL4	I would recommend the video platform to my friends.	
Consumer Satisfaction	CS1	Using this video website seems a right decision.	Alnawas & Aburub, 2016; Chae et al., 2002; Jin et al., 2013; Lee et al., 2014; Lin & Wang, 2008; Saleem et al., 2015
	CS2	I am satisfied with that premium service.	
	CS3	I received the service I expected during the first month trial.	
	CS4	Premium service has been provided successfully.	
Purchase Intention	PI1	My willingness to subscribe to premium service is high.	Alnawas & Aburub, 2016; Chae et al., 2002; Jin et al., 2013; Lee et al., 2014; Lin & Wang, 2008; Saleem et al., 2015
	PI2	I would consider purchasing premium service in the future.	
	PI3	I plan to subscribe to premium service in the future.	
	PI4	Premium service of the website is worthwhile to purchase, compared to other websites.	

## Construct Reliability and Robustness of Structural Equations

Construct	Item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Composite Reliability	AVE
Legal Compliance	LC1	0.66	0.94	0.95	0.59
	LC2	0.88			
	LC3	0.78			
	LC4	0.72			
Opportunism	OP1	0.69	0.93	0.91	0.56
	OP2	0.83			
	OP3	0.79			
	OP4	0.67			
Perceived Value	PV1	0.72	0.89	0.88	0.66
	PV2	0.85			
	PV3	0.90			
	PV4	0.76			
Brand Loyalty	BL1	0.78	0.89	0.89	0.66
	BL2	0.83			
	BL3	0.83			
	BL4	0.81			
Consumer Satisfaction	CS1	0.79	0.89	0.88	0.65
	CS2	0.82			
	CS3	0.75			
	CS4	0.87			
Purchase Intention	PI1	0.87	0.92	0.93	0.76
	PI2	0.92			
	PI3	0.90			
	PI4	0.78			

Factor	1	2	3	4	5	6
1. Legal Compliance	<b>0.764</b>					
2. Opportunism	0.033	<b>0.748</b>				
3. Perceived Value	0.448	0.047	<b>0.811</b>			
4. Brand Loyalty	0.487	0.050	0.786	<b>0.813</b>		
5. Consumer Satisfaction	0.540	0.084	0.75	0.755	<b>0.809</b>	
6. Purchase Intention	0.490	0.012	0.673	0.715	0.725	<b>0.869</b>

	Model A	Model B
$N^2$	364.95	617.50
df	163	244
$N^2/df$	2.24	2.53
RMSEA*	0.06	0.05
Goodness-of-Fit Index	0.99	0.91
Comparative Fit Index	0.93	0.95
Normed Fit Index	0.92	0.93
Incremental Fit Index	0.94	0.95

\*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Hypothesis Test Results

□ Hypotheses 1, 2, 5, 6, and 7 were supported.

Hypothesized Paths	Std. Path Coefficient	
	Model A	Model B
H1: Legal Compliance $\rightarrow$ Perceived Value (+)	0.53**	0.46**
H2: Legal Compliance $\rightarrow$ Brand Loyalty (+)	0.21**	0.18**
H3: Opportunism $\rightarrow$ Perceived Value (-)	0.09*	0.04
H4: Opportunism $\rightarrow$ Brand Loyalty (-)	0.01	0.01
H5: Perceived Value $\rightarrow$ Brand Loyalty (+)	0.87**	0.70**
H6: Perceived Value $\rightarrow$ Consumer Satisfaction (+)	0.38**	0.40**
H7: Brand Loyalty $\rightarrow$ Consumer Satisfaction (+)	0.41**	0.48**
CP: Consumer Satisfaction $\rightarrow$ Purchase Intention (+)	N/A	0.76**

Note: \*  $p < 0.10$ ; +  $p < 0.05$ ; \*\*  $p < 0.01$ ; CP: Complementary Path.

## Discussion

- ❑ Need to further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opportunism
  - Several studies reveal mixed findings on opportunism.
- ❑ Legal compliance increases perceived value and brand loyalty
  - Customers' legal compliance can help convert free members to paying viewers
  - Managing legally compliant customers is necessary
  - Facilitating viewer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watching videos legally (e.g., bonus points, free coupons, and credits)
- ❑ Online video platforms should use the viewers' legal compliance as a criterion to identify long-term subscribers
- ❑ Considering that viewers' perceived value of premium service significantly affects customer satisfaction and subsequently purchase intention, the platform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enhancing their premium service quality.

## 세션 7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사례: 제도와 성과



<(사)국제지역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사례: 제도와 평가

2022. 11. 25.

고동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목차

- I. 논의 배경
- II.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주요 내용
- III. 성과와 과제
- IV. 맺음말

## I. 논의 배경

3

###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근거하여 **국제자유도시(International Free City)**를 지향하는 특별자치도의 지위
- **사람, 자본, 상품의 국제적인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 지향(법 제2조)
- 사람의 국제적인 이동 → 관광 산업의 육성 지향 → 주도적인 산업 구조 유지
- 상품의 국제적 이동 → 국제 무역 거래의 중심 → 아직 활발하지 않은 편
- 자본의 국제적 이동 → 외국 자본의 투자 등 자금 흐름의 자유로운 이동 → 금융 산업이 적합 → 아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4

##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 목적과 국제자유도시의 정의

-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제정 목적: “제주도의 지역적 · 역사적 ·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법 제1조)
- 국제자유도시: “**사람 · 상품 ·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법 제2조)

5

## II.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주요 내용

6

##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체계

- 제1편 총칙
-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
-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제1절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제2절 개발사업의 시행
-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제2장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
-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
- 제1절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운영
- 제2절 영어교육도시의 조성
- 제4장 세계평화의 섬 지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5편 보칙
- 제6편 별칙

7

##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제주도지사의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10년마다 수립 의무(법 140조, 시행령 18조)
- 1. 제주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제주자치도를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 2.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 3.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 5.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 6.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7.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8. 토지·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9.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10.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11.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12.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 13.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 14. 도로·항만·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 15. 수자원·전력과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 16. 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

8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설립 및 운영(1)

-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설립(법 166조)
- 특수법인(법 167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받아 공공기관으로 지정(법 196조)
-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사업: ① JDC에서 개발·관리하는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의 의료산업·건강산업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②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의 조성·관리, ③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그 밖에 교육관련 기관의 유치·설립·운영 및 지원, ④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운영 지원 사업 등(법 170조 1항 2호)
-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투자유치 업무(법 170조 1항 3호)
-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면세품판매장 수익 사업, 옥외광고 사업(법 170조 1항 4호)

9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설립 및 운영(2)

- 재원 조달: ① 국가와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②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③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 ④ 수익사업의 수익금, ⑤ 그 밖의 수입금(법 18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JDC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가능(법 183조)
-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법 186조)
-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승인(법 187조)
-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법 194조)

10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 제주도지사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가능(법 162조)
-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이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법 162조)
-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금 지원 가능(법 164조)
-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가능(법 165조)

11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가능(법 161조 1항)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법 161조 2항)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관리 업무 수행(법 161조 4항)

12



## 영어사용 환경 조성

- 외국어 교육 지원: ① 국가는 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 **제주도의 외국어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법 204조 1항), ② 국가와 제주도는 외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채용되는 외국인 교원의 인건비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의무(법 204조 2항)
- 외국어 서비스 제공: 국가와 제주도는 외국인투자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주도에 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등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의무(법 205조)
- 영어 사용 환경 조성: 국가와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① 공공기관의 영어 서비스 제공, ② 공공시설물의 영어 표기, ③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 등의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의무(법 234조)

13

## 영어교육도시의 조성

-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영어교육도시**로 지정 가능(법 221조)
-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 설립·운영 가능(법 223조 1항)
- 국제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법 223조 1항)

14

## 의료기관 개설 등에 대한 특례(1)

-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 허가 받아 제주도에 **외국(영리)의료기관** 개설 가능(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법 307조 1항) (사업계획서 제출→보건복지부장관 승인→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도지사 허가)
- 개설 요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함(조례 14조: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자본금 USD500만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50%이상(투자비율 산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25조 1항 준용))(307조 2항)
- 외국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적용받지 않음(법 307조 4항)
-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충족하는 경우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 종사 가능(법 310조)

15

## 의료기관 개설 등에 대한 특례(2)

-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컴퓨터·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원격의료** 가능(315조)
- 국내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없이 제주도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가능, 특정 의료기관 소속인 경우에도 제주도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가능(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제외) (법 315조)
-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은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 가능(법 316조)(도 조례 25조: 관광숙박업, 세탁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학원 등)

16



## 선박등록특구의 지정

-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내 무역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법 443조 1항)
-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으로서 제주자치도 내 무역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법 443조 2항)
- 선박등록특구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443조 3항)

17

## III. 성과와 향후 과제

18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성과와 과제

- 민간기구(정확히 半官半民)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주체가 된 점에서 바람직  
→ 그러나 관 주도에서 탈피
- 면세품판매점 수익사업 허용은 수익 창출에 기여→수익 확대에 기여
- 향후 수익 사업 확대 방안 마련 필요→ 국제자유도시 조성 자금으로 쓰이므로 수익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감독관청을 국토교통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다 주체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국제자유도시 개발 추진 가능→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가능
- JDC에 대한 예산/결산 승인권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 필요

19

## JDC가 운영하는 면세품판매점 수익 사업 현황

-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도 지역의 내·외국인 관광유치 강화의 일환으로 면세점 운영제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됐고, 2002년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면서 국제자유도시 조성 전담 기관으로 JDC가 출범하고, 2002년 12월 제주국제공항내 JDC 지정면세점 출범
- 제주국제공항 이외에도 제주항 2부두 연안 여객터미널과 6부두 국제여객터미널 내에 위치
- 주류, 담배, 화장품, 문구 등 15개 품목을 판매, 260여개 브랜드의 48,000여 상품 취급
- 2003년 1,000억원 돌파(면세점 운영 시작), 2010년 3,000억원 돌파, 2016년 5,000억원 돌파, 2021년 매출액 6,036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전액 재투자됨

(출처: <https://www.jdcenter.com/business/dutyfree.cs>)

20

## 영어교육도시 조성 성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 3,790,597.7㎡ (약 115만평)
  - 2008년 ~ 2024년
  - 초·중·고 통합 국제학교 7개교 유치 목표, 영어교육센터, 주거 및 상업시설 등 학생수 9,000명 포함 정주 인구 2만명, 4,660세대
  - 영어교육도시는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상업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 등이 복합화 된 정주형 교육도시
  - 2010년 **영국의 NLCS**, **캐나다의 BHA**, **2012년 미국의 SJA** 유치가 확정
  - **현재 NLCS Jeju**(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2011년 개교), **BHA**(Branksome Hall Asia)(2012년 개교), **SJA Jeju**(St. Johnsbury Academy Jeju)(2017년 개교), **KIS Jeju**(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2011년 개교) 등 유치원 초중고 국제학교 개교 운영
- (출처: <https://www.jdcenter.com/business/edu/jejuen.cs>)

21

## 영어교육도시의 성과와 과제

-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은 상당한 성과 → 성공적인 평가
- 다수의 초중고 국제학교 진출
- 해외 유학생 수요 흡수 목표 충족
- 과제: 제주도를 영어 공용어 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가?
- 국제적인 도시로 육성하려면 영어는 필수
- 도민의 공감대 형성 노력 필요

22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성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일원, 1,098,878㎡(약 33만평), IT·BT 관련 기업, 공공 및 민간연구소 유치
- 제주 산업구조의 자립도 향상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사업 추진
- 2004년 10월 국가산업단지 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로 지정
- 2005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JDC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리기관으로 지정**, 2006년 12월 관리 기본계획 승인됨
- ‘첨단과학’ ‘바이오’ 분야의 산업 유치
-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감면 및 조세 지원 등 지원
- 카카오, 이스트소프트, 텐티움, 한국 BMI 등 국내외 우수기업 등 약 201개사가 입주
- 2021년말 기준으로 3,042여명의 직원이 상주, 연 매출 6조1,970억원, 연 수출액 299억 원 달성
- 향후 제2단지 조성 계획

(출처: <https://www.jdcenter.com/business/sice/jejusp1.cs>)

23

## 글로벌 복합의료복합관광단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 성과(1)

-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일원, 1,539,339㎡, 2008년 ~ 2024년, 2010. 11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
- 의료산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으로서 지역 내 특화된 글로벌의료환경 제공
- 천혜의 자연환경과 의료서비스를 결합한 **의료관광산업** 육성 목표
-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른 핵심 프로젝트로 지정, 2008년 JDC 사업시행자로 지정
- 2011년 녹지그룹(상해시 정부 공기업) 투자 유치 이후 2014년 8월 1단계 휴양콘도미니엄 준공, 이후 힐링스파이럴호텔, 힐링타운, 웰니스몰, 힐링사이언스가든 등 2단계 사업 추진 중
- 2015년말 **외국의료기관(녹지 국제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승인, 2018년 제주도 개설 허가→ 이후 중단

24



## 글로벌 복합의료복합관광단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 성과(2)

- 녹지그룹의 일부 시설이 운영 중이며, JDC는 복합의료시설인 의료서비스센터를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
- 주요 시설
- 웰니스파크(Wellness Park):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휴양 리조트로서 건강휴양 기능
- 메디컬파크(Medical Park): 전문화되고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병원
- R&D파크(R&D Park) 헬스케어관련 기술 및 상품개발을 위한 의료 R&D센터

(출처: <https://www.jdcenter.com/business/medic/healthcare.cs>)

25

## 향후 과제: 금융산업 육성 방안

- 제주는 관광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 한계 → 산업 구조의 다각화 방안 마련 필요
- 첨단과학기술산업(IT) 유치 방안과 더불어
- 관광산업의 입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금융산업 육성 방안 필요
- 금융산업은 무공해 산업 →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 않으므로 적합
- 국제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어 있어 우수한 금융 전문 인력 유치하는데도 유리

26

## 금융산업 육성 추진 전략

- 1단계: 금융기술(Fintech), 블록체인(block chain), 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 등 디지털금융(digital finance) 중심의 금융산업 육성 전략 검토
- 금융기술 등 디지털금융은 주로 비대면 금융거래 위주의 산업→ 통신망을 통한 영업 활동 가능
- 공해 유발 없고, 자연환경 파괴 염려 없음
- 블록체인 산업의 경우 관광산업과 연계 가능한 장점
-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연계해서 금융기술기업 유치
-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자(P2P대출중개업자), 인터넷전문은행 본사, 전자금융업자(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등 금융기술 관련 금융기관 유치
- 2단계: 국제역외금융업(International Offshore Finance: IOF)에 특화된 국제금융산업 육성 방안  
→ 관광산업에 연계된 특화 국제금융지역 개발 육성

27

## <참고> 탈중앙화금융(DeFi)이란?

- Decentralized Finance (DeFi) → 중앙화기관 또는 중개기관(intermediary) 없이 '거래정보연결기술'(Block Chain)에 기반한 '자동계약이행체계'(Smart Contract)를 이용하여 '암호자산'(crypto assets)을 거래하는 금융
- Centralized Finance (CeFi) → 중개기관이 개재된 전통적인 금융
- Open Protocol or Decentralized Applications (Dapps)
-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에 의한 거래정보연결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Bitcoin) 출현
- 2015년 비탈릭 브터린(Vitalik Buterin)에 의한 이더리움(Ethereum)에 기반한 자동계약이행체계 출현
- 탈중앙화금융 거래의 시작은 2017년 이더(ETH)를 담보로 암호자산을 대여하는 업무를 개시한 '운영체계'(protocol)인 MakerDAO

28



## <참고> 탈중앙화금융의 현황

- 전 세계적으로 보면 총예치자산(Total Value Locked: TVL) 금액이 지난 2019년 약 2억 달러, 2020년 초 6.9억 달러 규모였지만, 2021년 8월 13일 기준 839.9억 달러, 2022년 3월 10일 기준 1,997.3억 달러, 2022년 8월 10일 기준 703.1억 달러에 달함→ 급격한 성장 (Defilama- DeFi Dashboard <https://defillama.com/>)
- 세계적인 운영체계(Protocol): Compound, MakerDAO, Uniswap, Curve Finance, Balancer, Bancor, TokenSets, Synthetix, Oyn, Next Mutual 등
- 국내에서는 2019년부터 암호자산 예치 및 대여(staking and lending) 업무를 시작한 ‘델리오’(Delio)를 비롯하여(현재는 탈중앙화거래소 업무도 취급) 2020년 이후 제타(ZETA) 프로토콜, 테라(TERA)의 앵커(Anchor) 프로토콜, 클레이스왑(KLAYswap) 프로토콜 등이 출현

29

## <참고> 탈중앙화금융 거래의 유형

- 탈중앙화 암호자산 예치 및 대여(deposit or staking and lending) 거래
- 탈중앙화거래소(decentralized exchanges: **DEX**) 암호자산 거래(trading)
- 탈중앙화 파생상품(decentralized derivative) 거래
- 탈중앙화 자산운용(decentralized asset management) 거래
- 탈중앙화 보험(decentralized insurance) 거래

30

## 제주의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전략(1)

-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금융중심지법’)은 **일정 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 가능(5조 5항)
- 금융중심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 (제2조)
-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금융위원회가 지정
- 서울특별시의 여의도 지구, 부산광역시의 문현 혁신지구(해양금융, 파생금융 중심)가 금융중심지로 지정

31

## 제주의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전략(2)

- 단계적인 금융중심지 추진을 통한 금융산업 육성 방안 모색
- **1단계는 금융기술 등 디지털금융 특화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 **2단계는 국제역외금융업 특화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 2008년 제주도가 **국제역외금융** 특화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 → 지정 실패
- 과도한 조세특례 경쟁을 금지하는 국제기준과 상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중심지 선정에서 탈락
- 제주도 지역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으면 **정부의 재정 지원과 입주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 부여 → 제주도 지역에서 금융산업 육성하는데 유리
- 정부는 여전히 조세회피 가능성 등의 문제를 들어 국제역외금융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지하고 있어, 우선 1단계로 제주를 **금융기술 등 디지털금융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 추진 전략 수립
- 금융당국의 **지역 특화 금융중심지** 우선 선정 방침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
- 어느 정도 금융산업이 궤도에 오르면 2단계 국제역외금융업 특화 금융중심지 추진

32



## 제주의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전략(1)

-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금융중심지법’)은 **일정 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 가능(5조 5항)
- 금융중심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 (제2조)
-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금융위원회가 지정
- 서울특별시의 여의도 지구, 부산광역시의 문현 혁신지구(해양금융, 파생금융 중심)가 금융중심지로 지정

31

## 제주의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전략(2)

- 단계적인 금융중심지 추진을 통한 금융산업 육성 방안 모색
- **1단계는 금융기술 등 디지털금융 특화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 **2단계는 국제역외금융업 특화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 2008년 제주도가 **국제역외금융** 특화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 → 지정 실패
- 과도한 조세특례 경쟁을 금지하는 국제기준과 상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중심지 선정에서 탈락
- 제주도 지역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으면 **정부의 재정 지원과 입주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 부여 → 제주도 지역에서 금융산업 육성하는데 유리
- 정부는 여전히 조세회피 가능성 등의 문제를 들어 국제역외금융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지하고 있어, 우선 1단계로 제주를 **금융기술 등 디지털금융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 추진 전략 수립
- 금융당국의 **지역 특화 금융중심지** 우선 선정 방침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
- 어느 정도 금융산업이 궤도에 오르면 2단계 국제역외금융업 특화 금융중심지 추진

32

## 금융당국의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방향

-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검토 방향(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 4)
- 서울·부산 이외 도시 지역의 경우에도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 금융중심지 발전 여건의 성숙도를 지속 점검하고 엄격한 원칙하에 추가 지정 문제를 검토
- < 추가 지정문제 검토 요건(예시) >
  - ① 금융중심지 모델이 뚜렷하게 차별화되고 지속가능한 것
  - ② 수립된 이행계획이 모델 달성에 적합하고, 명확하며 실현가능한 것
  - ③ 이행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금융중심지로서 성공가능성이 가시화될 것
- 추가 지정문제 검토 과정에서, 잠재적 후보지역의 ‘현재 여건’ 뿐만 아니라 ‘미래가능성’도 반영하되, 금융기관 유치 여부, 정주·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여 반영

33

## 제주의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필요성

### (1) 금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금융기술 등 디지털금융에 특화된 금융중심지 지향→ 다수의 금융기관과 투자기관들이 제주 지역에 영업소를 둘 가능성이 큼→ 금융기관 종사자도 늘어나게 되어 고용 창출→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 조세 수입도 증가하여 제주도의 재정도 건실
- 산업 구조의 다각화라는 점에서 관광산업 이외에 금융산업 육성의 필요성

### (2)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한 금융 전문가 양성 토대 구축

-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게 재정 지원 가능
- 대학교에 **금융기술학부** 설치 및 **금융기술전문특수대학원**을 설립하여 금융 전문가 양성→ 제주도 지역에서 금융산업에 종사하게 되면 제주도 지역의 금융산업 발전 전인 토대 마련

34



## 제주의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방안(1)

### (1) 금융중심지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한 전략 수립

#### 1)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

- 천혜의 자연 환경, 관광산업 발전 → 향후 외국 투자자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역외금융 특화 지구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 2) 국내·외 금융기관 및 관련 산업의 현황과 향후 유치 가능성

- 인터넷전문은행, 금융기술기업, 전자금융업자 등의 본사 제주 유치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제 혜택 및 재정 지원 병행 필요

#### 3) 경영환경·교육환경 및 생활환경의 적합성

- 외국 중고등학교가 유치되어 있는 ‘영어교육도시’ 지역, 청정 지역의 환경,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절감 → 삶의 질 향상

35

## 제주의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방안(2)

### 4) 금융 전문 인력 확보의 용이성

- 대학교에 금융기술학부와 금융기술전문특수대학원 설치를 통한 금융전문 인력 양성 방안 제시

### 5) 개발계획의 현실성

- 금융중심지의 명칭, 위치와 면적 등의 개발계획의 확정 필요

### 6)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효율화 및 활성화 이바지 효과

- 금융기술기업과 다수의 금융기관 본사 유치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효과

### 7) 지역 주민·기업 등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의견 수렴

- 공청회 개최 등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 필요
- 금융중심지 지정 시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 홍보

36

## 제주의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방안(3)

### (2)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육성 기금 조성

- 제주도 자체의 예산 지원으로는 한계
- 지속적 추진 위해서는 기금 설치 필요
- 제주도 당국의 출연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특수법인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주도로 출연
- 이에 더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기금 설치
- 기금 운용과 지출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독립성 확보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 갖출 필요

37

## 제주의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방안(4)

### (3) 제주 금융중심지 추진 전담기구 설립

- 관(官)은 지원하는 역할하고 민간이 주도 필요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
- 금융중심지추진기획 담당 부서 설치 및 금융 전문가 채용
- 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한 연구 기능과 실제 투자 유치 등의 업무 수행
- 제주도의 금융중심지 규모가 커지고 관련 업무가 늘어나게 되면 별도의 추진 전담 기구 설립 방안 고려

38



## 제주의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방안(5)

(4)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추진기획단의 설치와 금융 전문가 채용

- 제주도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금융 전문가를 개방직 직위로 별도 채용
- 금융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
- 금융중심지 추진과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필요

39

## 2단계로 국제역외금융 특화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 금융기술 등 디지털금융 특화 금융중심지 추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2단계로 **국제역외금융**에 특화된 금융중심지 추진 방안 검토
- 국제역외금융업에 특화된 케이만아일랜드나 말레이시아 라부안(Labuan) 등도 관광산업 발전 지역
- 정치적 이유로 홍콩의 국제금융도시(International Financial City)로서의 위상 상실 진행 중  
→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이탈 가속화
- 최근 싱가포르가 홍콩을 대체하는 국제금융도시로 부상
- 홍콩을 대체할 아시아 국제금융도시 추진 필요성 부각
- 제주는 관광산업에 기반한 국제금융도시 추진에 적합
- 제주의 관광산업에 치중한 산업의 구조 다각화 필요 → 금융산업이 적합

40

## 국제역외금융센터 성공적 개발 사례 - 말레이시아 라부안

- 면적 92km<sup>2</sup>(제주도의 1/20)
- 인구 99.4천명(2020년)
- 1990.10.1. 국제역외금융센터(International offshore Financial Center) 설립
- 은행, 리스, 보험 및 재보험, 자본시장, 위험관리, 전자 금융중개, 자산관리 업무 등 금융업 영위
- 2020년 현재 16,000여 개의 법인과 1,000여 개의 금융기관이 영업 중
- 6,000여 명의 고용 인력이 근무 중

41

## 입법 방식

- 국제역외금융업에 특화된 국제금융도시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 확보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vs 특별법 제정 vs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 조례 제정 방식: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도적 추진 장점, 중앙정부의 지원 확보 어려움
- 특별법 제정 방식: 법적 기반 명확한 확보 장점, 공청회 개최 등 법률 제정 추진의 복잡성, 가능성 높지 않음
-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방식: 법적 기반 명확한 확보 장점, 개정의 용이성, 제주특별자치도법 취지에 부합→ 가장 바람직

42



## 별도의 금융감독기구 설치 방안

- 설립 필요성: 금융업 인가 감독,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국제감독기구와의 정보 교환 및 상호 협력 업무, 자금 세탁 방지 및 조세 회피 감시 등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적 감독기구 vs 중앙정부 산하 공적 감독기구
- 중앙정부 산하 감독기구: 중앙정부의 지원 가능 장점, 중앙정부의 간섭 및 통제의 문제점
-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감독기구: 중앙정부의 지원 어려움, 자율적인 감독 체계 운영 장점 → 바람직
- (가칭) '제주금융감독원' → 감독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필요
- 말레이시아 라부안 역외금융센터의 경우 '라부안금융감독원'(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을 공적 기구로 별도 설립 운영

43

## 역외금융업(Offshore Financial Business)의 범위

- 인터넷종합금융업(Internet Merchant Financial Business): 영업점을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는 금융업
- 특수관계자 대상 전속은행업(Captive Banking Business): 비거주자인 계열회사 등 제한된 범위의 고객만을 상대로 영위하는 은행업
- 특수관계자 대상 전속보험업(Captive Insurance Business): 비거주자인 계열회사 등 제한된 범위의 고객만을 상대로 영위하는 보험업
- 역외자산운용업(Offshore Asset Management Business): 비거주자 등 제한된 범위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운용업
- 투자기구등록업(Fund Registration Business): 투자기구(investment vehicle)인 펀드의 등록 업무 (국제선박 등록 및 선박투자회사(펀드) 등록 업무 등 →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조치)
- 역외회사(Offshore Company) 설립 업무: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역외은행, 역외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도 역외회사의 형태로 먼저 설립한 후 해당되는 금융업 인가 취득 필요

44

## 별도의 금융감독기구 설치 방안

- 설립 필요성: 금융업 인가 감독,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국제감독기구와의 정보 교환 및 상호 협력 업무, 자금 세탁 방지 및 조세 회피 감시 등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적 감독기구 vs 중앙정부 산하 공적 감독기구
- 중앙정부 산하 감독기구: 중앙정부의 지원 가능 장점, 중앙정부의 간섭 및 통제의 문제점
-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감독기구: 중앙정부의 지원 어려움, 자율적인 감독 체계 운영 장점 → 바람직
- (가칭) '제주금융감독원' → 감독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필요
- 말레이시아 라부안 역외금융센터의 경우 '라부안금융감독원'(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을 공적 기구로 별도 설립 운영

43

## 역외금융업(Offshore Financial Business)의 범위

- 인터넷종합금융업(Internet Merchant Financial Business): 영업점을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는 금융업
- 특수관계자 대상 전속은행업(Captive Banking Business): 비거주자인 계열회사 등 제한된 범위의 고객만을 상대로 영위하는 은행업
- 특수관계자 대상 전속보험업(Captive Insurance Business): 비거주자인 계열회사 등 제한된 범위의 고객만을 상대로 영위하는 보험업
- 역외자산운용업(Offshore Asset Management Business): 비거주자 등 제한된 범위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운용업
- 투자기구등록업(Fund Registration Business): 투자기구(investment vehicle)인 펀드의 등록 업무 (국제선박 등록 및 선박투자회사(펀드) 등록 업무 등 →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조치)
- 역외회사(Offshore Company) 설립 업무: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역외은행, 역외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도 역외회사의 형태로 먼저 설립한 후 해당되는 금융업 인가 취득 필요

44



## VI. 맺음말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동력 제고 위한 과제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추진 의지가 중요
- 제주도당국에 전문 인력 확보(개방직 직위로 채용)
- 도민 공감대 형성
- **영어 공용화** 추진
- 제2공항 건설(인천공항 경유하지 않고 외국 직항 노선 개설로 외국인 방문 용이)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역할 강화
- JDC에 전문인력 확보
- JDC에 대한 감독 권한 국토교통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

감사합니다

dwko@skku.edu

## 세션 8

###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미얀마 협력 방안

# 인공지능과 표준화

국제지역학회  
2022.11.25.-26

순천대학교  
강신원

인공지능과 표준화

## 인공지능과 표준화

### I. 서론

1. 인공지능 개요
2. 인공지능의 주요 이슈

### II. 인공지능과 표준화

1. 인공지능 기술
2.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현황

### III. 결론 및 시사점

- 1 -



## 1. 서론

### 2. 인공지능 개요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며, 하나의 **인프라 기술**이기도 함.

○ 강 인공지능과 약 인공지능<sup>1)</sup>

- 인간의 마음을 복잡한 정보처리로 구현한 것을 강한 인공지능.
- 단순히 인간의 능력 일부를 시뮬레이션하거나 그런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설명. 즉, 물체 인식, 음성 인식, 문자 인식 등

○ 인공지능은 현재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진행되는 4 산업혁명의 주요한 기반 기술로서 세계적 업체는 핵심 알고리즘 및 개발 플랫폼을 선도하며 핵심 기술개발 및 표준 선점을 주도하

1) 약 인공지능(Weak AI)과 강 인공지능(Strong AI)은 1980년에 John R. Searle 교수가 최초로 사용한 개념임. 강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해 스스로 행동과 학습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준이 최소한 인간의 지성 수준인 경우를 의미. 약 인공지능은 사진에서 물체를 찾거나 소리를 듣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과 같이 기존에 인간은 쉽게 해결할 수 있으나 컴퓨터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웠던 각종 문제를 컴퓨터로 수행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2 -

고 있음

-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하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 및 유지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응용 기술 및 서비스 기술 분야의 표준개발 주도권을 지속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중

○ 인공지능이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의료, 금융, 문화, 제조 등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하면서 국가 기본 인프라로 활용 기간이 확대되는 **"AI 에브리웨어"** 시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이 진화하고 산업 분야에 접목이 시작되면서 **표준화의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현재 인공지능의 표준화는 공적표준화기구와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공적표준화기구인 ITU에서 인공지능 포커스 그룹의 설립 등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sup>2)</sup>

2) 표준화의 목적은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등 표준화의 대상이 본래의 의도된 목적으로 작용하도록 개선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공공이익 및 무역장벽의 제거 등을 추구하는 데 있음. 또한, 생산, 소비, 유통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능률 증진 및 경제성 향상을 통해, 제품의 품질 개선과 생산 능력의 향상, 상거래의 단순화 및 공정화의 형태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대량생산과 국제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표준화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음(국가기술표준원, <https://standard.go.kr/>)

## 2. 인공지능의 주요 이슈

### 1) 신뢰의 문제

- 미래에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을 인간과 구분할 수 있을지도 논란임
  - 완전히 사람처럼 받아들여서 살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알 수 없는 세력/개인에게 통제되는 인공지능은 인간 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
-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이 기계학습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짓 정보들은 사실과 매우 구분이 힘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임
  - 정교하게 조작된 거짓 정보가 인공지능에 의해 돌아다니고 내 옆의 인물이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 적대적일지 호의적일지를 의심하면서 사는 사회는 당연히 불신 사회가 될 수 있음

### 2) 지식재산권 문제

- 지적 활동이 인간에서 인공지능의 영역으로 옮겨감에 따라 지적 활동의 산 유물인 창작물

- 4 -

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가 발생이 전망됨

-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을 누구의 권리로 해야 할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움
  -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구동한 사람의 권리로 하는 경우
  - 인공지능을 제작한 사람의 권리로 하는 경우
  - 인공지능에 인격을 부여해서 인공지능의 권리로 하는 경우
  - 누구의 권리로도 하지 않는 경우
- 인공지능이 인류의 창의력을 뛰어넘은 수준에 도달했다면 창작물의 과잉 공급으로 창작물의 가치는 점점 0에 가까워질 것임

### 3) 빅브라더 사회 실현

-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분석하며 인간의 활동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음
  - 인공지능은 빅브라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더없이 좋은 도구임.

## II. 인공지능과 표준화

-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인공지능 비서 등 전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루고 있음
-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핵심 동력으로까지 평가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발전은 산업 자동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이를 응용한 서비스 개발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기술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
  - 이에 따라 인공지능 표준화가 2017년부터 국제적인 시작 추세를 보였으며, 현재 인공지능의 용어 및 개념 정의를 위한 표준부터 응용 기술 표준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표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인공지능 표준화를 활발히 진행 중인 국제 표준화 기구로는 공적 표준화 기구인 ITU-T, ISO/IEC JTC 1과 사실 표준화 기구인 Khronos group, IEEE가 대표적이며, 각

- 6 -

기구의 특색에 따라 인공지능 표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인공지능 관련 표준화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각 분야의 목적에 맞는 딥러닝 응용 시스템 및 생태계 구조와 딥러닝을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감지 방식 등의 표준화가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음

### 1. 인공지능 기술

- 인공지능은 단순한 신기술이 아닌 과거 1950년대부터 연구되어온 기술 분야이며, 최근 '딥러닝'이라 불리는 머신러닝(혹은 기계학습) 기술의 등장 이후 그 성능과 효율성이 급증하면서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음
- '딥러닝'이 인공지능 붐을 주도하면서, 오늘날 인공지능은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용어들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 1)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은 '머신러닝', '딥러닝' 등을 포괄하는 가장 큰 개념으로, 과거의 규칙 기반 시스템(Rule-based system)<sup>3)</sup> 혹은 지식기반 시스템(Knowledge-based system)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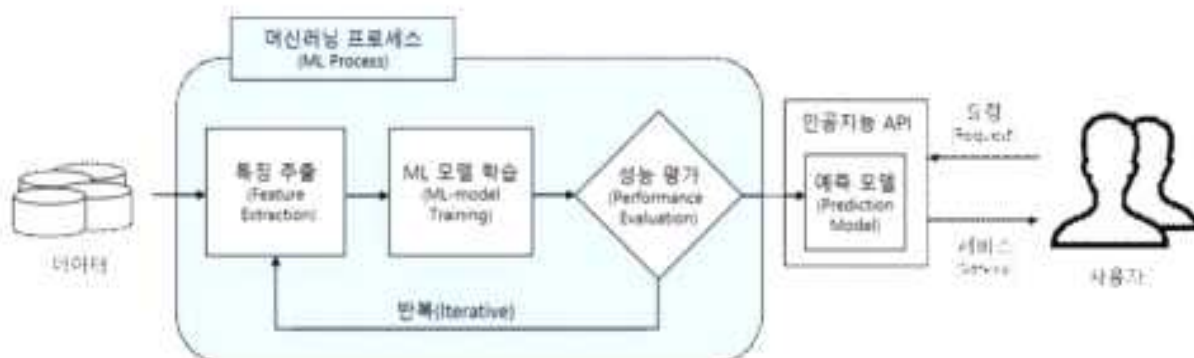
## 2) 머신러닝(ML, Machine Learning)

-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하여, 판단이나 예측 결과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임
- 특히, 머신러닝은 컴퓨터 자체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여 어떤 작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음

- 3) 규칙 기반 시스템의 예로, '딥블루' 같은 체스 프로그램과 비전문가들이 전문가 수준의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 시스템' 등의 기술들이 있음. 현대의 인공지능은 전문가를 통한 작업 설계 없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계가 직접 학습하여 전문가 수준의 수행 능력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알파고'에서 보여준 것 같이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전문가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짐.

- 8 -

### <머신러닝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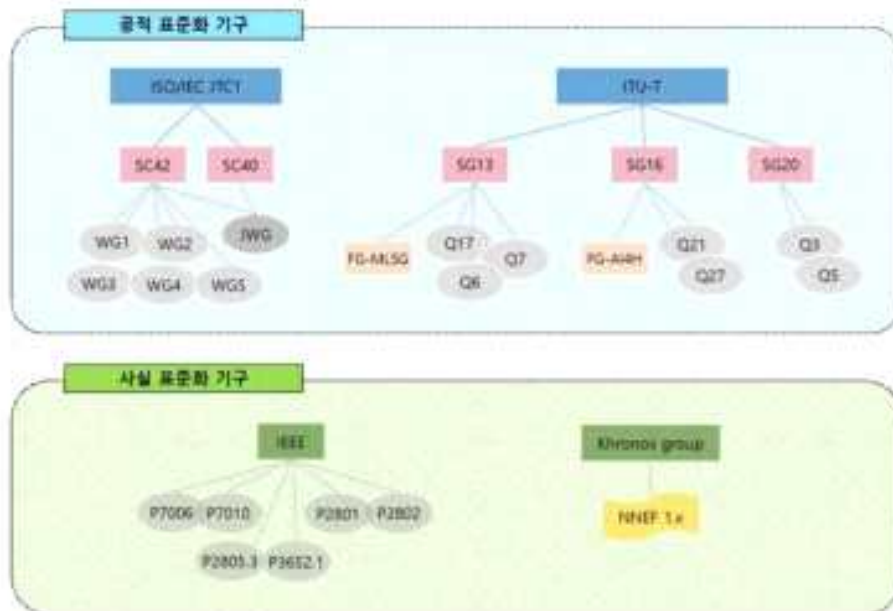
### 3) 딥러닝(Deep Learning)

- o 딥러닝은 머신러닝 구현 방식 중 인공신경망의 한계를 극복하며 발전된 기술로, 여러 층으로 쌓인 인공 뉴런의 조합을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모든 기계학습 기술들임<sup>4)</sup>
- o 딥러닝 역시 머신러닝의 한 종류로 지도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학습에 구현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알파고'는 강화학습을 딥러닝으로 구현한 심층 강화학습(Deep reinforcement learning) 기술을 사용함

4) 딥러닝은 인공신경망 구조 중 하나이며,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뇌의 뉴런 구조에서 영감을 받았음. 인공신경망은 입력층(Input Layer), 은닉층(Hidden layer), 출력층(output layer)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은닉층의 층수가 많을수록 인공신경망이 깊어졌다(deep)고 하며, 은닉층의 개수가 많은 인공신경망을 모델로 사용하는 것을 딥러닝(Deep learning)이라 함.

## 2.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현황

- o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적 수요 증가와 사회적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관련 기술의 표준화 작업이 사실 표준화 기구뿐만 아니라 공적 표준화 기구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o 일반적으로 공적 표준화 기구에서는
  - 표준 기술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반복 활용 가능하도록 참조 표준을 개발하는 목적을 가지며,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하여 용어 정의, 요구사항, 참조 구조 등의 표준이 개발 진행 중임
- o 반면, 사실표준화 기구는
  - 시장 메커니즘에서 공통 기술의 필요성이 인지될 경우, 이에 필요한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교환 포맷, 시스템 설계 규정 등 실제 기술개발과 밀접한 표준이 개발되고 있음
- o 현재 국제적으로 인공지능 표준화를 활발히 진행 중인 공적 표준화 기구로는 ITU-T와 ISO/IEC JTC 1의 SC42가 있으며, 사실 표준화 기구로는 Khronos group과 IEEE가 대표적임



- 12 -

- 현재 한국은 인공지능 국제표준화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공지능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음
- 최근 제5차 인공지능 국제표준화회의(ISO/IEC JTC1/SC42, 2020.4.6.-21.)에 참여<sup>5)</sup>
- 여기서 한국은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인
  - 인공지능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작업 범위를 확대하고<sup>6)</sup>
  - 머신러닝용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신규프로젝트를 제안하였으며<sup>7)</sup>
  -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례를 국제표준문서에 반영함<sup>8)</sup>

5) 한국은 2020년 4월 6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5차 인공지능 국제표준화회의(ISO/IEC JTC1/SC42)'에 산·학·연·관 전문가 33명이 대표단(조영인 교수(가천대), 임성준 책임(K 데이터), 이강찬 실장(ETRI), 이재호 교수(서울시립대)등.)으로 참가함

6) 2019년 10월 한국이 주도해 신설된 인공지능 데이터 특별작업반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제표준화기구와 데이터 표준화 작업 범위를 빅데이터 표준화에서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로 확대해 표준화를 진행키로 합의함. 또한 한국은 "인공지능 서비스 생태계" 표준화를 추진할 전문작업반(Advisory Group) 신설도 제안해 인공지능 산업 전반에 걸쳐 국제 표준을 주도해 나갈 계획. 제안된 전문작업반은 인공지능 산업 주체 간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과 새로운 서비스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생태계 구성원들이 갖추어서 할 최소한의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도 마련해 나갈 계획

7) 데이터 품질은 수집·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적절한 절차와 형식 등으로 처리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 (빅데이터의 상호 호환성을 보장)

8) 국내에서 개발한 자연어 질의응답, 챗봇, 질병 관리, 진단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사례가 담겨 있어, 국내외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에 기여

- 향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국제 표준개발 동향과 연계한 국내 대응 활동도 필요한 상황임

## 1) ITU

- ITU-T는 2017년 6월 AI Global Summit을 개최하여 ICT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응용 서비스 기술의 표준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이후 산하의 **SG13, SG16, SG20** 등 기존 그룹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 기술 영역에서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 표준을 개발 중임
- 응용 서비스 영역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통신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스마트 시티** 등이며, 특히 **IMT-2020과 헬스케어 관련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한 필요성으로 별도의 FG를 신설하여 신속하게 표준개발이 진행 중임

### (1) ITU-T SG13 (미래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컴퓨팅)

- SG13은 **미래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는 그룹으로 현재 Q6,

- 14 -

Q7, Q17 세 개의 그룹에서 인공지능 관련 표준 기술을 진행 중임

- Q6 : IMT-2020 네트워크에서 머신러닝을 통해 QoS를 인식하기 위한 요구사항 문서가 2018년 9월 승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참조 구조 표준이 2019년 2월부터 진행 중임
- Q7 : IMT-2020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의 Traffic을 인식하려는 표준 권고안이 2018년 4월 합의되어 개발이 진행 중임
- Q17 : Q17은 SG13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표준개발을 위한 그룹으로 2018년 7월 클라우드 환경에서 머신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신규 권고안이 합의되어 표준개발이 진행 중임

### (2) ITU-T SG16 (멀티미디어 서비스)

- ITU-T SG 16은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는 그룹으로 현재 대화형 음성 인터페이스 관련 표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한 항공기와 차량 제어** 등으로 표준영역



을 확장 중임

- SG16에서는 현재 인공지능 관련하여 민간 무인 항공기 제어를 위한 요구사항 및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한 차량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관련한 사례를 기반으로 개발 중 임

### (3) ITU-T SG20 (스마트 시티)

- o ITU-T SG20는 사물인터넷(IoT) 및 스마트 시티 관련 표준을 진행하는 그룹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스마트 시티에서 제공하기 위한 표준안과 스마트 시티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AI 기술과 IoT에서 생성된 데이터 관리를 위한 AI의 역할과 관련한 기술보고서를 각각 Q3와 Q5에서 개발하고 있음

### (4) ITU-T SG12 (성능, 서비스품질, 체감품질)

- o ITU-T SG12에서는 2018년 6월부터 QoE, QoS등 성능 분석에 머신러닝 알고리즘 적용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술보고서를 개발 중임
- 머신러닝 개발 시의 고려 사항 및 문제점, 기술 적용 가능성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

- 16 -

### (5) ITU-T FG-ML5G (Machine Learning for Future Networks including 5G)

- o ITU-T SG13에서는 2017년 11월 5G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머신러닝 기술을 주제로 포커스 그룹 FG-ML5G(Machine Learning for Future Networks including 5G)를 신설하여 운영 중임
- o 본 포커스 그룹에서는 미래 네트워크에서 머신러닝 응용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과 관련 생태계 정의 및 요구사항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됨

### (6) ITU-T FG-AI4H

- o SG16은 2018년 7월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보편적 의료 보장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헬스케어 융합기술 표준개발을 위한 FG-AI4H를 신설함<sup>9)</sup>

9) WHO(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와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는 건강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고 있는 해석과 설명(interpretability and explainability) 불가능성의 해소, 신뢰성과 견고성(trustworthiness and robustness) 보장, 학습에 필요한 의료 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privacy) 이슈, 그리고 성능 평가(performance evaluation)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과 같은 이슈 등을 논의하고 관련 표준화 이슈들을 발굴하기 위해 2018년 7월 슬로베니아 Ljubljana에서 열린 ITU-T SG16 총회에서 2년을 활동 기간으로 하는 FG-AI4H(Focus Group on AI



- FG-AI4H는 의료/헬스케어 분야의 인공지능 응용 사례를 분석 정리하고, 의료 인공지능 모델의 개방적 성능 평가 체계 및 데이터 포맷 표준개발을 진행

## 2) ISO/IEC JTC 1

-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 표준화 기구의 합동 기술 위원회 (Joint Technical Committee)인 JTC 1에서는 20여 년간 기본적인 IT 관련 표준화를 진행함
- 초기 단계에서 ISO/IEC JTC 1은 인공지능 어휘,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생체 인식, 컴퓨터 이미지 처리 및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및 센서 네트워크와 같은 인공지능과도 연관된 주요 분야에서 표준개발을 진행해왔음
-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제정된 최초의 국제표준은 JTC1에서 1995년 12월 제정  
- ISO/IEC 2382-28:1995 Information technology - Vocabulary

[for Health\) 그룹 신설을 결정함](#)

- 18 -

- Part 28: Artificial intelligence - Basic concepts and expert systems 등임
- JTC1에서는 이후
  - 1997년 12월에는 Part 31: Artificial intelligence - Machine learning.
  - 1999년 8월에는 Part 29: Artificial intelligence - Speech recognition and synthesis, Part 34: Artificial intelligence - Neural networks 표준을 각각 제정함
- 2015년에 개정된 ISO/IEC 2382:2015 Information technology - Vocabulary 표준으로 4종의 인공지능 용어 표준을 비롯해 총 31개의 다른 용어 표준들과 묶여 JTC1의 단일 용어 표준으로 통합 개정됨

## (1) ISO/IEC JTC1 SC42

- JTC1에서는 2017년 블라디보스토크 총회 의결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핵심 표준화를 위한 분과위원회(Sub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여 SC42가 신설됨

## &lt;ISO/IEC JTC 1 SC 42 산하 위원회 명칭&gt;

구조	그룹명
WG1	기반 기술(Foundational Standards)
WG2	빅데이터(Big Data)
WG3	신뢰성(Trustworthiness)
WG4	유즈 케이스(Use Cases and Applications)
WG5	인공지능 시스템의 계산적 접근(Computational Approaches and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JWG	AI 거버넌스(Governance implications of AI)

## (2) ISO/IEC JTC1 WG12

- 3D 프린팅과 스캐닝 관련 표준화를 위해 JTC1 산하에 2017년 10월 신설된 WG12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표준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WG12에서는 ICT 기술이 결합한 3D 프린팅과 스캐닝 핵심 표준개발을 비롯하여 의료/국방/DIY 등의 다양한 응용 분야 3D 프린팅과 스캐닝 관련 응용 표준개발을 목표로 함

- 20 -

## 3) IEEE(국제 전기·전자 기술자 협회)

- IEEE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윤리 및 응용 표준화**를 진행 중임
- IEEE에서는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윤리 척도를 위한 프로젝트 그룹인 P7006, P7010 등을 운영하여 구체적인 표준안을 발표함
- IEEE의 윤리 표준은 **인공지능 기술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사회 내의 도덕적 가치들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음

4) 크로노스 그룹(Khronos Group)<sup>10)</sup>

- 인공지능 기술의 구현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 및 신경망 포맷 표준개발**을 진행 중이며, 문서 개발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코드를 Github를 활용하여 배포하는 방식의 활동을 진행 중임

10) 크로노스 그룹은 그래픽스, 병렬컴퓨팅 등의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개방형 표준을 개발하는 단체임.

- 현재 Khronos Group에서는 NNEF v1.0를 배포하여 다양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상호호환 가능한 신경망 모델 포맷을 제공하고 있음<sup>11)</sup>
- o 현재 NNEF 1.0 표준 문서는 크로노스 웹사이트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며, NNEF와 관련한 오픈소스 도구 및 프로젝트를 제공 중임
- NNEF는 Tensorflow, Caffe 등의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며 다양한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안정적인 데이터 교환을 지원하기 위한 차기 버전의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임

11) NNEF 포맷은 다양한 딥러닝 프레임워크 및 신경망에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었음.

### III. 결론 및 시사점

- o 인공지능 기술은 현재 세계적인 경쟁 속에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며, 특히 딥러닝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타 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o 인공지능 표준은 기술 활성화 및 개발 편의를 위한 생태계 조성으로 인공지능 발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표준을 주도함으로써 국가/기업의 경제적인 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
- o 현재 인공지능 관련하여 표준화 작업 중인 기술 분야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 신뢰성, 거버넌스,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 응용, 스마트 시티, 의료 인공지능, 보안/개인정보, 윤리/사회적 관심, 자율주행 등임
- 기반 기술 : 인공지능의 개념 및 용어 등 인공지능 기술 전반에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일반적인 정의에 대한 표준
- 신뢰성 : 인공지능 기술 혹은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의 신뢰성 검증/평가를 위한 표준
- 거버넌스 :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위한 개념 및 응용 방안을 위한 표준



- 데이터 :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포맷 및 관리 표준**
  - 클라우드 컴퓨팅 : 클라우드에서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을 구현/제공하기 위한 기술**
  - 통신/네트워크 :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이동 통신망 혹은 네트워크 시스템에 관한 표준**
  - 스마트 시티 :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용되는 **IoT 기술 및 도시 공학 기술에 관한 표준**
  - 의료/헬스케어 :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진단/관리에 관한 표준**
  - 보안/개인정보 : 인공지능 기반 **보안 시스템 혹은 개인 데이터 정보 보호를 위한 표준**
  - 윤리/사회적 관심 : 인공지능의 사회적 관심사를 정리 및 해소하고 **윤리적인 기술개발에 가이드가 되는 지침을 위한 표준**
  - 자율주행 :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운송 수단의 **주행이 자동화되는 기술의 표준**
- 위 기술 분야는 현재 인공지능 관련 표준이 진행되고 있는 기술에 관한 것임
-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지능화'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어서 앞으로 관련 기술 분야는 지속해서 추가될 예정임**
- 인공지능 표준 기술이 아직 초기 개발 단계인 점과 국내 IT 기술의 경쟁력을 감안하면 국내 인공지능 기술이 세계 시장에 표준으로 채택될 기회는 충분할 것으로 추정됨

- 24 -

- 이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의 IPR 및 **표준 기술 선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국제표준 기술 개발**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함
-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국제기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가 요구됨
-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나라 주도의 선제적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이행이 요구됨.
  - 인공지능 분야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국내 포커스 그룹의 연구와 국제기구에서 포커스 그룹의 설립과 운영의 주도가 요구됨
  - 공적 국제표준화 기구 간, 공적 국제 표준화 기구와 사실표준화 기구 간에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내 ICT 표준 전문가 간 협력과 조정이 필요
  - 국내 ITU-T 연구반과 ISO/IEC JTC 1 전문위원회 간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협력 확대가 요구됨
  - ETRI, TTA, 표준화 포럼 등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ICT 표준 리더스 그룹'의 활동의 활성화가 요구됨
  -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내 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신규 표준화 아이টে를 국내 산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식별하고 산업체와 함께 국제표준화를 추진이 필요



# A study on the health-related situation in Myanmar

## - Focusing on the financing situation -

Gwon Osung  
Juenju Na. Univ. of Ed.

### I. Introduction

Currently, Myanmar does not have a comprehensive health insurance system. In 1954, the Social Security Act was enacted. In 1956, the Social Security System was establish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Labor. It provided various social security services, including health insurance, for workers in private workplaces employing five or more workers.

The system is as follows. Compensation of medical expenses in case of illness, 75% of the existing wage during maternity leave, full wage payment for one year in case of serious illness, compensation for injuries and deaths and compensation for survivors, etc.

Insurance premiums were contributed by workers and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played a role in managing the program. However, the program only benefits less than 1% of the population, and social health insurance spending is minim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ealth-related conditions of Myanmar, focusing on the financial situation.

### II. Main subject

#### 1. Health finance system

Myanmar's health finance has come in various forms. From 1948 to 1962, Myanmar had a public finance-public service model. National taxes from 1962 to 1974 became a major source of health finance along with international aid.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began to grow during this period. Registered doctors provided medical services at the patient's home. Donations at the community level also played a big role. It had an impact on the finances of not only regional hospitals but also central hospitals (MOH and WHO 2008).

The National Health Committee (NHC) has requested the government to propose additional financing measures for the health sector. The NHC also initiated reforms in the health and finance sect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trust fund is to reduce the cost burden of the poor and allow the community to share health and medical expenses (MOH and WHO 2008). The Social Security Act (enforced in 2012) aimed to expand the enforcement authority of the law and the number of subscribers. Medical services were provided in hospitals and clinics affiliated with the Ministry of Labor and hospitals affiliated with government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Railways and the Ministry of Industry. Insurance subscribers who need advanced medical services abroad have their medical expenses reduced under the Social Security Act. With the new

decree, the Social Security Act extended services to private pharmacies, including hospitals of the Ministry of Health.

Most of Myanmar's health care financial system consists of individual medical expenses. The public finance system is still in its infancy. The number of beneficiaries of the Social Security Act was less than 1% of the total population. The majority belong to the unemployed population, such as agriculture, and 26% of the total population belongs to the poor (MNPED and UNDP 2007). The Social Security Act that came into force in 2012 expanded the scope of eligible workers. Social security programs follow the ILO's typical types of assistance, such as maternity protection, financial assistance for illness, maternity leave, post-retirement pensions, family assistance, sickness and funeral subsidies, and unemployment benefits, as well as medical services.

In 2012, the Ministry of Health also held a multi-agency workshop on consultations on the evaluation of Myanmar's overall health system. The subject was the capacity evaluation of the health system, and the following two strategies were proposed. Expansion of local health systems to rapidly provide primary care services to patients. Expanding access to health systems. These strategies reduce patient out-of-pocket costs and increase access to health care for the poor. It could also lead to an increase in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aid funds (MOH and WHO 2012).

## 2. Personal medical expenses burden and impact

Although the burden of individual medical expenses among the total medical expenses is gradually decreasing, it still shows a high proportion. This is because the role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in health finance is very insignificant. In 2009, the Ministry of Health accounted for 10% of health care spending, while the social security fund accounted for 0.15%, which is very low. Most of the medical expenses are spent on self-prescription drugs, diagnostic tests, and private clinics. Public health care is free, but pay for medicines and other medical services. It also pays for private institutions, pharmacies, and traditional medicine and supplies. More than 40% of household non-food expenditures were spent on health care. In terms of regional cost, the urban area of Yangon accounted for 34% and the rural area accounted for 28%. In Mandalay, 23% were urban areas and 32% rural areas. According to Thant Zaw Lwin (2011), Myanmar households pay about 15-35% of their income for medical expenses. Governments should collect health-related taxes through an equitable distribution of income.

## 3. Other health resources

The private medical expenses at government health institutions are usually incurred. On the other hand, patients and their families sometimes give cash or other gifts to medical personnel as a token of appreciation.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it from coercive payments for medical services. Private health insurance is still in its infancy in Myanmar. The number of private insurance subscribers is very low. In the future, the demand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is expected to increase due to the market economy and the potential expansion of the middle class. However, the government policy related to it is insufficient. The Social Security Act (2012) stipulates that non-workers will be able to join voluntarily. But the reality is uncerta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started in 2001 at 1% of total health expenditure. Due to the impact of humanitarian aid, it gradually increased to 9% in 2010. The only to 7% in 2011, it still accounts for about half of the level of government investment in health. The ODA funding structure, excluding the government, often directs international NGOs with assistance from external development partners. There is a risk of chaos in the national health system. This can lead to the development of health systems and programs that do not conform to national norms and standards (WHO 2008). Therefore, guidelines are needed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Ministry of Health to formulate and implement health policies and to ensure the coordination and effectiveness of aid.

#### 4. Achieving gradual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Myanmar did not have a medical insurance system. Due to the low investment of the government, individuals have been paying for most of the medical services directly. In order to achieve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it is important to prepare a financing plan related to the supply of medical services and to establish a social security system. Recently, the Myanmar government has increased spending on the medical sector. The increased spending was mainly used to recruit staff for medical institutions or to purchase essential medicines and medical equipment. No 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in terms of funding methods. Currently, financing methods for medical services are quite mixed. Various health finance systems are being used, such as emergency medical service subsidies, hospital capital funds, hospital trust funds, donations, maternal health vouchers, free medical care from NGOs, and subsidies through local commissioned businesses (MOH and WHO 2012). There is also controversy among experts about how medical services are provided to poor patients and how to finance them to ensure equity.

New legislation on social security, adopted by a joint meeting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2012, has changed the delivery and financing of health care. This bill established the Social Security Commission. The social security fund was created by collecting insurance premiums. It also attracted financial and human investment from the government. This will include health and social insurance, pension benefits, maternity and sick leave, disability and death compensation, and unemployment benefits. But only for workers. The benefits are not provided to farmers and the poor, who make up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Whether public health institutions could properly fulfill their roles for insured persons under the new system was a topic of discussion. The way in which services are purchased through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paid to providers affects the effectiveness of the health care system. There is an urgent need to expand safeguards for the majority of the poor in rural areas.

### III. Conclusion

From 1948 to 1962, Myanmar had a public finance–public service model. National taxes from 1962 to 1974 became a major source of health finance along with international aid.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began to grow during this period. Donations at the community level also played a big role. It had an impact on the

finances also central hospitals. The NHC has requested additional financing measures, also initiated reforms in the health and finance sect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trust fund is to reduce the cost burden of the poor and allow the community to share health and medical expenses. Medical services were provided in hospitals affiliated with the Ministry of Labor etc. The Social Security Act extended services to private pharmacies. Most of health care financial system consists of individual medical expenses. The public finance system is still in its infancy. The number of beneficiaries of the Social Security Act was less than 1% of the total population. The majority belong to the unemployed population, and 26% of the total population belongs to the poor. The Social Security Act(2012) expanded the scope of eligible workers. Social security programs follow the ILO's typical types of assistance, such as maternity protection. In 2012, held a workshop on the evaluation of overall health system for expansion of local health systems and access to health systems. These strategies reduce patient out-of-pocket costs and increase access to health care for the poor.

The individual medical expenses shows a high proportion because the role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is very insignificant. Most of the medical expenses are spent on private clinics. Public health care is free, but pay for other medical services. More than 40% of household non-food expenditures were spent on health care(15-35% of income). Governments should collect health-related taxes through an equitable distribution of income.

Private medical expenses at government health institutions are usually incurred. Private health insurance is still in its infancy. The demand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is expected to increase. The government policy related to it is insufficient. ODA still accounts for about half of the level of government investment in health. The guidelines are needed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Ministry of Health to formulate and implement health policies and to ensure the coordination and effectiveness of aid.

The individuals have been paying for most of the medical services directly. In order to achieve UHC, it is important to prepare a financing plan related to the supply of medical services and to establish a social security system. New legislation on social security has changed the delivery and financing of health care, and established the Social Security Commission. The social security fund was created by collecting insurance premiums. It also attracted financial and human investment from the government. But the benefits are not provided to farmers and the poor, who make up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There is an urgent need to expand safeguards.



## Reference

Asian Development Bank(ADB), 2012, Annual Report 2012.

Asia Pacific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APO), 2014,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Health System Review.

Aye, Thida and James Finch, 2000, Pharmaceuticals in Myanmar, law and procedure 2000., Singapore Journal of Inter. and Cooperate Law, 4, p115-147.

Department of Health National Tuberculosis Programme(DOH-NTP) 2011, The five-year National Strategic Plan(NSP) (2011-2015).

Fund(UNICEF), 2012, Situation Analysis of Children in Myanmar.

Hoon-sang Lee, 2013, ODA in the health and medical field - The status of free ODA in the health and medical field and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Korea Health Industry Promotion Agency.

Hong Seok-pyo, 2011, A Study on Effective Operational Plan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Korea's Health and Medical C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olloway K.A., 2011, Myanmar Drug Policy and Pharmaceutical in Health Care Delivery. , WHO, Regional Office for South East Asia, New Delhi.

IPSOS. 2013, Healthcare in Myanmar.

Jong-goo Lee, 2013, International Health and Non-communicable Diseases (NCD)., Korea International Health and Medical Foundation.

Kim Yoon, 2013, International health and globalization: Any relations between Globalization and Global Health., Korea International Health and Medical Foundation.

Kyaw Moe, Erik G. Hummelman, Win Mar Oo, Thandar Lwin, and Tin Tin Htwe, 2005, Hospital-based surveillance for Rotavirus diarrhea in children in Yangon, Myanmar. J Infect Dis., 192,

Lin, Wai Yee and Masahiro Yamao, 2014, Street foods safety in Yangon: A case study on street food vendors' socio-economics and production aspects., Economics, Finance and Social Sciences AP14 Singapore Conference.

Lee Soo-gu, 2013,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 Car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International Health and Medical Foundation.

Jong-goo Lee, 2013, International Health and Non-communicable Diseases (NCD)., Korea International Health and Medical Foundation.

Ministry of Health(MOH), 2005, Malaria situation in Myanmar(1976-200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0, Report on National TB Prevalence Survey, 2009-201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1, Myanmar National Strategic Plan on HIV/AIDS, 2011-201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3, Health in Myanmar 2013

Ministry of Health(MOH)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08, Health Care Financing Methods and Access to Health Care in Myanma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2, Tuberculosis in Myanmar: Progress, Plans and Challenges. 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MNPED) and United Nations Children' 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4, Overview of Myanmar 2014. 10.

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MNPED) a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2007, Integrated Household Living Conditions Survey in Myanmar: Poverty Profil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1,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2, World malaria report 201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4, Myanmar Healthcare Report 2013-2014: A Look Into Myanmar' s Emerging Healthcare Sector., Rubicon Strategy Group LLC.

Phillips G.A., Soe J.W., Kong J.H.B., and Curry C., 2014, Capacity building for emergency care: Training the first emergency specialists in Myanmar.” Emergency Medicine Australasia.

Shobert Benjamin, 2013, Healthcare In Myanmar., Forbes.

Thant Zaw Lwin, Jutatip Sillabutra and Sukhontha Kongsin, 2011,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in Selected Townships of Lower Myanmar., Society of Interdisciplinary Business Research, Conference on

Interdisciplinary Business Research.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UNAIDS), 2014, Global AIDA Response Progress Report Myanmar.

Yu-Mon-Saw, Khine-Lae-Win, Shiao L.W., Moe-Moe-Thandar, Amiya R.M., Shibnuma A., Soe-Tun and Jimba M. 2013, Taking stock of Myanmar's progress toward the health-related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current roadblocks, paths ahead., Inr. J. Equity Health, 12, 78

---

# 탈세계화 시대 통상외교 전략방향에 관한 연구 : 가치기반 통상외교

Park, Hyun-Yong (Duksung Women's University)

## | Agenda

**I . Research Background**

**II. Research Model and Data**

**III. Results**

**IV. Conclusion and Implication**

---

2



## I . Research Background

(배경)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속에서 한국 통상정책(전략)의 기초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

탈세계화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권국의 세력 약화(상대적 이득의 중요, 보호무역주의 강화)</li> <li>• 브레튼우즈체제 약화(WTO, IMF, IBRD), UN의 무력, NATO 중요성</li> <li>• 미중 무역분쟁(미국동맹국 vs 중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li> <li>• 우크라이나 전쟁(미국유럽 동맹국 vs 러시아, 에너지 수급 불안정)</li> </ul>
한국 통상 정책 기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상 정책 : FTA와 ODA</li> <li>• 통상 전략 : 이익 관점(GVCs 선택) vs 가치 관점(국제정치경제)</li> <li>• 기조 변화 : 체제경쟁(Regime Competition),가치경쟁(Value Competition) 형태</li> </ul>
한국의 특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입국 : 수출중심의 경제성장의 성과와 한계</li> <li>• 4대 강국과 관계 :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정치 경제관계</li> <li>• 역사적 경험 : 구한말 외교정책의 실패, 식민지 시대 경험</li> </ul>

2022-11-22

## I . Research Background

(목적) 가치기반의 통상외교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통상외교 정책 변화 모색

통상정책의 가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권국의 세력 약화(상대적 이득의 중요, 보호무역주의 강화)</li> <li>• 미중 무역분쟁(미국동맹국 vs 중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li> <li>• 우크라이나 전쟁(미국유럽 동맹국 vs 러시아, 에너지 수급 불안정)</li> </ul>
미국 vs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바이든 행정부) :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빅텐트(IPEP, PEP4)</li> <li>• 중국(시진핑 장기 집권) : 문명국가론, 천하주의, 반패권주의, 일대일로</li> </ul>
가치기반의 통상외교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치외교 : 경제적 이득이 아닌 이념의 합치성 중시</li> <li>• 문화외교 : Hard power(군사, 경제) vs Soft power(문화, 사상)</li> <li>• 통상외교 : (단기) 국민소득 증대 vs (장기) 지속가능 국가</li> </ul>

2022-11-22

### III. Research Model and Data

(통상외교)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통상외교 전략 필요, FTA전략과 ODA 전략 전환 필요

새로운 통상외교 전략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냉전시대 도래 : 탈냉전에서 신냉전(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li> <li>- 미중무역갈등, 인권문제, 지적재산권, GVCs 재편</li> <li>• 중국경제의 급성장 : 경제, 정치, 외교적 영향력 강화</li> <li>- 2001년 WTO 가입,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일대일로, RCEP 발효</li> <li>• 미국과 유럽의 약화 : 미국 패권에서 미국 동맹국 협력형태로 전환</li> <li>-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브렉시트, 제조업 약화</li> <li>• 일본, 러시아, 새로운 경제강국들의 성장</li> <li>- 일본(30년 장기 불황), 러시아(우턴 장기집권), 인도/브라질/사우디</li> </ul>
지역주의 통상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명한 대립관계 : 미국동맹진영 vs 중국</li> <li>- IPEF vs RCEP, NATO vs CSTO, 쿼드 플러스 vs 중국</li> <li>• 다자원적 FTA : CPTPP vs RCEP</li> <li>- 한미FTA, 한중FTA, 한일FTA, RCEP</li> <li>• 국제개발협력(ODA) 추진에 있어서 국가적 차이 발생</li> <li>- 미얀마(군부 쿠데타)에 대한 중국, 일본, 한국의 대응</li> </ul>

2022-11-22

5

### III. Research Model and Data

(가치외교) 추상적 개념과 원칙에 기반한 외교 정책, 각 국가별 다른 가치외교 추구, 한국의 대응 방안  
(한국 통상정책에서 가치외교는?) 한국의 통상외교, 한미FTA와 한중FTA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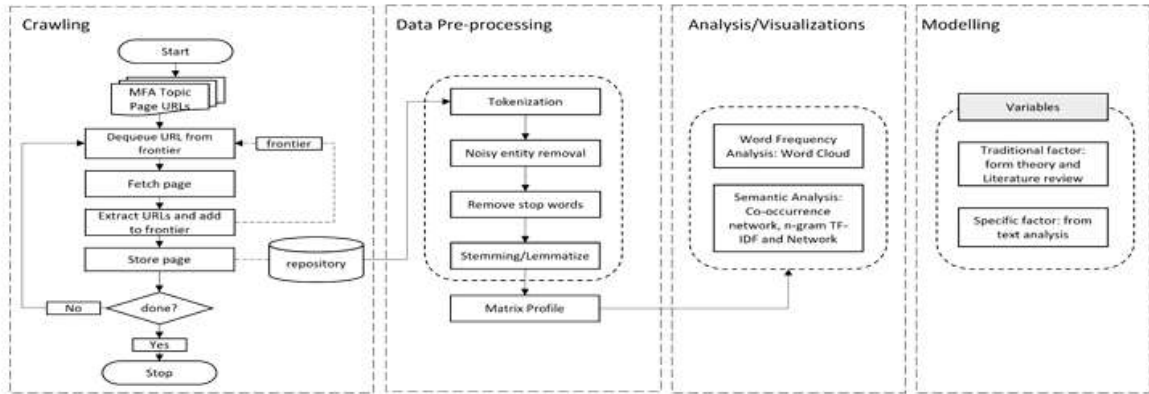
가치 외교 (value diplomacy) (김태환,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치(value) : 무엇이 좋고, 그른 것인가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이나 원칙을 나타내는 것</li> <li>• 가치외교(value diplomacy) : 국가의 가치를 외교정책에 반영하여, 국제사회에서 대변(advocate)하고 증진하며 실천하고자 하는 외교</li> <li>- 상대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관계를 설정하는 외교</li> <li>- 본국과 상대국간 공통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 때 외교관계를 설정</li> <li>-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간 구별 발생</li> <li>- 국제사회의 블록화, 친구와 적의 대립 관계로 변화</li> </ul>
주요 국가별 가치외교 (사공목,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 자유와 번영의 호(arc of freedom and prosperity)(2006년)</li> <li>-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 시장경제</li> <li>- 미일동맹, 국제공조, 아시아 국가화 강조(오승희, 2022)</li> <li>• 중국 : 정당한 지위 회복 중국몽, 반자유주의 패권국 대항</li> <li>- 자유무역,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위기 대응(일대일로, 중화경제권)</li> <li>• 러시아 : 강대국 정체성 회복, 국가주의, 전통존중, 기독교 가치</li> </ul>
연구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통상전략에서 핵심 가치는 있는가? (통상정책을 통한 한국이 지키려는 것은?)</li> <li>• 미국과 중국에 대한 통상전략에서 이러한 가치는 구현되었는가? (한미 FTA, 한중 FTA)</li> </ul>

2022-11-22

6

### III. Research Model and Data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문서로부터 키워드 추출(crawling), 전처리(Pre-processing), 분석 대상 키워드들과 구조를 결정  
빈도, 동시출현, 키워드간 상호관계 등을 통해 중요한 키워드와 주제를 도출  
(분석 내용) 중 등장빈도(TF; Term Frequency), 중요 단어빈도(TF-IDF;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토픽모델링 분석



2022-11-22

7

### II. Research Model and Data

(분석대상)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문(총 20개) 서문(preface)  
(분석목적)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배경과 목표를 통해 통상외교의 방향 도출

구분	분석 대상 기사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서문	
분석 대상 FTA	총 20건 (FTA 협정문 서문)	
분석 대상 단어	399	
분석 대상 문장	291	

순서	주요 내용	
데이터 수집	FTA 협정문 서문	산업통상자원부 FTA 포털에 공개된 협정문 전문 중 서문 내용 수집
데이터 클리닝	1. 데이터 전처리 유사어, 지칭어, 제외어 사전 2. 형태소 분석 명사 추출 분석	유사어(similarity) : 미중갈등, 미중경쟁, 패권경쟁 : 무역, 수출입 : 기독교, 그리스도교 : 자유주의, 자유주의 : 자유무역, 자유무역 등 지칭어(Defined Word) : 가치외교, 자유주의, 시장경제, 인권, 빈의지배, 기후 변화, 고립주의, 전세주의, 균형외교, 세력균형, 전략동맹, 국가안보 등 제외어(Exclusion): 문장부호, 특수문자 제외
데이터 분석	키워드 중요도 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	: 키워드 중요도 분석(TF, TF-IDF) : 토픽 분석(LDA)

2022-11-22

8



### Ⅲ. Results : (1) TF분석(단어 중심도분석) 결과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1	당사국	174	0.45017
2	자유무역협정	84	0.19931
3	증진	66	0.2268
4	투자	65	0.19588
5	무역	62	0.19588
6	발전	50	0.15808
7	대한민국	46	0.09278
8	규범	39	0.08591
9	관계	38	0.09622
10	창출	36	0.12027
11	강화	34	0.11684
12	희망	33	0.1134
13	경제	30	0.09622
14	결과	29	0.09968
15	관리	28	0.09278
16	협력	27	0.08591
17	지역	27	0.08247
18	정부	27	0.05498
19	환경	26	0.07904
20	확장	25	0.08247
21	영역	25	0.08247
22	임의	24	0.08247
23	확인	23	0.0756
24	향상	23	0.07904
25	연결	23	0.07216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26	다자주의	23	0.07904
27	기초	23	0.07904
28	일자리	22	0.06873
29	실업	22	0.0756
30	경제개발	22	0.06873
31	모관	20	0.06873
32	추구	20	0.06873
33	민주	20	0.06873
34	공회국	20	0.04811
35	자유무역지대	19	0.06529
36	자유무역	19	0.05842
37	여속가중	19	0.06529
38	시장	19	0.06529
39	상호	19	0.05842
40	기여	19	0.06529
41	기업	19	0.06186
42	확신	18	0.06186
43	장벽	18	0.06186
44	인식	18	0.06186
45	세계무역기구	18	0.06186
46	없다	17	0.05842
47	확대	16	0.05498
48	지속가능성장	16	0.05498
49	마라케쉬협정	16	0.05155
50	축소	15	0.05155



2022-11-22

9

### Ⅲ. Results : (2) TF-IDF분석(중요단어 빈도분석) 결과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1	경제통합	8	0.04811
2	인정	8	0.02749
3	인권	8	0.03093
4	제거	8	0.02749
5	합치	8	0.02749
6	해택	8	0.03436
7	개발	7	0.03093
8	목적	7	0.03436
9	노선	7	0.02749
10	세계	7	0.03093
11	아시아	7	0.02749
12	정책	7	0.03093
13	제고	7	0.02405
14	특별	7	0.02405
15	필요	7	0.03436
16	공동	6	0.02749
17	관련	6	0.02405
18	국제	6	0.02062
19	노동	6	0.02062
20	보호	6	0.0378
21	사업	6	0.02749
22	사용	6	0.02062
23	세계무역기구협정	6	0.02749
24	일반	6	0.02062
25	차별	6	0.02062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26	지속	6	0.02405
27	창설	6	0.03093
28	투명	6	0.02062
29	투명성	6	0.02062
30	호혜	6	0.02405
31	희망	6	0.03093
32	협력	6	0.02062
33	효과	6	0.02062
34	효율	6	0.02062
35	가능	5	0.02062
36	가치	5	0.02062
37	공공복지	5	0.01718
38	공유	5	0.01718
39	기반	5	0.01718
40	노동자	5	0.01718
41	동남아시아	5	0.03436
42	무역장벽	5	0.01718
43	상호무역	5	0.02749
44	신념	5	0.01718
45	원칙	5	0.01718
46	인식	5	0.06186
47	중요	5	0.01718
48	지원	5	0.01718
49	집행	5	0.02062
50	차별	5	0.01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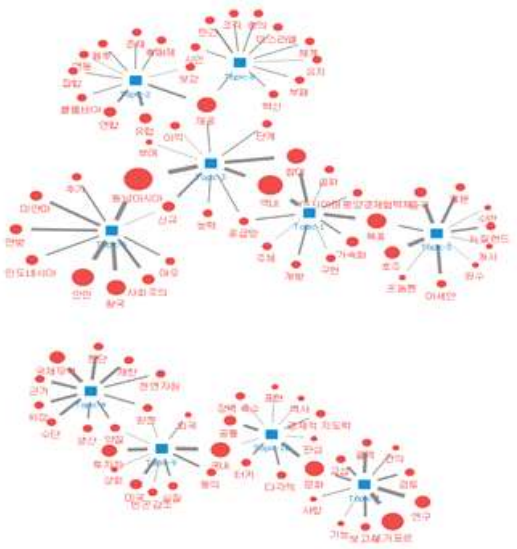
2022-11-22

10



### Ⅲ. Results : (3) 토픽분석(LDA 기법)

업종군						
내용	주요	키워드1	키워드2	키워드3	키워드4	키워드5
토픽1 (7.2%)	확률	역내	목표	참여	가속화	개발
토픽2 (8.9%)	확률	유럽	지중	연말	집합	속도제
토픽3 (4.1%)	확률	동남아시아	역내	참여	신규	능력
토픽4 (1.4%)	확률	국제무역	근거	제한	위장	빈대
토픽5 (1.4%)	확률	호주	중국	일본	아시아	뉴질랜드
토픽6 (2.4%)	확률	인민	동남아시아	왕국	미얀마	연방
토픽7 (2.7%)	확률	싱가포르	연구	공적	검토	교섭
토픽8 (7.9%)	확률	민간	주파	시민	채권	조직
토픽9 (2.7%)	확률	국내	투자자	미국	동반	실질
토픽10 (52.2%)	확률	문화	공동	다각적	타기	경제적 지도력
(토픽1)	역내 시장 개발 참여					
(토픽2)	유럽 연합					
(토픽3)	동남아시아 신규 참여					
(토픽4)	국제무역 제한 빈대					
(토픽5)	아시아 국가 연합					
(토픽6)	동남아시아 국가와 협력					
(토픽7)	연구 검토 기반 참여					
(토픽8)	민간 주파 빈대					
(토픽9)	국내 투자 활성화					
(토픽10)	공동 문화 협력					



2022-11-22

11

### Ⅲ. Results : (4) 가치 키워드 추출 분석(추상명사 추출)

업종군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순위	키워드	빈도
1	중진	66	0.2268	26	실질	22
2	투자	65	0.19588	27	경제개발	22
3	무역	62	0.19588	28	포괄	20
4	발전	50	0.15008	29	주주	20
5	규범	39	0.08591	30	비무	20
6	관계	38	0.09822	31	공화국	20
7	향후	36	0.12027	32	자유무역	19
8	강화	34	0.11684	33	여속가능	19
9	희망	33	0.1134	34	시장	19
10	경제	30	0.09822	35	상호	19
11	결의	29	0.09986	36	기여	19
12	관리	28	0.09278	37	혁신	18
13	협력	27	0.08591	38	장비	18
14	지역	27	0.08247	39	인식	18
15	정부	27	0.05498	40	일자	17
16	환경	26	0.07904	41	확대	16
17	확장	25	0.08247	42	지속가능성장	16
18	역대	25	0.08247	43	축소	15
19	합의	24	0.08247	44	인정	15
20	확인	23	0.0756	45	서비스	14
21	협상	23	0.07904	46	성원수준	14
22	안정	23	0.07216	47	동반자	14
23	다자주의	23	0.07904	48	경제통합	14
24	기초	23	0.07904	49	경쟁력	14
25	일자리	22	0.06873	50	조화	13
				50	약속	13

구상성의 유무에 따라서도 구상명사와 추상명사로 나눌 수 있음  
구상명사 : 안정, 혁신, 연립, 가위, 나무 등과 같이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이고  
추상명사는 '행동, 이상, 습관, 사람, 우정' 등과 같이 추상적인 것을 지시하는 명사일.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가치기반 통상외교 키워드

- 무역투자 증진 및 발전
- 관계 창출 및 강화
- 지역 협력 강화(영역 확장)
- 다자주의를 통한 안정화
- 경제개발과 일자리
-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 확대
- 지속가능성장
- 생활수준 향상
- 경제통합과 경쟁력
- 조화 약속

2022-11-22

12

## II. Research Model and Data

(분석대상) 한미FTA, 한중FTA 언론기사

(분석목적) 한국의 동상외교에서 주요 가치 키워드 도출, 미국과 중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동상외교 전략 존재 여부 확인

구분	분석 대상 기사	
	한미 FTA	한중 FTA
분석 대상 기사	20,000건	3,575건
분석 대상 단어	39,362단어	21,029단어
분석 대상 기사기간	2001.1.1 ~ 2022.9.14	2003.6.9 ~ 2022.9.13

순서	주요 내용	한미FTA	한중FTA
데이터 수집	빅데이터(big data) 사이트를 통해 언론사별 뉴스 수집	검색어: 한미FTA 기간: 2001년1월 ~ 2022년9월 언론사: 전국일간지, 경제일간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전문지 기사 대상: 뉴스, 사설 검색범위: 제목, 본문	검색어: 한중FTA 기간: 2001년1월 ~ 2022년9월 언론사: 전국일간지, 경제일간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전문지 기사 대상: 뉴스, 사설 검색범위: 제목, 본문
데이터 클리닝	1. 데이터 전처리 유사어, 지칭어, 제외어 사전 2. 형태소 분석 명사 수동명사	유사어(similarity): 이중일중, 이중일중, 이중일중 : 무역, 수출입 : 기독교, 그리스도교 : 자유무역, 자유무역 : 자유무역, 자유무역 등 지칭어(defined word): 가치외교, 자유무역, 시장경제, 인권, 범의지배, 기후변화, 고립주의, 전제주의, 균형외교, 세계균형, 전략동맹, 국가안보 등 제외어(Exception): 문장부호, 특수문자 제외	
데이터 분석	키워드 중요도 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	: 키워드 중요도 분석(TF, TF-IDF) 토픽 분석(LDA)	

2022-11-22

13

## III. Results : (1) TF분석(단어 중심도분석) 결과

한미FTA				한중FTA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1	한미	60,107	0.965	1	중국	16,994	0.657343
2	미국	28,565	0.493	2	경제	7,911	0.565315
3	미국	28,465	0.39715	3	한국	6,120	0.476084
4	국회	27,695	0.4715	4	한중	5,640	0.485874
5	처리	23,443	0.3494	5	시장	5,632	0.469371
6	대통령	23,068	0.3227	6	기업	5,520	0.403357
7	대통령	21,054	0.2835	7	정부	5,428	0.518322
8	정부	20,807	0.3899	8	협상	5,408	0.375944
9	대표	20,131	0.37675	9	수출	5,333	0.354685
10	민주당	20,087	0.34175	10	한중	4,424	0.659301
11	한나라당	16,741	0.31795	11	무역	4,088	0.437762
12	경제	15,781	0.2879	12	지역	3,814	0.343497
13	후보	14,999	0.1129	13	동상	3,236	0.292308
14	한국	14,947	0.2802	14	국회	3,196	0.273566
15	협정	13,479	0.43275	15	대통령	3,151	0.211469
16	협상	11,937	0.2294	16	지원	3,132	0.304056
17	국회	11,701	0.2601	17	정책	2,977	0.347133
18	지역	11,672	0.1899	18	대표	2,974	0.259021
19	무역	11,356	0.30305	19	세무	2,938	0.118042
20	시장	10,918	0.2146	20	협력	2,914	0.255944
21	정책	10,743	0.2227	21	통관	2,791	0.227692
22	정치	10,697	0.2074	22	관세	2,728	0.256503
23	위원장	9,559	0.18645	23	농업	2,677	0.210909
24	이날	9,499	0.30845	24	협정	2,662	0.438601
25	발표	8,976	0.20255	25	정치	2,648	0.23021

한미FTA				한중FTA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24	이날	9,499	0.30845	24	협정	2,662	0.438601
25	발표	8,976	0.20255	25	정치	2,648	0.23021
26	민주당	8,971	0.22135	26	주인	2,581	0.346833
27	회의	8,941	0.2187	27	문자	2,562	0.317203
28	빈대	8,925	0.2515	28	사업	2,528	0.256234
29	지원	8,898	0.1668	29	양국	2,431	0.251499
30	입장	8,435	0.24095	30	확대	2,315	0.313846
31	가능	8,355	0.22875	31	비준	2,295	0.195345
32	자동차	8,339	0.1396	32	체결	2,259	0.31972
33	합의	8,220	0.19815	33	처리	2,232	0.18042
34	법안	8,187	0.1282	34	미국	2,110	0.204476
35	대행	8,065	0.1861	35	발표	2,046	0.253966
36	기업	7,748	0.14725	36	피해	2,030	0.244476
37	여당	7,698	0.1993	37	무	2,026	0.23972
38	통관	7,561	0.13196	38	식품	2,023	0.169231
39	식품	7,520	0.25295	39	합의	2,020	0.218382
40	국가	7,470	0.1977	40	의결	2,015	0.147682
41	자유	7,419	0.295	41	국가	2,003	0.274406
42	요구	7,408	0.2215	42	가능	1,996	0.286154
43	의회	7,363	0.15915	43	회의	1,995	0.211748
44	수출	7,282	0.12305	44	나라	1,924	0.231808
45	산업	7,238	0.14785	45	정상	1,876	0.15972
46	통관	7,169	0.10185	46	세계	1,862	0.240599
47	주장	7,153	0.2219	47	타결	1,853	0.212867
48	위원장	7,038	0.22005	48	전환	1,822	0.246993
49	온라인	6,979	0.1218	49	대행	1,788	0.234965
50	원내	6,681	0.14515	50	개방	1,771	0.203594

2022-11-22

14

### Ⅲ. Results : (2) TF-IDF분석(중요단어 빈도분석) 결과

한미FTA				한중FTA				한일FTA				한중FTA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1	미국	7,943	0.39715	1	협상	1,344	0.000559	26	요구	4,430	0.2215	26	논의	908	0.253986
2	정부	7,798	0.3899	2	수출	1,268	0.000839	27	위원회	4,401	0.22005	27	발표	908	0.00028
3	대교	7,535	0.37675	3	정책	1,241	0.00028	28	회의	4,374	0.2187	28	상황	908	0.001958
4	처리	6,988	0.3494	4	추진	1,240	0.003077	29	시장	4,292	0.2146	29	양국	899	0.00028
5	민주당	6,835	0.34175	5	지역	1,228	0.015385	30	정치	4,148	0.2074	30	여당	896	0.000559
6	이원	6,454	0.3227	6	채널	1,143	0.005874	31	상황	4,100	0.205	31	전략	883	0.00028
7	한나라당	6,359	0.31795	7	무역	1,134	0.010909	32	발표	4,051	0.20255	32	피해	874	0.00028
8	이날	6,169	0.30845	8	확대	1,122	0.000559	33	야당	3,986	0.1993	33	강화	863	0.241399
9	무역	6,061	0.30305	9	지원	1,087	0.001399	34	합의	3,963	0.19815	34	세계	860	0.00028
10	자유	5,900	0.295	10	투자	1,045	0.00028	35	국가	3,954	0.1977	35	계통	857	0.23972
11	경제	5,758	0.2879	11	마련	1,036	0.000559	36	지역	3,798	0.1899	36	투	857	0.003077
12	대통령	5,670	0.2835	12	가능	1,023	0.286154	37	통의	3,750	0.1875	37	대책	840	0.234965
13	한국	5,604	0.2802	13	기업	1,021	0.285594	38	위원회	3,729	0.18645	38	나라	828	0.231608
14	국민	5,202	0.2601	14	진행	1,005	0.00028	39	대책	3,722	0.1861	39	정치	823	0.00028
15	서울	5,039	0.25195	15	국가	981	0.274405	40	외교	3,672	0.1836	40	영영	814	0.227692
16	반대	5,030	0.2515	16	이날	981	0.00028	41	추진	3,655	0.18275	41	통	814	0.00028
17	자유무역	4,935	0.24675	17	국회	978	0.273566	42	논의	3,607	0.18035	42	발전	812	0.00028
18	임장	4,819	0.24095	18	자유	952	0.258182	43	통과	3,410	0.1705	43	조각	811	0.001119
19	협상	4,588	0.2294	19	방	934	0.000559	44	여당	3,340	0.167	44	강조	803	0.224615
20	가능	4,575	0.22875	20	현장	932	0.001399	45	지원	3,336	0.1668	45	예정	803	0.001119
21	강조	4,572	0.2286	21	대교	926	0.259021	46	나라	3,276	0.1638	46	개최	780	0.218182
22	정책	4,454	0.2227	22	자유무역	923	0.002517	47	예상	3,228	0.1614	47	합의	780	0.001119
23	이명박	4,453	0.22265	23	관세	917	0.256503	48	전방	3,196	0.1598	48	진출	775	0.000559
24	주장	4,438	0.2219	24	사업	916	0.000559	49	의정	3,183	0.15915	49	타입	761	0.00028
25	민주	4,431	0.22135	25	협력	915	0.023776	50	사회	3,158	0.1579	50	생산	759	0.024615

2022-11-22

15

### Ⅲ. Results : (3) 토픽분석(LDA 기법)

한미FTA							한중FTA						
내용	주요	키워드1	키워드2	키워드3	키워드4	키워드5	내용	주요	키워드1	키워드2	키워드3	키워드4	키워드5
도픽1 (6.8%)	키워드	수출	관세	수입	협상	가격	도픽1 (14.0%)	키워드	발전	원내	아산	이원	예산
도픽2 (5.3%)	키워드	초청	수출	투자	보호	투자자	도픽2 (8.3%)	키워드	인원	도시	유치	교육	세민공
도픽3 (5.6%)	키워드	금융	투자	상승	업체	경기	도픽3 (4.5%)	키워드	장관	금융	투보	충북	복지
도픽4 (6.2%)	키워드	회장	중소기업	활용	사업	교육	도픽4 (10.9%)	키워드	중소기업	협회	회장	센터	분부
도픽5 (5.8%)	키워드	사업	사회	나라	복지	교수	도픽5 (19.7%)	키워드	미국	회담	일본	대통령	한미
도픽6 (15.0%)	키워드	오바마	정상	회담	장관	법인	도픽6 (3.2%)	키워드	대통령	영거	생각	인터뷰	말씀
도픽7 (24.9%)	키워드	법인	상정	외통	의정	분회	도픽7 (6.8%)	키워드	농민	중단	서울	집회	대회
도픽8 (8.1%)	키워드	농업	사업	제주	농가	예산	도픽8 (14.4%)	키워드	탈려	업체	자동차	업종	차전자
도픽9 (10.7%)	키워드	투보	통합	충신	선거	공천	도픽9 (6.3%)	키워드	제주	투보	도민	제주도	감공
도픽10 (11.6%)	키워드	집회	경찰	시민	단체	충북	도픽10 (11.8%)	키워드	식품	농가	제외	가공	수신
(도픽1)	수출입 관세 철폐						(도픽1)	협상과 대당 의원 동의					
(도픽2)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ISD)						(도픽2)	투자유치, 관광산업 영향					
(도픽3)	금융 투자 임종 영향						(도픽3)	금융, 일자리 영향					
(도픽4)	중소기업 FTA 활용						(도픽4)	중소기업 FTA 활용					
(도픽5)	복지 국가						(도픽5)	미국, 일본 등 주변국과 협력					
(도픽6)	한미 정상회담						(도픽6)	정치권의 입장					
(도픽7)	비중 동이인 국회 상정						(도픽7)	농민들의 반대 집회					
(도픽8)	농업 피해 보상						(도픽8)	자동차 산업 등 수혜업종					
(도픽9)	충신 정치						(도픽9)	제주 감공 농가 피해					
(도픽10)	충북 집회						(도픽10)	충북수산물 양어 제외					

2022-11-22

16



### Ⅲ. Results : (4) 가치 키워드 추출 분석(추상명사 추출)

한미FTA				한중FTA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1	대표	7,535	0.37675	1	협상	1,344	0.000559
2	처리	6,988	0.3494	2	수출	1,268	0.000839
3	무역	6,061	0.30305	3	추진	1,240	0.003077
4	자유	5,900	0.295	4	채널	1,143	0.005874
5	경제	5,758	0.2879	5	확대	1,122	0.000559
6	현대	5,030	0.2515	6	지원	1,087	0.001399
7	자유무역	4,935	0.24675	7	투자	1,045	0.00028
8	협상	4,588	0.2294	8	마련	1,036	0.000559
9	가능	4,575	0.22875	9	진행	1,005	0.00028
10	강조	4,572	0.2286	10	자유	952	0.258182
11	중앙	4,438	0.2219	11	대표	926	0.259021
12	민주	4,431	0.22155	12	자유무역	923	0.002517
13	요구	4,430	0.2215	13	협력	915	0.023776
14	회의	4,374	0.2187	14	논의	908	0.253986
15	시장	4,292	0.2146	15	발효	908	0.00028
16	발효	4,051	0.20255	16	예상	896	0.000559
17	합의	3,963	0.19815	17	강화	863	0.241399
18	동맹	3,750	0.1875	18	계획	857	0.23972
19	외교	3,672	0.1836	19	발전	812	0.00028
20	추진	3,655	0.18275	20	강조	803	0.224615
21	논의	3,607	0.18035	21	예정	803	0.001119
22	통과	3,410	0.1705	22	개혁	780	0.218182
23	예정	3,340	0.167	23	합의	780	0.001119
24	지원	3,336	0.1668	24	진술	775	0.000559
25	예상	3,228	0.1614	25	타결	761	0.00028

한미FTA				한중FTA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26	전망	3,196	0.1598	26	생산	759	0.024615
27	상관	3,138	0.1569	27	회의	757	0.000839
28	지적	3,129	0.15645	28	개발	735	0.205594
29	마련	3,110	0.1555	29	모형	726	0.005035
30	진행	3,088	0.1544	30	성장	722	0.001399
31	제도	2,987	0.14935	31	요구	705	0.000559
32	확대	2,984	0.1492	32	비준	698	0.00028
33	실명	2,943	0.14715	33	대응	692	0.193566
34	시작	2,940	0.147	34	협의	690	0.036643
35	축구	2,828	0.1414	35	일상	686	0.00028
36	계획	2,792	0.1396	36	수입	678	0.010629
37	강화	2,737	0.13685	37	일용	678	0.00028
38	통합	2,639	0.13195	38	연말	674	0.000559
39	투자	2,629	0.13145	39	설명	667	0.008951
40	노력	2,582	0.1291	40	처리	645	0.00028
41	합식	2,581	0.12905	41	지적	641	0.007273
42	제협상	2,552	0.1276	42	자원	618	0.003077
43	채널	2,494	0.1247	43	노력	614	0.171748
44	수출	2,461	0.12305	44	증가	609	0.00028
45	합의	2,428	0.1214	45	대비	591	0.165315
46	합의	2,414	0.1207	46	참석	589	0.015664
47	비판	2,392	0.1196	47	주장	582	0.00028
48	지지	2,364	0.1182	48	중요	582	0.002517
49	강행	2,272	0.1136	49	연말	574	0.001399
50	포함	2,119	0.10595	50	개선	551	0.154126

2022-11-22

17

### IV. Conclusion

#### 한국의 통상외교

- 한국의 통상외교가치 : 일관되거나 명확하게 나타나는 가치는 나타나지 않음
- 핵심 가치 : 무역투자 증진 및 발전, 관계 창출 및 강화, 지역 협력 강화(영역 확장), 다자주의를 통한 안정화, 경제개발과 일자리,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 확대, 지속가능성장, 생활수준 향상, 경제 통합과 경쟁력, 조화 약속
- 국가별 차별화된 통상외교 전략도 분명하지 않음
- 한미 FTA : 자유, 민주, 경제, 시장, 협상
- 한중 FTA : 시장(확대), 산업(보호), 활용(적극적)

#### 한미FTA와 한중FTA 비교분석 결과

- 한미FAT : 정치적, 이념적 vs 한중 FTA : 실리적, 경제적 이득
- 한미 FTA : 가치 중심, 정치이슈, 장기화(가치의 과잉 개입)
- 한중 FTA : 가치 배제, 산업피해 구제(가치를 고려하지 않음)

#### 정책 제언

-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상외교 전략 필요 : 민주주의, 중진국, 글로벌공급망
- 가치 기반의 일관되고 장기적인 목표 필요 : 자유, 시장, 다자, 무역
- 국가별 통상외교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 필요 : 지역내 한국의 역할

2022-11-22

18



#### IV. Conclusion

##### 연구의 의미

- 가치외교를 통상분야에 적용한 연구
- 한국 통상외교 전략 필요성 제시
-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가치 추출

#####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

- 정량분석 결과에 대한 질적 연구 보완 필요 (컨텍스트 분석)
- 비교분석(미국, 중국, 일본 등의 통상외교 전략 분석)

Thank you for your listening !

## 세션 9

### 러시아 북극 원주민

# 신냉전에 따른 북극에서의 협력: 도전과 전망

2022.11.25.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배규성

## 목차

1.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사회(질서)의 변화 - 북극의 신냉전
2. 북극에서의 협력 - 보이콧, 글로벌 이슈 후퇴, 협력 전망?
3. 북극의 신냉전 - 군비경쟁 또는 제한적 협력?

## 1.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사회의 변화

- 우크라이나 전쟁(2022.2.24.-)과 대 러시아 제재
-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과 러시아의 핵 위협
- 전쟁의 양상 변화 =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유럽(NATO)+미국+우크라이나 vs 러시아+중국+?
- 식량과 에너지의 무기화 -> 푸틴플레이션(에너지, 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
- 푸틴플레이션 + 'S(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 'R(리세션)'의 공포
- 국제사회의 '편가르기' -> '신냉전' 또는 '블록화'
- 한국의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총 1억 달러 <-> 러시아,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
- 한국의 노선 변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
-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이미 '신냉전'이 시작되었다."

## 2. 신냉전과 북극에서의 협력

2.1. 북극 거버넌스 - AC(arctic Council) 보이콧과 마비

2.2. 글로벌 이슈 - 북극 과학협력(WGs) 중단과 기후변화(CC) 악화

2.3. AC가 후원한 국제협정의 관리 문제



## 2.1. 북극 거버넌스 - AC(Arctic Council) 보이콧과 마비

- AC(Arctic Council) = Arctic Big 5(북극해 연안 5개국) + 3(비연안국)
  - \* 연안 5개국 = 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그린란드(덴마크)
  - \* 비연안 3개국 =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 Arctic 5+2의 AC 보이콧 마비
  - \* 2022년 3월 3일 북극이사회(AC)의 8개 회원국 중 러시아를 제외한 7개국, 즉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은 현재 러시아가 의장국으로 있는 북극이사회와 산하 기구(WGs)에 대한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 \* 성명은 이들 7개국의 북극이사회(AC) 보이콧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 북극이사회(AC)의 의장국인 러시아가 의장직을 노르웨이에 넘겨주는 2023년 5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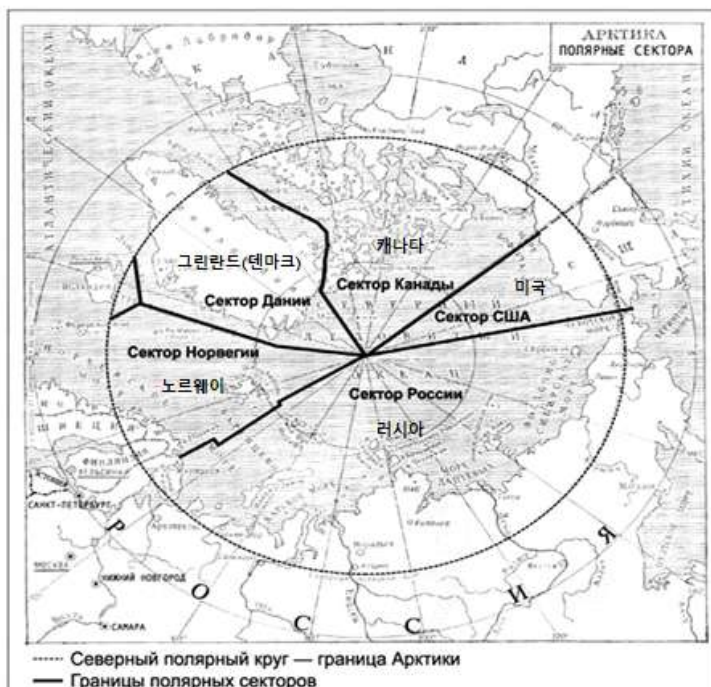
### 북극 이사회 (AC, Arctic Council)

(설립) 1996.9.19. (오타와선언) · (목적) 북극권 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 북극권 원주민의 복지.

회원국(8)	원주민 조직(6개)	워킹그룹(6개)	옵저버
- 노르웨이, - 덴마크, - 러시아, - 미국, - 스웨덴, - 아이슬란드, - 캐나다, - 핀란드	- 알류트국제협회 (Aleut International Association); - 북극아타바스칸이사회 (Arctic Athabaskan Council); - 그위친국제이사회 (Gwich'in Council International); - 이뉴이트환극지이사회 (Inuit Circumpolar Council); - 러시아북방원주민협회 (Russian Association of Indigenous Peoples of the North); - 사미이사회 (Saami Council)	- 북극 오염 물질 행동 프로그램 (ACAP, Arctic Contaminants Action Program); - 북극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그램 (AMAP, Arctic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gramme); - 북극 동식물계 보존 워킹 그룹 (CAFF, Conservation of Arctic Flora and Fauna); - 비상 예방, 대비 및 대응 워킹 그룹 (EPPR, Emergency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 북극 해양 환경 보호 워킹 그룹 (PAME, Protection of the Arctic Marine Environment); - 지속 가능한 개발 워킹 그룹 (SDWG, 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Group)	- 13개 옵저버(비북극권 국가들) * 한국(2013) - 13개 옵저버(정부간 의회간 조직) - 12개 옵저버(NGOs 비정부기구)

## 2.2. 글로벌 이슈 - 북극 과학협력(WGs) 중단과 기후변화(CC) 악화

- AC의 WGs 기능 마비와 북극 과학협력(WGs)의 중단
- 북극의 이슈는 글로벌 이슈,
  - 기후변화
  - 생물 종 다양성
  - 오염 방지
- 협력의 불가피성, 러시아 북극권은
  - 북극해 해안선의 50% 이상
  - 전세계 동토대의 2/3 이상
  - 기후변화 관련 과학연구 협력 중단은 기후변화의 악화로



Arctic 5

<https://geo.1sept.ru/article.php?ID=200700102>

## 2.3. AC가 후원한 국제협정의 관리 문제

- 2011년 북극 항공 해양 수색 및 구조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Cooperation on Aeronautical and Maritime Search and Rescue in the Arctic)
- 2013년 북극의 해양 석유 오염 대비 및 대응에 관한 협력 협정  
(Agreement on Cooperation on Marine Oil Pollu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in the Arctic)
- 2017년 국제 북극 과학 협력 강화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nhancing International Arctic Scientific Cooperation)
- 2018년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Agreement to Prevent Unregulated High Seas Fisheries in the Central Arctic Ocean)  
\* 중국, “진화론의 고향에서 오징어 싹쓸이”(어선 3,000여척), “동해 오징어?”, “남미 앞바다 싹쓸이”

## 3. 북극의 신냉전 - 군비경쟁 또는 제한적 협력?

1. 북극의 신 냉전  
나토(AC 8개 회원국 중 7개국=미니 나토) vs 러시아 = 대결  
\* 러시아의 중국과 인도 끌어들이기
2. 북극의 군비 경쟁
3. 북극의 군비경쟁의 핵심은 핵무기, 핵추진 어뢰,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쇄빙선, 핵발전 선박  
\* (극초음속 미사일 - 적국의 방공시스템을 무력화)
4. 기존 참가자(옵저버) = 한국 + 일본 + 중국(근북극 국가)
5. 새로운 참가자 = 유럽(EU/NATO) + 인도(북극 지분) + UAE(북방향로 LNG환적허브) + 동남아(LNG 필요)
6. 러시아를 제외한 AC 7개 회원국의 제한적 협력, 그러나 효과는?

## 북극권 8개 국가

※ ★ 표시는 나토



자료: 구글 지도

The JoongAng

## 러시아 vs 나토 북극권 군사시설

● 나토 군사시설 ● 러시아 군사시설



자료: 포린폴리시

The JoongAng



# 러시아연방 북극 원주민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 추코트카 자치구 중심으로 -

슬랩첸코 바딤(경희대학교)

## 1. 서론

러시아연방 북극 원주민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많은 요인에 달려 있지만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국가가 경제 발전 과정에서 그들에 대해 취하는 태도이다. 집중적인 경제 발전은 러시아 북극 권에서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모국어 구사, 종교의식 수행, 전통 자연 이용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북부 원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문제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조건에서 사회적 적응 여부에 달려 있다.

추코트마 자치구에는 4개의 토착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민족은 축치족과 에스키모족이다. 최근에 이 두 민족의 생활에 있어 특별히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집중적인 경제 개발을 통해 이들은 위험들에 처할 수 있다.

본 글에서 전통 경제 활동(순록 사육과 바다 동물 사냥) 보존에 초점을 맞춰서 추코트카 자치구에서 원주민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러시아가 국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으로는 공개된 자료 분석과 심층 인터뷰가 이용되었다.

## 2. 러시아 북극 원주민 개념 정의

1993년 러시아 연방 헌법(69조)에 최초로 소수 토착민족(коренные малочисленные народы)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연방에는 러시아연방 토착민족 단일 목록(2000)<sup>1)</sup>과 러시아연방 북부, 시베리아 및 극동의 원주민<sup>2)</sup> 목록이 발표되었다<sup>3)</sup>. 이 목록에는 북부,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에서 44개 민족이 포함되어 있다.

1)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4.03.2000 №255 «О едином перечне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Собрани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2000. - №14. - с. 1493; 2012. - №1. - с. 178.

2) 이후 북부, 시베리아 및 극동 원주민을 북극 원주민이라고 함

3) Перечень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Ф (2006)

<표 1> 러시아연방 북부, 시베리아 및 극동의 원주민 목록

통구스어족	핀우그리아어파
에벤키족(Эвенки), 라무트인(Эвены), 나나이족(Нанайцы), 울치족(Ульчи), 우드게족(Удэгейцы), 네기달족(Негидальцы), 오로치족(Орочи), 일타족(Ороки)	코미자라아족(Коми-зыряне), 코미-페르마크족(Коми-пермяки), 카리알라족(Карелы), 한티족(Ханты), 만시족(Манси), 벵스족(Вепсы), 사미족(Саамы), 이조라족(Ижора), 보티아족(Водь)
사모에드어파	튀르크어족
네네츠족(Ненцы), 셀쿠프족(Селькупы), 응가나산인(Нганасаны), 에네츠족(Энцы)	야쿠트족(Якуты), 쇼르족(Шорцы), 돌간족(Долганы), 투바 토지네츠인(Тувинцы-тоджинцы), 텔렝기트족(Теленгиты), 소요트족(Сойоты), 쿠만딘족(Кумандинцы), 텔레우트족(Телеуты), 투발라르족(Тувалары), 첼칸족(Челканцы), 토팔라르족(Тофалары), 출름족(Чулымцы)
고시베리아 제어파	슬라브어파/중국티베트어족
чук족(Чукчи), 코랴크족(Коряки), 니브흐족(Нивхи), 이텔멘족(Ительмены), 에스키모족(Эскимосы), 유카기르족(Юкагиры), 케트족(Кеты), 추반족(Чуванцы), 알류트족(Алеуты), 케레크족(Кереки)	포모르족(Поморы), 캄차달족(Камчадалы) / 타즈족(Тазы)

출처: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7 апреля 2006 года №536-р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еречн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изменениями на 26 декабря 2011 года).

소수 토착민족의 기본 권리 보호는 「러시아연방 소수 토착민의 권리 보장에 관한 법」(1999)으로 규정된다<sup>4)</sup> 이 법에 따르면 일정한 민족을 소수 토착민족으로 인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자신을 독립적인 민족 공동체(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этническая общность)로 인식(자신 식별), 전통 거주지(영토), 특수 경제 공간, 고유 문화, 공통 모국어 보존, 그리고 인구는 5만 명 미만이어야 한다. 소수 민족의 지위와 권리 보호에 관한 러시아 법은 국제 규범, 인권에 관한 러시아의 국가 간 조약 및 소수 민족의 권리 보호를 기반으로 한다.

<표 2> 소수 토착민족 인정에 관한 조건

인구 수	5만 명 미만
거주지	선조들이 전통적으로 거주했던 지역에서 거주
생활양식	전통적인 생활양식, 전통 경제활동 유지
정체성	자신을 독립적인 민족 공동체로 인식

출처: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0.04.1999 №82-ФЗ «О гарантиях прав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Собрани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1999. - № 18.

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0.04.1999 №82-ФЗ «О гарантиях прав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Собрани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1999. - № 18.

이 법으로는 소수 토착민족들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위해 별도의 집단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특수 지위를 갖고 법적으로 보장된 제반 혜택을 받는다(생물학적 자원 이용 우선권, 조기 퇴직, 대체 복무(순록 사육 가능), 토지세 면제 등).

「러시아연방 소수 토착민의 권리 보장에 관한 법」 외에 소수 토착민족의 권리 보호는 「북부, 시베리아 및 러시아연방 극동지역에서의 원주민 공동체 조직의 일반 원칙에 관한 법」(2000)<sup>5)</sup>, 「토착민의 전통적인 자연 이용 영토에 관한 연방법」으로 규정된다. 그 외에 2009년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132번에 따라 「러시아 연방 북부, 시베리아 및 극동 소수 민족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이 채택되었다<sup>6)</sup>.

### 3. 원주민과 지속가능한 발전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며, 자연 기반을 파괴하지 않고 인류 문명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통제되고 균형 잡힌 발전으로 알려져 있다<sup>7)</sup>.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행은 경제적, 사회적, 인구학적, 이념적 측면을 지닌 다면적인 문제이다. 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지역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코트카 자치구도 예외가 아니며 이의 경제 발전은 북극 원주민의 이익과 조화롭게 연결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은 환경과 경제 발전의 균형 잡힌 비율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초한 경제 발전은 자연 환경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하며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영토 개발의 기본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사회 및 환경 이해관계의 조화롭고 과학적 조합이다. 바로 이 과제를 수행하려면 경제 부문에서 일정한 희생은 필연적이다<sup>8)</sup>.

북극 원주민의 경우 지속 가능한 발전은 국가지원의 기반으로 사회 경제적 잠재력 강화, 전통 거주지 유지, 그리고 전통 생활양식 및 문화적 가치를 보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009년 2월 4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132번에 따라 채택된 「러시아 연방 북부, 시베리아 및 극동 소수 민족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sup>9)</sup>은 러시아 중앙정부 기관, 연방주체 기관, 지자체들이 원주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원칙 및 우선순위를 취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전략이다. 동 개념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토착민 협회를 포함한 시민 단체

5)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их принципах организации общин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Ф»

6) «Концепция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7) 처음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87년에 발표된 유엔의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브룬트란트 보고서)"였다.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1987)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5987our-common-future.pdf> (2022.08.08.).

8) А. И. Летувнинкас (1999) "Некоторые аспекты концепци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для томского Севера // Освоение Севера: традиц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Тез. докл. Российско-Канадского семинара. Томск, С. 20.

9)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4 февраля 2009 г. № 132-р «Концепция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의 노력을 결합하여 원주민의 지속 가능한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를 추구한다.

동 개념에 따라 북극 원주민의 지속 가능한 발전 원칙은 다음과 같다<sup>10)</sup>.

- 러시아 연방 헌법, 국제법 및 러시아 연방 국제 조약의 원칙 및 규범에 따른 원주민의 권리 보장.
- 북극 원주민의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종합적 접근 방법 도입.
- 북극 원주민의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중앙정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활동 조화.
-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데 원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장려.
- 북부 원주민의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전통적인 경제 활동의 기초로서 토지, 생물학적 자원을 포함한 기타 천연 자원, 주변 환경의 양호한 상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전통적인 거주지와 전통적인 경제 활동 장소에서 토지와 기타 천연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 전통적 거주지 및 전통적 경제 활동 장소에서 생물자원에 대한 원주민의 우선적 권리 인정(사냥 및 어업).
- 전통적 거주지 및 전통적 경제 활동 장소에서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문제를 원주민 대표와 같이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 인식.
- 북극 원주민의 전통적 거주지 및 전통적 경제 활동 장소에서 이행되는 각종 개발 프로젝트의 문화적, 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성 인지.
- 원주민의 거주지, 전통적인 생활양식 및 건강에 대한 피해보상 보장.

러시아 북극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제반 문제 중 하나는 300여년 북극 개발 역사에서 북극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자연 이용과 관련된 전통 경제활동의 보존이다. 이러한 경제 활동은 동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sup>11)</sup>.

중요한 것은 북극 원주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 지원 메커니즘을 통해 그들의 경제 활동 및 정신문화 보존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촉진해야 한다<sup>12)</sup>.

이와 동시에 북극 원주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사회 경제적 잠재력의 강화와 전통 거주지의 보존을 전제로 한다. 또한 현세대와 향후 세대의 이익을 위한 국가 지원을 기반으로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 4. 추코트카 자치구 원주민

### 4.1. 추코트카 자치구 원주민 현황

추코트카 자치구에서 14,859명의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중에 축치족 (12,772명), 에스키모족(1,529명), 라무트족(1,392명), 추반족(897명)이 대표적이다<sup>13)</sup>. 동 자치구에서 인구가 가장

10) Ibid.

11) В. А. Корчмит (2003) *Устойчив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ов северо-востока России: проблемы, перспективы и пути их решения*. Дисс... докт. экон. наук. Москва, с. 269.

12) С. Х. Хакназаров (2003) *Коренные малочисленные народы в условиях интенсивной эксплуатации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ХМАО: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Томск.: изд-во Том. ун-та, с.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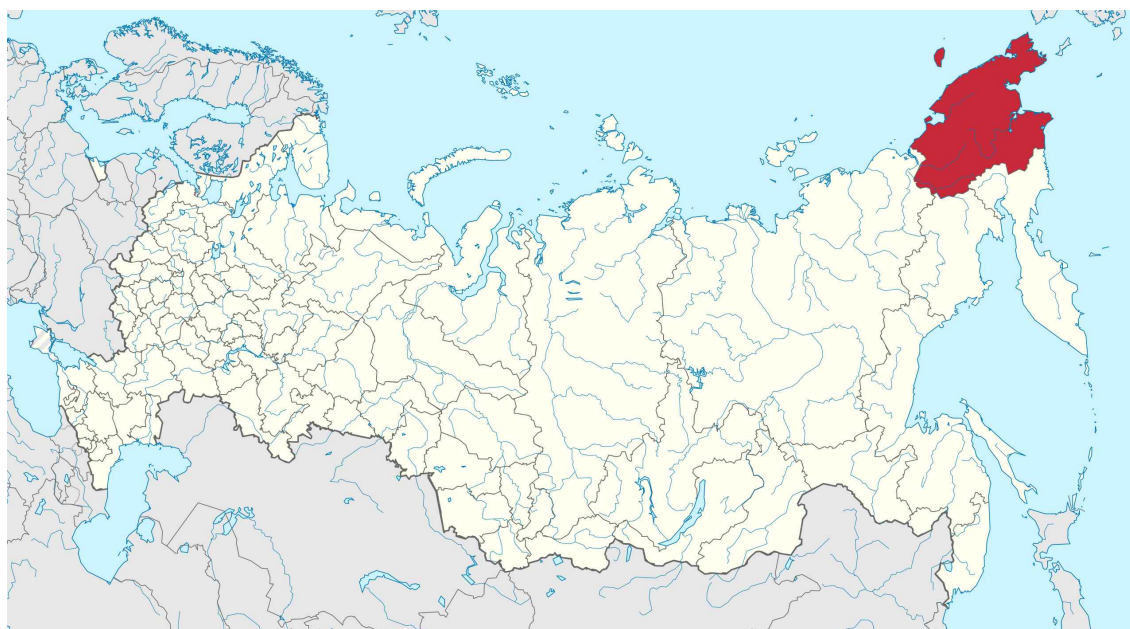
많은 원주민은 축치족이다.

<표 2> 추코트카 자치구 소수 원주민족 인구 수 및 전체 인구 대비 비율(단위: 명)

	1979년	1989년	2002년	2010년
축치족	11,300(8.1%)	11,914(7.27%)	12,622(23.45%)	12,772 (25.28%)
에스키모족	1,300(0.9%)	1,452(0.88%)	1,534(2.85%)	1,529(3.03%)
라무트족	1,000(0.7%)	1,336(0.81%)	1,407(2.61%)	1,392(2.76%)
추반족	-	944(0.58%)	951(1.77%)	897(1.78%)

출처: 러시아통계청, <https://rosstat.gov.ru> (검색일: 2022.08.12.).

축치족은 전통적으로 툰드라형 축치족(순록 사육 위주)과 해안형 축치족(바다 동물 사냥 위주)으로 나뉜다. 해안형 축치족은 로리노(Лорино) 마을 주변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반면 툰드라형 축치족은 추코트카 반도 내륙 지방에서 순록을 사육한다. 에스키모인들은 노보예 차플리노(아시아 에스키모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유일한 마을), 시레니키(에스키모인의 수가 축치인보다 약간 많음), 우엘칼라 세 개의 마을에 살고 있다. 이 지역 원주민 인구는 추코트카 자지구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한다.



<그림 1> 추코트카 자치구

## 4.2. 추카트카 자치구 원주민들의 전통 경제 활동

### 4.2.1. 순록 사육 현황

- 13) 추코트카 자치구의 민족 구성에 대한 최신 자료는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가장 최근 데이터는 2010년에 발표되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토착민 인구수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재 이 수치는 이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

순록 사육은 툰드라형 축치족들이 하는 주요 전통 경제 활동 중에 하나이다. 국가의 지원으로 이 지역 순록 사육업은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2021년 6월 기준 추코트카 자치구 순록 수는 153,841두로 2020년보다 2.2% 늘었다. 4월부터 5월까지 총 49,085마리의 어린 순록이 태어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한 수치이다.

전년 대비 새끼를 낳지 않은 순록의 수는 8,555두 감소되었는데 이는 순록 품질 지표가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순록 수가 가장 많이 증가는 사육장은 에그베키노트(Эгвекино́т)와 빌리빈스키 군(Билибинский район)에 위치한 농장이다. 추코트카 자치구에서 가장 큰 순록 사육 지역은 아나드리(Анадырский) 군과 이울틴스키(Иультинский) 군이다.



<그림 2> 추코트카 자치구에서 순록 사육 모습

출처: 국립농업청:

<https://www.rosng.ru/post/olenevody-chukotki-poluchat-nanoyarangi> (검색일: 2022.08.15.).

추코트카 자치구에서 순록 사육은 14개의 시립 사육장과 2개의 개인 사육장에서 진행된다. 이 16개의 사육장에서는 600여 명의 사육사가 고용되어 있다<sup>14)</sup>.

순록 고기 가공은 (주)‘추코트포르드토르그’와 ‘폴라르니’ 두 개의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 2010년부터 (주)‘추코트포르드토르그’는 올레이나 투쇼나야 브랜드로 순록 고기로 만든 통조림을

14) “На Чукотке увеличилось поголовье оленей” (2021), *Чукот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2021.06.08.  
<https://чукотка.рф/press-tsentr/novosti-chao/na-chukotke-uvelichilos-pogolove-oleney-/> (검색일: 2022.08.15.)

생산하고 있다. ‘폴라르니’는 순록 고기로 만든 새로운 유형의 제품을 개발하였는데 주로 소시지류이다. 이 기업은 ‘자만치바야’, ‘츄코트시에’, ‘야말스키에’, ‘자쿠소치니에’ 등의 브랜드로 순록 고기로 만든 다양한 소시지를 생산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추코트카 자치구에서 순록 고기 가공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에 가죽 제품, 뿔, 혈액의 가공 및 판매 문제는 아직도 존재한다<sup>15)</sup>.

순록 사육사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동 자치구 정부는 현대식 전통가옥인 야란가(яранг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식 야란가는 ‘나노야란가’라고 한다. 2020년에 추코트카 지역의 순록 사육사들이 29개의 새로운 ‘나노야란가’를 받을 수 있었다. 전통적 야란가와 달리 ‘나노야란가’는 조립이 쉽고 현대적인 재료가 제조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운 편이다. 현대식 야란가에서는 프레임이 경량 유리 섬유로 만들어져 있고 가벼운 돔이 있으며 윈치(winch)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가옥을 조립하는데 30~40분이 소요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나노야란가’의 난방을 위해 발전기와 특수 난로가 제공되며 휴대 전화나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다. 그 외 이 야란가에는 위성 전화, 스노모빌 2대, 가옥을 운반할 썰매가 함께 제공된다. 추코트카 자치구 정부는 이 29개의 야란가 구매를 위해 7,250만 루블을 지출했다<sup>16)</sup>.

동 자치구 정부는 「추코트카 자치구 농업 발전 국가 프로그램」<sup>17)</sup> 일환으로 업계에 연간 지원을 제공한다. 2021년에 동 자치구 농업 발전을 위해 18억 3천만 루블이 지출되었다. 그 중에 순록 사육사들은 12억 루블이라는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지난 6년 동안 추코트카 자치구에서 순록 사육을 위해 58억 루블이 지출되었다<sup>18)</sup>.

#### 4.2.1. 해양 포유류 수렵 현황

추코트카 자치구에서 해양 포유류 수렵은 야생 동물 보호로 인해 상업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업종은 아니다. 전통적 자연 이용의 한 형태로서 추코트카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 생활의 기초이자 생존의 필수조건이다. 추코트카 지역 원주민의 전통적 경제 활동의 한 분야인 해양 포유류 수렵의 보존은 동 자치구 정부의 전략적 목표 중 하나이다. 농업 지원을 위한 여러 국가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자치구 정부는 해양 포유류 수렵에 종사하는 원주민 공동체들의 재정적 상태를 개선하고 새로운 수렵 도구 구입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다. 추코트카 자치구에서 2007~2012년 기간에 설립된 8개 원주민 수렵 공동체들은 이울틴스키 군, 프로비덴스키 군, 추코트스키 군에 위치한 14개 마을에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공급한다. 또한 자치구 정부는 이 8개의 원주민 공동체에서 해양 포유류 수렵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 장비 수리 및 총기 보관을 위한 건물을 제공한다. 정부의 지원으로 원주민들은 해양 수렵을 위한 새로운 선박을 구입할 수 있다. 이 선박들은 필요한 모든 장비와 위성 항법 및 무선 통신의 수단을 갖추고 있다. 해양 포유류 사냥 과정에서 새로운 현대화기 및 포경용 무기인 다틴간(дадинг)이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원주민 사냥꾼들은 1년 내내 사냥할 수 있는 작업복과 특수 장비를 갖추고 있다<sup>19)</sup>.

15) 파벨 잘루즈니와의 인터뷰(2022.09.10.)

16) “Оленеводы Чукотки получают «нанояранги»” (2020) Национальное аграрное агентство, 2020.01.24. <https://www.rosng.ru/post/olenevody-chukotki-poluchat-nanoyarangi> (검색일: 2022.08.15.)

17)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е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Чукотского автономного округа»

18) “Оленеводы Чукотки получают «нанояранги»” (2020) Национальное аграрное агентство, 2020.01.24. <https://www.rosng.ru/post/olenevody-chukotki-poluchat-nanoyarangi> (검색일: 2022.08.15.)



<그림 3> 추코트카 자치구에서 다킨간을 이용한 고래 사냥 모습

출처: Русский охотничий журнал:

[https://rhm-magazine.ru/magazine/2020/\\_1\\_88\\_2020/morskie\\_okhotniki\\_chukotka/](https://rhm-magazine.ru/magazine/2020/_1_88_2020/morskie_okhotniki_chukotka/) (검색일: 2022.08.20.).

2019년부터 해양 포유류 수렵으로 얻은 제품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증가된 생산량은 해양 포유류 고기에 대한 원주민들의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 해양 수렵 과정에서 얻은 고기는 부피가 크고 상당히 빨리 부패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식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심지어 동물 사료에 사용하기 부적합하다.

현지인들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육류를 절단, 포장, 저장 및 가공하기 위한 소형 공장, 사료용 내장 처리 공장, 가죽 가공 공장 기반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 포유류의 지방과 내장으로 다양한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sup>20)</sup>.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추코트카 자치구에서 정부의 지원으로 해양 포유류 가공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2022년 말까지 동 자치구 로리노(Лорино) 마을에서 원주민들에게 해양 포유류를 가공하는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 실현으로 현지 원주민들은 전통적인 고품질 고기 음식을 일 년 내내 섭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해양포유류 수렵으로 얻은 제품의 연간 생산량은 고기 400톤, 동물성 기름 70톤이 될 전망이다<sup>21)</sup>.

19) 파벨 잘루즈니와의 인터뷰(2022.09.10.)

20) 파벨 잘루즈니와의 인터뷰(2022.09.10.)



하지만 해양 포유류 수렵에 있어 중요한 것은 육류가 아니라 기능성 식품 제조를 위한 원료이다. 해양 포유류들의 라드(비계), 흉선, 비장 등의 부위를 가공해서 그것으로 기능성 식품을 만들면 연간 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연구결과가 있다<sup>22)</sup>. 잠재적인 판매 시장(아태지역 국가)과의 지리적인 접근성으로 인해 추코트카 자치구에서 이러한 프로젝트가 다소 유망한 사업으로 될 수 있다. 현재 이울틴스키 군 에그베키노트 마을에서 오메가-3(다중 불포화 지방산) 생산 공장 건설 사업이 추진 중이다. 오메가-3 생산 원료로 작은 기각류뿐만 아니라 대체 원료인 어류도 이용할 계획이다. 이 공장에는 약 56명(16명 전문직 포함)이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 기업은 이동식 공장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며, 예상 생산량은 연간 12,000마리의 작은 해양 기각류(지방 100톤)이다<sup>23)</sup>.

추코트카 자치구 포경 산업은 상업 포경에 대한 모라토리엄과 연결되어 있다.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는 1982년부터 상업 포경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합법적인 포경은 원주민 보호 차원이나 또는 과학 프로그램의 일부로만 수행된다. 국제포경위원회 규정에 따라 2019~2025년 기간 동안 추코트카에서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연간 140 마리의 고래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추코트카 자치구 정부는 지역 인구 비례에 의해 원주민 공동체 간 포경 할당량을 배분한다. 포경 할당량의 거의 절반은 로리노 마을에서 이용된다<sup>24)</sup>.

포경산업이 창출하는 총 가치의 65%는 약리산업을 위한 가공제품(기능성 식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 5. 결론

본 글에서 러시아 추코트카 자치구에서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전통 경제 활동을 살펴보고 정부는 이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살펴보았다.

러시아 정부는 북극 원주민들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단 소수 토착민족의 권리 보호는 여러 연방법으로 규정된다. 「러시아연방 소수 토착민의 권리 보장에 관한 법」(1999), 「북부, 시베리아 및 러시아연방 극동지역에서의 원주민 공동체 조직의 일반 원칙에 관한 법」(2000), 「토착민의 전통적인 자연 이용 영토에 관한 연방법」 등이 있다. 그 외에 2009년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132번에 따라 「러시아 연방 북부, 시베리아 및 극동 소수 민족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이 채택되었다.

추코트카 자치주에서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전통 경제 활동으로 주로 순록 사육과 해양 포유류 수렵에 종사하고 있다. 순록 사육은 14개의 시립 사육장과 2개의 개인 사육장에서 진행되며, 600여 명의 사육사가 고용되어 있다. 2021년에 순록 수는 153,841두로 2020년보다 2.2% 늘었다. 순록 고기 가공은 (주)‘추코트포르드토르그’와 ‘폴랴르니’ 두 개의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며 다

21) “На Чукотке создадут предприятие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продукции из морского зверя” (2022) ТАСС, 2022.09.07, <https://tass.ru/ekonomika/15673861?> (검색일: 2022.10.01.)

22) “АПК - морзверобойный промысел” (2022) Чукот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https://чукотка.рф/ekonomika/otrasli/apk/morzveroboynny-promysel.php> (검색일: 2022.10.01.)

23) 인터뷰 자료

24) “Морские охотники Чукотки” *Русский охотничий журнал*, [https://rhm-magazine.ru/magazine/2020/\\_1\\_88\\_2020/morskie\\_okhotniki\\_chukotki/](https://rhm-magazine.ru/magazine/2020/_1_88_2020/morskie_okhotniki_chukotki/) (검색일: 2022.09.01.)

양한 통조림과 소시지류를 생산한다. 추코트카 자치구에서 순록 고기 가공 문제는 다소 해결된 편이지만 반면에 가죽 제품, 뿔, 혈액의 가공 및 판로 개척 문제는 아직도 존재한다. 그리고 순록 사육사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동 자치구 정부는 현대식 전통가옥인 야란가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 지원은 「추코트카 자치구 농업 발전 국가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추코트카 자치구에서 해양 포유류 수렵은 야생동물 보호로 인해 상업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업종은 아니다. 농업 지원을 위한 여러 국가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자치구 정부는 해양 포유류 수렵에 종사하는 공동체들의 재정적 상태를 개선하고 새로운 수렵 도구 구입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으로 원주민들은 해양 수렵을 위해 새로운 선박을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2022년 말까지 로리노(Лорино) 마을에서 원주민들에게 해양 포유류를 가공하는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다. 해양포유류 수렵으로 얻은 제품의 연간 생산량은 고기 400톤, 동물성 기름 70톤이 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는 추코트카 자치구 원주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현재 순록과 해양 포유류 고기는 주로 현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용된다. 하지만 이 동물에서 훨씬 더 광범위한 식품 및 비식품 제품(예: 기능성 식품, 가죽 제품 등)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한 수요는 러시아 타 지역과 심지어 해외 시장에서도 있을 수 있어 필요한 투자가 바람직하다.

## 참고문헌

- 배규성(2022) 러시아 북극권 원주민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통적 자연 이용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9권, 제2호, 31-53쪽.
- Калинин, И. Б. Природоресурсное право в свете российского права // Освоение Севера : традиц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 тез. докл. рос.- канад. семинара. - Томск, 1999. - С. 12-14. [SEP]
- Концепция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 Распоряж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4 февр. 2009 г. No 132-п)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base.garant.ru/194908>. [SEP]
- Корчмит В. А. Устойчив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ов северо-востока России: проблемы, перспективы и пути их решения: Дисс... докт. экон. наук. Москва, 2003. 270 с.
- Летувнинкас, А. И. Некоторые аспекты концепци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для томского Севера // Освоение Севера : традиц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 тез. докл. рос.-канад. семинара. - Томск, 1999. - С. 19-22. [SEP]
- Моисеев Н.Н. «Устойчивое развитие» или «Стратегия переходного периода» // План действий - «Устойчивые Нидерланды». М.,1995. С. 3-4.
-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4.03.2000 No255 «О едином перечне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Собрани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2000. - No14. - ст.1493; 2012. - No1. - ст.178.
-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04.02.2009 No132-п «О Концепци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Собрани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2009. - No7. - ст.876.
-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7.04.2006 No536-п «О перечне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Собрани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2006. - No17. - Ч.2. - ст.1905.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0.04.1999 No82-ФЗ «О гарантиях прав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Собрани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1999. - No18. - ст.2208; 2004. - No35. - ст.3607.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07.05.2001 No49-ФЗ «О территориях традиционного природопользовани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Собрани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2001. - No20. - ст.1972; 2007. - No27. - ст.3213.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их принципах организации общин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Ф»
- Хакназаров С. Х. Коренные малочисленные народы в условиях интенсивной эксплуатации и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ХМАО: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Томск: изд-во Том. ун-та, 2003. 172 с.
- Харамзин Т. Г. Традиционное природопользование как элемент культуры малочисленных

- народов Тюменского Севера: Автореф. дис. докт. соц. наук. Тюмень. 2003. 35 с.
- Хакназаров, С. Х. Принципы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 экономика, культура, история :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 науч.-практ. конф. – Березники, 2009. – С. 328-332.
- Хакназаров С.Х.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 анализ проблем развития территории традиционного природопользования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 Культурные и филолог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генезиса и трансформации исторических общностей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Югры. Серия: Научные труды ОУИПИиР. Ханты-Мансийск: изд-во Юграфика, 2012. С. 165-189.
- Цомартова Л. В. Факторы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льных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истем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http://science-bsea.bgita.ru/2011/ekonom\\_2011\\_1/comarova\\_factory.htm](http://science-bsea.bgita.ru/2011/ekonom_2011_1/comarova_factory.htm)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022.10.01.).
-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1987)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5987our-common-future.pdf> (2022.08.08.).
- “На Чукотке увеличилось поголовье оленей” (2021), Чукот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2021.06.08. <https://чукотка.рф/press-tsentr/novosti-chao/na-chukotke-uvelichilos-pogolove-oleney-/> (검색일: 2022.08.15.)
- “Оленеводы Чукотки получают «нанояранги»” (2020) Национальное аграрное агентство, 2020.01.24. <https://www.rosng.ru/post/olenevody-chukotki-poluchat-nanoyarangi> (검색일: 2022.08.15.)
- “На Чукотке создадут предприятие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продукции из морского зверя” (2022) ТАСС, 2022.09.07, <https://tass.ru/ekonomika/15673861?> (검색일: 2022.10.01.)
- “АПК – морзверобойный промысел” (2022) Чукот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https://чукотка.рф/ekonomika/otrasli/apk/morzveroboynyy-promysel.php> (검색일: 2022.10.01.)
- “Морские охотники Чукотки” Русский охотничий журнал, [https://rhm-magazine.ru/magazine/2020/\\_1\\_88\\_2020/morskie\\_okhotniki\\_chukotki/](https://rhm-magazine.ru/magazine/2020/_1_88_2020/morskie_okhotniki_chukotki/) (검색일: 2022.09.01.)

#### 인터뷰 자료

필자는 2022년 9월 10일에 파벨 잘루즈니와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추코트카 자치주에서 거주하는 코메르산트 신문사 기자).



## 멸종 위기에 처한 러시아 에스키모족의 전통과 축제



장 디아나  
배재대학교 소수민족 연구소  
diana.jang@daum.net

### 목차

- 위치, 날씨, 자원, 인구, 언어, 문화, 요리
- 봄 축제: 킬베이, 아트각
- 여름 축제: 나스쿠느클룩, 풀라, 어부의 날
- 가을 축제: 이누이트의 국제 날
- 겨울 축제: 새해(첫 눈), 크리스마스



## 러시아 에스키모의 인구와 지역

- 에스키모인들 Inuit, Inuk(사람)라고 불리운다. 그러나 타 민족이 그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다. Inuit 안에는 30개이상의 부족이 있기 때문이다.
- 에스키모(생선 먹는 사람)라는 단어는 기후적 특성으로 생선을 익혀먹지 않은 음식습관을 비하한 어원으로 시작되었다.
- 에스키모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소수민족 (170,000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
- 북극 전체에 널리 퍼져 산다 (170만 km<sup>2</sup> 넘는 지역)
- 하지만 '러시아 에스키모'는 러시아 연방에서는 가장 작은 민족(약 1700명)에 속한다.



## 이누이트와 러시아 에스키모의 인구와 지역

### 이누이트의 인구

Всего: около 170 000 человек

- США: 55 942 (2000 г.)<sup>[1]</sup>
- Аляска: 47 783 (2000 г.)<sup>[2]</sup>
- Калифорния: 1272 (2000 г.)<sup>[3]</sup>
- Вашингтон: 1204 (2000 г.)<sup>[4]</sup>
- Канада: 50 480 (2006 г.)<sup>[5]</sup>
- Нунавут: 24 640 (2006 г.)<sup>[5][6]</sup>
- Квебек: 10 190 (2006 г.)<sup>[5][7]</sup>
- Ньюфаундленд и Лабрадор: 4715 (2006 г.)<sup>[5][8]</sup>
- Северо-Западные территории: 4165 (2006 г.)<sup>[5][9]</sup>
- Гренландия: ок. 50 000
- Дания: 18 563 (2007)<sup>[10]</sup>

### 러시아 에스키모의 인구

Россия: 1738 (2010 г.)<sup>[11]</sup>; 1750 (2002 г.)<sup>[12]</sup>

- Чукот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1529 (2010 г.)<sup>[11]</sup>; 1531 (2002 г.)<sup>[12]</sup>
- Магаданская область: 33 (2010 г.)<sup>[11]</sup>; 26 (2002 г.)<sup>[12]</sup>



## 러시아 에스키모에 대한 일반 정보

러시아의 에스키모: 아시아(시베리아) 에스키모 - Uelentsy, Naukanians, Chaplintsy, Sirenik Eskimos와 같은 거주지별로 여러 부족으로 나뉜 Yupiks 및 Yuits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Chukotka Autonomous Okrug : Novoe Chaplino 마을, Sireniki 마을, Uelkal 마을, Providence의 중심으로 살고 St. Lawrence섬에서도 고립되어서 살고 추코트카의 수도 Anadyr 시에서도 대부분이 산다.

축치 반도에서 사는 러시아 에스키모는 대부분 혼혈이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에스키모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현재 러시아어를 사용한다.

1997년에는 남동부 Sireniki의 방언이 완전히 사라졌다. St. Lawrence섬에서 고립된 정착지이며 그 곳에서는 에스키모어만 사용한다: TV, 인터넷, 게임, 교재, 출판 등 분야에서.



## 에스키모어

1848 - 에스키모 언어의 첫 입문서, 저자 - 러시아 선교사 N. Tyzhnov.

1932 - 라틴 문자를 기반으로 한 현대 글, 에스키모어(유이트) 입문서 출판.

1937 - 러시아 알파벳 그래픽 기반으로 에스키모 알파벳:

А а, Б б, В в, Г г, Д д, Е е, Ё ё, Ж ж, З з, И и, Й й, К к,  
Ѓ ғ, Л л, Љ љ, М м, Н н, Њ њ, Ў ў, О о, П п, Р р, С с,  
Т т, У у, Ў ў, Ф ф, Х х, Ҳ ҳ, Ц ц, Ч ч, Ш ш, Щ щ, Ъ ъ, Ы ы, Ь ь,  
Э э, Ю ю, Я я

현대 러시아 에스키모 작가와 시인은 Ivangu(1926-1963).  
가장 유명한 러시아 에스키모 시인은 Yu. M. Anko(1930-1960).

\* 그린란드 이누이트의 언어는 세계 언어 중 가장 "정중하고 예의있는" 언어로 간주된다. 욕설이나 공격적인 단어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 1930년대 추코트카의 에스키모와 알래스카의 에스키모 간의 교류



Участники эскимосского ансамбля «Солнышко» встречают аляскинских гостей у дома культуры в Новом Чеплино. 1991 год.  
На планшете написано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на чеплинском эскимосском латиницей и на английском.  
в Музей Герингского наследия в Провиденсе, Чукотка

1930년대까지 추코트카와 알래스카의 에스키모 활발한 교류가 이어졌으나, 1948년 국경은 폐쇄되었다.

이후 1989년 9월 소련과 미국 사이에 추코트카의 에스키모와 알래스카가 최대 90일 동안 무비자로 상호 방문하는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당시 러시아의 에스키모인과 미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여 알래스카 도시의 상점 주인과 택시 기사들이 소비에트 루블을 받기까지 시작했다.

알래스카 에스키모들이 추코트카 해안에 왔을 때 축치 에스키모들은 그 들만의 환영의식을 수행했다. 그들은 손님 영혼을 바다에 남겨두고 그들을 해변으로 가지 못하도록 접근하는 배에 돌을 던지는 척했다. 손님이 해변으로 다 달았을 때, 그들은 일종의 신성한 정화를 위해 불의 행렬을 지나야 했다. 이러한 방문 동안 축제, 교류 및 잔치가 이어졌다.

## 1930년대 추코트카의 에스키모와 알래스카의 에스키모 간의 교류



Эскимосы Аляски

아시아 에스키모 언어에서는 많은 단어가 영어에서 차용된다.

예: *канти* - candies, *манит* - money, *вляуа* - flour, *пуси* - pussy, *пана* - pepper.

1930년대까지 미국이 러시아보다 Chukotka 원주민의 삶에 있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사람들은 Chukchi, Eskimo 및 영어를 사용했다.

XIX 세기 중반부터 미국, 영국, 스칸디나비아 포경 선은 매년 5월 Chukotka 해안에서 정박하여 선원으로 일할 현지 남성을 고용했습니다. 이후 1950년대 들어서며 소련 당국은 거의 모든 에스키모 정착지를 폐쇄했다. 이에 따라 에스키모인의 약 80%가 재정착했다.



고대 에스키모인의 수도 **Naukan**  
 1958년 마을은 강제 폐쇄되고  
 2019년에 러시아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잠정 목록에 포함되다





Uelen 러시아 최동단 정착촌



고래 사냥이 주민들의 주요 직업이다.

## 추코트카 반도의 날씨

기후가 지역마다 다르다.

1월 북극해 연안: -20~ -30도, 눈보라. 강수량은 미미하다. 적설량은 고지대에서는 20-30cm 이하이고 저지대에서는 최대 2-3m이며, 평균적으로 적설 높이는 40-50cm를 초과하지 않는다.

**추코트카 반도의 동쪽 해안**은 남쪽에서 오는 사이클론으로 인해 겨울에 기후가 온화하다. 1월 평균 기온은 약 -10 ~ -15도. 겨울(9월-10월) 초에 눈이 내리고 5월-6월에 녹는다.

**추코트카 중부 지역**의 겨울에는 기온이 -30 ~ -40도에 이르며 일반적으로 날씨가 조용하다. 강수량은 낮고 겨울이 시작될 때 눈이 내린다. 적설은 10월부터 6월까지다.

눈사태 기간은 동쪽과 북쪽에서 최대 200-230일이고 중부 지역에서는 최대 150일입니다. 북쪽과 동쪽에서 눈사태의 절정은 4월에서 5월까지, 중앙 부분에서는 5월에서 6월까지다.



## '시쿠' 얼음 개념

'시쿠' 얼음은 에스키모 생존에 관한 기본 개념이다.

에스키모 방언에서 얼음에 대한 최대 50개 용어: 어린 얼음, 해안 얼음, 평평한 얼음, 민물에 떠 있는 얼음, 얼음 균열 등이 있다.

'시쿠'는 9-10월에 형성되며 얼어버린 빙판위에서 장거리를 이동하고 동물을 사냥할 수 있게 된다. 사냥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년 중 언제든지 얼음을 "읽는" 능력, 즉 얼음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지 판단하고 날씨와 얼음 상태의 변화를 예측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영화 "북쪽의 나루크" 에피소드에서 사냥꾼이 눈이나 얼음의 작은 구멍에서 생존 먹거리(북극여우, 물개)를 찾는 장면이 있다. '이글루' 여름 집 만든 장면)

얼음은 지역 주민들의 주요 식량 공급원인 사냥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보트나 스노모빌은 빙판에 갇힐 수 있고 악천후와 장비 부족은 바다에 가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영화에서는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 추코트카의 천연 자원

- 금, 주석, 은, 안티몬, 구리, 몰리브덴, 납, 아연, 텅스텐, 방사성 금속, 수은 등
- 석탄, 석유, 가스
- 지하수 및 광천수
- 장식용 및 준보석
- 동쪽에는 열광천이 있다 ( ~97°C까지)

추코트카의 광산(鑛山)



추코트카의 마노(瑪瑙)

## 요리

### · 첫째

#### 1) 바다코끼리 지느러미 수프

2) 어린 암사슴 요리. 생선 냄새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린 암사슴 요리를 먹을 수 있다. 사슴은 모든 혈액은 제거된 채 간, 폐 및 심장의 조각이 벗겨진 사슴가죽과 함께 올려진다. 이 요리는 신선한 피 냄새 강하게 퍼진다.

### · 안주

#### 1) 바닷물에 절인 연어

2) Stinky fish – 한국의 삭힌 홍어회와 같은 냄새가 나는 요리.

3) Mantak – 고래 지방을 곁들인 고래 껍질: 고래 껍질과 지방을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생으로 먹는다. 추코트카에서 mantak은 간장, 후추, 소금에 찍고 먹는다. 알래스카에서는 향신료를 뿌린 mantak을 화덕에서 굽는다. 지방이 있는 회색고래 피부는 가장 칼로리가 높은 에스키모 요리다 (100g 470칼로리).

## 요리

### · 메인 요리

-Kopalkhen (igunak, tukhtak)

사슴의 위장이 완전히 비워질 때까지 사슴에게 며칠 동안 먹이를 주지 않은 다음 목을 졸라 죽인다.

내장을 꺼낸 다음, 습지로 옮긴후 이탄,나뭇가지,돌로 덮어놓고,몇달 후 그 사슴의 시체를 꺼내 먹는 요리다.

-해양 포유류로 요리하면 가죽을 벗기고 얼리고 다시 가죽으로 싸서 바다와 육지 사이 지대에 묻고 자갈로 덮는다. 먹기전에 고기는 얼은 상태고 조각으로 자르고 소금을 뿌린다.

이런 요리는 에스키모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방법(효소사용)으로 고기를 발효시키는데 가치가 있지만 요리의 큰 단점은 다량의 시체 독이다.

### · 디저트

빙수 - akutak – 북극 열매와 물개또는 생선 지방을 혼합해서 눈이나 분쇄 된 얼음으로 맛을 낸다.



# 신앙

전통적으로 에스키모 종교는 애니미즘(animism)이다. 다양한 자연 현상에도 그 영혼이 내재 되어있다고 믿으며 자연사물 그리고 생물의 세계와 인간이 특별한 연결점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에스키모의 언어에 표현된 애니미즘을 발견할 수 있다.

## 에스키모의 종교적 세계관의 주요 개념

**Anirniit** – 상(傷)하게 할 수 없는 모든 살아 있는 존재물의 영 또는 영혼이다. 예: 북극광은 하늘에서 공놀이를 하는 죽은 아이들의 영혼이고 비는 상위 세계로 이동한 죽은 자들의 영혼의 눈물이다. Anirniit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요 구성 요소인 Silla의 일부라 여겨진다. (서양 철학의 에테르 비슷한 개념이다).

**Tuurngait**는 육체에 붙어 있지 않은 악령으로 여겨진다.

**Angakuit**은 샤먼(남성 또는 여성)이며, 그의 주요 역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영과 그들이 소통하고,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달래 줄 수 있는 의식과 금기에 대해 사람에게 조언하고 상기시킨다. 에스키모의 샤먼은 지도자가 아니라 치료자이며 헬퍼다. 그는 길 잃은 사냥꾼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날씨를 좋게 하고, 영을 불러 사람들을 돕거나 쫓아낸다. 샤먼의 이 능력은 때가 되면 나타난다.

**주인(산)**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보복하고 강력한 피조물이며, 모욕이나 공포로 인해 끔찍한 피조물로 변한 인간이나 동물의 형태로서 그룹의 악령통제한다.

# 신앙

에스키모인의 삶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요 주인:

**Silla** – 유일 창조자,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현상과

법칙을 통제하고 모든 사물을 에테르처럼 관통합니다.

**Sedna** – 바다의 여주인 (괴상한 인어의 형상이다).

범고래는 바다 사냥꾼의 수호성인이다. 범고래를 죽이면

사냥꾼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제사와 담배로 범고래를 달래야

한다. 전설에 따르면 여름에는 범고래 형태로 살다가 겨울에는

육지로 올라와 늑대로 변한다고 한다.

에스키모에게 좋은 동물: 늑대=범고래, 까마귀, 거미, 아비.

일상 생활의 주요 의식은 **Akh'k'yshak**이었다.

식사시 음식 조각, 차나 고기를 주변에 던지는 행위를 통해 주변영혼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Pina와 Pinga**는 정의, 균형, 환생을 관장하는 영혼의 여신이다. 영혼은 심판을 받고 상-, 지상-, 지하세계로 보낸다.



## 음식 조각으로 영혼을 먹이는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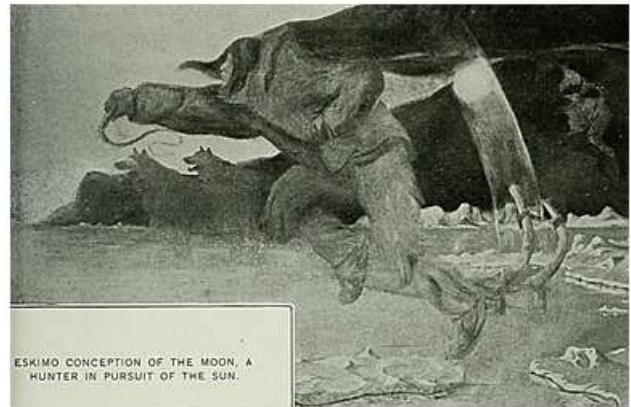


Поминальная церемония клана льяка'мит на территории закрытого в 1958 году села Старое Чаплино. Сентябрь 2011 года

Людмила Аймана (1934–2021) держит в руках оленьё ребро. Считается, что духи предпочитают оленьё мясо, редкое и дефицитное в приморье.

## 태양과 달의 대한 에스키모 전설

Igaluk(Anningan)과 그의 여동생 Malina는 한 마을에 함께 살았다. 어린 시절에 그들은 같이 자랐지만 성숙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야랑가에서 따로 살게 되었다. 어느 날 Igaluk은 여자들을 보았을 때, 그 중에서 여동생 Malina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밤에 모두가 잠든 사이에 그는 여자들의 야랑가에 몰래 들어가 그녀를 강간했다. 어두웠기 때문에 Malina는 누가 그녀를 공격했는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녀는 캠프에서 나오는 그물줄을 손에 물히고 Igaluk의 얼굴에 손을 대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램프를 들고 나와서 남성용 야랑가를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오빠 Igaluk이 강간범이라는 사실에 놀라 자기 가슴을 양쪽 잘랐다. 그녀는 그것을 그곳에 담아서 남자 야랑가에 가져다가 Igaluk에게 "당신이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먹어라"라고 말하고 햇불을 들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Igaluk는 그녀를 쫓아가며 햇불도 움켜잡았고, 큰 피웅덩이로 그녀의 발자국을 쉽게 찾았다. 그러나 그는 비틀거리며 넘어지며 햇불을 떨어뜨렸다. 불꽃은 거의 꺼지고 희미한 감박임만 남았다. 결국 Igaluk은 동생을 따라갔지만 두 사람은 너무 빨리 달려서 하늘로 달려가 달과 해가 됐다. 이 전설은 해와 달의 움직임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이다. 형제가 자매를 따라잡을 때 일식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때 태양은 수치심으로 붉은 색으로 변한다.



ESKIMO CONCEPTION OF THE MOON, A HUNTER IN PURSUIT OF THE SUN.



## (NANOOK OF THE NORTH)

에스키모에 관한 최초의 다큐멘터리 무성영화 (1922, USA)



## 에스키모의 독창적인 발명품

로타리 작살  
카약

스노우 하우스 - 이글루; 가족 하우스 - 야랑가  
모피와 가죽으로 만든 특수 의류 - camleyka  
바다코끼리 뼈로 만든 일종의 선글라스



전통적인 인사인 "에스키모 키스(Kuniku)"는 같은 가족 구성원이나 연인 사이의 애정 표현이다. 코와 윗입술을 다른 참가자의 피부(보통 이마 또는 뺨)에 대고 공기를 흡입한다.

Kuniku는 Animiita에서 호흡의 교환, 정신의 교환의 뜻한다.

인디언은 조약할 때: «당신과 나는 같은 혈통이다»고 말하고  
에스키모는 «당신과 나는 한 영이다»고 한다.

# 러시아 에스키모의 축제

## ✓ 전통적인 휴일:

- 1) 봄의 끝 - 여름의 시작 : "Atygak" 의 봄 사냥 시작의 축제 또는 물 위에서 카약을 타는 축제
- 2) 7월 말 바다코끼리 축제 "Naskunykhkylyk": 폭풍우가 치는 날씨가 도래하여 바다코끼리 사냥꾼이 사냥감을 갖고 돌아온다.
- 3) 고래 축제는 특히 운이 좋은 에스키모가 고래를 잡을 때 시작된다.

## ✓ 공식 공휴일:

- 1) 어부의 날 - 7월 둘째 일요일
- 2) 국제 이누이트의 날 - 11월 7일
- 3) 새해와 크리스마스 (서양 문화 영향)



## ATYGAK 바다 코끼리 축제: 봄 사냥 시작의 축제

이 축제는 "배를 물에 띄우는 축제"라고 다르게 불린다. 바다 코끼리 사냥 수확 재개를 위한 중요한 연례 행사와 이전 기간에 잡은 바다코끼리의 영혼을 기리고 위로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축제. 늦봄~초여름에 이축제로 사냥철이 열린다.

배를 소유한 가족은 친척과 이웃의 도움으로 바다로 향한다. 바다코끼리 가족으로 덮인 25인용 나무 배다. 남자들이 배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여자들은 음식을 준비한다. 고기 요리하고 비계, 바다표범 기름을 만드는 요리 등, 여름에 채취한 뿌리와 약초로 특별한 요리를 만든다.

그런 다음 남성과 여성의 모든 성인 가족은 얼굴을 검은 흑연이나 그을음으로 칠하기 시작하여 코, 턱, 눈 아래에 여러 선을 그린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의식이다. 이 줄의 수는 이 가족에 따르면 바다코끼리, 물개, 고래, 물개와 같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해양 동물과 직접 관련이 있다. 그런 다음 모두가 축제 흰색 옷을 입는다. 옛날에는 바다 동물의 내장으로 만든 특별한 의복이다.

그런 다음 모두가 조리된 음식을 들고 해변으로 간다. 배 주인은 가져온 고기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 바다와 공중에 던진다. 이것은 바람의 영과 바다 동물의 주인에게 바치는 제사다. 사냥에서의 성공은 여기에 달려 있다. 고기의 일부는 즉시 불이 붙은 불에 던져진다 (불 먹이기 의식). 이것은 불의 신에 대한 제사다.

사냥꾼이 동물의 몸을 죽일 때 동물의 방광에 있는 영혼은 죽이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몸으로 환생하기 위해 필요하다. 전년도에 사냥꾼이 잡은 해양 포유류의 방광을 모아 축제 기간 동안 부풀린다. Atygak 축제에 가족들은 그 해에 죽은 바다코끼리의 방광을 부풀려 남자의 집(회의 및 중요한 의식의 장소)으로 가져온다. 5~6일의 축제가 끝나면 방광풍선이 바다로 돌려준다.

<https://www.youtube.com/watch?v=YyYYqRqTkA&t=487s>



## 바다코끼리 가족의 게임



바다코끼리 가족 트램폴린은 원래 바다에서 고래를 발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 바다코끼리 축제 "NASKUNYKHKYLYK"

보통 7월말이면 바다코끼리 사냥이 끝난다. 폭풍우가 시작되는 기간동안 바다코끼리 사냥을 위해 배를 타고 해안에서 멀리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축제를 보낼 기간이다.

축제 당일 바다코끼리 고기의 발효된 사체를 여름에서 꺼낸다. 야랑가의 주인으로부터 초대받은 샤먼은 사람의 건강 및 사냥 성공이 달려있는 다양한 영혼을 위한 잔치를 요구하면서 탬버린을 치기 시작한다.

요리된 음식의 일부를 해변으로 가져 와서 작은 조각으로 공중과 물에 던진다. "신이여! 모두 여기 모여서 드십시오!"라고 기도한다.

고기를 친척들에게 나눈 후 바다코끼리 두개골은 바다 동물의 여주인인 Sedna를 위한 제사 장소인 특별한 바위로 옮겨진다.

봄 사냥이 시작되는 축제 동안은 모든 가족이 일종의 차례의식을 지낸다.



## 국제 바다코끼리의 날 11월 24일



## 고래 축제

고래는 에스키모인의 주 사냥감으로 사냥에 있어 가장 위험하지만, 식용으로 가장 바람직하다. 고래는 온 마을에 고기와 지방이 많기 때문에 장기간 비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축제는 고래를 죽인 사람이 마련한다.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그에게 모여들고 도와 준다. 고래는 해안에서 바로 도축되어 바로 먹는다.

축제 기간 동안 에스키모들은 고래를 그리고, 모형틀을 만들고 야랑가의 여러 구석에 매달려 장식한다. 축제 후 가족들은 고래 부적을 보관한다. 이 축제는 잘게 부순 축연을 사용하여 공중에 던지며 바다에서 헤엄치는 고래가 뿜어내는 분수처럼 재현한다.

고래를 기리기 위해 특별한 춤이 공연되어 고래 사냥의 모든 단계가 이 춤에서 보여진다. 이 춤은 팔과 머리만 움직이며, 한 곳에 앉아 모든 참가자가 수행하는 것이 신기한 구경이다.

고래 축제에서 모든 바다 동물의 소유자인 Keretkun과 Sedna에게 제사가 이루어진다. 축제의 절정은 고래 뼈를 바다로 내리는 것이다. 축치족과 에스키모족 사냥꾼은 바닷물에서 뼈가 새로운 동물로 변하고 내년엔 고래가 추코트카 해안에서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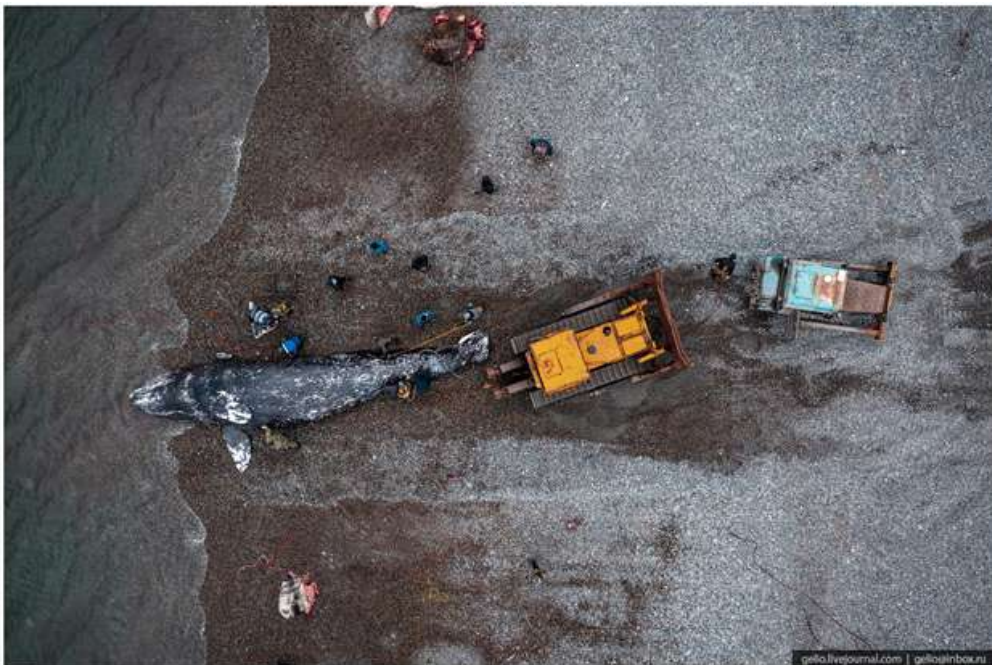




## 회전 작살



- 수천 년 전과 마찬가지로 고래 사냥의 주요 도구는 여전히 회전 작살이다.
- 바다코끼리의 엄니나 녹용으로 만든 작살 머리에 석재가 삽입된 디자인은 고래사냥에 완벽하다. 목표물을 명중한 후 작살의 축은 쉽게 분리되어 물에 떠 있다. 끝 부분은 고래의 두꺼운 피부를 뚫고 완전히 두꺼운 피하지방층으로 꽂힌다. 작살측면의 비대칭 모양 덕분에 고래가 몸을 움직일 때 더욱 깊게 박힌다.
- 큰 플로트가 물개 가죽으로 만든 벨트에 묶여 있다. 수레 제조를 위해 작은 기각류의 가죽-물개, 전체를 풍선으로 사용했습니다. 가죽이 부풀어 오르고 구멍은 나무 또는 뼈 다웰로 막힌다.
- 고래는 잠수했지만 사냥꾼은 5-6 개의 작살을 고래 안에 넣었고 수레는 고래가 바다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다시 표면에 나타난다. 에스키모는 상처입은 고래에게 가까이 다가가 무거운 살상창으로 죽인다. 거대한 고래는 30-60 명의 사냥꾼 모여 사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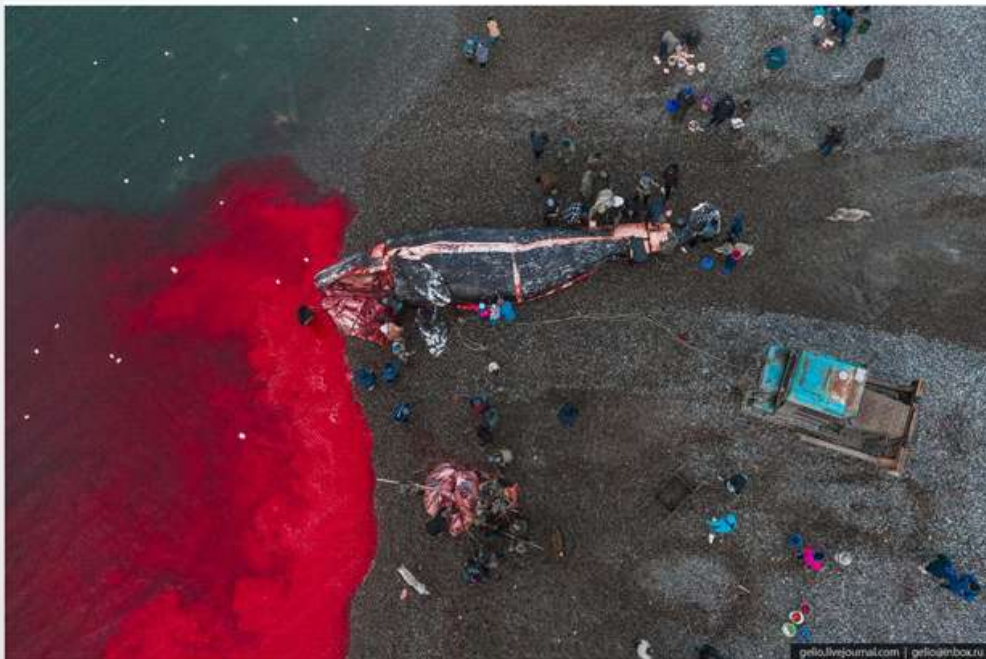


24. Масса взрослой особи достигает 30 тонн, и для вытягивания на сушу может понадобиться сцепка из двух тракторов.





6월부터 10월 까지 Chukotka에서 회색 고래 사냥 기간이다



## 러시아의 에스키모의 최초의 연구자인 A. FORSHTEIN의 사진



Рис. 1. «Снаряжение охотника зимой». МАЭ, № И 115-68. Унгазик, зима 1928 (?) г. Темные предметы вдали — столбы из поставленных вертикально челюстных костей кита, которые можно видеть также на многих фотографиях Богораза из Унгазика 1901 г. Столбы были уничтожены эрозией после 1960-х гг.



Рис. 2. «Разрушенная землянка в пос. Сейренек, южная сторона». МАЭ, № И 115-61. Сиреники, весна 1928 или 1929 (?) г. Столб из челюстной кости кита справа считался символом «хозяев поселка». Его ритуально «кормили» раз в год во время специальной церемонии.

## 어부의 날

러시아에서는 매년 7월 두 번째 일요일에 어부의 날 축제를 한다.

어부의 날은 축치족과 에스키모족 모든 해안 마을에서 지낸다.

"푸른 들판"의 노동자들은 바다의 신 Neptun(포세이돈)에게 인사하고, 연극 공연, 다양한 대회, 놀이를 준비하고 아마추어 공연 참가자가 공연도 한다. 모든 것은 용감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즉 어부, 공예의 주인을 기리는 주된 일에 종속된다.





## 어부의 날 의식



Keretkun - 연어사냥의 시작기 첫번째로 연어를 사냥함으로 헌정된 추수 감사절 같은 의식이다.

지역적 신념에 따르면 첫 번째 물고기를 존엄하게 대함으로서 이곳에 친절 한 사람들이 살고 있음으로써 무사 안녕을 기원한다. 이날 야랑가의 여주인은 첫 어부들에게 인사를 하며, 악기를 미리 준비하고 불을 피우고 전통악기를 연주한다. 처음 잡힌 물고기의 아가미에는 버드나무 가지가 꽂혀 있고, 그 후에 물고기는 갈매기의 울음 소리를 모방하여 불 주위를 옮긴다. 야랑가의 여주인은 모든 사람들을 생선 요리에 대접한다.



## 국제 이누이트의 날 11월 7일



## 에스키모의 축제

시간 (날씨에 따름)	명칭	설명
4~5 월쯤	킬베이(Кильвей)	사슴 뿔 축제
5월 말~6월 초쯤	아트각(Атыгак)	바다코끼리 뿔 사냥 시작
여름 내내	폴라(Поля)	고래 축제
7월 말	나스쿠느흐클룩(Наскуныхкылык)	바다 코끼리 축제 (사냥 마감)
7월 2째의 일요일	어부의 날(День рыбака)	공식적 축제
11월 7일	국제 에스키모의 날	
10~11월	첫 눈 (새해)	
12월31~1월 7일	크리스마스	

## 놀이문화

### 귀 놀이

- 귀 씨름 : 2명이 귀에 줄을 걸고 줄다리기
- 최대 5kg의 추를 귀에 매달고 달리기

**카차자크(Katajak):** 전통노래 게임(가장 특이한 게임 중 하나)

두 명, 때로는 더 많은 참가자(보통 여성이지만 때로는 어린이나 남성이 게임에 참여합니다)가 서로 반대편에 서거나 앉는다.

첫 번째 참가자는 소리를 내거나 음절을 발음하면서 리듬을 설정하고 두 번째 참가자 또한 자신만의 음절로 리듬을 유지한다. 또한 참가자들이 서로 가까이 있으면 상대방의 입이 공명기 역할을 한다. 더 오래 버티고 상대방이 지치거나 리듬이 끊기면 이긴다.





## 바다 코끼리 가족 위의 점프



## 결과-1: 이누이트의 전통적 세계관

1. 이누이트의 우주는 그 누구의 통제, 지배를 받지 않는다.
2. 신성한 아버지와 어머니도 없으며, 땅과 하늘의 창조주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우주속에서 인간이 규정한 형벌은 존재할 수 없다. 이누이트에게 있어 어린아이나 성인에게 형벌은 없다.
3. 이러한 우주속의 이누이트는 그들만의 여러 의식을 행했으며, 이는 거친 환경과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적 조치임을 알 수 있다.
4. 축치나 에스키모인은 의식을 통해 척박한 환경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지, 어떤 신을 섬겨야 하는 지를 알아갔으며, 이는 이누이트의 우주의 법칙속에 의식을 통해 삶의 방식, 삶의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
5. 일반적으로 추운 겨울의 어떤 방문객에게도 이누이트의 집을 열어주며 따뜻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데, 이는 이누이트에게 있어 개인의 행동방식은 우주적이며, 과학적이나 종교적 범주의 테두리에 가두어 지지 않는다.
6. 그러나 이누이트에게 있어 믿지는 않지만 두려움을 느낀다는 말이 있다. 알래스카, 캐나다, 그린란드 이누이트들에게 기독교 전파된 후 다른 소수 토착 민족에 비해 빠르게 진행된 것도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 결과-2: 러시아 에스키모에 관련 연구 문제

1. 현재 러시아 에스키모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연구나 자료는 거의 없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된 대부분의 자료는 미국, 캐나다, 덴마크(그린란드)의 이누이트들에 대한 관련자료가 대부분이다.
2. 따라서 이런 연구자료의 부족은 러시아 에스키모의 생활방식이나 문화, 지역적 상황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이 나타나며, 결국 이것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러시아 정부의 관심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것은 러시아 에스키모의 인구감소, 언어소멸, 문화적 전통의 단절이 발생이 생겼다.
3. 이와 반면에 알래스카(러시아에 가장 가까운 미국 영토인 St. Lawrence섬 조차도), 캐나다, 그린란드의 이누우이트들의 문화와 전통이 크게 부활하며, 활성화되고 있다.
4. 정부의 소수 민족 보호 정책으로 경제적지원과 지역보호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단지 현대적으로 위 지역의 이누이트의 대규모적인 기독교화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과거 이누이트의 문화적 전통이 손실되거나 기본 정체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5. 그러나 러시아 에스키모의 이와 반대로 기독교화가 되지 않았으며, 과거 소련시기 강제적 소비에트연방에 편입대상이 되었고, 충분한 종족유지의 인구가 형성되지 못해 현재에 러시아 에스키모로서의 종족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6. 이는 하루라도 빨리 러시아 에스키모의 현재적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연구해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러시아 에스키모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 러시아 북부 소수민족의 전통 놀이에 관련 참고 문헌

1. Богораз В.Г. «Игры малых народностей Севера»
2. Жорницкая М.Я. Народные игры чукчей и эскимосов // Полев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института этнографии 1975 г. М., 1977.
3. Леонова Н.А. Национальные игры эскимосов (с. Наукан) // Праздники и обряды народностей Чукотки. Магадан, 1990.
4. Леонтьев В.В. Национальные игры чукчей // На Севере дальнем. Магадан, 1960. С. 127 – 137. Меновицков Г.А. Эскимосы: Научно-популярный историко-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черк об азиатских эскимосах. Магадан, 1959. 147 с.
5. <http://www.invur.ru/index.php?page=npot&cat=npub&doc=hanty3>

## 러시아 북부 소수민족의 전통 놀이에 관련 참고 문헌

1. Богораз В.Г. «Игры малых народностей Севера»
2. Жорницкая М.Я. Народные игры чукчей и эскимосов // Полев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института этнографии 1975 г. М., 1977.
3. Леонова Н.А. Национальные игры эскимосов (с. Наукан) // Праздники и обряды народностей Чукотки. Магадан, 1990.
4. Леонтьев В.В. Национальные игры чукчей // На Севере дальнем. Магадан, 1960. С. 127 – 137. Меновицков Г.А. Эскимосы: Научно-популярный историко-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черк об азиатских эскимосах. Магадан, 1959. 147 с.
5. <http://www.invur.ru/index.php?page=npot&cat=npub&doc=hanty3>

